

# 中國學

CHINESE STUDIES

第 32 輯

大韓中國學會

*Korean Association for Chinese Studies*

2009. 4. 30

## <大韓中國學會>

고 문 : 성파 스님 조남규 여사  
명예회장 : 이근효(경성대 명예교수)  
회 장 : 김태관(동의대)  
부 회 장 : 이철리(경남대) 이인택(울산대) 임수암(경남정보대) 서석홍(부경대)  
감 사 : 이재하(경성대) 진광호(부산외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 김용운(동아대)  
위 원 : 김희준(부산대), 하영삼(경성대), 김창경(부경대), 서석홍(부경대)  
운영이사 : 강식진(부산대) 김남희(부산외대) 김성문(진주보건간호대) 김창경(부경대) 김태만(한국해양대) 이상규(영산대) 류영표(경성대) 박경실(울산대) 박추현(경상대) 신석찬(부산여대) 심형철(신라대) 박숙경(동서대) 이철리(경남대) 임효섭(동아대) 정귀화(창원대) 정옥근(동의대) 김명자(동의공업대) 왕옥지(동명대) 박용래(부산경상대) 최성경(경남정보대) 한중호(동주대)  
총무이사 : 강경구(동의대)  
학술이사 : 김창경(총괄, 고전문학 분과, 부경대)  
박노중(현대문학 분과, 동아대) 문병순(중국어학 분과, 경남대) 박재진(사회과학 분과, 동서대)  
편집위원회  
위원장 : 하영삼(경성대)  
위 원 : 문병순(경남대) 이규일(영동대) 김창경(부경대) 김태만(한국해양대) 김명구(명지대) 강경구(동의대) 손성문(진주산업대) 양만기(제주한라대학)  
섭외이사 : 김태만(한국해양대)  
기획이사 : 오창화(경성대)  
사 무 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내 (☎614-714)  
연 락 처 : 사무실: (051) 890-1252  
총무: (051) 890-1257(연구실), 016-644-4815 kkkang@deu.ac.kr  
편집: (051) 620-4266(연구실), 016-807-6738 ysha@ks.ac.kr

[題字] : 성파스님(通道寺 瑞雲庵 住持)

# 中國學

第32輯

2009年 4月

## 目 次

■ 특집: 한·중·일 문학의 근대체험	
김주현·시선과 응시, 창조와 참회의 변증법 .....	1
이호규·노신과 이광수의 유학체험과 소설의 형상화 비교연구 .....	25
강경구·한·중·일 자전체 소설에 나타난 공간의 근대성 연구 ..	51
박노종·이광수 《閨恨》과 胡適 《終身大事》의 근대성 비교 고찰 .....	77
김태관·梁啓超의 “소설계혁명”이론이 중국의 근대소설에 미친 영향분석 .....	107
김영옥·《海上花列傳》과 근대성 .....	135
권혁건·일본 근대시대 물리학교 출신의 영광과 좌절 고찰 .....	159
박성희·「근대화」의 間隙과 苦惱 .....	179
■ 일반논문	
王 平·韓國朝鮮時代 《訓蒙字會》與中國古代字書的傳乘關係考察 .....	205
김인호·閩學派의 초사학 연구 .....	221
김주승·松江 鄭澈의 漢詩에 나타난 陶淵明의 受容樣相 .....	241
김용운·李金髮 詩의 象徵主義的인 특징 .....	275
黃卓明·試論張載哲學思想對韓國儒學的影響 .....	297
장성욱·豐子愷 그림 속의 생명관 .....	307
정차근·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방안 .....	329
■ 규정	
심사규칙 및 학문윤리위원회 규정 외 .....	357

# CHINESE STUDIES

Volume 32

April 2009

## ■ Special Issues: Experience of modernity in the Literature of Korea, China & Japan

- Dialectics of sights and gaze, creation and penitence: Kwangsoo Lee and Lu Xun's books through the eyes of the science (scientists) / *Kim, Ju-hyun* ..... 1
- A Comparative Study of the Studying Abroad Experience of Noh Shin and Lee Gwang Soo and Their Early Novels / *Lee, Ho-gyoo* ..... 25
- Modernity of the Space Represented in Korean, Chinese, and Japanese Autobiographical Novels / *Kang, Kyong-koo* ..... 51
- A Comparative Study on modernity of Lee Gwang soo' s 《Kuhan》 and Hushi's 《Zhongshendashi》 / *Park, Noh-jong* ..... 77
- The influence of Liang Qichao's novel revolution theory on Chinese modern novel / *Kim, Tae-kuan* ..... 107
- A Study on 《The biographies of HaiShagHua》 and modernity / *Kim, Young-ok* ..... 135
- A Study on Glory and Frustration of One from a physics school in the Modern Period of Japan: Written around "Young Master" of Nastume Soseki / *Kwon, Hyuk-gun* ..... 159
- Modernization and Agony of Intellectuals-Mori Ougai and Lu Xun / *Park, Seong-hee* ..... 179

## ■ Articles

- A Study on the Inheritance relationshipbetween Xunmeng Zihui and the Ancient Chinese Dictionaries / *Wang, Ping* ..... 205

A Study of Chuci(楚辭) among the Min(閩) Scholars / <i>Kim, In-ho</i> .....	221
A Study on the Appearance of Tao Yan-ming's Reception in Jeong Cheol's Chinese Poetry / <i>Kim, Jou-soon</i> .....	241
A Study of Lijinfu's Symbolical Poetry / <i>Kim, Yong-woon</i> .....	275
The influence of Zhangzai's philosophy on Korean Confucianism / <i>Huang, Zhuo-ming</i> .....	297
The visions of life in drawings of Feng Zi Kai / <i>Jang, Sung-wook</i> .....	307
A Study on the Strategic Cooperation of Korea and China / <i>Jeong, Cha-geun</i> .....	329

■ **Appendix**

Editorial Rules of Korean Association for Chinese Studies & Rules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 .....	357
--	-----

## 시선과 응시, 창조와 참회의 변증법-과학(자)를 통해 본 이광수와 노신 소설\*

김주현\*\*

### 〈목 차〉

1. 들어가며
2. 의학도의 분석
  - 2.1. 해부의 감각
  - 2.2. 응시하는 자
3. 화학도의 이상
  - 3.1. 창조의 열정
  - 3.2. 참회하는 자
4. 나오며

### 1. 들어가며

이광수와 노신 문학의 비교연구가 의외로 드문 것은 비교문학 연구의 어려움을 그대로 드러낸다. 여기에는 작가 개인사 뿐 아니라 그가 성장한 땅의 문화적 풍토, 상이한 근대사, 소통에 서툰 학문 교류의 특징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단순하게 따져 10년이 넘는 두 작가의 나이차<sup>1)</sup>도 무시하기 어렵다. 더욱이 한국문학은 식민지 경험 탓에 일본문학과 비교연구가 대세였으므로 상대적으로 근대 중국문학과 관련성은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23-A00011)

\*\* 동의대학교 전임연구원(pale99@chol.com)

1) 이광수는 1892년, 노신은 1881년생이다. 이광수는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 유학했다. 1차 유학 시기는 1905년-1910년이며 2차 유학 시기는 1915-1918년이다. 노신은 1902년-1910년간 일본에 유학했으나 유학 기간만으로는 엇비슷하다. 김윤식 저, 《이광수와 그의 시대》(서울: 숲, 1999) 참고.

그러나 근래 새로운 동아시아학이 모색되면서 근대 중국 문학과 한국 문학의 공통점을 계보학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활발해지고 있다.<sup>2)</sup> 전통 사상에 의거해 동아시아 근대 문학을 설명하고 수입이 아닌 자생의 관점에서 근대성을 재조명하는 작업들은, 90년대 이후 탈식민주의 연구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사례로 검증되어야 하는 점에서 비교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근대 한국과 중국 문학을 이끈 이광수와 노신에 거듭 주목해야 하는 까닭이 또한 여기에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는 두 작가의 사실에 기대 문학 텍스트를 비교 검토하는 식이 주류였다. 전기적 사실은 문학 연구의 초석이므로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하지만 이제는 연구시각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논문은 이광수와 노신 소설의 과학(자) 표상을 매개로 작품에 나타난 근대적 주체의 자기 인식 문제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문학과 의학으로 출발한 상이한 입지는 양국을 대표하는 작가의 작품에서 어떠한 주체를 탄생시키고 있으며 그 주체화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나아가 그것은 문학과 의학이 통섭하는 현장으로 재독될 수 있지 않을까. 이 글은 지금껏 본격적으로 제기되지 않은 이 질문에 대한 시론(試論)이다.<sup>3)</sup> 이를 위해 이 글은 두 작가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중 특히 여성에 주목한다. 페미니즘이나 여성의식 같이 간결하면서도 명쾌한 관점을 우회하는 까닭은 동아시아에서 근대 혹은 전통의 심상지리를 창조/변화시키는 데 서구 근대 과학만큼 문제적인 매개도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근대 초기 과학은 남성적으로 젠더화된 근대적 주체가 태어나는 담론의 기반이었다. 그 과학이 문학과 만날 때 문

2) 90년대 후반 창비를 중심으로 한 최원식의 작업과 동아시아 학술원이 행하는 일련의 연구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3) 선행 연구에서 이러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노신 연구자 伊藤虎丸은 광인의 상징성을 과학자의 정신과 같은 맥락에 두고 노신에게 과학이 인간의 주체적 정신에 관한 문제이며 《마라시력설》에 소개한 '시인', '정신계의 투사'의 형상도 이 같은 과학자 형상의 연장이라고 보았다. 伊藤虎丸, <《狂人日記》- '狂人'康復的記錄>; <노신 創造社與日本文學>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5), 이옥연, <《광인일기》해석의 몇 가지 문제>, 중국현대문학학회 편, 《노신의 문학과 사상》(서울: 백산서당, 1996), 253-261쪽에서 재인용.

학 역시 젠더화된 근대성의 질서에 편입되어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특정한 방식으로 재현하게 되지 않았을까.

보편적으로 보더라도 근대 초기 동아시아에서 서구(근대)/아시아(전통) 개념과 여성 표상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다. 일찍부터 남성: 여성으로 비유된 구도는 근대 과학으로 무장한 우월한 승자인 서구(남성)이라는 심상이 진화론과 같은 근대 학문의 의장을 입고 아시아에 상륙한 후 한국 또는 중국과 일본의 자기인식에 막강한 영향을 행사했다. 단적으로 그것은 근대 일본에서 의사 제국주의론으로 전이되어 홋카이도라는 내부 식민지를 관리하는 정교한 틀이 되기도 했다.<sup>4)</sup>

어쩌면 이러한 사례들은 남성: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인식 구조에 거의 무의식적으로 매개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즉 한 개인의 진보적 신념이나 가치관을 지탱하는 의식의 절반은 그에 맞서는 안티테제가 역설적으로 허여한 선물이라는 것. 근대 초기 이광수와 노신의 페미니즘을 인정하면서도 다시 그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남성으로서 여성문제에 선구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이 문학을 통해 정립하려 했던 조선적이고 중국적인 주체는 그것과 별개로 서구를 의식하며 만들어진, 아시아의 조선/중국의 구성원이라는 자의식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광수와 노신이 근대적 주체 형성을 고민하면서 여성을 특정하게 초점화했다는 시각과 그 논리적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역시 별개이다. 적어도 한국문학에서 이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면 신여성을 반동적으로 전유했던 이광수의 페미니즘은 수준 높은 위선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나 반드시 그렇지마는 않은 것이다. 그것은 이광수에게 ‘민족’이 차지하는 위상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광수와 그 문학을 규명하려는 노력은 아시아와 식민지 근대라는 주름 속에 이광수와 그 문학을 다양하게 재배치하는 실천-해석 행위를 통해서 다시 한국적 근대의 복잡한 국면을 자기화하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이는 이광수 옆에 동시대의 누군가를 놓음으로써 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 노신의 경우도 사정

4) 테사 모리스 스즈끼 저, 임성모 역, 《변방에서 바라본 근대》(서울: 산치림, 2006)



은 다르지 않다. 하층여성에 대한 노신의 꺾진한 묘사로부터 노신이 그들을 잘 '이해'했고 동정했으며, 그로써 중국의 봉건성을 폭로하려 했다는 기존의 해석 옆에 이광수를 놓을 때 노신의 문학은 조금 더 선명하게 중국적인 주체의 표정을 보여주지 않을까. 여성 표상을 둘러싼 공통점과 차이는 그것을 드러내는 한 방법이다.<sup>5)</sup>

## 2. 의학도의 분석

### 2.1. 해부의 감각

소설 창작을 끝내는 25년 경까지 노신의 열정은 중국 봉건제도의 모순을 해부해내는 데 바쳐졌다. 그 중에는 널리 알려진 《광인일기》(1918)나 《아Q정전》(1921)처럼 주인공이 남성이고 풍자와 반어를 통해 서술자와 대상의 간극을 의도적으로 넓히면서 중국의 봉건성을 전면에서 내세운 작품이 있지만 반대로 《약》(1919), 《내일》(1920), 《축원례》(1924), 《이혼》(1925)처럼 서술자의 시선을 구여성에 상당히 밀착시킨 작품들이 있다. 당연히 세부 묘사의 꺾진성과 관찰력은 후자가 빼어나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주지하듯 리얼리즘론에서 대상을 그리는 꺾진성과 관찰력은 객관적 과학정신의 산물이다. 그것은 이야기(romance)성이 강한 동아시아의 서사 전통<sup>6)</sup>과는 다른 서구 자연주의 문학의 특허권과 같은 것으로 《광인

5) 이광수는 신여성, 노신은 주로 구여성을 형상화했다. 이하 본론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화학도와 의학도의 차이로 분석할 것이다. 그러나 여건상 텍스트는 18년에 나온 장편 이광수의 《개척자》와 노신의 《광인일기》, 그리고 구여성이 등장하는 노신의 많은 소설 가운데 이 논문과 관련해 특별히 문제적인 텍스트 《축원례(祝福)》(1924)를 선택했다.

6) 동아시아적 서사 전통이 학문으로서 엄정하게 성립될 수 있는지 선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근대 계몽기 한, 중, 일 문학의 서사 전통에 습합되어 있는 동아시아적 서사성을 탐색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시각은 탈식민담론의 실천으로 도입되어 서구문학의 '수용'이나 '이식'보다 전통적인 것의 '계승'과 '충돌'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진재교 외 저, 《동아시아 서사학의 전통과 근대》(서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05)) 예컨대 한국문학 관련 논문들은 서구→일본→한국이라는 기존의 근대문학 수용 경로에 대해 조선 후기 야담→서사적 논설→근대소설의 경로가 여전히 존재했다고 설명하고 있

일기》가 '문학혁명'을 알리는 작품일 수 있었던 동인이기도 했다. 이 점에서 노신은 이전 중국의 문학적 전통과 확실하게 단절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학도로서 노신의 연속성에 주목해보자.

‘환등기 사건’을 겪기까지 노신은 센다이의학전문 학교에서 2년간(1904-1906) 수학했다. 유학생 그룹에서는 자발적으로 변발을 자를 만큼 용감했지만 학교에서 노신은 일본인 교수의 총애를 받은 성실한 의학도<sup>7)</sup>였다. 수학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그가 의학을 택한 동기나, 문학으로 방향으로 틀고도 여전히 남아있는 서양 의학에 대한 신뢰를 생각하면 그 후에도 의학은 근대과학 정신의 이름으로 문인 노신에게 내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노신에게 의학은, 모리 오가이처럼 근대적 취미로 소설을 쓰면서도 의사로 살았던 일상의 학문이 아니라 봉건적 중국을 개혁할 무기로서 그가 택한 문학에 매개된 어떤 정신, 확고한 개성이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의학과 문학은 기대이상으로 친밀한 관계가 된다. 근대 조선에서도 서양 의학은 진보한 기술행위 이전에 비합리적인 아시아적 관습을 혁파하는 근대 과학의 주자로 받아들여졌던 만큼 이미 에도 시대에 서양의학을 받아들인 일본<sup>8)</sup>과 달리 근대 중국과 조선에서 의학은 인문학의 영역에 통섭해 들어가는 계몽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었다. 그것은 시대가 부여한 사명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노신 문학의 자기 객관화나 냉정함이 의학자의 시선과 매우 흡사한 것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광인일기》에서 그것은 ‘중국사를 해부’한다는 의학적 감각으로 변형되어 있다. 이는 《광인일기》의 문언부분에서 화자 ‘나’가 광인의 일기를 베끼는 까닭을 “의학자들의 연구자료로 제공”하려 한다고 밝힌 데서도 드러난다. 어찌

다.(김영민,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정-조선후기 야담과 근대계몽기 서사 양식의 연관성>, 같은 책 참고.) 물론 이 연구들은 동아시아 삼국의 서사적 전통이 동일하거나 일자로 환원된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기교와 예술성에 대한 자의식이 개입된 근대적 소설에 대해 동아시아 서사 전통을 중세적 이야기성(romance)의 우위로 보고 있는 점은 수긍할 만하다.

7) 노신 저, 《후지노 선생》, 노선문학회 편역, 《노선선집1》(서울: 여강출판사, 2003) 이하 노신의 작품은 이 책에서 인용하므로 제목과 쪽수만 명기함.

8) 에도 시대 서양 의학이 일본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는 타이먼 스크리치 저, 박경희 역, 《에도의 몸을 열다》(서울: 그린비, 2008) 참고.

서 화자는 굳이 광인의 일기를 읽을 자를 의학자로 명시하고 있는가. 이러한 감각이 중국사에 대한 패자의 오리엔탈리즘이 아님은 노신의 잡문들<sup>9)</sup>을 통해 알 수 있거니와 그렇다면 표면상 의학과 광인의 관계가 의사와 환자로 하더라도, 여기서 의사는 광인으로 표상된 중국을 치료하는 서구적 시혜자가 아니다. 텍스트 전체를 판단할 때 오히려 그는 광인이 남긴 일기를 통해 광인을 내부를 볼 줄 아는 특별한 인간으로 설명하고 해석해야 할 의무를 지닌 자이다. 그런데 독자는 또한 이 의학자의 입장에서 광인의 분석에 동조하게 되므로 결국 광인과 의학과, 독자는 한 배를 타고 광인이 보여주는 내부의 진상을 목도하는 주체가 된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러한 동지적 감각은 주로 전염병과 성병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며 창안된 근대 동아시아의 ‘위생’ 담론<sup>10)</sup>을 생산한 기능적 지식인으로서 의학자를 넘어서는 어떤 인문학적 총체성을 환기시킨다. 《광인일기》의 새로움은 의학적 시선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총체성의 감각이 아닐까. 인의도덕의 지배 담론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근대 과학의 시선. 그런데 《광인일기》에는 또한 중국의 서사적 전통이 표현하지 못하는 시선(eye)과 응시(gaze)의 변증법이 개입하고 있다. 광인은 대상을 보기만 하는 주체가 아니라 보여짐에 의해 분열되는 또 다른 자아<sup>11)</sup>에 의해 보는 주체로서의 자명성을 의심받는다.

무슨 일이나 연구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다. ① 예로부터 늘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지만 정확히는 모르고 있다. 그래서 역사책을 뒤져보았지만 역사책에는 연대도 밝혀져 있지

9) 노신의 잡문에서 근대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연구로는 서광덕, 〈노신과 근대〉, 중국현대문학학회 편, 앞의 책 참고.

10) 신규환 저, 《질병의 사회사》(서울: 살림, 2006)

11) 자크 라캉 저, 권택영 역, 《욕망 이론》(서울: 문예출판사, 1993)

라캉에 의하면 응시는 바라보기만 하던 데서 보여짐을 깨닫는 순간 일어난다. 주체의 욕망은 주체의 시선이 그리는 대상에서보다 그 대상을 통해 보여지는 자아를 깨닫는 데서 확연히 드러난다. 장자의 꿈을 예로 들면 꿈 속에서 그는 나비였으나 현실 속에서는 나비에 의해 보여지는 자아를 봄으로써 시선과 응시의 변증법이 발생한다.

않고 그저 '인의도덕(仁義道德)이라는 글자가 장마다 괴발개발 적혀 있을 뿐이다. ② 잠을 이룰 수가 없어 밤중까지 열심히 책장을 들여다 보았더니 마침내 자간에서 글자가 나타나는 것이었다. 책에는 '사람을 잡아먹는다(食人)'는 글자 천지였다.  
책에는 이런 글자들이 가득 써어 있었고, 소작인도 이런 말을 수없이 했다. ③ 그런데 키득거리면서 이상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나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를 잡아먹으려는 것이다!  
(《광인일기》, 30쪽)

①과 ②는 보는 위치에 있는 광인의 시선을 나타낸다. 그는 지금 중국사라는 거대한 텍스트를 '열어보는' 자이다. 외부를 열면 '무엇'이 있을까. 따져보면 과거에 대한 반성-역사책을 뒤져보는 행위-은 늘 존재해왔다. 경전과 사료는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언제나 과거를 소환했고, 지배계급에서 그것은 현재를 객관화하는 특정한 방식으로 보편화되어 있었다. 인의도덕이란 그러한 반성이 낳은 지배계급의 시선인 셈이다. 그러나 ②에서 광인은 그것이 죽임(식인)임을 발견함으로써 지배의 시선을 전복시키는 또 다른 시선의 소유자가 된다. 이 시선이 의학이거니와, 문체는 그 시선의 출처이다. 이 시선의 출처가 서구 제국주의라는 점이 광인의 위치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광인은 곳곳에서 자신을 비웃고 쏘아보는 수많은 '눈'들과 마주치며 혼란에 빠지는데, 이는 중화사상에 매여 일찍이 자신을 보여지는 대상으로 파악해 본적 없는 내부자들을 상징한다. 에도 시대의 난학이 알려주듯 내부에 대한 의문은 강력한 외부(타자)를 의식함으로써 시작된다. 에도 시대 난학이 일본인의 사유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무언가를 절개하고 해부해서 알아본다는 인식 방법이었다. 그것은 안과 밖, 신체의 내부와 외부를 텅 빈 동일자로 인식하는 한의학과 불교적 사유 체계를 흔들면서 회의와 실증이라는 과학적 방식을 다른 학문 영역에도 보급시켰다. 그런데 근세 일본에서 난학은 중국으로 대변되는 아시아적 사유를 회의하게 만든 최초의 계기이기는 했으며 일본사회가 가졌던 텅 빈 내부에 확신을 혁명적으로 대체했다고는 보기 어려웠다.<sup>12)</sup> 열강과의 접촉

12) 타이먼 스크리치 저, 앞의 책, 341-345쪽 참고.  
타이먼 스크리치는 “절개해 보는 것이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 제한적이었던 에도 시대의 사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광인일기》에서는 시선의 출처를 의심하는 눈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③이며, 따라서 이는 광인의 각성을 봉건적 중국사와 각성자인 자신마저 대상화하는 이중의 부정정신으로 파악한 논자들의 견해와도 상통한다.<sup>13)</sup> 이제 그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 2.2. 응시하는 자

《광인일기》에서 광인의 타자들은 매우 다양하다. 조위영감과 개, 그를 독살스럽게 쏘아보는 아이, 차갑게 웃으며 눈에 독살스러운 빛을 띤 형, 광인을 진료하는 진로오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광인의 각성을 되받아치는 무지한 대중들이다. 광인이 역사를 해부해 발견한 식인이라는 악덕을 미치광이의 헛소리로 돌려보내는 이들은 텍스트의 반동인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응시가 없다면 《광인일기》는 문자 그대로 광인의 독백이 되거나 해부하는 자의 절대적 우월성이 앞선 단조로운 작품이 되었을 터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타자가 있음으로써 존재하는 주체의 논법에 따르면 이들은 광인을 만드는 또 다른 주체들이다. 광인을 진단하고 처방하며 감금하는 일련의 행위들은 역설적으로 이들이 광인을 '치료'할 수도 있는 집단화된 주체임을 뜻한다. 그것이 집단으로의 동화이든 혹은 광인의 자기기만이든 어쨌든 이들은 광인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강제하는 거대한 힘이다.(실제로 광인은 병이 나아 관리 후보로 가게 된다) 문언부의 서술자가 꼬집어서 말한 의학자가 보다 공정한 자라면 한 문제적 개인과 다수의 대중이라는 '차이'를 간과할 수 없을 터이다.

---

네덜란드와 달리 근세 일본에서는 해부 지식이 큰 힘이 되지 못했다고 결론 내리는데 그 까닭으로 일본 고유의 궁극적인 진리에 대한 인식을 든다. 즉 궁극적인 진리가 무(無)라는 관념이 절개한 내부에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무에 대한 인식을 대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13) 《광인일기》는 액자식 구성으로 외화에 해당하는 문언부분의 '나'와 내화의 화자 광인의 관계를 위시해 여러 측면에서 해석상 논란이 있어왔다.

의학도로서 노신의 태도가 빛을 발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 그는 해부의 대상(중국)과 해부하는 자(근대적 주체)의 관계를 부단히 역전시킴으로써 자신의 출처를 은폐하고 기능적으로 가치중립화하려는 근대 과학의 헤게모니에 반기를 들고 출처의 중요성을 환기시킨다. 물론 이것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이는 노신이 가치중립적인 의학으로부터 훨씬 주관적인 문학으로 넘어오면서 동반하게 된, 근대적 주체로서 자신의 위치를 질문하는 방식에 틀림없다. 이후의 작품들-《약》, 《내일》, 《축원례》, 《이혼》에 출몰하는 피지배층의 응시는 이러한 추론에 힘을 보탠다. 그 중에서도 《축원례》은 이 과정을 직접적이면서도 독특한 상징으로 보여준다.

주지하듯 《축원례》의 인공은 구가족제도의 희생양으로 두 번의 결혼에 실패한 상림아주머니다. 작가의 분신처럼 보이는 근대적 주체 '나'가 축원례를 앞두고 고향에서 그녀와 마주쳤을 때, 그녀는 구걸을 할 것이라는 나의 예상을 깨고 놀라운 질문을 던진다.

"마침 잘 됐네요. 닉은 글도 아시고 외지에도 나가 계시니 아는 게 많을 테지요.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요."

그 여자의 정기 없던 두 눈이 갑자기 빛났다. 이런 말을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나는 얼떨떨한 채 서 있었다.

"저…."

그 여자는 두어 걸음 다가서며 큰 비밀이라도 말하려는 듯 목소리를 낮추어 절절히 묻는 것이었다.

"사람이 죽은 뒤에 영혼이 있나요, 없나요?"

나는 몸이 오싹해졌다. **그 여자가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자 등줄기에 가시라도 박힌 듯한 느낌이었다.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시험을 치면서 옆에 와서 딱 붙어선 때보다도 더 당황했다.**

**① 나는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본 일이 없었다.**(《축원례(祝福)》, 183-184쪽)

이 질문은 근대적 주체인 나와 전근대적인 그녀의 위치를 단번에 역전시킨다. 즉 이 순간 그녀는 이 고장 사람을 벗어난 독특한 위치에서 질문하고 있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적이다. 첫째, 그녀는 화자가 이어서 밝혔듯이, 이 고장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믿고 있는' 귀

신의 존재에 대한 화자(근대적 주체)의 판단을 묻는데 이는 화자가 습득한 지식을 초월하는, 근대과학으로서도 답하기 어려운 물음이다. 영혼의 존재 여부는 과학이 답할 수 없는 영역인 탓이다.

그러므로 나의 입장에서 ①을 보면 그녀는 지금 게임의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 비유하자면 이는 해부 결과로 드러난 뼈를 보면서도 "자 뼈는 뻤어. 그런데 영혼은 어딴지?"라고 묻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그녀는 자신의 '실존'을 걸고 근대적 주체라면 결코 묻지 않는 질문을 통해 '나'의 무심한 시선을 그녀의 절박한 응시로 압도한다. 화자가 진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sup>14)</sup>

둘째, 그녀는 내부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타자이다. 나는 "죽은 가족을 만날 수 있느냐"는 이 불행한 타자의 질문에 "주눅이 들어" 겨우 "정확하게는 모릅니다"고 답한다. 사실 화자로서는 최선의 대답을 한 셈이다. 근대과학을 배운 누구라도 다른 대답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대답이 축원례를 앞두고 그녀의 죽음에 관여하게 되었을 때, 화자는 고향에서도 타자인 그녀를 더 이상 기능적이거나 중립적인 태도에서 바라볼 수 없다. 어떻게든 그는 그녀의 사연에 '반응'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녀를 다시 고향 사람들의 위치로 되돌리는 방법에 의해서이다.

그녀는 어찌서 마을의 타자가 되었는가. 상림아주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인간을 굴복시키는 힘을 가진 신화적 자연이다.<sup>15)</sup> 재가(再嫁)한 그녀의 행복을 거두어 간 존재는 신화적 자연으로 현현한 늑대이다. 늑대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습관적인 예측을 깨고 봄철에 나타나 그녀의 아이를 데리고 감으로써 그녀를 "바보"로 만든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 비극은 함부로 발설되어서는 안 되는 장면, 초자연의 힘에 대한 공포가 낳은 모종의 금기에 대한 통념을 상기시킨다.

그럼에도 상림아주머니는 이를 어기고 아모의 죽음을 거듭 재현하는

14) 화자의 태도는 이학자(理學者)이자 국자감(國子監) 감생(監生)인 '넷째 아저씨'나 기타 고향 사람들을 대할 때의 방관자적 태도와는 확실히 다르다. 상림아주머니를 만난 후 그는 자신의 답이 미쳤을 영향 때문에 끝없이 불안해하고 어서 빨리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15) 아드르노, 호르크 하이머 저, 김유동 역, 《계몽의 변증법》(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1)

우를 범했다. 몇 번이고 반복된 묘사-"그 애가 풀숲 옹덩이에 누워 있는데 오장은 다 파먹히고 없잖았어요. 그래도 손엔 그 작은 바구니를 꼭 틀어쥐고..."-의 결과 노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의 비극에 예전처럼 눈물을 흘리거나 감응하지 못하게 된다. 송고의 주술이 풀린 후 남은 것은 사람들의 "짜늘하고 가시 돋친" 웃음일 따름이다. 요컨대 그녀는 초자연의 비밀을 사사(私事)화하여 다시 내부인이 되려 한 데 대한 벌을 받은 것이다. 그것은 폐쇄된 집단이 흔히 저지르는, 규칙을 깬 자를 징벌하기 위한 부당한 공모지만 이로써 화자는 그녀의 타자성의 출처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화자의 입장에서 비극의 의미는 전혀 다른 데 있다. 사연을 알기 전은 물론이고 전후사정을 듣고 나서도 나에게 상립아주머니는 공동체에서 내쳐진 타자가 아니라 내부인이면서도 공동체 주민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를 응시하는 자이다. 초자연의 위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사사화하기까지 했음에도 전재산을 털어 문지방을 시주하고 다시 영혼에 대해 질문하는 자. 그 응시 앞에 선 화자에게 더 이상 고향은 단일한 이미지의 땅일 수 없다. 이제 노진은 온갖 지배 담론과 피지배층의 관습이 공존하고 충돌하는 투쟁의 공간이다. 즉 《축원례》에서 상립아주머니는 유일무이한 개별자가 아니라 폐쇄적 공동체가 그 내부 안에서 문제적 인물을 만들어내고 이에 대처하는 과정을 비극적으로 재현하는 기호이다.

다만 화자와의 관계에서는 그녀가 던진 질문을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 질문 자체는 순수한 인식론에 속하나 나의 지식은 그녀의 '슬픔'을 덜어주거나 그녀의 생명을 구할 수 없다. 그것은 노신이 이상적인 인물로 들었던 니체의 초인이나 마을의 구성원들이 환골탈태하여 그녀를 우애와 사랑으로 대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녀의 사연은 근대 과학도 손을 든, 삶의 본질에 관한 철학적 우화인 탓이다.

어떻든 그녀의 응시를 자각한 화자는 행동은 다소 기묘하다. 그는 이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치는 것을 포기하고 비겁하게도 폭죽소리에 젖어 "마음이 한결 거뜨하고 가벼워져" 그것을 신들의 몫으로 돌린다. 그 결과 작품을 뒤흔든 그녀의 응시는 축제를 즐기는 화자의 의식 아래로 침



잠해서 묻힌다. 무책임한 태도이다. 허나 뒤집어 보면 이는 과학의 한계에 대한 쓸쓸한 비유이기도 하다. 이 작품에서 과학은 《광인일기》보다 훨씬 명료하게 그 자신의 한계를 목도했고 그로써 화자 역시 근대적 지식을 습득한 외부인의 위치에서 벗어나 자신을 객관화한다. 물론 이것이 중국적인 것에 대한 작가의 긍정인지는 선불리 답하기 어렵다. 《춘원례》는 단지 뚜렷한 징후일 따름이다.

### 3. 화학도의 이상

#### 3.1. 창조적 열정

노신과 달리 이광수는 평생 소설을 썼다. 논설이나 잡문도 적지 않지만 이광수 문학의 본령은 역시 소설이었다. 평생 소설을 쓰면서 춘원은 《무정》에서 드러낸 계몽주의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았다. 춘원에게 문학은 민족 계몽을 위한 수단이었다. 이 점은 노신과 공유될 만한 사항으로 진작부터 두 작가의 비교 연구를 위한 참조점이 되었다.

한편 이광수와 노신이 소설을 발표한 시기 또한 비슷하다. 노신이 《광인일기》를 썼을 무렵 이광수는 대표작 《무정》을 이어 《개척자》를 발표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개척자》의 주인공은 화학도와 그의 누이이다. 왜 하필이면 화학도일까. 확실히 이는 문학가나 법률가, 경제인을 그린 것과는 다른 특별한 느낌을 풍긴다. 이는 또한 춘원이 그리는 과학자가 대개 의사인 점에 비추어도 특이하다. 춘원이 의사를 자주 그린 데에는 그 아내가 의사였던 것, 체질상 의사를 자주 접한 사정, 나아가 근대 초기 조선의 논설가들이 서양 의학을 조선의 전근대성과 대조되는 문명개화의 상징으로 받아들인 사정이 두루 개입해 있다. 물론 춘원의 작품에서 의사는 지사·속물이라는 상반된 존재로 등장하는 등 단일한 심상은 아니다.<sup>16)</sup>

그러나 근대 초기에 화학은 의학과도 다른 특별한 학문이었다. 화학은 순수학문이기보다는 서구 제국주의의 힘을 증대시킨 마술적 힘이며

16) 지사형 의사로는 《사랑》의 안빈을, 속물형 의사로는 《혁명가의 아내》에 등장하는 권을 들 수 있다.

식민지 경영에 필요했던 지리나 역사와는 또 다른 이유로 각광받은 근대학문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춘원은 1929년에 쓴 수필 속에서 회고하고 있다. 춘원의 기억 속에서 화학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一種 神秘 不可思議한 新文明"이다.

一進會에서 日本에 派遣할 留學生을 選擇할 때에 嚴-이라고 同會幹部가 와서 光武學校學生에게 一場의 留學勸誘演說을 하였다. 그 中에 이러한 句節을 나는 記憶한다.

"화학工夫라는 工夫가 있는데 그 工夫를 하면 十二諸國 어디를 가도 上等人이 되어서 火輪車 火輪船도 空中으로 타고 다닌다. 工夫를 한 사람은 日本에도 두 사람밖에 아직 없다."

그 '화학'이라는 것이 分明히 '化學'이란 뜻이겠지마는 그 때에 들을 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므로, '대체 좋은 工夫도 있지. 나는 가면 화학工夫를 하리라'하고 나는 굳게 결심하였다.<sup>17)</sup>

화학이 중세를 풍미한 연금술의 매혹을 벗어나 물질의 변화를 다루는 실험적 학문으로 탈바꿈한 시기는 17세기 말에 이르러서이다.<sup>18)</sup> 그러나 여전히 근대 화학은 화약, 대포 등 제국의 번영에 불가결한 무기를 만드는 새로운 연금술이었고 그것은 근대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다. 춘원의 기억이 불완전할 수는 있지만 《學之光》을 보더라도 춘원의 기억과 유사한 글<sup>19)</sup>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당시에 화학은 의학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근대 과학의 창조력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겠다.

물론 14세의 춘원은 화학이 아니라 문학을 택했다. 그러나 앞에서 보

17) 이광수 저, 〈主人조차 그리운 二十年前的 京城〉, 《이광수 전집 14》(서울: 삼중당, 1968), 314쪽. 이하 이광수의 《개척자》도 이 전집에서 인용하므로 전집 권수와 쪽수만 명기.

18) 존 허드슨 저, 고문주 역, 《화학의 역사》(서울: 북스힐, 2005)

19) 斗南公民, 〈과학계의 일대혁명〉, 《학지광》4(1915)

이 글은 라듐의 탄생과 효력에 대해 매우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라듐이 X선과 흡사하게 맹인에게 빛을 돌려주는 신비한 힘이 있다거나 라듐으로 사기를 치는 상인, 일본의 온천에 발생하는 라듐 이야기는 라듐을 '만병통치약'처럼 인식하고 있다. 근대화학의 위상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필자는 "朝鮮 사람은 이 大發見에 參與할 權利가 없는것과갓치 研究하야본단말도 듯지못허니 科學界의 主權者가 "世界는내物件"이라 善言헌것을 듯지못하였나?"는 말로 끝맺는다.

있듯이 화학과 문학에는 '창조'의 감각이 공통적으로 개입한다. 창조는 혁신이나 쇄신 등 기존의 것을 부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드는 작업이다. 동경 유학생이 주축이 되었던 조선의 문명개화론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신문명의 건설을 주장했는데, 이를 설파했던 막중한 매체가 다름 아닌 문학이었다. 즉 비교적 이른 시기에 도일해 메이지 학원에서 발군의 어학 실력을 익힌 춘원에게 당연히 문학은 여기나 취미가 아니라 조선의 문명개화를 위해 택한 무기였던 것이다. 초기 춘원의 문명개화론과 이후의 민족개조론을 관통하는 핵심은 이것이며, 그것을 한마디로 '창조(자)의 이상'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무정》은 춘원이 창조에 성공한 최초의 근대 소설이었거니와 이제 춘원은 영문학도가 아니라 화학도를 내세워 문학적 이상을 설파한다. 허나 아쉽게도 《개척자》가 보여주는 것은 식민지에서 실패를 거듭하는 연금술사의 모습<sup>20)</sup>이다.

《개척자》의 스토리는 단순하다. 동경의 고등 공업학교를 졸업한 성재는 귀국 후 7년째 모종의 화학실험에 매달리느라 가산을 탕진하고 부친마저 별세하기에 이른다. 원하는 '물질'을 얻지 못한 그에게는 화학도의 유별난 자의식과 그에게 헌신적인 누이 성순이 남아있다. 그런데 정작 성재의 욕망은 무엇인가. 우선 그가 매달리는 것은 실험의 성공이다. 그러나 실험이란 으레 실패하는 것이 아니던가. 정작 주목해야 할 것은 실험의 성공이 약속하는 그 무엇인데, 여기서 성재의 욕망은 가정과 사회를 통합하고 있다.

실로 성재의 책임은 너무 중하다. ① 수다한 식구의 활계(活計)가 이제는 전혀 성재의 손에 달렸다 할 수밖에 없다. 가족이 일생에 먹을 것을 성재의 손으로 운동 시험관에 넣고 말았으니 이제는 그것을 시험관에서 다시 찾을 수밖에 없이 되었다. ② 만일 성재의 계획이 성공

20) 실험실에 고독하게 박혀 시계(팔각종)에 맞춰 약품을 타고 시험관을 돌리는 성재의 모습 자체가 연금술사이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것이 어떤 실험인지, 그 실험이 어디에 기여할지는 나오지 않는다. 다만 창조의 열정과 성공하면 많은 돈을 벌리라는 기대에 홀려 실험을 멈추지 못하는 자동인형 같은 모습에서 식민지 지식인의 근원적인 불안이 끝없이 환기된다.

이 되어 목적인 발명품이 여러 나라의 전매 특허를 얻고 경성에 그 특허품을 제조하고 큰 공장이 서는 날이면 성재의 몽상(夢想)한 바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만일 아주 실패하는 날이면 성재의 일가족은 거지가 될 수밖에 없다.<sup>21)</sup>

①에서 보이듯 가장 큰 욕망은 가게 재건이지만, ②에서 이는 자연스럽게 민족 경제를 일으키는 수단이 되어 성재의 공명심을 끌어안는다. 그러나 실험이 계속 실패하면서 통합되어 있던 성재의 욕망은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는 형태가 된다. 개인적 명예욕이 앞서면서 선각자의 책임은 방기된다. 이는 성순과의 관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중언이지만 《개척자》에서 성재는 일개 화학자가 아니라 조국이 원하는 근대적 주체이다. 성재의 《개척자》적 기질은 그가 전조선을 털어 희귀한 화학자<sup>22)</sup>라는 점 외에 진보적인 여성교육에 대한 그의 태도로도 알 수 있다. 성재는 실험이 성공하면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순을 동경에 유학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약속이 성순을 더욱 헌신하게 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실험은 "될 듯 될 듯하면서도" 실패한다. 그것은 당연한 결과다. 앞선 인용문에서 보았듯이 화학은 약품 하나, 실험 기구 하나 변변히 살 데 없는 식민지 조선에서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학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재의 열정은, 법이나 문학, 경제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귀국 후 스스로 활동의 場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음악이나 미술과 비교해도 그야말로 무용한 몽상이다.<sup>23)</sup>

21) 이광수 저, 전집 1, 《개척자》, 229-330쪽.

22) 화학자 성재는 한국 근대과학사에 비추어도 매우 예외적 인물이다. 해방 이전의 화학분야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주로 일본유학생 출신이었는데, 이들 역시 대부분 학업을 끝까지 끝마치지 않고 귀국해 사립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일제강점기 국내에서는 경성공업전문, 연희전문, 숭실전문, 대동공업전문, 세브란스의학전문 학교에서 6명 정도가 화학을 가르쳤다. 화학 관련 고등인력은 해방 당시 1백명도 채 되지 않았다. 문만용, 김영식 저, 《한국 근대과학 형성자료》(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108-109쪽.

23) 《개척자》에 등장하는 근대 학문의 위상에 대해서는 미술학도 민의 말을 참고할 것.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미술 없는 조선 사람에게 미술을 주려고 하는 것이야요. 즉 제가 이 도토리가 되어서 움이 나서 자라서, 자꾸자꾸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이러한 도토리를 많이 맺잔 말이야요.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지금 그림 그리는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지마는 장차는 수백명 수십 명 있게 하자는 말이지요. -알아들으십니까. 선생도 그렇지요. 자기

근대적 주체로 등장했던 성재의 진보성이 갈수록 퇴조하는 것도 이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비슷하게 우유부단하면서도 수월하게 세 처녀의 지도자가 되는 《무정》의 형식과 비교하면 성재의 이상은 《개척자》의 같은 유학생 중에서도 유독 구체성이 떨어진다. 형식이 가진 무기인 영어 능력은 신문명의 전도사로서 수월하게 그를 계몽을 설파하는 용변가로 만들었지만 성재의 욕망은 도저히 이러한 언어로는 실현될 수 없다. 구체적인 물질(결과)을 얻지 못하면 무용한 욕망이란 고아라도 성공할 수 있는 이상이 아니라 기꺼이 가산을 없애면서 실패(해야)하는 이상이다. 이렇듯 《개척자》에서 화학은 매우 위태로운 기표이다.

그러나 이 기표는 조선의 근대적 주체 대부분이 품었음직한 창조의 이상을 열정적으로 대변한다. 성재는 정신을 잃을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시험관”을 외치고 빛을 갖지 못해 초가집으로 이사한 후에도 따로 실험실을 가진다. 동남 약품에 비하면 굶주리는 가족도, 실험을 질투하는 아내도 오히려 대수롭지 않다. 성재는 자신만을 바라보는 자이기에 비록 도피했을지언정 피지배층의 응시를 자각한 《축원례》의 화자와는 다르다.

그런데 창조의 열정은 이상이 좌절되는 순간 반동적인 방법으로 계속 된다. 실험을 계속하기 위해, 성재는 근대적 주체이자 주인공이었던 자신의 자리를 성순에게 내어주고 이제 박해자가 되어 (자신이 키운)성순의 주체성을 억압하는 봉건적 인물이 된다. 그렇다면 성재의 이상은 위선자의 사욕일 뿐인가. 여기서 춘원은 성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주체성을 기묘한 방식으로 지켜나가는 거룩한 신여성을 창조한다.

### 3.2. 참회하는 자

《무정》의 기생 영체가 그랬듯이 《개척자》의 성순 역시 현실적 인물이 아니다. 그녀는 성재를 대신해 참회하는 자이다. 문제는 그녀의 극단적인 참회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성재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데 있다.

---

혼자서 아무리 큰 발명을 한다 하면 그것이 무엇이 귀찮니까. 선생같은 화학자가 수백인 수천인 나게 해야 비로소 뜻이 있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347쪽)

성재가 가장의 권위로 강제 결혼을 종용하자 사랑에 눈 뜬 성순은 성재에 맞서 자살을 시도한다. 그러자 성재는 돌변하여 참회하는 자가 된다. 이러한 극적 전개는 춘원 소설의 특징이거니와, 성재가 뉘우친 것은 무엇인가. 성재의 뉘우침은 오직 성순만을 향한 것일까.

성순이 사랑에 빠진 대상 민의 존재는 이 질문에 대한 열쇠이다. 민은 화가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민은 성재의 실험실을 드나드는 동료 유학생으로서 종종 심미안을 가진 화가라기보다 조선을 발견하고 조선의 식물을 채집하는 생물학자에 가까운 태도를 보인다. 또 계몽적 태도에서도 그는 성재를 능가한다. 그는 고독한 연금술사를 대신해 성순에게 근대 학문의 존재가치를 조목조목 가르친다.

성순은 민이 하던 말을 잘 기억한다. 자기가 미술을 배움은 조선인에게 복된 눈 하나를 더 주려 함이다. (...)우리 조선이 남겨 준 위대하고 미려한 미술품을 보고 기뻐하는 눈-. 그러한 눈을 주려 함이다. 자연은 인생에게 세 가지 세계를 주었다. 진(眞) 세계, 선(善)의 세계, 미(美)의 세계, 진의 세계의 재산은 과학으로 찾을 것, 선의 세계의 재산은 아름다운 사회와 가정과 개인의 품성(品性)에서 찾을 것, 그리하고, 미의 세계는 예술로 찾을 것이다.(...) 낡은 조선이 빈약하고 비추(鄙醜)한 것은, 이 마땅히 찾을 재산을 찾지 아니하였음이니, 우리가 건설할 새 조선은 찾을 수 있는 대로 이것을 찾아서 부강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조선이 되어야 한다.(399쪽)

민의 말은 성순에게 음악가의 꿈을 꾸게 하는 등 성재의 영향권에 있었던 성순을 새로운 주체로 탈바꿈시킨다. 성재: 성순·민의 대립은 가부장제와 제후한 화학도의 근대성: 이를 거부하는 예술가의 근대성으로 전환된다. 그런데 정작 돈이 없어 실험을 중단한 성재에게는 성순의 주체성이 장애가 되기에, 두 주체성이 충돌하는 자리에서 성재는 가부장의 권위에 기대 성순을 재력가 변과 결혼시키려고 한다. 실험에 대한 욕망이 여성 교육에 적극적이었던 성재를 자기합리화를 거친 가부장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성재의 이러한 자기 합리화가 성순을 위한다는 명목에서 나오고 있는 점이다. 성재는 민이 기혼남인 것을 들어 그를 거부한다.

확실히 이는 중요한 문제지만 최종적으로 그것은 성순의 몫이지 성재가 명령할 사항은 아니다. 신여성의 혼사에 가부장의 관여가 드물지 않았지만<sup>24)</sup> 성순과 민의 연애에는 이러한 모랄을 초월하는 신성성이 지배한다. 사실 《개척자》에서 춘원은 이를 전면적으로 드러냈고 따라서 거기에 성재의 욕망이 왜곡되어 의탁되어 있음을 굳이 숨기지 않는다. 결말 부분에서 성재는 민에게 성순을 아내로 불러달라고 부탁한 후 성순의 목숨이 남은 시간을 과학적으로 선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이상한 태도야말로 성재의 참회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증거이다.

참회의 진정한 주체는 성순인 것이다. 성순은 보통학교를 졸업한 신여성으로, 성재의 실험실을 ‘특별히’ 들락거리면서 동경 유학을 약속받는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성재의 영향은 민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오히려 연애의 자유를 행하려 할 때 성재는 막강한 적이 되어 성순의 권리를 가족집단의 행복과 맞바꾸게 하고 그 자유의 행사를 참회시킨다. 성순의 참회는 유서에 절절이 나타나 있다.

용서하십시오. 당신을 외롭게 찬 세상에 두고 나만 편안한 나라로 돌아가려 하는 것이 죄인줄 아옵니다. 그러나, 모친의 슬퍼하심과 오빠의 책망하심은 제가 견디기에는 너무 무거웁니다. 앞날에 우리의 전도에 다닥뜨릴 비난과 공격은 제가 견디기에는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십시오. 저는 찬 세상에 당신을 혼자 두고 먼저 달아납니다.(중략)저는 갑니다. 제가 간 뒤에도 어머님께서는 내내 무양(無恙)하시고 오빠께서는 아무리 하여서라도 실험에 성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온 집안 속히 제가 죽은 슬픔을 잊고 행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나라가 문명하고 번창하여 주십시오. 정의와, 자유와, 행복과 사랑의 나라가 되게하여 주십시오.(456-457쪽)

성순은 민을 두고 죽는 것과 어머니와 오빠의 믿음을 저버린 행위에 용서를 구한 후 성재의 성공을 빌고 또 나라를 걱정하면서 세상을 뜬

24) 노신도 그렇지만 실제로도 근대 한국에서 기혼남과 신여성의 연애는 흔했다. 이광수 역시 일본에서 나혜석과 연애감정을 가졌으나 나혜석의 오빠 나경석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그런데 나경석이 춘원 대신 소개한 최승구도 기혼남이었으니, 남녀를 막론하고 당시 신여성이 이러한 제약을 성순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 각설하고 아무리 봐도 이루지 못할 사랑 때문에 죽는 이의 태도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것은 차라리 순교자의 태도이다. 그런즉 이 과장된 심경은 당연히 《무정》에 성공한 춘원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롭게 이상을 추구하다 순교하는 여성을 창조함으로써 조선사회에 던지는 충격적인 계몽의 메시지일 터이다. 그런데 신소설에서도 민족의 수난을 표상하고 독자의 공감을 끌어내는 시대의 아이콘으로 젊은 여성이 등장했던 선례가 있었으니 이러한 발상 자체는 시대의 조류를 탄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성재와 민을 화해시키는 성순의 죽음에는 특별한 장치가 있다. 성순이 마신 독약은 다름 아닌 성재의 실험실에서 나온 유산이다. 성순은 그것의 의미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내 몸이 다 타서 없어져-”

하고 성순은 생각하였다. 그러나 자기의 골육이 온통 다 타버리고 만다 하더라도 무엇이나 타지지 않고 남을 것이 있을 것 같았다. 그것은 성순의 생각에는 자기의 사랑이었다. 그렇게 미묘한 것이, 그렇게 신기한 것이 타버리고 말리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자기의 육체가 소멸되고 만 뒤에, 그 사랑만이 뛰어나서 영원히 영원히 살아있을 것 같았다.(454쪽)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유산 음독은 성재와 민을 향한 성순의 뜨거운 애정을 보여줄 뿐 정작 성재에게는 특별한 반성을 끌어내지 않는다. 성재를 당황시킨 사실은 자신의 오해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지 상대적으로 강자인 자신의 주체성이 약자를 죽음으로 내몬 데 대한 반성적 인식은 약하다.<sup>25)</sup> 극단적으로 성재는 화학도로서 극약을 소홀히 관리한 데 대한 의식도 없다. 즉 용서받아야 할 이는 성재인데도 오히려 성순이 용서를 빌고 성재는 이를 받아들이는 진풍경이 연출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장면은 어렵지 않게 다음의 의미를 획득한다; 성순의 죽음은 이후 한국 근대 소설에서 어렵지 않게

25) 수없이 자신을 용서하라는 성순의 요구에 성재는 단 한번 “오냐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다오. 네 속을 모르는 것도 아니련마는 그랬고나.”고 답한다.(459쪽) 민 역시 사정은 동일하다. 여건상 성순의 순정을 외면했던 민은 성순의 죽음 앞에서 성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계몽주의자가 된다.



반복되는 패턴의 한 기원이지 않을까. 성재와 민, 그 가운데 있는 성순의 지극히 젠더화된 주체성은, 한국 근대 소설에서 위기에 처한 남성 주체가 여성을 이용해 자아를 통합하는 과정을 전형적으로, 그리고 선구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성순이 신여성인 점은 대단히 문제적이다. 성순의 죽음은 진보와 봉건 사이에서 분열되었던 화학도의 주체성을 단번에 통합시키고 한편으로 과학이라는 근대 학문이 아시아의 식민지에서 뿌리내리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젠더화한다. 그렇기에 이렇게 젠더화된 주체는 춘원이 기획한 계몽의 이상 속에서 얼마든지 역경을 딛고 성장하는 근대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그를 대신해 참회하는 자를 가졌기 때문이다.

#### 4. 나오며

근대 한국 문학에서 구여성은 무식하고 관습을 좇으며 간혹 분예 넘치는 욕심을 부리지만 대체로 선량한 하층민으로 표상되었다. 현진건, 이기영, 강경애의 작품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여성이 그렇거니와 이로써 이들은 '불행한 조국'을 상징하는 알기 쉬운 환유가 되었다. 그들의 고난과 희생은 수난당하는 조국의 운명과 동일하게 읽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따져보면 여기에는 분명 의아한 구석이 있다. 구여성은 대관절 언제부터 문학사에 등장했을까. 한국문학에서 이들 구여성이 계급성을 획득하는 시기는 카프(KAPF)의 등장과 맞물려 있지만 사실 이들은 어느날 혜성처럼 문학사에 신여성이라는 강력한 존재가 등장하면서 저절로 특정한 의미로 자연화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예컨대 근대일본문학의 기원을 논하며 가라타니 고진은 일본 근대 문학에서 근대 문학이 자연화되어가는 과정을 '풍경의 발견'이라는 발상으로 설명한 바 있다.<sup>26)</sup> 고진의 설명처럼 기원이 사후적으로 구축된다면 구여성이라는 '슬픈' 기원 역시 신여성이 등장한 후 이와는 대조적으로 구축된 근대적 관념이기도 할 것이다.<sup>27)</sup>

26) 가라타니 고진 저, 박유하 역, 《일본근대문학의 기원》(서울: 민음사, 1997)

이러한 관점에서 노신의 소설을 보면 노신이 바라본 하층민, 특히 구여성의 모습에서는 이제 막 재현되기 시작하는 '중국적인 것'의 기원으로 그 의미가 안착되고 있는 구여성의 존재가 감지된다. 서술자의 시선은 이들을 집요하게, 그리고 꾸준히 따라간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종종 익숙하기보다 기묘하게 낯선 존재로 다가오는 점이다. 병든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내일》)는 한국 소설의 어머니보다 더 늙고 체념적이며 비합리적이다. 근대 한국 문학에 비해 어딘가 지나친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 지나침의 배후로 의학도의 시선을 되받아치는 응시를 지목했지만 여기에는 또한 노신의 개인사도 개입하고 있다. 노신이 《광인일기》에서 의학도의 감각으로 이 슬픈 기원을 해부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그는 성숙한 장년이었던 것이다. 떠나온 자였으되 한편으로 여전히 고향의 이런저런 풍속을 기억하고 그곳에 아내를 둔 내부인이기도 했던 그의 처지는 노신의 문학에서 의학이 가치중립적 지위를 넘어서 그 시선의 권위를 감지하는 자기반성적인 기제로 전환되는 것을 설명해준다. 주체의 시선과 응시가 뒤엉키는 곳에서 의학은 문학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축원례》에서 이 슬픈 기원이 가르쳐 준 것은, 뒤늦었지만 주체가 되기 전에 이미 대상이었던 의학자 자신이다.

반면 이광수는 이 점에서 훨씬 자유로웠다. 동일한 이유를 붙이면, 십대에 유학을 떠나 문명을 날리면서 춘원에게는 이 슬픈 기원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춘원을 추동한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연금술의 이상이었고 그것은 귀국한 춘원이 창조해야 할 근대문학 자체이기도 했다. 《개척자》에서 춘원은 희귀한 주체, 화학도를 내세워 그 가능성을 열렬하게 타진했지만 정작 춘원이 만들어낸 창조의 꽃은 그의 모순적인 근대성을 모조리 흡수해 용해시키는 '새로운 기원'-신여성이었다. 이로써 춘원이 창조한 한국 근대문학의 주체들은 과학(자)의 젠더지향성에 쉽사리 포섭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은 구여

27) 한국문학에 이것이 '한국적인 것'으로서 선명한 표정을 얻은 것은 구여성의 의미체계에서 계급성이 탈각된 후 두 번의 전쟁을 겪고 살아남은 여인들의 후일담에서 만들어진 아우라(Aura)-'정한(情恨)'의 정서에서이다. 이에 대해서는 줄고, 《1960년대 소설의 전통인식 연구》(서울: 중앙대 박사논문), 111-120쪽 참고.

성이 등장하는 춘원의 다른 작품을 보아야 하므로 여기서 다를 바는 아니다. 이 논문은 근대 초기 한국과 중국에서 과학과 문학이 만나는 현장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시론일 따름이다.

### [참고문헌]

- 가라타니 고진 저, 박유하 역, 《일본근대문학의 기원》(서울: 민음사, 1997)
- 김윤식 저, 《이광수와 그의 시대》(서울: 솔, 1999)
- 노신 저, 《광인일기》, 《약》, 《내일》, 《축원례》, 《이혼》, 《후지노 선생》, 노선문학회 편역, 《노선선집1》(서울: 여강출판사, 2003)
- 김주현 저, 《1960년대 소설의 전통인식 연구》(서울: 중앙대 박사논문, 2006)
- 斗南公民 저, 〈과학계의 일대혁명〉, 《학지광》 4(1915)
- 문만용 김영식 저, 《한국 근대과학 형성자료》(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 신규환 저, 《질병의 사회사》(서울: 살림, 2006)
- 아드리노 호르크 하이머 저, 김유동 역, 《계몽의 변증법》(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1)
- 엄영욱 저, 〈노신과 이광수 문학의 페미니즘 비교 연구〉, 《중국현대문학》 14(1998)
- 이광수 저, 〈主人조차 그리운 二十年前的 京城〉, 《이광수 전집14》(서울: 삼중당, 1968)
- 이광수 저, 〈개척자〉, 《이광수 전집1》(서울: 삼중당, 1968)
- 자크 라캉 저, 권택영 역, 《욕망 이론》(서울: 문예출판사, 1993)
- 정진배 저, 〈노신과 역사적인 것: 관점·공간·해석〉, 《대동문화연구》 33(1998)
- 존 허드슨 저, 고문주 역, 《화학의 역사》(서울: 북스힐, 2005)
- 중국현대문학회 편, 《노신의 문학과 사상》(서울: 백산서당, 1996)
- 진재교 외 저, 《동아시아 서사학의 전통과 근대》(서울: 성균관대학교 동

아시아학술원, 2005)

타이먼 스크리치 저, 박경희 역, 《에도의 몸을 열다》(서울: 그린비, 2008)

테사 모리스 스즈끼 저, 임성모 역, 《변방에서 바라본 근대》(서울: 산치림, 2006)

### 〈Abstract〉

This thesis will attempt to reconstruct a scene where science and culture intersect in two authors' works through the representation of science (scientists) in Kwangsoo Lee and Lu Xun's books. In the modern East Asia, science is not known not as technical and professional knowledge, but rather viewed as modern and enlightening, affecting the construction of modern literature. Lu Xun's 《A Madman's Diary》 and 《Well Wishes》 and Kwangsoo Lee's 《Pioneer》 successfully portray the representation of science (scientists) through modern subjects and the relationship of women.

Firstly, in 《A Madman's Diary》, science is portrayed as a medical sentiment that attempts to dissect Chinese history. However, the one-sidedness of this kind of sentiment raises doubts about the subjects of that support this sentiment. This portrayal is fully disclosed in 《Well Wishes》, completely reversing the situations of the modernistic character narrator and the female character. This reversal shows Lu Xun's point of view about "what is really Chinese."

On the other hand, in Kwangsoo Lee's works, science is portrayed more like a literature. The main character of 《Pioneer》, a chemist, tries to materialize the ideals of creation during the colonial Chosun period with a similar passion of an artist, but

due to the failure of one experiment, he faces a subjectivity crisis. This crisis is solved by the appearance of a repenting woman. The solution –appearance of the woman – shows gender subjectivity of Korean Modern Literature, led by Kwangsoo Lee. Nonetheless,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is point of view can be applied to all of Kwangsoo Lee and Lu Xun's works.

**Key Words:** 《A Madman's Diary》, 《Well Wishes》, 《Pioneer》, sights and gaze, representation of science (scientists)

투 고 일 : 2009.2.1

심 사 일 : 2009.3.10-3.30

게재확정일 : 2009.4.25

## 노신과 이광수의 유학체험과 소설의 형상화 비교연구\*

이호규\*\*·권혁건\*\*\*

### 〈목 차〉

1. 들어가며
2. 한국과 중국의 근대 일본 유학 현황
3. 소설에 나타난 유학 체험 및 작가의식
  - 3.1. 유학 교육 환경과 사람, 그 형상화
    - (1) 인도주의, 낭만주의 그리고 사랑 - 이광수
    - (2) 혁명, 반봉건, 근대 의학 - 노신
  - 3.2. 전통과 근대
    - (1) 조혼과 정육 - 이광수
    - (2) 식인과 변발 - 노신
4. 마무리 - 차후 과제

### 1. 들어가며

이광수(1892-?)와 노신(1881-1936)은 근대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사상가였다. 나이는 노신이 10년 정도 위이지만 두 작가를 통한 비교문학적 연구의 필요성은 그 활동 시기나 논문 및 작품 창작 시기가 1910년대에서 1930년대 맞물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동기는 부여되는 셈이다. 더욱이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일본에 유학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그 시기 또한 1900년대 중반에서 후반 경으로 같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의 유학 시기의 체험을 비교하고 그들이 일본 유학에서 무엇을 보고 겪었고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근대 동아시아 근대 담론이라는 큰 화두 속에서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23-A00011)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gaon6293@hanmail.net)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교수

두 사람은 각각 한국과 중국 근대를 대표하는 작가이자 사상가라는 데에 이견이 없는 만큼 한국문학계에서의 이광수에 대한 연구, 중국문학 내에서의 노신 연구는 이미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방대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유학 시절에 대한 연구 역시 개별적으로 연구가 깊이 그리고 넓게 이루어져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유학 시절에 이루어진 논문을 중심으로 두 작가의 초기 사상 연구 역시 각 전공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두 작가에 대한 비교 연구는 의외로 많이 이루어져 있지 못하다. 특히 한국문학계에 있어서 두 작가의 비교 연구는 필자 스스로 놀랄 정도로 많이 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sup>1)</sup> 그러한 점은 개별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비교문학적 접근은 자칫 잘못하면 나열식의 단순 비교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이 아닌가 한다. 하지만 현재 동아시아 근대 담론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재 인문학의 학문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개별 연구를 어떻게 다시 절합하여 새로운 동아시아 근대 담론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유학이라는 공통항을 중심으로 그들의 유학 체험과 그 체험의 형상화를 우선 비교, 검토해보고자 한다. 두 작가의 유학에 대한 조사, 연구와 논설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개별적으로 되어 있으나 유학 체험과 소설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개별적으로 그리 많지 않거니와 그러한 관점에서의 비교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본다. 본 작업은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져 있지 못하다는 현상적 차원에서만 시작된 것은 아니고, 이러한 작업이 차후 두 작가의 총체적인 비교 연구의 시작이자 토대가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며 두 작가의 총체적인 비교는 동아시아 근대 담론의 내연과 외포를 헤아리고 그 의미를 궁구하여 새로운 담론을 형성해 내는 데 필요한 작업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 의해서이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으로 차후 계속 연구하

1) 嚴英旭, 〈魯迅과 李光洙 文學의 페미니즘 比較研究〉, 《중국현대문학》 14(1998) 金尙浩, 〈李光洙與魯迅의民族改造小說之比較研究〉, 《동아인문학》 8(2005) 찾아 본 이 두 편의 논문 역시 중국문학연구자에 의해 발표된 것으로 한국문학 내에서의 비교 논문은 찾기 어려웠다.

고 작업할 생각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발표문은 출발의 의미를 지닌다.

## 2. 한국과 중국의 근대 일본 유학 현황

1876년 이루어진 한일수호조규(병자조약 또는 강화조약)은 조선이 최초로 외국과 맺은 불평등조약이었는데, 이에 따라 한국(조선) 정부는 김기수를 일본에 수신사로 보냈으며 1880년에는 김홍집을 파견한다. 김기수의 수신사일기 〈일동기유〉에는 일본의 풍물(육군병기공장 시찰), 외무부 인사들이나 이등박문의 인물평 등이 실려 있어서 당시 일본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1880년 무렵에는 김기수, 김홍집, 어윤중 등의 보고와 건의에 따라 사대사(事大司, 대청외교), 문린사(文隣司, 대일외교) 등 12사로 이루어지는 통리기무아문 설치되었으며, 1881년에는 중국에 영선사(領選使), 일본에 紳士遊覽團 파견한다. 선진국의 기술 습득을 위해 중국 천진으로 간 38명의 유학생들은 나름의 성과를 얻지 못했으나, 일본에 파견된 홍영식, 어윤중 등 관리 12명과 유길준, 이상재 등 62명의 시찰단은 그 나름의 성과를 얻는다. 개화풍조에 반발하는 유림층을 자극하기 않기 위해 신사유람단은 암행어사의 명목으로 극비리에 출발하였다고 한다. 1881년 5월에서 8월까지 시찰이 이루어졌다.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유학생 파견을 시기상으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1기는 1881년 신사유람단으로 파견되었다가 귀국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공부를 한 사람(유길준, 유정수-경응의숙, 윤치호)들이다. 1881년 9월 제3회 수신사 조병호와 그 수행원 유학, 1883년 서재필 이하 44명이 경응의숙에 입학하였다.

제2기는 갑오경장을 계기로 1895년 경 200여 명의 정부 파견 유학생들이었는데, 경응의숙에 입학하였다. 1987년에는 64명이 成城學校을 비롯, 여러 학교에 입학하였다. 일본육군사관학교에도 수십 명 입학. 이 때 경응의숙에 입학한 학생들은 모두 삭발하고 일본 옷을 입었다고 한다. 잡지 〈태양〉에는 내부대신 박영효가 일본유학생 300명을 시험을 통해 선발하여 그중 120명은 이미 일본에 와 있다는 것을 보도하고, 시험의 해괴망측함을 비꼬고 있는데, 시험이란 것이 ‘지력의 여하’가 아니



라 ‘오직 용모와 풍채의 여하’였다는 것이다. 1903년에 전권공사 고영회가 관비생 25명과 사비생 4명, 모두 29명의 자격을 박탈해서 본국으로 송환하게 되는데, 관비생 중에는 이인직(당시 都新聞社 현 동경신문의 전신의 견습생)도 포함되어 있었다.

제3기 1904년 11월 한국황실 특과 유학생 50명이 동경 부립일중(府立一中) 및 順天중학, 早稻田실업학교 등에 입학. 당시 15살 최연소로 육당 최남선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동경부립제일중학 특별반 A 반에 입학하였다. 재학기간은 1904년 11월 2일에서 12월 9일로 짧았는데, 부모의 병 때문에 일찍 귀국하였기 때문이었다.

제4기 1905년에서 1906년 경 사비유학생의 경우, 일본 문부성 통계에 의하면 1908년에 270명, 1909년에 323명, 1910년에는 420명이 일본으로 유학 온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때가 되면 유학생 대부분이 사비생 혹은 공비생이었다.<sup>2)</sup>

한국에 비해 중국의 일본 유학은 청일 전쟁이 끝난 후인 1896년 주일 중국 공사 위강(裕康)이 당시 일본 외무대신 겸 문부대신인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를 통해 고등사범학교 교장 가노지고로(嘉納治五郎)에게 중국인 청년 13명을 교육시켜 줄 것을 부탁하면서였다. 그로부터 2년 후 장지동(張之洞)이 쓴 〈권학편(勸學篇)〉이 물꼬가 되어 본격적으로 일본 유학이 이루어졌다.<sup>3)</sup>

그런데 이미 1890년 6월 유학 예정인 학생, 段즈구이(段芝貴), 리평년(李鳳年) 등 7명이 주일공사를 수행하는 형식으로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당시 청 조정이 유학생을 파견한 것은 주로 통역관을 양성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일본 학교가 아닌 공사관 안에 만들어진 도분학당(東文學堂)에서 공부를 하였는데, 이는 유학생들이 일본 학교에서 나쁜 기풍에 물들까봐 염려한 탓이었다고 한다. 1902년 당시 유학생 신년회에는 274명이 모였는데, 절반 이상이 사관생들이었다.<sup>4)</sup>

1896년부터 중국 유학생을 맡기 시작한 일본인 가노 지고로는 1902

2)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서울: 한길사, 1986), 127-133쪽.

3) 연안성 지음, 한영혜 옮김, 《신산(神山)을 찾아 동쪽으로 향하네》(서울: 일조각, 2005), 15쪽.

4) 위의 책, 23-24쪽.

년 1월 고분학원(弘文學院)을 개설하여 중국 유학생들을 본격적으로 받아 교육시켰다. 가노는 중국 젊은 유학생들에게 근대적인 지식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유도 문하생으로 받아들여 고분학원에 고도칸(講道館) 우시고메 분장(分場)을 설치했다. ‘우시고메 분장·메이지 36년 6월 10일’이라는 항에 등록된 31명 가운데 저우수런(周樹人) 즉 루쉰(魯迅)도 있었다.<sup>5)</sup>

### 3. 소설에 나타난 유학 체험 및 작가의식

노신은 1902년 3월 24일 남경에서 일본행 大貞丸을 타고 일본 유학에 올랐다. 礦路學堂 교장 俞明震이 인솔하고 다섯 명의 졸업생과 함께였다. 1902년 4월 4일 요코하마에 도착, 4월 하순에 弘文學院에 입학하였다. 흥문학원은 동경고등사범학교의 교장인 嘉納治五郎이 청국유학생을 위해 개설한 학교로, 보통과와 속성과가 있었는데, 보통과는 각지의 고등전문학교 및 대학 진학을 위한 2년 내지 3년 과정으로 일본어와 일반기초과목을 가르치는 예비교육 과정이었고, 속성과는 師範, 警務, 理化, 음악 등의 전문과목을 통역을 두고 가르친 단기 연수과정이었다. 노신은 1904년 4월까지 2년간 보통과에서 수학했다.<sup>6)</sup>

이광수는 1905년 8월 경 손병희의 주선으로 일진회 장학생이 되어 동경으로 1차 유학을 떠난다. 9월경에 어학준비학교인 동해의숙에 입학 1906년까지 수학한다. 1906년 3월부터 대성중학교에 정식으로 입학하게 되는데 당시 이 학교에는 일진회 학생회 20여 명이 있었다. 1906년 7월 학비중단으로 중도 퇴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06년 12월 경 귀국하여 1907년 3월 경 다시 동경 행, 그해 3월경에 백산학사에 입학한다. 백산학사는 지금의 文京區 白山에 있는 동양대학의 전신이거나 그와 관련 있는 학교로 추정된다. 이보경(당시 이광수의 이름)의 후견인 겸 보증인은 麴町區 中六番町 50번지의 申海永. 원래 주일 한국공사관이던 곳이 외교권이 상실된 1905년 11월 이후에 유학생 감독부로 변환

5) 위의 책, 32-33쪽.

6) 마루오 쓰네키(丸尾常喜), 유병태 역, 《魯迅》(서울: 제이앤씨, 2006), 59-60쪽.

곳이 위의 주소. 1907년 4월 학부 파견의 감독관으로 동경에 온 신해영은 1895년 경응의숙에 재학했고 대조선인일본유학생친목회 평의원이었던 자료, 이제 학비는 한국정부가 지출하며 신해영이 보증인으로 있는 한 이광수의 중학과정은 순탄하였다. 1907년 2월 초 이광수는 다시 도일. 반년 동안 예비학교의 일종인 백산학사에서 공부하고 1907년 9월 10일 명치학원 보통부 3년에 편입한다.<sup>7)</sup>

간단히 노신과 이광수의 일본 유학을 살펴보면 거의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노신은 약 8 년간의 일본 유학 생활을 하게 되며 이광수는 4,5 년간의 1차 유학 이후 1910년대 후반 다시 유학을 하게 된다. 이광수의 1차 유학 시절은 노신의 일본 유학 시절과 맞물릴 뿐더러 1910년대 2차 유학 시절을 포함하여 두 작가의 일본 유학 체험 및 사상, 그리고 그것의 작품 형상화의 양상 등의 비교 연구는 충분히 문학적 의의가 있다 하겠다.

특히 일본에 있는 서양식의 기독교계 일본인 학교와 청국유학생을 위한 학교라는 공간의 이질성과 중화를 자처하며 동아시아 맹주로 자리하던 중국 유학생과 실제적으로 망국의 백성에 불과한 조선 유학생이라는 질적 차이 등에서 빚어지는 거리와 그 양상 및 평가는 중요한 논의의

7) 명치학원 연혁: 1859년 10월 제임스 커티스 헵번 일본으로 파견됨. 그의 부인이 헵번숙(塾)을 열고 영어와 성경을 가르친 것이 1863년. 그 헵번숙을 축지(築地)의 새 교사로 이전하고 축지대학교라 개칭하는 한편, 東京一致신학교와 병행하여 운영하다가 1886년에 동경일치신학교, 英和학교 예비학교 등을 종합하여 '명치학원'으로 개편. 신학교, 대학, 예비학교(보통부에 해당)의 3부로 나누어지며 이후 신학부, 고등부, 보통부로 재편성. 1902년 4월 명치학원은 신학부 4개년, 고등부 3개년, 보통부 5개년의 이수과정과 징병유예 특전을 아울러 확보하기에 이르렀는데, 이광수가 이보경이라는 이름으로 입학한 1907년부터 1910년 3월 26일 졸업하기까지 그 편제는 변동이 없었다. 이 당시 명치학원 보통부는 동경 시내 중학교 중에서는 보통 정도의 변변찮은 변두리 학교에 지나지 않았다. 명치학원과 한국유학생 : 명치학원의 한국인 동창회 명부를 보면 박영효, 윤치호, 김옥균, 이광수, 문일평, 화가 김관호, 백남훈, 주요한, 김동인 등. 주요한은 춘원의 일본어 첫 작품, <사랑인가> (1909)가 실린 적 있는 《백금학보》 편집위원을 역임(1916)한 바 있다. 주요한은 평양 숭덕소학교(미선계)를 마치고 열두 살에 도일. 13살 때인 1913년에 명치학원 중등부에 입학. 주요한과 소학교 동창이었던 김동인은 주요한의 후배가 되기 싫어 동경학원에 입학을 했으나 그 학교가 폐쇄됨으로 인해 명치학원으로 옮기게 되어 주요한의 1년 후배가 되었다. 위의 책, 165-170쪽.

기준 및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노신의 일본 유학 시절 당시 노신이 스무 살이 넘은 청년이었음에 비해 1차 유학시절의 이광수는 겨우 10대 중후반의 소년에 불과했다라는 점이다. 이러한 나이에 따른 성숙도 및 일본 유학 이전의 중국과 조선에서의 성장과정과 체험, 교육 등을 함께 고려하고 평가할 때 두 사람의 일본 유학 체험과 인식 수준을 맞대응시켜 비교 연구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일단 1900년대 두 사람의 유학 시절의 체험과 형상화의 관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근대 작가로서 근대 문명과 전통 그리고 당대에 대한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해 어떻게 고민하고 무엇을 지향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결과적으로 두 작가의 차이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근대 작가로서의 동일한 고민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설이 아니라 유학 당시 발표한 논문이나 그들의 독서체험, 문화체험의 깊이 있는 조사와 비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연구가 되어야 할 지도 모른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기실 노신은 1910년대 유학 시절 논설 외 소설은 발표하지 않았고 이광수 역시 소설 보다는 논설을 더 많이 발표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때문이기도 하다. 이 논문의 앞부분에서 말했듯 각 전공분야에서 그들의 유학 시절과 논문을 통한 사상 및 문학관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이루어져 있지만 비교문학적 차원에서의 연구는 필요하다고 보며, 현재 연구 진행 중이며 계속 하여 차후 연구 성과로 결과물을 내고자 한다.

그럼에도 그들의 작품에 유학 체험이 이후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음을 연구하는 것은 그들의 유학 체험이 그들의 문학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음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중요한 작업이라고 본다.

### 3.1. 유학 교육 환경과 사람, 그 형상화

본 절에서는 이광수와 노신의 유학 교육 환경, 그 속에서의 대인관계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사상 및 인식을 살펴보고 그것이 반영되어 있는 소설들을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두 작가의 유학 공간과 학습 내

용 및 문학과 사상적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작품 속에 어떻게 수용되어 나타나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인격 및 문학관 형성에 영향력이 강한 대인 관계를 알아보고 그것이 작품에 투영되는 방식 및 주제의식을 비교, 분석해보려고 한다.

### 1) 인도주의, 낭만주의 그리고 사랑 - 이광수

1차 유학 시절부터 이광수는 문사를 지향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그는 일본을 휩쓸고 있던 문학작품과 사상 논문들을 탐독하면서 그 스스로도 소설과 평론을 겸해서 쓰는 문사 사상가를 지망하고 있었다.<sup>8)</sup> 그가 이때 <사랑인가>와 <무정>, <어린 희생> 등 단편을 쓰는 한편으로 <今日 我韓靑年과 情育> 등 여러 평론을 발표한 것은 그를 방증한다.

명치학원 시절은 이광수에게 있어 경제적 고충도 없는 안도감과 안정감이 가득 찬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춘원을 키운 분위기는 무엇보다 영어로 시작되었고, 찬송가로 끝을 맺었다.’ 서양식의 기독교 학교였던 메이지 학원 내에서도 이광수는 영어를 비롯 어학에 대단한 재질을 보였다. 이광수는 1919년 1월에 쓴 독립선언서 <조선청년독립단선언서>를 영어로 번역하고 랜디스 선생에게 교정을 부탁한다. 이광수가 남긴 영어로 쓴 글은 많이 없고 허영숙에게 보낸 1922년 4월 20일자 영문편지와 자작 영시 두 편 정도이지만 편지를 쓸 당시 이광수는 경신중학 영어교사였다. 어학에 대한 이광수의 재능은 14세 나이에 일본어 교사 노릇을 했다던가 “10여 명 M(명치학원)학교에 와 있는 조선 학생들의 작문이란 작문은 모조리 내가 지었다. 그것은 내가 어학의 힘이 나온 때문”(대한유학생회학보, 창간호(1907.3), 학보난)이라 자부한 것이라든가 문일평이 중학 4년 때 한국어로 한 연설을 통역한 것, 1908년 5월

8) 그는 당대의 일본작가들인 國木田獨步, 夏目漱石, 木下尚江, 徳富蘆花 등의 문학을 애독했으며(이광수, <전집>, <나의 소년시대~18세 소년이 동경에서 한 일기>, <조선문단>, 1925,3.4), 1916년 두 번째 유학시대에 발표한 그의 <소년의 비애> 까지도 獨步의 <소년의 비애> (1903)의 모작으로 지적될 정도로 영향을 받고 있었다. 송백헌, <춘원의 소년의 비애 연구>, 《문학사상》 18(1974)

23일 문학회 연설부에서 행한 연설이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언사 명백하고 태도 유유하며 연설로서는 최상급”(위의 책)이라 칭송받은 것 등에서 알 수 있다.

명치 학원 시절 그에게 깊은 감동과 감화를 준 것은 기독교였다. (이광수는 당시 명치학원 선생들 중에서 ‘W 라는 늙은 미국 선생 한 분만이 진실로 예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같아서 나는 무척 그를 숭배하였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는 이학박사 마틴 와이코프임이 분명하다) 기독교에서 다시 그를 이끌어간 것은 톨스토이주의였다.

이광수는 여러 곳에서 톨스토이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톨스토이, 예수, 석가의 영향을 순차로 받아서 나의 무저항심은 더욱 깊어지고”(〈내가 속할 유형〉)라고 했으며, 1930년도 어떤 잡지의 앙케이트에서는 톨스토이, 예수, 불타, 도산의 순으로 적고 있다. 그가 톨스토이에 접하게 된 것은 동급생 山崎俊夫에 의해서였다. 이광수는 “톨스토이의 저서를 읽게 된 것은 중학 3년시대라고 생각하는데 나이로는 17세, 내게 톨스토이 책을 빌려준 이는 산기준부(山崎俊夫)라는 동창생이었습니다. 산기준부는 그 후 경운 문과를 졸업하고 《제국문학》 등에 단편작품을 발표하더니 이내 소식이 없으나 펍 단야한 청교도적 인물”(〈다난한 반생의 도정〉)이라고 회고했다. 산기는 춘원보다 한 살 위 1891년 생. 그는 죽기 전 남긴 자작 연보에서 명치학원 시절의 이광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남겼다. “나는 이 미션 스쿨에 겨우 2년 간 다녔지만 그 2년간은 내 생애에 두 가지 큰 영향을 남겼다. 하나는 기독교 신앙이며, 문학이 그 다른 하나이다. 이 두 종류의 씨앗을 심어준 것은 이보경이라 부른 조선인이었다. 대체 이 학교에는 조선인이라든가 대만인 생도가 매우 많았다. 이군은 우리 집에도 자주 왔다.(생략) 나는 이 아이에 대해 담담한 애정을 품었다. 와이코프, 랜디스, 라이샤워 등 미국인 교사의 집에도 자주 놀러 다녔다”

춘원의 기록에 의하면 산기는 얼굴이 아름답게 생기고 “예수교인의 가정에서 자라나 몸과 마음과 행동이 참 깨끗하였다”(〈그의 자서전〉) 산기나 춘원이나 반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는 암전한, 예외적 존재로서 ‘나는 적어도 너희들과 달라’라는 의식을 공통적으로 지닌, 그래서 오히려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타입이었다. 그들은 성경 얘기를 같이 하며

지냈는데, 특히 산기는 집단 폭행을 당해도 그들을 탓하기보다 왼쪽 뺨도 내미는 식이었다. 산기가 폭행을 당한 이유는 수신시간에 영어로 전쟁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산기를 보며 춘원은 감격했던 것. 이 非戰論이 당시 톨스토이 사상의 시대적 의의였다.

일본에 있어, 톨스토이의 존재는 명치기간 전체를 걸쳐 압도적인 모습으로 군림. 톨스토이는 1904년 1월 러일전쟁의 발발을 전후하여 반전론을 전개. 전쟁은 광기이며 범죄행위라는 것, 그것은 니콜라이 2세의 잔악함과 일본 부유층의 악덕에 의한 착한 양민이 학살될 뿐이라는 것, 자기는 러시아인도 일본인도 아니고 두 나라 노동자 편이라는 것을 주장한 팜플렛 〈반성하라〉(1904.4)가 일본 사회정당의 창설자이며 후에 대역사건의 주모자로 처형된 幸徳秋水와 그의 동지 堺利彦에 의해 일본어로 번역되었으며 행덕은 또한 〈톨스토이의 반전론비판〉을 썼다. 이광수가 파악한 톨스토이주의는 한 마디로 박애주의, 비폭력주의, 무저항주의였으며 이는 이광수가 평생 매달렸던 사상의 하나였다.

‘극단의 크리스찬’이 된 것은 가장 뚜렷한 종교체험이었고 명치학원 입학과 함께 일찍이 이루어졌다. 그는 매일 예배에 참가했고 1주일마다 두 번씩 성경 과목을 배웠다. 그러나 이때 그에게 참기독교의 감동을 불러일으킨 것은 木下尙江의 〈불기등〉 등 소설을 읽은 감동과 톨스토이를 접하게 되는 사건이었다. 木下尙江(1839~1937)은 기독교 사회주의 사상가로 노일전쟁 때 반전소설 〈불기등〉을 써서 반전운동을 했고 노동문학과 사회운동을 한 작가. 기독교 사회주의 잡지인 〈新紀元〉을 주재하기도 했다. 이광수는 1907년 16살 때 〈불기등〉을 읽고 ‘자기 몸이 거의 소설 속의 인물이 된 것처럼 말과 행동이 아주 운순 겸손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사회정의, 민중에 대한 봉사, 반전론, 연애지상주의, 무교회주의 신앙 등 ‘木下에게서 얻은 기독교의 이상’을 좇아서 홀로 행동하는 기독교인을 실천해갔다.(이광수가 〈불기등〉을 읽은 감동은 그의 작품 〈金鏡〉에 그려져 있다.)<sup>9)</sup> 허무주의는 그 당시 일본 문단에 유행했던 자연주의의 중요한 한 경향으로 널리 유행한 사상. 이광수는 長谷川の 〈현실폭로의 비애〉라는 책을 읽고 스스로의 마음이 뿌리

9) 감태준, 〈李光洙의 첫 번째 유학 시대와 그 저작들〉, 《한국문학연구》 15(1992.12), 109-110쪽.

부터 흔들리는 동요를 경험했다고 고백했다.(〈나의 자서전〉) 長谷川天溪(1876~1940)의 이 글은 1908년 1월호 〈太陽〉 잡지에 발표되었으며 이해 7월에 발표된 그의 평론집 〈自然主義〉는 이때의 이광수의 일기의 독서목록 속에 들어 있다.

그가 처음으로 유학했던 1900년대 초 일본에서는 서양 자연주의 소설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이광수도 습작을 시작하던 1909년을 전후해서 자연주의 문예사조에 경도되고 있었다. 그러면서 스스로 소설을 쓰기 시작하고 문학론을 펴면서 이것이 전통적 고전문학과 다른 신문학임을 호언했다. 또 민족현실에 눈뜬 소박한 민족주의자로서의 논설을 쓰고 그의 문학의 중요한 주제의 하나였던 ‘정’의 중요성을 여러 글을 통해 강조하고 ‘정육론’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메이지 학원의 학원 분위기와 독서 체험을 통해 드러난 스승과의 관계나 교우 관계, 그리고 사랑과 허무에 대한 자각 등이 그의 초기 소설 곳곳에 발견된다.

이광수의 일본어 소설인 〈사랑인가〉는 명치학원의 교지 《백금학보》(제19호, 1909.12)에 게재가 되었는데, 12월 21일 이광수의 일기를 보면, ‘시험 끝났다. 모두 옥에서 나온 것 모양 좋아라 한다 ~나도 좋다. 내 처녀작이라 할 만한 〈사랑인가〉가 《OO학보》에 났다. 기쁘다. 괜히 기쁘다. 부질없는 기쁨이다. 나는 사람들이 칭찬해주지 않는 것이 불만이다. 아아 결점이다.’라고 되어 있다. 이를 보면 그의 최초의 소설은 일본어로 된 〈사랑인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10)</sup> 이 소설이 중요한 점은 일본어로 되어 있다는 점이나 이광수의 최초 소설이라는 점에 사실 무게가 더 놓이나 여기서는 그 소설에 이광수의 유학 체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소설의 주인공 문길은 춘원 이광수 자신의 모습이 고스란히 투영된 인물<sup>11)</sup>이다. 혈서를 쓴다든지, 철도자살을 기도한다든지, 미소년을 사랑하는 행위는 당시 일본 학생

10) 김윤식, 위의 책, 217-218쪽 참조. 이 책에 의하면 이 소설은 200자 원고지 45매 정도의 분량으로, 동경에 유학 온, 사랑기갈증에 빠져 있는 우울한 학생 문길이라는 주인공이 하급생 소년 미사오를 짝사랑하다가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고백이 받아들여지나 미사오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번민하다가, 미사오가 결국 자기를 만나주지 않자 배신감과 수치스러움에 철도자살을 기도한다는 줄거리로 되어 있다고 한다.

11) 위의 책, 219쪽.



사회에서 유행이었다. 이 소설의 미사오란 인물은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한 것으로, 친구인 山崎俊夫와 함께 동시에 사랑했던 하급생 옹곡직정(熊谷直正)이었다.<sup>12)</sup>

1918년 《청춘》에 발표된 단편 〈尹光浩〉는 이러한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소설이다. 주인공 윤광호는 동경 K대학 경제과 2학년생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생이다. 그런 그가 사랑하고 기대는 인물은 김준원이라는 선배 유학생이다. 그와의 사랑이 날이 가면서 틈이 생기고 따라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윤광호는 우울과 적막감에 싸이게 된다. 그런 윤광호가 우연히 P라는 인물을 보고 한 눈에 반해 연정을 품게 된다. 용기를 내어 P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P는 단지 재능만 있을 뿐 돈도 없고, 용모도 뛰어나지 못하다는 이유로 윤광호의 사랑을 받아 주지 않는다. 윤광호는 결국 자살을 택하고 만다.

단편 〈윤광호〉는 동경 유학생을 주인공으로 하여 당시 청년들의 낭만적이면서도 퇴폐적인 사랑을 동성애를 통해 전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P에게서 실연을 당하고 절망하는 광호를 보며 김준원은 자신의 옛일을 떠올리는데, 그것은 자신이 십대였던 초기 유학시절, 연상의 전도유망한 일본 청년이 자신을 사랑하다 그 사랑이 준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자 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사건으로 이는 1900년대부터 1910년대 후반까지 일본 청년 문화에 동성애적인 풍조가 낭만과 자유, 개성과 맞물려 유행하였고 그것을 이광수 역시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P는 남자러라’인데, 누구나 이미 P가 남자임을 짐작할 수 있음에도 마지막에 굳이 그것을 밝히고 있어 그러한 풍조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동성애 자체보다도 그 풍조나 수용에 깃들여 있는 것, 즉 개성과 자유, 자유로운 개성의 발현으로서의 사랑에 대한 강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기할 점은 ‘인류에 대한 사랑, 동족에 대한 사랑, 친우에 대한 사랑, 자기의 명예와 성공에 대한 갈망만으로는 만족치 못’<sup>13)</sup>

12) 산기준부는 ‘나와 춘원이 함께 하급생 옹곡직정이라는 소년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라고 술회했다. (秋山繁雄, 〈山崎俊夫〉, 〈白金通信〉, 1980.7.1), 위의 책, 220쪽 재인용.

13) 이광수, 〈尹光浩〉, 《李光洙全集14》(서울: 三中堂, 1962), 73쪽.

하여 동성애에 빠져 결국 자살을 하고 마는 윤광호에 비해 <어린 벗에게>에서는 주인공이 같은 동경 유학생이자 친구의 여동생에게 실연을 당하자 그 슬픔을 오히려 동족을 위한 사랑, 즉 계몽에의 헌신으로 전이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어린 벗에게>는 서간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 소설로, 앞서 말한 바 동경 유학 시절의 풋사랑이 그려져 있다. 이미 조선에서 결혼한 기혼자로서 동경 유학생 친구의 여동생을 사모하게 되어 사랑의 아픔을 당하는 주인공의 모습은 이광수 본인의 모습에 다름 아니다. ‘내가 일찍 동경서 조도전(早稻田)대학에 있을 제 같은 학년에 다니는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와 같은 문장에서 알 수 있는데 그 소설에서 편지를 받는 이에게 자신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 같은 유학생 김일홍의 여동생 김일련을 사랑하다가 결국 이루어지지 못함을 깨닫고 그 사랑을 보다 큰 사랑으로 승화시키겠다는 주인공의 고백은 이광수의 동경에서 겪었던 사랑의 경험, 즉 동성 하급생이나 친구의 여동생과의 애절한 사랑이 계몽과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일 다른 무엇(아래 말하려는)이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던들 나는 영원히 죽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로소이다. 그 ‘다른 무엇’은 다름 아니라, ‘동족을 위함’이로소이다. 마치 인생에 실망한 다른 사람들이 혹 삭발위승(削髮爲僧)하고 혹 자선사업에 헌심함같이 인생에 실망한 나는 ‘동족의 교화’에 내 몸을 바치기로 결심하여 이에 나는 새 희망과 새 정력을 얻은 것이로소이다.<sup>14)</sup>

## 2) 혁명, 반봉건, 근대 의학 - 노신

노신도 홍문학원에서 수학하는 동안 神田에 있는 청국유학생회관에 가서 서점 주위를 배회하고 집회에 참가하고 강연을 듣는 것을 주된 일과로 삼았다. 다시의 홍문학원에는 鄒容, 그리고 후에 혁명조직인 華興會의 지도자가 된 黃興도 재학한 적이 있었다. 노신은 반년 후에 입학한 항주의 求是學院 출신이자 동향인인 許壽裳을 알게 되었다. 두 사람

14) 이광수, <어린 벗에게>, 《이광수 단편선 소년의 비애》(서울: 문학과지성사, 2006), 73-74쪽.

은 이상적인 인간상이란 무엇이며 중국인의 국민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그 병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항상 논의했다고 한다. 그들은 중국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誠과 愛였고 중국인이 가장 앓고 있는 병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인이 두 번에 걸쳐 이민족의 노예가 된 것이라고 보았다.<sup>15)</sup>

친우 관계에서도 이광수와 노신은 차이를 보이는데, 이광수가 일본인 친구와 더불어 기독교와 톨스토이의주의에 심취했던 것과 달리 노신은 중국인 동향 친구와 더불어 민족의식과 당대 중국에 대한 비판 의식을 키워나갔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두 사람이 처한 일본에서의 환경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쩌면 원인과 결과 양쪽 모두에 해당하는 것일 터인데, 그들이 지향했던 새로운 조국의 모습, 근대의 방향이 사뭇 다름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즉 이광수의 근대가 밖을 향한 것이었다면 노신의 근대 방향은 오히려 밖을 끌어들여와 안으로 향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조선과 중국의 시대 상황과도 맞물린 것이라 보인다. 즉 이미 실질적으로 망한 조국과 그렇지 않은 조국을 바라보는 차이. 이러한 것의 규명은 두 사람의 논설을 비롯한 비문학적 문헌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므로 차후 새로운 연구 테마가 될 것이다.

안으로 향하는 근대를 생각한 노신에게 유학 체험은 밖을 모델화하고 그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전의 중국의 상처를 떠올리고 현재의 그 상처의 현주소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는 도시의 대가족 속에서 성장했고, 어릴 적부터 古書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았기에, 고생하는 민중을 꽃과 새처럼 여겼다. 그리하여 때로 소위 상류사회의 허위와 부패와 맞닥뜨리게 될 때면, 나는 민중의 안락함을 부러워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외가가 농촌인 나는 많은 농민들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서부터 그들이야말로 평생을 땀과 고통 속에 사는 자들로서 결코 꽃이나 새와 같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영역본 단편 소설선집, 自序, 1933)’라는 깨달음은 어린 시절의 깨달음이지만, 유학 체험 이후 떠올려진 자각, 현재적 아픔으로 다시 재구성한 깨달음일 터

---

15) 위의 책, 63쪽.

이다. 이러한 아픔이 자전적인 이야기로 나타난 것이 〈고향〉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릴 적 같이 어울리던 동년배 친구가 나이 들어 만났을 때 봉건적 유습에 짓눌려져 자신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상황 속에서 엄청난 거리감을 느끼는 주인공이 갖는 외로움은 중국의 현실을 되돌아보는 작가의 시선이라고 할 수 있다.

나와 윤토는 결국 이처럼 거리가 멀어져 버렸으나 우리의 후손들은 같은 기분이라. 핑아는 지금 수생을 그리워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그들이 나같이 되지 말고, 또 모든 사람이 서로 사이가 멀어지지 말기를 바란다.....그러나 나는 또 그들이 나처럼 괴로움에 쫓기는 생활을 하는 것도 또 윤토처럼 괴로움에 마비된 생활을 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우리들이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생활이 있어야만 한다.<sup>16)</sup>

밖을 끌어들이와 안으로 향하는 노신의 근대적 지향은 의학에 대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의 소설집 《吶喊》自序에 보면 1894년 봄 아버지가 토혈하며 앓아눕게 되고, 결핵에다가 후에 水腫을 동반하여 투병하다가 1896년 아버지 사망한 사실에 대해 쓰고 있다. 여기에 아버지의 투병 생활과 그를 바라보는 자식의 안타까움과 더불어 한방의 명의학에 대한 억누르기 힘든 적개심이 드러나 있다. 이러한 중국 한방에 대한 불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작품이 〈明日〉이라고 할 수 있다. 세 살 난 아들을 한방의에게 맡겼다가 결국 아들을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젊은 과부의 처절하고 허한 마음을 실감있게 그려내고 있는 〈명일〉은 아버지가 비과학적인 한방과 또한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사육에 눈먼 한방의들에 의해 고통 속에서 죽었다고 생각한 노신의 감정이 젊은 과부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아버지를 잃은 상처가 일본 유학에서 의학을 전공하게 한 중요한 원인이며<sup>17)</sup> 또한 일본에서 직접 체험한 서

16) 노신, 〈고향〉, 《아Q정전》(서울: 혜원출판사, 1991), 80쪽.

17) 노신은 1904년 4월 홍문학원을 졸업한다. 청 정부가 지정해준 진로는 동경 제국대학 공학부 採鑛冶金科였지만 그는 의학을 선택한다. '의학은 공부해서 귀국한다면, 나의 아버지가 겪었던 것과 같은 잘못된 의료로부터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것이며, 전쟁 시에는 군의관으로서 중군할 것이며, 또한 국민의 維新에 대한 신념을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이다.'(《눌함》 자서 중에서)라는 진술에서 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양 근대 의학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다시 중국 한방의 당대 문제를 비판하게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그가 의학을 포기하게 되지만, 서양 의학 자체에 대한 실망이나 불신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일본 유학 시절 서양 의학에의 투신은 비록 끝을 맺진 못했으나 그에게 중요한 경험과 한 사람과의 인연을 만들어준다. 노신은 1904년 仙臺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한다. 그 학교는 동북제국대학 의과대학의 전신으로 노신은 그 학교의 최초의 중국인 유학생이었다. 그 학교에서 만난 스승, 그리고 그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藤野 선생이며 소설은 아니지만 그 선생에 대한 기억을 자세하게 밝히고 있는 글이 수필 〈등야선생〉(1926)이다.

‘첫 시간은 골학(骨學)이다. 얼굴이 검고 야윈 선생이 들어왔다. 팔자수염을 기르고 안경을 썼으며, 크고 작은 갖가지 책들을 산더미처럼 끼고 들어왔다. 교탁 위에 책을 올려 놓고는 느리고 높낮이 있는 목소리로 자기 소개를 하였다. 〈저는 등야엄구랑(藤野嚴九郎)이라고 합니다〉’<sup>18)</sup>라고 등야 선생과의 첫 만남을 묘사하고 있다.

〈등야선생〉에 보면 노신에 대한 등야의 총애를 시기한 익명의 학생이 등야가 노신에게 미리 시험 문제를 가르쳐줘서 노신이 점수를 땀다고 비난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일을 적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익명의 편지 첫 구절이 ‘〈그대 회개하거라〉 이 말은 신약성서의 한 구절로, 톨스토이가 최근에 인용한 것이었다. 그때가 바로 러일전쟁 중이었고, 톨스토이는 러시아와 일본 황제 앞으로 공개장을 보냈었다’<sup>19)</sup>라고 되어 있다.

이 시기 톨스토이와 반전, 그리고 러일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이광수에게서도 발견되는데, 이광수와 그의 친구 산기준부가 기독교와 톨스토이에 빠져 인도주의와 反戰思想에 심취해 있었고 오히려 그로 인해 동학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을 떠올리면 이광수와 노신의 또 하나의 차이를 보게 된다.

18) 노신, 이옥연 편역, 《아침꽃을 저녁에 줍다》(서울: 도서출판 창, 1991), 232쪽.

19) 위의 책, 235쪽.

## 3.2. 전통과 근대

### 1) 조혼과 정육 - 이광수

1차 유학시절인 1908년에서 1910년, 그 몇 년 동안의 어린 시절 이광수는 소설가로서 혹은 평론가로서의 그 나름대로의 문필을 휘둘렀고 그의 일생을 통한 중심 주제의 하나였던 ‘情’, ‘情育’이 벌써 이때의 그의 체질을 성격 짓고 있었다. 그는 나쓰메 소세키와 톨스토이에 이어 바이런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광수는 바이런의 〈카인〉, 〈해적〉, 〈돈환〉과 같은 시에 접하면서 청교도적 생활이 얼마나 천박한 것인지, 그리고 이에 비하여 악마주의가 얼마나 힘이 있고 깊은 것인지에 놀라면서 그의 생존의 방식을 얻었다고 했다. 그러나 춘원이 바이런에 탐닉했다는 것, 악마주의에 빠졌다는 것 등은 거의 사춘기적 성욕과 관련된 것에 멈추고 그것의 시대적인 특질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에게는 톨스토이나 바이런이나의 갈림길에까지 이른 고민사항이 그의 사상적 성장과 유기적 관련을 맺지 못했다.<sup>20)</sup> 그는 K(홍명희)를 통해 바이런을 알게 되었는데<sup>21)</sup> 이 바이런의 시와 악마주의는 자연주의와 함께 동경뿐 아니라 세계를 휩쓸던 사조였다. 여기서 그의 초기의 ‘정육론’의 토대가 마련되었다.<sup>22)</sup> 이 정육론은 전통 도덕과 교육론을 비판하고 개성의 자유를 주장하며 문학을 통해서 이를 진작한다는 점에서 반전통적이며 서구 근대적 성격을 드러내는 주의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유학 시절 이광수의 학교생활과 독서체험은 그로 인해 낭만주의적 개

20) 위의 책.

21) ‘홍군은 나와 문학적 성미가 다른 것을 그때에도 나는 의식하였습니다. 홍군이 좋아하고 주장하는 영정하풍(永井荷風)의 〈후란스〉(物語) 〈아미리가물어〉(亞米莉加物語) 같은 것은 내 비위에는 맞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톨스토이 작품같이 이상주의적인 것이 마음에 맞았습니다. 홍군은 당시 성(盛)히 발매금지 당하던 자연주의작품을 서사를 두루 찾아서 비싼 값으로 사가지고 와서는 나를 보고 자랑하였습니다.’ (〈다난한 반생의 도정〉)

22) 〈今日 我韓靑年과 情育〉(《대한홍학보》 10, 1910.2)는 초기를 대표하는 정육론이다. 지금껏 교육의 주안으로 중시되어 온 지육, 덕육, 체육에 대하여 정육이야말로 교육의 대도라는 주장을 편 글이다. 그는 인간 행동의 원동력을 ‘情’에서 찾고 정육은 문학에 의해서 생존할 수 있다 하여 〈문학의 가치〉(《대한홍학보》 11, 1910.3)를 논문으로 발표했다.

인에 대해 자각하게 만들었고 그것은 조선의 구습에 대한 반항과 비판으로 이어졌는데, 즉 조혼에 대한 비판과 정육에 대한 자각과 계몽적 차원에서의 촉구였다. 이광수의 2차 유학 시기에 해당하는 1917년에 발표한 〈소년의 비애〉의 주제가 바로 조혼이라는 구습에 의해 개성을 상실하고 자유로운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조선 청소년들의 아픔을 그리고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 10대 후반의 소년임을 고려하면 1차 유학 시기에 맞물린다. 2차 유학 시기와 함께 고찰되어야 할 소설인데, 이 소설의 주인공은 실연의 상처를 안고 일본 유학을 떠나 2년 정도 머물다 돌아온다. 이미 소년 시절 어울렸던 형제자매들 모습에서 지난 시절의 발랄하고 생기있는 모습은 찾지 못하고 이미 늙어버린 모습을 보며 ‘소년의 천국은 영원히 지나갔네’라고 한탄한다. 겨우 20대 초반의 나이에 이미 자신을 포함한 동년 세대가 늙어버렸다고 자탄하는 바탕에는 조혼의 구습으로 인해 팔려가다시피 결혼을 한 사랑했던 여인 난수의 희생에 대한 울분이 담겨 있다.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어린 벗에게〉에서는 조혼에 대한 비판이 논설조로 분명하게 드러난다.

나는 조선인이로소이다. 사랑이란 말은 듣고 맞은 못 본 조선인이로소이다. 조선에 어찌 남녀가 없사오리카마는 조선 남녀는 아직 사랑으로 만나본 일이 없나이다. 조선인의 흉중에 어찌 애정이 없사오리카마는 조선인의 애정은 두 잎도 피기 전에 사회의 습관과 도덕이라는 바위에 눌리어 그만 말라 죽고 말았나이다. 조선인은 과연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로소이다. 그네가 부부가 될 때에 얼굴도 못보고 이름도 못 들던 남남끼리 다만 계약이라는 형식으로 혼인을 맺어 일생을 이 형식에만 속박되어 지내는 것이로소이다.(중략)이여 우리 조선 남녀는 그 부모의 완구(玩具)와 생식(生殖)하는 기계가 되고 마는 것이로소이다.<sup>23)</sup>

논설조, 웅변조로 되어 있는 위의 말에서 알 수 있듯 이광수는 조혼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으며 이제 진정한 사랑, 즉 개성에 기반한 자유로운 감정의 표출과 교류로서의 사랑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한다.

23) 위의 책, 50-51쪽.

그러나 나는 저 형식적 종교가 도덕가가 입버릇으로 말하는 그러한 애정을 일컬음이 아니라, 생명 있는 애정~필필 끊는 애정, 뻗뻗 마르고 습습한 애정 말고 자릿자릿하고 달디달디한 애정을 일컬음이니 가령 모자(母子)의 애정, 어린 형제자매의 애정, 순결한 청년 남녀의 상사(相思)하는 애정, 또는 그대와 나와 같은 상사적(相思的) 우정을 일컬음으로소이다. 건조 냉담(乾燥冷淡)한 세상에 천년을 살지 말고 이러한 애정 속에 일일(一日)을 살기를 원하나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잡을 직업은 아비, 교사, 사랑하는 사람, 병인 간호하는 사람이 될 것이로소이다.<sup>24)</sup>

그런데 〈어린 벗에게〉에서 보이듯 그 자신 조혼으로 인해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실연하고 상처를 입자 그 상처를 민족 계몽으로 승화시키겠다고 선언한다. 그에게 있어 개성과 사랑은 너무나 쉽게 민족 계몽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그의 시혜주의적 계몽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러한 중에 오직 하나 믿을 것이 정신적으로 동포 민족에게 선(善)영향을 끼침이니 그리하면 내 몸은 죽어도 내 정신은 여러 동포의 정신 속에 살아 그 생활을 관섭(管攝)하고 또 그네의 자손에게 전하여 영원히 생명을 보전할 수가 있는 것이로소이다.<sup>25)</sup>

여기서 노신에게 있어서의 결혼 문제와 결부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노신은 1906년 7월 돌연 귀국하게 되는데, 어머니가 병환이라는 소식을 받아 귀국했지만 紹興에 가자 그를 기다린 것은 朱安과의 결혼이었다. 주안은 노신의 첫 선생이었던 叔祖 玉田의 처가의 딸이었다. 그 결혼을 노신은 받아들여지게 되긴 하는데, 이후 許廣平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 인생의 실책은, 지금까지 자신의 생활을 위해 생각하지 않고, 모두 남의 생각에 일임해 두었다는 점입니다.’(兩地書, 八三信, 1926년 11월)<sup>26)</sup> 혼례를 마친 후 노신은 周作人과 함께 동경으로 온 후 3년 후 완전 귀국할 때까지 한번도 중국에 가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에서 조혼

24) 이광수, 위의 책, 42쪽.

25) 이광수, 〈어린 벗에게〉, 《이광수 단편선 소년의 비애》(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6), 37-38쪽.

26) 마루오 쓰네키, 위의 책, 81쪽에서 재인용.



뿐만 아니라 중국과 조선에 있어서의 결혼이 당대 지식인들에게 미친 영향은 노신, 이광수를 포함해서 보다 확장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2) 식인과 변발 - 노신

유학한 지 1년이 되는 1903년 3월 노신은 변발을 자른다. 그 해 잠시 귀국했던 노신은 가발 변발을 사서 썼다고 하는데, 그 당시 봉건적 유습의 벽이 두터웠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발에 대한 냉엄하면서도 풍자적인 비판이 담겨 있는 소설이 1920년의 <두발의 고사> 라고 할 수 있다.

‘본래 성격이 좀 괴팍해서 늘 하찮은 일에 골을 내고 세속에 통하지 않는 말’을 잘 하는 N의 말을 통해 변발의 구습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을 가한다.

얼마나 많은 중국인이 이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은 머리털 때문에 고생을 하고 수난을 당하고 멸망했는지 모른다네!<sup>27)</sup>

그는 이어 자신이 변발을 자르게 된 시기는 유학 가서였는데, 그 이유는 단지 ‘불편해서’였다고 한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게 되었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게 되어 상해에 갔을 때 가짜 변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노라고 말한다. 결국 가짜 변발을 집어 던지고 다니자 학생들이 자신을 따라 변발을 자르는 소동까지 생겨 더 욕을 먹게 되었으나 그 후 별일이 아닌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 노신 자신 회상문에서 자신이 단발을 한 것은 어떤 대의명분 즉 혁명성 같은 것은 추호도 없고, 단지 모자를 벗는 데도 불편하고, 체조를 하는 데도 불편하고, 머리 꼭대기에 말아올리면 이마를 가려 숨쉬기가 힘들어 했다고 밝힌 것에 의하면 N은 노신 자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변발을 자른 노신은 당시 친구 허수상(許壽裳)에게 ‘사랑하는 조국에 붉은 피를 바치리’라는 시구를 넣은 기념 사진을 보냈다고 한

27) 노신, <두발의 고사>, 위의 책, 57쪽

다.<sup>28)</sup> 이를 보면 소설 속의 N이나 노신 스스로 말하는 단지 불편해서 라는 말을 곧이 듣는 것은 표피적 해석이라 생각된다. 거기엔 의문스러움을 넘어서는 반어가 숨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소설 속에서 바로 풍자적 반전을 확인할 수 있는데, N은 이어 말하기를 이상주의자들이 여자도 머리를 잘라야 한다고 떠들지만 머리를 자르지 않고 시집갈 궁리나 하는 게 좋다고, ‘공연히 자유니 평등이니 하는 말을 배웠다면 한평생 고생만 하게’될 거라고 오히려 탄소리를 해댄다. 이어 ‘조물주의 가족 채찍이 중국의 등에 닿지 않는 한 중국은 영원히 이러한 중국일 것이며 결코 자신의 터럭 하나라도 고치려곤 하지 않을 걸세’라고 독설을 해댄다. 결국 N은 노신 자신이며, 변발을 자르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한 포즈로서의 개혁은 아무런 의미도 없음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학 시절 노신은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애독하였고 1920년에는 이 책의 서문을 번역하기 까지 한다. 그가 니체에 경도되었던 이유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지금 여기서 하기에는 필자의 능력이 아직 부족한 탓에 하기 어려우나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초인설’에 대한 노신의 이해와 수용에 관한 점이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자는 홀로 일어서는 자이다’<sup>29)</sup>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고 건설하기 위해 유럽 문화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벗어나 참다운 중국 문화의 고유한 전통을 발견해야 하는 지식인의 사명이라는 자각을 니체의 초인설을 통해 정립해나갔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보이는 계몽적 지도자의 모습은 이광수와 흡사한 면을 보인다. 그런데 다른 점은 이광수가 조선 전통에 대한 부정으로 나아간다면 노신은 중국의 고유한 전통을 오히려 되살려야 한다고 보는 점이다.

이는 바이런으로 상징되는 낭만주의에 대한 수용에서도 나타난다. 1907년의 〈魔羅詩力說〉를 통해 노신에게 바이런이 어떠한 의미로 수용되었는지 알 수 있다. ‘魔羅’는 악마를 뜻하는 말로, 곧 영국 사회의 인습과 도덕을 격렬히 비판했던 바이런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노신은 셸리, 푸시킨, 레르몬토프, 미케이비치, 등의 낭만파 시인들을 바이런

28) 연안성 지음, 한영혜 옮김, 위의 책, 137-138쪽.

29) 마루오 쓰네키, 위의 책, 91쪽.

계열의 ‘악마과’ 시인으로 간주하면서 그들을 일탈적이나 욕정적인 퇴폐적 문학으로 보지 않고 그들을 ‘각각의 민족 특유의 개성을 빛내고 한결같이 세상에 아침하는 안일한 노래는 부르지 않’, 영웅적인 인물들로 보았다. 이광수에게 바이런은 본능을 일깨워 ‘정욕’에 대한 깨달음을 준 긍정적인 영향도 볼 수 있으나 사춘기적 욕정의 분출구로서 받아들여졌던 경향이 강하다고 볼 때 노신에게서의 바이런은 훨씬 혁명적이며 실천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비교 연구 역시 앞으로 깊이 있게 연구되어야 할 테마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바이런의 수용에 대한 이광수와 홍명희의 차이에서 보이듯이 이광수와 노신의 당시 나이나 상황의 다름으로 인한 차이가 아닐까 한다.

이러한 악마적이며 혁명적인 바이런의 낭만주의가 <광인일기>로 표출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세상에 대한 초인, 혁명이 중국 당대에 대한 비판과 계몽으로 나타날 때 중국의 봉건적 인습에 대한 냉엄한 비판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역사를 들추어 조사해 보았다. 이 역사에는 연대가 없고, 어느 면이나 ‘인의도덕’ 같은 글자들이 꾸불꾸불 적혀 있다. 나는 이왕 못 자게 되었으므로 밤중까지 열심히 조사해 보았다. 그러자 글자와 글자 사이에서 겨우 그 글자를 찾아 냈다. 책에는 온통 ‘식인’이란 두 글자가 적혀 있었다.<sup>30)</sup>

중국의 역사가 곧 식인의 역사라고 보는 ‘광인’의 외침은 중국 역사에 대해 외치는 노신의 풍자이며 동시에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오히려 미친놈 취급하는 세상에 대한 울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천 년이나 사람을 먹어 온 역사를 가진 우리. 처음엔 몰랐으나 이제는 알았다. 참다운 인간은 보기 어렵구나.’라는 주인공의 한탄 역시 그러한 노신의 심정을 대변한다. 식인 습관과 앞서 살펴본 중국 한방의 비합리성을 한 데 묶어 신랄하게 풍자하는 작품이 <약>이라고 할 수 있다. 폐병에 걸린 아이에게 사람의 장기(간인 듯)를 사서 먹이는 얘기를 다룬

30) 노신, <광인일기>, 《아Q정전》(서울: 혜원출판사, 1991), 17-18쪽.

〈약〉에 나오는 “보증하지 보증해! 그렇게 뜨거울 때 먹었으니까. 그런 인혈만두(人血饅頭)라면 어떤 폐병이라도 낫지!”<sup>31)</sup>는 단적으로 노신의 비판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보여준다.

#### 4. 마무리 - 차후 과제

노신과 이광수의 1910년대 유학 시절의 체험과 이후 그러한 체험이 소설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를 몇 가지 공통되는 큰 주제 아래 그 차이와 동질성을 살펴보았다. 이번 발표문을 일단 마무리하면서 차후 보완해야 하고 또한 이번 논문과 연결하여 새로운 논문의 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필자 스스로 생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번 발표문을 보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실증적인 자료(지금 현 상황에서 사실 유학 시절의 새로운 자료를 찾는 것이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를 찾고 분석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새로운 자료를 찾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들의 유학 시절의 독서 체험(그에 대한 목록이나 그 영향 관계에 관한 논문은 적지 않지만)과 문화 체험(이에 대해선 좀 더 현지답사라든가 실증적인 자료 발굴과 분석이 앞으로 있을 수 있다고 보며 그러한 작업을 차후 해나갈 계획으로 있다)에 대한 분석도 보충이 되어, 그들의 유학 체험에 대한 단순 비교가 아니라 근대 동아시아 지식인의 근대 문명에 대한 인식을 통한 동아시아 근대 담론의 형성이라는 큰 주제에 보다 적절한 소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노신과 이광수 두 작가 모두 유학 시절 문학에 뜻을 두었고, 그 문학을 통해 민족에게 도움이 되는 문인이 되고자 하였다. 그 유명한 환등 사건, 노신을 의학에서 문학으로 결정적으로 옮겨가게 만든 그 사건이나 이광수가 메이지 학원 시절, 러일 전쟁의 경험과 톨스토이주의에 경도하면서 민족 계몽으로서의 문학에 눈을 뜨고 1차 유학을 마치고 귀국할 때 기차칸에서 겪었던 사건<sup>32)</sup>으로 더욱 민족 계몽을 자신의 책임으

31) 노신, 〈약〉, 위의 책, 39쪽.

32) 이광수는 양복 입은 자신을 일본인으로 알고 역원이 조선인이 타는 기차칸에 타지 말라고 했을 때, 울분을 느끼며 ‘나도 조선인이오’라고 하면서 조선

로 느끼는 사건 등에서 근대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지식인이자 문인이었던 두 사람의 공통적 운명과 시대 상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새삼 떠오른다.

중국문학 내에서의 노신의 초기 사상에 관한 연구나 한국문학에서의 이광수의 초기 사상 연구는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으나 두 작가의 사상에 관한 비교 및 그를 통한 동아시아 근대 지식인의 근대 인식에 관한 총체적 연구는 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차후 연속 연구 과제로 두 작가의 유학 시절 체험과 초기 논설을 중심으로 한 비교 분석을 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이광수, 《李光洙全集14》(서울: 三中堂, 1962)  
이광수, 《이광수 단편선 소년의 비애》(서울: 문학과지성사, 2006)  
노신, 《아Q정전》(서울: 해원출판사, 1991)  
노신, 이옥연 편역, 《아침꽃을 저녁에 줍다~노신 산문집》(서울: 도서출판 창, 1991)  
이광수, 〈今日 我韓靑年과 情育〉, 《대한홍학보》 10(1910)  
감태준, 〈李光洙의 첫 번째 유학 시대와 그 저작들〉, 《한국문학연구》 15(1992)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서울: 한길사, 1986)  
마루오 쓰네키(丸尾常喜), 유병태 역, 《魯迅》(서울: 제이앤씨, 2006)  
송백헌, 〈춘원의 소년의 비애 연구〉, 《문학사상》 18(1974)  
옌안성 지음, 한영혜 옮김, 《신산(神山)을 찾아 동쪽으로 향하네》(서울: 일조각, 2005)

---

인 칸에 타게 된다, 거기서 그는 질서 없고 더러우며 상스러운 조선인들을 보며 울고 싶었다고, 그래서 그들을 ‘깨끗하고 점잖게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내 책임’이라고 깨달았다고 〈나의 고백〉에서 밝힌 바 있다.

### 〈Abstract〉

Lee Gwang Soo (1892~?) and Noh Shin (1881~1936) were representative modern Korean and Chinese authors and thinkers, each. The two people were common in having a studying abroad experience in Japan, and the period is also the same as it was around the mid~to~later 1900s. In this regard, comparing and reviewing their studying abroad experience as well as the formation of the experience foremost, based on their common points of studying abroad in Japan, becomes an important job in a discourse about modern eastern Asia.

When conduct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ir study abroad experience and novels, focusing on their studying abroad and educational environm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its formation, as for Lee Gwang Soo, he reveals his experience and view of love along with humanitarianism and romanticism under the influence of Christianity and Tolstoi, whereas Noh Shin appeared to be directed to revolution, anti~feudality, and modern medicine with his tendency toward nationalism.

When analyzing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tradition and modernity, Lee Gwang Soo was shown to aspire to free love and to create individual character on the basis of the Jeongnyuk theory(cultivation of emotion), along with a strong sense of resistance to early marriage. Meanwhile, Noh Shin clearly demonstrated a critical spirit in his works against Chinese tradition, represented as Chinese queue, and strong anti~feudal spirit describing Chinese history as the history of cannibalism, figuratively.

Both the authors, Noh Shin and Lee Gwang Soo, aimed to advance in literature during their studying abroad, and they wanted to become literary men dedicated to their peoples

through literature. The need for research into the common destiny and the situation of the times of the two people, who were representative intellectuals and literary men in modern Korean and China, respectively, is again being made evident.

**Key Words:** modernity, studying abroad, civilization, enlightenment, anti~feudality, people

투 고 일 : 2009.2.5

심 사 일 : 2009.3.10-3.30

게재확정일 : 2009.4.25

# 한·중·일 자전체 소설에 나타난 공간의 근대성 연구\*

姜鯨求\*\* · 권혁건\*\*\*

## 〈목 차〉

1. 들어가며
2. 열린 대문과 마당의 부재
3. 칸막이 뒤의 숨은 공간
4. 외출과 배회의 공간
5. 자살과 공간의 괴리
6. 나오며

## 1. 들어가며

동양의 전통 사회에서는 자연과 인간, 왕과 신하, 개인과 사회, 나와 남 사이의不二적 통일성과 역동적 관계성이 중시되었다. 그것은 도연명의 다음과 같은 시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 있다.

세 가닥 길은 거칠어졌어도, 소나무며 국화는 여전한데.  
아이 손 잡고 방으로 드니, 동이에 가득한 술.  
표주박 잔을 들어 스스로 술을 기울이며,  
정원의 나뭇가지 바라보니 얼굴에 기쁨이 흐른다.  
남쪽 창에 기대어 스스로 잘난 맛에 기탁하니, 작은 방이 편안하다.  
정원은 매일 걸어 아취가 넘치고, 문은 있으나 항상 닫혀 있다.<sup>1)</sup>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23-A00011)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kkkang@deu.ac.kr)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교수

1) 三徑就荒, 松菊猶存. 携幼入室, 有酒盈樽. 引壺觴以自酌, 眄庭柯以怡顏. 倚南窗以寄傲, 審容膝之易安. 園日涉以成趣, 門雖設而常關. 陶淵明, 〈歸去來辭〉



도연명이 체험하는 공간은 행복감, 편안함, 우아함을 선물하는 세계이다. 사실 그것은 공간의 선물이라기보다는 개인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것은 지금·여기의 적극적 향유와 자족적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임에 틀림없다. 이를 통해 시인은 공간과의 완전한 합일을 이룬다. 공간은 거칠고(就荒), 좁지만(容膝), 거기에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덧칠하지 않으므로써 공간은 완전해진다. 이로 인해 황폐함과 비옥함, 작음과 거대함, 폐쇄와 개방의 상대되는 짝이 하나로 소통된다.

이에 비해 서양의 충격으로 시작된 근대사회에서 개인과 세계 사이에 칸막이가 세워지고, 역동적 교류가 사라지며, 상호간의 심각한 삐걱거림이 발생하게 된다. 이 삐걱거림은 근대성의 한 특징이기도 하다. 원래 근대성은 이항대립을 본질로 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푸코는 동일자와 타자의 관계로 설명한다. 동일자는 대상들의 차이를 부정하고 그것을 자신의 경계로 포섭하고 동일화하고자 한다. 이 동일화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동일자에 의해 배제되거나 억압되는 타자로 규정된다. 이로 인해 근대의 문화에는 이성--비합리성, 합리성--욕망, 문화--자연, 남성--여성, 식민지--피식민지 등과 같은 다층적인 이항대립의 강제가 내재하게 된다.<sup>2)</sup>

그런데 이 삐걱거림은 특히 근대적 개인과 자아의 표현에 힘쓴 동양 삼국의 작가들의 작품에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것은 우리가 체험한 바, 근대성의 이해에 어떤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한·중·일의 대표적 자전체 소설 작가인 이상(韓)과 郁達夫(中), 그리고 太宰治(日)의 소설에 표현된 공간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근대적 자아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이 서로 약속한 듯이 별거·동거가 공존하는 특이한 공간을 창조하였다는 점에서 비교탐색의 대상이 될 만하기 때문이다. 주된 고찰대상이 되는 소설은 이상의 <날개>, 郁達夫의 <봄바람에 흠뻑 취한 밤(春風沈醉的晚上)>, 太宰治의

2) 이에 대해서는 이경덕 등 역,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서울: 이산, 1997), 14-16쪽 및 광승미, 《한국문학과 근대성》(서울: 푸른사상, 2003), 22-32쪽 참조.

〈광대의 꽃(道化の華)〉 3편이고, 그 밖의 대표작들이 참고자료로 쓰이게 될 것이다.

## 2. 열린 대문과 마당의 부재

이들 세 작가의 작품에 묘사된 공간은 대문이 열려 있거나, 아예 없는 집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 대문은 외부와 내부, 사회와 개인을 나누는 경계가 된다.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개인은 대문을 통해서 이 두 세계 사이를 적절히 출입하며 그것을 공유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문은 열림과 닫힘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반대로 대문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외부의 것들이 폭력적으로 밀려들어 오거나 전혀 소통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세 작가의 작품에는 바로 이렇게 허락 없이 밀려들어오는 외부적인 것들 앞에서 느끼는 정서적 불편함과 자아의 위축된 심리가 잘 나타나 있다.

먼저 전체적인 공간의 구성을 보자. 〈날개〉(이상)의 나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은 대문→마당→미단이문→(바깥방→장지문→숨겨진 방)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것은 구조와 형식에 있어서 전통 가옥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이 공간에 내부의 거주자가 안주할 수 있는 곳은 없다. 무엇보다도 무방비적으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손님과 장사꾼들이 막힘없이 이 공간으로 들어온다.

이 18가구를 대표하는 대문이라는 것이 일각이 저서 외따로 떨어지기는 했으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번도 닫힌 일이 없는 한길이나 마찬가지로 대문인 것이다. 온갖 장사치들은 하루 가운데 어느 시간이라도 이 대문을 통하여 드나들 수가 있는 것이다. 이네들은 문간에서 두부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단지만 열고 방에서 두부를 사는 것이다.<sup>3)</sup>

외부와 내부를 나누는 대문이 자기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문의 내부 공간 역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3) 이상, 《날개·권태·종생기 외》(서울: 범우사, 2001), 20쪽.

예컨대 마당이 그렇다. 마당은 가족 구성원이 함께 어울리는 한마당이 되는 공간이다. 그러나 〈날개〉의 마당은 서로 만나거나 섞일 수 없는 이질적 요소들이 떠다니는 공간이 된다. 특히 외부에서 들어온 손님들은 야한 농담을 하고, 음식을 시켜먹는 등 이 공간을 지배하면서<sup>4)</sup> 집주인을 소외시킨다.

다음으로 〈봄바람에 흠뻑 취한 밤(春風沈醉的晚上)〉(郁達夫)의 나가 살고 있는 작은 집은 거리→주인 방→2층 다락→(나의 방→미닫이문→陳二妹의 방)의 구조로 되어 있다. 2층 다락방의 층계참이 나의 방이고, 나의 방을 통과하여 미닫이를 열면 陳二妹의 방이 된다. 이 집에는 아예 대문이 없다. 거리로 난 문을 열면 거기가 바로 주인의 방이기 때문이다. 내가 방으로 들어가려면 거리에서 주인의 방을 통해야 하고, 그 방은 다시 陳二妹의 출입구가 되므로 결국 모든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여기에 공간의 구성원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마당은 없다.

앞의 골목에서 그 집의 문을 들어서면 바로 주인의 방이다. 낡은 천 조각, 양철깡통, 유리병, 흰 쇠붙이 등이 쌓여 있는 중간으로 몸을 옆으로 세워 두 걸음 나아가면 중간에 열기설기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벽이 있다. 이 계단을 통해 두 자쯤 되는 킁킁한 구멍으로 들이밀면 이층으로 올라가게 된다.<sup>5)</sup>

이 열린 문을 통해 주인은 자본의 낡은 폐품들을 들여오고, 陳二妹는 원한과 슬픔을 들여온다. 이렇게 외부의 부정적인 것들이 막힘없이 문에 들어오는 이 공간은 결국 거리에 비해 더 누추하고 어두운 공간이 된다. 왜 陳二妹가 집에서 울지 않고 공장으로 오가는 길에서 우는가? 우는 행위는 내밀한 것이지만 이 빈민굴의 허물어진 공간은 그러한 정

4) 내객들은 장지 저쪽에 내가 있는 것을 모르나보다. 내 아내와 나도 좀 하기 어려운 농을 아주 서슴지 않고 쉽게 해 내던지는 것이다.……그들 가운데는 펍 교양이 열린 자도 있는 듯싶었는데 그런 자는 보통 음식을 사다 먹고 논다. 이상, 《날개·권태·종생기 외》(서울: 범우사, 2001), 26쪽.

5) 从前面的衙里踱进了那房子的门, 便是房主的住房。在破布洋铁罐玻璃瓶旧铁器堆满的中间, 侧着身子走进两步, 就有一张中间有几根横档跌落的梯子靠墙摆在那里。用了这张梯子往上面的黑黝黝的一个二尺宽的洞里一接, 即能走上楼去。郁達夫, 《郁達夫文集·第1卷》(香港: 花城出版社, 1982), 238쪽.

신적 이완조차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나 또한 정신적 휴식이 필요할 때 거리로 나간다. 이처럼 방과 거리가 뒤섞이게 된 것은 바로 대문이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太宰治의 〈광대의 꽃(道化の華)〉의 공간은 요양원의 병실이다. 요양원은 하나의 독립되고 완결된 사회로서 여러 개의 병동을 갖고 있는 복잡한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자살미수의 주인공 오바 요조(大庭葉藏)<sup>6)</sup>가 일종의 감금치료를 받고 있는 이 슬픔의 도시(悲しみの市) 세이쇼엔(靑松園)의 병실은 바닷가→요양원→東 제일병동→(요조의 병실→간호원 마노의 병풍→베란다)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역시 대문과 마당은 없다. 따라서 사람들은 직접 병실의 문을 열고 들어온다. 이 병실의 문은 그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열고 들어올 수 있는 문이다. 그래서 간호원 마노(眞野)가 관리하는 이 병실의 문을 통해 무례한 형사들이 들어오고, 속물 히다(飛驒)가 뛰어 들어오고, 미숙한 고스게(小管)가 얼굴을 내밀고, 권위를 전시하는 요조의 형이 원장의 안내를 받아 문을 열고 들어온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병실의 주인인 요조나 관리인인 마노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허락 없이 문을 밀고 들어온 이들은 요조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각자의 눈으로 판단하거나 자신들의 가치관을 강요한다. 그들의 허락받지 않은 방문에 의해 요조의 병실 공간 역시 이질적 존재들이 분주하게 스치는 거리로 변한다. 여기에 마당의 만남이나 교류는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열린 문의 심층적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이 국가와 사회, 개인의 문호개방을 강요받았던 당시의 동양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사회적 상황은 개인의 내면에 투영되어 보다 복잡한 해석과정을 거친 뒤 재투사된다. 특히 상기 세 작

6) 大庭葉藏는 작가 자신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 이름이 어떻든 그것은 '나(私)'의 별칭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작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いつそ「私」としてもよいのだが、僕はこの春、「私」といふ主人公の小説を書いたばかりだから二度つづけるのがおもはゆいのである。*(보다 나은 이름도 있겠지만 내게는 약간 거주장스럽다. 차라리 '나'라고 해버려도 좋은데, 나는 올 봄에 '나'라는 주인공의 소설을 쓴 적이 있기 때문에 두 번 계속하는 것이 낫간지럽다.) 다자이오사무 지음, 유숙자 옮김, 《만년》(서울: 도서출판 소화, 2005), 110쪽.

가의 작품처럼 그것이 자서전체 소설일 경우, 소설의 공간은 자아의 심리적 내면풍경의 뚜렷한 투영물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동양의 전통적 지식인들은不二적 통일성과 역동적 관계성 속에 살고 있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각 개인은 그 통일성과 관계성의 총화였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 개인은 신, 자연, 제왕 등과 같은 그 관계성의 짝을 상실하게 된다. 이로 인해 개인은 한 다리로 홀로 서야하는 절름발이<sup>7)</sup>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개인과 자아는 합일과 화해의 관계 속에 녹아들지 못하고, 나 아닌 것에 대항하여 자기보호의 강박관념에 빠지게 된다. 이 상황에서 나 아닌 모든 것은 자아를 위협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날개>의 돈을 주고 여인을 사는 손님들, <봄바람에 흠뻑 취한 밤>의 공간을 채우는 자본의 찌꺼기라 할 폐품들, 그리고 <광대의 꽃>의 형님의 무례한 방문과 같이 그것이 돈으로 매개되어 있는 경우 그 위협의 정도는 배가된다.

너도 먼 장래 일을 생각지 않으면 안 돼. 집에도 그렇게 돈이 있는 게 아니니까. 올해는 심한 흉작이야. 너에게 말해봤자 아무 소용없겠지만 우리 은행도 지금 위태로운 상태이고, 대단한 소동이야. 너는 웃을지 몰라도 예술가든 뭐든 우선 생활문제를 생각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sup>8)</sup>

이렇게 열린 문을 통해 들어온 외부의 손님은 거칠게 수량화된 돈의 가치로 모든 것을 재단한다. 또한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을 폭력적으로 지배하면서 개인, 혹은 자아를 구성하는 것들을 전혀 존중해주

7) <날개>의 나는 다음과 같이 자기 부부를 절름발이 부부라고 규정한 바 있다.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내가 아내나 제 거동에 로직을 붙일 필요는 없다. 변해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이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이상, 《날개·권태·종생기 외》(서울: 범우사, 2001), 47쪽.

8) お前も、ずっと將來のことを考へて見ないといけないよ。家にだつて、さうさう金があるわけでないからな。ことしは、ひどい不作だよ。お前に知らせたつてなんにもならぬだらうが、うちの銀行もいま危くなつてゐるし、たいへんな騒ぎだよ。お前は笑ふかも知れないが、藝術家でもなんでも、だいいちばんに生活のことを考へ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ふな。다자이오사무 지음, 유숙자 옮김, 《만년》(서울: 도서출판 소화, 2005), 156쪽.

지 않는다. 젊은이들의 담화를 쓸데없는 소음으로 여기고 정숙을 명령하는 병원 측의 태도가 그 한 예이다. 그러니까 밖에서 열리기만 하고 안에서 잠글 수 없는 대문, 그리고 그것이 구성하는 공간은 소멸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자아의 심리적 불안감을 투사한 형상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열린 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로 그 성격을 달리 하고 있다. 우선 〈날개〉(이상)의 열린 문은 정식 일각대문으로서, 골목길에서 바로 주인의 방으로 통하는 〈봄바람에 흠뻑 취한 밤〉(郁達夫)의 경우와도 다르고, 내부에 식당과 활동실 등을 완비한 건물의 복도에서 기호로 부호화되어 있는 〈광대의 꽃〉(太宰治)의 병실 문과도 다르다. 이렇듯 열린 문, 노출된 개인, 그리고 자아의 불안감이라는 점에서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지만, 그 외적 형식은 이렇게 분명히 다른 성격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날개〉의 열린 문이 정식 일각대문이라는 점, 그것이 마당을 구성한다는 점, 심지어 각 미닫이문에 명함을 문패삼아 붙여 놓았다는 점 등에 있어서 이 공간은 가옥의 필수 요소들을 형식적으로 완비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그 열림과 노출은 대문에서 마당 사이뿐만 아니라, 마당에서 미닫이문, 미닫이문에서 또 하나의 장지문으로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그 열림과 노출의 정도는 다른 두 작품에 비해 더욱 철저하고 전일적이다. 즉 열림과 노출이 형식적, 내용적으로 완결되어 있는 것이다. 일제의 지배, 자본의 침입이 보다 전일적으로 관철되고 있었던 당시 조선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이에 비해 〈봄바람에 흠뻑 취한 밤〉(郁達夫)의 공간은 낮고 누추한 빈민굴의 가옥의 형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반쪽짜리 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림과 노출의 정도는 부분적이며, 약간의 은거와 양생이 가능한 내밀성까지 갖고 있다. 자본과 봉건, 피동적 열림과 능동적 개방이 공존하고 있었던 근대 上海의 상황과 그것을 내면화한 지식인의 내면풍경이 읽혀지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광대의 꽃〉(太宰治)의 경우, 문이 무방비적으로 열려 있고, 개인 또한 전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상, 郁達夫의 경우와 유사하다. 그러나 그 공간이 전체로서 완성되어 있고, 내부적으

로도 보다 세밀하게 쪼개져 있다는 점에 있어서 주목을 요한다. 우선 주인공이 수용되어 있는 병실은 외부로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병원의 내부와 연결되어 있다. 식당과 회의실, 병실 등 그 각각의 공간들을 전부 합하면 하나의 자족적 전체를 이룬다. 일본의 근대적 개방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점, 그것이 어느 정도 완결되어 외부에 대한 내부를 설정하는 단계를 넘어 이미 내부적 자체고민을 수행하는 단계에 있었다는 점 등과 같은 일본적 특수성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개인과 자아가 끝없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아슬아슬한 외발서기를 한 개인은 또 다른 숨은 공간으로 물러난다. 그것은 음주, 자살, 은둔 등의 형태를 취하기도 하지만 위의 세 소설에서는 그에 앞서 새로운 칸막이를 설치하는 일로 나타난다.

### 3. 칸막이 뒤의 숨은 공간

이들 작가의 작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는 숨은 공간은 칸막이를 통해 구현된다. 먼저 이 특이한 공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날개〉에서 나는 몸을 과는 매춘부의 기동서방이다. 장지문으로 나뉜 공간의 바깥쪽은 아내가 기거하며 손님들을 받는 방이고, 안쪽의 공간은 내가 잠자고 공상하며 살아가는 방이다. 나는 아내와 가끔 대면하지만 어느 부부처럼 함께 사는 것은 아니다. 밥도 따로 먹고, 잠도 따로 자기 때문이다. 아내는 가끔 내 방으로 건너오며, 나는 주로 아내가 없을 때 아내의 방으로 건너가 햇볕과 화장품과 아내의 옷들을 구경한다. 나는 밤에 외출을 하며 출입을 할 때 아내의 방을 거쳐야 한다.

〈봄바람에 흠뻑 취한 밤〉에서 내가 세 들어 사는 방은 담배공장 여공인 陳二妹의 방과 미담이로 나뉜 공간이다.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陳二妹는 출퇴근을 위해 출입을 할 때 나의 방을 통과해야 하고, 그 때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가 지나갈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매일 출근을 해야 하는 陳二妹와 달리 나는 어두운 나의 방에서 거의 외출을 하지 않으며 잠을 자거나 책을 읽거나 번역을 한다. 그리고 주로 밤 시간에 간혹 외출을 하며, 외출은 陳二妹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된다. 내가 밤에 불의한 짓을 저질러 돈을 벌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광대의 꽃〉에서 주인공은 바다로의 투신자살을 시도한 뒤 병원에 입원하여 간호사와 침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 병실의 공간은 베란다와 병실로 나뉘어 있고, 병실은 다시 병풍으로 둘러쳐진 간호사의 취침공간과 나의 침대로 나뉘어져 있다. 여기에서 주인공 오바 요조(大庭葉藏)는 간혹 나만의 공간을 찾아 베란대로 나간다. 또한 간호원과 친구들을 통해서 외부와 소통하며,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고, 퇴원 전날에는 간호원 마노(眞野)와 뒷산을 오른다.

그렇다면 이 세 작가가 그려낸 공간, 즉 불완전한 동거--그것은 별거이기도 하다--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누에고치와 같은 공간의 심층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이 공간을 나누는 칸막이의 미약하고도 가련한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외부의 손님에게 무방비로 열려 있는 공간에서 최소한의 은폐성과 안정감을 확보하기 위한 자아의 방어전략에 해당하지만 그 효과는 의심스럽다. 무엇보다도 칸막이 뒤의 이 공간은 독립되어 있지 못한 부속적이며 임시적인 공간이다. 그것은 큰 방의 선의와 배려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공간이다.

예컨대 〈날개〉의 ‘내 방’은 아내의 방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 조식밥은 물론 햇볕과 공기까지도 아내의 방에서 들어온다. 〈봄바람에 흠뻑 취한 밤〉의 내 방은 陳二妹의 입장에서 보면 통로일 뿐이다. 이 통로를 방으로 조성하는 것은 陳二妹의 조심스럽게 배려하는 태도이다. 〈광대의 꽃〉의 병실은 간호원 마노(眞野)의 감싸고 보호하는 마음에 의해서 공간의 안정성이 확보된다. 바로 이런 점에서 주인공과 공간을 나뉘 쓰고 있는 여인들은 세계와 나를 나누는 보호용 칸막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그 큰 방, 혹은 그 큰 방의 주인인 여성 역시 부속적이고 기생적이라는데 있다. 그것은 보다 지배적인 공간에 의해 타자화되고 있으며 돈의 지배--그것은 돈의 소외이기도 하다--를 받고 있다. 그래서 〈날개〉의 아내는 몸을 파는 매춘부이며, 〈봄바람에 흠뻑 취한 밤〉의 陳二妹는 매일 10시간의 노동에 강요된 잔업을 견딘 대가로 방세와 식비를 대기에 빠듯한 돈을 받는다. 〈광대의 꽃〉의 마노(眞野)는 원장파



간호부장에게 정신과 육체를 구속당하는 댓가로 생활을 유지한다. 또한 그녀는 병실의 모든 내객들을 맞아야 할 뿐 아니라, 환자의 병실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환자의 모든 상태를 책임져야 하는 육체적·정신적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약자이다.

그런데 칸막이 뒤의 숨은 공간은 큰 방의 구속과 노출의 정도에 정비례한다. 〈날개〉에서 아내의 방에 손님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잠이 잘 오지 않으며, 〈봄바람에 흠뻑 취한 밤〉에서는 陳二妹의 처지와 슬픔에 공감하게 되며, 〈광대의 꽃〉에서 전담 간호사인 마노가 간호부장에게 지적을 받자 오바 요조의 병실 분위기는 급전직하 우울한 분위기를 띠게 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마노가 그 요양원의 간호부장에게 꾸중을 들었다. 웃음소리가 일고 오 분도 못되어 마노가 간호부장 방에 불려가, 조용히 해요 하고 따끔하게 야단맞았다. 금방이라도 울듯이 그 방을 뛰쳐나와, 트럼프를 중단하고 병실에 빈둥거리고 있는 세 사람에게 이 일을 알렸다. 셋은 아프도록 무참히 기가 죽어 오랫동안 그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고 있었다.<sup>10)</sup>

칸막이 뒤의 숨은 공간은 이처럼 무력하며, 따라서 문은 닫혀 있으나 그 노출로 인한 불안을 해결해주지 못한다. 그런데 이 세 편의 소설에 묘사된 칸막이 뒤의 숨은 공간은 이러한 공통된 특징 외에 뚜렷하게 구별되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 그것은 바로 칸막이와 유비적 관계에 있는 동거 여인의 성격에서부터 비롯된다. 먼저 〈날개〉의 아내는 이 숨은 공간을 지배하고 나를 사육하고 있다. 아내는 열린 문으로 들어온 손님

9)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이불 속에서 아내가 늘 흔히 쓸 수 있는 저 돈의 출처를 탐색해보는 일변 장지 틈으로 새어 나오는 아랫방의 음식은 무엇일까를 간단히 연구하였다. 나는 잠이 잘 안 왔다. 이상, 《날개·권태·중생기 외》(서울: 범우사, 2001), 27쪽.

10) 眞野がその療養院の看護婦長に叱られたのである。笑ひ聲が起つて五分も経たぬうちに眞野が看護婦長の部屋に呼ばれ、お静かになさいとずるぶんひどく叱られた。泣きだしさうにしてその部屋から飛び出し、トランプよして病室でごろごろしてゐる三人へ、このことを知らせた。三人は、痛いほどしたたかにしよげて、しばらくただ顔を見合せてゐた。다자이오사무 지음, 유숙자 옮김, 《만년》(서울: 도서출판 소화, 2005), 160-161쪽.

들의 돈에 자신을 파는 대신, 다시 칸막이 문을 열고 나의 방으로 들어와 나에게 돈을 주어 지배와 간섭의 희열을 즐긴다. 따라서 아내는 나를 외부세계로부터 보호하고 감추는 칸막이를 자처하지만, 그 자신이 손님이 되어 나의 공간을 열어젖히는 지배자, 혹은 침입자의 역할을 즐긴다. 이를 위해 아내는 심지어 나의 출입을 감독하고 때로는 수면제를 써서 나의 잠까지 조절하고자 한다.

군사제국주의의 형태로 대문을 열어젖히고 들어오는 근대의 물결이 조선의 전역을 덮었을 때, 이 땅의 주민들은 대체로 무조건적 추종과 끝없는 도피의 양극단을 택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 양극단 중 도피의 쪽을 택한 개인들이 체험했던 노출의 불안은 보다 조악하고 극단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외부 침입자의 지배와 그 대리인들을 자처하고 나선 동일자들의 감시와 간섭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봄바람에 흠뻑 취한 밤>의 칸막이는 불완전한 공존이기는 하지만 '우리(중국의) 공간'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 우선 陳二妹는 담배공장의 조악한 공간과 다락방의 공간을 구분한다. 이곳은 아무리 누추해도 저 바깥과 구별되고 동일화되지 않는 곳이다. 마찬가지로 陳二妹는 치근덕거리는 공장의 관리인에 맞서 자기의 몸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지 않는다. 陳二妹의 외부세계에 대한 적개심은 다락방의 동거인인 나에 대한 동정심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방문을 나에게 열어주게 된다.

내가 대신 종이봉지를 받아들자 그녀는 문을 열고 나를 그녀의 방으로 초대했다. 이 10여일 사이 그녀는 벌써 내가 짐작은 사람이라 믿게 된 것 같았다.<sup>11)</sup>

중국 근대의 역사적 상황은 반식민사회라는 말로 요약된다. 그것은 국가사회의 운영에 외세의 부분적 간섭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그 지배와 간섭이 전일적이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깨어지고 왜곡되어 불완전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그 지배에서 벗어난 공

11) 我替她拿住了纸包，她就开了门邀我进她的房里去，共住了这十几天，她好像已经信用我是一个忠厚的人的样子。郁達夫，《郁達夫文集·第1卷》(香港：花城出版社，1982)，241쪽.

간이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이해된다. 陳二妹의 경우가 그랬던 것처럼 그 공간은 사회의 주류에서 밀려난 공간이기는 하였지만, 스스로 문을 열어 상대를 초청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공간<sup>12)</sup>이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나는 일시적으로 대상과의 합일을 체험한다. 이렇게 〈봄바람에 흠뻑 취한 밤〉의 칸막이는 한시적이며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안정감을 주는 내밀한 공간을 창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광대의 꽃〉의 마노(眞野)는 병실에 생기를 부여하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공간을 주도하지 못한다. 심지어 히다(飛驒)나 고스케(小菅)가 찾아오면 그 공간을 내어놓고 화면 밖으로 사라지기까지 한다. 또 병원장이나 간호부장의 명령을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그 역할이 급격하게 소멸된다.

따라서 베란다로 통하는 미닫이, 마노의 잠자리를 위한 병풍 등은 칸막이의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요조는 그 뒤에 숨지 못한다. 그래서 카드놀이를 할 때마다 형에게 들키게 되고, 그리던 그림은 히다(飛驒)의 눈을 피하지 못하며, 병실에서의 대화는 간호부장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조는 칸막이 뒤에 숨기보다는 자발적 자기노출을 감행한다. 그래서 병실은 고립된 자아가 세계와 동화되지 않고 맞대결하는 전장이 된다. 같은 차원에서 〈광대의 꽃〉에는 외계의 침입에 대한 두려움이나 하소연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미 개인과 자아를 위한 개별적 투쟁<sup>13)</sup>을 전개되고 있었던 일본의 당시 역사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12) 郁達夫는 〈遲桂花〉 등의 소설에서 농촌이나 산촌을 묘사하면서 근대화의 격류에 휩쓸리지 않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그린 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초청에 의한 외출일 뿐 소설의 주인공은 다시 도시로 돌아와 고독한 자아를 확인하는 운명에 있다.

13) 사실 이러한 자아의 개별적 투쟁은 太宰治나 아쿠다가와 류우노스케(芥川龍之介, 1882-1927),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 1925-1970) 등의 자살을 통해서도 상징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비해 이상은 일본당국에 의한 구속생활에서 병을 얻어 세상을 떴으므로 실질적으로는 타살당한 것이고, 郁達夫 역시 죄여 오는 정치적 압박을 피하다가 결국 일본의 패망직전 행방불명이 되었으므로 그는 어찌 되었든 타살당한 셈이 된다. 그 타살의 주체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못하고 있지만 자살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역시 외부의 침입과 지배에 끝없이 시달리는 생애를 살았다고 할 수 있다.

#### 4. 외출과 배회의 공간

전술한 바 관계의 통일성이 허물어진 자리에서 주인공들이 발견한 것은 붕괴의 위협에 처한 자아였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고찰하고 있는 공간의 상황이기도 하다. 사실 인간과 신, 인간과 자연, 신하와 왕, 지식인과 백성의 관계에서 한쪽이 사라졌다면 개인이 속한 다른 한 쪽도 이미 무너져 있었다고 보는 쪽이 옳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자아, 혹은 이미 무너져 버린 자아를 목도하면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어떠한 것이었을까? 그것은 무너진 관계성을 회복하는 일과 개인의 자아를 강화하는 길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신을 대신할 초인을 설정하고, 왕을 대신할 조국과 민족, 그리고 백성을 대신할 민중을 찾아 그 상대되는 짝으로서 자기 역할을 규정하고 그에 투신하는 것은 관계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자아가 무너진 이유를 자아의 허약함과 미숙함으로 보고 그것을 강화하고 보호하려는 개인주의적 노력이 될 것이다. 개인주의는 서양에서 밀려들어온 근대, 혹은 근대적인 것들 중의 한 중요한 내용이었지만 동양의 경우, 주로 지식인들에 있어서 현실적 과제로 이해되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길이 그렇게 서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 되었든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작품의 주인공들이 그 소수 지식인의 전형이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과연 세계와 구별되는 자아의 실체는 있는 것인가? 사실 자아의 실체는 양과껍질과 같이 아무리 벗기고 들어가도 찾아지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 작품의 주인공들이 직면한 것도 바로 이런 문제였다. 나, 혹은 자아를 찾는 과정에서 비본질적인 찌꺼기들을 버리고, 또 버리며, 숨어 들어간 칸막이 뒤의 숨은 공간! 거기에도 여전히 돈과 권력과 관계의 메카니즘이 작동하고 있었다. 거기에서 진짜 자아를 찾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자신들이 버려왔던 대문 밖의 세계에 대해 다시 관심을 돌리게 된다. 그것이 바로 외출이었다.

〈날개〉의 나는 다섯 번의 외출을 감행한다. 첫 번째 외출은 목적 없고 방향 없는 것이었다.

그것(돈)을 주머니에 넣고 나는 목적을 잃어버리기 위하여 얼마든지 거리를 쏘다녔다. 오래간만에 보는 거리는 거의 경이에 가까울 만치 내 신경을 흥분시키지 않고는 마지않았다. 나는 금시에 피곤하여 버렸다. 그러나 나는 참았다. 그리고 밤이 으스스하도록 까닭을 잊어버린 채 이 거리 저 거리로 지향없이 헤매었다.……나는 과연 피로를 이 이상 견디기가 어려웠다.<sup>14)</sup>

가는 목적지도 없고, 방향도 없이 쏘다니는 이러한 나의 발걸음이 구성하는 공간은 정해진 모양이나 크기가 없다. 그렇다면 이 틀을 벗어난 공간, 타인에게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는 이 구속 없는 공간에 자아만 뚜렷하게 남게 되는 것일까? 〈날개〉에서는 이 간섭당하지 않는 진공의 공간에서 자아는 지탱하기 어려운 것으로 묘사된다. 예문에 나타난 것처럼 ‘피로를 이 이상 견디기가 어렵다.’ 왜 그럴까? 열린 대문으로 쳐들어오는 사회와 돈, 속물들을 피해 칸막이 뒤로 숨던 그 순간에 분명하게 감지되던 자아, 혹은 있을 것으로 기대되던 자아, 그리고 아내 방에서 들려오는 음탕한 인기척에 귀 기울이는 동안 분명하게 꿈틀대던 자아가 간섭과 지배의 위협이 사라진 이 공간에서 왜 지탱하지 못하게 되는가? 자아는 대상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아를 위협하기는커녕 나의 존재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도 주지 않는 냉정한 무관심의 공간. 그 진공의 공간에서 자아는 자기 호흡을 위한 공기의 부족을 느낀다.

〈날개〉의 나가 경험하는 두 번째 외출에서 우리는 그 이해의 단초를 발견한다. 이 두 번째 외출은 아내에게 돌아와 돈을 주고 함께 자겠다는 뚜렷한 목적을 갖는 것이었다. 그것은 나가 부정해온 바, 돈을 주고 아내의 몸을 사는 손님이 되는 일이기도 하였다. 과연 이 날의 외출은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sup>15)</sup> 돈이 지배하는 광장을 피해 밀실로 들어온 내가 돈을 주고 아내의 몸을 사는 일에 신나하는 아이러니. 그것은

14) 이상, 《날개·권태·종생기 외》(서울: 범우사, 2001), 30-31쪽.

15) 나는 저물도록 길가 시계를 들여다보고 들여다보고 하면서 또 지향 없이 거리를 방황하였다. 그러나 이 날은 좀처럼 피곤하지는 않았다. 다만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가는 것만 같아서 안타까웠다. 이상, 《날개·권태·종생기 외》(서울: 범우사, 2001), 36쪽.

작가 이상의 이중풍자<sup>16)</sup>적 글쓰기 전략의 일환으로서 자아의 허구성이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즉 돈의 순환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할뿐더러 심지어 그 역할에 신이 난 꼭두각시 역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혹은 당신--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왜 피곤하지 않는가? 돈을 내고 잠자리를 요구하는 나에게 아내가 반응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 반응에서 거기에 투영된 자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 번의 외출과 똑같은 거리에서의 배회이고, 똑같은 방향이었지만, 그 발걸음이 구성하는 공간은 아내의 방으로 향하는 뚜렷한 방향을 가진 길이 된다. 이 방향을 가진 길이 바로 확인가능한 자아의 흔적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내가 피곤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의 순환구조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나의 자아는 안주할 곳을 찾았던 것일까? 그것 역시 버리고 숨어들면서 자아의 실체를 찾으려 했던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무엇보다 돈과 나는 상호배척의 관계에 있다. 즉 내가 돈에서 도피한 것이기도 하지만, 돈이 나를 버린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 진실에 가깝다. 세 번째 외출을 통해 그것이 확인된다.

세 번째 외출은 바로 이러한 아내와 나 사이의 사고팔기의 놀이가 현실에서는 용납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세 번째로 외출한 나는 경성역 찻집에 ‘아무 것도 없는 것과 마주 앉아서’<sup>17)</sup> 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이 공간은 결코 내가 ‘안주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손님과 찻집의 관계는 일시적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돈에만 반응하는 찻집 주인은 자아를 투영하는 거울이 되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빗속을 배회하던 나는 다시 아내가 손

16) 예컨대 〈지주회시〉에서 아내는 몸을 팔아 나를 키우고, 마유미는 몸을 팔아 오를 키운다. 그리고 나는 아내가 손님에게 맞아 번 20원의 돈으로 마유미의 몸을 산다. 그것은 사회에 대한 비판인 동시에 돈을 멸시하고 고상한 삶을 산다고 자처하는 나(지식인)에 대한 철저한 풍자로서, 이상의 독특한 이중풍자가 하나의 유형이 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상, 〈지주회시〉, 《날개·권태·종생기 외》(서울: 범우사, 2001), 88-109쪽 참조.

17) 나는 한 복스에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주 앉아서 잘 끓은 커피를 마셨다. 충충한 가운데 여객들은 그래도 한 잔 커피가 즐거운가 보다. 얼른얼른 마시고 무얼 좀 생각하는 것 같이 담벼락도 좀 쳐다보고 하다가 곧 나가 버린다. 서글프다. 이상, 《날개·권태·종생기 외》(서울: 범우사, 2001), 39쪽.

님을 받고 있는 집으로 귀가한다. 그런데 이후 나의 칸막이 뒤의 방은 상대에 대한 투영도 없고, 자아에 대한 자각조차 없는, 현실이 박탈된 진공의 공간으로 변한다. 내가 아내가 주는 약을 먹고 끝없는 잠에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자아의 위기감조차 느낄 수 없는 무감각의 상태에서 공간과 나의 상호작용 또한 정지된다.

그래서 나는 네 번째의 가출을 감행한다. 나는 산의 벤치에서 수면제 여섯 개를 씹어먹고 하루를 잔다. 잠결에 바위틈을 흐르는 물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나는 여전히 무감각 상태에 빠져있으며 공간과 나의 상호작용은 전무에 가깝다.

마지막의 외출은 미쓰코시 옥상이고 때는 대낮이다. 여기에서 나는 스스로 참여하지 않은 채 금붕어를 들여다보거나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본다. 공간은 넓게 확산되어 있으나 그 어느 곳에도 자아의 작용이나 투영의 흔적은 없다. 고치집의 안식이 없이 나비의 날개짓이 불가능하듯, 노출된 밀실에서 탈출한 나는 비상할 수 없다. 공간은 무한하지만 나는 그 속에 자취 없이 추락해갈 뿐이다.

이렇듯 <날개>의 외출은 자아를 찾는 여정의 일환이었으며, 대문 밖의 사회에서 관계성을 찾고자 하는 시도가 밀실로 숨는 일만큼이나 불가능한 것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그렇다면 <봄바람에 흠뻑 취한 밤>의 외출은 어떠한가?

그래서 나는 요 며칠 간 저녁이 되어 도로에 인적이 드물어진 후 항상 산보를 나가곤 했다. 혼자 길 위의 좁고 검푸른 하늘에 뜬 별들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걸으며 끝없는 공상에 잠기곤 했는데 이것이 나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봄바람에 흠뻑 취한 밤이면 나는 여기저기를 지향없이 걷다가 날이 밝으면 그제야 집으로 돌아오곤 하였다.<sup>18)</sup>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봄바람에 흠뻑 취한 밤>의 고치 집과 같

18)所以我这几天来到了晚上,等马路上人静之后,也常常想出去散步去。一个人在马路上从狭隘的深蓝天空里看看群星,慢慢的向前行走,一边作些漫无涯际的空想,倒是于我的身体很有利益。当这样的无可奈何,春风沉醉的晚上,我每要在各处乱走,走到天将明的时候才回家里。郁達夫,《郁達夫文集·第1卷》(香港:花城出版社,1982),244쪽.

은 밀실은 형식적으로는 불완전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우리라는 공감대와 그로 인한 안도감을 느끼는 공간이었다. 따라서 나의 외출은 또 다른 도피, 혹은 탈출이 아니라 달팽이의 촉수의 조심스러운 외계 탐색에 가깝다. 그것은 보다 대담해져서 세계와의 정상적 관계를 꿈꾸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한다. 즉 처음에는 우체통에 납몰래 원고를 투고하러 가는 수준이었던 이 외출이 나중에는 원고료를 찾고, 간식을 사고, 옷을 사는 ‘거래’를 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이 외출은 陳二妹가 나를 더욱 신뢰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한다. 즉 陳二妹가 나를 ‘우리’ 중의 하나로 보고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기원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내가 고민하는 것은 자아의 위기, 혹은 자아의 부재가 아니다. 그것은 관계의 한 쪽을 이루는 상대--사회, 혹은 국가--가 자신을 충분히 인정해주지 않는데서 오는 불만과 관련된 것들이다. 따라서 사회의 충분한 호응만 있다면--돈과 지위를 보장해 준다면--나의 고민은 해소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郁達夫 소설의 주인공들은 사회적 자기역할을 고민하고 모색하던 전통적 지식인의 모습과 닮아 있다. 물론 그것이 개인과 사회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고난을 견디는 굳센 선구자, 혹은 전형적 사대부의 모습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내가 좌절하고 실망할 때마다 자살을 꿈꾼다는 점에서 무너진 사회관계와 그로 인한 취약한 개인의 형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봄바람에 흠뻑 취한 밤>의 나가 어떤 식으로든 원활한 사회적 관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국가사회가 반쯤 무너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인들의 역할을 필요로 했던 당시 중국의 역사적 상황과 비유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비해 <광대의 꽃>의 외출은 <날개>의 경우와도 다르고 <봄바람에 흠뻑 취한 밤>의 경우와도 다르다. 우선 <광대의 꽃>의 오바 요조의 외출은 낮에 이루어진다. 그것은 창밖 풍경 스케치→베란다 외출→해변 산책→등산으로 연결되고 확대된다. 사실 요조의 외출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자기 설정의 행위에 가깝다. 풍경화 그리기는 고스계(小管)를 관객으로 설정한 것이고, 베란다 외출은 젊은 여자의 시선을 의식한 것이고, 해변의 외출은 오바 요조의 입장에서 보자면 고스계(小管)



와 히다(飛驒)의 이해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세 남학생의 입장에서 보자면 뒤에서 산책하고 있는 여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다.

요조의 다소 꾸민 듯한 포즈를 옆 눈으로 슬쩍 보고 나서, 그런 포즈를 취하게 한 근원을 찾아 빙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보았다. ……“소녀가 있어. 요짱이 그 애한테 득의의 옆얼굴을 보여 주고 있다구.”<sup>19)</sup>

문제는 요조가 이렇게 관심과 이해를 바라는 ‘포즈’를 취하지만 그 순간의 진실을 말하는 자아는 이미 흘러간 과거의 것이 되어버린다는 데 있다. 현재는 이해되고 규정될 수 없는 변화의 과정 속에 있다. 자아는 그 모든 것과 개인의 자기규정을 포괄하는 전체이므로 그에 대한 이해와 규정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 된다. 그래서 요조는 고정된 ‘포즈’를 취하는 것이다. 그 포즈의 가장 효과적인 형식이 바로 자살, 혹은 죽음<sup>20)</sup>이었다. 그러나 자살의 시도가 실패한 뒤 그 자살하던 자아는 이미 과거의 것이 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현재의 그에 대한 오해로 이어짐을 절감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조는 창문→베란다→해변→산의 열린 공간으로의 외출을 통해 포즈 보여주기를 계속하고자 한다.

문제는 요조가 자신의 어떤 측면을 이해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전체성을 이해받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요조를 형성하는 것

19) 葉藏のすこし氣取つたポーズを横眼でちらと見てから、そんなポーズをとらせたもとを捜しに、くるつと左へ首をねぢむけた。……「少女がゐるんだ。葉ちゃん、それへ得意の横顔を見せてゐるのさ。」 다자이오사무 지음, 유숙자 옮김, 《만년》(서울: 도서출판 소화, 2005), 122-123쪽.

20) 자살은 그 순간의 자아를 고정된 형태로 남게 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다. 더 이상 오해가 간섭, 강요로 인한 자아의 왜곡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조는 자신의 죽음을 설명하는 대신 몸을 던지기로 결심했을 때의 안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ほつとするよ。いま飛びこめば、もうなにもかも問題でない。借金も、アカデミーも、故郷も、後悔も、傑作も、恥も、マルキシズムも、それから友だちも、森も花も、もうどうだつていいのだ。それに氣がついたときは、僕はあの岩のうへで笑つたな。ほつとするよ。」(안심이 돼. 지금 뛰어들면 이제 아무것도 문제될 것 없다. 빛도, 공부도, 고향도, 후회도, 결작도, 수치도, 맘시즘도, 그리고 친구도, 숲도, 꽃도, 이제 아무래도 좋은 것이다. 그렇게 깨달았을 때 나는 저 바위 위에서 웃었어. 안심이 돼.) 다자이오사무 지음, 유숙자 옮김, 《만년》(서울: 도서출판 소화, 2005), 167쪽.

으로 이해되는 요소들, 즉 빛, 공부, 고향, 맑시즘...등을 포함하는 전체가 타인에게 이해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요조가 내면풍경으로 그린 바닷가의 섬 풍경은 히다가 느낀 것처럼 평범할 뿐이며, 베란다의 외출은 여성의 관심을 끌기 위한 청년의 속물적 행위로 이해되며, 자살 심리에 대한 설명은 무책임한 유혹의 말로 단정되는 것이다. 결국 나의 자아는 타인에게 끝내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나와 등산을 하는 마노는 요조가 산을 오르는 것은 후지산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자기 식으로 이해한다. 그렇지만 요조의 등산은 짙은 안개, 출렁대는 바닷물, 그리고 혹시 무엇이 있을까 하는 약간의 관심과 기대로 촉발된 것일 뿐이다. 사회적 관계와 그를 통한 성취를 포기한 젊은 노인인 요다가 외출을 통해 서 있는 공간은 그래서 일정한 형태로 구체되지 않는 바닷가, 산 정상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전부이며 아무 것도 아닌 그것일 뿐(そして、否、それだけのことである)이다.

## 5. 자살과 공간의 괴리

세 작가의 삶과 작품 활동에는 자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우선 작가 이상은 자살, 혹은 동반자살을 꿈꾸었으며, 그의 작품에는 자살에 대한 지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것은 자신의 ‘천재’성과 비범함을 증명하는 한 증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sup>21)</sup>이었다. 마찬가지로 郁達夫의 작품에는 처녀작 〈沈淪〉에서부터 죽음, 혹은 자살을 통한 개인의 비상, 사회적 외침이 중요하게 발견되고 있다. 또 다자이 오사무의 경우에도 죽음, 혹은 자살은 그의 삶과 문학의 주제가 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세 작가는 그 삶에 있어서도 항상 죽음을 가까

21) 김유정과 이상의 기대되는 죽음을 스스로 ‘이 신성 불가침의 찬란한 정사’로 규정한 것도 그렇고, 〈종생기〉에 보이는 다음과 같은 구절도 그러하다. 「열 세벌의 유서가 거의 완성해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어느 것을 집어내 보아도 다 같이 서른여섯 살에 자살한 어느 ‘천재’가 머리맡에 놓고 간 蓋世의 일품의 아류에서 일보를 나르지 못했다. 내게 요만 제주밖에는 없느냐는 것이 다시없이 분하고 억울한 사정이었고 또 초조의 근원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失花〉(이상, 《날개·권태·종생기 외》) 171쪽과 〈종생기〉(이상, 《날개·권태·종생기 외》) 115쪽 참조.

이 두고 있었다. 나아가 이들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죽음을 시도한다. 결국 이상은 일본에서의 수감생활에서 얻은 병으로 죽게 되며, 郁達夫는 일본헌병대와 관련되어 있음에 분명한 죽음을 맞았으며, 太宰治는 자신이 지향했던 바, 자살을 통해 생을 마감하게 된다.

그렇다면 본고에서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는 세 편의 작품에 자살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으며, 그것의 공간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우선 〈날개〉의 나는 대낮 미쓰코시 옥상에서 자살의 유혹을 느끼는 순간 다음과 같은 외침을 내뿜는다.

나는 불현듯이 거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날개야 다시 돌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sup>22)</sup>

날개를 가진 것의 비상! 그 비상이 시작되는 순간 그것이 시작된 지상은 허공으로 확대되어 새로운 차원의 공간<sup>23)</sup>이 된다. 더구나 나비의 비상에 극적으로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의 죽음과 하나의 탄생을 동시에 포함하게 된다. 고치집 속의 애벌레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은 죽음이지만, 나비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은 탄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애벌레와 나비는 서로 다른 돌이코, 구분할 수 없는 하나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비상 이전의 지상과 비상 이후의 허공은 서로 통일되어 있는 공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자기확산의 계기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나비의 비상에는 애벌레의 죽음, 혹은 자기초월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삶에 대한 달관, 지금의 나를 고집하지 않는 너그러운 포기와의 연관되어 있다. 누에고치의 방에서 나온 〈날개〉의 나는 지금의 나, 이 자아를 가진 그대로 비상하고자 한다. 그것은 揚州鶴의 풍자<sup>24)</sup>

22) 이상, 《날개·권태·종생기 외》(서울: 범우사, 2001), 48쪽.

23) 예컨대 安昌男이 조선인 최초로 하늘을 비행하였을 때 그 개인은 물론 조선의 공간의식에 질적 변화가 생겼다고 이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닐 암스트롱(Neil Alden Armstrong)의 작은 한 발자국은 지구의 공간을 천체로 확대한 첫 걸음이었다고 이해된다.

24) 揚州는 물산이 풍부한 곳으로 이곳의 刺史를 하는 일은 세상의 부귀공명을

와 유사하다. 그러나 〈날개〉의 날개 없는 비상은 자아의 해체와 새로운 존재의 탄생, 그리고 공간의 해체와 새로운 공간의 탄생을 불가능하게 한다. 그것은 자아의 해체를 거부하고 애벌레 그대로 비상하고자 한다. 공간의 해체를 거부하고 고치집 그대로 확산하고자 한다. 그것은 결국 지상에서 지상으로의 추락이다. 자아는 이를 통해 ‘박제’, 혹은 ‘부동 자세가 된 포즈’로 남게 된다. 그것이 자아의 실체를 추구하였던 개인에게 있어서 다행한 귀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근대적 자아의 불행에 대한 우화가 될 뿐이다.

다음으로 〈봄바람에 흠뻑 취한 밤〉의 나는 자살을 꿈꾸지만 그럴 용기조차 갖지 못한 자신을 동정한다.

자살! 나에게 용기가 있었다면 벌써 해치웠을 것이다. 아직까지 이 두 글자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의지와 기개가 아직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sup>25)</sup>

그러니까 나는 거리의 열린 공간에서 무궤전차의 기관사에게까지 ‘개새끼(黃狗)’의 욕을 들어야 하는 사회부적응자이다. 나에게 죽음은 이렇게 자신을 ‘개새끼’로 보는 사회를 향한 시위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내가 꿈꾸는 자살은 이 비좁고 누추한 빈민굴의 공간을 확산하고자 하는 ‘의지와 기개’의 발산인 것이다. 사실 郁達夫가 꿈꾼 자살의 의미는 그 처녀작 〈沈淪〉에서 찾는 것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다. 〈沈淪〉의 그는 바다에 뛰어들기 전에 이렇게 외친다.

---

한 손에 거머쥐는 일로 이해되었다. 옛날 선비들이 각자 소원을 말하는데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신선이 되고 싶다는 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이, 그리고 揚州刺史가 되기를 원하는 이가 있었다. 그 중 한 사람은 허리에 십만관을 두르고, 학을 타고, 양주의 하늘을 날고 싶다고 했다.俗을 유지하면서 仙의 세계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순된 희망을 품을 수 밖에 없는 俗의 심리. 이것을 蘇東坡는 〈綠筠軒〉이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可使食無肉, 不可居無竹./ 無肉令人瘦, 無竹令人俗./ 人瘦尚可肥, 士俗不可醫./ 傍人笑此言, 似高還似癡./ 若對此君仍大嚼, 世間那有揚州鶴.

25) 自杀! 我有勇气, 早就干了。现在还能想到这两个字, 足证我的志气还没有完全消磨尽哩! 郁達夫, 《郁達夫文集·第1卷》(香港: 花城出版社, 1982), 250쪽.

조국, 조국이여! 나의 죽음은 너 때문이다. 빨리 부유해지고 빨리 강해져라. 너의 많은 자녀들이 아직도 고통을 당하고 있단다.<sup>26)</sup>

개인은 조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부강하지 못한 조국으로 인해 개인이 겪고 있는 괴로움을 하소연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아는 보다 큰 자아인 국가사회에 속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므로 자살을 통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인 것이다. <봄바람에 흠뻑 취한 밤>의 자살에 대한 지향과 공간의 변화는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는가? 원고료 수령을 전후하여 한차례 세계와의 거래가 끝난 뒤 나는 다시 무력한 부적응 상태로 되돌아온다. 무거운 솜옷을 입고 치르는 깊은 밤의 산책도 변함이 없다. 그런데 이곳 빈민굴의 공간은 건너편 鄧脫路의 변쩍이는 빌딩과 대조된다. 이로 인해 공간은 분명하게 구별되는 두 세계로 나뉘게 되고, 그 두 세계를 공유하는 나의 자아는 심각한 분열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충동적 자살욕구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회적 배려와 인정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오히려 단순하다 할 수 있다. 요컨대 나는 세계의 인정을 받아 좁은 이 공간에서 넓고 화려한 저 공간으로 건너가기를 꿈꾸고 있는 것<sup>27)</sup>이다. 그런 점에서 나의 자살, 혹은 자살하겠다는 협박은 사회적 관심을 끌기위한 외침의 일환이었던 셈이다.

다음으로 <광대의 꽃>의 요조는 바다로의 투신, 그것도 잘 모르는 여자와의 동반자살을 실천에 옮겼다가 실패한 뒤 그에 대해 이렇게 회고한다.

안심이 돼. 지금 뛰어들면 이제 아무것도 문제될 것 없다. 빛도, 공부도, 고향도, 후회도, 결작도, 수치도, 맘시즘도, 그리고 친구도, 숲도, 꽃도, 이제 아무래도 좋은 거다. 그렇게 깨달았을 때 나는 저 바위 위

26) 祖國呀祖國! 我的死是你害我的! 你快富起來, 強起來吧! 你還有許多兒女在那裏受苦呢! 郁達夫, 《郁達夫文集·第1卷》(香港: 花城出版社, 1982), 53쪽.

27) 사실 郁達夫의 고뇌하는 자아를 표현한 작품들은 그의 삶이 윤택해지는 정도에 따라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다. 좁고 누추한 공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회적 명사가 되어 杭州에 대저택을 건설하는 등 성공적 삶을 살게 된 뒤의 작품에는 잘 나타나지 않게 된다.

에서 웃었어. 안심이 돼.<sup>28)</sup>

그러니까 오바 요조에게 자살은 분명 모든 공간과의 결별, 혹은 정리에 해당한다. 그리고 결별후의 공간은 있는 그대로 남게 된다. 하나하나 인식하고,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공간에서 개인만이 빠져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해탈일까? 오바 요조의 자살에 대한 설명은 분명 짐을 벗는 홀가분함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짐을 벗는 자아는 과연 있는 것인가? 〈날개〉의 나는 죽음을 통해 박제처럼 고정화된 자아의 전지를 꿈꾸었지만, 오바 요조는 죽음 후 무엇이 남게 되는지에 대해 자포자기에 가까운 무관심의 태도를 취한다. 온전히 자신에게만 속한 본질적인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모색과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조바심을 내려놓는 것이다. 대신 자아를 이루는 것들이 해방되고, 공간 또한 존재의 차원으로 되돌아가 ‘아무래도 좋은 상태’로 있게 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자살이 이렇게 이해되고 있다면 그것은 외부조건에 영향 받는 두 작가의 경우에 비해 보다 본질적이며, 그래서 치명적 유혹이 된다. 작가 太宰治가 결국 진짜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 또한 그 자살에 대한 지향이 일시적 충동이나 자기고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 6. 나오면서

이상으로 한·중·일 삼국의 대표적 자전체 작가인 이상과 郁達夫, 太宰治의 작품에 나타난 공간의 특징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작가들의 특정 작품, 즉 〈날개〉(이상), 〈봄바람에 흠뻑 취한 밤〉(郁達夫), 〈광대의 꽃〉(太宰治)에 공통적으로 땅콩껍질과 같은 특별하게 분할된 공간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이 고찰은 시작되었다. 그 공간은 거주

28) ほつとするよ。いま飛びこめば、もうなにもかも問題でない。借金も、アカデミーも、故郷も、後悔も、傑作も、恥も、マルキシズムも、それから友だちも、森も花も、もうどうだつていいのだ。それに気がついたときは、僕はあの岩のうへで笑つたな。ほつとするよ。다자이오사무 지음, 유숙자 옮김, 《만년》(서울: 도서출판 소화, 2005), 167쪽.

자와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삐걱인다는 점에서 가장 큰 공통점을 가진다. 그것은 근대성의 개념으로 공간을 해석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이들의 작품에 나타난 공통점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문의 기능이 상실된 공간. 이들 작품에는 대문이 언제나 열려 있거나 아예 없는 집이 그려진다. 이렇게 대문이 적절한 기능--방어와 소통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모두가 하나로 만나는 마당을 구성하지 못한다.

둘째, 대문과 마당의 부재로 인해 방이 마당, 혹은 거리가 된다. 방에 숨을 수 없게 된 주인공들은 여기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그 뒤에 숨은 방을 만든다. 그러나 그것은 자폐적 도피로서 자아를 확인할 거울을 상실하는 일이기도 하다.

셋째, 광장도 없고, 신도 없는 밀실에서 개인이 견딜 수 있는 길은 없다. 따라서 소설의 인물들은 자아를 비취볼 대상을 찾아 외출을 감행한다. 그러나 그 관계 중심의 세계는 자아의 실체를 찾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버렸던 공간이기도 하다. 개인의 태도에 변화가 없이 똑같은 공간의 의미가 달라질 수는 없다.

넷째, 소설의 인물들이 겪는 자살충동에 있어서 동일하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들의 공통점 외에 차이점도 발견된다.

첫째, <날개>에는 형식적으로 완비된 공간이 제시된다. 그래서 그 노출은 형식적, 내용적으로 철저하며 그것은 당시 일체의 전일적 지배하에 있었던 조선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비해 <봄바람에 흠뻑 취한 밤>의 공간은 반쪽짜리 집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우리’의 공간이 주는 위안이 있다. 중국의 반식민지적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 무리가 없다. 마지막으로 <광대의 꽃>의 공간은 내부적으로 복잡하게 구획되어 있다. 지식인의 고민이 외부를 상징한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내면적 자기동력하에 진행되고 있었던 당시 일본의 상황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이해된다.

다른 장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데, 이것은 결국 개인, 혹은 동양 삼국의 지식인들이 체험한 자아에 대한 고민이 그 정도와 방향에 있어 뚜렷한 차이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이상, 《날개·권태·종생기 외》(서울: 범우사, 2001)  
郁達夫, 《郁達夫文集·第1卷》(香港: 花城出版社, 1982)  
다자이오사무 지음, 유숙자 옮김, 《만년》(서울: 도서출판 소화, 2005)  
김종욱, 《한국 소설의 시간과 공간》(서울: 태학사, 2000)  
강경구, 《중국 현대소설의 탐색적 연구》(부산: 세종출판사, 2005)  
강경구, 《郁達夫·沈從文 소설의 연구》(대구: 중문출판사, 1999)  
陳子善 編, 《郁達夫研究資料》(香港: 花城出版社, 1986)  
박혜경, 《李箱小說論》(서울: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이상문학회 편, 《이상소설 작품론》(서울: 역락, 2007)  
정인문, 《太宰治作品研究》(서울: 제이앤씨, 2001)  
이경덕 등 역,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서울: 이산, 1997)  
곽승미, 《한국문학과 근대성》(서울: 푸른사상, 2003)

### 〈中文提要〉

李箱(1910~1937), 郁達夫(1896~1945), 太宰治(1909~1948)是韓中日三國的著名私小說作家. 此三位作家在作品的各側面有酷似的地方, 因此幾個研究者進行過比較研究. 但是還沒發現全面比較研究的成果.

本文考察此三位作家小說里的空間特徵, 在小說里創造空間最有代表性的是〈翅膀〉(李箱), 〈春風沈醉的晚上〉(郁達夫), 〈道化之華〉(太宰治)的三個作品. 他們在自己的作品里創造了奇特的空間, 這空間與花生殼相似, 一個空間里有兩個不同分別的空間. 就是因位這三位作家創造了互相類似的這花生殼空間, 因此會有本文的比較考察. 這一個殼里的兩個空間有互不合一的特徵, 而這缺乏協調合一的矛盾狀態與近代精神狀態有某種相通脈絡的關係.

三篇作品里表現的空間有如下重要的類似性.

- 一. 大門喪失自己的攻能, 不能建設舒適的空間.
- 二. 爲了建設休養的空間, 把一個房間分成兩間, 要逃避向里間.



三. 從廣場逃避到密室或者洞窟, 但是在這裡也不能鞏固自我, 因此在向街巷外出, 尋抓自我的投射對象.

四. 一切努力失敗后, 小說的人物共通地有自殺慾望.

除了如上的共通特徵, 也有一定的差別性. 其重要的內容與當時三國的國家社會的狀況有密不可分的關係. 即〈翅膀〉的空間完全向外面露出, 這就與完全殖民地化了的當時韓國狀況有密切的關係.

〈春風沈醉的晚上〉的空間是不太完全的家屋構成, 但是里面還剩有休養的密室. 這與當時處於半殖民地狀態的中國狀況有關係. 最後〈道化之半〉的向內空間, 意味着當時日本的近代化摸索已經進入到在深層深化進行的階段.

**關鍵詞:** 李箱的〈翅膀〉, 郁達夫的〈春風沈醉的晚上〉, 太宰治的〈道化之半〉, 近代性, 空間.

투 고 일 : 2009.2.10

심 사 일 : 2009.3.10-3.30

게재확정일 : 2009.4.25

## 이광수 《閨恨》과 胡適 《終身大事》의 근대성 비교 고찰\*

박노중\*\*

### 〈목 차〉

1. 들어가며
2. 희곡사적 위상
  - 2.1. 《閨恨》 - 한국근현대희곡사의 미아
  - 2.2. 《終身大事》 - 중국현대희곡사의 승배
3. 형식적 비교
  - 3.1. 《學之光》대 《新青年》
  - 3.2. 유학과 그들만의 드라마
4. 내용적 비교
  - 4.1. 극중 인물을 통한 근대적 여성 인물형상 비교
  - 4.2. 극적 양식을 통해 본 근대적 가치체계 비교
  - 4.3. 드라마투르기를 통해 본 민족적 사유방식 비교
5. 나오며

### 1. 들어가며

한중 근현대문학의 토대를 닦았으며 20세기 양국 문단의 중추적 역할을 한 이광수(1892-?)<sup>1)</sup>와 胡適(1891-1962)의 비교는 다분히 중첩적이다. 이들은 문학가로서의 명망에 있어 양국 현대문학사의 출발점에 있다는 사실은 말할 필요가 없거니와 그들이 걸어간 삶의 행로 또한 현대사의 굴곡을 밟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비교대상의 차원을 넘어 먼저 인생의 비감과 인간의 고뇌를 떠올리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언제나 문학사의 중심에 서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자리는 위태롭고 외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23-A00011)

\*\* 동의대학교 전임연구원(lujongp@hanmail.net)

1) 이광수는 1950년 납북되어 그의 사망 시기는 명확히 밝힐 수 없으며, 이를 둘러싼 학계의 논의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면당하기도 한다. 이미 그들은 사라졌지만 역사의 고비마다 이들을 둘러싼 이야기로 그들의 현실의 무대로 다시 불러나와 평가의 대상이 되곤 한다.

한국문학사에서 이광수를 빼고 논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그에게 친형처럼 따라다니는 친일의 행적은 어떻게 봐야하는가? 한국문학사의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되고 있다.

胡適은 중국현대문학사의 출발점에 서있는 인물이자, 서구의 근대화화를 몸소 체험하고 중국에 이식한 중국 근대정신문명사의 최고 지성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어쩌면 동아시아에 진정한 자유주의자의 표본이 되는 인물의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에게도 피할 수 없는 선택은 그를 결국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말았다. 근래에 胡適에 대한 연구가 대륙에서 붐을 이루다시피 하고 있지만 그것도 과거에 비쳐볼 때 사회정치적 상황에 상응하는 것으로 중국에 자유주의가 뿌리를 내리지<sup>2)</sup> 못하는 한 일시적인 현상이나 연구의 외부적 환경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연구 환경 및 가치평가는 분명 동아시아적 담론의 전개와 결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처했던 유사한 역사적 환경과 이들에 대한 유사한 평가는 결국 우리들이 현재에도 오롯이 풀어야 할 21세기 동아시아의 사상적 모형의 건조에 닿아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저변으로 이광수와 胡適의 작품 중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중에서 희곡이라 더욱 낮은 작품을 통해 바닥과 알몸으로부터 이들을 비교해 보고자 열망한다.

특히 이들의 초기 작품이며 유일하다시피 한 희곡장르를 통해 이들의 문학관과 사상의 저변을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희곡장르의 특성상 희곡 작품에는 글로 드러나지 않은 행위의 욕망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러한 서브텍스트에 잠재한 요소들을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초창기 사유체계와 행동양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광수의 《閨恨》과 胡適의 《終身大事》는 무엇보다 여성과 결혼이라

2) 민두기 저, 《中國에서의 自由主義의 實驗-胡適의 思想과 活動》(서울: 지식산업사), 11쪽 참조.

는 당시의 시대적 담론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들 작가들이 직면한 고민과도 흡사하다. 그러므로 이들 회곡을 살펴보는 것은 이들 작가들의 사유의식과 사상적 체계의 형성과정을 밝히는데 있어 매우 유익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이들이 회곡작가가 아닐뿐더러 분량에서나 내용과 체제 면에서 숙련된 작품은 아니지만 그들의 회곡에 대한 선구적 작업은 결코 간과 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비슷한 시기에 출생하여 유사한 삶의 행보를 살다 간 그들은 분명 동아시아 근대현대사의 지식인을 대변하는 인물 전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추구한 자유와 낭만 및 전인적 지식과 철학적 규범은 오늘날 동아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탈근대·탈식민 논의의 근거에 여전히 생동하고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은 여전히 진행형의 인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히 시대의 거인이자 역사의 이방인으로 치부되는 이들의 단순한 회곡 비교는 단지 텍스트의 범주를 넘어 중의적으로 표출된다고 하겠다.

## 2. 회곡사적 위상

### 2.1. 《閨恨》: 한국근현대회곡사의 미아

이광수에게는 두 편이 회곡 창작과 두 편의 회곡 번역이 알려져 있다. 그의 첫 회곡 《閨恨》은 1917년 《學之光》(11호)에 발표되었는데, 이는 소설 《무정》에 비해 빨리 지면에 발표되었다. 그리고 또 1920년에 발표된 《殉教者》는 시대적 문제의식을 한층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는 나아가 회곡의 번역에도 착수하였다. 톨스토이 원작 《어둠의 힘》은 1923년 출간되었고, 1926년에는 동아일보에 셰익스피어 원작의 《줄리어스 시이저》를 게재하였다.

이로 볼 때 회곡은 주로 그의 창작 초기에 지어진 것이고, 회곡 번역은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문학적 관심의 폭을 제고하는 쪽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따라서 한국 회곡사상에서 볼 때, 이광수라는 존재가 남겨 놓은 회곡은 그가 비록 전문적 회곡작가가 아니라하더라도 그가 지니고 있는 실

제적인 문학적 위상과 정신사상사적 측면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그의 희곡에 대한 논의도 이미 진행된 바도 있지만 그의 행적과 그의 희곡에 대한 문학적 완성도에 대한 논란이 가세하면서 연구사도 시대적 편향으로 흐르는 듯하다. 그리고 그도 애초 언급을 회피하고 싶은 요소도 결코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만큼 이광수란 인물과 희곡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껄끄러운 대상임은 분명해 보인다.

지금까지의 대체적인 이광수 희곡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제 한국희곡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광수 희곡의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광수 연구의 논의 대상이라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았다. 이런 이광수의 희곡에 처음 평가를 내린 이는 이두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近代劇을 個人意識에 눈뜬 近代 市民社會의 意志의 表現이라고 본다면, 春園의 閨恨에서 비로소 우리나라 近代文學은 최초의 戲曲다운 戲曲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다.<sup>3)</sup>

어쩌면 희곡연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최초라는 개척자의 초상이 따라다니는 그의 소설과 시간적으로 궤적을 그리고 있는 희곡의 발견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러한 파격적 평가를 내린다는 것도 한편으로 이해가 됨직하다. 이를 시발로 이광수의 희곡에 대한 논란과 평가가 가열되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희곡사의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는 유민영은 위의 논조에 비교적 우호적으로 동의를 표하고 있다.

자유연예란 새로운 청춘윤리에 의해 구식여성이 희생당하는 비극인 이 작품은 근대극이 개인의 자각에 그 기반을 둔다고 볼 때, 이두현의 지적처럼 부족한 대로 최초의 희곡다운 희곡으로 기록되어도 무방할 것이다.<sup>4)</sup>

3) 이두현 저, 《한국신극사연구》(서울: 서울대출판부, 1966), 91쪽. 원명수, 〈1910년대 희곡의 희극성 연구〉에서 재인용.

4) 유민영, 《한국근대연극사》(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1996), 304쪽.

그리고 또 한사람의 한국희곡연구의 구심체인 서연호는 조심스럽게 이러한 논의에 의견을 개진하며, '최초의 근대극'이란 관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郷土的인 테두리 안에서만 본다면, 작품 《閨恨》을 충분히 近代劇으로 양보할 수 있다. 그만큼 우리의 劇文學은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近代劇의 개념을 郷土的·世界的으로 나누어 생각한다면 졸렬한 思考일 것이요, 또한 타당치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閨恨》을 最初의 近代劇이라 할 수 있을까? 結論부터 말한다면 筆者의 생각으론 一最初의 近代的 戲曲이라는 表現이 좋겠다는 말이다.<sup>5)</sup>

이후 그는 나아가 新派演劇인 멜로드라마의 新派的인 희곡<sup>6)</sup>으로 규정한다. 이런 선상에서 이광수의 희곡에 대해 극적 방법론과 극작법 등 세부적인 비평을 통해 이를 규명하려는 여러 연구자들의 시도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광수 희곡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제시되기도 한다.

이러한 예로 권순종의 경우 이광수의 희곡을 다음과 같이 신랄하게 분석하고 있다.

《閨恨》에 대한 지금까지의 가치평가는 대체로 '근대문학의 효시'<sup>7)</sup>와 '新派的인 멜로드라마'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연구자의 장르의식의 결여에서 기인된 결과이다. 연극의 본질은 갈등인데, 《閨恨》에는 인물 사이의 갈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작품 내적 自我와 작품 내적 世界의 대립과 갈등이 없고, 있는 것은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뿐이다. 따라서 《閨恨》은 戲曲의 형식만 갖춘 것이지 그 본질적인 갈등까지는 갖추지 못했으므로 戲曲이라 할 수 없다. 다만, 희곡 형식을 띤 이야기라고는 할 수 있다.……두루 살펴 본 결과 이광수의 意識世界가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 속에서 전개된 흔적은 없었다. 남을 계몽해야 할 주체로서의 이광수 자신이 일관된 작가의식을 보여주지 못했다.<sup>8)</sup>

5) 서연호, 〈한국 극문학사상에서 본 춘원〉, 《어문논집》 10(1967), 33-34쪽.

6) 서연호, 《韓國近代戲曲史研究》(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1982), 75쪽 참조.

7) 유민영, 〈草創期戲曲의 樣態〉(上), 《演劇評論》(1973.8), 82쪽 참조.

8) 權純宗, 〈李光洙의 戲曲 「閨恨」과 「殉教者」研究〉, 《韓民族語文學》 12

그러나 한편으로 희곡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론이 동원되고 희곡 상에 대한 개념이 새롭게 정립되면서 이광수 희곡 자체에 대한 논의는 오히려 줄어들고 희곡사의 전반의 총체적인 시각에서 그의 희곡이 논의 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근래의 이광수 희곡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근대의식이 확립되지 않은 습작수준의 작품"<sup>9)</sup> 정도로 전체 희곡사적 관점을 통섭하여 치부되거나, 냉정한 극적 체계로 분석하자면 이전의 신파극에서 파생되어 새로운 희곡으로 진화되어가는 "서사장르와 극 장르간의 특성을 변별하고 혼용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텍스트는, 대화양식이 서사장르에서 극장르로 수용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화양식과 극장르가 미분화된 상태에 위치하고 있다."<sup>10)</sup>는 평가나 좀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희곡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아니라, 희곡이 선행하고 공연이 뒤따라오는 새로운 공연방식도 가능한 일임을 예감"<sup>11)</sup>하게 하는 연행사적 의의를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광수 희곡에 대한 자리매김으로부터 홀가분해 지거나 정립의 해방감에 못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 이광수와 희곡이 애당초 어울리지 않는다는 답안이 편하기는 하지만 그의 삶과 행동은 매우 드라마틱하게 엮여진 것이라면 희곡과의 인연은 어쩌면 숙명이 아닐까?

## 2.2. 《終身大事》 - 중국현대희곡사의 숭배

1919년 新青年에 발표된 《終身大事》는 짧은 단막극임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받아왔다. 중국근대운동의 사상적 중심에 서있었던 胡適의 희곡이기에 더욱 특별한 취급을 받아왔다고 할 수 있다. 단순한 에피소드에 불과할 법한 극전 전개과정은 이광수의 《閨恨》과 크게 다를 바 없지만 극의 내용이 당시의 그가 지도적 위치로 참여하여 전개한 사회계몽운동

(1985), 149쪽 참조.

9) 양승국, 《한국현대희곡론》(서울: 연극과 인간, 2001), 55쪽 참조.

10) 민병욱 저, 《근대희곡론》(부산: 부산대출판부, 1997), 80쪽 참조.

11) 김재석, <《규한》의 자연주의적 특성과 그 의미>, 《한국극예술연구》 26(2007), 42쪽 참조.

의 슬로건이 된 "입센주의"의 내용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희곡에 대한 胡適의 관심은 입센에 대한 영향으로 시작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1918년 《新青年》 제4권 6기에 입센특집을 마련하여 羅家倫/胡適이 공동번역을 하고 〈입센주의〉라는 논문을 발표한다. 이외에도 특집에는 입센 전기와 그의 주요 저작들 역시 부분적으로 소개되는 등 입센에 대한 전면적인 조명이 이루어져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이로부터 입센주의는 희곡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새로운 모토가 되었다. 또한 희곡 《終身大事》는 중국 희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기폭제가 되었으며 중국희곡사의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중국에서 입센의 희곡 작품들이 대부분 번역되어 나오고 여러 번역자들에 의해서 출판되는 사정은 당시의 분위기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sup>12)</sup>

이러한 일반적 평가는 대부분의 희곡 서적과 연구자들에게 인정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최초의 희곡의 하나라는 시간적 평가에서부터 《終身大事》가 노라형이라는 연극적 모델의 서막을 열었으며<sup>13)</sup>, 이후 이와 유사한 형태의 희곡류들이 쏟아져 나오는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終身大事》는 실제적으로 중국에서 일컫는 화극(話劇)이라는 진정한 의미의 현대희곡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일까?

불과 10여 쪽의 《閨恨》과 분량이 엇비슷한 喜劇 작품인데, 서말에서 밝히고 있듯이 원래 胡適이 북경의 미국대학 출신들의 연회에서 무대에 올릴 목적으로 원래 영문으로 쓰여 졌던 것이다. 그러나 여자 배역을 찾지 못해 공연은 수포로 돌아갔다. 뒤에 胡適은 여학생들이 연출을 하려하여 중문으로 번역하였는바, 그러나 이 연극에는 여자배역이 田亞梅로 분장하여 남자와 도망해야 하는데, 여학교에서도 배역을 구하지 못

12) 1920년 宋春舫의 번역과 1921, 1922년 潘家洵 역의 《易卜生集》과 전기와 서신류등도 번역 출간됨. 《玩偶之家》의 경우 1918년에서 1948년까지 羅家倫, 胡適, 潘家洵, 歐陽予倩, 沈佩秋, 芳信, 翟一我, 沈子復, 胡伯恩 등 9명의 번역이 있다. 田本相, 《中國現代比較戲劇史》(北京: 文化藝術出版社, 1993), 136쪽 참조.

13) 위의 책, 145쪽 참조.



해 연출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胡適은 하는 수 없이 잡지사에 보내 신게 된 것이다.<sup>14)</sup>

당시의 연극에 대한 인식이나 연극계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비록 유희적 희극이란 명목으로 구상한 작품이지만 사회에서 쉽게 용납하기 어려운 혁신적 내용과 함께 연극이 처해 있는 상황을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겠다. 따라서 연극이란 무대적 행위는 일반적인 여타 문학 장르가 갖는 수용과정과 절대적으로 차별화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終身大事》의 작품이 갖는 시대와 사상적 의미에 주목하여 최초의 현대희극이라는 칭호가 따라다니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현대문학사를 엮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이는 별 무리 없이 받아들여진 것이 사실이다. 중국현대사의 시기구분과 문학사의 정하는데 있어 형식적으로 가장 무리 없는 구분법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기존의 평가에 이견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특히 근래 중국 현대희곡사가 분과 학문으로 확립되면서부터이다. 중국 현대희곡사에 대한 연구가 전문 연구자들에 의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終身大事》도 그 권위에 도전을 받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주요 중국현대희곡사에 언급된 胡適의 《終身大事》에 대한 기술을 살펴보기로 하자.

과연, 입센식의 사회문제극은 胡適의 《終身大事》를 남상으로 하여 이에서 생겨났다. 그러나 응당 지적해야 것은 《終身大事》는 1919년 3월 《新青年》 제6권 제3기에 발표되었다. 당시는 바로 5.4가 정점으로 치달아 오르던 시기로 胡適과 《新青年》의 성가도 덩달아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련의 문학사가들과 희극사가들이 《終身大事》를 중국현대문학사의 첫 번째 희극 극본으로 놓게 되었다. 실제로 희곡문학 발전과정의 실제상황으로 살펴본다면 앞서 기술한 南開學校新劇團의 《新村正》이 《終身大事》보다 빨리 나왔을 뿐 아니라, 희곡의

14) 胡適, 〈終身大事〉, 《新青年》(1919.3)第6卷第3號 魯迅의 일기에 의하면 1919년 6월 19일, “저녁에 둘째 동생(周作人)과 제1무대료가 학생연극을 관람하였다. 생각해보니 《終身大事》一幕은 胡适의 작품이고, 《新村正》四幕은 南開學校에서 만든 것이다.” 전문극단에 의한 공연은 4년 뒤인 1923년 9월 洪深 연출로 戲劇協社에 의해 이루어진다.

초기형식-文明戲에서 이미 벗어나 희곡문학의 완결성에서 본다면 《終身大事》를 뛰어 넘었다고 할 수 있다.<sup>15)</sup>

胡適의 《終身大事》는 당시에는 독보적인 중국현대희곡 극본이라고 인정되었겠지만, 실제로는 입센의 《로라(인형의 집)》란 극의 중국판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 자신도 우연찮게 "유패한 희극"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상적으로 이미 관념적이고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조악하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 것은 객관적 원인으로서는 희곡예술이 아직 관객의 토대와 기술적 조건이 미성숙한 상태이고, 주관적 측면에서 보면 선행자들의 대부분이 학자, 문인과 사상가의 테두리에서 국한되어 있어, 이른바 노력과 모색 또한 지면상에서 논쟁과 주장으로 그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진정으로 무대의 적막을 타파하려는 움직임은 희극계 자체의 실천적 결과를 기다려야만 했다.<sup>16)</sup>

위의 글에서 이전까지의 고착화된 《終身大事》의 평가에 대한 지나친 무게감에 대한 반발과 아울러 문학사의 통제가 극심한 중국의 현실적 학술계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는 중국현대희곡사의 그간의 연구 성과를 통한 고민의 결과로 받아들였다. 근래에는 이러한 희곡적 방법론과 이론에 준거한 논의들이 다양하게 제기되게 된다.

어쩌면 중국현대희곡사의 분과학문이 여타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를 면치 못하는 연구 인력, 작품 수량과 문학적 수준의 현실을 타개하고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려는 필연적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럼 점에서 위의 평가는 문학사에 의거한 사상정신사적 요건에 의거하여서는 여전히 《終身大事》의 희곡사적 의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희곡사적 관점에서 특히 희곡의 무대사적 측면에서 보면 전문 희곡 작가도 아니며, 연극계의 인물로 섭렵되지 않는 胡適은 연극사적 평가는 부담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新村正》<sup>17)</sup>을 희곡사의 맥락으로 잡으

15) 陳白塵, 董健, 《中國現代戲劇史稿》(北京: 中國戲劇出版社, 1989), 99쪽.

16) 葛一虹, 《中國話劇通史》(北京: 文化藝術出版社, 1997), 46쪽.

17) 張彭春 극본연출, 《新村正》(1918). 張彭春은 胡適과 마찬가지로 2차 관비과건 유학생으로 컬럼비아대학에서 교육학과 철학을 전공하였다. 또한 희곡

려는 작업은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에는 중국 최고의 희곡가 曹禺를 배출하고 현대희곡 연출의 발상지인 南開學校로 연결되는 것이 희곡사상에서는 무리가 없다.

그러나 《終身大事》의 희곡사적으로 출현 그 자체만으로도 독보적인 위상도 지니고 있음을 그 또한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광수의 《閨恨》이나 胡適의 《終身大事》는 작가의 위상과도 괴리하고 작품의 수준에서 있어서도 그 명성에 따르지 못하는 문학사의 곤혹한 미숙아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작품을 통해 체현되는 이들 두 작가의 구속을 거부하는 자유정신은 자신의 세계 속에 안주하는 지식인과 세상의 편견에 대한 경종의 서막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 3. 형식적 비교

#### 3.1 《學之光》 대 《新青年》

##### 1) 《學之光》 - 이광수, 사상의 출발점 그리고 《閨恨》

이광수는 일본 유학시절 동경 유학생 기관지인 《學之光》<sup>18)</sup>을 통해 그의 문학과 사상학을 밝히곤 하였다.

《學之光》은 종합지 성격을 지닌 학술, 사상, 문화, 문학 등 제 방면에 걸쳐 외국의 새로운 문물과 문화를 소개하고 유학생들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글들을 싣고 있다. 그야말로 가장 서구화된 근대도시 동경에 발을 딛고 있는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 만든 잡지인 것이다. 따라서 이 잡지가 갖는 비중 또한 소홀히 할 수 없으며 당시의 문화사상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광수 또한 이 잡지를 제2차 일본 유학이 시작이 시작되기 전부터 벌써 글을 싣는 인연을 쌓는 등 유학기간 내에 이 잡지에 의욕적으로

이론과 연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연마하여 중국에 돌아와 南開大學에서 교수를 역임하며 南開新劇團을 이끌어 중국현대연극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이다.

18) “재일본동경조선유학생회학회” 명의로 1914년 4월 2일에 창간되어 1930년 4월 5일 통권 29호까지 발간되었다. 7, 8, 9호는 발매금지됨.

글을 신고 있다.<sup>19)</sup> 이로 통해 보더라도 이광수에게 있어서 《學之光》의 주요한 중심 멤버이자 이 잡지를 통해 그의 학문적 열망과 사회적 의식 계몽에 매진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겠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광수가 《學之光》에 그것도 소설이 아닌 희곡이라는 장르를 발표한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단순히 소설 창작의 여기로만 치부하기에는 이 잡지의 지닌 성격과 의미를 염두에 둔다면 그렇게 단순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럼 왜 굳이 이광수는 희곡이라는 장르를 선택한 것일까? 그리고 당시 이광수는 희곡이란 장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이해하고 있었고, 희곡을 창작할 수 있는 기본적 드라마투루기는 확립하고 있었던 것일까? 다음의 그가 희곡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글을 통해 그가 이 잡지에 희곡을 신게 된 의미를 추론해보자.

형식으로 문학을 분류하면 산문문학, 운문문학에 大分함을 득하고, 更히 산문문학을 논문, 소설, 극 및 산문시로 分할지요, 운문문학은 시라, 또 이를 다시 소분할 수는 있으나, 이에 생략하며 또 繁擧할 필요도 무하다.……극 산문극, 극시의 2종이 유하니, 현대에 특히 有勢力한 것은 산문극이라, 극의 목적은 소설의 목적과 흡사하니, 다만 소설은 문자로만 작자의 상상 내의 세계를 표하되, 극에 至하여는 실지의 형상을 무대상에서 演함이니, 觀者에게 감명을 주는 것이 소설에 비하여 益深하니라. 그러나 단지 문학의 일종의 극이라 하면, 무대상에서 演할 수 있게 作한 소위 臺本을 말함이요, 이를 무대 위에서 실연하는 소위 연극은 문학에서 독립한 일종의 예술이니, 이 예술의 주인은 '광대' 또는 배우니라. 말이 기로에 入하거니와, 결코 옛날 '광대'라 하여 輕대하던 류가 아니니라. 극은 소설보다 作하기가 어렵나니, 이에는 다종의 법칙이 有함이니라.<sup>20)</sup>

위의 글을 통해 보면 비교적 정확하게 희곡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19) 춘원이 《學之光》에 실은 글로는 〈공화국의 멸망〉 5(1915.5)/〈天才야! 天才야!〉(1917.4)/〈혼인에 대한 管見〉(1917.4)/〈卒業生諸君에게 들이는 懇告〉(1917.7)/〈우리의 이상〉(1917.2)/〈極熊行〉(1917.11)/〈숙명론적 인생관에서 自力論的 인생관〉(1918.8) 등이 보인다.

20) 〈文學이란 何오〉(매일신보, 1916.11.17)

있으며, 특히 장르의 측면에서 소설과는 구분되는 장르적 특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가 결론적으로 솔직히 밝히고 있듯이 희곡은 소설보다 창작하기 어렵다는 소회가 섞인 부분을 단순하게 치부할 수 없다. 이 글은 《閨恨》이 발표되기 이전에 나온 것으로 그가 희곡에 대한 개념을 명료하게 의식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작품이 창작되었다고 하여도 무방하다. 그럼 자신이 어렵다고 솔직한 희곡을 굳이 창작하여 세상에 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閨恨》의 의의를 제고 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비록 이광수가 동경을 떠난 이후의 일이지만 1920년 이후 《學之光》의 출로 모색을 살펴보면 여러 항목 중에 "자유로운 개인의 예술적 각성을 위해 외국작품을 수용하고 생활과 일치된 예술을 통해 사회를 개조하기 위해 문예동인지를 간행하고, 순회연극공연을 벌이는" 조항이 주요한 방침으로 제시되고 있다.

비록 《學之光》이 중국의 《新青年》과 같은 거대한 사회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거론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우익민족주의 성향의 이 잡지에는 당시의 시대적 담론을 주도한 핵심 인물 또한 쟁쟁하게 활약하고 있었다.

중국의 근대희곡 역시 중국의 일본유학생들에 의해 처음 공연되기 시작하였으며, 이것이 근대희곡의 시작이 된다.<sup>21)</sup>

당시에는 서구 희곡이나 연극에 대한 일반적 개념이 정착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극에 입문한다는 것은 모험이나 진배없었다. 비슷한 시기에 동경에 유학하여 연극을 전공한 한국근대연극이론의 선구자인 玄哲의 논설을 보면 당시의 사정과 연극이 갖는 의의의 정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필자가 동경예술좌부속연극학교에 입학할 당시에 가까이는 가족 지우로부터 멀리는 필자를 사랑하는 동포자매까지도 모두 이구동성으로 동양유일의 학부인 동경에서 7,8 성상을 형설의 꿈을 담하면서 연극 --배우--광대 모두 머리를 내저으며 권고, 비평, 비방 여러 가지로

21) 1907년 일본의 중국유학생들이 조직한 春柳社가 동경에서 최초로 《茶花女라트라비아트》를 공연한데 이어 스토어부인의 원작을 각색하여 《黑奴吁天録어클툼스캐빈》을 같은 해 역시 동경에서 공연함.

좋은 말이 많았다.……우리 조선에서는 어찌 연극이 없었나? 이것이 첫째로 생각해볼 문제다. 널리 세계의 연극사를 들쳐보면 구미에서는 희랍 로마시대로부터 연극이 있었고 지나에는 당송이전에 唱戲가 있었으며 일본에는 3백 년 전부터 歌舞伎의 연극이 있었다.……西哲의 소위를 빌어 말하면 국민적 지력이 강한 나라에는 연극이 발달하고 국민적 지력이 약한 나라에는 연극이 발달되지 못하였다고 하니 우리는 아마 국민적 지력이 약한 줄 생각할 수 있다.<sup>22)</sup>

나라가 문명할수록 연극이 따라 발전하나니, 西哲이 말한 바 연극문명의 計數器라 함은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sup>23)</sup>

위의 글을 통해 보더라도 당시에 희곡을 창작하고 연극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으로도 현실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모험 내지 투신에 가까운 자기 결심이 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환경과 연극계의 현실을 가정한다면 이광수의 희곡 창작이 갖는 의미도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희곡 창작의 완성도나 내용성에 국한되어 그의 희곡을 재단하기에는 당시의 외적 상황과 희곡 장르나 연극이 너무나 절연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 3.2. 《新青年》 - 胡適, 文學革命의 진지 그리고 《終身大事》

《終身大事》는 중국 현대사상계의 조류를 이끌었던 잡지 《新青年》<sup>24)</sup>에 발표되었다. 중국의 신문화운동과 백화문운동으로 대변되는

22) 〈演劇과 吾人の 關係〉 (매일신보, 1920.6.30)

23) 〈演劇과 吾人の 關係〉 (매일신보, 1920.7.1)

24) 《新青年》은 5.4 신문화운동과 중국현대문학과 문화사상에 있어 가장 주요한 간행물중의 하나. 1915년 9월 15일 창간하여 陳獨秀 주편으로 上海群益書社에서 출간. 월간이며, 6기를 1권으로 하였음. 제1권에서는 《青年雜誌》로 이름으로 나갔으나, 2권 1기부터 《新青年》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1917년 陳獨秀가 북경대학 문과과장으로 임명되자 편집부를 北京으로 옮기고, 1918년부터 편집부를 확대하여 李大釗, 魯迅, 錢玄同, 劉半農, 胡適, 沈尹默, 高一涵, 周作人 등이 참여하였다. 1919년 6월 陳獨秀가 체포되어 5개월간 정간되었고, 그해 12월 1일 출판된 7권 1기부터는 陳獨秀 1인의 주편으로 바뀌었다. 1920년 9월 8권 1기부터 상해로 옮겨 간행되었는데 이때부터 실제로 중국공산당 발기모임의 기관물이 되었다. 1921년 10월 9권 6기가 나

5.4운동의 전진기지이자 지보적인 지식인들의 결집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 잡지의 주요한 핵심동력으로 胡適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는 이 잡지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아이디어뱅크 역할을 담당했으며 또한 그의 지적 권위의 기제가 되었다. 그는 이 잡지를 통해 자신의 사상적 기반을 확립하였고, 국민의식을 계몽하는 새로운 정신적 지도자로 추앙되었다. 따라서 胡適과 《新青年》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였다.<sup>25)</sup>

胡適은 《新青年》에 〈文學改良芻議〉<sup>26)</sup>를 발표함으로써 文學革命的 선구적 역할을 하며 문학의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갔다. 이로써 중국에서 피할 수 없는 현대문학의 논리적 근거가 확립되었으며 이는 중국 문장을 일거에 일신한 획기적 사건이었다.

회곡 《終身大事》나 그의 최초의 백화시집 《嘗試集》 바로 이러한 자

---

은 뒤 정간되었음. 1923년 6월에 《新青年》계간으로 다시 출판되었는데 이때는 정치성향의 중국공산당 기관지로 瞿秋白이 주편을 맡아 4기가 나오고 정간되었다. 1925년 4월 부정기부로 5기까지 나오다 1926년 7월을 끝으로 최종 정간됨.

25) 胡適이 《新青年》지에 실은 글들을 살펴보면, 〈寄陳獨秀〉, 《新青年》(1916.10)第2卷第2號/〈文學改良芻議〉, 《新青年》(1917.1)第2卷第5號/〈寄陳獨秀〉, 《新青年》(1917.5)第3卷第3號/〈歸國雜感〉, 《新青年》(1918.1)第4卷第1號/〈答錢玄同書〉, 《新青年》(1918.1)第4卷第1號/〈歷史的文學觀念論〉, 《新青年》(1917.5)第3卷第3號/〈文學進化觀念與戲劇改良〉, 《新青年》第5卷4期/〈建設的文學革命論〉, 《新青年》(1918.4)第4卷第4號/〈易卜生主義〉, 《新青年》(1918.6)第4卷第6號/〈論文學改革的進行程序〉, 《新青年》(1918.5)第4卷第5號/〈答汪懋祖〉, 《新青年》(1918.7)第5卷第1號/〈貞操問題〉, 《新青年》(1918.7)第5卷第1號/〈美國的婦人〉, 《新青年》(1918.8)第5卷第2號/〈答朱經農〉, 《新青年》(1918.8)第5卷第2號/〈答任叔永〉, 《新青年》(1918.8)第5卷第2號/〈跋朱我農來信〉, 《新青年》(1918.10)第5卷第4號(通信欄)/〈論句讀符號(答慕樓書)〉, 《新青年》(1918.9)第5卷第3號/〈答黃得僧折衷的文學革新論〉, 《新青年》(1918.9)第5卷第3號/〈文學進化觀念與戲劇改良〉; 又題〈文學進化觀念〉, 《新青年》(1918.10)第5卷第4號/〈追答李濂鐘君〉, 《新青年》(1918.10)第5卷第4號/〈不朽(我的宗教)〉, 《新青年》(1919.2)第6卷第2號/〈終身大事(遊戲的喜劇)〉, 《新青年》(1919.3)第6卷第3號/〈不老(跋梁漱溟先生致陳獨秀書)〉, 《新青年》(1919.4)第6卷第4號/〈論貞操問題(答藍志先)〉, 《新青年》(1919.4)第6卷第4號/〈實驗主義〉, 《新青年》(1919.4)第6卷第4號/〈我對於喪禮的改革〉, 《新青年》(1919.11)第6卷第6號/〈新思潮的意義〉, 《新青年》(1919.12)第7卷第1號/〈工讀主義試行的觀察〉, 《新青年》(1920.4)第7卷第5號/〈中學國文的教授〉, 《新青年》(1920.9)第8卷第1號

26) 《新青年》(1917)2卷5號.

신의 이론을 문학으로 직접 증명한 증거가 되는 셈이다.

앞에서 밝혔듯이 《終身大事》는 중국에서 아직 연극에 대한 의식이 일반인에게 희박한 상황에서 연출에 실패하여 문자로 실리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

그럼 그가 언제 왜 희곡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기로 하자. 앞서 기술한 것처럼 胡適은 입센에 대해 특히 주목하였다. 이미 유학시절부터 이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1917년 미국 유학을 마치기 바로 직전에 그는 입센의 모든 작품을 탐독하였으며, 특별히 《민중의 적》을 좋아하였다<sup>27)</sup>고 한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이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가 현실주의 자유주의 작품에 주목한 것이 이를 증명해 준다.

입센으로부터 서구 희곡은 사회극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를 "문제극"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모든 극들이 오늘날의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토의한다. 여기에 가장 두드러진 사람으로 입센(노르웨이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죽었다. 현재의 이 방면의 뛰어난 사람으로 독일에는 하우스프트만, 영국에는 버나드 쇼우, 프랑스에는 브레히트가 있다.<sup>28)</sup>

위의 글은 우리에게 胡適의 희곡 장르에 대한 안목과 식견을 능히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서구 근대 희곡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희곡의 가치에 대한 선구적 안목은 그를 자연스럽게 창작의 욕구와 소양을 받아시켰을 것이다. 인용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그에게 있어 희곡은 시대적 사상을 표현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서구 근대희곡사의 흐름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그가 사회계몽의 차원에서 《終身大事》를 창작한 사실은 이로 미루어 그 의도를 충분히 짐작케 해 준다.

또한 그는 《新青年》잡지에 입센주의 특집에 이어 중국의 희곡 개량

27) 周明之 著, 雷頤 譯, 《胡適與中國現代知識分子的選擇》(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5), 168쪽 재인용.

28) 曹伯言 整理, 《胡適日記·1》(合肥: 安徽教育出版社, 2001), 380쪽. 브레히트 국적을 잘못 표기.



논의에 참여하여 자신의 연극관을 밝히고 있다.<sup>29)</sup>

그는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문학이 있다”는 진화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전통극은 과거 시대의 산물로 규정하였다. 樂曲…… 臉譜, 嚦子, 臺步, 式把子 등등은 이미 예술적인 기능을 상실한 역사적 “유물(遺形物: Vestige or Rudiments)”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희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중국인이 어떻게 외국 약을 먹을 수 있겠느냐”<sup>30)</sup>는 태도를 외면하고 있다고 그들의 우매함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그의 과격할 정도로 전통극에 대한 입장은 비록 현대 희곡을 전파하려는 의지의 소산에서 출현한 것으로 짐작되지만 어느 점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전통극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는 중국의 전통극을 가리켜 “탁자를 뛰어 넘는 것이 담을 뛰어 넘는 것이 되고, 탁자에 올라서면 산을 오른 것이 된다. 네 마리의 용이 깃발이 천의 사람과 말이 움직이는 것이고, 두 번을 모퉁이를 돌며 몇 십리 길을 간 것이 된다. 칼싸움 몇 번을 반복하고, 손동작 몇 번이며 한 바탕의 대전투가 벌어진 것이다.”고 하면서 이러한 방식은 “졸렬하고 우둔한 것으로 진실하지 못하며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방법”이자 ‘사람들에게 구토를 일으키게’<sup>31)</sup> 정도로 묘사하고 있다.

분명 그의 표현에는 지나칠 정도의 중국 전통극에 대한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데, 이점은 중국 연극의 규격화된 형식에 이에 습관적으로 익숙해 있는 관객들, 이러한 연극의 연행에 무력하게 빠져 있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결부하여 그가 이를 부각하여 논의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에게 있어서 잠정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연극을 전파하고 관객들을 계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격적 필치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가 유학시절 서구에서 보고 감상했던 연극이나 빠져들었던 희곡의 세계는 그가

29) 《新青年》第5卷4期에서 “戲劇改良”에 대한 대토론 전집을 마련하였는데, 胡適〈文學進化觀念與戲劇改良〉, 傅斯年〈戲劇改良各面觀〉, 歐陽予倩〈予之戲劇改良〉, 張厚載〈我的中國舊劇觀〉 등이 참여해 희극의 방향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30) 胡適〈文學進化觀念與戲劇改良〉, 《新青年》第5卷4期, 《胡適文集2》(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8), 115-126쪽 참조.

31) 위의 책, 124쪽 참조.

귀국한 뒤에 중국 현실에서 몸소 체험하고 있는 연극의 세계는 너무나 확연하여 자격지심을 느꼈을 법하다. 이런 관점에서 그에게 있어 전통극은 배격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그의 희곡관을 종합적으로 관찰함으로써 《終身大事》의 출현과 그 의미를 제고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대희곡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상황에서 《終身大事》를 창작한 것은 胡適에 있어서 하나의 계몽적 실천행위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또한 진보적 문학관을 관철하려는 사상적 의지의 피력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 3.2. 유학, 그리고 그들만의 드라마

#### 1) 이광수 - 《閨恨》의 실현과 情育<sup>32)</sup>

이광수는 일본을 1, 2차에 걸쳐서 유학을 감행한다. 일찍 유학길에 오른 그의 문학과 사상은 유학을 통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이 유학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의 지도적 인물로 성장하고 이상적 포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꿈꾸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가 일본 유학을 하는 시기 동안은 그의 학문적 연마와 사회적 실천이 어김없이 예정된 길을 밟아 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촉망받는 유망한 신진 인물로 주목받았으며 그의 이상도 점차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학 시절 그 자신을 괴롭히고 자책하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의 조혼 아내 백혜선이었다. 고향에 두고 온 아내는 그가 유학을 통해 근대문화와 접하면서 인식하게 이념과 현실적으로 배치되었다. 이점은 당시 유학생 일반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되지만 잠재적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오점으로 작용하였다. 유학을 통해 형성된 선택된 존재로서의 과도한 자의식은 이러한 자신의 과거를 점차 용납하기 어렵게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근대문화의 세례가 하루가 다르게 충격을 전파하는 유학의 현장인 동경에서 전통의 답습은 자신의 자유를 소외시키는 길이라고 판단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은 그들 유학생들이 겪고 있는 실제의 일이기도 하

32) 〈今日我韓青年과 情育〉, 《대한홍학보》 10(1910.2)

였다.

그런 점에서 《閨恨》은 어쩌면 이광수를 포함한 자신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광수는 《閨恨》에서 조혼 아내를 버리는 인물을 그리고 있는데, 이는 그 자신이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비록 작품에서는 버림받는 아내의 비극적 장면들이 애상적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이광수는 현실에서 그의 작품에서처럼 고향에 둔 아내를 버리고 허영숙이라는 신여성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그의 결정은 결국 그의 인생의 행로와 직결되게 되는데 그의 허영숙과의 도망은 자신의 생각과 실천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점에서 《閨恨》은 그의 연애관 여성관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로 제공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희곡을 통해 우리는 처연하게 남편과 떨어져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인들에게 이광수가 공감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그러한 여인들의 삶이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적나라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 볼 수 있는 뛰어나고 넘쳐나는 미적 정감은 이 희곡에서 경우처럼 여인들을 통해 여지없이 발현된다. 일찍이 사람의 정감과 감성의 훈련에 침잠한 이광수의 탁월한 정감의 표현은 《閨恨》에서 가장 돋보이는 장치이기도 하다. 이는 그의 문학적 출발의 지평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적 미적 정서를 구축하는 하나의 기제로 발전하게 된다. 여기에 《閨恨》의 문학으로서 존재 가치와 한국 근대 희극의 전망이 아울러 이광수란 이름과 아울러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 2) 胡適 - 《終身大事》속의 회화화와 容忍<sup>33)</sup>

胡適의 유학은 외형적으로 풍요함과 우아함으로 가득한 윤택한 생활의 날들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자신의 선택받은 유학생활을 평화로우면서 차분하게 생활하면 자신의 모든 면에서 성장을 체현하면서 보

33) 周質平, 《胡適與韋蓮司深情五十年》(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8) ‘容忍’은 胡適의 유학시기부터 제기된 용어로 그의 삶과 사상을 관통하는 좌우명으로 집약될 수 있다. “容忍比自由還更重要”(《胡適作品集》(26))는 그의 친필을 이를 잘 대변해준다.

냈다. 그리고 그는 성공적 유학생활을 마치고 보장받은 귀환을 통해 단번에 중국 학술계의 총아로서 입지를 굳히게 된다. 누가 봐도 흠모하고 부러워할 만한 게다가 탁월한 시대적 감각과 문화적 품격을 겸비한 그에게는 결점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인생 그 자체이다. 굳이 고민이라면 자신의 성공에 시기하는 부류들이 다소나마 그의 마음을 흔드는 정도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학 이전에 그이 어머니가 정해진 약혼녀를 버리지 않고 미국에서 돌아 온 뒤 결혼하여 인생을 같이 하였다는 사실에 이르면 그에 대한 성숙한 인간성에 다시 한 번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게 된다. 중국 문단의 魯迅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행보가 그를 평가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특히나 그는 ‘입센주의’라는 새로운 근대의식의 계몽정신을 창안하고 중국에 전파는 선구적 노력을 꾀한 인물이자, 이를 적극 피력한 그의 희곡 《終身大事》에서 田亞梅는 부모의 뜻을 기꺼이 저버리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자와 함께 집을 떠나 도망한다는 결론이다. 극 속에서 유학을 경험한 이들은 집을 버리고 자신들의 사랑을 관철한다. 입센주의에 딱 계합되는 내용의 줄거리이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胡適은 희곡의 결과를 선택하지 않고 전통적 관습을 기꺼이 수용한다. 그는 왜 당시의 지식인들의 풍조로 볼 때, 그렇게 허물어 되지도 않았을 자신의 결혼을 부정하지 않고 자신은 전통적 방식의 결혼을 수용한 것일까? 희곡과 배치되는 그의 결혼 과정과 그의 연애관은 비록 이 작품을 해석하는 데 특별한 해석적 도구는 되지 못하지만 그의 삶과 연계해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실이다.

《終身大事》는 희곡을 무대화하는 측면에서도 여성 인물이 가장 중요하다. 당시에는 무대에 여성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전복으로 기록되는 시대였다. 따라서 희곡을 통해 작가가 여성 인물을 설정하고 인물 성격을 형상화하는 것은 작가의 여성관을 추론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작품은 희곡의 구성 요소에서는 파격적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작품의 극중 인물을 통해 형상화되는 여성 인물의 극적 이미지는 과히 걱정적이라 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우리에게 연극적 생동감으로 다가오기보다는 박제화 된 이데올로

기의 이미지로 기억된다. 어쩌면 그곳에는 단정하고, 냉정을 잃지 않는 작가의 실제 이미지가 오버랩 됨으로서 무대가 더욱 엄숙해 진 까닭인지 모른다. 사실 이 희곡은 희극을 지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데에는 그가 보여주는 소박하고 정중한 태도의 여성관이 선입견처럼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미국에서의 유학은 한편으로 매우 근엄하며 종교적이며 자기성찰의 중심으로 전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신사상의 격정적 전개를 고려한다면 통념적으로 《終身大事》의 내용이 명시하는 혁신 사상은 연극적으로 신랄하게 그려질 법 하지만 실제 이 희곡은 작가의 품성처럼 온건하다. 그리고 이러한 수렴 방식은 중국의 근대적 수용의 한 일면으로 정착하게 되며, 일련의 미적 체계로 발현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외형적으로 드러난 근대적 지향성에 함몰되지 않고 삶의 실질을 성찰하는 그의 사상과 행위는 비록 그의 희곡이 연극적으로는 성공적이지는 않다하더라도, 서구 근대 희곡을 근대적 수행의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終身大事》는 胡適 자신 삶과 동질적이다.

## 4. 내용적 비교

### 4.1. 극중 인물을 통한 근대적 여성 인물형상 비교

#### 1) 내향적 자기 정화 - 《閨恨》

단막극인 《閨恨》은 이씨라는 유학생 남편을 둔 아내와 비슷한 처지의 여인들의 삶에 맞추어 전개된다. 전통적인 혼인관계에서 비롯된 지식과 문명의 측면에서 대비되는 결혼관계가 초점에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대립적 요소가 이 극의 갈등구조의 축을 형성하며 스토리 전개에 탄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주인공 이씨는 작품에서 비록 수동적 인물에 불과하지만 당시의 문명과 비문명, 전통과 현대성이라는 사회적 담론을 대변하는 인물형상에 적절하게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극이 지니는 플롯과 구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인공 이씨가 갖는 인물의 형상을 통해 극적 의미를 제고해보기로 한다.

왜냐하면 《閨恨》의 등장인물이 영락없는 전근대적 인물로 치부되고 있을뿐더러 이러한 명백한 사실이 이 극의 근대극으로서 자질에 의심을 초래하지만 그래도 극중 인물들이 지니는 형상은 매우 뚜렷하게 연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주인공 이씨가 보여주는 극적상황에 대한 극적 행위는 단선적인 동선에 따른 행위로 일관하고 있지만 극을 통해 뚜렷한 인물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주인공 이씨는 극의 사건의 전개에 따른 비극적 인물로 형상화되며, 극적 필연성을 쉽게 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이씨가 인물의 비극성 이상으로 전해주는 강렬한 동화작용에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요소는 이 연극의 극적성격을 규정하는 차원을 넘어 극적 스타일에서 담긴 정서적 요소를 외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작가 이광수가 지닌 필연적 이야기꾼의 재능에서 발현된 것이기도 하겠거니와 민족적 서정에 깊이 닿아 있는 인물형상의 각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閨恨》이 갖는 등장인물의 특색은 전통적 관념의 봉건적 책략에 묶여 있는 것으로 규명되기보다는 지고한 삶의 숭고함에 맞추어진 은밀한 인물들의 개성이 더욱 뚜렷하게 부각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어쩌면 이러한 전략이 행동의 자제가 미덕으로 여겨지던 익숙하지 않은 우리의 전통적 현실에서 새로운 희곡 만들기의 시발점에 선 이광수의 예정된 선택으로 작용했는지 모른다.

주인공 이씨는 외형적으로 시대적 희생양의 화신으로 각화되기 이전에 이미 극적으로 당위적인 행위 요소를 수렴하고 있는 모방적 인물의 요소를 구비하고 있다고 하겠다.

## 2) 대자적 세계지향성 - 《終身大事》

《閨恨》에 비하면 《終身大事》의 주인공 田亞梅의 태도는 매우 확고하다. 따라서 그의 행동은 외부의 선택적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분명한 행동을 보여준다. 이는 역시 단막극으로 단출한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자유결혼이라는 스토리에 따라 전개되는 《終身大事》 희곡의 성

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극에서 등장인물은 자신들의 처지나 내면적 갈등에 대한 소회가 많은 《閨恨》에 비해 당면한 현실의 상황적 논리가 득세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극 속의 인물과 인물의 갈등양상이나 구조 또한 선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인물들 간의 대립과 대결적 국면이 뚜렷하게 나타남으로써 극적 인물은 항상 대립항을 형성하게 된다. 구시대적이고 전통적 가치에 기대고 있는 인물인 부모와 유학에서 돌아와 자유결혼을 결행하는 田亞梅는 언제나 상대적 가치의 인물로 그려진다.

田亞梅의 인물은 내면적 갈등이나 인간적 고뇌를 돌아보기보다는 언제나 현실 세계가 추구하는 외향적 가치관에 맞추어져 있다. 애초 이러한 주제의 계몽적 가치에 절대적 의미를 부여함에 따라 결국 최초의 현대연극이라는 이 희곡을 극적 이데올로기의 한계에 묶어두게 된다.

그러므로 이 희곡에서 인물이 추구하는 특징은 두드러지지만 인물의 외연을 둘러싼 극적 장치들은 이 인물들의 성격을 풍부하게 극적 형상화라는 소기의 목적에서는 떨어져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이 인물의 형상화함에 있어 《閨恨》과 대별되는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 4.2. 극적 양식을 통해 본 근대적 가치체계 비교

### 1) 정경화된 서정 - 《閨恨》

《閨恨》은 단막극에서 비롯된 간결한 스토리 구조와 평면적 극적 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극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희곡이 발출하고 있는 고유한 극적 장면과 흥미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閨恨》의 연극성을 탐색하는 주요한 요소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초기 현대희곡이 지니는 추형으로 《閨恨》의 한계를 귀속시킬 수 있겠지만 또한 이 극을 통해 작가 이광수의 서사적 자질을 예외 없이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곳곳에 이광수 특유의 서정적 장면과 장치들이 묘사되고 독립적인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인물 행동과 도구 등 제반 극적 장치들은 이를 통해 희생하고 있다는 점이 이극의 최대의 극작으로서의

덕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극중의 장면 하나하나를 통해 독립된 에피소드의 정경을 갖게 되고, 그 정경들에서 비롯된 연상적 작용은 혼연히 이 희곡의 현실감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희곡은 빈약한 플롯과 단선적인 극적 흐름에 따른 상황전개에 불과한 작품이지만 각각의 정경화된 장면들이 인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장면과 장면들은 비록 밀접한 인과관계를 통한 극적 상황에 고스란히 귀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극적 매혹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점에서 어찌면 《閨恨》은 연극이 스스로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그 理想으로 치달아 간<sup>34)</sup>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2) 이데올로기적 교술 - 《終身大事》

주지하다시피 《終身大事》는 당시 자유연애와 결혼이라는 이념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이는 제목을 통해 드러나는 '終身'과 '大事'라는 단어를 통해서 극의 주제가 분명히 제시되고 있는 있으며, 이 희곡의 등장 인물들의 행위와 극적 상황도 이미 예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목이 극적 주제를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閨恨》에서 '규한'이 제시하는 의미가 당시의 사회적 환경에서 이념적 요소를 표출하고 있지만 복합적 의미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終身大事》는 제목이 전달하는 의미적 정보가 극의 전체 플롯을 관통하고 있다. 당연히 주제적 플롯 외에 극의 전개과정에서 빚어지는 삽화적 플롯들에서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뿐더러, 극의 주제적 이념을 강화시켜 준다. 그것은 바로 자유연애를 통한 신식결혼이라는 필연성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주의적 삶을 지향과 반전통, 반봉건이라는 시대적 이념과 결합한다.

이러한 극적 상황은 특히 에필로그를 통해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극에서 주인공 田亞梅는 결혼을 위해 가출을 결행하는 것으로

34) 질 지라르 외 저, 박혜경 옮김, 《연극의 세계》(서울: 열린 시선, 2008), 195쪽 참조.



막이 내린다. 자연히 에필로그는 제목에 대비되면서 하나의 통일적 극적 행동양식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극의 모든 전개과정은 가출이라는 인물의 행위적 요소로 압축된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 이념과 교차하면서 극의 상징체계를 이루게 된다.

또한 극의 양식에서 측면에서 《終身大事》가 《閨恨》과 비교되는 부분은 대화의 기능을 들 수 있다. 《閨恨》은 초기 한국 현대희곡 일반의 경우와 비슷하게 대화의 형태는 진술의 측면이나 동의반복적인 기술에 의존함으로써 인물간의 갈등구조가 아직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자연히 소설적 형태의 서사적 기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終身大事》는 비교적 온전하지는 않지만 대화의 기능이 극 장르로서의 사건의 상호관계 속에서 극의 완결성에 다가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점에서 이 희곡이 근대극의 생성요소를 구비하고 있지만, 교술적 기능에 너무 치중되어 행위와 사건이 결합에 따른 극적 연속성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 4.3. 드라마투르기를 통해 본 민족적 사유방식 비교

##### 1) 계몽적 멜로드라마의 황홀경 - 《閨恨》

근대 사실주의극이 정립되기 이전 매우 보편적인 극의 형태로 볼 수 있는 멜로드라마는 20세기에 들어서서도 여전히 자신의 몫을 분담하고 있었다. 피터 블록스가 예언한 멜로드라마의 매력은 욕망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sup>35)</sup>에서 오히려 근대성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우격다짐으로 《閨恨》의 근현대극로서의 위상을 부추기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광수에서 이룩된 극작의 전통은 재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의 대부분의 과도기적 연극들에서도 이와 비슷한 극적 풍경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이는 차치하고 이 작품을 통해 우리

35) 리타 펠스키 저, 김영찬 외 옮김, 《근대성과 페미니즘》(서울: 거름, 1998), 191쪽 참조. "피터 블록스는 멜로드라마를 신성함이라는 지배적 관념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정신적 의미를 극화하려는, 명백히 근대적인 기획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멜로드라마의 언어는 과장된 표현, 과장법, 반복에 기대어 이러한 형이상학적 풍요로움에 대한 동경을 입증한다."

의 극적 전통을 반주해 보고자 한다.

《閨恨》은 위에서 언급한 것을 종합하여 볼 때, 멜로드라마적 요소가 짙은 작품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광수의 제반 자료를 검토해 보아야겠지만, 《殉教者》에서도 그렇고 그의 독특한 극작 형식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한국근현대극의 효시로 거명되는 조중환 《병자삼인》은 일본 연극을 통해서 연극적 훈련을 하였다<sup>36)</sup>고 알려져 있다. 이광수 또한 이 극작이 일본 유학시기 창작한 일본의 영향을 추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조중환과는 달리 일본 연극의 기법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작품은 완성도를 떠나 내용에서 우리 민족의 시대적 회상을 쉽게 읽어 낼 수 있다. 그리고 그 곳에는 우리의 전통적 리듬에 섞여 "여인네의恨" 내재하고 있으며, 이것이 작품의 생명적 모태가 되고 있다.

우리가 비교하는 두 작품이 확연히 들어내고 있듯이, 《終身大事》가 이념적 주제에 따라 건조하게 진행된다면, 《閨恨》은 비속한 멜로드라마의 전형을 밟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민족 고유의 욕망을 따라 화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閨恨》을 통한 욕구 또한 명백히 우리 민족의 연극적 전통에 이 작품이 극적으로 승화되는 바람에서 출발하였다고 하겠다.

## 2) 예고된 현실주의연극 전통 - 《終身大事》

胡適이 《終身大事》를 통한 열망은 작품의 주제만큼이나 구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오히려 이 희곡의 창작보다 그 과정에서 더 큰 극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 희곡이 입센의 《인형의 집》을 모방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미국 유학시절 문학서를 섭렵하면서 이 작품을 인상적으로 접하게 되었고, 그에게 이 희곡은 하나의 좋은 자신의 사상적 전락을 구사하는 좋은 기제가 되어 주었다. 바로 이로부터 중국의 현대희곡은 필연적인 전통의 하나의 기틀이 정립되었다면 과장일까? 어쨌든 중국의 현대희곡은 향후 현실주의적인 전통을 강조하는 방향등

36) 윤백남, 《조선연극운동의 20년 전을 회고하며》, 양승국, 《한국근대연극영화비평자료집6》(서울: 연극과 인간, 2006), 361쪽 참조.

을 선호한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에서 《인형의 집》은 胡適과 羅家倫에 의해 번역되어 1918년 《新青年》에 실렸다. 특히 인형의 집에 나오는 노라의 가출은 중국 문단과 사상계를 두고두고 논쟁거리로 만든 현대사적 논쟁의 실마리가 된다. 이는 《終身大事》의 田亞梅의 가출은 이의 복사판인 것이다. 사실 입센은 이 희곡은 노라의 불행한 혼인과 여성의 해방이라는 점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1910년대 이러한 관점에 집중되어 논의되어 왔다. 바로 이러한 논의 배경에 胡適이 자리 잡고 있다.

노라의 가출에 초점이 맞춰진 《인형의 집》은 다름 아닌 胡適의 의도적인 '오해'를 통해 따라 교묘하게 문학혁명의 탄약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이다.<sup>37)</sup> 이로 비춰 볼 때 그의 희곡 역시 이러한 자신의 전략에 부합하는 의도적 '창작'의 일면이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점에서 《終身大事》의 중국희곡사적 위상이 시점에 따라 평가의 차이를 드러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5. 나오며

이상에서 이광수의 《閨恨》과 胡適의 《終身大事》의 비교를 통해 그들의 초기 사상과 작품의 의미 분석을 병행하여 점검해보았다.

이들 작품에 대한 연구는 그들이 전문적 희곡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연구가 미비하지만 이들에 작품에 대한 평가 또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들이 특수한 환경 속에 위치한 관계로 이들의 작품에 대한 제 평가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뀌어 감을 알 수 있다. 특히 근래에 양국의 희곡사적 연구가 축적되고 희곡연구의 범주가 공연사로 확장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덜하다. 그럼에도 이들이 갖는 사상적 의미와 선구적 업적은 분명 제대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희곡이 지닌 가치를 단편적 시각에서 조망한다면 오히

37) 장정 저, 임수빈 역, 《근대중국과 연애의 발견》(서울: 소나무, 2007), 180-191쪽 참조.

려 그들이 남긴 문학적 자산을 홀시하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들 작품들이 발표된 연대가 비슷한 하기도 하지만 이들이 유학시대를 통해 희곡의 내용과 주제를 체득하고 창작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 작품은 작품의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문학사적 측면에서와 근대사상의 수용과정에서 주요한 핵심적 주제가 담겨 있다. 그러므로 이 작품들은 그들의 초창기 사상을 밝히는데 매우 유익한 자료가 된다.

또한 희곡이 발표된 두 잡지의 성격은 다르지만 이들 잡지가 양국의 근대문화와 근대문학을 끼친 영향은 지대한다. 이 잡지들은 두 작가가 초창기 자신들의 사고를 적극적으로 개진한 장이었으며 그리고 주요한 멤버로 활동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곡이 단순한 문학적 성과물을 넘어 이들의 사상적 준거된다는 점에 입각하여 의미를 제고해 보았다.

특히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희곡 속에 나타나는 여성형상과 그들의 현실적 실천에 대입해 봄으로써 그들이 지닌 생각과 사상적 편린들을 재구성해 볼 수 있었다. 이는 작가와 작품을 만나게 하는 교통이자 교직이며 인간적 휴머니티를 발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은 치열하게 근대사상을 수용하고 계몽적 삶을 실천하려는 자세로 일관하지만 이들은 인간적 한계와 고뇌는 현실을 결코 비껴나갈 수 없었다. 이 점은 오늘날 동아시아 담론의 지속선상에서 탈리될 수 없는 엄연한 진행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 점에 입각하여 우리는 이들 희곡을 재평가해보려는 시도에 기본적인 의미를 두었으며, 그리고 이들의 살아있는 문학적 생명력과 엄연한 자유정신을 탐색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는 이 두 작품의 대비분석을 통해 상관성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이들 작품은 당시의 현실에서 문명과 문화의 굴절이 반복하는 사회적 소산에서 비롯된 작품으로 희곡적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나름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두 작품은 여러 측면에서 선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당시 한국과 중국이 처해 있는 상황적 논리에 결부되어 각각의 작품 특성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특색은 고스란히 각 국가의 드라마투르기의 한 양상으로 발현되고 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과제로는 좀 더 심화된 희곡자체의 분석을

통해 위의 결론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 이들 희곡에 대한 본격적인 극적 방법론에 의한 분석은 찾아보기 힘들다. 아마 이 두 희곡이 매우 짧고 완전한 근대극의 꼴을 갖추고 있지 않을뿐더러 이들 작가들이 남겨 놓은 거룩한 유산에 비하면 초라하다는 사실이다. 비록 이러한 한계가 명백하게 존재하지만 적합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원만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 서연호 편, 《한국희곡선집·1》(서울: 태학사, 1996)  
《胡適文集》2권(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8)  
曹伯言 整理, 《胡適日記》(1-8)(合肥: 安徽教育出版社, 2001)  
洪深 編選, 《中國新文學大系·戲劇集》(上海: 上海良友圖書, 1935)  
유민영 저, 《韓國近代演劇史》(서울: 단국대학출판부, 1996)  
김윤식 저, 《이광수와 그의 시대(1·2)》(서울: 숲, 1999)  
《學之光》(영인본)(서울: 역락, 2007)  
민두기 저, 《中國에서의 自由主義의 實驗-胡適의 思想과 活動》(서울: 지식산업사, 1996)  
周明之 著, 雷頤 譯, 《胡適與中國現代知識分子的選擇》(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5)  
김재석, <《규환》의 자연주의적 특성과 그 의미>, 《한국극예술연구》 26(2007)  
이정숙, <《규환》의 근대의식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19(2004)  
송명희, <규환(閨恨)과 1910년대의 혼인관>, 《女性問題研究》 18(1990)  
權純宗, <李光洙의 戲曲 「閨恨」과 「殉教者」研究>, 《韓民族語文學》 12(1985)  
서연호, <한국 극문학사상에서 본 춘원>, 《어문논집》 10(1967)  
金元重, <춘원(春園)의 李光洙의 희곡문학>, 《국어국문학》 86(1981)  
이정은, <신과극의 성립과 근대희곡의 태동>, 《演劇學報》 23(1994)  
박노현, <1910년대 희곡의 문명 담론-'문명' 모방과 '야만' 추방의 담론

- 형성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18(2003)
- 원명수, 〈1910년대 희곡의 희극성 연구〉, 《語文學》 60(1997)
- 權純宗, 〈李光洙의 戲曲 「閨恨」과 「殉教者」研究〉, 《韓民族語文學》 12(1985)
- 배연희, 〈호적(胡適)의 《종신대사(終身大事)》에 나타난 입센의 수용과 변형〉, 《中國學論叢》 17(2004)
- 김종진, 〈중국 초기 희곡의 문화·정치적 근대성의 변천〉, 《中國學報》 48(2003)

### 〈Abstract〉

Lee Guangsu and Hushi both formed the basic of modern literature, played a important role in the literary world during the early 20th century.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Korean and Chinese modern literature started from them. So scrutinizing the literature and life of them is a work illuminating the course of the modernity in two country. In this paper, I take notice of the sameness that they composed the modern drama at first in their country to analyze through the comparison of Lee's 《Kyuhan》 and Hu's 《Zhongshendashi》. It is significant that their drama was not only composed in same time, but also through their works can be deduced the modern discussion being confronted with gender discrimination for women, liberty and individuality. But on the other there is a difference, or the different dramatic atmosphere between the two. So it is more meaningful that the comparison of two pieces can be illuminated the modern history of two country.

**Key Words:** 《Kyuhan》, 《Zhongshendashi》, Lee Guangsu,  
Hushi, modernity

투 고 일 : 2009.2.20

심 사 일 : 2009.3.10-3.30

게재확정일 : 2009.4.25

## 梁啓超의 “소설계혁명” 이론이 중국의 근대소설에 미친 영향분석\*

김태관\*\* · 권혁진\*\*\*

### 〈목 차〉

1. 서론
2. 만청소설의 양적 성장과 양계초의 소설활동
3. 梁啓超의 소설이론의 발생기
4. 梁啓超의 소설이론의 발전기
5. 梁啓超의 소설이론의 완성기
6. 결론

### 1. 서론

“만청 특히 청말의 1-20년 동안에 소설출판은 전례가 없을 만큼 번성했다. 통계에 의하면 청말소설<sup>1)</sup>만도 1천종 이상에 이른다. 소설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다. 첫째는 상업도시가 부단히 규모가 커지면서, 시민들의 이러한 오락성 읽을거리에 대한 수요가 부단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신식 대중전달매체의 성장이다. 사실 이 두 원인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다. 청대 후기에는 외국조계를 주요기지로 하여 점점 더 많은 신문과 정기간행물들이 나타났는데, 통계에 의하면 1912년까지 약 500종의 신문과 약 200종의 정기간행물이 간행되었다. 이 가운데에는 《新小說》, 《繡像小說》, 《月月小說》, 《小說林》 등과 같은 전문적인 소설잡지 외에도, 수많은 신문들이 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23-A00011)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ttkim@deu.ac.kr)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교수

1) 물론 이것은 번역소설을 포함한 수치이지만 당시의 고조된 소설창작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음은 분명하다.



부간의 형식으로 소설을 등재하여 신문과 함께 배달했다.”<sup>2)</sup>

청말에 이렇게 많은 창작이 쏟아져 나와 소설의 전성기를 구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소설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 문학연구자들의 공통된 평가이다. 이러한 양과 질의 불균형 현상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갑작스런 양의 증대현상이 질적향상을 담보할 수는 없었으며, 이런 양적 증가의 원인이 비문학적 요소인 사회변혁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양적 증가의 원인을 앞의 인용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문학의 외부요인인 문학 상품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면, 질적 불균형의 문제는 이 사회변혁운동의 전개과정, 특히 이 사회변혁운동을 주도한 梁啓超의 “소설계혁명운동”의 전개과정에서 그 원인의 일단을 찾고자 한다.

## 2. 만청소설의 양적 성장과 양계초의 소설활동

근세 봉건사회를 부정하고 시민사회의 성립과 때를 같이하여 시작된 근대문학은 자유주의·개인주의의 사상과 인간성의 긍정·해방에 대한 염원을 추구하였다. 즉 중세 봉건사회의 풍습으로부터 해방을 추구하고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근대시민의식에 입각하여 성립한 문학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소설장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편전쟁 이후 중국은 근대화의 과정을 걸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은 봉건사회의 붕괴와 서구제국의 침탈에 대비하는 일련의 개혁론을 제기해 왔다. 양무운동, 변법유신운동, 신해혁명, 5·4 신문화운동 등으로 이어진 개혁의 과정은 중국민족의 자존을 위한 구망운동임과 동시에 근대 서구의 수많은 문물과 제도·사상들이 수용되고 변용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서구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한 중국의 반제운동은 봉건사회의 질곡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한 반봉건운동과 더불어 20세기 백년 동안에 진행된 중국근대개혁의 양대 산맥이었다.<sup>3)</sup>

2) 張培恒, 駱玉明 編著, 《中國文學史》(上海: 復旦大學出版社, 1996年), 601쪽.

중국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구지식인 출신으로 서양문물의 세례를 받아 유신변법운동에 뛰어든 인물이 강유위와 양계초였으며, 이들은 과거를 준비하고 있는 독서인 신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정치에 참여할 권력을 지닌 것도 아니었고, 또 지방의 호족이나 군벌들처럼 군대를 소유한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근대의 상징인 여론정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당시에서는 여론매체의 총아라고 할 수 있는 신문과 잡지를 장악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정치적 수단이기도 하였다. 특히 그들은 소설의 사회교화작용에 관심을 가졌고, 그들의 참여로 인하여 중국의 근대소설은 매우 특별한 근대화과정을 겪게 되었다.

梁啓超의 소설이론과 소설창작활동은 주로 1897년 《時務報》에 〈變法通議---(三之五)---幼學〉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1903년 《新小說》잡지 《小說叢話》란에 〈論桃花扇〉을 발표할 때까지 7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시대순으로 梁啓超의 소설과 관계된 활동(이론·창작·번역을 모두 포함)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sup>4)</sup>

#### 時務報時期

1. 1897년 3월 3일, 〈變法通議---(三之五)---幼學〉 발표. 《時務報》 제19기.
2. 1897년 11월 5일, 〈蒙學報·演義報 合序〉, 《時務報》 제44기.

#### 清議報時期

3. 1898년 12월 23일, 〈譯印政治小說序〉, 《清議報》 제1기.
4. 1898년 12월 23일, 〈佳人奇遇〉(일본, 柴四郎 저), 《清議報》 제6기-제35기(1898.12.23-1900.2.10)
5. 1899년 9월 5일, 〈飲氷室自由書〉, 〈傳播文明三利器〉, 《清議報》

3) 〈5·4전후기 계몽주의와 근대개혁론-노신을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11, 123쪽.

4) 필자, 《만청소설이론연구》(대만: 정치대학 박사논문), 26쪽-27쪽.

제26기.

6. 1900년 2월 20일, 〈經國美談〉(일본, 矢野文雄 저), 《清議報》 제 36기-제69기(1900.2.20-1901.1.11)

新民叢報時期

7. 1902년 2월 8일, 〈劫灰夢傳奇〉<sup>5)</sup>, 《新民叢報》 제1호.  
8. 1902년 2월 22일, 〈十五小豪杰〉譯後語(프랑스, 焦土威爾奴저), 《新民叢報》 제2호-제13호(1902.2.12-1902.8.4), 〈羅普속역〉, 《新民叢報》 제14호-제24호(1902.8.18-1903.1.3)  
9. 1902년 6월 20일, 〈新羅馬傳奇〉, 《新民叢報》 제10호-제56호 (1902.6.20-1904.11.17)  
10. 1902년 8월 18일, 〈中國唯一之文學報新小説〉, 《新民叢報》 제 14호.  
11. 1902년 11월 14일, 〈新小説第一號總序〉, 《新小説》 제1호.  
12. 1902년 11월 14일, 〈論小説與群治之關係〉, 《新小説》 제1호.  
13. 1902년 11월 14일, 〈新中國未來記〉, 《新小説》 제1호-제7호.  
14. 1902년 11월 14일, 〈俠情記傳奇〉, 《新小説》 제1호.  
15. 1903년 00월 00일, 《小説叢話》란에 〈論桃花扇〉 발표, 《新小説》 제7호-제 24기(1903-1906)  
16. 1915년 1월 1일, 〈告小説家〉, 《中華小説界》 2권 1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6의 〈告小説家〉 1편은 梁啓超가 문학 일선에서 떠나 10여 년 전의 일을 회고하면서 쓴 문장으로 그 전의 전성기의 문장과는 그 성격이 다르고 영향력도 현저하게 떨어지므로 이 한편을 예외로 한다면, 梁啓超가 소설과 관계된 활동을 한 시기는 1897년부터 1906년까지 대략 10년이 안 되는 짧은 기간이고 발표한 문장이나 작품의 수량도 극히 적은 편이며, 특히 창작은 〈新中國未來記〉 1편에 불과하다.

---

5) 이 작품의 저자는 如晦庵主人으로 되어 있다. 天鳴 主編, 《二十世紀中國文學大典》(1897-1929)에는 일본학자 中村忠行이 如晦庵主人이 梁啓超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그 설을 따른다. 위의 책, 40쪽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문학사에 끼친 그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큰 것이었고, 따라서 그가 소설문학사에 끼친 공적은 전무후무한 것이었다. 그 이유는 그의 주장이 시의적절 하였고, 또 당시의 사회가 필요로 한 것이었고, 당시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의견을 좇아서 소설활동에 참여하여 여론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위의 자료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전에 볼 수 없던 몇 가지 명확한 특징을 찾아낼 수 있다.

첫째, 그의 이론문장이나 번역소설·창작소설은 한 편의 예외도 없이 모두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되었다.

梁啓超는 그의 정치생애를 신문잡지의 출판과 거의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는 1895년에 《中外紀文》을 발간하였으나, 정부의 탄압에 의하여 발간을 할 수 없게 되자, 1896년 상해로 내려가서 《時務報》를 발간하였는데 중국인이 중국인독자를 위하여 중국어신문을 발간하는 시대를 여는 신호탄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梁啓超가 《時務報》를 통하여 〈變法通議, 三之五, 論幼學〉을 발표하자 이를 뒤이어 1896년부터 뒤이어 문예성부간과 소보(小報)들이 앞을 다투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 그의 이론의 시의적절성을 뒷받침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할 것은 주7의 도표(원래 실을 예정이었으나 지면상 생략. 원문을 찾아보기 바람.)에서 언급한 현재 확인 가능한 205개의 신문과 잡지의 발행지를 살펴보면 당시의 근대화 도시화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일본·동경이나 횡빈과 북경을 제외한 중국의 각 지역들은 구미열강과 일본 등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개방된 연안이나 또는 큰 강을 끼고 있어 외국과의 교역이 편리한 신흥도시들이다. 당시에 발행되던 잔재 신문잡지의 출판물 가운데 거의 80% 가량이 상해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은 그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특히 상해는 그들 중 가장 선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해에서는 이미 1872년에 영국의 자본이 설립한 근대 상업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申報》가 설립되어 상당히 성공적으로 판매부수를 늘려가고 있었고, 1874년에는 교회에서 운영하던 《萬國公報》가 이때가 되면 이미 토착화가 진행되어 신문을 수입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였으며, 이들 신문에서는 독자들의 오락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瀛寰瑣紀》, 《西溟瑣紀》 등과 같

은 부간(副刊)을 발행해온 경험이 누적되어 있어,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였다. 여기에 당시에 여론계의 총아였던 梁啓超가 불을 댕기자, 주위에서 앞을 다투어 호응하고 나섰던 것이다.

세 번째로 해가 갈수록 일본동경에서의 잡지발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에서의 신문잡지의 발행의 증가는 유학생 수의 증가를 의미한다. 1894년 청일전쟁이후, 제국주의의 중국침략의 광풍이 불어닥치자, 愛國救亡(나라를 위기에서 구하자)이 역사의 주선율이 되었다. 일본은 왜 강대해졌는가 하는 문제가 조야를 막론하고 관심과 사고를 불러 일으켰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화단운동과 팔국연합군과의 전쟁 후, 청나라 정부는 지금까지 반대해오던 무술년의 구호들을 받아들여 변법유신을 고취하고 소위 말하던 “新政”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新政”의 중심내용은 신군을 훈련하고, 관제를 개편하며, 신식학당을 운영하고, 동시에 국외로 유학생을 광범위하게 파견하는 것이었다. 유학생들의 파견과 자비유학생들의 유학은 정부의 관리등용과 교육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유학생들의 급격한 감소 또한 당시의 시대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통계표가 위의 상황을 증명해주고 있다.

\*연도별 유학생수의 변화추이표<sup>6)</sup>

년대	1896	1898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9	1912
사람수	13	61	274	608	1,300	2,400	8,000	12000	10000	3,000	1,400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들 유학생들 중 상당수는 일본에서 유학을 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강렬한 애국심을 발휘하여 계몽활동의 일환으로 신문잡지의 발행대열에 참가하였고, 또 각자 출신지역의 명칭을 따서 잡지의 이름을 명명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나갔다. 특히 梁啓超가 일본에서 《清議報》와 《新民叢報》 및 《新小説》 잡지를 발간했

6) 李喜所 著, 《近代留學生與中外文化》(天津: 天津教育出版社, 2003), 142쪽의 표를 요약하여 새로 만든 것임.

던 사실도 이들 유학생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이미 당시까지 상해는 상당히 도시화가 진행되어 인적 자원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었다. 1902년 “소설계혁명”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상해의 소보(小報)는 14종이나 창간되었으며, 그들의 주요한 독자들은 시민계층이었으며, 그들의 신문잡지의 발행 목적도 대단히 복잡하였으나, 이를 통해서 梁啓超의 영향을 여실히 볼 수 있다.

이들 소보나 문예잡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아니하고 잡지의 편집자나 작가로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니, 이미 전문작가로서의 생활을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기본적으로는 梁啓超의 이론에 상당한 공감을 표시하기는 하였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의 작품은 여전히 흥미위주의 작품이 주류를 이루었고, 여가선용의 오락성이 짙은 잡지를 발행하였다.

특히 梁啓超가 1902년 《新小說》이라는 소설전문잡지를 발행하고 〈論小說與群治之關係〉라는 글을 발표하여 “小說界革命”의 구호를 제창하고 나서부터 이제 소설은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문학의 장르(文學的 最上乘)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고, 그를 뒤이어 수많은 소설잡지들이 봇물이 터지듯 파죽지세로 발행되니, 梁啓超의 여론의 흐름을 읽는 천부적인 감각과 중국의 문화적 역량의 방대함을 읽을 수 있다. 황인(黃人)은 《小說林》의 발간사에서 당시의 상황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sup>7)</sup>

옛날에는 소설을 도박처럼 보았고, 심지어는 아편처럼 보기도 하고, 재앙을 가져오는 요물처럼 보기도 하였으며, 광대의 놀이처럼 보기도 하여, 사대부들이 이를 거론하는 것은 체면을 손상하는 것으로 여겨, 四部(\*經史子集을 가리킴)에 오르지도 못하였다. 마음속으로는 몹시 좋아하여도 이를 다른 사람이 보는 곳에서는 읽지 못하였고, 몰래 창작을 하여도 못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오늘날에는 완전히 뒤바뀌어 소설이 나오기만 하면 반드시 국민진화의 공을 주장하고, 하나의 소설을 비평할 때에도 반드시 풍속을 바꾸는 개량의 의도를 크게 선전한다. 사방에서 호응을 하고 이를 배우려는 발걸음이 끊이

7) 李喜所 著, 《近代留學生與中外文化》(天津: 天津教育出版社), 73쪽 재인용.

질 않는다.

이상의 사실에 입각하여 필자는 梁啓超의 소설이론의 발전을 그의 신문·잡지 발행의 발자취를 따라서, 발생기(時務報)시기, 발전기(清議報)·完成期(新民叢報)시기로 나누어서 근대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3. 梁啓超소설이론의 발생기

梁啓超는 구문인출신으로 신사상의 세례를 받은 대표적인 사상가이다. 그는 “國家興亡, 匹夫有責(국가의 흥망은 필부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는 전통적인 사상으로 무장된 강렬한 애국심을 소지한 전통적인 지식인으로 그의 사상의 핵심은 강력한 근대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梁啓超는 1891년 북경에서 열린 會試에 응시했으나 낙방하고, 돌아가는 길에 상해를 들렀는데, 《瀛寰志略》에 실려 있던 상해제조국에서 번역한 각종 서적을 보고서, 처음으로 세계에 여러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하여 강유위를 스승으로 모시고, 康梁變法의 대오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梁啓超는 1892·1894년 등 그 후에도 여러 번 상해를 다녀올 기회를 가졌는데, 그 때마다 상해에서 대량으로 서양사상을 흡수하게 되었고, 마침내는 강학회를 성립하기에 이르렀다.

1895년 5월 2일 강유위가 북경에서 제1차 《公車上書》를 올렸다는 소식을 듣고, 李提摩太<sup>8)</sup>는 곧바로 북경으로 올라가서 지금까지의 막후에서 변법을 고취하던 태도를 바꾸어 직접 변법활동에 참가하였다. 李提摩太는 특히 강유위의 《上皇帝書》라는 글을 찬양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sup>9)</sup>

8) 李提摩太(1845-1919), 영국인출신 선교사. 그의 행적은 熊月之 著, 《西勢東漸與晚清社會》, 588쪽-590쪽 참고. 그는 광학회의 회장을 맡으면서 서양 문화의 소개에 힘썼으며 번역·저서 등 여러 방면에 걸쳐 많은 업적을 남겼다. 특히 강유위·梁啓超 등 유신파인사들과의 교류는 유신변법운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9) 시선원, 오수양 찬, 〈李提摩太與戊戌變法〉, 《復旦學報》(1988.4), 97쪽.

나는 놀랍게도 그가 내가 전에 올렸던 모든 건의를 압축해서 이 문장 속에 담고 있었는데, 우리들의 견해가 이렇게도 똑 같으니 그가 나를 찾아온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우리는 李提摩太의 이 글로부터, 강유위가 계속해서 李提摩太 등 서양사람들의 저서나 역서를 읽고 있었으며, 거기에서 서방과 중국에 관한 지식들을 습득하였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 일이 있는 후부터 李提摩太는 유신파 인사들과 매우 잘 협조를 하였다. 李提摩太는 그가 북경에 있을 때, 임시로 한 사람의 비서가 필요하였는데, 강유위가 그의 가장 출중한 제자인 梁啓超를 그에게 소개해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유신변법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스스로 ‘強學會’에 참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李佳伯·白禮仁 등과 같은 신부들도 가입을 시켰다. 梁啓超는 적극적으로 강학회의 활동에 참여했고, 특히 이 회의 기관지였던 《萬國公報》(그 후 《中外紀聞》으로 개명을 하였으며, 겨우 5개월 동안 발간되다 정간이 되고 말았다.)의 출판에 참여하여 신문·잡지의 출판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강학회가 해산되자 그는 상해로 내려가 《時務報》를 창간하고 주필을 맡았다. 1987년 그는 이 신문에 〈讀西學書法〉이라는 글을 발표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sup>10)</sup>

각국이 근래의 사정을 알려고 한다면, (\*江南)제조국에서 번역한 《西國近事匯編》이 가장 읽을 만하다. 癸未·甲申년간에 서양인들의 교회에서 《萬國公報》를 창간했다. 중국의 시국문제를 개괄적으로 다룬 서적으로는 가장 먼저 나온 것이 林樂知的《東方時局略論》·《中西關係略論》 등이 있고, 최근의 것으로는 李提摩太의《時事新論》·《西譯》·《新政策》 등이 있다. 서양의 역사를 논한 전문역사서적으로는 《萬國史記》《萬國通鑒》《泰西新史攬要》 등이 있는데, 근 백년 동안 구미각국의 유신변법 및 자강의 발자취를 서술하고 있는데, 서양의 역사책 중 가장 볼만한 책이라 하겠다.

필자가 이를 인용한 것은 梁啓超가 갑자기 신문·잡지의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일 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가 서양선교사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집중적인 경험을 한 결과임을 강조하기

10) 위의 책, 99쪽.



위해서이다. 아래에서는 소설이론과 관계된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토론하도록 하겠다. 1897년 3월 3일 자신이 발간하던 《時務報》에 〈變法通議---(三之五)---幼學〉을 발표하였다.<sup>11)</sup>

“變法圖存(법을 바꾸어 생존을 도모한다.)”이라는 목표를 관철하기 위하여 梁啓超는 《時務報》에 〈變法通議〉라는 문장을 발표하였는데, 이 문장은 13개의 소절(小節)로 나누어진 장편의 긴 문장을 43기에 걸쳐서 《時務報》에 발표하였는데, 이 문장은 비교적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이 시기의 유신사상을 천명하였다. 여기에 인용된 부분은 전체 문장의 극히 적은 일부분으로 어린이의 교육을 논하는 가운데 소설에 관하여 언급한 부분이다.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梁啓超는 아직 까지는 조정에

11) 다섯 번째는 說部書(광의의 이야기책)이다. 옛날 사람들은 문자와 언어가 일치했으나, 오늘날에는 문자와 언어가 서로 유리되어 있는데, 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이미 상세하게 이야기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에 모두다 오늘날의 말을 쓴다. 그러나 글을 쓸 때는 모두 옛 문장을 본받으니 부녀자나 농민들이 독서를 어렵게 여기지 않음이 없다. 그러나 《水滸》, 《三國》, 《紅樓》 등의 부류는 독자가 六經보다 오히려 더 많다.(중국에 있는 서양인들도 《三國演義》를 가장 많이 읽는다.) 무릇 소설일가를 《漢志》에 올려놓은 것을 보면 옛날의 사대부들은 소설을 경시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송(宋)나라 때 성현들의 어록(語錄)에도 온통 “恁地(이렇게, 저렇게)”·“這個(이것)”등과 같은 직접 수식은 하지 않지만 약간의 의미를 가진 이런 단어들만 들어 있다. 일본은 伊昌波등 46자모를 창조하여 히라가나와 가타가나를 구별하여 운용하여 그 토속어를 조절하여 한자의 사용을 돕고 있어, 글자를 알고·책을 읽고·신문을 보는 사람이 날로 많아지고 있다. 지금 곧바로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속어를 전용하여 소리와 뜻을 가진 글자로 책을 짓는다면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고, 독자역시 당연히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후의 학자들이 문체에만 신경을 쓰고 실학을 내팽개치며 자신의 체면만을 내세우며 문인행세를 하고, 또 약간 재주가 있는 사람은 재주를 내세워 유희적인 필치로 방종하게 붓을 휘둘러 도적질을 가르치고 음탕한 짓을 가르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문장들을 쏟아내게 되면, 천하의 풍기는 이로 인하여 문란하게 되어 끝 가는 데를 모르게 될 것이니 작은 문체가 아닐 것이다. 오늘날 마땅히 속어를 전용하여 널리 다양한 책을 지어 위로는 성스러운 가르침을 천명하고 아래로는 역사적 사실들을 기술하며 가까이는 국치(國恥)를 폭로하고, 멀리는 인간의 변치 않는 성정에까지 미치게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관리들의 추태·과거제도의 악취·아편의 피해·전족의 악습까지도 모두 폭로함으로써 말세의 풍속을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그 도움과 이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時務報》第十六-十九冊(1897) 陳平原, 夏曉虹 編, 《二十世紀中國小說理論資料》(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9), 12-13쪽(번역 필자).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으며, 현실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매우 균형 잡힌 시각으로 매우 이성적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는 말과 글이 일치될 이루는 문언일치를 강조하는 가운데 그 한 예로서 소설을 들었을 뿐이며, 소설이 쉽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워 어린아이나 부녀자들로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많은 독자를 확보할 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 보아야 할 사람은 傅蘭雅<sup>12)</sup> 초기 선교사들이 활동에서부터 “京師同文館”활동·墨海書院의 “廣學會”활동 등 선교사들의 번역활동과 계몽활동에 줄곧 참여해온 傅蘭雅가 1985년 6월 《萬國公報》 제77책에 “求著時新小說(새 시대의 소설을 공모함)”이라는 공고를 내어 소설을 공모한 사건은 소설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매우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다.<sup>13)</sup>

이 공모문은 중국근대소설사상 처음으로 소설로서 구악을 일소하고,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추구하며, 민중들을 감화시키는 도구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것으로 “소설계혁명”운동의 전주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2) 傅蘭雅(1839-1928) 영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서거한 선교사. 중국에서 광학회활동과 학교설립 등 중국의 서학수입에 번역·저서 등으로 많은 업적을 남김. 그의 행적에 관하여는 熊月之 著, 《西勢東漸與晚清社會》(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4), 568-585쪽.

13) 나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풍속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소설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광범위하고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에 유포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곧바로 가가호호에 전달되어 어렵지 않게 낯은 습관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중국에 오래토록 전해져 내려온 폐단 가운데 그 폐해가 가장 큰 것이 대체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아편이 그 하나이며, 팔고문이 그 하나이며, 전족이 또 그 하나이다. 만약 방법을 강구하여 이를 바로잡지 아니하면, 부강의 징조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중국이 흥성하기를 마라는 중국의 뜻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 이 세 가지 폐해를 분명히 밝히고 이를 근절할 묘안을 찾아내어, 입안을 하고 연설을 하며, 이를 책으로 펴내 사람들을 감동을 시켜 이를 일소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문장은 반드시 간단명료하게 해야 하며, 어휘는 재미있고도 우아하게 하여, 비록 부녀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설의)줄거리는 현재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절대로 구태의연한 것이거나 희귀하고 괴상한 것을 취하여 사람을 놀라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어서는 안 된다. 陳伯海, 袁進 主編, 《上海近代文學史》(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3), 35쪽(번역 필자).

이러한 내용은 선교사들의 문학관념이 중국의 전통적인 문학관념과 일치하는 듯한 묘한 착각을 일으킬만한 것이었다. 선교사들은 본래부터 종교적 신념이 투철하고 교훈적이기 때문에 문학관 역시 공리주의의 흐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선교사들의 문학관념을 받아들여 “소설계혁명”이론에서 공개적으로 “小説爲文學之最上乘(소설이 문학의 최고의 장르이다.)”이라고 주장을 하여도 중국의 사대부들은 아주 쉽게 이를 받아들였으며, 어떤 누구도 반대이론을 내놓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그들이 견지하고 있었던 정통문학관념에 불과하였으나, 선교사들이 이러한 주장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서양의 근대문학관념인 것처럼 오해와 오독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였던 것이다.

#### 4. 梁啓超 소설이론의 발전기

무술변법운동이 백일천하로 막을 내리고 실패로 끝나자, 1898년 9월 22일 譚嗣同等 무술6군자는 사형에 처해지고 梁啓超는 일본영사의 도움을 받아 일본으로 탈출을 기도하였다. 무술정변후, 유신파들은 국내의 모든 여론진지를 상실하고 말았기 때문에 梁啓超는 다시 한 번 새로운 신문을 발간하여 자신의 특기인 문장력을 발휘하여, 여론이라는 무기의 힘을 빌어 慈禧太后를 우두머리로 하는 완고파들을 공격하고, 신사상을 선전하여 민중들의 각성을 촉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드디어 1898년 12월 23일, 일본 橫濱에서 《清議報》를 창간하고 창간호에 〈譯印政治小説序〉를 발표하였다.<sup>14)</sup>

이 글속에서 梁啓超가 소설다운 소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치소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중국의 전통소설에 대하여 “중국의 소설은 비록 구류(九流: 九流十家 중의 맨 마지막 열 번 재가 소설가였다.)에 열거되기는 하였지만, 《虞初》 이래로 뛰어난 작품은 드물어, 영웅하면

14) 정치소설을 번역 출판하는 서문(譯印政治小説序)이라는 문장은 1898년 12월 23일, 《清議報》제1기에 발표된 문장으로, 일본으로 망명한 지 불과 3개월이 막 지났을 때였다. 일본에서는 1885년을 전후한 시기에 번역소설과 정치소설이 상당히 유행하였다고 한다. 박윤철 저, 《일본근대문학연구》, 25-29쪽 참조.

《水滸》를 들고 남면하면 《紅樓》를 들고 있지만, 그들을 종합하여 크게 분류하면 도둑질을 가리키고 음탕함을 가르치는 것을 벗어날 수 없다. 낡은 틀이 답습되고, 그대로 대물림하므로, 호방한 선비들은 일일이 말할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한다.”고 매우 가혹하게 평가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할 것은 그의 스승인 康有爲의 말을 인용하여 “겨우 글자를 익힌 정도의 사람은 경전을 읽지 않는 경우는 있어도 소설을 읽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육경이 가르칠 수 없는 것을 소설로써 가르치고, 정사가 수록할 수 없는 것을 소설로서 이를 수록하고, 어록에서 가르칠 수 없는 것을 마땅히 소설에 넣어서 가르쳐야 한다. 법률로써 다스릴 수 없는 것을 마땅히 소설로서 다스려야 한다. ……오늘날 중국에는 글자를 아는 사람도 적고, 문학에 조예가 깊은 사람은 더욱 적다.” 소설학이 중국에서는 아마도, “七略을 늘여서 八略으로 하고, 四部(經史子集)를 늘려서 五部(小說部를 하나 더 늘리자는 의미)로 해야 한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고 하여 소설의 사회적 역할만은 매우 높이 평가하였다.<sup>15)</sup>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당대의 최고의 석학으로 자처하던 강유위와 梁啓超에 의하여 소설과 六經(유가경전)이 나란히 병칭되고 오히려 육경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어짐으로서, 지금까지 문학의 주변부에만 머물면서, 문학이라는 대아지당(大雅之堂)에 오르지 못했던 소설의 지위가 문학지최상승(文學之最上乘)으로 일거에 격상되는 극적인 변화를 두 눈을 똑바로 뜬 채 지켜보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소설은 독립된 문학장르로서의 소설이 아니라 교육의 부용으로서 정치의 수단으로서의 소설일 뿐이다. 그는 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소설의 예를 유럽에서 구했는데, “옛날 유럽각국이 변혁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 지도자들과 석학들이나 뜻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경험한 사실들이나 가슴 속에 품은 뜻과 정치적 의견 등을 소설로서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마친 후에 틈이 나면 손에 들고서 읽었는데, 아래로는 군인·상인·농민·공인·마부·부녀·학동들까지도 손에 들고 읽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때때로 책이 한 권씩

15) 강유위는 일찍이 1897년 이전에 〈聞菽園居士欲爲政變說部詩以速之〉라는 글을 썼으나, 1902년 2월1일 《清議報》에 정식으로 발표됨.

출판될 때마다, 전국의 의견(여론)이 이로 인해 바뀌기도 하였다. 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이탈리아·일본 등 각국의 정치가 날로 진보하고 있는 것은 정치소설의 공이 가장 크다. 영국의 어떤 명사는 ‘소설은 국민의 혼이다.’고 말했다.”고 하였다.

그는 임공(任公)이란 이름으로 1899년에 《清議報》에 발표한 〈飲氷室自由書〉라는 글에서 “일본의 유신운동에 큰 공을 세운 것 중의 하나는 소설이다. 명치 15·6년에 민권자유와 합성이 온 나라 안에 가득 차다. 서양의 소설가운데, 프랑스나 로마의 혁명사업에 관해 쓴 것들을 차례로 번역을 해서, 《自由》라고 제목을 붙이거나 《自由之燈》이라고 이름을 붙여 신문에 등재했다. 이때부터 서양의 소설을 번역한 것이 날로 늘어나게 되었다.”<sup>16)</sup>고 말하고 당시에 일본에 유행하던 번역소설과 정치소설을 나열한 뒤, 그 가운데 가장 성공한 작품으로 《經國美談》과 《佳人奇遇》 두 권을 들고 있는데, 그 후 〈佳人奇遇〉는 《清議報》에 연재를 하다 단행본으로 발행하였다.<sup>17)</sup>

여기에서 반드시 거론하여야 할 것은 梁啓超는 이미 번역소설·정치소설로서 정치를 대신하기로 작정을 하였으며, 따라서 그가 내린 소설의 개념은 이미 소설의 범주를 넘어선 계몽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은 모두 소설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 같다. 그의 이러한 소설에 대한 개념은 한편으로는 중국의 전통소설의 개념의 모호성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소설의 개념에 대한 오해는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달아 《新小說》의 시대로 넘어간다.

## 5. 梁啓超 소설이론의 완성기

1902년 11월 14일, 梁啓超는 일본에서 《新小說》잡지를 창간하고 창간호에 그 유명한 〈論小說與群治之關係〉를 발표하였는데, 이 문장은 당시에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키어 “小說界革命”운동의 도화선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역사적인 문장은 소설이 안고 있던 문제를 일거에 문

16) 陳平原, 夏曉虹編, 《二十世紀中國小說理論資料》(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9), 23쪽(번역 필자).

17) 위의 책, 22쪽.

학 전체를 범주로 하는 토론의 장으로 끌어 올려 관심과 토론을 이끌어냄으로서, 전통적으로 소설이 대아지당에 오르지 못하던 주변부의 위치에서 “文學之最上乘”이라는 중심부로 격상시켰다. 이 특수한 공로로 인하여, 梁啓超는 중국근대소설이론의 걸출한 대표적 인물이 되었다.

〈論小說與群治之關係〉라는 이 문장은 대략 아래와 같은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 (1) 소설과 사회의 관계-선언식 제기, (2) 소설의 예술적 특징-두 가지 경계 두가지 방법, (3) 소설의 특수 효능-“熏”·“浸”·“刺”·“提”의 네 가지 힘(4고전소설에 대한 평가), (4) 소설과 사회의 관계-선언적 제기.

〈小說與群治之關係〉라는 이 문장은 《新小說》잡지의 발간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小說界革命”의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다. 梁啓超는 이 문장에서 “小說界革命”이라는 구호를 처음으로 제창했다. 梁啓超는 문장의 끝머리에서 “따라서 오늘날 정치를 개량하려면, 반드시 소설을 새롭게 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며, 국민을 새롭게 하려해도 반드시 소설을 새롭게 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 감정이 흘러넘치는 선동적인 구호는 곧장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반향을 불러 일으켜, “小說界革命”의 깃발을 꽂았다. 문장은 첫머리부터 웅장하고 절박한 어조로 단도직입적으로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sup>18)</sup>

한나라의 국민을 새롭게 하려면 먼저 한 나라의 소설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따라서 도덕을 새롭게 하려면 반드시 소설을 새롭게 해야 하고, 종교를 새롭게 하려면, 반드시 소설을 새롭게 해야 하고, 정치를 새롭게 하려해도 반드시 소설부터 새롭게 해야 한다. 풍속을 새롭게 하려 해도, 반드시 소설부터 새롭게 해야 한다. 학예를 새롭게 하려 해도, 반드시 소설부터 새롭게 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인격을 새롭게 하는 일마저도 소설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소설은 불가사의한 힘이 있어 인도(人道)를 지배하기 때문이다.(欲新一國之民,不可以不先新一國之小說. 故欲新道德,必新小說, 欲新宗教, 必新小說, 欲新政治, 必新小說, 欲新風俗, 必新小說, 欲新學藝, 必新小說, 欲新人心·人格, 必新小說, 何以故? 小說有不可思議之力, 支配人道故.)

18) 陳平原, 夏曉虹編, 《二十世紀中國小說理論資料》(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9), 33쪽(번역 필자).

이 선언문은 대단히 짧아서 69자에 불과하나, 그 가운데 “新”자가 15번, “小說”이라는 단어가 일곱 번이나 들어갔다. 그가 열거한 “道德”·“宗教”·“政治”·“風俗”·“學藝”·“人心”·“人格” 등은 “新民”이 갖추어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소질이다. “新”은 술어이고, “民”과 “小說”은 목적어이다. 술어인 “新”이 목적어 “民”과 “小說”을 서로 연결하고 있다. “新民”과 “新小說”은 관계가 대단히 긴밀하여, “新小說”이 “新民”의 필요조건이 되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民”은 일반민중 즉 국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객관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小說”은 일종의 문학형식으로 의식형태의 범주에 속한다. 이 두 가지 사이에 서로 결정적인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전문적인 토론이 더 필요하지만, 그러나 梁啓超는 조금의 의심의 여지도 없이 “小說”이 “民(국민)”을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나라의 국민을 새롭게 하려면 먼저 소설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였던 것이다. 梁啓超의 이 결론은 만청소설의 발전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소설 이론은 물론이고 창작과 번역도 그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가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다. 첫째, 梁啓超가 받은 불학의 영향이다. 둘째, 그가 처한 특수한 처지와 당시의 시대상황이 그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근대불학혁명이 梁啓超에게 미친 영향은 매우 커서, 이 문장도 전편에 걸쳐 불교적 색채가 농후하다. 특히 그가 주장하는 四種力說은 직접적으로 불학의 유식론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그밖에도 그는 이 문장을 발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佛學與群治之關係〉<sup>19)</sup>라는 글을 발표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梁啓超의 사상이 불학 특히 唯識宗의 主觀唯心論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小說”의 “民(국민)”에 대한 결정작용을 주장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개인의 처지와 당시의 시대상황의 영향에 관해서 논하면, 梁啓超는 중국의 민족적 위기가 날로 엄중해져 가는 시대에 개량사업과 구국의 묘책을 강구하던 한 사람의 망명정치인으로서, 일반국민들의 애국열정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불가사의한 힘”을 지닌 소설

19) 이 글은 《新民叢報》第二十三號(1902년 12월 30일)에 발표되었음.

에 큰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으며, 소설이 정치를 개량하고 국민을 계몽해 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결합하여 “한나라의 국민을 새롭게 하려면 먼저 소설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던 것이다. 梁啓超는 이 결론에 근거하여, 한 편으로는 소설의 사회교화효능을 무한대로 과장하여, 소설의 지위를 다시는 더 올라갈 수가 없을 때까지 끌어올렸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소설의 영향범위를 미치지 않는 데가 없을 정도로 넓혀, 도덕·종교·정치·풍속·학예·인심·인격 등까지 모두 그 영향력의 범위 안에 포함시켜버렸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자문자답하여, “왜 그러냐 하면? 소설은 불가사의한 힘이 있어, 人道(인생)를 지배하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梁啓超는 소설과 人道(인생)와의 관계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여겼는데,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여 “소설은 불가사의한 힘이 있어 인생을 지배하기 때문이다.”는 것이었다. 그는 “熏”·“浸”·“刺”·“提”의 네 가지의 힘을 설명하면서, “소설이 인생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이 네 가지의 힘이 있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梁啓超는 시종일관 한 번도 소설을 독립된 학문분야로 본적이 없으며, 언제나 도(道)를 신는 도구로 여겼으며, 정치를 위해 복무하는 수단으로 여겼던 것이다. 사종력설(四種力說)은 이렇게 唯識宗이론에서 나온 그의 공리주의 문학관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소설과 사회의 관계를 도구와 제품의 관계로 인식했다. 그러나 도구가 나쁘면 제품의 질은 반드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거꾸로 도구가 개량되기만 하면 제품의 질이 곧장 좋아지게 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도구의 좋고 나쁨은 사실 제품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필요조건일 따름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梁啓超는 필요조건을 충분조건으로 오해를 함으로서, 너무나 쉽게 단순화나 절대화의 착오를 범함으로서, 소설의 지위를 “文學之最上乘”으로 끌어올리고, 일방적으로 소설의 사회교화효능(功能)을 과장했던 것이다. 논리상 구멍이 송송 뚫린 이런 이론에 근거하여 그는 소설과 사회의 관계를 해석했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펴기도 했다.<sup>20)</sup>

소설과 사람들과의 관계는 공기와 곡식들의 관계와 같아서, 피하려

20) 위의 책, 35쪽(번역 필자).



해도 피할 수가 없고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어, 날마다 호흡하고 먹고 있는 것이다.

식물과 공기의 관계와 사람과 군중의 관계가 논리적으로 일치하는 것일까? 이는 분명 논리상 비약이 심하기는 하지만 의식(소설)의 결정작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억지로 양자가 일치한다는 관계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소설의 “群(사회)”에 대한 절대적 지배적 지위를 강화하여 마치 소설과 인간의 관계가 공기와 식물과의 관계가 같은 관계로 오도한다. 이렇게 해서 그는 소설지상의 신화를 억지로 만들어내었던 것이다.

## (2) 소설의 예술적 특징-두 가지 경계 두 가지 방법

그는 위에서 언급한 〈小說與群治之關係〉라는 글에서 소설의 예술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sup>21)</sup>

내가 곰곰이 생각하고 연구한 결과, 아마도 두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다. 무릇 사람의 본성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이 보잘 것 없는 육체로 능히 접촉할 수 있는 것들이란 어리석고 짧아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항상 직접 경험하는 것 외에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외지신(身外之身: 몸 밖의 몸)이요, 세계외지세계(世界外之世界: 세계 밖의 세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민감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둔감한 사람들도 모두 가지고 있다. 사람들의 근기(根器)를 날로 예민하게 하기도 하고 둔감하게 만들기도 하는 힘은 소설만한 것이 없다. 소설은 사람을 경험하지 못한 세계로 데리고 다니면서, 그 평소에 경험하던 세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준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원인이다. 인간의 감정은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자신이 경험한 경지에 대해서 때때로 행하면서도 알지를 못하고 습관적으로 행할 뿐 그 까닭을 모르는 때가 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원망스럽거나 화가 날 때, 그립거나 놀랐을 때, 걱정스럽거나 창피할 때, 그것이 그러한 줄은 알 것 같으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알지 못

21) 이 글은 《新民叢報》第二十三號(1902년 12월 30일)에 발표되었음.

한다. 그 실상을 묘사해 내고 싶어도, 마음이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입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없고, 글로도 나타낼 수가 없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어 철저하게 표현해 낸다면, 그때에야 비로소 책상을 치며 “훌륭하다! 훌륭하다! 그래 그래 바로 그거야!”하고 소리치게 될 것이니, 소위 말하는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 저 마음에 와 닿습니다.”고 말한 경지가 바로 그것이다. 사람을 깊이 감동을 시키는 것이 이 보다 더한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그 두 번째 원인이다. 이 두 가지는 바로 문장의 진수이며, 필설(筆舌)의 능사(能事: 제일 잘 할 수 있는 일)이다. 만약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그 것이 어떤 문장이든지 막론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문장의 묘를 다하고 기술을 발휘하기로는 소설만한 것이 없다. 따라서 소설을 문학의 최상승(最上乘: 최고봉)이라고 하는 것이다. 앞의 설을 따르게 되면, 이상파들의 소설을 숭상하게 될 것이고, 뒤의 설을 따르게 되면 사실파들의 소설을 숭상하게 될 것이다. 소설의 종류가 비록 많기는 하지만 크게 분류를 하면 이 두 가지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상의 문장에서 보면, 첫째 梁啓超의 문장은 비록 전문 이론적 용어들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상당히 근대문학의 이론적 색채가 농후하다. 그는 소설이 “現境界”를 묘사하고 “他境界”를 창조하는 공능(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집중적으로 “他境界”를 창조하는 소설을 “理想派小說”이라고 하고, 인간들이 생각하고 지나온 발자취를 집중적으로 묘사하는 소설이 바로 “寫實主義小說”인데, “소설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이 두 과의 범주를 벗어나는 소설은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서방의 낭만주의와 사실주의 이론을 비교적 빠른 시기에 소개한 것으로, 당시에 비교적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이론을 작가적 측면에서 보면, 바로 “兩種境界說”이 되고, 독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間接經驗說(제2인생설)”과 “共鳴說”이 된다. 독자가 이렇게 광활한 세계현상을 모두 접촉하거나 체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설을 통하여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이 “間接經驗說”의 핵심내용이다. “遊于他境界”설은 “間接經驗說”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작가는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한 현상까지도 먼저 이를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묘사해 놓으면, 독자들은 작자들이 묘사해 놓은 현상들을 보고서 비로소 “同

感”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共鳴說”이다.

둘째, 梁啓超의 이러한 소설이론은 형식적인 면에서, 이미 전통적인 평점(評點)이나 서발(序跋)과 같은 비평에서 벗어나, 근대적인 이론문장에 상당히 접근한 편이다. 전통적인 평점(評點)이나 서발(序跋) 구체적인 작품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한 작품의 문제에만 국한된 이론을 전개하기 때문에, 직관적 비평이나 소개에 얽매어 있었다. 梁啓超의 이 문장은 구체적인 작품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된 문장으로서, 신문이나 잡지라는 전혀 다른 매체에 발표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미 한 시대나 한 장르에 걸친 이론성 비평이나 이론 전개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비록 최초의 문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문장이 가지는 근대소설이론 중의 비중으로 보아 그의 공헌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3) 소설의 특수기능

명청시대의 金聖嘆·李卓吾·馮夢龍 등과 같은 소설이론가들은 모두가 다 소설의 사회교화기능을 중시하여, 경전이나 역사 등과 함께 같은 반열에 놓고 토론을 함으로서 소설의 지위를 끌어올리려고 시도하였다. 근대에 와서도 蠡勺居士·康有爲·嚴復·夏曾佑·菽園居士·裘廷梁과 梁啓超 자신마저도 경전이나 역사와 서로 비교를 하거나 또는 서양의 소설을 거론하는 방법을 통해서 소설의 지위를 끌어올리고 소설의 사회교화기능을 강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문장을 발표할 때에 이르러서는 梁啓超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소설의 사회교화기능을 극단적으로 중시하기는 하였지만, 하지만 그 방법상에 있어, (유가의)경전이나 역사와 같은 반열에 놓고 비교를 한다든지, 서양소설을 거론하는 방법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중국고전소설의 분석을 통하여 “한 나라의 국민을 새롭게 하려면 반드시 한 나라의 소설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소설은 불가사의한 힘이 있어 인도(人道:인생)를 재배하기 때문이다.”는 소설의 특수기능을 도출해 내었다. 지금까지는 어떤 누구도 이와 같이 대담한 견해를 제시한 사람이 없었는데, 도대체 그가 이야기하는 불가사의한 힘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梁啓超

는 고전소설 특유의 감염력에서 출발하여 佛學 중의 《楞伽經》·《華嚴經》의 술어 및 선종의 수도법 중의 비유법까지 빌려서 그것을 귀납적으로 결론을 내려, “熏”·“浸”·“刺”·“提”의 네 가지 힘이라고 하였다. 그의 이런 논조는 비록 논조가 엄밀하지 못하고, 이론전개에 적지 않은 모순이 존재하지만, 상당히 독창적인 면이 있다. 그의 이론의 출발점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설이 형상적으로 이상을 묘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능히 구체적이고 생동적이며 형상적인 예술세계를 창조해서, 사람을 감화시킨다는 것이다.

#### (4) 고전소설에 대한 평가

梁啓超의 전기작가들은 보편적으로 “선변(嬗變; 변천)”을 그의 주요 사상적 특징 중의 하나로 인정한다. 그의 중국고전문학에 대한 평가는 줄곧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는 것이 梁啓超 연구자들의 일종의 공론이 되어 있다. 확실히 어떤 때는 무리하다 할 만큼 가혹한 태도를 보일 때도 있으나, 그러나 자세히 분석해 보면 그의 고전소설에 대한 평가도 그의 사상의 변화에 따라 점점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02년, 梁啓超는 일본에서 명치유신의 성공적인 경험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면서 적지 않은 일본의 정계인사와 서양의 인사들을 알게 되었다. 특히 일본어로 번역된 서적을 통하여 각종각양이 서방의 신상을 접촉하게 되었다. 그의 사상은 날로 성숙되어 갔으며, 상대적으로 비교적 완전한 이론적 틀을 가지고 각종의 문제를 사고하게 되었다.

이때에 이르러 그의 고전소설을 대하는 태도도 새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미 단순화·절대화 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장단점을 자세히 분석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論小說與群治之關係〉라는 문장에 이르러서는, “兩個境界說”·“兩種方法”에서 “四種力說”에 이르기까지 소설의 구석구석까지 다 거론하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 독창적이지 않은 것이 없다. 梁啓超가 고전소설을 대하는 태도도, 까닭도 없이 혹평을 하는 단계를 넘어서, 사실에 입각하여 포상할 것은 포상을 하고 폄하할 것은 폄하를 하는 과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譯印政治

小説序〉에서 보여주었던 일괄적으로 부정하던 태도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梁啓超는 문장 가운데에서 《紅樓夢》·《水滸傳》·《西廂記》·《野叟曝言》·《花月痕》 등 다섯 부의 소설을 예로 들어 “熏”·“浸”·“刺”·“提”의 네 가지 힘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浸”의 효능을 설명할 때, 《紅樓夢》·《水滸傳》을 예로 들어서 이를 증명하고, 이들을 칭찬하여 “(이들의) 浸력이 그렇게 만든 것이니, 이러한 작품들은 모두 훌륭한 작품이다.”고 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譯印政治小説序〉에서 “중국의 소설은 훌륭한 작품(佳作)이 드물다.”고 한 것과는 확연하게 다른 태도다.

그러나 梁啓超는 고전소설이 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한 평가는 시종일관 그렇게 높지 않다. 그것은 그의 문학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데, 그는 소설과 군치(정치) 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梁啓超는 “소설은 불가사의한 힘이 있어서, 人道(인생)를 지배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우리 중국의 정치부패의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만하다.”고 하였다. 그는 글 속에서 중국고전소설이 만들어낸 불량한 영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평했다.<sup>22)</sup>

이 이치를 알면, 우리 중국정치의 부패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중국의 장원재상(壯元宰相)의 사상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소설이다. 우리 중국인들의 강호도적(江湖盜賊)의 사상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소설이다. 우리 중국인들의 요무호귀(妖巫狐鬼)사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소설이다. … … (중략)… …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강호의 호걸들이 없는 곳이 없는데, 날마다 도원결의를 맺고, 곳곳에서 양산의 혈맹을 맺는데, 소위 “큰 사발에 술을 마시고, 큰 고기덩어리를 먹으며, 재산은 똑 같이 나누고, 같은 옷을 입는다.”고 하는 사상이 하층민사회에 팽배해져, 마침내 가로회(哥老會)·대도회(大刀會) 등과 같은 단체가 결성되고, 마침내는 의화권(義化拳)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수도와 나라를 함정에 빠뜨리고 외세를 불러들이고 말았으니, 이는 모두가 다 소설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오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필연성과 필요성도 존

22) 위의 책, 36쪽 인용(번역 필자).

재한다. 梁啓超는 의식의 형태에 속하는 소설이 개관적으로 존재하는 사회를 결정할 수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한편으로는 소설의 사회교화공능을 무한대로 과장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정치부패의 모든 근본적인 원인을 소설에 그 책임을 뒤집어 쉬웠다. 필연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 무술변법이 실패한 후, 직접 현실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론선전으로 현실정치참여를 대신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소설을 여론선전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보았다. 그는 “소설계혁명”을 힘껏 외쳤는데, “혁명”이란 바로 구질서를 파괴하고 신질서를 새우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새로운 소설”과 “낡은 소설”이라는 두 소설 간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얼음과 숯불과의 관계처럼 서로 융화할 수 없는 “新”과 “舊”의 사이에 이미 건너뛸 수 없을 만큼 큰 도랑을 파놓았던 것이다. 새로운 질서를 건립하려면 반드시 낡은 질서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혁명의 객관적 요구이다. 그렇다면, 그가 고전소설을 부정하는 것은 부정을 위한 부정으로, 소설의 신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가 고전소설의 불량한 영향을 폭로한 것도 폭로를 위한 폭로로 소설의 신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고전소설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에는 매우 큰 책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는데, “新小說”의 합법성을 수립하기 위하여, “舊小說”의 존재의 이유를 반드시 부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小說界革命”을 제창한 초기에는 이런 책략적인 태도는 확실히 돋보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梁啓超가 고전소설에 대해 취한 태도의 이면에는 상당한 필연성과 필요성이 있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6. 결론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현대문예이론의 기준으로 梁啓超의 소설이론을 평가하면, 梁啓超의 소설에 대한 인식은 수준이 높다고 할 수는 없다. 매우 분명한 논리적 허점이 있어, 수많은 이론상의 오해와 논리상의 허점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객관적 현실을 감안하면 그의 이론이 시

대의 최선봉에 선 것임은 분명하다. 심지어는 문장 속의 어떤 오해와 과장에는 말할 수 없는 역사적 소명의식이 들어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梁啓超가 제창한 소설이론은 중국근대문학의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했다. 첫째, 소설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그의 이론은 그때까지 볼 수 없었던 이론의 최고 수준이었다. 둘째, 줄곧 그 지위가 낮았던 중국의 소설을 “文學之最上乘”의 지위로까지 끌어 올렸다. 셋째, 그는 형식면에서, 신문이나 잡지에 이론을 발표함으로써, 중국의 문예비평방법인 評點이나 序跋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근대이론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넷째, 그 결과 소설이론이 구체적 작품으로부터 분리되어 문학의 일반론이나 서사방법 등 이론성 문장을 자유롭게 전개할 수 있는 방법론면에서 근대소설이론으로 발전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소설계혁명”의 실제효과를 보면, 梁啓超이론의 부정적 효과도 너무나 분명하여 간과할 수는 없다. 첫째, 소설과 사회의 관계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여, 소설이 그 본래의 독립적 품격을 상실하고 정치선전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둘째, 소설과 사회라는 외부관계만을 일방적으로 중시하여 서사방법·인물의 전형화이론·사건의 형상화이론 등과 같은 소설내부의 예술문제 등을 홀시하여 중국의 고전소설이 근대소설로 정상적인 발전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청말(만청)에 이렇게 많은 창작이 쏟아져 나와 소설의 전성기를 구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소설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 문학연구자들의 공통된 평가이다. 이러한 양과 질의 불균형 현상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갑작스런 양의 증대현상이 질적 향상을 담보할 수는 없었으며, 이런 양적 증가의 원인이 비문학적 요소인 사회변혁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회변혁운동의 중심에 梁啓超와 그의 소설이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양계초는 자신이 주장한 “소설계혁명”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그의 유일한 소설창작인 《新中國未來記》를 창작하였으나, 겨우 5회를 쓰고 나서 스스로 중단하고 말았다.<sup>23)</sup> 그의 이러한 실패는 서언에서 제기했던 문제에 명

23) “이 글을 오늘 2·3회를 써놓고 다시 한 번 읽어보니 이야기책인 것 같으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패사(稗史:야사)인 것 같으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논

확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 “실천만이 이론을 검증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 [참고문헌]

- 陳大康 著, 《中國近代小說編年》(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2)  
郭衛東 主編, 《近代外國在華文化機構綜錄》(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3)  
熊月之 著, 《西學東漸與晚清社會》(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4)  
隗瀛燾主編, 《梁天宏著 梁啓超傳》(成都: 四川人民出版社, 1995)  
李喜所·元青 著, 《梁啓超傳》(北京: 人民出版社, 1994)  
吉少甫 著, 《中國出版簡史》(上海: 學林出版社, 1991)  
陳玉剛 主編, 《中國翻譯文學史稿》(北京: 中國對外翻譯出版公司)  
袁進 著, 《中國小說的近代變革》(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2)  
袁進 著, 《中國文學觀念的近代變革》(上海: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96)  
陳伯海、袁進 主編, 《上海近代文學史》(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3)  
顧長聲 著, 《傳教士與近代中國》(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1)  
袁進 著, 《中國小說的近代變革》(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2)  
陳平原·夏曉虹編, 《二十世紀中國小說理論資料》(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9)  
陳平原 著, 《二十世紀中國小說史第一卷(1907-1916年)》(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9)  
陳平原 著, 《小說史-理論與實踐》(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3)

---

저인 것 같으나 아닌 것 같기도 하여 도대체 어떤 장르에 귀속시켜야 할 지 알 수가 없어 스스로 생각을 해도 스스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비록 정견을 발표하는 문장이라 하지만 국가의 정책을 토론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 체제는 일반적인 이야기책과는 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글 속에 법률·규약·연설·논문 등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이나, 독자들의 바램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임을 잘 아나, 신문에 실린 다른 재미있는 문장으로서 그것을 보상하고자 한다. 정치담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으로 만회하기를 바란다.” 이 글은 《新中國未來記》緒言임. 陳平原, 夏曉虹編, 《二十世紀中國小說理論資料》(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9), 38쪽(번역 필자).



- 李喜所 著,《近代留學生與中外文化》(天津:天津教育出版社,2006)
- 佐伯有一·野村浩一外 著,吳相勳 譯,《中國現代史》(서울:한길사,1980)
- 李歐梵 著,《上海摩登》(北京:北京大學出版社,2001)
- 朴允哲 著,《日本近代文學研究》(大邱:螢雪出版社,2002)
- 나카무라미쓰오 著/ 고재석·김환기 옮김,《일본메이지문학사》(서울:동국대학교출판부)
- 金泰寬 撰,《晚清小說理論研究》(上海:華東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1997)
- 李寶暻 撰,《20世紀初中國의 小說理論 再編 研究》(서울: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9)
- 全炯俊,〈‘二十世紀中國文學論’批判〉,《中國現代文學》11(1996)
- 劉世鐘,〈5·4前後期 啓蒙主義와 近代改革論〉,《中國現代文學》(1996)
- 金泰寬,〈출판·인쇄매체의 발달이 晚圃소설의 발전에 미친 영향〉,《문화컨텐츠연구》(2004)
- 金泰寬,〈梁啓超의 “소설계혁명”이론의 전개과정(1)〉,《東義論集》(2003)
- 金泰寬,〈梁啓超의 “소설계혁명”이론의 전개과정(2)〉,《東義論集》(2004)

### 〈中文提要〉

梁啓超是晚清“小說界革命”中至關重要的人物。他在小說理論·創作和翻譯等三大領域都發揮過巨大作用,產生了深遠的影響。可以說,如果沒有梁啓超的一系列小說活動,那麼“小說界革命”的面貌恐怕是另外一副模樣。

梁啓超小說活動的時間雖然不長,理論·創作和翻譯的數量也不多,可是其影響之廣與貢獻之多,同時代的小說理論家根本不能與之相比。梁啓超的影響力的形成當然有其特殊的時代原因,但最主要的是他掌握了報刊,並且形成了一套適應於報刊的文風。近代媒體的興起造就了梁啓超式的“媒體英雄”。我將他的小說活動按時間的順序分三期來討論。他的小說理論的發生·發展·完成,與他的辦報經歷緊密相關。

梁啓超提出的小說理論對中國近代文學的發展作出了特定的貢獻:其一,小說與社會的關係問題,提升到了前所未有的理論高度。其二,一向地位低微的中國小說提高到“文學之最上乘”的地位。其三,他的理論文章都發表在

報刊上, 打破傳統小說批評的舊形式(評點和序跋)而打開獨立成章的理論文章的新時代(近代文藝理論). 其四, 離開具體作品而自由發揮一般的文藝理論, 結果提高文藝理論的質的水平. 就“小說界革命”的實際效果來看, 梁啓超理論的負面影響也很明顯; 其一, 片面強調小說與社會政治關係, 使小說失腳獨立的品格而反成爲政治宣傳的工具. 其二, 片面重視小說與社會的外部關係而忽視小說內部的藝術問題, 例如敘事方法·典型化理論·形象化理論·文體等等, 結果防碍了小說藝術的正常發展.

**關鍵詞:** 近代性, 梁啓超, 小說理論, 小說界革命, 輿論, 小說的社會教化功能, 小說的社會地位

투 고 일 : 2009.2.25

심 사 일 : 2009.3.10-3.30

게재확정일 : 2009.4.25



## 《海上花列傳》과 근대성\*

김영옥\*\*

### 〈목 차〉

1. 서론
2. 근대성
3. 남성-嫖客
  - 3.1. 아버지 不在-兄弟愛로의 대체
  - 3.2. 전통 교육의 몰락
4. 여성-妓女
  - 4.1. 소비의 주체와 대상으로의 회로
  - 4.2. 욕망의 좌절-악몽과 죽음
5. 결론

### 1. 서론

〈晚清이 없었더라면 5·4가 있었겠는가?〉는 그동안 홀시되어 왔던 晚清시기<sup>1)</sup>의 소설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글이다.<sup>2)</sup> 이 짧은 기간 동안 소설은 신문, 游戲小報, 小說雜誌 그리고 서적을 통해 출간되었는데, 특히 당시 구독 인구의 증가<sup>3)</sup>와 함께 이 시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23-A00011)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강사(kyngyu@hanmail.net)

1) 소위 晚清은 태평천국(1851년-1864년)전후에서 宣統遜位 60년(1908년-1912)까지를 가리킨다. 王德威著, 宋偉杰 譯, 《被壓抑的現代性-晚清小說新論》(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5), 1-2쪽 참조.

2) 王德威는 그의 글 〈導論: 沒有晚清, 何來“五四”?〉에서 방대한 양의 소설 출판과 번역문학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晚清시기의 문학을 홀시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고전 비판, 미래 지향을 제창한 "5·4"운동을 "현대"문학의 시작으로 보는 좁은 의미의 현대성에 대한 이해를 비판하고 있다. 이제는 "5·4"이전의 晚清시기의 문학 특히 소설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현대성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위의 책, 1-16쪽 참조.

3) 王德威는 Andrew J.Nathan and Leo On-fan Lee 저, 《The Beginning of

기에 발표된 수량만 해도 약 7466편에 달했다.<sup>4)</sup> 그러나 지금까지 이 시기의 소설은 작품 수에 비해 그다지 주목을 받고 있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중국문학의 현대적 의미와 전승관계를 찾기 위해 5·4문학이 지니는 역사적 의의에 몰두했기 때문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한편으로 ‘晚淸’소설은 작품성이 떨어진다는 선입견이 작용한 것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래에 近代性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면서 晚淸시기의 문학 또한 다양하게 재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본고에서 텍스트로 삼고 있는 韓邦慶의 《海上花列傳》은 근대와 현대의 문학을 잇는 교량으로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다. 이 작품은 梁啓超가 제창한 ‘소설계혁명’보다 10년 빠른 1892년 上海에서 韓邦慶 자신이 주관하고 있던 중국 최초 소설기간지인 《海上奇書》에 연재되어졌다.<sup>5)</sup>

19세기 말 上海라는 특정한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海上花列傳》은 上海의 기루를 넘나드는 嫖客과 그곳에서 생업을 하는 기녀 및 그 주변의 인물을 소재로 삼아 그곳의 일상사를 그려내고 있다. 1843년 개항 이후 반세기를 보낸 1890년대의 上海는 이미 경제의 중심이자 소비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기루는 소비와 향락, 경쟁과 결탁이 이루어지는 도시의 습성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공간이기도 했다.<sup>6)</sup> 그래서 《海上花列傳》을 근대 도시문화의 산물이며 근대 도시를 배경으로 한 최초의 소설로 보고 있다.<sup>7)</sup>

---

Mass Culture》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독 인구를 이백만에서 사백만사이로 추정되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위의 책, 2쪽 참조.

4) 위의 책, 2-3쪽 참조.

5) 《海上奇書》는 韓邦慶이 《申報》의 주편자로 있을 당시 光緒壬申년(1892년)2월부터 매달 1일과 15일에 발간했다. 그러나 10期부터는 매월 1일에만 발간하다가 같은 해 10월에 정간되었다. 《胡適文集4》(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8), 398-402쪽 참조.

6) 王德威 저, 宋偉杰 역, 《被壓抑的現代性-晚淸小說新論》(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5), 102쪽 참조.

7) 晚淸시기의 소설의 중요한 장르 중 하나인 근대 ‘狹邪소설’은 1849년의 《風月夢》을 시작으로 해서 약 40여 편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海上花列傳》으로, 이전의 ‘狹邪소설’과 달리 최초로 도시를 묘사한 소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산물이며, 또한 현대의식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 바로 《海上花列傳》이라고 袁進은 보고 있다. 袁進, 《中國文學的近代變革》(廣西: 廣西師範大

따라서 본고에서는 《海上花列傳》을 통해 나타나는 근대적 의미와 근대성의 양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근대성(Modernity)

‘근대’는 시대를 구분하는 용어이지만, 현재 가장 파악하기 어려운 용어가 되어버렸다. 획일적이지 않은 시대구분과 근대라는 용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근대화, 근대성, 근대의식, 게다가 현대, 현대화라는 용어까지 더해져서 그 개념은 더욱 모호하다. 서양의 근대는 그 기준에 따라 역사적 시기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16세기를 그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sup>8)</sup> 중국은 唐末 혹은 北宋이후부터 혹은 南宋부터 지금까지를 근대로 보고 있지만<sup>9)</sup>,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중국의 근대는 아편전쟁 이후로 본다.<sup>10)</sup> 이처럼 근대 역사의 출발점은 어떤 기준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근대성은 일정한 시대를 지칭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동이 가능한 일련의 시간적 좌표라고 한다.<sup>11)</sup>

이와 함께 ‘근대성’ 역시 쉽게 파악되는 개념이 아니다. ‘근대성’은 ‘안정, 규율, 세계 지배’의 문화적 관점에서 ‘이성적, 자율적 주체, 진리에 대한 절대주의적이고 일원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유동적이고, 우연한 것이며, 일시적이고, 불연속적인 경험’을 가리키기도 하고 ‘무질서, 절망, 무정부 상태’로 해석하기도 한다.<sup>12)</sup> 역설적이게도 전

---

學出版社, 2006), 298쪽 참조.

8) 마살 버만은 현대성의 역사를 세시기로 나누고 있는데, 16세기 초에서 시작하고 있다. 마살 버만 저, 윤호병 외 역, 《현대성의 경험-견고한 모든 것은 대기 속에 녹아버린다》(서울: 현대미술사, 1995), 14-15쪽 참조.

9) 김학주 저, 〈中國文學史에 있어서의 「고대」와 「근대」〉, 《中國語文論叢》 15(1998), 29-32쪽 참조.

10) 동경학과는 마르크스 사학의 영향을 받아 시대 구분을 세부분으로 나누었다. 중국의 역사 구분을 唐末까지를 고대로, 宋에서 淸중엽까지를 중세로, 아편전쟁 이후를 근대로 보고 있다. 溝口雄三, 〈中國의 近世와 近代에 대하여〉, 《명청사연구》 1, 112쪽 참조.

11) 로렌스 카훈의 지적처럼 “역사적인 출발점을 고정시키기는 불가능하다. 16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있는 어느 세기라도 최초의 ‘근대적’세기로 명명될 수 있었다.” 리타 펠스키 저, 김영찬 외 역, 《근대성과 페미니즘-페미니즘으로 다시 읽는 근대》(서울: 거름, 1999), 31쪽 참조.

근대적인 것이 근대성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처럼 근대와 근대성의 개념은 획일적이거나 통일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 하나의 도식으로만 설명되어질 수 없으며, 하나의 개념으로만 고집되어질 수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역사적 과정을 극화하거나 인격화함으로써 형식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sup>12)</sup> 이 경우 개별적인 혹은 집단적인 인간 주체는 시대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전형적이고 상징적인 중요성을 부여 받게 된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sup>13)</sup> 그래서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파우스트를 근대의 전형적인 영웅으로 보며 근대성의 모순을 고찰하기도 하고,<sup>14)</sup> 에밀 졸라의 《나나》를 통해 여성성과 근대성의 상호관계를 탐구하기도 한다.<sup>15)</sup>

요컨대 근대성은 생활의 모든 측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神權 중심의 전통사회에서 벗어나 개체화되고 주체성을 지니면서 근대의 세속화된 세계를 가늠하는 시대적 의미이다.<sup>16)</sup> 다시 말해 ‘과거 지향적인 순환시간에서 미래지향적인 직선시간으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일련의 의식과 경험을 말하기도 한다.<sup>17)</sup>

19세기 말의 상해에서 출판된 근대도시를 배경으로 한 《海上花列傳》은 근대적인 시공간에서 필연적인 변화-외부로 인한 변화이든 내부에서 자생한 변화이든-를 담고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소설은 기녀와 嫖客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기루의 일상사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기녀/嫖客, 여성/남성으로 구분하여 근대성을 살펴보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 요컨대 근대라는 공간에서의 주체인 여성/남성은 당연히 근대적인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는 전형적이고 상징적인 중요성을 부여 받게 되며, 또한 이를 통한 변화의 일면은 포착되어 질 수 있다.

12) 위의 책, 35-36쪽 참조.

13) 위의 책, 21-22쪽 참조.

14) 위의 책, 22쪽 참조.

15) 마샬 버만 저, 윤호병 외 역, 《현대성의 경험-견고한 모든 것은 대기 속에 녹아버린다》(서울: 현대미학사, 1995), 41-104쪽 참조.

16) 리타 펠스키 저, 김영찬 외 역, 《근대성과 페미니즘-페미니즘으로 다시 읽는 근대》(서울: 거름, 1999), 124-130쪽 참조.

17) 위의 책, 38쪽 참조.

18) 이마무라 히토시 저, 이수정 역, 《근대성의 구조》(서울: 민음사, 1999), 65-99쪽 참조.

### 3. 남성-嫖客

#### 3.1. 아버지 不在-兄弟愛로의 대체

《海上花列傳》속의 주요 남성인물은 기녀를 찾는 嫖客들이며, 그 외에 嫖客들의 하인, 집사, 기루에서 종사하는 남자 하인 등이 있다. 이들의 신분은 洋務관리 혹은 돈으로 관직을 산 候補 관리, 鄉紳 출신에서부터 외지에서 상해로 들어온 시골 사람, 소상인 등 다양하다.<sup>19)</sup>

그런데 이상의 인물군의 구성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부재가 눈에 띈다. 소설 속에 아버지의 인물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아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무능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인물군의 구성은 바로 형제이다. 이들은 외형적으로 수평적인 혈육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형은 여전히 아우에게 종래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형이 아버지의 역할을 고스란히 승계하여 ‘형이 곧 아버지이다’라는 식의 전복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들이 행하는 소통방식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행하는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전달이 아니라 형이 아우에게 다독여가며 설득하는 대화체 화법으로 구성된다. 형이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 있지만 결코 아버지일 수 없듯이, 아우가 형의 뜻을 따른다고 해서 아우가 자식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형제의 등장은 단순한 아버지 역할의

19) 洪善卿은 소설의 전반부에 나오는 인물들을 연결하고 이끌어가는 인물로, 趙朴齋의 외삼촌이면서 성내에서 永昌參店을 운영하는 상인이다. 王蓮生은 公館에서 근무하는 관료인데, 洋務관료이다. 그는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인물이다. 羅子富는 산둥출신으로 江蘇省 知縣 자리를 기다리며 上海에서 임시직을 맡고 있는 候補관료이다. 葛仲英은 전통적인 향신출신으로 蘇州의 이름 있는 귀공자로 소개되고 있지만, 동시에 後馬路의 永安里에서 '德大滙劃錢莊'의 주인이다. 陶雲甫와 陶玉甫형제는 上海 縣城에 거주하고 있는 옛 세가의 자제이고, 朱藹人과 朱淑人 형제 역시 租界 지역에서 가장 변화한 사마로 中和里에 거주하고 있는 옛 세가의 자제이다. 이 외에도 시골에서 올라온 趙朴齋는 後生신분이고, 그의 동향인으로 張小村과 吳宋橋가 있다. 張小村은 미곡상에서 일을 하고 있고, 吳松橋는 이탈리아 양행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李實夫와 그의 조카 李鶴汀은 杭州의 제 2대째 거상으로 上海를 오가며 물건을 구입해서 판매한다.



대행으로서가 아니다.

다시 말해 전통사회에서의 가부장적인 아버지 부재와 형제애의 강조는 근대사회로 진입하면서 그 힘의 관계가 수직인 아닌 수평의 관계로 대체되어가는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sup>20)</sup>

형제애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陶雲甫와 陶玉甫 형제 그리고 朱藹人和 朱淑人 형제이다. 陶雲甫와 朱藹人은 각각의 동생 陶玉甫와 朱淑人에 각별한 정성과 세심한 관심을 기울인다. 기녀를 사귀는 것에서 혼사의 문제까지 동생의 모든 것에 관여하고 결정한다.

朱藹人은 그의 동생 朱淑人에게 周雙玉이라는 기녀를 소개한다.

朱藹人은 朱淑人 위쪽에 앉았다. 朱淑人은 후아취엔 하는 틈을 타서 살짝 周雙玉을 보았다. 마침 雙玉도 그를 몰래 훑쳐 보다 그만 둘의 눈이 마주쳤다. 雙玉은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淑人은 오히려 부끄러워 고개를 돌렸다……“후아취엔을 못하고 할 게 있어?” 朱藹人也 말했다. “손만 내밀면 돼.” 朱淑人은 마지못해 손을 내밀었다……<sup>21)</sup>

“맑고 빼어난 눈매를 가진” 열여섯 살의 朱淑人은 형의 소개로 周雙玉을 만난다.<sup>22)</sup> 그는 내성적이고 소심하다. 게다가 그는 술자리에서 즐겨하는 놀이 '후아취엔'도 못하는 아직 사회적 관계에 능하지 않는 순진한 인물이다. 그러나 그런 그를 朱藹人은 자연스럽게 기루에서 즐기는 법을 가르치는 사회의 연장자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朱藹人은 그의

20) 줄리엣 매캐널(Juliet Maccannell)에 의하면 가부장적 신이나 왕의 전통적인 확고한 권위가 평등, 형제애, 동일성 등의 근대 계몽주의의 논리에 굴복했기 때문에, 근대사회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법칙을 대변하기보다는 형제의 왕국을 표상한다고 한다. 리타 펠스키저, 김영찬 외 역, 《근대성과 페미니즘-페미니즘으로 다시 읽는 근대》(서울: 거름, 1999), 44쪽 참조.

21) 朱藹人坐在朱淑人上首, 朱淑人趁豁拳時偷眼去看周雙玉. 不料雙玉也在偷看, 四只眼睛剛剛湊一個准. 雙玉倒微微一笑, 淑人卻羞得回過頭去……朱藹人也說“豁豁未哉. 朱淑人只得伸手,…… 韓邦慶 著,《海上花列傳》(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9), 135쪽.

22) 엄밀하게 말하자면 직접 소개한 것은 아니다. 당시 기루에서 기녀와 만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局票'라고 하는 기녀를 부르는 쪽지를 보내야지 기녀를 만날 수 있었다. 朱淑人은 그의 형 朱藹人이 동생을 위해 周雙玉을 불렀다.

동생의 혼사를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제 11회에 지나치기 쉬운 “朱藹人은 비록 가깝게 지내고 있지만, 요 이틀 동안 杭州의 黎篆鴻을 모시고 다닌다고 하니”<sup>23)</sup>라는 문장은 朱藹人이 杭州의 거부인 黎篆鴻과 사돈을 맺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형제의 모습을 넉넉히 알리고 있다. 제 15회에 黎篆鴻이 蔣月琴 집에서 만든 술자리, 이어 제 19회에서 朱藹人 형제가 陶雲甫 형제와 李實夫 叔侄과 함께 屠明珠 집에서 黎篆鴻을 위해 마련한 술자리 모두가 동생 朱淑人의 혼사를 위해 애쓰는 藹人의 노력에 해당된다. 특히 제 19회에서 黎篆鴻은 屠明珠 집 술자리에서 朱淑人을 알게 되고, 특별히 그를 눈여겨본다. 이후 제 42회에서는 朱淑人의 혼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고<sup>24)</sup>, 제 53회에서는 혼사가 성사되었음을 보여준다.<sup>25)</sup>

陶雲甫 역시 朱藹人처럼 陶玉甫의 보호자이다. 기녀 李淑芳의 병간호에서 李淑芳의 장례식에 이르기까지 陶雲甫는 동생 陶玉甫의 건강만을 염려하고 陶玉甫의 장래만을 생각한다.

淑芳이 죽게 되면 玉甫를 막고 있던 장애가 도리어 끊어질 수 있으니 玉甫에게는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미치자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다.<sup>26)</sup>

위의 인용문에서 위독해진 李淑芳을 둘러싸고 嫖客들은 그녀의 비운을 안타까워 하지만, 陶雲甫는 속으로 淑芳의 죽음이 玉甫의 방향을 끝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제 7회 李淑芳의 이름이 술자리에서 나왔을 때부터 雲甫는 동생의 장래를 막고 있는 장본인인 李淑芳이 못마땅하

23) 韓邦慶 著, 《海上花列傳》(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9), 87쪽.

24) 嘯庵은 朱淑人의 혼사 때문에 항주에 갔다네.(嘯庵爲仔朱淑人親事, 到仔杭州去哉.) 위의 책, 356쪽.

25) “黎篆鴻은 혼사를 승낙하였고, 특별히 李鶴汀, 于老德을 중매인으로 두었다. 20일 저녁 화륜선을 타면 하루 만에 상해에 당도할 수 있을 것이니, 모든 것은 만나서 의논하자고 했습니다. 이쪽에서도 중매인이 한 명 더 필요합니다(黎篆鴻既允親事, 特請李鶴汀、于老德爲媒, 約定二十晚間同乘小火輪船, 行一晝夜可以抵滬, 一切面議.惟乾宅亦須添請一媒爲要)” 위의 책, 448쪽.

26) 既而一想, 淑芳既死, 則玉甫의 聖礙牽纏反可斷絕, 爲玉甫計未始不妙. 茲且丟下不提. 위의 책, 348쪽.

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李漱芳과 관련된 말을 할 때는 그녀를 비꼰다.

“연분은 무슨! 玉甫가 속아 끌려 다니는 거지. 자네도 봤잖아, 玉甫가 요즘 멍하지 않던가, 그녀들에게 짝 붙들려 싸여서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어. 가끔 내가 玉甫에게 연극을 보러 가라고 하면 漱芳이 ‘극장 안은 나팔 소리, 북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 안 돼요.’라고 말하지, 내가 또 玉甫에게 마차를 타고 가라고 하면, 漱芳은 ‘마차는 너무 흔들려서 안 돼요.’라고 말해. 제일 우스운 건 한 번은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눈에도 빛이 들어왔다는 거야, 그 다음날 아침 날이 샨는데도 못 일어나더니 玉甫에게 눈을 훑아 달라네, 한 보름동안 훑고 나서 나아졌다는 거야.<sup>27)</sup>

이와 같이 陶雲甫의 말 속에는 李漱芳에 대한 불만과 푸념이 한데 섞여있다. 그것은 李漱芳이 그의 동생 陶玉甫를 내버려두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고, 陶玉甫가 그녀에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푸념이다. 그는 때로 그의 동생을 어르고 타이르고 질책 섞인 말도 하지만, 陶玉甫에게 대한 정성과 염려는 모성애에 견줄 만하다. 특히 李漱芳의 병세가 악화되고 위독할 때, 병간호하는 陶玉甫를 보고 있는 陶雲甫의 초조와 근심은 제 42회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sup>28)</sup>

朱氏 형제와 陶氏 형제의 이야기는 가부장적인 전통 사회에서의 아버지의 부재를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아울러 형제애로 대체 되어가는 근대의 외적인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다.

蘇州에서 올라온 趙朴齋와 동향인 吳松橋의 예를 보자. 吳松橋는 上海 조계지에 있는 이탈리아 양행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그의 아버지 吳小大는 上海에서 일하는 아들 吳松橋를 찾아왔다. 그러나 그는 아들에

27) 啥緣分嘅, 我說是冤牽! 耐看玉甫近日來神氣常有點呆致致, 撥來俚啲圈牢仔, 一步也走勿開個哉. 有辰光我教玉甫去看戲, 漱芳說‘戲場裏鑼鼓鬧得勢, 去哉.’ 我教玉甫去坐馬車, 漱芳說‘馬車跑起來顛得勢, 去哉.’ 最好笑有一轉拍小照去, 說是眼睛光也撥俚啲拍仔去哉, 難末日朝天亮快勿會起來, 就搭俚恬眼睛, 說恬仔半個月坎坎好. 위의 책, 57쪽.

28) 제42회 제목 〈拆鸞交李漱芳棄世 急鶴難陶雲甫臨喪〉에도 陶雲甫의 심경이 그대로 전해진다. 제목의 앞 구 ‘拆鸞交李漱芳棄世’는 李漱芳의 죽음을 난세의 죽음으로 비유하고 있고, 그의 대구를 이루는 ‘急鶴難陶雲甫臨喪’은 陶雲甫의 심정을 조바심 난 할미세로 비유하고 있다.

게 돈 몇 푼과 함께 문전박대를 당한다. 吳小大는 우연히 길에서 만난 趙朴齋에게 그의 비참한 심정을 풀어놓는다.

“내가 아버지 노릇 한다고 했지만 가난했지, 고생을 시켰어. 상해에 온 건 아들이 잘나서가 아니야, 우리 아들이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아들을 찾아 와야 체면이 서지 않겠나. 그런데 몸쓸 녀석일 줄은 누가 알았겠나! 내가 세 번이나 찾아갔는데, 그때마다 사무실에서는 없다고 하니 할 수 없었지. 그런데 네 번째 찾아가니 안에서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사무실 사람이 동전 400전을 들고 와서 주면서 이 돈으로 배타고 돌아가라고 했다는 거야!”<sup>29)</sup>

이와 같은 吳松橋의 몰염치한 태도는 유가적인 전통사회에서 응당 비판의 대상이지만, 한편으로 아버지의 존재는 더 이상 권위의 대상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유가의 최고 덕목인 孝誠의 상실은 가부장적인 전통 사회에서 근대사회로 극변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윤리 변화의 하나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

吳小大 외에 또 다른 부모의 등장이 있다. 바로 吳小大와 함께 아들을 찾아 上海로 들어온 趙朴齋의 모친 玉甫이다. 그녀는 항상 우유부단하고 나약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趙朴齋의 모친 玉甫는 나이가 쉰 가까이 되는데, 눈과 귀가 멀고, 연약하고 무능했다. 다행히 朴齋의 누이의 小名이 二寶인데, 집안일을 도맡아 할 수 있었다.<sup>30)</sup>

위의 인용문은 모친 洪氏의 성격을 명시한 문장이다. 그는 가정에서 힘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그의 딸 趙二寶가 기녀가 되겠다고 해도 수수방관인 채 딸에게 의지하며 살아간다. 吳松橋의 부친 吳小大

29) 我做個爺，窮末窮，還有碗把苦飯吃吃個哩。故歇到上海來，勿是要想啥倪子個好處；爲是我倪子發仔財末，我來張張俚，也算體面體面。陸裏曉得個殺坏實概樣式！我連浪去三球，帳房裏說勿來浪，倒也罷哉，第四球我去，來浪裏向勿出來，就帳房裏拿四百個銅錢撥我，說教我趁仔航船轉去罷。我阿是等耐四百個銅錢用！我要轉去，做叫化子討飯末也轉去仔，我要用耐四百個銅錢！ 위의 책, 253쪽.

30) 這趙樸齋母親洪氏，年僅五十，耳聾眼瞎，柔懦無能。幸而樸齋妹子，小名二寶，頗能當家。 위의 책, 238쪽.

의 짧은 이야기와 趙朴齋의 모친 洪氏의 가족 구성원에서의 위치를 통해 우리는 비록 소설 속에 가부장적 가족 제도에서 가장 권위를 가지는 부모가 등장하고 있지만 이미 부모는 무능하고 불필요하며 나약한 존재로 전락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海上花列傳》 속의 인물군 구성을 통해서 아버지의 부재를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바뀌어가는 일련의 시공간 속에서 수직적인 권위와 복종의 단계에서 수평적인 단계, 즉 동일성의 단계로 그 지배의 힘이 바뀌어 감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전근대적인 형상으로서의 아버지의 부재는 생물학적 아버지 부재만을 가리킬 뿐 아니라, 나아가 근대성을 보여주는 단초가 된다.

### 3.2. 전통 교육의 몰락

한 왕조의 '創業守城'을 위해 통치자들은 그들의 통치이념을 내세웠다. 秦의 법치사상과 漢의 유가사상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특히 漢이후 역대 왕조는 孔子에서 시작된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았다. 비록 유가사상은 漢의 訓誥學, 宋明의 理學, 淸의 考證學 등 연구의 방법과 인식의 변화로 새롭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역대 왕조를 걸쳐 유가의 경전인 四書三經이 권외 밖으로 물러난 적은 없었다. 달리 말해 四書三經은 유교사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유가경전이자 봉건사회의 고등교육을 위한 교과서였다.<sup>31)</sup>

隋唐부터 晚淸 1905년 폐지 전까지 시행해오던 과거시험의 중심 내용이 바로 四書三經이었다. 科擧를 통한 立身揚名은 당시 지식인의 이상이었던기 때문에, 그들에게 四書三經은 실천궁행의 요체임과 동시에

31) 중국 전통 고등교육의 기원은 문헌의 기록에 의하면 殷(기원전 16세기-기원전11세기)까지 올라간다. 이후 漢 武帝(기원전 140년-기원전 87년)는 중앙 집권 국가의 정치에 부합하기 위해 기원전 124년에 長安에 太學을 세워 전문적으로 유가경전을 전수하고 연구하게 했다. 唐代에도 유가 경전을 위주로 학습하였고, 특히 宋代에는 官學 외에 書院이 중요한 고등교육기관이 되었다. 이 시대의 朱熹의 성리학 즉 朱子學은 후세의 유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다. 宋 이후 淸淸시대에 유가경전은 '八股文'형식의 과거시험을 위한 교과서였다. 張亞群 著, 《科擧革廢與近代中國高等教育的轉型》(武漢: 華中師範大學出版社, 2005), 7-14쪽 참조.

반드시 익혀야 할 과목이었다. 그러나 인재 선발을 위한 科擧제도는 이후 明清시기로 접어들면서 이미 그 폐단이 드러났다. ‘八股文’ 형식을 철저히 준수하여 답안으로 쓰되 절대 자기의 견해를 넣어서는 안 되는 科擧제도는 지식인의 思惟 뿐만 아니라 그 제도의 부정 등 여러 가지 폐단을 가져 왔다.

1905년 科擧제도 폐지까지 불과 10여 년 전에 나온 《海上花列傳》에서는 비록 이 소설이 기루를 배경으로 한 ‘狹邪소설’이라고 할지라도, 《海上花列傳》과 비슷한 시기에 출판된 鄒弼의 《海上塵天影》(1894년)과 孫玉聲의 《海上繁華夢》(1898년)과 비교해보면 科擧제도의 잔영조차 발견할 수 없다. 《海上塵天影》에서는 빈한한 사대부 韓秋鶴을 등장시켜 科擧制度의 낙오자의 이미지를 부여하였고, 《海上繁華夢》의 경우 늙은 秀才 方端人을 통해서 科擧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의 아들에게 八股文의 형식 破承題로 문장을 짓도록 하는 이야기가 있다.<sup>32)</sup> 그러나 《海上花列傳》에서는 인물과 서술, 대화 어느 곳에서도 科擧를 연상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

다만 科擧시험을 위해 어린 시절부터 익혔던 四書三經은 술자리에서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嫖客들의 酒罽 도구로 사용되어진다.

《海上花列傳》에 나오는 酒罽은 제 39회, 제 40회, 제 41회에 집중적으로 나온다. 제 37회부터 등장하는 ‘史三公子’라고 불리는 史天然은 酒罽내기를 즐겨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그가 참석하는 술자리에서는 酒罽이 빠지지 않는다. 酒罽의 한 예를 보자.

天然은……酒罽은 반드시 雅와 俗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었다……“……〈四書〉의 문장으로 탐처럼 쌓아 가는 겁니다……” 魚：史魚(仲) 烏物魚(藹) 子謂伯魚(亞) 膠鬲舉于魚(韻) 昔者有饋生魚(鐵) 數罽不入洿池, 魚(天) 二者不可得兼舍魚(痴) 曰：殆有甚焉, 緣木求魚(雲)<sup>33)</sup>

32) 呂文翠, 〈海上新傳奇-從韓邦慶《海上花列傳》看19世紀末葉上海現代性面貌的成就與現轉型〉, 《現代中國》7(2006.6), 62-66쪽.

33) 天然一面吃一面想, ……這令必須雅俗共賞爲妙……, ……拈席間一物, 用《四書》句疊塔, 阿好?……魚：史魚(仲) 烏物魚(藹) 子謂伯魚(亞) 膠鬲舉于魚(韻) 昔者有饋生魚(鐵) 數罽不入洿池, 魚(天) 二者不可得兼, 舍魚

위의 酒습에서 볼 수 있듯이 어린 시절부터 익히 잘 알고 있는 四書의 문장이지만, 의미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옛 성현과 선비들이 실천공행의 요체였던 四書의 문장은 녹슨 뼈대만 남은 앙상한 형체처럼 酒습의 놀이도구로만 체구실을 하고 있는 셈이다. 功名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익혀야 했던 옛 지식인의 四書의 문장은 그 목적과 의미를 더 이상 찾지 못하고, 단순히 지식의 잉여물로 존재했다.

이것과 비교될 수 있는 중국의 소설사상 최고의 걸작인 清代 소설 《紅樓夢》에서도 酒습을 소재로 삼은 이야기가 나온다. 제 40회 후반부에 나오는 酒습을 보면, 애초 酒습이 韻을 맞춘 형식적인 문장이라고 해도 문장의 의미 역시 통하고 있다.

“그것을 합치면 ‘二郎遊五嶽(이랑이 오악을 순례하다.)’입니다.”  
 “世人不及神仙樂(세상 사람은 신선의 즐거움을 따르지 못하네.)”……  
 鐵鎖練孤舟(쇠줄이 조각배를 묶었도다)입니다.” “處處風波處處愁(곳  
 곳이 풍파요, 곳곳이 근심일세)”<sup>34)</sup>

‘嶽’과 ‘樂’의 운이 맞고, 二郎도 神이니 神仙과 世人을 운운하여 같은 범주에서 이해되니, 의미로도 들어맞는다. ‘舟’와 ‘愁’의 운이 맞고 孤舟가 풍랑을 만난 것으로 인생의 슬픔을 비유한 것이 바로 ‘處處風波處處愁’이다. 이와 같이 《紅樓夢》 속에 나오는 酒습은 형식뿐만 아니라 그 의미도 酒습의 묘미를 살리고 있다. 그에 반해 《海上花列傳》의 四書三經에서 가져온 酒습의 뜻은 무의미하며, 다만 지식인의 머리에 남아 있는 지식의 껍데기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경서였던 四書三經은 근대 도시 공간에서 그 존재의 위기를 말해주고 있다. 어쩌면 작가는 1905년 科擧制度 폐지를 암묵적으로 예지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四書三經의 酒습과 함께 詩作에 얽힌 이야기가 있다. 詩는 중국의 문

(癡)曰：殆有甚焉，緣木求魚(雲)韓邦慶 著，《海上花列傳》(北京：人民文學出版社，1999)，326쪽.

34) 鴛鴦道湊成‘二郎遊五嶽’。薛姨媽道世人不及神仙樂……鴛鴦道鐵鎖練孤舟。”寶釵道處處風波處處愁。曹雪芹/高鶚著，《紅樓夢》(北京：人民文學出版社，1992)，333-334쪽.

학사상에서 보면 大雅라고 하는 최고의 경지의 장르였다. 《詩經》에서 부터 唐詩를 비롯하여 詩作은 중국의 전통 사대부들이 반드시 익혀야 할 전통 교육 중 하나였다. 그런데 詩를 읊조리는 方蓬壺의 모습은 우스꽝스럽게 묘사되어 있다.

蓬壺는 홀로 단정하게 앉아 눈을 감고 머리를 흔들며 중얼중얼 거렸다. 亞白은 시흥이 일어난 것을 알고 내버려 두었다……갑자기 蓬壺는 걸걸 웃더니 필묵을 쥐고서 일필휘지 같기고 나서 亞白에게 두 손으로 올렸다. “이처럼 풍격 있는 모임에서 시가 없으면 안 되지요……” 亞白이 받아 들고 보니, 그 종이는 원래 붉은 서양산 종이로, 시를 그 종이 뒷면에 쓴 것을 보고 “정말 훌륭한 초대장인걸! 그런데 외국종이라? 이게 안타깝네.” 그리고는 그는 아무렇게나 떨어뜨렸다.<sup>35)</sup>

혼자 눈을 감고 머리를 흔들며 시상을 떠올리는 方蓬壺의 모습과 그의 시를 받아든 高亞白의 경박한 태도에서 전통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는 근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이 외에도 소설 속에 등장하는 詩作 장면은 근대 도시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다.<sup>36)</sup> “지금 상해의 시풍은 무너졌다.”<sup>37)</sup> 蓬壺의 탄식은 당시 상해의 시풍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으며 동시에 결국 근대로의 진행 과정에서 해체되어가는 전통 교육의 일면을 보여준다.

35) 蓬壺獨自端坐，搖頭閉目，不住啣唔。亞白知道此公詩興陡發，只好置諸不睬……蓬壺忽然呵呵大笑，取過筆硯，一揮而就，雙手奉上亞白道如此雅集，不可無詩……亞白接來看，那張紙本是洋紅單片，把詩寫在粉背的，便道蠻好一張請客票頭，阿是外國紙？倒可惜！說畢，隨手撩下。韓邦慶 著，《海上花列傳》（北京：人民文學出版社，1999），260쪽.

36) 제60회에서 高亞白과 小贊의 詩作 부분, 위의 책, 514-516쪽. 제 61회에서 517-518쪽. 그래서 張愛玲은 이 소설을 북경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酒습의 대부분과 詩作부분을 제외시켰다.

37) 故歇上海個詩，風氣壞哉！ 위의 책, 260쪽.



## 4. 여성-妓女

### 4.1. 소비의 주체와 대상으로의 회로

《海上花列傳》에 나오는 여성은 당연 대부분 기녀들이며, 기녀 외에 기생어미, 娘姨(아주머니), 大姐(어린 여자 하인) 등 대부분 기루에서 생업을 종사하는 인물들이다.

‘書寓’ 혹은 ‘長三’ 라고 불린 고급기녀에서 ‘幺二’ 라고 불린 일반 기녀 그리고 창녀에 이르기 까지 등급이 다른 기녀들이 등장한다.<sup>38)</sup>

소설 속에는 고급기녀, 일반기녀 그리고 창녀를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특히 기녀들의 의상과 장신구에 대한 묘사는 아주 세세하다. “판매자이면서 상품이기도 한 창녀는 성애의 상품화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상징이다”<sup>39)</sup>라는 리타 펠스키의 말을 빌리면, 《海上花列傳》의 기녀들의 의상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근대적 가치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기녀들은 자신의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의상과 머리 장신구에 많은 비용을 소비하였다. 팔찌, 반지, 목걸이 머리 장신구, 의상뿐 아니라 방을 장식하는 가구류, 담뱃대 모두 그들의 유명세를 대변해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장신구 하나에도 민감하다. 제 22회에는 머리핀 하나로 손님과 기녀들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38) 書寓는 원래 고급 기녀가 사는 곳 혹은 說書의 장소를 말한다. 고급 기녀는 모두 說書人이기 때문에, 후에는 說書하는 젊은 여자를 書寓라고 불렀다. 또한 손님들은 그들에게 '先生'이라는 존칭을 썼다. 長三은 書寓보다 약간 낮은 고급기녀이다. 長三을 校書라고도 했는데, 이 칭호에서 長三은 書寓보다 낮지만 존경의 뜻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長三의 호칭은 마작의 패 중 '長三' 혹은 '三三'에서 왔다고도 한다. 또한 손님은 長三에게 3원을 지불하면 그들을 부를 수 있었다. 幺二 역시 중국 마작의 패에서 명칭이 나왔다고 한다. 손님은 그들을 부르는 데 2원을 지불했다. Chritian Henriot 저, 袁燮銘 외 역, 《上海妓女: 19-20世紀中國的賣淫與性》(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1), 24-27쪽.

39) 리타 펠스키 저, 김영찬 외 역, 《근대성과 페미니즘-페미니즘으로 다시 읽는 근대》(서울: 거름, 1999), 41쪽 재인용.

黃翠鳳은 張蕙貞의 반짝반짝 금색 구슬이 달린 핀을 보고,……“지금  
은 이름 새기는 반지도 구식이 되어버렸어.” 張蕙貞은 黃翠鳳 머리에  
비취색 연갑 모양의 장식이 한 쌍 꽂혀 있는 것을 보고, …… 黃翠鳳  
은 그 중 하나를 빼서 ……“초록색이 아주 예뻐요.” 王蓮生 아래가 주  
인 葛仲英 자리인데, 그들은 吳雪香과 張蕙貞이 감탄하는 소리를 듣  
고 고개를 돌렸다.……吳雪香이 재빨리 자기 머리에서 하나를 뽑아  
비교해보았다. 張蕙貞은 모두 초록색인 것을 보고 ‘괜찮네’라고 말했  
다.……40)

張蕙貞 머리핀에서 시작된 장신구 이야기는 제 22회의 후반부에 전  
개된다. 비단 기녀들만 품평을 하는 게 아니라, 손님들도 그들의 품평을  
귀담아 듣기도 하고 또 평을 내놓기도 한다. 손님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기녀에게 선물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  
다.<sup>41)</sup> 그 속에는 경제력을 과시할 수 있는 경쟁이 숨어 있고, 그 경쟁  
은 기녀와 손님, 기녀와 상품 사이에 성애적인 관계가 밀접하게 얽혀  
있다.<sup>42)</sup> 기녀들은 봄에는 국화를 여름에는 계화를 가을에는 오얏꽃을  
겨울에는 난꽃을 꽃아 치장을 하다 19세기 말에 와서 생화가 모두 진  
주로 만든 꽃으로 바뀌었다는 어느 한 작가의 글<sup>43)</sup>을 봐도 19세기 말  
상해 기녀의 상품에 대한 욕망은 이전보다 훨씬 강렬하게 증폭되어 물  
욕화 되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王蓮生은 景星銀樓에 가서 張蕙貞의 장신구를 새것으로 바꿔달라고

40) 黃翠鳳見張蕙貞金珠首飾奕奕有光……故歇名字戒指也老樣式哉.張蕙貞見黃翠鳳  
頭上插著一對翡翠雙蓮蓬……黃翠鳳拔下一只……綠頭倒無啥.不料王蓮生以下即  
系主人葛仲英坐位, 背後吳雪香聽得張蕙貞贊好, 便伸過頭來一看, 問黃翠  
鳳……吳雪香忙向自己頭上拔下一只, 將來比試.張蕙貞見是全綠的, 乃道也無  
啥. 韓邦慶 著, 《海上花列傳》(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9), 179쪽.

41) 한 기녀의 오래된 손님(老常客)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기녀의 체  
면을 세워주기 위해 명절마다 술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가끔 明園등지로 마  
차를 타고 나들이를 가야하며, 또한 보석을 선물해야 했다. 賀蕭 著, 韓敏中,  
盛寧 譯, 《危險的愉悅: 20世紀上海的娼妓問題與現代性》(南京: 江蘇人民出版  
社, 2003), 69-133쪽 참조.

42) 리타 펠스키 著, 김영찬 외 譯, 《근대성과 페미니즘-페미니즘으로 다시 읽  
는 근대》(서울: 거름, 1999), 113쪽.

43) 半痴生의 《海上冶游備覽》의 글을 참고한 내용임. 賀蕭 著, 韓敏中, 盛寧  
譯, 《危險的愉悅: 20世紀上海的娼妓問題與現代性》(南京: 江蘇人民出版  
社, 2003), 79쪽.

洪善卿에게 부탁하고<sup>44)</sup> 葛仲英은 甯雪香과 함께 대마로에 있는 亨達利洋行에 가서 팔찌시계를 산다. 이 두 곳은 바로 19세기 말의 상해의 고급 소비 공간이다. 洋行이라는 간판아래 동서양의 장식품을 팔았고, 초기 백화점 기능을 수행했다. 이렇게 돈으로 상품을 사는 장면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남성이 여성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과정을 보여준다. 진열된 화려한 상품들은 쉽게 여성들을 유혹한다.

양행 문 입구로 들어가며 훑어보니, 아름다운 광채를 발하는 물건들로 눈앞이 어지러워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그 양행 종업원들은 장난감들을 꺼내놓아 태엽을 돌려서 구경하도록 했다. 날개를 치며 지저귀는 갖가지 새도 있고, 박자를 맞춰 춤을 추는 다양한 가짜 동물들도 있었다. 또 나팔을 불고 비파를 켜고, 심벌즈, 북을 치며 소리를 내어 합주곡을 만들어내는 동으로 만든 연주 악대도 있었다. 나머지는 움직이는 배, 차, 개, 말 등 셀 수 없을 정도였다.<sup>45)</sup>

‘눈앞이 어지러워 현기증이 날 지경이 될’ 정도로 기녀/여성은 진열된 상품들에 의해 현혹되고, 소비의 충동과 함께 소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려고 싶어 한다. 상품에 대한 욕망과 그것의 충족을 위해서 기녀는 손님과의 관계를 잘 이용해야 했다. 그 관계 속에서 기녀는 손님을 통한 소비의 주체가 되다가도 결국 소비의 대상이 되고 만다. 바로 이러한 물질적 욕망 속의 기녀와 손님의 관계는 소비와 상품의 주체와 대상이라는 아이러니한 상징적 모습을 담고 있다. 근대 상해는 소비의 욕망을 충동질하고 충족시켜주는 공간이자, 상품화된 대상을 진열해놓은 공간으로 손색이 없었다.

44) 韓邦慶 著, 《海上花列傳》(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9), 93-94쪽.

45) 躉進洋行門口, 一眼望去, 但覺陸離光怪, 目眩神驚.……那洋行內夥計們將出許多頑意兒, 撥動機關, 任人賞鑒. 有各色假鳥, 能鼓翼而鳴的; 有各色假獸, 能接節而舞的; 還有四五個列坐的銅鑄洋人, 能吹喇叭, 能彈琵琶, 能撞擊金石草木諸響器, 合成一套大曲的; 其餘會行、會動的舟、車、狗、馬, 不可以更仆數. 위의 책, 44쪽.

## 4.2. 욕망의 좌절 - 악몽과 죽음

전통적인 의식이 근대와 괴리될 때 문학에서는 병리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왜냐하면 ‘병리적 주체는 세계와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개인적 존재’<sup>46)</sup>이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세계가 악몽일 수 있고, 죽음일 수 있다.

《海上花列傳》의 李漱芳과 趙二寶의 이야기 속에서 전통적인 의식과 근대적인 공간이 서로 혼재되고 상충되어 빚어진 참혹한 삶을 엿보게 된다.

李漱芳은 東興里的 기녀이다. 제 7회에서 잠깐 李漱芳의 이름과 이야기가 다른 인물로 통해 소개된 후 10회 건너 뛰어 제 17회부터 등장하지만 이미 병약해져 신경이 날카로운 李漱芳이다. ‘달그락거리며 유리창에 부딪히는 바람소리는 누군가가 돌을 던지는 것 같고, 째깍거리는 자명종 소리는 귀 속을 후벼 파는 듯 잠을 이룰 수 없다’<sup>47)</sup>고 옥보에게 털어놓는 李漱芳의 말에서 극도로 예민해진 그녀의 병세를 감지할 수 있다. 李漱芳의 병세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했다. 비록 李漱芳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李漱芳의 방에 몰래 들어온 ‘검은 고양이’ 등장은 수방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다.

……검은 물체가 문틈으로 들어오더니 곧바로 침대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漱芳은 조금해져 옷 매듭도 제대로 매지 못하고 한발자국 건다 넘어지고 또 한 발자국 건다 넘어져가며……불을 켜고 보니 아주 큰 검은 고양이었다. ……고양이는 수방 쪽으로 고개를 돌려 번득이는 눈빛으로 쬐려보았다. ……漱芳은 휘장에서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사람 머리 같아 순간 놀라 식은땀이 나고, 손발이 떨려서 소리를 내고 싶어도 내지를 못했다.<sup>48)</sup>

46) 이수영 저, 《섹슈얼리티와 광기》(서울: 그린비, 2008), 44쪽.

47) 韓邦慶 저, 《海上花列傳》(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9), 141-142쪽.

48) ……只見烏黑的一團從門縫裏滾進來，直滾向大床下去。漱芳急的不及結帶，一步一跌撲至房中……正欲點火去看是什麼，原來一只烏雲蓋雪的大黑貓……那貓竄至房門前，還回過頭來瞪出兩只通明眼睛眈眈相視……漱芳見帳子裏一個黑影子閃動，好像是個人頭，登時嚇得滿身寒凜，手足發抖，連喊都喊不出。 위의 책, 157쪽.

《海上花列傳》속에서 위의 인용문만큼 긴장을 주는 묘사는 없다. 죽음의 문턱에 왔음을 알리는 것처럼 검은 고양이의 빛깔과 안광은 공포로 몰아넣는다. 검은 물체에 놀라 허겁지겁 허둥대는 李淑芳은 이미 쇠약해지고 신경이 극도로 과민해진 모습이다.

李淑芳의 병은 현실을 인정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했다. 李淑芳의 생모인 이수저가 기녀였기 때문에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기녀로서 살아야 했다. 그러나 陶玉甫와 사귀게 된 이후, 李淑芳은 더 이상 다른 손님과 사귀지 않고 陶玉甫와만 교류했다. 이후 陶玉甫가 그녀를 정실부인으로 맞이하려 했을 때, 집안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기녀가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은 기녀로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모두 그녀를 기녀라고 하니까”<sup>49)</sup>라고 말하는 錢子剛은 李淑芳의 답답한 심경을 대변해주고 있다. 또한 高亞白은 ‘근심과 걱정이 계속 쌓여 비장과 위장이 상해’ 폐결핵에 걸렸고, ‘마음은 항상 두근거리고 악몽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게’<sup>50)</sup>되는 예후까지 정확하게 맞춘다. 실제로 李淑芳은 악몽에 시달린다.

몽롱하게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淑芳이 꿈을 꾸다 큰 소리를 질렀다. 한 손으로 玉甫를 잡으며 꼭 달라붙으며 기를 쓰고 가슴 안으로 파고 들었다. “안 갈 거야! 안 가!” ……淑芳은 잠에서 깨어났지만, 玉甫를 꼭 잡고 玉甫를 멍하니 바라보며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 “외국인 두 사람이 날 잡아하려고 했어!”<sup>51)</sup>

‘외국인 두 사람’에 대해 인용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지 않지만, 독자는 어렵지 않게 외국 순포를 연상할 수 있다. 《海上花列傳》속에 그려진 외국 순포는 소방대원처럼 화재를 진압하기도 하지만<sup>52)</sup>, 검은 색 옷을 입고 곤봉을 든 채 범법자를 쫓기도 한다.<sup>53)</sup> 李淑

49) 李淑芳이 왜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다는 고아백의 말에 錢子剛이 이유를 설명해준다. 위의 책, 307쪽.

50) 위의 책, 304-305쪽.

51) 朦朧之間，忽然淑芳在睡夢中大声叫喚，一只手抓住玉甫攔身子，狠命的往里掙，口中只喊道：“我勿去呀！我勿去呀！”……淑芳才醒轉來，手中兀自緊緊揣着不放，瞪着眼看定玉甫，只是喘氣……“两个外国人要拉我去呀！” 위의 책, 163쪽.

芳이 외국인에게 쫓기는 꿈은 죽음의 시간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장치이다. 결국 李漱芳은 다음 생을 기약하며<sup>54)</sup>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상에서의 李漱芳의 표면적인 이야기는 전통적인 才子佳人類의 이야기에서 흔히 예상되어지는 신분이 다른 남녀가 집안의 반대에 부딪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식의 일반적인 구조이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李漱芳 스스로가 기녀이기를 거부하고자 한 여성의 한 주체로서의 욕망이 강렬하게 잠재되어 있었다. 근원적으로 충족되어질 수 없는 ‘욕망’은 결국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sup>55)</sup> 더구나 陶玉甫의 끈질긴 욕심, 즉 李漱芳을 정실부인으로만 받아들이겠다는 요구는 현실에서의 좌절을 가져왔고 李漱芳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다시 말해 근대의 시공간에서 살아가면서도 기녀를 정실부인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전근대적인 의식과 기녀이기를 거부하고자하는 의지가 상충되어 현실 속에 무력하고 나약했던 李漱芳은 가녀린 호흡을 뒤로 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또 악몽에 시달리는 여성이 나온다. 바로 趙朴齋 여동생 趙二寶이다. 그녀는 제 1회에서 趙朴齋와 그의 외삼촌 洪善卿의 대화 중 잠깐 나왔다가 제 29회에서 본격적으로 上海라는 무대에 등장한다. 趙二寶는 모친 洪氏와 동향인 張秀英 남매와 吳松橋의 부친 吳小大와 함께 고향 蘇州에서 上海로 들어온다.<sup>56)</sup> 趙朴齋를 찾은 趙氏 가족은 다음 날 떠날 계획을 하지만, 張秀英에 의해 미뤄진다.

秀英：“나보고 놀러 가자고 해놓고 나는 한 번도 나가지 못했어. 네가 돌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 二寶：“그러면 하루 더 놀까?” 秀英：“하루 놀고 다시 말해.” 洪氏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따랐다.<sup>57)</sup>

52) 위의 책, 제 11회.

53) 위의 책, 제 28회.

54) 위의 책, 162쪽.

55) 프로이트는 《쾌락원리를 넘어서》에서 욕망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대상은 죽음뿐이라고 했다. 권택영 엮음, 민승기 외 역, 《자크 라캉 욕망이론》(서울: 文藝出版社, 2005), 11쪽.

56) 韓邦慶 著, 《海上花列傳》(북경: 人民文學出版社, 1999), 239-240쪽.

57) 秀英道耐教我來白相相, 我一塊勿曾去, 耐倒就要轉去哉, 勿成功!“二寶央及道價末再白相一日天阿好? 秀英道白相仔一日天再說. 洪氏只得依從. 위의 책,

張秀英은 趙二寶를 계속 상해에 머물게 할 작정이다. 그녀는 그동안 趙二寶가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을 만큼 화려한 상해를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張秀英은 趙二寶의 환심을 사기 위해 施瑞生이라는 젊은 남자와 암묵적으로 계획을 짠다. 그들은 마차를 타고 明園으로 놀러가고, 대관원에 가서 공연을 보기도 한다. 또한 施瑞生은 趙二寶에게 과일을 사다 주고, 향수를 선물하며 趙二寶를 유혹한다. 趙二寶는 금세 비파소리, 인력거 소리로 번잡하고 화려한 거리를 좋아하게 되고 특히 기녀들의 의상과 장신구를 감상하는 동안 세련되고 화려한 기녀들의 외형을 동경하게 된다. 결국 趙二寶는 상해의 화려함에 현혹당하여 ‘상해라는 함정’<sup>58)</sup>에 빠지게 된다. 이후 기녀가 된 趙二寶는 史天然을 만나면서 그의 정실부인이 되기를 꿈꾼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겠다는 史天然은 소식이 없다. 그 사이 趙二寶가 혼인을 위해 준비한 혼수품 비용은 모두 빚으로 남게 되어 다시 손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녀를 압박한다. 특히 嫖客 중 난봉꾼으로 소문이 난 ‘자라머리’라는 별명을 가진 賴公子는 趙二寶의 방안의 모든 물건들을 모두 부숴버린다.

이 賴公子가 가장 즐겨하는 게 방안의 물건을 다 부수는 것이다. 그는 하나도 남김없이 부숴버렸다.……방안에는 부서진 물건들로 어지럽게 널려 있어 발 디딜 곳조차 없었다. 침대, 의자, 옷장은 모두 여기 저기 내려앉고 부서졌다. 두 개의 가스등만 정중앙에 고스란히 걸려 있을 뿐이다.<sup>59)</sup>

賴公子의 횡포는 사면초가에 몰려 있는 趙二寶에게 더욱 잔혹한 상황으로 몰고 갔다. 잔인하게 짓밟힌 趙二寶의 처지는 바로 잘게 부서져 낭자하게 흐트러져 있는 물건처럼 참혹하다. 이제 趙二寶에게는 병상에 누워있는 모친 洪氏와 무능한 오빠 趙朴齋 뿐이다. 오직 희망이라면 史

241쪽.

58) 齊韻叟가 ‘상해 이곳은 함정과 같아! 발이 걸려 넘어진 사람이 많아!’라고 탄식하였다.(齊韻叟長歎道“上海個場花，賽過是陷阱，跌下去個人勿少!”) 위의 책, 325쪽.

59) 這賴公子所最喜的是打房間，他的打法極其利害，如有一物不破損者……房間裏七橫八堅，無路人腳。連床榻櫥櫃之類也打得東倒西歪，南穿北漏。只有兩架保險燈晶瑩如故，掛在中央。 위의 책, 550쪽.

天然이 그녀를 찾아와 구원해주는 것이지만, 그녀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하늘에도 길이 없고 땅에도 문이 없다.’<sup>60)</sup> 趙二寶는 그런 절망감에 좌절하고 비관하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침대에 쓰러진다.

갑자기 골목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려 왔다. 대문을 두들기는 소리는 하늘이 떠나갈 듯했다. 朴齋가 달려와 알렸다. “큰일 났어, 자라머리가 왔어!” …… 그러나 7, 8명의 집사들이 이층에 몰려 있었다. 그들은 이보를 보자 절을 하고 웃는 낯으로 아리었다. “사삼공자가 양주지부가 되셨습니다. 둘째 아가씨를 어서 모시고 오시랍니다.” …… 모친 洪氏는 머리에 봉황관을 쓰고, 황금색이무기가 수놓은 예복을 입고 웃으며 ‘二寶야’ 하고 불렀다. “내가 말했잖니, 삼공자는 약속을 어길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너를 데리러 왔잖아.” “엄마, 내가 삼공자 집에 가더라도 앞전 일은 절대 말하면 안 돼.” 洪氏는 고개를 끄덕였다. …… “秀英아가씨가 축하하러 왔어요.” 二寶는 의아했다. “누가 알렸지, 전보보다 더 빠르게?” 二寶가 막 그녀를 맞이하려 나가려는데 張秀英이 벌써 눈앞에 와 있었다. 二寶는 웃으며 앉으라고 했다. 秀英이 갑자기 물었다. “너 잘 차려 입고 마차 타러 가니?” “아니, 사삼공자가 나를 데리러 왔어.” “무슨 소리야! 사삼공자는 한참 전에 죽었어. 너 몰랐니?” 二寶는 잠시 생각해보더니, 사삼공자가 정말 죽은 것 같았다. 막 집사들에게 물으려고 하는데, 그 7,8명의 사람은 요괴로 바뀌어 앞으로 달려왔다. 二寶는 놀라 소리를 지르다 깨어났다.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고, 심장 박동은 멈추지 않았다.<sup>61)</sup>

위의 인용문은 《海上花列傳》의 마지막 장면이다. 그녀의 꿈은 애매한 경계에서 시작한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자라머리가 왔다는 박재

60) 上天无路, 入地无门 위의 책, 551쪽.

61) 忽聽得弄堂裏人聲嘈嘈, 敲的大門震天價響. 樸齋飛奔報道勿好哉, 癩頭寵啣來哉! ……只見七八個管家擁到樓上, 見了二寶, 卻打個千, 陪笑稟道史三公子做仔揚州知府哉, 請二小姐快點去. ……只見母親洪氏頭戴鳳冠, 身穿蟒服, 笑嘻嘻叫聲“二寶”, 說道我說三公子個人陸裏會差, 故歇阿是來請倪哉? 二寶道無, 倪到仔三公子屋裏, 先起頭事體去說起. 洪氏連連點頭. ……報道秀英小姐來道喜哉. 二寶詫道啥人去撥個信, 比仔電報再要快! 室正要迎接, 只見張秀英已在面前. 二寶含笑讓坐, 秀英忽問道“耐著好仔衣裳, 阿是去坐馬車?” 二寶道勿是, 史三公子請倪去呀.” 秀英道“阿要瞎說! 史三公子死仔長遠哉, 耐啥勿會曉得?” 二寶一想, 似乎史三公子真個已死. 正要盤問管家, 只見那七八個管家變作鬼怪, 前來擺撲. 嚇得二寶極聲一嚷, 驚醒回來, 冷汗通身, 心跳不止. 위의 책, 552쪽.



의 전갈부분에서는 꿈인지 실재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자라머리가 아니고, 史天然이 보낸 집사들이라는 부분에서, 모친 洪氏의 옷차림에서 독자는 꿈임을 확신하게 된다. 그러다 張秀英의 등장과 史天然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張秀英의 말, 그리고 趙二寶가 생각하는 장면에서 또 다시 꿈과 실재를 착각하게 한다. 이와 같이 趙二寶의 꿈은 현실에서의 악몽에서 구원의 꿈으로, 다시 좌절의 꿈으로 채워져 있다. 현실의 악몽을 구원해주는 꿈에서 좌절로 이어지는 꿈은 趙二寶를 더욱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한다.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고, 심장 박동이 끊이지 않는’ 그 찰나의 순간 趙二寶와 작가와 그리고 독자는 욕망의 도시 상해가 악몽의 공간임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소설은 花也憐儂의 꿈 ‘花海’에서 시작되어 趙二寶의 악몽으로 끝이 난다. 趙二寶 앞날에 대해 작가는 함구한다. 꿈의 경계가 모호하듯 현실 역시 예측할 수 없다. 趙二寶가 악몽에서 깨어났을 때 고향 蘇州였다면 南柯一夢 식의 교훈을 안겨주겠지만, 작가는 大團圓식의 중국 전통 소설의 일반적인 구성을 답습하지 않는다. 다만 모든 것은 독자에게 과제로 남겨진다. 이것은 작가의 근대적인 글쓰기 모색이기도 하며, 趙二寶를 통해 전통적인 의식-정실부인이 되겠다는 희망-과 근대적 도시 공간에서의 불협화음을 보여주고자 함인지도 모른다. 이 불협화음은 소설의 주체이자 나아가 근대 주체의 비운을 상징하듯 죽음과 악몽으로 귀결시킨다.

## 5. 결론

소설계혁명보다 10년 앞선 晚淸시기의 《海上花列傳》은 중국소설사에 있어 과도기적인 위치에 있다. 晚淸시기의 소설은 고전소설, 전통소설, 신소설 어느 용어도 적합하지 않다. 이는 晚淸소설의 혼시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晚淸시기에 쏟아져 나온 엄청난 양의 소설은 문학적인 수준을 보장해주지 못한 까닭도 있다. 그러나 《海上花列傳》은 《紅樓夢》의 아류작에서 벗어난 최초의 도시소설이었다. 근대도시를 배경으로 한 소설은 《海上花列傳》에서 시작되었고, 또한 최초의 연재소설이라는 사명감과 함께 신문 매체에 적합하게 구성하기 위해 변화를

시도한 최초의 소설이기도 하다. 이 외적인 변화 외에 《海上花列傳》의 독해로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근대성에 대한 탐구이다.

嫖客들 즉 남성을 통해서 본 근대성은 가부장적 구조의 와해와 그 대신 형제애로의 대체, 그리고 전통 교육의 몰락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妓女들 즉 여성을 통해서 ‘상품화’된 근대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계와의 부조화, 괴리, 단절에서 빚어지는 병리적인 인물의 비극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소고는 晚淸시기의 소설에서 신소설로 나아가는 중국 소설사의 간극을 채우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참고문헌]

- 韓邦慶 著, 《海上花列傳》(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9)
- 韓邦慶 著, 張愛玲 譯註, 《海上花開》(哈爾濱: 哈爾濱出版社, 2003)
- 曹雪芹/高鶚 著, 《紅樓夢》(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2),
- 리타 펠스키 著, 김영찬 외 역, 《근대성과 페미니즘-페미니즘으로 다시 읽는 근대》(서울: 거름, 1999)
- 賀蕭 著, 韓敏中, 盛寧 譯, 《危險的愉悅: 20世紀上海的娼妓問題與現代性》(南京: 江蘇人民出版社, 2003)
- Christian Henriot 著, 袁變銘/夏俊霞 譯, 《上海妓女: 19-20世紀中國的賣淫與性》(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1)
- 이수영 著, 《씩썬얼리티와 광기》(서울: 그린비, 2008)
- 袁進 著, 《中國文學의近代變革》(廣西: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6)
- 《現代中國 第七集》(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6)
- 王德威 著, 宋偉杰 譯, 《被壓抑的現代性-晚淸小說新論》(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5)
- 마샬 버만 著, 윤호병 외 역, 《현대성의 경험-견고한 모든 것은 대기 속에 녹아버린다》(서울: 현대미학사, 1995)
- 이마무라 히토시 著, 이수정 譯, 《근대성의 구조》(서울: 민음사, 1999)

김학주 저, 〈中國文學史에 있어서의 「고대」와 「근대」〉, 《中國語文論叢》  
15(1998)

溝口雄三, 〈中國의 近世와 近代에 대하여〉, 《명청사연구》 1

### 〈Abstract〉

I tried to examine modernity described in the novel 《The biographies of HaiShangHua》 by Bangqing Han in 1892. This novel was a serial story in a novel magazine 《Strange Book of Hai Shang》 from January, 1892 to October, 1892. This novel shows the life of the gisaengs who prostitute her talents or herself in the later 19th century of Shanghai. I divided the character of the novel into the male and female, or the customer and gisaeng. Then through the gender's division, we can find out the late 19 century of modernity. First, through the male, we can know the erosion of traditional family system and traditional education. Second, through the female, we know that a gisaeng is a subject of consumption as well as a object of it, or a circuit of consumption. Also, through Sufang Li's death, and Erbao Zhao's nightmare, we know that her dream couldn't be realized in her times, as a result, one of them dies from it, the other suffers from it.

**Key Words:** 《The biographies of HaiShangHua》, modernity, Shanghai, modern city, gisaeng, Han Bangqing

투 고 일 : 2009.2.17

심 사 일 : 2009.3.10-3.30

게재확정일 : 2009.4.25

# 일본 근대시대 물리학교 출신의 영광과 좌절 고찰\*

—나쓰메 소세키의 《도련님》을 중심으로—

권혁건\*\*·신윤주\*\*\*

## 〈목 차〉

1. 서론
2. 선행연구
3. 물리학교 입학
4. 물리학교 출신의 영광
5. 학벌의 위력과 붓장의 좌절
6. 결론

## 1. 서론

1905년(明治38) 1월 등단<sup>1)</sup>하면서부터 문단의 주목을 받은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1867-1916)는 1906년(明治39) 4월에 잡지 《호토토기스(ホトトギス)》에 《도련님(坊っちゃん)》을 발표했다. 이 작품은 1907년(明治40) 1월 《풀베개(草枕)》, 《이백십일(二百十日)》과 함께 《우즈라카고(鶉籠)》에 수록되어 춘양당(春陽堂)에서 간행되었다.

《도련님》이 발표되었던 당시의 일본은 1904년부터 1905년 사이에 한국과 만주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싸고 벌여졌던 러일전쟁이 막 끝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중대한 전환기에 있었던 시대였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사회는 높아진 기업 창업 열기에 부추임 당해 기업의 주가는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23-A00011)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교수(kwon6134@hanmail.net)

\*\*\* 동의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의전담 교수(98af074@hanmail.net)

1) 나쓰메 소세키가 정식으로 문단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나는 고양이로소이다(吾輩は猫である)》를 발표하면서부터임.

계속 오르고 사람의 마음은 교활하게 금전만능 내지 배금주의로 달려갔다. 많은 사람들이 출세주의를 인생의 목표로 삼게 되었고 새로운 금융 자본주의가 싹트기 시작했으며 일본 근대소설도 성립을 보려고 한 시기였다.<sup>2)</sup>

《도련님》에는 등장인물의 이름이 별명으로 묘사되거나 이름이 묘사되었다라든가 성과 이름이 분명치 않게 그려져 있는 특징이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을 열거해 보면 주인공인 붓짱(坊っちゃん)과 부 주인공 처럼 묘사된 하녀 기요(清), 시코쿠에 있는 어느 중학교의 교장선생인 다누키(狸), 유일하게 문학사 출신이자 교감선생인 아카샤쓰(赤シャツ), 본명이 요시카와(吉川)이자 미술 선생인 노다이코(野だいこ), 본명이 고가(古賀)이고 영어 선생이자 이 지역 최고의 미인인 마돈나의 약혼자였던 우라나리(うらなり), 수학 주임교사로 본명이 훗타(堀田)인 야마아라시(山あらし) 등이 등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특별히 설명할 때를 제외하고는 주인공들의 이름을 붓짱·기요·다누키·아카샤쓰·노다이코·우라나리·야마아라시·마돈나 등으로 통일하여 표기하겠다.

본고에서는 《도련님》을 정독하는 과정을 거쳐, 먼저 일본의 근대시대에 탄생된 붓짱의 출신학교인 물리학교(物理學校)의 설립과정, 교육내용, 낙제제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텍스트에 나타난 물리학교 출신의 영광과 좌절하는 과정을 당시의 일본 근대 교육제도, 학제·교육령 공포, 제국대학령 공포, 학벌에 의한 급료체계 정착, 제국대학 출신의 학벌 귀족 탄생 등을 포함한 사회제도를 집중적으로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을 통해 나름대로 독창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

## 2. 선행연구

《도련님》은 나쓰메 소세키의 작품 가운데 일본을 비롯한 외국에서도 폭넓은 독자층을 형성하여 애독되고 있는 작품이며, 국내에서는 서

2) 권혁건 저, 《나쓰메 소세키 생애와 작품》(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228-229쪽.

울대학교가 필독 도서로 선정한 일본 근대문학 작품이다. 하지만 작품이 발표되고 난 이후 상당한 시일 동안 《도련님》은 중학생 정도의 학생이 읽을거리 밖에 평가받지 못했다. 혹은 명쾌한 주제와 단순한 구조 때문에 1960년대까지는 연구의 대상으로 응시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sup>3)</sup>

히라오카 토시오(平岡敏夫) 씨는 〈《붓짱》 시론 -고비나타의 요겐지-〉 라는 논문을 통해, 붓짱과 기요의 애정은 단순한 하녀와 도련님과 관계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깊이와 절대적인 신앙과 같은 것, 혹은 이성간의 애정을 느끼게 한다는 주목되는論을 발표했다.<sup>4)</sup>

권혁건 씨는 나쓰메 소세키는 《도련님》을 통해 「금전의 위력과 가공할 힘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지배 관계를 만들어 내는데 작용하고, 서로 정(情)을 나누며 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금전의 증여(贈与)는 인간의 마음을 약하게 하기도 하고 애석하게 만들기도 하며 인간 상호간의 마음의 교류를 가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 했다」고 논했다.<sup>5)</sup>

이제까지 발표된 선행 연구물 가운데 일본의 근대사회 실태, 근대교육의 성립, 학제 공포, 제국대학 설립, 학벌의 위력 등의 점검을 통해, 일본 근대시대 물리학교 출신의 영광과 좌절을 나쓰메 소세키 작품 《도련님》을 중심으로 해서 고찰한 연구는 발견하지 못했다.

### 3. 물리학교 입학

#### 3.1. 6백엔의 사용방법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6년째 되던 해의 정월에 아버지도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다. 그해 4월에 붓짱은 〈어떤 사립중학교(私立中學校)를 졸업했다.〉<sup>6)</sup>

3) 平岡敏夫, 《《坊っちゃん》の世界》(東京: 塙書房, 1992), 192쪽.

4) 平岡敏夫, 《漱石序説》(東京: 塙書房, 1976), 82쪽, 102쪽.

5) 권혁건 저, 〈나쓰메 소세키의 《도련님(坊っちゃん)》에 나타난 금전의 의미와 역할〉,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와 한국》(서울: 제이앤씨, 2004), 175쪽.

형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집과 재산을 정리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집이 남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이 매우 억울했지만 차남으로 태어난 붓짱으로서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는 형편이었다. 메이지시대의 일본의 민법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은 장남 혼자의 상속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sup>7)</sup>

메이지시대의 일본의 민법을 고려해 보면 차남으로 태어난 붓짱이 상속 재산을 받고 싶었다고 해도, 유산으로 받은 집과 재산을 정리한 형이 주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형은 도쿄에서 큐슈로 떠나기 이틀 전에 붓짱의 하숙으로 찾아와서 돈 6백엔을 내놓으며, 이 돈을 자본으로 해서 장사를 하든지, 학비로 삼아 공부를 하든지, 어떻게든 마음대로 써라고 말하면서 그 대신 앞으로는 돌보아 줄 수 없다고 했다. 형이 하는 일 치고는 제법이다. 그까짓 6백엔쯤 받지 않아도 곤란할 게 없다고 생각했으나, 보통 때와 다른 담백한 처사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사의를 표하고 받아 두었다.<sup>8)</sup>

붓짱은 형으로부터 유산 형식으로 받은 6백엔을 가지고, 「장사를 할까. 공부를 할까」로 망설인다. 그는 6백엔을 밀천으로 장사를 하려고도 생각해 보았으나,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게다가 6백엔의 밀천으로는 장사다운 장사를 못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효용 가치와 교육을 받고 난 다음 남에게 인정받는 효용 가치,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판단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던 것이다.

6백엔을 학비로 삼아 1년에 2백엔씩 쓰며 3년간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붓짱은 물리학교(物理學校) 앞을 지나가다가 학생 모집 광고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이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입학 원서를 얻어다가 입학 수속을 해 버렸다.

붓짱이 6백엔이라는 자신의 전 재산을 학자금으로 삼아 공부를 하려

6) 텍스트(1), 247쪽. 이 논문에서 사용된 텍스트는 〈夏目漱石〉, 《漱石全集·第二卷》(東京: 岩波書店, 1966)이다. 뒤따르게 될 텍스트 인용은 여기서처럼 텍스트(1), 247쪽과 같이 논문 속에 각주로 간략히 표기하겠다.

7) 平岡敏夫, 《漱石研究》(東京: 有精堂, 1987), 108쪽.

8) 텍스트(1), 249쪽.

고 했던 것은 학교에 자본을 투자해서 사회가 요구하는 학력인 졸업장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다카기 후미오(高木文雄)씨는 명치시대 이후 지극히 공리적(功利的)인 교육관이 작품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up>9)</sup>

### 3.2. 학제·교육령 공포

일본이 근대적 교육제도의 성격을 갖추게 된 것은 1868년(明治元年) 메이지유신 이후부터이다. 메이지 정부는 인재 육성과 학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1871년(明治4) 문부성(文部省)을 설치했다. 문부성은 이듬해인 1872년(明治5) 입신출세, 실학, 교육의 기회 균등이라는 교육 이념 아래, 일본 최초의 근대적 학교 교육 법규인 학제를 공포했다.

학제 공포는 메이지 정부에 의한 위로부터의 개명정책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학제는 전국을 8대학구로 나누고, 각 대학구는 32중학구로, 각 중학구는 210초등학구로 나누어 피라미드형 학구(學區) 제도를 확립했다. 이 제도는 전국에 8대학, 256중학, 5만 3760개의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계획으로 프랑스의 학제를 모방하고 미국의 교육 사상을 가미한 것이었다.<sup>10)</sup>

그런데 지방의 각 지역에서는 이 시기에 메이지 신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하여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당시 일본 국민들 가운데는 <이 바쁜 때에 아이를 학교에 보낼 것인가>, <학교를 세우는 돈이다, 이번에는 수업료다, 학교는 몹시 돈이 들어가 감당할 수가 없다>, <학교를 허물어 버리겠다> 등 신정부의 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1877년(明治10)경까지 일본 각 지역에서 일어났다.<sup>11)</sup>

이에 메이지 정부는 1879년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학제를 폐지하고 교육령을 제정하여 제도를 현실에 맞추려고 했다. 하지만 1880년(明治23) 개정교육령 이후 오히려 교육행정의 강제적 요소가 강화되고, 통제

9) 高木文雄 著, 《漱石作品の内と外》(東京: 和泉書院, 1994), 88쪽.

10) 박경희 저,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일본사》(서울: 일빛, 2001), 387-388쪽.

11) 史教育者協議會 編, 《人物でたどる日本の歴史近代》(東京: 岩崎書店, 1995), 27쪽.



가 강화되어 교육목적도 급속히 국가주의화 되었다.

메이지시대 말기와 다이쇼시대 초기에 학교제도는 초등학교(小學校) 6년, 중학교(中學校) 6년, 전문학교(專門學校) 3년-4년, 고등사범학교(高等師範學校) 4년으로 점차 정착되어 갔다. 대학(大學)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예과(豫科) 2년-3년을 마치고 대학에 들어가 3년-4년간 공부해야 했다. 이 시기에 전문학교(專門學校), 예과(豫科), 대학(大學), 고등초등학교(高等小學校), 고등여학교(高等女學校) 등은 명확하게 교육 연한이 몇 년이라고 정해지지 않고 입학 시기에 따라 1-2년씩 유동적인 면을 보였다.<sup>12)</sup>

### 3.3. 물리학교 설립·발전 과정

1872년(明治5) 학제 공포의 영향에 힘입어 도쿄에 물리학교(物理學校)가 설립된다. 《도련님》의 붓짱이 입학했던 물리학교의 정식 교명은 도쿄물리학교(東京物理學校)였다. 물리학교는 1881년(明治14) 당시 일본에서 유일하게 대학으로 있던 도쿄대학(東京大學) 물리학과 졸업생들인 데라오 히사시(寺尾壽)와 나카무라 기요오(中村精男) 등이 <리학(理學)의 보급이야말로 국운발전의 기초가 된다> 라는 높은 이상과 취지를 갖고 도쿄물리학강습소(東京物理学講習所) 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야간부 학교였다.<sup>13)</sup>

도쿄물리학강습소가 설립된지 2년 후인 1883년(明治16)에 도쿄물리학교(東京物理學校)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도쿄물리학교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인 1949년(昭和24)에 학제개혁에 의해 도쿄이과대학(東京理科大学)으로 개명되었다. 도쿄물리학교는 물리학·수학을 중심으로 중등학교 교원 양성에 힘써 1917년(大正6) 전문학교령에 의해 전문학교로 인가를 받았다.<sup>14)</sup>

도쿄물리학교의 세 번째 교장선생인 나카무라 교헤이(中村恭平)는 나

12) 竹内洋著, 《日本近代12.學歷貴族の榮光と挫折》(東京:中央公論新社, 1999), 26-28쪽.

13) 場鍊成 著, 《物理學校近代史のなかの理科學生》(東京:中央公論新社, 2006), 11-17쪽.

14) 下中弘 著, 《日本史大事典·第5卷》(東京:平凡社, 1997), 46-47쪽.

쓰메 소세키가 도쿄제국대학 영문학과 강사로 있을 때, 도쿄제국대학 조교수 겸 학생감으로 도쿄제국대학 야마카와 켄지로(山川健次郎) 총장의 비서로 근무했다. 당시 학교 근처 혼고(本郷)네 살았던 나카무라 교헤이는 근처에 살고 있는 나쓰메 소세키와 친하게 지냈다.<sup>15)</sup> 《도련님》의 주인공 붓짱이 물리학교 출신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연유로 인해 탄생된 것이다.

## 4. 물리학교 출신의 영광

### 4.1. 물리학교와 낙제

붓짱이 물리학교 앞을 지나가다가 학생 모집 광고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입학 원서를 얻어다가 입학 수속을 했다는 것만 읽어서는 물리학교가 실력이 없더라도 아무나 돈만 가지고 가면 입학할 수 있는 삼류학교, 혹은 현재의 학원과 같은 곳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당시 물리학교는 나쓰메 소세키가 《도련님》에서 묘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입학시험을 치지 않고 들어 갈 수 있는 학교였다. 하지만 입학하는 학생은 상당한 지식과 학자금을 준비해야만 했다.<sup>16)</sup>

붓짱은 시험도 안치고 수월하게 물리학교에 입학하여, 성적이 나쁜 상태로 3년간 학교를 다니자 그냥 졸업하라고 해서 불평하지 않고 졸업해 버린다.<sup>17)</sup> 즉, 쉽게 물리학교에 입학한 붓짱이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낙제하지 않고 진급하여 시간이 지나자 졸업하라고 해서 졸업해 버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도쿄물리학교는 일본 전국에서 각 지역의 수재들이 지원하는 학교였다.<sup>18)</sup> 입학은 비교적 쉬운 대신 진급하고 졸업하는 것이 상

---

15) <http://www.sut.ac.jp/>

16) 馬場鍊成 著, 《物理學校近代史のなかの理科學生》(東京: 中央公論新社, 2006), 44쪽.

17) 텍스트(1), 250쪽.

18) 馬場鍊成 著, 《物理學校近代史のなかの理科學生》(東京: 中央公論新社, 2006), 18쪽.

당히 어려웠다. 쉽게 졸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물리학교는 더욱 유명해졌고, 졸업생들은 사회에서 중급 엘리트로 평가받았다.<sup>19)</sup>

《도련님》에서 기요가 금년 2월에 폐렴으로 죽었다<sup>20)</sup>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현재는 작품이 발표된 1906년(明治39) 2월이다. 그렇다면 도쿄물리학교는 2월과 9월에 학생을 입학시켜, 2월과 7월에 졸업생을 배출했으므로, 작품 내용에서 붓짱이 졸업한 시기가 여름인 것을 고려해보면 졸업한 해는 1905년(明治38) 7월이다. 붓짱이 도쿄물리학교를 입학한 해는 3년 전인 1902년(明治35) 9월이 되는 것이다.

도쿄물리학교50년소사(東京物理學校50年小史)의 학생년표(生徒年表)에 의하면 붓짱이 입학한 1902년(明治35) 9월에 입학한 학생은 203명이었다. 그것이 1903년(明治36) 2월에 2학기가 되었을 때는 132명으로 줄고, 9월 3학기가 되었을 때는 69명, 1904년(明治37) 2월 4학기가 되었을 때는 48명, 9월 5학기가 되었을 때는 28명, 1905년(明治38) 2월 6학기가 되었을 때는 26명으로 감소하고, 1905년(明治38) 7월 제38회 생으로서 졸업이 가능했던 학생은 불과 25명에 지나지 않았다.<sup>21)</sup> 즉, 붓짱이 도쿄물리학교를 입학했던 시기에 203명이 입학했으나 3년 뒤에 졸업한 학생은 25명에 지나지 않았다. 입학생이 낙제하지 않고 졸업하는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대체로 메이지시대 당시 물리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하는 사람은 10% 이내로 대단히 엄격했다. 당시 물리학교 학기시험은 매우 어려웠고, 같은 학급에서 2회 연속으로 낙제를 하면 제적 처분이 내려졌다.<sup>22)</sup>

위와 같은 엄격한 학칙을 적용하고 있던 물리학교를 붓짱이 단 한 번의 낙제도 없이 순조롭게 졸업했다는 것은 대단히 머리가 좋고 학력이 우수했던 수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쓰메 소세키는 당시 물리

19) 小野一成 著, 〈坊っちゃん〉の學歷をめぐって-明治後期における中・下級エリートについての一考察-, 片岡豊·小森陽一 編, 《漱石作品論集成・第二卷》(東京: 桜楓社, 1990), 120쪽.

20) 텍스트(11), 382쪽.

21) 小野一成 著, 〈坊っちゃん〉の學歷をめぐって-明治後期における中・下級エリートについての一考察-, 片岡豊·小森陽一 編, 《漱石作品論集成・第二卷》(東京: 桜楓社, 1990), 121쪽.

22) 馬場鍊成 著, 《物理學校近代史のなかの理科學生》(東京: 中央公論新社, 2006), 148쪽, 175쪽.

학교의 입학은 쉬운 대신 진급하고 졸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을 정반대로 작품에 묘사했던 것이다. 그것은 작자의 「장난기어린 마음, 의도된 유머」<sup>23)</sup> 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일본인 특유의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어 말하는 표현방법이 숨어 있다고 생각한다.

#### 4.2. 물리학교 출신의 대우

물리학교를 졸업한 후 팔일 째 되는 날에 교장에게 불려서 가보았더니, 시코쿠(四國) 지방에 있는 어떤 중학교에 수학 교사가 필요한데 월급은 40엔이라고 하며 갈 생각이 없느냐고 묻는다. 붓짱은 교사 이외에 무엇을 하겠다는 목표도 없었으므로 교장으로부터 교사취직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겠다고 즉석에서 대답했다. 붓짱은 물리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중학교의 수학교사로 취직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물리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학교와 사범학교의 교사가 되었다. 메이지시대 말기에 있어서 「물리학교출신」이라는 사회적 지위는 훌륭한 중급 엘리트로 인식되었다. 붓짱이 졸업해서 교장의 추천으로 바로 중학 교사로 된 것은 물리학교에 대한 사회적 신용이 있었기 때문이다.<sup>24)</sup>

1908년(明治41) 도쿄제국대학을 졸업하여 스미토모총본점(住友總本店)에 입사한 사람의 초임이 40엔이었다. 도쿄부립제3중학교(東京府立第三中學校)의 최초의 교장연봉이 1,000엔(월액 83엔), 교원 16명의 월급평균 37엔, 서기 3명 월급평균 18엔이었다. 1900년~1904년 경의 도쿄시내의 초등학교 교원과 경시청(警視廳) 순사의 월급도 10~13엔 정도였다.<sup>25)</sup>

위와 같은 것을 고려해 보면 붓짱이 물리학교에서 3년간 공부하여 졸업하고 시코쿠 지방에 있는 어떤 중학교에 수학 교사로 취직을 하여

23) 위의 책, 213쪽.

24) 小野一成 저, 〈坊っちゃん〉の學歷をめぐって-明治後期における中・下級エリートについての一考察-, 片岡豊·小森陽一 編, 《漱石作品論集成・第二卷》(東京: 桜楓社, 1990), 122-123쪽.

25) 위의 논문, 122쪽.

40엔이라고 하는 급료를 받은 것은 파격적인 대우였으며, 그것은 물리 학교 출신의 영광으로 보아 틀리지 않을 것이다.

## 5. 학벌의 위력과 붓짱의 좌절

### 5.1. 제국대학의 탄생과 학벌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 1835-1901) 씨는 일본에 새로운 학제가 정해져 실시되었던 해인 1872년(明治5)에 자신의 생각을 주창한 《학문의 권함(學問のすすめ)》이라는 저서를 간행했다.<sup>26)</sup>

원래 〈인간에게는 상하의 차별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부의 차, 문명과 야만의 차이가 있는 것은 학문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의한 것〉<sup>27)</sup>이라는 내용이 담긴 《학문의 권함》은 당시 일본 국민에게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이후의 시대에도 일본 국민들에게 〈출세를 하기 위해 학문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sup>28)</sup> 《학문의 권함》은 일본 특유의 학벌사회를 만드는 사상적인 토대가 되었다.

메이지정부는 일본 최상위 국립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을 육성할 필요성을 느껴 문부성(文部省) 직할의 제국대학을 설립했다. 초창기 제국대학은 일본 국가가 인정하는 귀족인 고급관리와 교육자 양성에 목적을 두었다.<sup>29)</sup>

도쿄대학의 기원은 1684년에 에도 막부가 설립한 천문방(天文方)과 1858년에 에도의 의사가 사재를 털어 간다(神田)에 설립한 종두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1877년(明治10) 4월 12일에 도쿄가이세이학교(東京開成學校)와 도쿄의학교(東京醫學校)를 합쳐 도쿄대학(東京大學)이 되면서 일본 최초의 근대적 대학으로 설립되었다. 1886년(明治19) 3월 제

26) 川上親孝 編, 《學習人物事典》(東京: 學習研究社, 1995), 382쪽.

27) 福沢諭吉 著, 《學問のすすめ》(東京: 岩波書店, 1996), 11쪽.

28) 出口汪 著, 《早わかり文学史》(東京: 語学春秋社, 1996), 21쪽.

29) 馬場鍊成 著, 《物理學校近代史のなかの理科學生》(東京: 中央公論新社, 2006), 92-93쪽, 148쪽.

국대학령에 의하여 제국대학으로 개칭되었고, 1897년(明治30) 6월 교토제국대학(京都帝國大學:현재의 교토대학)의 설립으로 도쿄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현재의 도쿄대학)으로 개칭되었다.<sup>30)</sup>

이어 1907년(明治40)에는 동북제국대학(東北帝國大學:현재의 도호쿠대학)이, 1911년(明治44)에는 구주제국대학(九州帝國大學:현재의 규슈대학)이, 1918년(大正7)에는 북해도제국대학(北海島帝國大學:현재의 홋카이도대학)이 잇따라 설립되었다.

이 당시에 설립된 국립 제국대학의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와 일본을 대표하는 명문대학으로 자리 잡았고, 이른바 제국대학 출신은 일본의 엘리트라는 자부심과 일본의 독특한 학벌사회를 만드는데 일등 공신을 했다.

## 5.2. 아카샤쓰 권위와 도쿄제국대학

붓짱이 도쿄에서 물리학교를 졸업하고 시코쿠에 있는 어느 중학교의 수학 선생으로 부임하는데, 이 중학교에는 교장 선생인 다누키(狸)와 교감 선생인 아카샤쓰(赤シャツ)가 있다.

아카샤쓰는 이 학교에 유일한 문학사(文學士)이다. 1905년(明治38)에 일본에서 <문학사라고 하면 대학 졸업생><sup>31)</sup>을 가르키는 것이다. 아카샤쓰는 문학사답게 당시 시코쿠라는 시골에서 아주 드물게 1895년(明治28) 1월에 창간된 도쿄제국대학 문과 관계 기관지인 《제국문학(帝國文學)》<sup>32)</sup>을 구독하여 소중하게 읽고 있다.

중학교의 교사는 대부분 번갈아 가면서 숙직을 하고 있으나 교장 선생인 다누키와 교감 선생인 아카샤쓰는 예외이다. 이 두 사람은 당시 고급관리인 주임관(奏任官) 대우이기 때문에 숙직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다. 붓짱은 이 두 사람이 숙직을 안 하는 것을 아주 불쾌하게 생각한다. <월급은 많이 받지, 수업은 적게 맡고, 거기다 숙직을 면하다니 그

30) 竹内洋, 《日本近代12.學歴貴族の榮光と挫折》(東京: 中央公論新社, 1999), 62-64쪽.

31) 텍스트(2), 257쪽.

32) 텍스트(5), 287쪽, 註解 916쪽.

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있담> 33) 하고 불평을 제기하며 투덜댄다.

야마아라시는 수업은 적게 맡고 숙직을 안 하는 아카샤쓰를 <강자의 권리(强者の權利)> 34) 라고 설명하지만 붓짱은 아카샤쓰를 강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물리학교 출신 신입교사 붓짱이 제국대학 출신으로 현재 교감으로 있는 아카샤쓰의 권위, 학교경영 권리, 교감의 행정업무 부담 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카샤쓰는 중학교에서 행정의 권력을 쥐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월급을 많이> 35) 받고 있다. 아카샤쓰가 월급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학문적 실력도 있지만 그가 유일하게 문학사 출신인 대학졸업자이기 때문이다.

1905년(明治38) 경에는 일본 도쿄에서 대학을 나왔다고 하면 도쿄제국대학 뿐이었다. 도쿄제국대학 문과 관계의 기관지인 《제국문학(帝國文學)》을 읽고 있는 것과 아카샤쓰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아카샤쓰는 도쿄제국대학 출신인 것이다.

일본의 근대시대에 제국대학을 졸업하는 학생 가운데 각 학과별로 최우수로 졸업하는 학생에게는 일본천황으로부터 은시계(銀時計)를 하사받았다. 당시시대에 살아있는 신(神)으로 통했던 천황으로부터 은시계를 하사받는 제국대학 졸업생이라면 일본 내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았을 것인가에 대하여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일본의 국민들이 어째서 자녀들을 제국대학에 입학시키려고 몸부림 쳤던 것일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들어보면 제국대학령이 발표된 이후 1887년(明治20) 7월 23일에 <문관시험시보 및 견습규칙>이 공포되었는데, 고급 관리인 주임관(奏任官)은 고등시험을 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제국대학(도쿄제국대학) 법학부와 문학부 출신은 고등시험(高等試驗)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예외 규정이 생겨, 제국대학 출신자는 대학을 졸업하는 것으로 일본의 고급관리가 될 수 있었다.<sup>36)</sup>

33) 텍스트(4), 270쪽.

34) 텍스트(4), 270쪽.

35) 텍스트(7), 317쪽.

36) 竹内洋 著, 《日本近代12.學歴貴族の榮光と挫折》(東京: 中央公論新社, 1999),

제국대학 출신은 고급관리와 교원 임용뿐만 아니라 회사원, 은행원, 민간 기업에 이르기까지 압도적인 혜택과 지위를 인정받았다. 1919년(大正8)에 미쓰이광업(三井菱鑛業)의 초임금(初賃金) 차이를 살펴보면, 제국대학 공과 출신이 50엔, 도쿄고상(東京高商) 출신 40엔, 게이오기주쿠(현재 게이오대학)과 도쿄전문학교(현재 와세다대학) 출신 30엔, 현립상공(懸立商工) 출신 18엔 등으로 학력에 의해 임금이 차별되어 지급되었다.<sup>37)</sup>

1895년(明治28) 초에 시코쿠(四国) 마쓰야마중학교(松山中學校)에서는 만약 나쓰메 소세키가 마쓰야마에 온다면 월급을 교장보다도 더 많이 준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당시 마쓰야마중학교의 교장 선생의 월급이 60엔이었지만 나쓰메 소세키에게는 80엔을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던 것이다.<sup>38)</sup> 마쓰야마중학교에서 교장 선생의 월급보다 더 많은 월급을 주면서 28세 밖에 안 된 나쓰메 소세키를 파격적으로 채용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가 도쿄제국대학 영문과를 나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 사항 가운데 하나였다.<sup>39)</sup>

피차별(被差別) 부락민(部落民) 출신의 청년 교사 세가와 우시마쓰(瀬川丑松)가 주위의 무지, 인습과 싸우는 비극을 그린 작품 《파계(破戒)》(1906)를 발표하여 일본 자연주의를 대표하는 작가로 인정받고 있는 시마자키 토손(島崎藤村, 1872-1943)은 1891년(明治24) 메이지학원(明治学院, 현재 메이지학원대학)을 제1회로 졸업했다. 그가 메이지학원을 졸업한 이후 1896년(明治29) 센다이(仙台)에 있는 도호쿠학원(東北学院, 현재의 도호쿠학원대학) 교사로 채용되었을 당시 받았던 급료가 25엔이었다.<sup>40)</sup>

시마자키 토손(島崎藤村)은 메이지학원(明治学院)을 졸업하고 도호쿠학원(東北学院) 교사로 채용되어 25엔을 받았다. 하지만 도쿄제국대학을 졸업한 나쓰메 소세키는 마쓰야마중학교 교사로 취직하여 80엔을

66-67쪽.

37) 위의 책, 70-71쪽.

38) 荒正人 著, 《評傳夏目漱石》(東京: 實業之日本社, 1970), 30-31쪽.

39) 권혁진 著, 《나쓰메 소세키 생애와 작품》(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92-93쪽.

40) <http://homepage3.nifty.com/~sirakawa/Coin/J045.htm>



받았던 것이다. 도쿄제국대학을 졸업한 나쓰메 소세키가 중학교 교사로 취직하여 받았던 80엔은 메이지학원을 졸업한 시마자키 토손이 도호쿠학원의 교사로 취직하여 받은 25엔의 3배 이상의 급료에 해당된다.

일본 근대시대에는 제국대학을 졸업하기만 하면 취업이 보장되며 급료를 많이 받고, 사회에서 고급 관리, 관리직으로 인정받았다. 메이지 정부는 학벌(學閥)에 의한 급료의 차이, 신분의 벽 등을 만들어 제국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열등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었던 것이다.

도쿄제국대학 출신의 고액 급료 지급과 초고속 승진 등은 교직세계에도 학벌에 의해 권력화 되어가는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을 《도련님》을 통해 엿볼 수 있다. 더욱이 교직사회에서 권위와 권력을 쥐고 있는 도쿄제국대학 출신인 아카샤쓰가 인정적으로는 주위의 선생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은 학벌의 권력화에 대한 나쓰메 소세키의 문제 제기로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 5.3. 붓짱과 아카샤쓰의 충돌

살결이 희고, 하이칼라 머리의 키가 큰 이 지역의 미인 마돈나는 <수정 구슬을 향수로 따뜻하게 해가지고 손바닥에 쥐어 보는 것 같은 기분> 41)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처녀이다. 원래 마돈나는 영어 선생인 우라나리(うらなり)한테 시집 갈 약속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우라나리의 아버지가 작고하고 난 이후 살림살이가 쪼들리기 시작하면서 혼인을 늦추고 있는 시기에, 공교롭게도 교감선생인 아카샤쓰가 <꼭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 42)고 마돈나에게 청혼을 한다.

당시 시대에 도쿄제국대학이라는 학사 출신은 중학교, 사범학교, 고등여학교 교원세계에 있어서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중학교 교원 세계는 고등사범학교(高等師範學校) 출신이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국대학 출신이 교장 승진과 급여에서 고등사범학교 출신보다 유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파워를 행사했던 시대였다.<sup>43)</sup>

41) 텍스트(7), 321쪽.

42) 텍스트(7), 315쪽.

아카야쓰는 도쿄제국대학 출신에 현재 중학교 교감선생이며, 멋진 현관이 달린 〈집세를 9엔 50진〉<sup>44)</sup>이나 주며 살고 있다. 이런 아카야쓰의 출신 환경과 배경, 조건을 고려했는지 마돈나는 갑자기 우리나라와의 결혼 약속을 파기하려고 한다. 이 고장 사람들은 교감인 아카야쓰도 문제지만 갑자기 우리나라와의 결혼 약속을 파기하려고 하는 마돈나의 행실을 나쁘게 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마돈나의 약혼자인 우리나라는 교장선생님인 다누키가 한 호봉 오른 5엔을 올려 주는 조건으로 규슈(九州)의 노베오카(延岡)라는 곳의 산 속에 있는 학교로 전근 명령 내린다. 붓짱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은 표면상으로는 5엔을 올려 주는 조건으로 우리나라를 가고 싶지도 않은 규슈의 노베오카로 전근가게 한 사람은 아카야쓰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아카야쓰와 우리나라의 결혼에 관한 개인적인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붓짱은 이를 자신의 일인양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며 아카야쓰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약혼자였던 마돈나를 가로채려고 하는 교묘한 책략(策略)이 우리나라가 전근가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충동적인 붓짱은 아카야쓰를 바보(馬鹿), 비겁(卑怯)한 사람<sup>45)</sup>이라고 단정해 버린다.

우리나라의 혼인에 관한 일에 화가 치민 붓짱은 아카야쓰를 찾아가서 자신의 월급을 올려 준다고 하는 것도 과감하게 사절한다. 그리고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 고장에 있고 싶어 하는데 규슈의 노베오카로 전근가게 만들었냐고 따진다. 아카야쓰는 붓짱에게 우리나라가 희망해서 전근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붓짱은 아카야쓰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카야쓰를 마음속으로 불신임(不信任)하기 시작한다. 붓짱은 아카야쓰에게 당신은 길 다르고 속 다른 면이 있다고 직설적으로 말하며 충돌을 불사한다.<sup>46)</sup>

43) 竹内洋, 《日本近代12.學歴貴族の榮光と挫折》(東京: 中央公論新社, 1999), 72쪽.

44) 텍스트(8), 328쪽.

45) 텍스트(8), 332-333쪽.

46) 텍스트(8), 336쪽.

#### 5.4. 봇짱의 좌절

1904년과 1905년에 걸쳐 만주와 한국의 배타적인 지배권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이 벌인 제국주의 전쟁인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은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축승회(祝勝會)를 개최하게 되고, 봇짱이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들도 수업을 하지 않고 행사의 식이 열리는 연병장으로 갔다.

참석한 학생들이 8백명 정도 되었으나 중학교와 사범학교는 어느 현(縣)이나 개와 원숭이처럼 사이가 나빴던 터라 학생들이 충돌을 일으켜 싸움을 했다. 순경들이 오면 시끄러우니까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려고 봇짱과 야마아라시는 싸움판에 들어갔다. 하지만 봇짱의 의도와는 다르게 학생들에게 얻어터지고 두 선생은 싸움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순경이 오니까 학생들은 다 달아나 버리고 붙잡힌 사람은 봇짱과 야마아라시 두 사람이다.

이튿날 시코쿠신문(四國新聞)에는 봇짱과 야마아라시가 선량한 학생들을 사주해서 소동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함부로 사범학교 학생들에게 폭행을 자행했다고 실렸다. 봇짱과 야마아라시는 다누키와 아카샤쓰를 찾아가서 신문이 터무니없는 거짓을 게재했다고 진실을 설명했다.

야마아라시는 아카샤쓰가 일부러 우리를 피어내서 싸움판에 몰아넣는 뒤에 가서 신문사에 손을 써 거짓 기사를 쓰게 했다고 봇짱에게 말한다. 봇짱은 객관적으로 확인도 안하고 야마아라시의 말을 믿고는 축승회 날 싸움 사건을 아카샤쓰의 술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내일 사표를 내고 곧 도쿄로 돌아가 버려야지. 이런 비열한 고장에는 있어 달라고 빌어도 있기가 싫다> 47)고 시코쿠 지방에서의 교직생활에 좌절감을 느낀다. 그러나 자신이 교직을 그만두려고 마음먹은 것이지 교장선생이 봇짱에게 사표를 내라고 한 것은 아니다.

학교 측에서는 축승회날 싸움 사건을 트집 잡아 야마아라시에게 사표를 내라고 요구한다. 정직하고 올곧은 성격의 봇짱은 야마아라시에게는 사표를 내라고 하고, 자신에게는 계속 근무하라고 하기 때문에 부임한 지 한 달이 될까 말까 한 시기에 다누키를 찾아가서 <저도 사표를 내겠

47) 텍스트(11), 369쪽.

습니다> 48) 라고 말한다. 하지만 교장인 다누키는 고집부리지 말고 학교 사정도 생각해 달라고 말하면서 붓짱의 사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붓짱과 야마아라시는 아카야쓰와 노다이코가 가도야(角屋) 라는 여관에서 고스기(小鈴) 라고 하는 기생하고 하룻밤 자고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시가지를 벗어난 인가가 없는 지점에서 <교감이라는 직책을 가진 자가 어째서 가도야(角屋) 여관에 가서 기생하고 묵었나?> 49) 라고 힐난하면서 두 사람을 흠씬 두들겨 패준다.

이후 붓짱은 교장 앞으로 <사정에 의하여 사직하고 도쿄로 돌아가고자 하오니 청허하여 주시옵기 양망하나이다> 50) 라고 써서 우송하고 약 2개월간의 시코쿠에서의 교직생활을 그만두고 도쿄로 돌아온다.

## 6. 결론

이제까지 논자가 분석·점검한 것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붓짱이 공부했던 메이지시대의 물리학교는 낙제를 하지 않고 졸업하는 학생이 10% 전후로 입학은 쉬웠으나 졸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학교였다. 실력이 모자라는 학생에게 엄격한 학칙을 적용하여 낙제를 시키고 있었던 물리학교를 공부에 소질이 있는 편이 아닌 붓짱이 3년간 학교를 다니자 그냥 졸업하라고 해서 불평하지 않고 졸업해 버렸다고 표현한 것은, 나쓰메 소세키가 당시 물리학교의 상황과는 정반대로 작품에 묘사했던 것이다. 그 이유는 작자의 의도된 유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일본인 특유의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최대한 낮추어 말하는 표현 방법 등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둘째, 메이지시대 말경에 일본정부가 인정하는 도쿄제국대학을 졸업하여 스미토모총본점에 입사한 사람의 급료가 40엔, 경시청 순사의 급료도 10~13엔 정도였던 것을 고려해볼 때, 붓짱이 물리학교를 졸업하고 시코쿠 지방에 있는 중학교에 수학 교사로 취직을 하여 40엔이라고 하는 급료를 받은 것은 파격적인 대우였다. 교사로 취직하여 초임급 40

48) 텍스트(11), 372-373쪽.

49) 텍스트(11), 380-381쪽.

50) 텍스트(11), 382쪽.

엔을 받는다는 것은 당시 교직사회에서 당당하게 인정받고 있던 물리학교 출신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일본의 근대시대에는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에 따라 급료의 차이와 신분의 차이가 났던 시대였다. 메이지 정부가 인정하는 제국대학을 졸업하기만 하면 급료를 많이 받고 고급관리와 관리직 등으로 근무할 수 있었다. 메이지 정부는 학벌에 의한 급료의 차이, 신분의 벽을 만들어 제국대학에 못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열등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제도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제국대학 출신은 학문적으로는 우수했을지 몰라도 인간이 지켜야 할 인성적인 면까지 우수한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학벌사회의 권력화에 대한 어두운 이면이 《도련님》에 정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붓짱은 자신도 물리학교 출신이라고 하는 중간 엘리트의 학벌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국대학 출신의 슈퍼(super) 엘리트 학벌 소지자의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제국대학 출신 교감 선생과 충돌적으로 대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고 점차 좌절감을 맛보게 된다. 일본 근대의 독특한 학벌이라는 사회제도가 존재하는 시대에 붓짱이 제국대학 출신인 아카사쓰를 강자로 인정하지 않고 불신임하고, 충돌하려 했던 것은 필연적으로 좌절과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

- 荒正人, 《評傳夏目漱石》(東京: 實業之日本社, 1970)  
 小野一成, <「坊っちゃん」の學歷をめぐって-明治後期における中・下級エリートについての一考察->, 片岡豊·小森陽一 編, 《漱石作品論集成·第二卷》(東京: 桜楓社, 1990)  
 川上親孝 編, 《學習人物事典》(東京: 學習研究社, 1995)  
 下中弘, 《日本史大事典·第5卷》(東京: 平凡社, 1997)  
 高木文雄, 《漱石作品の内と外》(東京: 和泉書院, 1994)  
 出口汪, 《早わかり文学史》(東京: 語学春秋社, 1996)  
 竹内洋, 《日本近代12.學歷貴族の榮光と挫折》(東京: 中央公論新社, 1999)

- 馬場鍊成 著, 《物理學校近代史のなかの理科學生》(東京: 中央公論新社, 2006)
- 平岡敏夫, 《「坊っちゃん」の世界》(東京: 塙書房, 1992)
- 平岡敏夫, 《漱石序説》(東京: 塙書房, 1976)
- 平岡敏夫, 《漱石研究》(東京: 有精堂, 1987)
- 福沢諭吉, 《学問のすすめ》(東京: 岩波書店, 1996)
- 歴史教育者協議会 編, 《人物でたどる日本の歴史近代》(東京: 岩崎書店, 1995)
- 권혁진, 〈나쓰메 소세키의 《도련님(坊っちゃん)》에 나타난 금전의 의미와 역할〉,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와 한국》(서울: 제이앤씨, 2004)
- 권혁진, 《나쓰메 소세키 생애와 작품》(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 박경희,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일본사》(서울: 일빛, 2001)

### 〈Abstract〉

This is a summary of what I have analyzed.

First, the author, Nastume Soseki, wrote that the main character, Botchan, graduated without complaints when he was told to just graduate, since he went to the physics school for 3 years. It was actually represented in the opposite direction of the circumstance of then physics school in "도련님(Young Master)". In the story exists the expression speaking in a humble way to lower oneself most and respect others, which is an attribute of Japanese.

Next, it was an unprecedented treatment that Botchan received 40 yens for his initial salary as a math teacher of a middle school in Shikoku after graduating from a physics school. That emblemizes the glory of a physics school graduate and shows that a physics graduate was recognized with great dignity in the

circles of the teaching profession at that time.

Lastly, in the modern period of Japan, once one graduated from the Empire University, he or she could serve as a high-ranking official or in an administrative position, getting a high salary. However, although those from the Empire University could be superior in academy, there were also people who were not superior in human nature. The author described the dark aspects of creating power of modern academic cliques in detail through "Young Master". Botchan didn't admit Akashirt, who was from the Empire University, to be the strong, distrusted and tried to conflict with him. It necessarily led Botchan to frustration and defeat.

**Key Words:** Physics school, Glory, Frustration, Academic clique, the Empire University, the circles of the teaching profession

투 고 일 : 2009.2.22

심 사 일 : 2009.3.10-3.30

게재확정일 : 2009.4.25

## 『근대화』의 間隙과 苦惱\*

-森鷗外와 魯迅의 경우-

박성희\*\* · 권혁건\*\*\*

### 〈목 차〉

1. 들어가며
2. 間隙
  - 2.1. 森林太郎과 나우만
  - 2.2. 周樹人과 후지노(藤野)
3. 苦惱
  - 3.1. 森鷗外의 경우
  - 3.2. 魯迅의 경우
4. 나오며

## 1. 들어가며

森鷗外<sup>1)</sup>(1862-1922)와 魯迅<sup>2)</sup>(1881-1936)은 모두 변혁기 日·中 양국을 대표하는 인물로, 근대 서양의 위력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과학 특히 의학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유학한 공통경력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과학이나 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는 문학이라는 또 다른 열쇠를 쥐고 있었던 점도 같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23-A00011)

\*\* 동의대학교 문화컨텐츠연구소 전임연구원(seongheeo2@paran.com)

\*\*\* 동의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kwon6134@hanmail.net)

1) 본명 林太郎, 石見(鳥根縣) 津和野 출생. 東大醫科출신. 軍醫가 되어 유럽 의학, 陸軍軍醫總監帝室博物館長, 일본근대문학을 대표자 중 한사람.

2) 본명 주수인(周樹人) 중국근현대문학을 대표하는 문학자. 일본에서 의학을 공부했지만 문학으로 민족성의 개조에 뜻을 둔다. 처녀작 《狂人日記》 이후에 창작 · 사회비평 · 해외문학소개 등에 힘썼다. 《阿Q正傳》에서는 중국의 국민성을 비판했다. 그 밖에 《吶喊》, 《彷徨》, 《野草》 등의 작품이 있다. 魯迅文學會 편역, 《魯迅選集》(서울: 여강출판사, 2003)



森鷗外の 경우 위생제국 건설에 전사적 역할을 담당한다. 魯迅의 경우 의학 공부를 위해 渡日하여 문학으로 돌아서나, 의도로 볼 때는 육체적 치료와 정신적 치유라는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들에게 있어 근대 위기의 조국을 위해서라면, 의학도 문학도 정치도 모두 연결선상에 놓인, 문제해결을 위한 다른 도구일 뿐이었다.

森鷗外와 魯迅은 20대 초반에 각각 독일과 일본으로 유학을 하나, 연령차로 인해 20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 20년 정도의 차가 양국의 근대화의 인식차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그 격차는 점점 벌어져, 일본은 동양을 서양의 백인문화권에 상대되는 권역으로 확장하는 한편, 중국을 支那로 부르면서 동양의 일부로 격하시켰다.

그런데 독일로 유학을 간 森鷗外の 경우도, 그들의 눈에 비친 모습은 구시대 · 구세계 · 이국적. 때로는 야만적인 것이었다. 그 표면적인 일례가 나우만과의 논쟁을 통해 볼 수 있다. 森鷗外는 젊은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비과학적인 지식까지 총동원하여 일본을 強辯하는 자세로 논쟁에 반박하고 있다.

魯迅의 경우는 독일 유학이 좌절되고 차선으로 선택한 일본에서 같은 동양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별과 차이를 목격하게 된다. 당시 시대 상황과 맞물려 쓰러져가는 조국, 老大國을 바라보는 魯迅은 오히려 타국민보다 더욱 날카롭고 냉엄하게 자국민을 비판한다. 일종의 자기 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자아는 20여년이 지나 《후지노 선생》으로 나타난다. 이 《후지노 선생》은 다시 20여년이 흐른 뒤 일본인 작가 다자이 오사무(太宰治, 1909-1948)에 의해 《惜別》<sup>3)</sup>로 재생된다. 격동 근대사 속에서 이 ‘시간적인 간격, 時差’는 각자가 속한 국가의 미래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속에서 작가는 ‘強辯’이든 ‘자아비판’이든 끊임없이 논쟁하여, 즉자와 타자간의 ‘視差’를 좁히고자 노력하고 있다. 軍醫이든 醫師이든 革命家이든 이들은 「뛰어난 계몽가라는 것, 그러나 문학가 森鷗外 · 문학가 魯迅이, 계몽가 森鷗外 · 계몽가 魯迅을 무한히 생성케 하는 궁극의 장소」<sup>4)</sup>라는 점이 공통분모일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

3) 太宰治, 《太宰治全集·7》(東京: 筑摩書房, 1983), 170-297쪽.

4) 이 표현을 竹內好는 魯迅에 한해서 쓰고 있다. 竹內好, 《魯迅》(東京: 日本評論社, 1944)

천착해보고자 한다.

## 2. 間隙

### 2.1. 森林太郎과 나우만

森鷗外는 陸軍軍醫와 文學者의 두 개의 다른 면모를 지녔다. 森鷗外는 유학을 가기위해 軍醫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학은 위생 근대로의 국가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개인 森鷗外에게도 출세의 도약적 발판이 된다. 독일 유학중의 일본인 軍醫인 森鷗外의 본명은 森林太郎이다.

森鷗外가 독일로 가고자 희망하던 시기와 독일에서의 생활과 돌아올 때의 상황과는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나우만<sup>5)</sup>을 비롯한 일본에 고용되었던 많은 외국인들도 일본 생활에 대한 그 평가가 다르게 나타난다. 森鷗外와 나우만은 각각 독일과 일본에서 체류경험<sup>6)</sup>을 가지고 있다.

森鷗外의 독일 유학 시기<sup>7)</sup> 중 뮌헨 시대의 특이할 만한 사항은, 그가 地質學者 나우만을 상대로 한 신문지상에서의 논쟁<sup>8)</sup>이다.<sup>9)</sup>

5) Edmund Naumann(1854-1927) 독일의 지질학자. 뮌헨대학 졸업. 일본 지질학의 기초를 구축한 사람. 1877년부터 79년까지 동경대 전신인 東京開成學校에서 지질학교수로 재직, 1878년 農商務省에 지질연구소 설립하여 기사장을 역임했다. 특히 일본의 지질구조를 정리하고 중앙구조선에 따른 外帶와 內帶의 구분, 서남·동북 일본의 포사마그나(Fossa Magna)에 의한 구분 등을 하였다.(《広辞苑》)

6) 森鷗外는 약 4년(1884~1888), 나우만은 약 12년(1873-1885)

7) 베를린 시기(1884.10.11-1884.10.22), 라이프치히 시기(1884.10.22~1885.10.11), 드레스덴 시기(1885.10.11-1886.3.7), 뮌헨 시기 (1886.3.8-1887.4.15), 베를린 시기(1887.4.15-1888.7.5). 山寄一穎 編著,《森鷗外》(東京: 有精堂, 1989), 16쪽.

8) 양자의 논쟁은 간략히 다음과 같다.(東京大學比較學會간행,《比較文學研究》13) 그리고 유학시기의 森鷗外의 이름은 森林太郎. 단, 본고에서는 유학 중의 내용에는 森林太郎, 그 외는 森鷗外로 통일하도록 한다.

1. 일본열도의 지형과 국민 ; Edmund Naumann
2. Muchen 인류학회 Naumann 강연요지(신문기자)
3. 일본의 實情 ; 森林太郎

나우만은 1873(明治6)년에서 1885년 계약기간 만료로 독일로 돌아간 고용외국인이다.<sup>10)</sup>

나우만은 꼭 돌아가야만 하는 점이 불만이였다. 그는 귀국 시까지 일본과 淸國의 근대화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돌아갔다. 일본이 淸國보다도 늦게 근대화의 길에 들어서서도 淸國이나 다른 아시아국가와는 달리 단번에 「近代化」에 성공한 것은, 나우만 측에서 보면 무엇보다 고용외국인을 젊은 일본인 즉 森林太郎과 같은 인물로 교체하려고 노력한 데 있다고 보았다.

나우만은 드레스덴의 지학협회에서 강연할 때, 젊은 육군 軍醫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나우만으로서는 독일 문물을 배우고자 와 있는 森林太郎이야말로 일본에서 자신을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들고, 의식적으로 일본의 중추(中樞)에서 배제 당하게 한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다. 1886(明治19)년 3월 6일, 지학협회 연회에 참석한 森林太郎은 초청강연자 나우만이 「日本」을 제목으로 발표하는 것을 듣고, 그 날의 일기에 쓰고 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일본에서 생활했고, 旭日 勳章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왠지 몹시 불평하는 듯 한 느낌이 든다. 오늘 300여명의 청중을 향해서, 일본의 地勢 風俗 政治 技藝 등을 연설했다. 그 속에 불온(不穩)의 말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일본은 開明을 진행하면서 일본인이 문명개화 때 歐州人보다 열등함을 알고, 스스로 분격(憤激)해서 진취의 기상을 드러낼 자로는 생각지 않는다. 이들은 외국인에 의해 핍박받아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상태를 이룩하게 되었

4. 森林太郎의 「日本の實情」; Naumann

5. 日本の實情 再論; 森林太郎

9) 일본문명 일반에 관한 나우만의 신문논문은 꽤 긴 것으로, 그 대부분은 富士山 등산과 四國 여행을 중심으로 한 여행기로, 이 부분은 문명개화논쟁과는 관계가 없다.

10) 고보리 케이이치로(小堀桂一郎)에 의하면 月俸으로 金貨五百円을 받았다. 이것은 다른 외국인 고용자의 평균급여, 百円에서 三百円에 비해서 매우 높았다. 나우만이 나중에 日本地質學, 考古學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나우만 象」의 발견자인 점, 35세로 이미 고용외국인으로서 파격적인 勳四等旭日章을 받은 점 등이 이유였을 것이다. 《若き日の森鷗外》(東京: 東京大学出版会, 1969)

다고. (《獨逸日記》, 162쪽)

이러나우만은 아주 자신 있게 우화(寓話)를 들어, 보고(報告)를 마무리했다고 쓰고 있다.

지금 우스운 얘기를 하나하고 끝을 맺겠다. 어느 날 일본인이 증기선(輪船) 한척을 구입했다. 새롭게 항해술을 배운 일본인은, 得意揚揚해외로 항해했다. 수개월 후, 고향의 해안으로 돌아왔을 때, 가련하게도 이 기관사는 機關을 운전할 줄만 알았지 멈출 줄은 몰라서, 近海를 逍遙해서 기관이 저절로 정지될 때까지 기다렸다. 일본인의 많은 기술이 이와 같다. 나머지는 훗날 계속하기로 하자.<sup>11)</sup>(《獨逸日記》, 162쪽)

森林太郎은 격노했다. 森林太郎은 일본에 있어서 獨逸學이라는 것은 衛生 즉 근대화를 위한 實學의 일환으로서 배우려고 했다. 太政官·右大臣·左大臣이라는 율령제 여파를 떨쳐버린 明治국가는 드디어 建設期에 들어갔다. 그리고 森林太郎은 독일에서의 스승 로트에게 일본어 강습까지 시작했다. 森林太郎에게 있어 독일과 일본은, 어디까지나 대등한 존재여야만 했다. 나우만이나 스승인 로트에게는 의식되지 못했지만 愛國의인 내셔널리즘이 森林太郎 속에는 발효되고 있었던 것이다.<sup>12)</sup>

식이 종료되자 저녁 식사시간에 森林太郎은 반박연설을 한다.

여러분 서툰 독일어로 특히 귀부인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우만 씨는 불교에서는 여성들에게 영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經文에서는 여인들이 성불한 예가 많습니다. ……저는 불교신자로서 노여움을 풀고, 제가 귀부인 여러분을 존경하는 마음이 결코 기독교도에 뒤떨어지지 않음을 증명하고 싶을 뿐입니다.<sup>13)</sup>

11) 이 이야기는 악의에 찬 것이라 해도, 실제로 1857(安政4)년 江戸幕府가 네덜란드에게 건조시킨 軍船 咸臨丸가 일본인 航海士에 의해서만은 운전할 수 없었다. 이 이야기는 在日外國人 사회에서는 의외로 유포되어 있었던 笑談 중 하나이다. (廣辭苑 參照)

12) 飛鳥井雄道, 《鷗外その青春》(東京: 角川書店, 1976), 74쪽.

13) 《獨逸日記》 1886년 3월 6일, 163쪽.

이 반론은, 로트를 비롯해 동석에 있던 이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정도로 대성공이었다고 쓰고 있지만, 일본 근대화의 방향을 긍정할지 부정할지는, 이 양자사이의 대립으로 남겨진 것이다.

그러나 나우만은 이 일본인 공격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 1886년 6월 알게마이네 쾰른신문(Allgemeine Zeitung)<sup>14)</sup>에 「일본열도의 지형과 국민」을 2회에 걸쳐 발표한다. 이와 관련해서, 1967년 발행 「비교문학연구」 제13호에 全文이 번역되어 실렸다.<sup>15)</sup>

양자사이의 논쟁 내용은, 당시 일본을 둘러싸고 타자와 즉자가 바라보는 시각차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대립되는 내용 중 「아이누족의 차별」에 관한 일부만을 들어보자. 시종일관 나우만은 지리학회 강연 내용을 수정하려하지 않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일본의 원주민인 아이누에 대해서 나우만은 그들이 일본인 사이에서 경멸당하고 半未開人으로서 거의 포로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森林太郎은 그들이 일본인 사이에서 특별히 존경받지는 않지만 일본정부는 그들을 온정으로 대하고, 그들 종족의 발전을 조성하고 있고 포로상태 등은 있을 수 없다고 반론한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 아스카이(飛鳥井雄道)<sup>16)</sup>는 호시 신이치(星新一)의 《祖父·小金井良精의 記録(祖父·小金井良精の記)》을 들고 있다. 森鷗外の 弟夫인 고가네이(小金井良精)는 1889년, 北海道에서 「아이누 인골 조사」를 하고 있을 때, 아이누 두개골에 자주 구멍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이 사실은 1874(明治7)년부터 學界에 보고되고 있었다. 이 고가네이가 데리고 있던 人夫가 梅毒 약으로 쓰려고 아이누인 매장지(埋葬地)에서 頭骨을 파내어 구멍을 내고 뇌수(腦髓)를 마시는 장면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놀란 그는 일기에 적었다. 하지만 학계에는 보고하지 않았다. 보고하려고 해도 보고할 수 없는 현실이었기 때

14) 19세기까지 존재했던 FAZ(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의 전신. 가장 유력한 일간지 중 하나.

15) 또한 고보리 케이이치로(小堀桂一郎)의 《젊은날의 森鷗外(若き日の森鷗外)》에 全文 번역되어, 당시까지 不明이었던 나우만측의 논지를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 森鷗外の 반론 〈일본의 實情〉, 나우만의 반론 〈森林太郎의 「일본의 實情」〉, 森鷗外の 再反論 〈일본의 實情·再論〉

16) 飛鳥井雄道, 앞의 책, 81쪽.

문이다. 즉 근대 일본에 있어서, 외국의 눈을 의식하고 숨겨야만 하는 사실이었던기 때문이다.

森鷗外가 말하는 「일본 전국이 아이누에게 개방되어 있었다」는 말은 법률적으로도 맞지 않다. 일본정부는 이후 미합중국이 인디언 영역을 지배한 예(例)로부터 배워서, 「北海道舊土人保護法」을 발표하고, 아이누人民居住地를 구분하고 그 구역 내에 가둔 것이다.<sup>17)</sup>

아이누 족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일본 하층민들의 나체생활에 대한 것이나 부녀자들의 검게 칠한 이에 대한 것이나 일본 開國에 관한 점에 대해서도 나우만의 소견이 대체로 타당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나우만에 의해 지적된 일본의 실상은 거의 그대로였다. 그래서 나우만은 이 문제 투성이의 일본근대화 과정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서구 문화를 단지 그대로 수용하는 것만으로는 일본 민족은 강화되지 않고 오히려 약화, 결국에는 민족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다.<sup>18)</sup>

이 말에 반박하기위해 大尉相當官으로 승진한 軍醫 森林太郎은 2번에 걸쳐 신문에 논쟁했다고 볼 수 있다. 개개의 사실에서 나우만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지금도 견재하다. 결과는 명확하게 森鷗外의 強辯대로 역사적 흐름 속에서 근대 일본의 강력함을 증명하고 있다. 森鷗外를 독일로 보낸 근대 일본은, 낱낱의 잘못된 현상을 잘 지적하는 고용외국인 나우만의 타자로서의 냉철함보다는 조금 부족하고 다소의 실패를 감내 하더라도 憂國에 불타는 젊은 森鷗外에게 나라의 장래를 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것도 가능하면 빨리 그 적응시차를 줄이고자 엄청난 재화를 지불하는 국가적 사활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우만의 예상과 달리, 이는 결과적으로 성공이었다고 할 것이다.

淸國과 달리 明治 국가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 재빠르게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프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독일의 성장 강행에 동승

17) 위의 책, 82쪽.

18) 小堀 桂一郎, 《若き日の森鷗外》(東京: 東京大学出版部, 1969), 284쪽.

했다. 타자의 손을 빌리, 차세대인 一等軍醫 森林太郎을 중심으로 한 자국인의 손으로 改編하면서 자국화하려고 했다.

시행착오, 오랜 관습, 위로부터 강행된 근대화로부터 발생한 새로운 근대적 차별과 俗信의 확대, 이것들을 나우만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할 일은 많고 갈 길이 바쁜 森林太郎에게 필요한 것은 서양의 풍부한 신지식의 양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수용하여 일본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시각」이었다. 타자와 즉자간의 이 미묘한 시각 차이는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었다고 할 것이다.

## 2.2. 周樹人과 후지노(藤野)

《藤野先生》<sup>19)</sup>은 魯迅 자신이 실제 센다이(仙台)醫學專門學校에서의 유학체험을 그리고 있다. 魯迅이 醫專 학생이었을 때는 「周樹人」으로 등록되어 있다. 《후지노 선생》의 등장인물인 「후지노 겐쿠로(藤野嚴九郎) 선생」은 福井縣 사람으로 집안 대대로 의사였고 1901년 仙台 醫專 교수가 되었다. 1915년 醫專이 동북제국대학 의과대학으로 개편될 때 퇴직하고 동경으로 나왔고,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 개업의사가 되었으며, 패전 4일전에 병사하였다.

사토(佐藤春夫)·마스다(増田涉) 공역의 《魯迅選集》(1935년, 岩波文庫)의 《藤野先生》에는 「부기」가 있다. 《魯迅選集》을 출간함에 즈음하여 어떤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좋을까 하고 일단 魯迅의 의견을 타진한 바, 적당히 선정해도 좋으나 다만 《藤野先生》만은 꼭 넣어달라는 회답이었다. 이 책이 나오므로써 후지노 선생의 소식을 알 수 있으리라고 魯迅은 기대하였던 듯하나, 기대와는 달리 魯迅이 죽을 때까지 소식 불명인 채 었다<sup>20)</sup>고 한다. 그가 죽은 후에야 후지노 선생이 건재하다는 것이 판명되어 1937년 3월, 貴司山治가 주재하는 「문학안내」 지상에 소개가 되었다. 魯迅이 사망한 후 「주군을 회상하여」라는 글을 썼다.<sup>21)</sup>

19) 1926년 12월 10일 반월간 잡지 《莽原》 제1권 제23호에 처음 발표되었다.

20) 魯迅 著, 한무희 譯, 《魯迅文集2》(서울: 일월서각, 1992), 262쪽.

21) 《문학지남》 1937년 3월호, 《魯迅選集》, 471쪽. 1960년 仙台에 魯迅기념

魯迅은 1902년 3월부터 2년간 홍문(弘文)학원에 재학하여 속성 보통과를 졸업하였다. 《후지노 선생》에 그려진 「淸國 유학생 速成組」에 대한 그의 서술은 긍정적이지 못하다. 그는 東京의 홍문학원에 입학하였지만 東京에서 본 중국 유학생들의 행태는 그의 낯은 세계로부터의 탈출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 淸國이 유학생을 파견한 것은 1896년으로 13명이었다. 그 수는 해마다 늘어 가장 많았던 시기는 러일전쟁 이후이며 수천 명에 달하였다. 대부분은 동경에서 어학이나 기타의 예비 교육을 받은 다음에 지망하는 학교로 배당되었다. 이 예비교육은 정부의 의뢰로 동경고등사범학교 교장인 가노지고로(嘉納次五郎)가 담당하였다. 처음 간다(神田)에 사숙을 설치하고, 1902년부터 소재를 우시고미(牛込西五軒町)로 옮겨, 정식으로 弘文學院<sup>22)</sup>이라 칭하였다. 입학 희망자가 늘어나자 校舎를 동경 각지에 설치하였다. 교사에는 기숙사가 부설되어 있었다.

魯迅이 仙台 醫專에서 전쟁의 환동기를 보고서 문학으로 뜻을 바꿨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다. 仙台 시절 문학에 뜻을 세우고 의학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은 魯迅이 쓴 《후지노 선생》에 상세히 나와 있으며, 魯迅의 제1소설집인 《외침(吶喊)》에 수록된 「자서(自序)」(1922. 12)에서도 유년시절부터 일본유학을 거쳐 소설을 쓰게 된 동기 등을 상세히 적어 놓고 있다.

현재 仙台<sup>23)</sup>에선 仙台 최초 지나 유학생<sup>24)</sup>인 周樹人과 관련된 실증 조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래는 그 결과물 중 하나인 「東北大學 整形外科 同窓會紙 제10호(1974)」의 인용문이다.

비가 세워지고, 1964년 福井市에 藤野嚴九郎 「惜別」 비가 세워졌다.

22) 宏文學院에 대해서는, 酒井順一郎, 〈明治期に於ける近代日本\_語教育 一宏文學院を通して〉, 《日本: 総研大文化科学研究, 2006》을 参照.

23) 당시의 仙台는 인구 9만, 평균 기온 11도라고 하는 냉해(冷害)의 시절이었다. 또한 그 해의 2월부터 러일전쟁이 시작되고, 전쟁 상황이 일상의 세태에 강하게 반영되고 있던 시기였다.

24) 9월 13일자 동북신문(東北新聞)에는 “周樹人은 의학전문학교에... 시림(施霖)은 第二高等学校 第二學年에 입학해 가타히라쵸(片平丁) 54번지 다나카(田中)씨 집에서 숙박 중”이라고 한 기사가 있어, 施霖이라는 이미 또 다른 한사람의 淸國 유학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1학년 1학기의 강의는, 그 해 6월 1일자로 강사에서 교수로 승진한 후지노 선생의 해부학과 시키나미(敷波)<sup>25)</sup> 교수의 조직학을 비롯해, 윤리학, 독어, 물리, 화학 등이었다.

학교에서는 후지노 교수가 해부학 교실 근무인 스키타(杉田)씨를 통해 周樹人을 연구실에 불러 그의 노트를 계속해서 침삭해 주었다. 이 시기의 상황은 《후지노 선생》에 잘 알려져 있다. 이 노트는 중국의 魯迅 기념관(베이징, 상해)에 보관되어 있다. 醫專의 모양은 「1909년 仙臺의학전문학교 재학 기념첩」에서 볼 수 있다.<sup>26)</sup>

학기말 시험은 7월에 행해졌다. 1905(明治38)년 仙臺의학전문학교 의학과 제1학년 시험 성적표에 의하면, 그는 142명중 68번째였다. 1학년의 학생 수가 입학자보다 많은 것은 유급생이 합류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름방학을 東京에서 보내고 仙臺로 돌아온 그는 淸國 유학생이면서 이 후지노 선생님의 엄격한 시험에서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사전에 알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일부 학생들로부터 받게 된다.

이 부당한 혐의는 머지않아 밝혀지지만, 그 마음에는 상처로 남았을 것이다. 이 부분은 텍스트에서 「중국은 弱國이다. 따라서 중국인은 당연 低能兒이다. 점수가 60점 이상인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다. 그들이, 이렇게 의심한 것은, 무리가 아닌지도 모른다.」<sup>27)</sup>라고 자조하는 부분과 일치한다.

그리고 이어서 환등 사건이 일어난다.

강의가 진행되고도 좀 시간이 남았을 때는 時事 슬라이드<sup>28)</sup>를 볼 때

25) 11월 6일, 조직학의 시키나미(敷波) 교수가 독일로 유학하게 되고, 유학 환송회가 개최되었다. 그 때의 기념사진에 醫專 제복 정도 모습의 젊을 때의 魯迅 모습이 남아있다.

26) 의전 관계 각종공문서의 서류는, 도호쿠대학(東北大學) 본부사무국의 서고에 보관되고 있어, 각양각색인 기록을 남기고 있다. 후지노(藤野) 교수 자필의 이력서나, 電文이 있어 「【겐쿠로】」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27) 魯迅文學會 편역, 위의 책, 474쪽.

28) 교실에서 그러한 슬라이드 상영이 행해졌던 것은 일본 문교부에 의해 장려

도 있었다. 그 시기의 슬라이드<sup>29)</sup>로 간주되는 것은 이미 세균학교실에서 이시다(石田) 교수에 의해 발견되었는데<sup>30)</sup>, 러일 전쟁<sup>31)</sup>의 전투 장면을 그린 것이다.(동창회지)

따라서 텍스트인 《후지노 선생》과 《吶喊》에 수록된 「自序」 부분과 일본 작가 太宰治의 소설 《惜別》과 仙台醫專의 「실증조사 결과물」 등에서 나타나는, 의학도 周樹人과 후지노 선생과의 관계는 거의 비슷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편 급우 스즈키(鈴木逸太)씨의 이야기에 의하면<sup>32)</sup>, 전쟁에 관한 슬라이드 상영은 4, 5회 교실에서 보았지만 학생들이 《후지노 선생》의 묘사에서처럼 「박수」 친 일은 없었다고 한다. 또 周樹人은 대개 하숙에서 공부하고 있었겠지만, 때로는 산토쿠자(森徳座)에서 연극 구경을 하거나 지금의 가타히라쵸(片平丁) 정문부근에 있었던 벤스이켄(晩翠軒)이라는 밀크 홀(milk hall)을 좋아해서 다니곤 했다고 한다.

그런데 다음의 郭沫若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의학 공부를 계속하기엔 한 명뿐인 淸國유학생 周樹人으로서, 학업에 대한 부담이 컸으리라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의 청소년은 대개 약간의 포부가 있는 사람으로 모두 대학의 예비생이었다.…… 이공과가 가장 절실했는데 또 수학이 두려웠기 때문에 감히 배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제3부에 응시하여 의과를 선택하기로 했다. 이 당시에 의과에 응시하는 것은 국내에서 軍醫學校에 응

---

되었다는 시대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신문광고나 기사를 보아도, 이러한 슬라이드 상영은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29) 원문은 電影, 즉 영화라는 뜻이나 실제로는 환등 즉 슬라이드를 말한다. 이 무렵의 환등은 필름이 아니라 유리판이며 광원은 아아크등이었다.(魯迅 著, 위의 책, 267쪽.)

30) 1965년 東北大學 醫學部 細菌學 教室에서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는 독일제의 대형 영사기와 유리판의 슬라이드가 15매 발견되었으나 스파이 처형의 장면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31) 일러전쟁은 1904(明治37)년 2월에 시작되고, 다음해 9월에 끝난다. 전쟁 때문에 비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提燈行列이나 전쟁의 노랫소리가 왕성했다고 한다.

32) 山田野理夫, 《仙台時代の魯迅の師友》(東京: 岩波書店, 1969)

시하는 것과는 완전히 사정이 달랐다. ……33)

「제2학년이 끝날 때 그는 후지노선생을 찾아가 의학공부를 그만두고 仙台를 떠나겠다」고 말했을 때, 선생의 얼굴에는 「서글픈 빛이 떠오르는 것 같았다. 그는 무엇인가를 말하려다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고 쓰고 있다.

후지노교수는 周樹人을 자택에 불러 자신의 사진 뒤에 「석별 증명 周君 藤野」라고 써서 그에게 건넸다. 魯迅은 이 사진을 생애 서재에 내걸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동창회지)

이에 대해 魯迅은 「어찌된 영문인지 나는 늘 그를 생각하게 된다. 내가 스승으로 모시는 분들 가운데 그는 나를 가장 감격하게 하고 고무해 준 한사람이다. 나는 늘 나에게 대한 그의 뜨거운 기대와 지칠 줄 모르는 가르침을, 작게 말하면 중국을 위한 것 즉 중국에 새로운 의학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며, 크게 말하면 학술을 위한 것 즉 중국에 새로운 의학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하곤 했다. 그의 이름은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성격은 내가 보기에는 마음속에 있어서 위대한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과 같이 《후지노 선생》은 의학도 周樹人과 스승 후지노와의 아름다운 사제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문학작품은 허구이며, 그 기술에서 지나간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추구하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周樹人에 대한 후지노의 후대는 지극히 순수하고 진지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후지노의 가치관에 입각한 행위이며, 周樹人의 「기대」와 반드시 일치하는지는 의문이다.

후지노는 周樹人을 특별하게 대접하진 않았다. 그는 단지 묵묵히 노트를 고쳐주고, 「해부도는 미술이 아니다」라는 것을 周樹人에게 가르

---

33) 이글의 필자는 1918년에 九州帝國大學 醫學部에 입학했지만, 1919년 5·4 운동의 영향을 받아 의사의 길을 포기했던 곽말약(郭沫若, 1892-1978)이다.(馬伯英·高晞·洪中立 著, 정우열 譯, 《中外醫學文化交流史》(서울: 전파과학사, 1979), 514쪽.

쳐주었을 뿐이다. 그리고 의학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의학  
을 위해 가르친 해부학 따위가 생물학에 큰 도움이 되겠는가」하고 탄  
식할 따름이다.

즉 청일전쟁이후 승진을 거듭하고 이번에도 승진이 점쳐지는 분위기  
속의 러일전쟁 시기에, 외국 유학생이 한두 명뿐이어서 신문에 기사화  
가 될 정도로 폐쇄적인 일본의 시골 仙台라는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이  
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일본인 스승 후지노는 제자 周樹人에게 강의노트 침삭이라는 「친  
절」을 베푼다. 그것도 때로는 魯迅이 그렇게 싫어하던<sup>34)</sup> 야만의 상징  
인 「전족」에 대해 호기심을 보이고 직접 보고 싶어도 해서 周樹人을  
곤란하게도 한다.

제대로 된 친구도 의는 상대자도 없었을 周樹人은 후지노 선생의 친  
절이 고마웠을 것이다. 그래서 「시험문제 유출 의심」사건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자국민을 비하하는 자의적인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다.  
그리하여 굴욕과 포기에 가까운 심정이 되었으리라. 민족을 걱정하여  
선진 일본으로 유학 온 淸國人 의학도 周樹人은, 동경에서의 淸國 유학  
생들의 행태에 실망하여 피해가다시피 한 일본의 仙台라는 시골에서,  
內地 일본인들에 의해 外地 淸國人에 대한 메울 길 없는 間隙을 발견했  
을 것이다.

魯迅의 문학에로의 回心を 이야기하는 자료로서 《후지노 선생》을 평  
가할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더구나 이 작품은 20  
년 전의 과거에의 追想이며, 그동안의 魯迅의 심경 변화가 작품의 성립  
에 다양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仙台醫專에서의 周樹人과 후지노와의  
만남은 두 사람의 의도를 넘어, 또 문화나 사상의 차이를 넘어, 인간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34) 魯迅은 결혼을 권하는 모친에게 혼인상대자의 조건으로, 공부를 하고 있을  
것, 전족을 하지 말 것을 내세운 일이 있다. 《魯迅傳》참고.

### 3. 苦惱

#### 3.1. 森鷗外の 경우

독일에서 학문을 하는 사이에 일종의 냉담성(nil admirai)을 기를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정영, 동쪽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지금의 나는, 서쪽으로 향해했던 이전의 내가 아니다.<sup>35)</sup>

明治政府가 서구에 파견한 유학생은 국가적 요청 과제를 해결해야 했다. 유학 초기에는 호기심과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지고, 자연과학이라는 학문에 심취되어 있을 때는 이 사명이 해결될 수 있을 듯이 생각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視野는 개인의 범위를 넘어 고국 일본의 현 상태와 서구의 문화에 익숙해짐에 따라 변화가 일어난다.

森鷗外는 의사로서 키워졌다. 어려서 네덜란드어를 배우고 독일어를 배우고 동경제대 의대를 거쳐 독일로 유학을 간다. 이는 당시로서 최고 엘리트층을 위한 일관된 교육 코스였다. 즉 일본의 경우, 蘭學을 통해 서양의학 서적을 번역하였던 근대화 논자들은 明治維新을 맞아 자신의 「전통의학」을 폐기하면서까지 제도적으로 서양의학을 발전시켜 나간다.

일본에서 근대의학은 「國體」를 확립하는 데 봉사해야 했다.<sup>36)</sup> 독일의 근대적 위생학을 배우고 돌아온 제국의 의학자들은 국가 위생 시스템을 통해 「제국의 몸」이 강건해야 한다는 「천황」 이데올로기를 일본 국민들의 몸에 체화시켜 나갔다.

아울러 明治 통치자들은 군진 위생에도 힘을 쏟아, 군인들이 「싸우는 기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했다. 더 나아가서 근대

35) 森鷗外, 《森鷗外全集·1》(東京: 筑摩書房, 1996), 3쪽.

36) 1870년 의학전반에 관하여 독일의학으로 정한 방침에는, 당시의 독일의학이 수준이 높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미국과 같은 민주국을 문명의 모범으로 삼는 것이 일본의 「국체」와 맞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당시 결정에 관여했던 石黒忠憲가 밝혔다. 石黒忠憲, 《懷舊九十年》(東京: 岩波文庫, 1983), 172쪽.

적 위생과 의학은 식민지 경영을 정당화하는데도 도덕적 규범으로 작용하였다.<sup>37)</sup>

衛生學, 특히 19세기 구미에서 성립하여 明治期 일본에 移入된 近代 衛生學은 森鷗外가 선구자 역할을 담당<sup>38)</sup>하였다. 衛生學에는 「福祉」적인 면과 「管理」의 측면<sup>39)</sup>이 양립한다.

전쟁이 끝난 후 森鷗外는 전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육군위생교정》을 더욱 확대하여 衛生學 일반에 관한 것으로 《위생신편(衛生新編)》<sup>40)</sup>을 1896년과 1897년에 각각 상하권으로 나누어 발간하였다. 이 책은 군사용과 대학 교과서용 두 가지 판형으로 발간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위생에 관한 지식이 군대나 일반 국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었다는 것은 두 가지 점을 시사한다. 하나는 1890년대 후반 明治 제국은 이미 군사화 되었음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군인이나 국민이나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이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쟁과 국민생활의 밀접한 관계를 유추하게 한다. 의학이 국가적 규모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 국민생활을 구속하게 됨에 따라 의사는 점점 그 권력이 확장된다. 더하여 戰時下 통제된 사회는 세균이나 질병으로 인한 전염병의 확산 두려움을 알게 됨에 따라 더욱더 위생사회가 강조되고 의사는 절대적 책임을 부여받게 된다. 즉 明治 이데올로기가 蘭學으로서 서양의학을 배웠던 의학자들에 의해 나온 것은, 바로 의학과 정치가 일맥상통하고 있는 부분이다. 「의학을 매개로 해서가 아니라 의학 그 자체가 중앙집권적이며 정치적이며 동시에 건강과 병을 대립시키는 구조」<sup>41)</sup>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森鷗外의 경우 위

37) 이종찬, 《동아시아 의학의 전통과 근대》(서울: 문학과지성사, 2004), 235쪽.

38) 일본에서 위생학의 기반을 구축한 사람은 行政의 長與專齊, 學問적으로 緒方正規, 陸軍의 森林太郎을 들 수 있다.

39) 福祉는 오늘날과 같은 개념으로, 국민 한명 한명의 건강을 지키고 병으로부터 보호하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하고, 管理는 국민의 생활을 관리해서 국력증강을 꾀하는 것을 의미한다. 大塚美保, 〈衛生學の二つの顔〉, 《国文学》(2005), 52쪽.

40) 小池正直과 共譯, 초판 1897년, 증보 5판 1928년.

41) 柄谷行人, 박유하 역,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서울: 민음사, 1997), 148쪽.

생 대국 독일로 유학을 다녀왔으며 동경 의대 출신이라는 최고의 배경으로 戰時 體制下의 일본 위생의 최전선에서 최고 실세가 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森鷗外는 끊임없이 독일의 자유로운 공기를 추억한다. 그리고 그 진위여부를 떠나서 젊은 유학생 森鷗外의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결과물이 《舞姬》(1890)라고 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그저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인물이었음을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다. 이제 25세가 되어 이미 오랫동안 자유로운 대학분위기를 접하고 나자 마음속이 웬지 평화롭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던 진정한 내가 아닌 나를 꾸짖고 있었다.(《舞姬》)

계속해서 이후 「독일선물」이라고 일컬어지는 《물거품의 기록(うたかたの記)》(1890)과 《편지심부름(文づかい)》(1891) 등이 연이어 발표된다. 근대 서구를 경험한 젊은이 森鷗外는 필명을 써서 발표하는 문학 작품뿐만이 아니라, 유학 중에도 점점 변화되는 자신을 인식하게 되고 일기에서도 읽을 수 있듯이 귀국하기까지 끊임없이 고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아마 나를 살아있는 사전으로 만들려했고, 관장은 나를 살아있는 법률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다. …… 또 대학에서는 법과 강의를 소홀히 하고 역사와 문학에 관심이 생기고 점점 흥미를 더하게 되었다.(《舞姬》)

초기 三部作에는 개인의 진정한 사랑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는 당시 일본남성이나 또한 잘못된 사회제도 및 관습 등을, 외국 여성이긴 하지만 하나같이 여주인공을 통해 지적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다. 당시의 다른 남성작가의 작품에서는 별로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明治時代に 이르러 서양문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와 걸모습과 생활양식은 완전히 달라졌다 하여도 정신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봉건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디부터 아버지에게는 한마디 대꾸도 못하시는 어머니에게 저의 본심을 알린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 이 관습을 깨부수려는

이를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가톨릭 국가에서는 수녀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곳 신교인 작센에서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로마교회의 사원처럼 예의는 알지만 인정을 모르는 궁궐 속이야말로 저의 도피처입니다. (《편지 심부름》)

유례없는 「천황」 중심의 절대 전제정치가 행해지고 있어, 일본서민은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통제 하에 있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으로 계속되는 전란 속에 森鷗外를 비롯하여 많은 남자들은 전쟁터로 나가야 했고, 여자들은 「현모양처」가 더없는 미덕으로 간주되는 교육을 받고 있던 시기였다. 이러한 때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보통의 일본 여성을 묘사한다는 것은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그려냈다 하더라도 공감을 얻기 어려웠을 것이다.

자네는 뭘 하러 왔는가? 위생학을 공부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무슨 위생학이라고? 어리석은 짓을 시켰군.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에 끈을 끼우고 걸으며 남 앞에서 코딱지를 파내는 국민에게 위생이고 뭐고 가 있겠는가? 학문은 대강 하고, 유럽인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귀국하는 것이 좋을 것이네. (《獨逸日記》)

1884년 10월 독일에 도착한 森鷗外는 베를린의 일본공사관으로 미리와 있던 상사에게 인사를 가게 된다. 森鷗外를 맞이하는 공사의 관료들은 세련된 유럽에서 생활하면서 익숙해진 시선으로 본국에서 막 들어온 森鷗外를 「더러운 물건 다루 듯」 야만인 취급을 한다. 이어 유학의 목적에 대해서도 자국민끼리도 그 목표달성에 회의적임을 알 수 있다.

즉, 자국민의 시선에서도 문명의 間隙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間隙은 森鷗外가 독일에서의 생활이 길어짐에 따라 森鷗外에게서도 발아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귀국해야 할 시기에는 귀국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기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관습」 밖으로 나가기엔 「기대」가 너무 컸던 森鷗外는 표면적으로는 조용히 수용하고 軍醫로서의 성공적인 생활을 펼쳐나간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明治시대를 살아가는 凡夫로서의 역할을 벗어버리고 시대와 관습에 맞서 스스로를 틀을 깨 나가는 「여성」 인물들을 만들어 낸 것이다. 森鷗外는 이러한 인물들을 그려내지 않고서 내부에 이



미 받아한 근대성을 덮어 버릴 수 없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분출구이며 明治사회의 봉건성에 대한 반항의 다른 얼굴이었다고 생각된다. 三部作에 그려진 여성상은 독일유학에서의 자각이 가져온 작가의 이상형이라고도 생각된다.

이는 성공적인 삶을 구가하는 陸軍 軍醫「森林太郎」와는 달리, 끊임 없이 고뇌하고 갈등하는「森鷗外」의 내면적인 모습인 것이다.

하지만 「森林太郎」에게는 「森鷗外」라는 분출구가 있었기 때문에, 森林太郎의 업적과 성과는 유지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점은 다케우치 요시미가 魯迅에게 지적했던 부분, 계몽가 즉「현상적으로 魯迅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계몽가다. 무엇보다도 계몽가이며, 동시에 뛰어난 계몽가」라는 것. 그러나 「문학가 魯迅이 계몽가 魯迅을 무한히 생성케 하는 궁극의 장소」라는 것에 다름 아니라 생각된다.

### 3.2. 魯迅의 경우

1902년 魯迅이 유학한 사실에서 출발하여 1922년 魯迅이 그 추억 속에서 만들어낸 東京이나 仙台라는 근대공간의 모습과 1945년 일본작가에 의해, 40여 년 전의 동경의 모습은 支那 유학생에게 이런 식으로 비춰졌을 것이라고 유추하여 빚어져 나온, 근대공간의 모습들 속에서는 적지 않은 「격차」가 발생할 것이다. 이는 시간상의 문제뿐 아니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차이를 낳는다.

魯迅의 일본 유학 시기는 러·일 전쟁 직후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였다. 이 경향은 민중 운동과 정치뿐만 아니라 각종 사상, 문화, 문학에까지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魯迅이 의학을 지망하게 된 동기는 부친의 질병과 明治維新 때 서양의학이 수행한 역할에 대한 지식, 전족에 의해 기형이 된 중국여성들의 발을 서양의학에 의해 구제하고자 했다는 점<sup>42)</sup> 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후지노선생》에도 상세히 나와 있는 바와 같이 仙台 시절 그는 문학에 뜻을 세우고 의학을 포기한다. 당초 魯迅의 사상형성<sup>43)</sup>에

42) 丸山昇, 《魯迅その文学と革命》(東京: 平凡社, 1965), 14-66쪽.

43) 노신의 문학과 사상에 대해선 현대중국문학회편, 《노신의 문학과 사상》(서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는 장태염(章太炎)<sup>44)</sup>의 혁명사상과 양계초(梁啓超)의 신민설(新民說)로 낙후된 중국을 구하려면 무엇보다도 민중을 깨우치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이었는데, 「민중계몽」은 당시 일본이나 구미 선진국에 유학중인 대부분의 선진적 지식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계몽주의 사상이었다.

오늘날 周樹人의 仙台 유학과 퇴학 사건은 단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인 성질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즉 혼을 구하고 민중을 각성시키는 것은, 원래 국민국가건설의 수단으로서 다른 것이다. 거기에 후인들은 국가와 민족을 前提的인 배경으로 삼아 이들 사건을 연구하고 있다. 후지노 선생님과 청년 周樹人과의 관계는 中·日 양국관계를 해독·구축하는 「모델스토리」가 되고, 中日戰爭 말기에 출판된 다자이 오사무(太宰治, 1909~1948)의 장편소설 《惜別》<sup>45)</sup>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다자이는 《惜別》에서 중국뿐 아니라 40여 년 전 周樹人과 후지노를 상상하여 과거 일본의 모습도 그려내고 있는데, 이 「想像」속에는 戰時 일본 작가의 中國觀과 자아의식이 형상화되고 있다.<sup>46)</sup>

周樹人에게 있어 근대 공간 仙台는 야만에 대한 식민사관이 낳은 제국주의 실현의 장으로서 그 자체로 제국주의를 표상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의학적 헤게모니가 더해짐으로 해서, 支那라는 야만과 일본이라는 선진, 일본어도 서툰 지나 유학생이라는 無知와 친절한 일본인 선생의 施惠가 그 연장선상에 상하구조로 대칭적으로 놓여있는 것이다. 이는 魯迅이 바라본 이미 미개 「노대국」이 되어버린 중국과 근대 일본의 당시 모습인 것이다. 그런데 한편 周樹人은 다음과 같은 장면을 목격한다.

출:백산서당, 1996) 참조요.

44) 청나라 말기의 학자이며 정치가. 청대 고증학의 마지막 대가로 알려져 그를 국학대사라고도 하였다.

45) 仙台 유학중의 周樹人의 모습과, 戰時中の 일본인 의학생들과 교사들과의 교류를 그린. 다자이 오사무의 작품 《惜別》은 1945년 9월 아사히(朝日) 신문에 발표되었다. 이는 다자이 자신이 「後記」에서 밝혔듯이, 內閣情報局과 日本文學報國會의 위촉을 받아 집필된 것이다.

46) 이때는 태평양 전쟁 말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惜別》과 《藤野先生》에 관한 자세한 고찰은 분량 상,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자.

중국의 역본을 각관한 것도 있었다. 이로 보아 새로운 의학에 관한 번역과 연구에서 그들은 중국보다 빠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후지노 선생》)

후지노 선생과 첫 수업 시간, 周樹人은 그의 해부학 서적 중에는 중국 책도 있음을 발견하고는 그들의 지식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는 아마 중국에서 도입한 漢譯 서양의학서였을 것이다.

즉, 에도막부 말기에는 중국어를 매개로 양방의학 지식이 환영을 받았으므로 그 훈점본(訓点本)과 번각본(翻刻本)이 보급되었다. 중국어계 양방의서(洋方醫書)로는 영국인 선교사 홉슨<sup>47)</sup>이 저술한 일련의 醫書類가 가장 대표적이다.<sup>48)</sup> 일본은 이 저서들을 환영해 원저 간행 후 1~2년 만에 훈점본과 번각본을 간행했다.

당시 대부분의 지식을 서방이론에 기준삼아 전파하려고 했으나, 사실은 전파의 속도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에 먼저 번역되고 입수된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서양의학의 체계적 전파가 늦어졌고, 일본은 적극적 수용 입장이었다.

홉슨은 중국 지식인들의 도움을 얻어 1850년부터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해부학과 생리학을 비롯한 서양의 근대의학 지식을 총망라한 醫書들을 번역, 편찬하였다.<sup>49)</sup>

1860년대 말부터는 청(淸) 정부가 선교 의사들과 함께 조직적인 醫書 번역 사업을 개시하였다. 이들 醫書는 중국의 전통 의사들과 지식인 및 관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淸朝의 황실과 관료들은 서양문물에 대해 민간 지식인들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19세기 중반이후 열강의 중국 침투가 본격화하면서 이 보수성은 한층 심해졌다. 이와 더불어 아편전쟁 패배이후, 중국은 열

47) Benjamin Hobson, 1816-1873.

48) 병원역사문화센터 編, 《동아시아서양의학을 만나다》(서울: 태학사, 2008), 210쪽.

49) 《全體新論》, 《博物新編》, 《西醫略論》, 《婦嬰新設》, 《內科新說》, 《醫學新語》 등 홉슨의 譯書들은 중국 뿐 아니라 그 주변국까지 큰 영향을 끼쳤다. 뒤이어 글라스고도 1859년부터 44년간에 걸쳐 34종의 서양 醫書를 번역하였다. 위의 책, 30쪽.

강의 침략에 늘 무력하게 굴복하였다. 모든 분야에서 서양문물제도의 실용성이 입증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배층은 자신들에게는 서양인들이 결코 따를 수 없는 영역들이 있다고 믿었다. 의학은 실용학문이었지만 중국의 세계관 및 인간관의 핵심을 구성하는 이론과 긴밀히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變改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중국지배층의 시대착오적인 태도와 판단은, 魯迅으로 하여금 중국 전통의학에 대한 불신과 자국민에 대한 자조적인 비판을 가하게 한 것이리라.

그러나 일본에 와서 해부학 수업시간에 중국의 책을 접하게 되면서 일본에서의 서양의학 지식의 수준을 가늠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보인다. 魯迅은 원래 독일로 유학하기를 희망했다. 그는 당시 서양 학문에 대한 기대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어쩌면 그는 후지노 선생의 「친절」과는 별개로, 근본적인 일본 서양의학의 수준에 대한 학문적 의문을 품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보인다. 그는 후지노가 친절을 베풀기 전, 그다지 수업에 열심인 학생이 아니었다. 일본에서의 서양의학 습득에 매진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는 그저 신학문 중 하나인 의학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明治維新을 이끈 인물들은 서양을 배운 인물들이었고, 방법상으로 그들은 蘭學을 거쳐 서양 의학을 익힌 관료들이 주도권을 쥐게 되는 과정에서 의학은 권력을 획득해 간 것이다. 魯迅은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이미 의학을 공부하기로 결정 했는데,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새로운 의학이 일본 유신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143쪽)

아마 明治維新의 주역이 의학과 관련되지 않았다면 다른 과목을 선택했을 것이다.

당시의 청소년은 대개 약간의 포부가 있는 사람으로 모두 대학의 예비생이었다. 당시에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제1부는 이미 혐오하는 마음이 있어 배울 가치가 없다고 여겼고 문학과 철학은 실제에 보탬이 없다고 여겨 배우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공과가 가장 절

실했는데 또 수학이 두려웠기 때문에 감히 배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제3부에 응시하여 의과를 선택하기로 했다. 이 당시에 의과에 응시하는 것은 국내에서 軍醫學校에 응시하는 것과는 완전히 사정이 달랐다. 나도 처음에는 열심히 의학을 배워 국가와 사회에 대해 공헌을 할 생각이었으나 결국 학업을 마치지 못했다. 이것은 분명히 유감스런 일이다.<sup>50)</sup>

물론 위의 郭沫若의 인용은 당시의 모든 유학생을 대변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魯迅의 경우도 비슷했을 것이다. 앞서 魯迅의 고백에도 밝혔듯이 魯迅은 일본의 明治 유신이 의학에서 시작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 점은 의학이든 문학이든 철학이든 이공과이든 조국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좋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속도와 효용」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당시 明治維新이 성공한 일본으로 유학길을 떠났던 중국의 지식 청년들은 속도와 효용적인 면에서 서양의 학을 배우려는 열의에 차 있었다고 볼 수 있다.

魯迅은 「환등의 화면 속에서 동포의 비참함을 보았을 뿐 만 아니라, 그 비참함 속에서 그 자신도 보았던 것」<sup>51)</sup>이다. 동포의 시대착오적인 무지를 문학으로 구제하려는 식의 기분 좋은 희망을 품고서 仙台를 떠났던 것이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스스로 힘겨워 한 의학에서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문학을 선택한다는 식의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환등기 속의 동포들의 「굴욕」은 무엇보다 자신에게로 향한 굴욕이었을 것이다. 무지한 동포를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그런 동포를 안타까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자신에 대한 연민이었던 것이다. 동포를 불쌍히 여겼던 것은 그의 내면으로 향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다. 그 끝없는 내면의 자조적인 물음이 문학이라는 형태로 매듭지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魯迅을 살펴볼 때, 「문학이 탄생하는 장소는 항상 정치에 둘러싸여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다케우치의 지적은 타당하다. 그것은 문학이 꽃을 피우기 위한 가혹하고 격렬한 자연 조건이기 때문이다.

魯迅에게 있어 민중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의학도 문학도 정치도 모두

50) 馬伯英 외 著, 정우열 譯, 《中外醫學文化交流史》(서울: 전파과학사, 1979), 514쪽.

51) 다케우치 요시미 저, 서광덕 역, 《루쉰》(서울: 문학과지성사, 2003), 73쪽.

연관된 하나, 그저 다른 모양에 지나지 않았다고 보인다.

#### 4. 나오며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경험하면서 동아시아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개편된다. 일본의 경우, 이 전쟁은 明治시대의 「국체」를 확고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일본은 두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유럽의 열강들과 어깨를 겨룰 수 있는 근대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변두리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을 암시하는 「支那」로 위치가 격하되었고, 일본은 오랫동안 문화적으로 의존해 왔던 중화적 세계로부터의 분리를 위해 支那를 보급시켰다.

16세기 「선교의학」이었던 서양의학은 제국주의가 팽창함에 따라 위생제국 건설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었으며, 森鷗外와 魯迅은 이것의 가치를 잘 파악하고 있었다.

동양의 선두인 일본의 森鷗外도 나우만에게서는 「他者化」된 오리엔트에 불과하다는 것이 논쟁을 통해 확인된다. 森鷗外 자신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나우만에 의해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야만이라는 가치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森鷗外는 서양과 동등해지고자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強辯했다. 나우만은 서양의 눈으로 동양의 선두 일본을 마음껏 조롱하고, 그 衰滅을 예고한다. 하지만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총력적인 明治政府의 지원 아래 森鷗外의 과학적 위생국가 건설의 꿈은 점차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거기에는 文學者 · 軍醫 · 衛生學者인 森鷗外가 서양과 「同等」해지기 위해 전투적으로 분신하는 모습이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의학도 魯迅은 醫專 在學 도중, 자신의 역할에서 근대의학 효용의 한계를 깨닫고 문학으로 전환한다. 이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것으로는 장소로서 仙台醫專이며, 時期로서 러일전쟁이, 후지노와 周樹人の 인연을 엮어내고 있었다. 支那人 의학과와 日本人 선생의 만남은 20여년 후 국책소설 《惜別》을 낳게 되고, 文學報國會는 太宰治를 통해, 40여년 전의 침략자의 施惠를 추억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仙台는 제국주의 실현의 한 장으로 볼 수 있으며, 오늘날에는 中日親善을 목적으로 그 추억

은 이어지고 있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해석될 수 있다.

周樹人の 자아 비판적 회심은 혁명가 魯迅에게 정치적 생명력을 불어넣어주지만, 魯迅으로 하여금 작품 속에서는 끊임없이 증도에 그만둔 근대 의학의 역할을 차용케 한다. 즉 魯迅은 누구보다도 근대 의학의 정치적 효력을 알고 있었고 근대문명을 수행하는 이가 의사임을 깨닫고 있었다.

위생 제국 건설에 전투적으로 이바지 한 森鷗外지만, 유학생활을 통해 발아한 서구자유주의 사상과 문학 창작에 대한 욕구 등은 제국주의 현실에 회의를 품게 했다. 이러한 間隙을 그는 문학으로 채우려 했던 것이다. 이는 혁명가 魯迅이 정치적 변화를 문학이라는 도구로 풀어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따라서 근대 서양의학은 선교사를 따라 또는 식민지 개척자를 따라, 물리적 국경을 넘어 그 세력을 확장하면서 과학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학적 발전 그 자체가 권력이 되었다. 의학적 지식 그 자체가 권력화 되고 결정권을 가지게 되면서 사상적으로 월경해 가는 것을 森鷗外와 魯迅의 생애와 유학체험의 분석을 통해 밝혀낼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森鷗外, 《森鷗外全集·1》(東京: 筑摩書房, 1996)  
太宰治, 《太宰治全集·7》(東京: 筑摩書房, 1983)  
山寄一穎 編著, 《森鷗外》(東京: 有精堂, 1989)  
飛鳥井雄道, 《鷗外その青春》(東京: 角川書店, 1976)  
小堀 桂一郎, 《若き日の森鷗外》(東京: 東京大学出版部, 1969)  
石黒忠恵, 《懷舊九十年》(東京: 岩波文庫, 1983)  
吉野俊彦, 《あきらめの哲学 森鷗外》(東京: PHP研究所, 1980)  
吉野俊彦, 《青春の激情と挫折 森鷗外》(東京: PHP研究所, 1980)  
吉野俊彦, 《豊熟の時代 森鷗外》(東京: PHP研究所, 1980)  
吉野俊彦, 《權威の反抗 森鷗外》(東京: PHP研究所, 1980)

- 吉野俊彦, 《虛無からの脱出 森鷗外》(東京: PHP研究所, 1980)  
望田幸男, 《近代日本とドイツ》(東京: ミネルウア書房, 2007)  
長谷川泉, 《森鷗外文学の位相》(東京: 明治書院, 1974)  
森鷗外, 《新潮日本文学アルバム》(東京: 新潮出版, 1985)  
森鷗外, 《森鷗外全集》(東京: 筑摩書房, 1985)  
魯迅 著, 한무희 譯, 《魯迅文集·2》(서울: 일월서각, 1992)  
노신문학회편역, 《노신선집》(서울: 여강출판사, 2003)  
竹内好, 《魯迅》(東京: 日本評論社, 1944)  
山田野理夫, 《仙台時代の魯迅の師友》(東京: 岩波書店, 1969)  
山田野理夫, 《仙台時代の魯迅の師友》(東京: 岩波書店, 1969)  
半沢正二郎, 《魯迅·藤野先生》(東京: 日中出版, 1966)  
丸山昇, 《魯迅その文学と革命》(東京: 平凡社, 1965)  
半沢正二郎, 《魯迅·藤野先生》(東京: 日中出版, 1966)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지음, 《중국현대문학과의 만남》(서울: 동녘, 2006)  
위엔량권 著, 구문규 譯, 《루쉰 잡문예술의 세계》(서울: 学古房, 2003)  
박홍규, 《자유인 루쉰》(서울: 우물이 있는 집, 2002)  
森川潤, 《ドイツ文化の移植基盤》(東京: 雄松堂出版社, 1997)  
ヘンリー・ダイアー, 《大日本》(東京: 実業之出版社, 1999)  
이종찬, 《동아시아 의학의 전통과 근대》(서울: 문학과지성사, 2004)  
柄谷行人 著 박유하 옮김, 《일본근대문학의 기원》(서울: 민음사, 1997)  
오로다케시 지음, 신유미 옮김, 《일본문학과 몸》(서울: 열린책들, 2005)  
馬伯英·高晞洪中立 著, 정우열 譯, 《中外醫學文化交流史》(서울: 전파과  
학사, 1979)  
《国文学》(學燈社, 2005)

### 〈Abstract〉

As manifested in controversies, Mori Ougai in the forefront of the Orient was just an oriental otherized to Naumann. Before



Mori Ougai did not have an awareness of it, judgment of barbarism on Japan was formed by Naumann. Mori Ougai got into a strong argument over what Naumann maintained, with all knowledge he could mobilize in order to be equal with the West. Naumann scoffed at Japan from the standpoint of a westerner, and forecasted its decline and fall.

Lu Xun, while he was a medical student, realized the limits of modern medicine's utility and converted to literature. At Sendai Medical School, when the Russo-Japanese War broke out, Fujino and Zhōu Shùrén began to form close ties together. Their acquaintance led to a national policy-based novel 'Farewell' 20 years later, and through Dajai, National Literature Association has recalled the benefits and favor that invaders bestowed 40 years ago.

In conclusion, modern western medicine made a scientifically great stride as it expanded its influence with missionaries, colonists, and beyond any physical boundaries. At the same time, medical development had power effect in itself. I could see through the signs of ideological changes that Mori Ougai and Lu Xun manifested as medical knowledge set out to assume empowerment in itself and have a decisive power.

**Key Words:** Modern medicine, Literary conversion, Sanitary country, Otherization, Gap, Agony, Modernization

투 고 일 : 2009.2.15

심 사 일 : 2009.3.10-3.30

게재확정일 : 2009.4.25

## 韓國朝鮮時代《訓蒙字會》與中國古代字書的 傳承關係考察\*

—以《訓蒙字會》地理類收字與《宋本玉篇》比較為例

王平\*\*

### 〈目 次〉

1. 《訓蒙字會》在中國古代字書序列中的位置
2. 《訓蒙字會》地理類收字與《宋本玉篇》之比較
3. 調查數據及分析
4. 研究結論

《訓蒙字會》（以下簡稱《字會》）由韓國朝鮮時代著名的漢語學家崔世珍於1527編著。該書是目前韓國現存最早的漢字學習字典。《字會》分為3卷，上卷包括16類：天文、地理、花品、草卉、樹木、果實、禾穀、蔬菜、禽鳥、獸畜、鱗介、昆蟲、身體、天倫、儒學、書式。中卷包括16類：人類、宮宅、官衙、器皿、食饌、服飾、舟船、車輿、鞍具、軍裝、彩色、布帛、金寶、

音樂、疾病、喪葬；下卷為雜語。書以“訓蒙字會”為名，說明作者編寫之目的是為學生學習漢字之用。縱觀全書所取字彙皆生活中之常用字，作者給每個漢字注以韓音，在多數字後附有韓漢兩種文字的簡單釋義，從功能上看，已具備字典之用。《字會》的編排整齊押韻，便於誦讀記憶，像這樣集字典與課本於一身的專書，在中國古代亦不多見<sup>1)</sup>。所以，《字會》不僅記錄了漢字在韓國朝鮮時代的實際使用情況，還保存了韓國朝鮮時代教育用漢字之字量、字形、字音、字義等多方面的信息。這些信息，對今天我們探討漢字在韓國的傳播歷史以及漢字在域外的形音義發展等研究都是非常珍貴

\* 基金項目：中國教育部重點人文基地重大項目《中韓通用漢字研究》；項目批准號：08JJD740056

\*\* 華東師範大學 中國文字研究與應用中心 教授 (wpwp22@hotmail.com)

1) 中國現存最早的童蒙識字課本《千字文》，僅列漢字沒有注釋音義。

的。本文以《字會》地理類收字為例，將其與《宋本玉篇》相比照，試圖探討《字會》所收字與中國古代字典之淵源關係，進而探討韓國朝鮮時代教育用漢字之特點。

## 1. 《字會》在中國古代字書序列中的位置

在中國古代工具書中，以解釋漢字形義為主的書，我們通稱之為字書。東漢許慎所著《說文解字》（以下簡稱《說文》）是中國第一部以貯存小篆和其他古文字類型的字書，作者以結構分析建立了字形構造與意圖的聯繫，是中國現存解釋漢字本義的第一書。南北朝時代顧野王編寫的《玉篇》是代表歷史漢字由古文字向今文字過渡定形的第一部字書。顧野王的原本《玉篇》大約亡佚于唐末宋初，唐人孫強增字本通行後，顧氏原本也就散失不傳了。根據日本人馬淵和夫《玉篇佚文補正》（《東京文理科大學國語國文學會紀要》第三號）統計，《玉篇》殘卷現存63部，2087字。宋真宗大中祥符六年（1013）陳彭年等又奉詔重修《玉篇》，據以重修的是孫強本，這就是流傳至今的《宋本玉篇》（以下簡稱《玉篇》）。《玉篇》保存了從南北朝到唐宋之際的歷史漢字形音義系統發展演變的豐富信息，“《玉篇》以被歷代增益改變，面目全非的代價，換得了流傳至今的地位。”<sup>2)</sup>由此，我們可以這樣說《玉篇》以楷書形式將各個時間層次累積下來的歷史漢字收集整理並予以定形規範，成為研究中古歷史漢字的重要座標。《玉篇》的體制特點在於將歷代傳抄的歷史漢字各種古文字類型賦予一定的楷書形式，並界定由此帶來的各種字形關係。對歷史漢字過渡到現代漢字進行定形聚合，《玉篇》也就不再仿效《說文》，側重進行結構類型的分析。這種功能定位是符合歷史漢字發展實際的：歷史漢字經過《玉篇》的系統規整，絕大部分的漢字結構只存筆勢輪廓，基本字彙就是符號化記號化過程的結果。繼《玉篇》之後的另一本影響力較大的字典是《字彙》。《字彙》為明代梅膺祚所著，成書於明萬曆四十三年（西元1615年），收字33179個，全書按楷書筆劃，把《說文》540部首，改並為214部首。部首次序按筆劃多少排列，少

2) 臧克和：《原本玉篇文字研究·序》，第5頁，齊魯出版社，2004年。

者在前，多者在後。《字彙》對漢字運筆先後、字形字體等都作了規範，對古今通用字也進行了列舉，在檢字、注音、釋義等方面都有改革和創新，檢字按偏旁部首筆劃為序，注音先列反切，後注直音，解釋字義則以基本的常用義列前，其他列後，更加便於使用和檢索。《字彙》的編纂對漢字的簡化、規範和發展都具有重大的意義。《康熙字典》是清代康熙皇帝令張玉書等人參照《字彙》和《正字通》編纂而成。全書分為12集214部，每字下詳列反切，並加注直音，字義之下都引古籍中的文句為例，是中國古代字典的集大成者。

如果將韓國朝鮮時代的《字會》置於以上中國古代字書的序列中，我們就能夠更加清楚地認識到它的價值。《字會》成書於1527年，這個時間前承宋本《玉篇》，後啟明代《字彙》。因此我們可以認定《字會》所收集的漢字在時間層次上與《玉篇》具有一定的傳承關係。

## 2. 《字會》地理類收字與《玉篇》之比照

以下我們以字頭為單位，按照《字會》地理類收字的次序，對《字會》地理類的漢字在《玉篇》中的對應情況、釋義情況進行調查。

《字會》山。《玉篇·山部》：山，所姦切。高大有石曰山。山，宣也，產也，散氣以生萬物也。

《字會》嶽，亦作岳。《玉篇·山部》：嶽，牛角切。五嶽也，王者巡守所至之山。岳，同上。崑，同上。𡵓，古文。出《說文》。

《字會》峯。《玉篇·山部》：峯，孚容切。高尖山。

《字會》岫，山有穴曰岫。《玉篇·山部》：岫，似又切。山有巖穴。

《字會》壑，俗稱山壑，又大壑，海也。《玉篇·土部》：壑，呼各切。深也，阨也，塹也。《爾雅》云：壑，虛也。謂溪壑也。

《字會》谷，又作峪。《玉篇·穀部》：谷，古木切。水注谿也。又餘玉切。

《字會》崖。《玉篇·巛部》：崖，牛佳切。高邊也。

《字會》岸。《玉篇·巛部》：岸，午旦切。水涯而高者也，魁岸雄桀也，高也。

《字會》巖，俗稱巖頭，又曰石路。《玉篇·山部》：巖，午衫切。積石

兒也，峯也。

《字會》嶂，形如屏障。《玉篇》無對應字。

《字會》嶺。《玉篇·山部》：嶺，力井切。坂也。或作岭。

《字會》峴，峻岭也。《玉篇·山部》：峴，戶顯切。山也。

《字會》崗。與《玉篇》間接對應。

《字會》巔。《玉篇·山部》：巔，多田切。山頂也。

《字會》峒，俗称山峒，通作洞。又平声，崆山，山名。《玉篇·山部》：峒，達貢切，又徒董切。山。

《字會》麓，《玉篇·林部》：麓，力木切。山足也。《說文》曰：守山林之吏也。一曰林屬於山爲麓。𡵓，古文。

《字會》丘。與《玉篇》間接對應。

《字會》原。寬平曰原。與《玉篇》間接對應。

《字會》阜，岸也，又，澤也。無對應字。

《字會》阜，大陸曰阜。《玉篇·阜部》：阜，扶九切。大陸也，山無石也，盛也，肥也，厚也，長也。阜，同上。

《字會》坡。《玉篇·土部》：坡，匹波切。坡，坂也。

《字會》阪，陔者曰阪。又澤障，又山脅，亦作坂。《玉篇·阜部》：阪，甫晚、步坂二切。陔也，山脅也，險也。

《字會》陵，大阜曰陵。《玉篇·阜部》：陵，力升切。大阜也，犯也，冢也，慄也，馳也，陵遲也。或作凌、勑。

《字會》陸，高平曰陸。《玉篇·阜部》：陸，力竹切。厚也，道也，星也，無水路也，陸離猶參差也，雜亂也。𡵓，籀文。古文作巖。

《字會》泥，水和土，又塗墁也。《玉篇·水部》：泥，奴雞切。水，出郁郅縣。又奴禮切，濃露兒。

《字會》土，土壤。《玉篇·土部》：土，他戶、達戶二切。《說文》曰：地之吐生物者也。二象地之下、地之中，物出形也。《白虎通》曰：土主吐含萬物，土之爲言吐也。

《字會》塹，險崖陡峻處。《玉篇》無對應字。

《字會》埵，又蚁穴封。《玉篇·土部》：埵，徒結切。蟻冢也。

《字會》郊，邑外十里爲近郊，百里爲遠郊。《玉篇·邑部》：郊，古爻切。《周禮》曰：五百里爲遠郊。《爾雅》曰：邑外謂之郊。

《字會》甸。《玉篇·田部》：甸，徒見切。《夏書》曰：五百里甸服。《孔傳》云：規方千里之內謂之甸服。《周禮》云：九夫爲井，四井爲邑，四邑爲丘，四丘爲甸，四甸爲縣。

《字會》坪，大野曰坪，通作平。與《玉篇》間接對應。

《字會》野，郊外曰野。《玉篇·里部》：野，餘者切。郊外也。又常渚切。

《字會》礪。又汰也，又下卷。《玉篇·石部》：礪，居良切。礪石也。

《字會》礫。《玉篇·石部》：礫，力的切。小石也。礫，同上。

《字會》沙，又水旁曰沙。《玉篇·水部》：沙，所加切。《說文》曰：水散石也。又素何切。沱，《說文》同上。

《字會》磧，水渚有石，又虜中沙漠。《玉篇·石部》：磧，千的切。水渚石，水淺石見。

《字會》礁，水底尖石，船行所忌，俗称暗礁。《玉篇》無對應字。

《字會》石。《玉篇·石部》：石，市亦切。山石也。又厚也，斛也。

《字會》島。《玉篇》無對應字。

《字會》嶼。《玉篇·山部》：嶼，似與切。海中洲。

《字會》湖，大陂。《玉篇·水部》：湖，戶徒切。大陂也。

《字會》海，大海。《玉篇·水部》：海，呼改切。大也，受百川，萬谷流入。漚，同上。

《字會》淵，止水而深曰淵。《玉篇·水部》：淵，烏玄切。水停。又深也。囷，古文。

《字會》川，众流注海为川。无字头对应。

《字會》溪，水注川曰川，小曰溪，大曰澗。《玉篇·水部》：溪，口兮切。溪澗。溪，亦溪字。

《字會》澗，山夾水曰澗。《玉篇·水部》：澗，古鴈切。澗水，出弘農。又山夾水曰澗。

《字會》江，今俗谓川之大者皆曰江，又水名。《玉篇·水部》：江，古雙切。《山海經》云：水出嶧山。

《字會》河，水名，黄河。北方流水通称。《玉篇·水部》：河，戶柯切。河，出崑崙山。

《字會》汀，水際旱地。《玉篇·水部》：汀，他丁切。水際平沙也。

《字會》洲，水中可居處。《玉篇·水部》：洲，之由切。水中可居也。

《字會》渚，小洲曰渚。《玉篇·水部》：渚，之與切。水，出中丘縣逢山。又小洲也。

《字會》沚，小渚曰沚。《玉篇·水部》：沚，之以切。小渚也。亦作沚。沚，上同。《說文》曰：水暫益且止，未減也。

《字會》濤，大波，又潮頭。《玉篇·水部》：濤，徒刀切。大波也。

《字會》浪，大波曰浪，又諺浪，又平聲，滄浪，水名。《玉篇·水部》：浪，力唐切。滄浪，水也。又力宕切，波浪也。

《字會》瀾，大波。《玉篇·水部》：瀾，力安切。大波曰瀾。

《字會》波，俗稱波浪貌。《玉篇·水部》：波，博何切。水起大波爲瀾，小波爲淪。

《字會》津，水渡，又氣液。《玉篇·水部》：津，子鄰切。潤也，梁也。又水渡也，古作離字。津，同上。出《說文》。

《字會》梁，水橋也，又水堰也。又石絕水爲橋。《玉篇·水部》：梁，音良。水橋也。漆，古文。

《字會》潮，朝曰潮，俗稱大潮曰大汛，小潮曰小汛，總呼潮信。與《玉篇》間接對應。

《字會》汐，夕曰汐。《玉篇·水部》：汐，辭歷切。水。

《字會》灘，瀨也即水中沙處。無字頭對應。

《字會》瀨，水流沙上；又湍也。《玉篇·水部》：瀨，力大切。《說文》曰：水流沙上也。

《字會》湍，疾瀨。《玉篇·水部》：湍，他端切。急瀨也。

《字會》渦，水回俗呼旋港水。《玉篇·水部》：渦，古禾切。渦水也。

《字會》浦，大水有小口。《玉篇·水部》：浦，配戶切。水源枝注江海邊曰浦。

《字會》溆，浦也。《玉篇·水部》：溆，詞與切。浦也。溆，同上。水名，在洞庭。

《字會》港，汊港，水派；又水中行舟道，又藏舟處。《玉篇·水部》：港，古項切。水派也。

《字會》汊，水歧流。《玉篇》無對應字。

《字會》井。《玉篇·井部》：井，子郢切。穿地取水也。伯益造之，因

井爲市也。法也。

《字會》泉。《玉篇·泉部》：泉，自緣切。山水之原也。淦，古文泉字。

《字會》沼，圓曰池曲曰沼。《玉篇·水部》：沼，支紹切。池沼也。

《字會》塘，池塘，又堤岸。《玉篇·土部》：塘，徒郎切。隄塘也。

《字會》洋，海洋。凡物盛多皆曰洋。又洋洋，盛貌。《玉篇·水部》：洋，以涼切。水，出崑崙山北。又音祥。

《字會》派，水支流。《玉篇·水部》：派，普賣切。別水名。

《字會》瀆。《玉篇·水部》：瀆，扶文、扶芻二切。湧泉也。

《字會》涯，俗稱河沿。《玉篇·水部》：涯，五佳切。水際也。

《字會》潭，水深處為潭。《玉篇·水部》：潭，徒耽切。水，出武陵。

《字會》湫，龍所居。《玉篇·水部》：湫，子由切。水名，在周地。又子小切，湫隘也。又疾久切。

《字會》洿，牛馬碣中水。《玉篇·水部》：洿，字廉切。魚寒入水。又仕林切，洿陽，地名。

《字會》瀧，又音𠵼。奔湍。《玉篇·水部》：瀧，力公切。《方言》：瀧涿謂之沾漬。又音雙。

《字會》沮，又水名。《玉篇·水部》：沮，七餘切。水名，出房陵。又才與、子預二切。

《字會》洳，又水名。《玉篇》無對應字。

《字會》窪，沮洳窪，皆漸濕之地，非淀澱之比。《玉篇·穴部》：窪，烏瓜切。深泉。

《字會》澤，汎稱。《玉篇·水部》：澤，直格切。水停曰澤。又光潤也。

《字會》洿，停水。《玉篇·水部》：洿，於徒切。潢洿行潦也。汗，同上。又一故切。

《字會》潢，池又天河，亦呼銀河。《玉篇·水部》：潢，後光切。潢汗也。《說文》曰：積水池也。又胡曠切，染潢也。

《字會》滌，水所停。《玉篇·水部》：滌，音豬。水所停也。

《字會》陂，蓄水為陂，又音坡。不平也。《玉篇·阜部》：陂，彼皮切。澤鄣也，池也。又碑僞切，傾也，邪也。又普何切，陂陀，靡池也。



《字會》潦，雨水。《玉篇·水部》：潦，郎道切。雨水盛也。亦作滂。又盧皓切。

《字會》灑，俗作洪發灑。《玉篇·水部》：灑，戶工切。大波也。

《字會》泡，俗稱水泡。又潰也，字作滂。《玉篇·水部》：泡，普交、薄交二切。水，出山陽。又流兒。

《字會》漚，俗稱漚，又去聲，久潰也。《玉篇·水部》：漚，於候切。漚麻也，久潰也。又音謳。

《字會》淀，淺泉。《玉篇·水部》：淀，徒練切。淺水也。

《字會》灤，淀灤，皆湖泊別名。《玉篇·水部》：灤，力谷、力各二切。水，在濟南。又音粕，陂灤也。

《字會》蕩，俗稱茅蕩，廬蕩；又大也，放蕩，滌蕩。《玉篇·水部》：蕩，達朗切。《漢書》：蕩水，出河內陰縣。又音湯。或作濬。又廣兒。

《字會》湄，水草交處。《玉篇·水部》：湄，莫悲切。《爾雅》云：水草交曰湄。灋，同上。

《字會》路，俗呼路子官路。《玉篇·足部》：路，呂故切。道路。

《字會》途。《玉篇·辵部》：途，度胡切。途，路也。

《字會》徑，俗呼抄路。《玉篇·彳部》：徑，古定切。小路也。

《字會》蹊。《玉篇·足部》：蹊，遐雞切。徑也。

《字會》衢。《玉篇·行部》：衢，近虞切。四達道也。

《字會》達。《玉篇·辵部》：達，奇歸切。九達道。

《字會》岔，俗呼路岔。《玉篇》無對應字。

《字會》歧。《玉篇·止部》：歧，翹移切。歧路也。

《字會》堤，岸也緣邊也。亦作隄。《玉篇·土部》：堤，常支、多礼二切。滯也。劉兆曰：緣邊也。又音低。與隄同。

《字會》堰。《玉篇·土部》：堰，於幟切。壅水也。又於建切。

《字會》插，以板防河，蓄水通舟，俗稱插河。通作閘。《玉篇》無對應字。

《字會》壩，以石作堰障水。《玉篇》無對應字。（坝）

《字會》衢。《玉篇》無對應字。

《字會》衢，俗稱衢衢。《玉篇·行部》：衢，徒東切。下也。亦通街也。又徒弄切。

《字會》巷，街上交道又宮中別道亦，亦作衢。與《玉篇》間接對應。

《字會》陌，市中街，又阡陌，即田間道。《玉篇·阜部》：陌，莫百切。阡陌也。

《字會》關，又支給官物。无字头对应。

《字會》隘，又陝也。與《玉篇》間接對應。

《字會》塞，邊界。又入聲，防塞。《玉篇·土部》：塞，蘇代切。《說文》云：隔也。又蘇得切，實也，滿也，蔽也。

《字會》徼，邊也。又邏卒曰游徼；又平聲，徼幸。《玉篇·彳部》：徼，古爻切。要也，求也。相如《封禪書》：徼麋鹿之怪獸。

《字會》境。《玉篇·土部》：境，羈影切。界也。

《字會》界。《玉篇·田部》：界，耕薤切。《爾雅》云：疆、界，垂也。𡗗，同上。

《字會》疆。《玉篇·土部》：疆，居良切。境也，邊陲也，界也。又作置。壘，同上。

《字會》域。《玉篇·土部》：域，爲逼切。居也，封也。

田，《玉篇·田部》：田，徒堅切。土也，地也。《說文》云：陳也。樹穀曰田，象四口。十，阡陌之制也。《易》曰：見龍在田。王弼《易通》曰：龍處於地，故曰田也。

《字會》園，種果為園，俗稱果園。又樊籬也。《玉篇·口部》：園，于元切。園圍也。

《字會》場，俗呼稻場。《玉篇·土部》：場，始羊切。封場也。又耕場。

《字會》圃，種菜為圃。俗稱菜園。玉篇·口部》：圃，布五、補五二切。菜園。

《字會》苑，植花木處。《玉篇·艸部》：苑，於遠切。養禽獸園也。

《字會》囿，域養禽獸處。《玉篇·口部》：囿，于六、于救二切。苑有垣也。𡗗，籀文。

《字會》林。《玉篇·林部》：林，力金切。《說文》曰：平土有叢木曰林。

《字會》藪。《玉篇·艸部》：藪，桑後切。澤無水曰藪。《周禮》有九藪。大澤曰藪。

《字會》壟。《玉篇·土部》：壟，力竦切。《方言》曰：冢，秦晉之間或謂之壟。郭璞曰：有界埒似耕壟，因名也。亦作壟。

《字會》畎，平疇。《玉篇》無對應字。

《字會》畹。《玉篇·田部》：畹，於遠、於萬二切。王逸曰：田十二畝為畹。秦孝公二百三十步為畝，三十步為畹。畹，同上。

《字會》畛，田間道。《玉篇·田部》：畛，諸引、諸鄰二切。十夫之道也。《說文》云：井田閒陌也。畛，古文。

《字會》畦，俗指菜田曰菜畦。正音奚。《玉篇·田部》：畦，胡圭切。《說文》云：田五十畝曰畦。《史記》曰：千畦薑韭。韋昭云：畦猶隴也。

《字會》疇，汎稱。《玉篇·田部》：疇，直流切。《周書》云：天乃錫禹九疇。孔安國曰：九類也。杜預曰：並畔為疇。《說文》作疇，云耕治之田也。疇，《說文》疇。

《字會》畎，田中溝。《玉篇·田部》：畎，古汝切。隴中曰畎。《夏書》曰：濬畎澮，距川。《孔傳》曰：廣尺深尺謂之畎。《說文》又作畎。畎，古文。

《字會》畝，六尺為步，步百為畝，百畝為頃。《玉篇》無對應字。

### 3. 數據統計及分析

#### 1) 《字會》地理類收字與《玉篇》有字形對應的

《字會》地理類136字在字形上與《玉篇》有對應的凡121字。這121字又有以下兩種情況：

(1) 《字會》地理類收字中有113個字與《玉篇》字頭直接對應。這113個字涉及《玉篇》中的22個部首，在各個部首中的分佈情況如下：

水部46：水津波瀾浪濤沚泥渚湖河港澗溪淵海沙汀湄澤涯湫潢沔瀧澗漚潭泡瀨

江潦瀦洿沮淑沓蕩瀨湍渦浦灤淀沼洋派

土部13：壑壟疆堤塘塞境堰坡埒域土塲

山部10：山巔嶼峴嶺巖岫峯嶽峒

田部8：田疇界畦畎畹甸畛

阜部6：陵陸阪陂陌

石部4：石礪磔磧

口部3：園囿圃

艸部2：苑藪

林部2：林麓

彳部2：徑徼

行部2：衢衢

辵部2：途達

足部2：路蹊

尸部2：崖岸

谷部1：谷

井部1：井

里部1：野

木部1：梁

泉部1：泉

穴部1：窪

邑部1：郊

止部1：歧

州部1：州

部首是漢字某一字類的意義綱領，從以上所具22個部首以及統字頻率，我們可以看出，與“地理概念”有關係的漢字在韓國朝鮮時代的教育用字中就累聚在一起了。而且，這些字彙沿用至今，屬於漢語中的基本字彙，在形意義方面沒有發生本質的變化。另外，《字會》地理類收字居全書之第二，可見中國古代“上識天文，下識地理”的意識也已經深入到韓國古代漢字識字教育之中。

(2) 《字會》地理類收字中有8個字與《玉篇》字頭間接對應。所謂間接對應是指《字會》地理類中的某一字在《玉篇》字頭的位置找不到直接對應字，但在重文的位置上可以找到與之對應的字。

《字會》崗。《玉篇》：岡，古郎切。山脊也。俗作崗。

《字會》原。《玉篇》：邘，魚袁切。《說文》曰：高平之野，人所登。或作原。

《字會》坪。《玉篇》：埜，蒲京切。《說文》曰：地平也。亦作坪。又

音病。

《字會》巷。《玉篇》：𨔵，胡絳切。《爾雅》曰：𨔵門謂之閔。亦作巷。

《字會》潮。《玉篇》：淖，直遙切。《說文》曰：水朝宗于海也。潮，同上。

《字會》灘。《玉篇》：灘，他丹切。水灘也。又呼旦切。灘，同上。

《字會》丘，《玉篇》：𡵓，去留切。虛也，聚也，冢也。《夏書》曰：是降丘宅土。孔安國云：土高曰丘。《周禮》曰：四邑爲丘，四丘爲甸。《漢書》云：高祖過其丘，嫂食。丘，空也。《廣雅》云：小陵曰丘。丘，居也。𡵓、丘，並同上。

《字會》隘。《玉篇》：𨔵，於懈切。陘也。今作隘。

《字會》與《玉篇》字頭簡接對應的8个字，在《玉篇》中處於重文位置，也可以說，這些字在《玉篇》收字的時代，是異體字，尚未取得正字的地位，所以，《玉篇》以“俗作”、“亦作”、“或作”、“同上”、“今作”稱之。

## 2) 《字會》與《玉篇》無對應的字

《字會》與《玉篇》無對應的字凡15字，具體分作以下3種情況。

(1) 《字會》與《玉篇》屬於同一個字，但字形寫法有別。這種情況一共有4字。

《字會》川，《玉篇》：𡵓，齒緣切。注瀆曰川也，流也，貫穿也，通也。古爲坤字。

《字會》皐，《玉篇》：皐，古刀切。澤也。皐，同上。皐：氣皐白之進也。從夊從白。《禮》：祝曰皐，登謠曰奏。故皐奏皆從夊。《周禮》曰：“詔來鼓皐舞。”又《廣韻》皐亦作皐；亦作皐。

《字會》島，《玉篇》：隄，丁了、丁老二切。今作島。隄，同上。

《字會》畝，《玉篇》：晦，莫走切。《司馬法》：步百爲晦。畝同上。畝，《說文》與晦同。

(2) 《字會》收字在《玉篇》字頭和重文的位置沒有對應，但在《玉篇》行文中可以找到。這種情況有1個字。通過《玉篇》全文檢索系統，我們檢索到“關”字《玉篇》中出現19次。

(3) 《字會》收字在《玉篇》中無對應字。這種情況有10個字。也就是

說，這10個字在《玉篇》字頭、重文及全文檢索中都沒有出現。

《字會》嶂，形如屏障。按，嶂字《廣韻》收錄。《文選·沈約〈鐘山詩應西陽王教〉》“鬱律構丹巘，峻嶒起青嶂。”呂向注：“山橫曰嶂。”

《字會》礁，水底尖石，船行所忌，俗稱暗礁。清·王韜《甕牖餘談·照船塔燈》：“蓋西國操舟者，不憚風濤，而畏礁石。”

《字會》汧，水歧流。按，汧字《集韻》收錄。金·元好問《善應寺》詩之一“平崗回合盡桑麻，百汧清泉兩岸花。”

《字會》洳，又水名。按，洳字《廣韻》收錄。

《字會》岔，俗呼路岔。按，岔字《字彙補》收錄。《水滸傳》第六回：“二人出得店門，離了村鎮，又行不過五七裏，到了一箇三岔路口。”

《字會》牐，以板防河，蓄水通舟，俗稱牐河。通作閘。按，《玉篇》有“閘，乙甲切。《說文》曰：開閉門也。”牐字《廣韻》收錄。水閘；閘門。《宋史·河渠志六》：“哲宗元祐四年，知潤州林希奏復呂城堰，置上下牐，以時啓閉。”

《字會》壩，以石作堰障水。按，壩字《集韻》收錄。宋·單鏐《吳中水利書》：“而其河自西壩至東壩十六裏有餘。”

《字會》塹，險崖陡峻處。按，黃侃《蕪春語》：“《廣韻》去聲五十三勘云：‘巖岸之下。古紺切。’今吾鄉有此語，字作塹，音同《廣韻》。”

《字會》衙，俗稱衙衙。按，“衙衙”即胡同。北方對小街小巷的通稱。元·張可久《小桃紅·寄春谷王千戶》曲：“紫簫聲冷彩雲空，十載揚州夢，一點紅香錦衙衙。”明·沈榜《宛署雜記·街道》：“衙衙本元人語，字中從胡從同，蓋取胡人大同之意。”

《字會》畷，平疇。按，畷字《廣韻》收錄，意義為成片的田。

## 4. 研究結論及啟示

### 1) 研究結論

通過以上對比和分析我們可以得出以下結論：

(1) 《字會》與中國古代字書具有傳承關係，尤其是和宋本《玉篇》的傳承關係更為直接。此結論也能解釋目前韓國的漢字典多以《玉篇》命名<sup>3)</sup>的原因。傳承和變異是歷史漢字研究的兩個重要方面，也是建立漢字傳播史

的主要內容。傳承是指後一階段的漢字系統中各要素對前一階段漢字系統中各要素的繼承。變異是指後一階段的漢字系統中各要素對前一階段漢字系統中各要素的改變。傳承是漢字發展演變的主流。從理論上來講，漢字是表意系統的文字，只要漢字的這一本質屬性沒有發生改變，漢字系統就應該是一脈相承的，這也正是直至今天，甲骨文、金文仍然可以被認讀的原因。雖然經過幾千年的發展變化，形體有了很大程度地變化，但只要將各時期的字形排列在一起，還是可以尋找到其演變的軌跡。

(2) 簡約為《字會》之特點。《字會》的簡約特點表現為：字收常用、形從簡化、義取通俗。這其實也是韓國朝鮮時代教育用漢字之特點。《字會》所收之字為生活常用字。所取字形以取簡化為先。例如：“邈→原”、“街→巷”、“灑→灘”、“北→丘”、“隴→隘”，前者為《玉篇》收字，後者為《字會》收字。《玉篇》釋義傳承《說文》頗多，又增補羅列引申義。《字會》對字義的解釋，即不囿於本義，也不羅列重複引申義，則更注重當時實際生活中的常用意義，解釋簡單明瞭，更適合記誦。例如：

《玉篇·水部》：泥，奴雞切。水，出鬱邳縣。又奴禮切，濃露兒。

《字會》泥，水和土，又塗墁也。

《玉篇·土部》：土，他戶、達戶二切。《說文》曰：地之吐生物者也。二象地之下、地之中，物出形也。《白虎通》曰：土主吐含萬物，土之為言吐也。

《字會》土，土壤。

## 2) 研究啟示

(1) 《字會》反映了韩国朝鮮時代人們實際書寫、運用漢字的真實情況。因此，對該書收字字源以及形音義發展變化的比較研究具重要意義：通過對該書收字层次的整理和分析研究，可以為韓國朝鮮時代漢字存在的狀態和使用情況等研究提供詳盡的材料和具體的數據支持，以推動韓國漢字發展史的研究，同時為中國漢字傳播史的研究提供重要的材料。通過韓國朝鮮時代教育用漢字與中國古代傳世字書的比較研究，可以發現漢字的傳承變異類型、層次和規律，可以深入探討影響漢字發展和演變的各種原因和因素，探

3) 韓國漢字字典名稱如《東亞百年玉篇》、《東亞實用玉篇》、《活用玉篇》、《實用大玉篇》。

討漢字自身發展的歷史規律和系統優化規律。對於漢字文化圈歷時漢字調查、大型工具書的編纂以及漢字教育教學等方面同樣具有重要的意義。

(2) 現代漢字學研究從西方信息論中引進了“冗餘度”、“羨餘度”等概念，是從另一個角度對漢字展開的研究：任何一種文字都存在於精密和簡便之間，文字的冗餘度不宜過高或過低。過高會導致文字過於繁雜而難以識記，過低又會導致文字過於簡易而難以區別。這樣的一種理論，應該說，是與文字學基礎理論相通的。漢字學基礎理論認為，漢字作為表意文字系統，力圖在漢字形體上表達更多的意義信息，維持漢字的造字理據性，也就是希望漢字的冗餘度越高越好，以利於人們的識記和理解；然而，漢字作為記載語言工具，為了書寫的便利和快捷，為了容易學習和應用，人們總是在有意識無意識中減少線條、筆畫或部件對其進行改造，這正是降低漢字冗餘度的一種表現。其實，冗餘度的問題恰恰是漢字學基礎理論中常常談到的“簡易”和“區別”較量和磨合結果的反映。漢字作為傳播工具，要表意清楚，避免混淆、模糊，就要充分表達自己，讓自身符號具有明顯的區別性和很高的區別度，勢必力圖排斥“簡易”；然而，當漢字成為書寫工具，人們書寫便捷和識記容易的要求便占據了上風，“簡易”便成為首要選擇，“區別”只成了一種補充性要求。“在文字變化中，常用的字中，只有改造得既合於區別律的要求又符合簡易律的需要的字才能逐漸地穩定下來。”<sup>4)</sup>正如要追求最佳冗餘度一樣，“簡易”和“區別”也在不斷的變化中尋找一種相對中庸的尺度。而這一漢字的優化原則在《字會》中得以證明：不管繁簡還是冗餘度多少，漢字總是在不斷演進中自我調節，尋求一種優化的呈現方式，既滿足自身表意的需要，又適應書寫的要求。

#### [參考文獻]

- 《訓蒙字會》，檀國大學校 出版部，1995年第2版。  
 《宋本玉篇》，中國書店，1983年影印張氏澤存堂本。  
 劉志誠《中國文字學書目考錄》，巴蜀書社，1997年。

4) 王鳳陽《漢字的演進與規範》，《語文建設》，1991.4，第16頁。



劉葉秋《中國字典史略》，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中華民國民國 73年。  
河永三《韓國歷代中國語言學文論集成》，韓國慶星大學出版部，2002年。  
中國文字研究與應用中心“玉篇檢索軟件”，2004年。  
《漢語大詞典》網路2.0版。

### 〈Abstract〉

In this paper, we choose the geographical vocabularies from Xunmeng Zihui which is the earliest educational dictionary in Korea, finding out the corresponding vocabularies in the Original Yupian, and compare those vocabularies from their characters and meanings and some other aspects. We point out that the vocabularies in Xunmeng Zihui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corresponding vocabularies in Original Yupian, as well as the other Ancient Chinese Dictionaries. At the same time, we discuss the characteristics of the educational vocabularies in the 16th century in Korea, such as most of them are basic vocabularies, the characters are mainly simplified ones and the meaning are popular at the time.

**Key Words:** Xunmeng Zihui, Original Yupian, Inheritance, relationship

투 고 일 : 2009.2.12  
심 사 일 : 2009.3.10-3.30  
게재확정일 : 2009.4.25

## 閩學派의 초사학 연구\*

金寅浩\*\*

### 〈목 차〉

1. 서언
2. 민학파의 거두 朱熹의 초사학
  - 2.1. 《楚辭集注》
  - 2.2. 후대 민학파들에게 끼친 주희의 4가지 사상
3. 민학파의 초사학
  - 3.1. 민학파 초사연구가와 騷體 작가들
  - 3.2. 민학파 초사학의 특징
4. 결언

### 1. 서언

閩學派란 남송시대 성리학의 대가인 朱熹와 그의 학문을 추종한 복건성 출신들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학파를 지칭한다. 남방의 복건성 출신으로 민학파의 창시자인 주자는 일생동안 유가경전을 연구하여 성리학을 집대성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초사에도 관심이 많아 《楚辭集注》를 지어 민학파들의 초사 연구와 그들의 騷體 문학작품 창작에 선성을 이 끌었다.

그가 《楚辭集注》를 지은 것은 그의 절친한 친구 趙汝愚가 간신들의 모함으로 유배를 당해 죽은 것에 대해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는 충성을 다했으나 억울하게 방축당해 먹라수에 투신자살한 충신 굴원의 작품들인 초사의 제 작품들을 集注함으로써, 그의 친구 趙汝愚를 굴원에 비유코자 한 것이다.

그의 《楚辭集注》 이후 閩地(복건성) 학자들에 의해 주자의 이런 초사관을 그대로 계승하여 집필한 초사학사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저술들

\* 2008년도 동의대 교내 일반연구비로 작성되었음(2008AA007)

\*\* 동의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이 속출한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謝翱의 《楚辭芳草譜》, 陳第의 《屈宋古音義》, 黃文煥의 《楚辭聽直》, 林雲銘의 《楚辭燈》, 李光地の 《離騷經九歌解義》 등이다. 또한 謝翱과 黃道周가 창작한 일련의 騷體 문학 작품들은 수량도 많고 편폭이 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국가와 개인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들어 있어 작품 내용 또한 우수하다 할 것이다.

## 2. 민학파의 거두 주희의 초사학

### 2.1. 《楚辭集注》

민학파의 창시자인 주자는 일생의 대부분을 유가경전 해석과 이해에 주력하여, 二程의 理氣之說을 더욱 발전시켜 성리학을 집대성시켰다. 그의 저술은 100여종에 달해 대부분 유가적 저술이지만, 또한 만년에 고심 진력하여 《楚辭集注》를 완성하였다. 이 점에 대해 姜亮夫는 그의 《楚辭書目五種》에서 “주자는 일생동안 유가경전을 몇 번 注했고, 더욱이 그가 어지러운 것(유가경전이 아닌 것)을 말하지 않았지만, 홀로 《楚辭》만을 주했으니 이는 그의 평생의 業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sup>1)</sup> 라고 하여, 대유학자 주자가 초사를 注했는 것에 대해 특이하다고 보고 있다.

초사 연구에 있어서 주자의 《楚辭集注》는 높은 명예를 누리고 있는데, 그의 《楚辭集注》는 초사 연구사에서 또 다른 시대를 구분 짓고, 또한 초사 연구를 집대성했다고 볼 수 있는 위대한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王逸의 《楚辭章句》를 비롯한 그 이전의 초사 연구는 대부분 훈고학적인 면에 치우쳐 세세한 자구 해석에만 중점을 두었다면, 주자의 《楚辭集注》부터 그 글 속에 담긴 내용, 즉 義理를 파헤치는 점에 중점을 두고 注했다고 할 수 있다.

주자가 초사에 천착하여 이렇게 주를 달게 된 동기는 履忠被讒한 애국시인인 굴원의 작품에 주를 담으로써,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임금으

1) “熹一生注儒家經典幾遍，更不爲他說所亂，獨注《楚辭》，似與平生之業相遠。”

로부터 내침을 당해 죽은 그의 절친한 친구 趙汝愚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였다. 趙汝愚는 송나라 황실의 종친으로 일찍이 寧宗을 옹립하는데 큰 공을 세워 右丞相까지 벼슬이 올랐으나, 나중에 외척 韓侂胄의 모함에 의해 벼슬에서 쫓겨나 얼마 되지 않아 湖南의 衡州에서 억울하게 죽었다. 주자는 趙汝愚가 유배당해 억울하게 죽은 것에 대해 크게 불만을 가지고, 이에 《楚辭集注》를 지어 그를 위대한 애국시인 굴원에 비유하고자 했다. 《四庫全書總目提要》에 “周密의 《齊東野語》에 紹熙內禪事를 기록하여 말하기를: 趙汝愚가 永州에서 편안히 머물다가 衡州에 가서 죽으니, 朱熹가 그를 위하여 《楚辭》에 주를 달아 (자신의 감정을) 기탁했다.”<sup>2)</sup>”고 기록하고 있다. 주자의 이런 학문 행위는 초사 연구를 빌어 개인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출한 첫 선례가 되었는데, 그 이후 그의 이런 학문 태도는 후대 閩地 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또한 초사 연구에 있어서 타지 출신 초사연구가와는 다른 선명한 지역적 특색을 갖추게 만들었다.

주희는 《楚辭集注》를 써서 초사학 연구를 새롭게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 騷體의 작품을 짓기도 했다. 《楚辭集注》 뒤에 실린 〈楚辭後語〉에 52편의 부작을 실려 있고, 동시에 그 자신의 부작 3편도 썼다. 그의 〈感春賦〉·〈招隱操〉·〈空同賦〉가 그것인데, 〈感春賦〉는 봄 경물을 보고 자신의 감정을 읊조린 서정부로, 재주를 가지고 있으나 불우해진 것과 유가도덕을 알게 된 신성한 사명감을 함께 그리고 있다. 이런 의취는 〈離騷〉를 모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招隱操〉는 제명을 통해서도 추측할 수 있듯이 초사의 한 작품인 淮南小山의 〈招隱士〉를 그대로 모방한 작품으로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招者和 隱者 두 사람의 문답을 통해 산중의 景色에 대해 묘사한 것으로 문장은 길지 않지만 그 나름대로 맛이 있다. 이 작품은 주자가 회남소산의 〈招隱士〉를 모방하여 그냥 소일거리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空同賦〉는 哲理的인 내용으로 전쟁을 이긴 후의 허망함을 서술하고 있다.

2) “周密《齊東野語》記紹熙內禪事曰：趙汝愚永州安置，至衡州而卒，朱熹爲之注《楚辭》以寄託焉。”

## 2.2. 후대 민학파들에게 끼친 주희의 4가지 사상

주자는 4 방면에 있어 후대 민지학자들의 초사학 연구에 영향을 주었다. 첫째는 그의 忠君사상인데, 이는 그가 제창한 삼강오륜 사상과 관련이 된다. 그는 《朱子語類》에서 “모든 사물에는 분별함이 있는데, 임금의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sup>3)</sup>라고 했고, 또한 “君臣父子는 정해진 위치가 바뀌지 않는데, 이것이 일의 항상됨이다.”<sup>4)</sup>라고 주장했다. 주자가 일생동안 여러 가지 경험과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의 충군사상은 끝내 변하지 않았다.

둘째는 그의 강한 민족적 愛國氣質로 이는 그의 아버지 朱松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젊었을 때부터 여러 차례 상소문을 올려 오랑캐 金나라에 항거하자고 주장했었다. 중원을 오랑캐에게 빼앗기고 남으로 내려온 남송의 대학자 주자는 중원회복에 대한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일찍이 “중국과 오랑캐(여진의 金나라)의 나뉘는 높게 君臣의 분별에 있다.”<sup>5)</sup>라고 주장하며, 삼강오륜의 명분에 의거하여 남송과 金나라는 엄연히 군신관계로, 신하나라인 金나라가 남송을 임금의 나라로 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남송과의 동등한 위치를 주장하는 金나라를 쳐서 중원의 고토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다. 그는 그의 관료생활 중에 당시 조정과 지방 하급관리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리들이 부패한 것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오늘날 위로는 조정으로부터 아래로는 많은 하급관직과 밖으로는 州縣에 이르기까지 그 법에 하나도 폐단이 없는 것이 없다.”<sup>6)</sup>고 했다. 중원을 오랑캐에게 빼앗기고도 그 고토를 회복할 생각은 않고 모든 관리들이 철저하게 부패한 것에 대해 통탄한 것이다. 그가 煥章閣待制와 侍講(임금에게 강의하는 직책)을 함께 겸하여 맡았을 때, 일찍이 송 寧宗에게 《大學》을 강의하면서 그 자신의 개혁 주장과 ‘正君心’ 이론을

3) “物物有個分別，如君君，臣臣，父父，子子。”

4) “君臣父子，定位不易，事之常也。”

5) “華夷之辨高于君臣之分。”

6) “今上自朝廷，下至百司庶府，外而州縣，其法無一不弊。”

펼쳤는데, 그가 《朱子語類》 권108에서 말하기를 “천하의 일에는 큰 근본이 있고 작은 근본이 있는데, 임금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은 큰 근본이다.”<sup>7)</sup>”라고 했다. 그는 영종에게 “백성들의 굶주림과 떠돌아다니는 어려움을 보살피야 한다.”<sup>8)</sup>라는 등등의 귀에 거슬리는 충언을 계속 했는데, 이로 말미암아 오래지 않아 송 영종은 그를 侍講에서 면직시켰다. 또한 나중에 조정에서 反‘道學’ 투쟁이 크게 일어났을 때, 그가 제창한 학문이 ‘僞學’이라고 강하게 폄박받았으며, 그와 교류하던 선비들과 제자들 모두 ‘逆黨’으로 몰려 유배당하고 죽임을 당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남송의 ‘慶元黨禍’이다.

셋째 그는 ‘至知力行’의 知行合一 사상을 강조했다. 주자는 《朱子語類》 권9에서 “앎과 행동은 항상 서로 따라가야 하는데, 눈이 없으면 발로 갈 수 없고, 발이 없으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아, 先後를 논해야 앞 된 것을 알 수 있고 輕重을 논해야 重한 것을 행할 수 있다.”<sup>9)</sup>”고 했다. 그는 특히 ‘몸소 행하고 실천한다.’<sup>10)</sup>를 중시하여, “단지 두 가지 일만이 있는데, 그것은 깨우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다.”<sup>11)</sup>”라고 했다. 주자는 주로 도덕의 관점에서 사람들의 도덕지식과 도덕실천과의 관계를 논했는데, 그는 입으로만 하는 민족정신 함양을 반대하고 그것을 몸소 실행하고 구현할 것을 요구했다.

넷째는 작품 속에 담긴 의리를 천명해 내는 것이다. 초사 작품 속에 담긴 의미를 찾아내는 작업은 비록 주자에게서 시작된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 주자 이전의 《史記·屈原列傳》에 보이는 劉安의 굴원에 대한 평가, 司馬遷의 굴원과 그 작품에 대한 纂語, 유협의 《文心雕龍·辨騷篇》에 보이는 이소관, 왕일의 《楚辭章句》에서의 굴원관, 洪興祖의 《楚辭補注》에서의 굴원관 등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글들은 매우 단편적이어서 주자의 《楚辭集注》부터 본격적으로 작품 속에 담긴 義理에 천착하여 그 본 뜻을 찾아내려고 노력했다고 할 수 있다. 訓詁 考據에

7) “天下事有大根本，有小根本，正君心是大根本。”

8) “慰斯民飢餓遊離之難。”

9) “知行常相須，如目無足不行，足無目不見，論先後，知爲先，論輕重，行爲重。”

10) “躬行踐履。”

11) “只有兩件事；理會，踐行。”

중점을 둔 과거 초사연구자들의 연구 경향에서 완전히 탈피, 그는 매篇章마다 드러난 작가의 意趣를 찾아내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前人들의 得失을 총결 짓는 기초 위에서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중복되고 번잡하게 문자에만 집착하여 건강부회하게 풀이하는 훈고학적 병폐를 없애고, 《楚辭集注》에서 문학과 사상의 눈으로만 초사를 해설하고 이해하고자 했다. 이 때문에 그의 《詩集傳》과 마찬가지로 《楚辭集注》는 비단 초사연구사에서 중요한 저작일 뿐만 아니라, 사상과 학문방법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연구방법을 완전히 벗어나게 해 한 시대를 구분 짓는 커다란 의미가 있는 저작이라 하겠다.

이 4가지 사상은 후대 민지학자들에게 끼친 영향은 매우 컸다. 주자에게서 시작한 閩學은 청대까지 계속 그 지역 학자들에게 전승되며 융성해져 왔다. 《宋書·地理志》에서 이미 지적하기를 송나라 이래로 閩人(복건인)들은 “問學을 많이 하고, 講誦을 좋아하며, 文辭를 잘 했다.”<sup>12)</sup>고 했다. 청대 李光地는 일찍이 그의 《榕村集》 권13 〈重修菜虛齋先生祠引〉에서 “비록 우리 閩 지역은 편벽되어 하늘 한 귀퉁이에 있지만, 그러나 주자 이래로 道學의 바름이 중국 내에서 으뜸이 되었다.”<sup>13)</sup>라고 스스로 자랑했다. 그의 이런 말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고 閩地 학자들의 초사연구와 소체 문학작품 창작을 고찰해 보면, 민지 학자들은 주자의 학풍을 그대로 이어받아 민지 학자 나름대로의 士風을 형성했고, 또한 그들이 주자의 학풍을 계승한 것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민학파의 초사학

《楚辭集注》가 나온 이래로 주자의 영향으로 민지학자들이 초사에 주를 달고 연구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 중에 초사연구사에서 중요한 저작도 적지 않다. 지금 현존하는 초사연구 저작을 《楚辭學通典·典籍》에 근거하면, 漢 武帝에게 처음으로 〈離騷〉 등의 굴원 작품을 갖다

12) “多問學, 喜講誦, 好爲文辭.”

13) “吾閩僻在天末, 然自朱子以來, 道學之正爲海內宗.”

바쳐 한대에 초사를 유행케 만든 장본인인 서한의 淮南王 劉安의 《楚辭》에서 부터, 청말 安錫名의 《屈騷求志》에 이르기까지 총 112종의 저작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 몇 종은 지금 실전되었지만, 이들 저작 중 민지학자들의 저작은 모두 13종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북송대 黃伯思의 《校定楚辭》와 《翼騷》 등의 2종, 남송대 주자의 《楚辭集注》 1종을 제외하고, 주자 이후 또 10종이 있다. 그것을 들어 보면 송말 원초의 사람으로 복건성 長溪人인 謝翱의 《楚辭芳草譜》, 명대의 복건성 連江人인 陳第의 《屈宋古音義》와 晉江人인 郭維賢의 《楚辭》와 莆田人인 林兆珂의 《楚辭述注》와 晉安人인 黃文煥의 《楚辭聽直》 그리고 晉江人인 何喬遠의 《釋騷》, 청대에 이르러 복건성 侯官人인 林雲銘의 《楚辭燈》과 安溪人인 李光地の 《離騷經九歌解義》와 漳州人인 許清奇의 《楚辭訂流》 그리고 閩中人인 龔景翰의 《離騷筏》 등이 그것이다.

이들 민지학자들의 초사연구 주해서가 13종으로 전체 주해서의 10%를 약간 넘는데 불과하지만, 그러나 민지가 중국 동남의 벽지이고 또한 개발이 많이 늦은 지방이며 대다수의 주해서가 수도에서 지어졌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결코 적은 숫자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游國恩은 그의 《楚辭概論》에서 주요 초사 주석가로 30명을 들고 있는데, 그 중 민지학자로는 朱子, 陳第, 黃文煥, 林雲銘, 李光地, 龔景翰 등 6명으로 전체의 1/5에 해당한다. 1,981년에 저술되어진 姜亮夫의 《楚辭今釋講錄》에도 중요한 초사연구 저작 14종을 들고 있는데, 이 중 민지학자로 朱子, 黃文煥, 林雲銘, 李光地, 龔景翰 등 5인의 저작을 열거시켜 설명해 전체의 1/3에 해당해, 이로 보아 주자 이후 민지학자들의 초사 연구가 결코 적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 3.1. 閩學派 초사연구가와 騷體 작가들

#### ① 黃伯思

민지학자들이 초사에 관심을 가지고 주를 달기 시작한 것은 북송의 황백사(1,079 - 1,118)에서 처음 시작된다. 그는 복건성 邵武人으로 元狩 3년에 進士가 되었는데 벼슬은 秘書郎에 까지 이르렀다. 원래 古文



奇字를 좋아하고 박학다식했는데, 그는 초사를 보고 “이 책은 이미 오래되어 책이 잃어버려져 亥豕와 帝虎 그리고 舛午같은 (알기 어려운 글자가) 심히 많았다.<sup>14)</sup>”라고 느껴, 이에 “唐나라 舊本 및 西都의 留監博士 楊建勛의 것과 낙양의 여러 사람들이 소장한 것 그리고 武林과 吳郡의 판본을 校讎하여 이에 비로소 완전한 것을 얻었다.<sup>15)</sup>”라고 했는데, 그는 그것을 바탕으로 《校定楚辭》 10권과 부록에 해당하는 《翼騷》 1권을 썼다. 그는 《校定楚辭·序》에서 말하기를, “漢 이래로 文辭의 으뜸은 그 자취를 숭상하는 것이나 (사람들이) 화려함과 빼어난만을 다투게 되니, 이에 그 요체를 아는 자 역시 드물었다. 대개 굴원과 송옥의 여러 작품들은 모두 楚語로 쓰고 楚聲으로 지으며 楚地를 기록하고 楚物을 이름 하니, 고로 가히 그것을 ‘楚辭’라고 하는 것이다. ‘些’, ‘只’, ‘羌’, ‘諱’, ‘蹇’, ‘紛’, ‘詫僚’같은 것은 楚語이고; ‘頓挫悲壯’, ‘或韻或否’같은 것은 楚聲이며; ‘湘’, ‘沅’, ‘江’, ‘澧’, ‘修門’, ‘夏水’같은 것은 楚地이고; ‘蘭’, ‘菝’, ‘荃’, ‘藥’, ‘蕙’, ‘若’, ‘蘋’, ‘蘅’같은 것은 楚物이다. 그것들은 모두 쫓아 이와 같이 되었으니 고로 이것으로서 그렇게 (초사라고) 이름한 것이다.<sup>16)</sup>”라고 하여, 楚語·楚聲·楚地·楚物을 이야기한 남방 楚지역의 지방문학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楚辭라고 한다고 초사의 의미를 정의하였다. 그의 이런 견해는 후세 초사학자들이 초사를 정의할 때 자주 드는 고전적인 언급이 되었다. 그의 이런 관점에 의하면 漢代 長安에서 초사를 모방하여 지은 이른바 楚辭體 賦는 초사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겠다. 그의 《校定楚辭》 10권은 매우 가치가 있는 초사 善本이지만 명대에 失傳되어 지금은 전해오지 않는다. 그러나 주자가 《楚辭集注》을 쓸 때 참고로 한 북송의 초사 판본 3종 중, 황백사의 《校定楚辭》 10권과 洪興祖의 《楚辭補注》를 晁補之의 《重編楚辭》 16권에 비하여 더욱 우수하다고 평하고 있다. 이런 그의 견해로 미루어보아 그

14) “此書既古，簡策迭傳，亥豕帝虎，舛午甚多。”

15) “以先唐舊本及西都留監博士楊建勛及洛下諸人所藏，及武林，吳郡槧本讎校，始得完善。”

16) “自漢以還，文師辭宗，慕其軌躅，摛華競秀，而識其體要者亦寡。蓋屈宋諸騷，皆書楚語，作楚聲，紀楚地，名楚物，故可謂之楚辭。若些，只，羌，諱，蹇，紛，詫僚者，楚語也；頓挫悲壯，或韻或否者，楚聲也；湘，沅，江，澧，修門，夏水者，楚地也；蘭，菝，荃，藥，蕙，若，蘋，蘅者，楚物也。他皆率若此，故以此名之。”

가 《楚辭集注》를 편찬할 때 황백사의 《校定楚辭》 10권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② 蔡襄

북송의 저명한 학자로 복건성 仙游人인데, 그는 騷體 형식의 〈慈竹賦〉를 남겼다. 이 작품은 영물부로 慈竹의 천태만상의 자태에 놀라고 찬탄하며, 대나무를 사람에 비유해 그것의 절개와 의리를 높이 사서 읊은 작품이다. 托物言志한 작품으로 초사 〈橘頌〉을 그대로 모방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③ 王回

북송의 복건성 侯官人으로 그의 〈責難賦〉는 說理의 작품으로 신하는 응당 임금을 쫓아 正道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송대 학자들의 以理入賦와 以理入詩의 학풍이 잘 들어나 있다. 이 작품은 굴원의 〈離騷〉에 담긴 의취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④ 劉克庄

유극장은 복건성 莆田人으로 남송 詩詞문학에서 뛰어난 인물이다. 그는 騷體 형식으로 〈詰猫賦〉를 지었는데, 고양이의 행동을 힐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고양이가 쥐는 잡지는 못하고 반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해 禍만 키우는 것을 묘사 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조정에서 당쟁이 격렬하여 諫官들이 충신을 무고하여 내쫓고 온갖 악행을 행하는 것을 풍자한 것으로 강렬한 현실비판의 의미가 들어 있다. 이 작품은 그의 의취가 東漢人인 趙逸의 〈刺世疾邪〉와 唐代 柳宗元의 여러 비판적인 賦作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謝翱

謝翱는 남송의 遺民으로 강렬한 민족 애국정신을 가진 자인데, 그는 남송을 구하기 위해 여러 번 전쟁터에 나갔었다. 남송이 망한 후 원나라 병사들이 그를 잡으러 추격하러 오자 그는 부득불 浙西 일대를 떠돌며 집에도 돌아가지 못했다. 그는 宋이 위급할 때 애국충정을 발휘했고

또한 나라가 망했어도 송나라에 대한 그의 애국심이 꺾이지 않았었다. 나라가 망하여 강남을 遊離하는 그로서는 굴원의 초사에 관심이 많아 그것을 모방한 騷體 작품들도 많이 지었다. 그의 작품들은 楚音과 楚調가 강하게 들어 있는데, 그가 그의 작품집을 《晞髮集》이라고 한 것은 초사 九歌의 한 작품인 〈少司命〉에 나오는 “與女沐兮咸池，晞女髮兮陽之阿.”라는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그의 《晞髮集》에는 초사에 나오는 대량의 典故와 意象을 그대로 사용하여 그 자신의 비분강개과 울분의 심정을 격렬하게 표현했다. 이에 대해 그의 절친한 친구 方風이 《謝君翱行狀》에서 “(그는) 屈原을 사모하고 郢都를 그리워 해, 〈離騷〉 25편을 읽고 〈遠遊〉에 감흥을 기탁해, 작품집을 〈晞髮〉이라고 스스로 명했다.<sup>17)</sup>”고 했다. 그는 文天祥 사망 9주기에 친구들과 함께 西臺에 올라 元에 항거한 남송의 위대한 애국시인 文天祥을 애도하며 騷體 형식으로 그의 혼을 불러 “혼은 어느 끝으로 가는가? 저녁이 되어 돌아오려고 해도 관문이 막히고 어두워졌네. 朱雀으로 변하여 먹을 부리라도 있는가?<sup>18)</sup>”라고 애도했다. 초사 〈招魂〉과 〈大招〉에서 굴원의 혼을 부르는 의취를 그대로 모방하여 읊고 있는 것이다.

그의 《楚辭芳草譜》는 단순히 초사에 나오는 芳草의 계보를 살피려고 쓴 것이 아니라, 우국충정과 비분강개한 마음을 가지고 굴원의 초사를 애호하여 초사에 나오는 여러 향초에 대하여 고증하여 쓴 것이다. 謝翱는 또한 원나라에 포로가 되어 단식하여 굶어 죽을 때 초사 〈惜往日〉을 그대로 모방하여 〈廣惜往日〉을 지었는데, 騷體로 적혀진 이 작품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우국충정과 비분강개의 감정을 그대로 묘사해 放逐당한 굴원의 의취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또한 그는 굴원이 방축되어 浣湘之間을 떠돌며 그 곳의 民間巫歌를 보고 지었다고 하는 〈九歌〉를 그대로 모방하여, 그가 유랑 생활했던 浙西지방의 민간무가를 보고 迎神歌風의 작품인 〈飲飛廟迎神引〉을 지었다. 그가 얼마나 초사와 굴원을 좋아하고 그의 작품을 모방하여 짓고자 했던 가를 여실히

17) “慕屈原懷郢都，讀《離騷》二十五，托興〈遠遊〉，以‘晞髮’自命。”

18) “魂朝往兮何極？暮歸來兮關塞黑。化爲朱鳥兮有味焉食？”(그의 《西臺慟哭記》에 실려 있음)

알 수 있다.

⑥ 陳第

명대의 복건성 連江人인 陳第는 많은 전쟁을 치른 장수로 조정의 부패와 명장들의 몰락 등을 보고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古音을 익혀 《屈宋古音義》를 썼다. 이 책은 단지 고음만을 탐색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담긴 뜻도 해석하고 있는데, 그 해석한 字間 속에 그의 국가에 대한 우국충정과 관심이 깊게 배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屈宋古音義》에서는 주자의 《楚辭集注》와 《詩集傳》에서의 ‘叶韻’說에 대해 비판하며, 전통적인 ‘古無定音’의 관점을 타파하는 견해를 내세우기도 했다.

⑦ 黃文煥

명나라 복건성 永福人으로 자가 維章, 天啓 때 진사가 되었다. 崇禎 황제 때 翻林院編修까지 지냈으나 후에 간신들의 참언으로 방축되어 남쪽에서 遊離되다가 마침내 南都에서 죽었다. 지금 《詩經考》, 《陶詩釋義》, 《楚辭聽直》 등의 저서가 전해 온다.

황문환의 《楚辭聽直》에서의 ‘聽直’은 《九章·惜誦》에 나오는 한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굴원은 履忠被讒 당하여 내심 憤懣이 많았는데, 이에 〈惜誦〉을 지어 자신의 분만을 하늘에게 하소연하여 하늘이 바로잡아 줄 것을 원했다. 그래서 그는 〈惜誦〉에서 “五帝에게 명하여 가운데를 꺾게 하고, 六神을 경계하여 복종케 하소서. 산천으로 하여금 갖추어 모시게 하고, 咎繇에게 명령하여 바름을 듣게 하소서.<sup>19)</sup>”라는 구절에서의 “命咎繇使‘聽直’”에서 ‘聽直’을 따와서 그 자신의 서명에 부친 것이다. 咎繇는 전설상의 舜임금으로 법률을 가장 공정하게 관장하는 법관이었다. 황문환은 黃道周와 같은 朋黨이라는 죄명으로 체포되어 억울하게 하옥 당했는데, 그 때 자신의 충정을 드러내기 위해 履忠被讒 당한 굴원의 충정을 빌어 이 《楚辭聽直》이란 책을 쓴 것이다.

황문환은 그의 책 《楚辭聽直·自序》에서 “朱子是 僞學이라는 배척을

19) “令五帝以折中兮, 戒六神與向服. 俾山川以備御兮, 命咎繇使‘聽直’.”

받아, 이에 비로소 《楚辭》에 注했다; 나는 鈎黨之禍 때문에 역시 평상시에 黃道周 선배와 학문을 가르치며 僞學을 세웠다고 하여 鎮撫司에게 붙잡혔다. 하옥되어 수년이 지나 이에 비로소 《離騷》에 注했다. 굴원 이천 여년 중, 두 개의 僞學(주자의 위학과 자신의 위학)이란 멍에를 벗어버리는 것을 얻을 수 있으니 인연은 진실로 스스로 기이하다 하겠다. 나는 옥중에서 병이 들어 초체하고 뼈쩍 마른 것이 강가에서 거닐며 읊조리는 자(屈原)의 두 배가 되었다. 책을 써 스스로 주는데, 招魂之法을 사용하였다. 국운이 장차 (나쁘게) 바뀌는 것을 걱정한 것은 실은 굴원과 같은 아픔인데, 비록 아픔은 같지만 병은 두 배가 되어, 고로 《離騷》중에서 그것을 찾는데 필히 그 깊이 들어간 것을 구하고, 그 멍에를 벗어버리는 데에는 반드시 그 드러난 것에서 구했으니 .....<sup>20)</sup>”라고 했다. 이 서문에서 우리는 황도주와 같은 봉당이라는 죄명으로 체포되어 억울하게 하옥 당했으며 또한 僞學을 했다고 핍박당한 것에 대한 격분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충성을 다했으나 放逐된 굴원과 동일시하여 이에 그의 《楚辭》에 주를 달아 《楚辭聽直》을 쓴 것이고, 또한 위학을 했다고 배척받아 《楚辭集注》를 쓴 대유학자 주자를 모방하여 이 《楚辭聽直》을 썼다고 하고 있다.

황문환의 《楚辭聽直》은 주자 이후 대부분의 민학파들처럼 초사 작품 속에서 義理를 천명해내는 주자의 학문방법을 그대로 계승하여 초사 작품 속에 담긴 의리를 천명해 내고자 했다. 황문환의 《楚辭聽直》은 주자의 이런 초사 연구방법을 그대로 따랐지만 또한 주자와 구별되는 성과도 있는데, 그는 《楚辭聽直》에서 屈賦에 대한 境界, 작품 창작시기와 지역, 그리고 작품의 배열순서 등을 연구하여 초사작품의 본래 면목을 밝혀주는데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후대 초서연구자들은 모두 그의 《楚辭聽直》을 매우 중시했었다.

또한 그는 주자의 義理士風을 그대로 이어받기는 했지만 그 나름대로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는 《楚辭聽直》에서 굴원의 죽음에 대해

20) “朱子因受僞學之斥，始注《楚辭》；余因鈎黨之禍，爲鎮撫司所羅織，亦坐以平日與黃石齋前輩講學立僞，下獄經年，始了《騷》注。屈子二千餘年中，得兩僞學之洗發，機緣固自奇異。而余抱病獄中，憔悴枯槁，有倍于行吟澤畔者。著書自貽，用等招魂之法。其懼國運之將替，則實與原同痛矣。惟痛同病倍，故于《騷》中探之必求其深入，洗之必求其顯出 .....”

부정적인 입장을 비친 주자의 견해에 대해 “혹 증용에서 벗어나니 가히 본받을 만한 것이 되지 않기도 한다.<sup>21)</sup>”라고 하여 주자와 다른 입장을 내세우며, “무릇 신하의 충에는 단지 부족함만 있을 뿐이지 어찌 지나침이 있겠는가! ..... 세상에서 진실로 굴원이 가히 죽지 말아야 한다고 한 것은 굴원이 필히 不可不 죽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굴원이 죽지 않으면 충이 아니니 달리 가히 죽지 않는 길에서 그 증립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 이것을 아니 굴원의 죽음을 반드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찌 굴원의 충이 可하겠는가?<sup>22)</sup>”라고 하여 굴원의 죽음에 대해 주자와의 견해를 달리 하고 있다.

⑧ 黃道周

그는 晚明의 저명한 학자이며 충신으로 閩南 漳浦人인데, 자가 幼元, 호는 石齋, 시호는 忠烈이다. 명나라가 망하자 南京에서 옹립된 福王 밑에서 禮部尙書를 지냈고 다시 福州에서 명 황실의 회복을 피하여 武英殿學士가 되었으나, 마침내 淸軍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했다. 天文 曆數 皇極에 정통하고 시문과 서화에도 뛰어났는데, 저서에는 《易象正》과 《洪範明義》 등이 있다.

또한 그는 文章氣質로 천하에 이름을 떨쳤는데, 《楚辭學通典》에 기록되어진 역대 騷體 작가 중 그의 작품이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다. 〈騷騷〉 9편, 〈續招魂〉 3장, 〈續離騷〉 2장, 〈九繹〉 11장, 〈九蓋〉 11장, 〈九訴〉 9장, 〈劉招〉 1장, 〈叢騷〉 15장, 〈續天問〉 1장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작품들의 章은 모두 각각 독립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 그렇게 보면 공히 62편의 騷體문학 작품을 지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들은 모두 암울한 만명시기 자신의 처지를 굴원에 비유하여 조정의 혼란상 묘사, 履忠被讒당한 賢人들에 대한 애도, 당시 세태에 대한 풍자 및 인생가치에 대한 사고 등을 그려 초사의 의취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작품 내용이 철저히 굴원의 의취를 따라 비분강개

21) “或過于中庸而不可以爲法.”

22) “臣之于忠，只有不及耳，安得過哉！..... 世固謂原之可以不死，而未知原之必不可不死也。原不死即不忠，別無可以不死之途容其中立也。..... 知此而原之死必無可寬，原之忠何可詆也？”

하는 감정이 절실하여 읽는 독자로 하여금 눈시울을 적시게 한다. 강량부는 그의 《紹騷偶錄》에서 황도주의 작품을 “眞情과 곤궁한 뜻이 있어, 無痛呻吟하는 자와는 비교되지 않는다.<sup>23)</sup>”고 평가하고 있다.

더욱이 그의 〈騷騷〉 9편은 남경의 尙膳 감옥에 갇혔을 때 지은 것으로, 邵懿辰은 그의 《半巖廬遺文》 권2에 실린 〈題黃忠端公騷後記〉에 “슬픈 느낌이 섞여 끊어오르고 정신이 아득하구나. 三閭大夫(굴원)와 친구가 되고 ‘高皇<sup>24)</sup>’ 두 글자와 서로 아래 위가 되었다. 그 중氣가 억눌리고 슬퍼 눈물을 흘리며 고금에 함께 한탄해하는 것 있으니, 후인들로 하여금 함께 열어보게 할지니, ..... 콧물 눈물이 흐르는 것도 알지 못하는구나.<sup>25)</sup>”라고 했다. 이 작품은 〈離騷〉를 그대로 모방하여 옥에 갇힌 자신의 처지를 굴원에 비유하여 悲憤을 읊조리고 있는 것이다.

황도주의 騷體작품은 편수도 많을 뿐 아니라, 작품의 길이 또한 전인들의 그것을 훨씬 초월했는데, 〈續離騷〉 2장 같은 작품은 9천여 자에 해당하는 대작이다. 그의 이런 대작들은 이전에도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이런 騷體작품들은 후대 초사문학사에서 아주 중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 ⑨ 林雲銘

林雲銘은 청나라 복건성 侯官人으로, 자는 西仲, 호는 漚浮隱者로 順治황제 때 진사를 했는데, 관직은 徽州府 通判까지 이르렀다. 저서에는 《莊子因》·《挹奎樓集》·《吳產毅音》 등이 있다. 안휘성 徽州府 通判 시기에 처음으로 《楚辭》에 주를 달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온 후 耿精忠의 난을 만나 그 책들이 전쟁 중에 모두 불타버렸다. 이에 또 抗州에 은거할 때 다시 《楚辭》를 연구하여 그기에 주를 달았는데 그러나 이것마저 화재로 불타 없어져 버렸다. 그러나 그는 끝내 포기하지 않고 결연한 사명감을 가지고 “문을 잠그고 썼으며 또한 注를

23) “有眞情悵志, 非無痛呻吟者比也.”

24) 이소에 나오는 첫 구절인 ‘帝高皇之苗裔’에 나오는 첫 단어임.

25) “悲感雜沓, 靈爽倏忽, 與三閭大夫爲朋, 而‘高皇’二字, 相爲上下. 其中抑轡慄戾, 有古今同慨者. 使後人攬觀, .... 不知涕泪之流落焉.”

달지 않은 여러 작품들을 모두 보충하였다.<sup>26)</sup>”라고 하여 끝내 《楚辭燈》이란 책을 완성했다. 그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楚辭》에 친착해注를 단 것은 《楚辭燈·自序》에서 그 스스로 말했듯이 《楚辭》를 “여러 세대의 뛰어난 작품(異代知音)”이고 “슬픔과 憤懣을 억눌러고 있다.(以抑哀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楚辭燈》을 지을 때 굴원에 대한 임운명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 깊이 녹아들어가 있어, 이 책의 성과가 결코 작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책은 문학 관념으로 초사를 인식한 중요한 저작인데, 《楚辭燈》에서 그는 초사 각 작품에 대해 篇과 句마다 주석을 달고 분단을 나누어 각각 해설을 부치며 篇末에 진편을 총괄하는 요지를 서술하였다. 주석 또한 간결 명료하여 다른 사람들이 초사작품들을 이해하는데 매우 편리하게 되어 있다. 이 점에 대해 강량부가 말하기를 “임운명은 완전히 文章 次序에 따라 《楚辭》를 써서, 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주를 읽으면 이해하지 못하나 그의 《楚辭燈》을 읽어보면 가히 이해할 수 있다. 그의 주는 글자를 쫓아했으니..... 문학의 눈을 가지고 보면 그의 注는 좋은 것이다.<sup>27)</sup>”라고 칭찬하고 있다. 또한 임운명은 《楚辭燈》에서 굴원 작품들의 창작 시기와 장소에 대한 연구를 통해, 閩學派의 거두인 주자와 다른 견해를 내세우기도 했다. 왕일부터 주자까지 《九章》을 줄곧 굴원 放逐 이후의 작이라고 했지만, 그는 그의 《楚懷襄二王在位事迹考》에서 〈惜誦〉, 〈思美人〉, 〈抽思〉를 懷王 때의 작품이라 보아 주자와의 견해를 달리했다.

### 3.2. 민학과 초사학의 특징

주자 이후 민지학자 師徒之間에 민족적 애국기질의 土風이 그대로 이어져 민학이 날로 번성하게 되었다. 方勇은 그의 《南宋遺民詩人群體研究》에서 “사실상 福建의 학자들은 바로 朱熹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전진한 것이다. 더욱이 宋末 元初에 민족모순이 매우 첨예할 때, 그들은

26) “杜門追記, 并補未注諸篇.”

27) “林雲銘完全以文章次序做基礎來稿《楚辭》, 因此讀別人的注讀不懂, 讀他的《楚辭燈》就可以讀懂. 他的注文從字順, ,,, 拿文學的眼光看, 他的注是好的.”



더욱 務實躬行을 중시하여 民族氣質을 결연히 지키는 것을 모든 것보다 높게 여겼다. 예들 들어 元初에 ‘조정은 東南의 儒學之士 중에 福建과 廬陵이 가장 번성했다.’고 여겨, 이에 여러 번 사자를 閩中 땅에 파견하여 가게 해 숨은 학자들을 찾았으나,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愛國氣質을 표방하며 결연히 몽고족 원나라의 여러 차례 초빙을 거절했다.<sup>28)</sup>”고 기록하고 있다.

方勇은 같은 책에 주자 이후 당시 민지 학자 중 민족적 기질을 강하게 가진 애국학자로 熊禾, 陳普, 丘葵, 韓信同, 黃鎮成, 趙必晔, 劉邊 등을 들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민지 각 지역에서 배출되어졌다. 이는 중원을 오랑캐에게 빼앗기고 남으로 내려온 남송에서 주자 같은 민족적 애국기질이 강한 대학자가 나타남에, 그 이후 이 지역에서 역대로 애국적 기질이 강한 학자들이 속출한 것으로 보인다. 송 이후 원 명 청을 거쳐 근대에 이르기 까지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마다 모두 閩地의 인사들이 들고 일어나 나라를 위해 순국하고 나라와 민족 위한 절개와 충성심을 발휘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모두 주자가 창시한 閩學의 士風과도 무관치 않다고 할 수 있다.

똑같이 주자 이후 민지학자들의 초사학 연구에도 강렬한 민족기질과 현실문제에 대한 강렬한 관심이 내포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민지 사풍의 영향을 받아 그들의 초사연구는 다른 지역사람들의 초사연구와는 관련하여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명확한 목적으로 가지고 초사에 주를 달고 연구했다. 주자의 《초사집주》 寫作 의도에는 충신(趙汝愚)을 내치 죽게 한 당시 조정에 대한 불만과 국가 앞날의 안위에 대한 걱정이 깊이 들어있다. 복건성 長溪人으로 《楚辭芳草譜》를 쓴 남송의 遺民 謝翱는 일찍이 文天祥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원나라에 대적했고 또한 남송이 패망한 후에도 여전히 민족적인 강력한 애국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명대 복건성 連江人으로 《屈宋古音義》를 쓴 陳第는 왜적과 싸운 유명한 명장 劉大猷의 부하로 큰 공을 세워 遊擊將軍에 임명되어

28) “事實上，福建的學者們正是遵循着朱熹所指引的道路前進的。尤其在宋末元初民族矛盾十分尖銳的時候，他們更加重視務實躬行，把堅守民族氣質看得高于一體。如元初‘朝廷以東南儒學之士有福建，廬陵崔盛。’而屢遣使者往閩中搜訪遺逸，但他們大多以氣質相標榜，堅決拒絕蒙元的屢屢征聘。”

長城의 古北口를 지켰다. 명대 晉江人으로 《釋騷》를 쓴 何喬遠은 조정이 있을 때 同林黨 사람들을 동정하고 또한 그들과 서로 교류한 정의감이 아주 강한 官員이었다. 명대 晉安人으로 《楚辭聽直》을 쓴 黃文煥은 黃道周와 관계가 긴밀했는데 황도주가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僞學을 한다고 핍박받을 때 황문원은 황도주와 같은 朋黨이라는 죄명으로 동시에 체포되어 하옥당하기도 했다. 黃道周는 명말청초 때 홀로 經國濟世의 사명감을 가지고 의병을 모아서 淸軍과 싸웠지만 패해 포로가 된 후 굴복하지 않고 죽었다. 청대 복건성 侯官人으로 《楚辭燈》을 쓴 林雲銘은 康熙 때 사람으로 三藩의 亂을 겪었는데 閩地를 장악한 耿精忠에게 굴복하지 않고 18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정충공이 패망한 후에 비로소 풀려났다. 청대 복건성 安溪人으로 《離騷經九歌解義》를 쓴 李光地 역시 임운명과 동시대인으로 함께 三藩의 亂을 겪었는데 그 또한 閩地를 장악한 耿精忠에게 굴복하지 않고 깊은 산 속에 숨어 군중을 모아 靖정충에게 항거했으며, 조정에 사람을 보내 민지를 처부술 수 있는 책략을 올려 강희제의 허락을 받기도 했다. 약간 뒤시대인인 《離騷筏》를 쓴 복건성 閩中人인 龔景翰은 오랫동안 서북 변방의 지방관으로 있으면서 여러 번 오랑캐와의 전쟁에 참가했다. 이처럼 민지 초사학자들은 한결같이 벼슬에 있던 감옥에 있던 아니면 유배당해 遊離하던 간에 모두 國事를 중히 여기고 또한 강한 민족적 애국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土風은 모두 閩學派의 거두인 주자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주자가 開創한 楚辭義理에 대한 연구를 계속 계승했다. 유국은은 일찍이 역대 초사연구가들을 4가지로 분류하여 고찰했다. 그의 《楚辭概論》에서 “漢 이래로 지금까지 《楚辭》에 주를 단 사람은 백여 명이 넘는데, 그러나 크게 나누어보면 가히 4파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訓詁派로 王逸이 대표가 되며; 하나는 義理派로 朱子와 王夫之가 대표가 되고; 하나는 考據派로 吳仁杰과 蔣驥 등이 가히 대표가 되며; 하나는 音韻派로 陳第와 江有浩 등이 가히 대표가 된다. 그 중 또한 義理와 考據를 겸한 자가 있으니 朱熹와 黃文還 등이 그들이다.”<sup>29)</sup>

29) “自漢以今，注楚辭者不下百餘家，然大別可分爲四派：一爲訓詁派，王逸爲代表；一爲義理派，朱子 王夫之爲代表；一爲考據派，吳仁杰 蔣驥等可爲代表；一

라고 하고 있다. 이들 4파의 대표자 중 민지학자가 적지 않은데, 민지학자들이 초사연구에 끼친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겠다.

의리파에 대해 강량부가 황문환의 《屈原問題論爭史稿》를 위하여 지은 그의 〈序〉에서 말하기를, “義理家は 매 篇 매 章 내지는 매 句의 큰 義理論을 대략 진술하거나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다.<sup>30)</sup>”라고 말했는데, 이는 주희 이전의 훈고를 중심으로 한 초사연구와는 판연히 다르다 하겠다. 주자 때부터 고증과 훈고의 바탕 위에서 작품에 담긴 義理를 천명하는 것을 중시 여긴 것이다. 작품을 글자에 천착하여 단순히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 속에 담긴 사상내용과 편장의 結構, 단락의 大義 및 심지어 예술표현 형식 등을 문학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삼은 것이다.

#### 4. 결론

성리학의 대가 주희는 유학사상에 있어서 독보적인 존재이지만, 또한 초사학에 있어서도 그가 후대 초사학자들 특히 민지의 초사학자들에 끼친 영향은 아주 컸다. 그의 《楚辭集注》는 그 이전의 訓詁와 考據를 중심으로 한 초사연구를 義理 천명 중심으로 한 연구로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의 복건성인 민지에서 주자의 영향을 받아 초사연구가 크게 일었고, 또한 그 연구 역시 주자의 義理를 천명해내는 연구방법을 대체로 그대로 따랐다. 그들은 履忠被讒된 위대한 애국시인 굴원의 憤懣과 애국심을 대한 意趣를 그대로 따랐는데, 이들 민지의 초사연구가들과 騷體 작가들은 대부분 민족적 애국기질이 강하며 또한 현실에 대한 강한 정치적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초사연구나 소체 작품 창작을 통해 자신의 처지와 불우함에 대한 울분과 불만 그리고 망해가는 나라에 대한 자신들의 감정을 분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학문 풍토는 아직도 민지학자들의 학풍 속에 그대로 남아 지금까지 전해내려 오고 있다 할 것이다.

爲音韻派, 陳第 江有浩等可爲代表. 其中也有以義理而兼考據的, 如朱熹 黃文還等是.”

30) “義理家, 是略陳或詳說每篇每章乃至每句的大義理論.”

### [참고문헌]

- 朱熹, 《楚辭集注》(상해: 상해고적출판사, 1979)  
謝翱, 《楚辭芳草譜》, 明刊 《說郛》本 104권  
陳第, 《屈宋古音義》(북경: 중화서국, 1985)  
林雲銘, 《楚辭燈》(대만: 광문서국, 1971)  
黃文煥, 《楚辭聽直》, 明 崇禎 16년 原刻 淸 碩治 14년 補刻本  
何喬遠, 《釋騷》, 淸 咸豐年間楊俊冠悔堂抄本  
李光地, 《離騷經九歌解義》, 淸 康熙 57년 《安溪李文貞公解義三種》  
龔景翰, 《離騷筏》, 光緒元年 崇文書局 《三十三種叢書》本  
方勇, 《南寧遺民詩人群體研究》(북경: 인민출판사, 2000)  
游國恩, 《楚辭概論》(북경: 북신서국, 1926)  
姜亮夫, 《楚辭今繹講錄》(북경: 북경출판사, 1981)  
周建忠, 湯漳平, 《楚辭學通典》(호북: 호북교육출판사, 2002)

### 〈中文提要〉

閩學是從南宋性理學大家朱熹開始了。他是閩地(福建省)出身，他的《楚辭集注》是後代閩地學者們研究楚辭的典範。他以闡明義理和具顯愛國民族氣質的目的執筆《楚辭集注》。他以後閩地學者都擁有強烈的愛國民族氣質和忠君精神。他把王逸以下的訓詁學方法的楚辭研究改變了義理闡明的楚辭研究。對於後代閩地學者們，他的四個方面影響是他的忠君思想，強烈的民族愛國氣質，至知力行和知行合一思想，義理闡明等。他們又以闡明義理和具顯愛國民族氣質的目的研究了楚辭跟創作了騷體文學。其代表的楚辭研究家和騷體作家是黃伯思，蔡襄，王回，劉克庄，謝翱，陳第，黃文煥，黃道周，林雲銘等。

**關鍵詞:** 閩學派, 朱熹, 《楚辭集注》, 義理士風, 愛國民族氣質, 楚辭學, 騷體文學

240 · 中國學 第32輯(2009.4)

투 고 일 : 2009.2.28

심 사 일 : 2009.3.10-3.30

게재확정일 : 2009.4.25

## 松江 鄭澈의 漢詩에 나타난 陶淵明의 受容樣相

金周淳\*

### 〈목 차〉

1. 序言
2. 陶淵明과 松江의 出處觀 비교
3. 松江의 漢詩에 나타난 陶淵明
  - 3.1. 歸去來兮
  - 3.2. 田園閑居
  - 3.3. 飲酒忘憂
  - 3.4. 愛菊吟詠
  - 3.5. 桃源世界
  - 3.6. 人生無常
4. 結語

### 1. 序言

松江(1536~1593)은 姓이 鄭이고, 이름이 澈이며, 그의 字는 季涵, 號는 松江 또는 蟄菴居士라고 하며, 延日사람이다.

松江은 26세에 進士試에 1등으로 합격하고, 다음해에 文科 別科에 壯元及第하여 司憲府 持平·直講을 거쳐 修撰·校理 등 여러 벼슬을 지내었다. 한 때는 고향에서 隱居하다가 掌樂院正으로 다시 기용되어 司諫·直堤學·承旨에 올랐으나 珍島郡守의 뇌물사건으로 東人의 공격을 받아 謫所되어 1580년(선조13)에 外職인 江原道 觀察使로 부임하였다가 全羅道·咸鏡道 觀察使를 지냈다. 1583년(선조 16)에는 內職으로 기용되어 예조참판·형조판서·예조판서를 역임하였으며, 1584년에는 대사헌이 되었다. 그러나 松江이 활동하던 시기는 東西 兩堂의 紛爭이 극심한 때라서 그가 50세 되던 해에 東人의 貶毀를 받아 벼슬길에서 물러나 高陽 新院과 昌平에서 隱居하는 비운의 생활을 해야만 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그가 정치적 이상을 잃은 가장 비참한 때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自然美를 탐구하는 작가생활로서는 귀중한 시기였다. 그는 여

\* 대구가톨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기서 水石과 鷗鶴으로 더불어 벗을 삼고, 讀書·彈琴·嘯詠도 하며 항상 國事に 대한 걱정으로 임금을 생각하였다. 宣祖는 그의 忠節을 생각하여 1589년에 謫所에 있는 松江을 불러 右議政에 책봉하고, 左議政까지 승진시켰으나, 다시 東人의 모함으로 탄핵을 받아 罷職 당하여 明川에 유배되었다가 淸州로 옮기게 되었다. 그 후 그가 57세인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해에 유배에서 풀려나 다음해에 謝恩使로 明나라에 다녀온 후 또 東人들의 모함을 받아 관직을 떠나 江華의 松亭村에 寓居하며 만년을 보내다가 58세의 일기로 생을 마쳤다. 그가 죽은 후 肅宗은 文淸이란 諡號를 내려 주었고, 그의 遺著에는 《松江集》 七冊과 歌辭 一冊이 전한다.

陶淵明과 松江 鄭澈의 관계에 대하여는 金相助의 〈松江 鄭澈研究〉<sup>1)</sup>, 金碩會의 〈鄭澈文學研究〉<sup>2)</sup>, 董達의 〈朝鮮詩歌에 나타난 中國詩文學의 受容樣相 研究〉<sup>3)</sup>, 朴承在의 〈松江 文學 研究〉<sup>4)</sup>, 李亨大의 〈朝鮮朝 國文詩歌의 陶淵明 受容樣相과 그 歷史的 性格〉<sup>5)</sup>, 河祥奎의 〈韓國 自然詩歌에 끼친 陶淵明의 影響〉<sup>6)</sup> 등의 논문에서 그의 문학세계를 논술한 바 있다. 이들 논술 및 다른 선행연구를 통해 도연명의 영향을 받은 조선시대의 대표적 문인 작가들을 살펴보면, 수양대군이 癸酉靖難을 일으켜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통분하여 과거시험에 응시하고자 읽던 책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머리를 깎아 중이 되어 방랑길을 걸으며 일생을 보낸 金時習(1435-1493), 도연명의 ‘歸去來’에 깊이 영향을 받아 벼슬 중에도 고향에 내려와 汾川가에 明農堂을 지어놓고 벽상에 陶淵明의 歸去來圖를 걸어 놓아 도연명의 歸去來를 흠모한 李賢輔(1467-1555), 정치사회의 혼란기에 살면서 出仕

1) 金相助, 《松江 鄭澈研究》(서울: 高麗大 碩士論文, 1981)

2) 金碩會, 《鄭澈文學研究》(서울: 서울대 碩士論文, 1981)

3) 董達, 《朝鮮詩歌에 나타난 中國詩文學의 受容樣相 研究》(대전: 韓南大 博士論文, 1994)

4) 朴承在, 《松江 文學 研究》(서울: 成均館大 碩士論文, 1986)

5) 李亨大, 《朝鮮朝 國文詩歌의 陶淵明 受容樣相과 그 歷史的 性格》(서울: 高麗大 碩士論文, 1991)

6) 河祥奎, 《韓國 自然詩歌에 끼친 陶淵明의 影響》(부산: 東亞大 博士論文, 1996)

와 隱退를 20여 회<sup>7)</sup> 반복하다가 평소 자연을 좋아하는 성품으로 인해 말년에 고향에 내려와 은거하여 오직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에 힘쓴 李滉(1501-1570), 높은 학문적 바탕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정을 멀리하고 지리산에 은거하며 제자양성에 힘쓴 趙式(1501-1572), 壬辰亂으로 인한 자발적인 애국심으로 從軍했다가 정치·사회의 현실에서 자신의 한계와 벼슬길의 허망함을 깨닫고 도연명과 같은 田園閑居 생활에 동참한 朴仁老(1561~1642), 黨爭으로 인한 정치적 다툼으로 인해 謫所生活을 하다가 임금의 부름으로 높은 우의정 벼슬까지 오른 鄭澈(1536-1593), 도연명의 인품과 생활을 그리워 한 나머지 도연명의 고향인 栗里라는 이름을 빌어 〈栗里幽谷〉을 짓고 귀거래를 노래한 金光煜(1580-1656), 20년 가까이 술한 시련과 갈등을 겪으면서 8년 남짓의 관직생활에서 出仕와 좌절의 유배라는 상반된 일생을 살면서 마침내는 고향으로 귀거래하여 불후의 自然詩歌 작품을 생산한 尹善道(1587-1671) 등이 있다. 이들 중 本稿는 東西兩黨의 분쟁과 謫所生活을 하면서 도연명의 出處觀에 영향을 받아 자연시가를 창작한 松江 鄭澈의 漢詩와 陶淵明 시를 비교문학적인 관점<sup>8)</sup>에서 兩人的 생활과 취향 및 관념에서 어떠한 相似點과 相異點이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 2. 陶淵明과 松江의 出處觀 비교

陶淵明(365-427)은 晉·宋年間에 살았던 시인으로 이름이 淵明 또는 潛이라 하고, 字는 元亮이며, 號는 五柳先生 또는 靖節先生이다. 그는 江西省 九江市 潯陽縣 柴桑에서 태어났다. 그의 증조부는 晉의 大司馬 陶侃이었고, 외조부는 당시에 풍류객으로서 이름이 높았던 孟嘉이었던

7) 阿部吉雄, 〈李退溪의 思想과 行動(一)〉, 《退溪學報》21(1979), 13쪽.

8) ① M.F. 기야르 著, 全圭泰 譯, 《比較文學》序(서울: 正音社, 1979), 8쪽.  
“비교문학이란 비교가 아니다. 이것은 부당하게 이름 지어진 과학적 방법의 한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국제간의 문학적 관계의 역사’라고 정의한다면 그 편이 훨씬 정확할 것이다.”

② 이전의 비교문학연구는 원천자 중심의 연구방법을 하였으나, 근래의 비교문학 연구는 수용자 중심의 연구동향이라서 본고의 연구는 수용자인 鄭澈의 漢詩에 중점을 두어 논술한다.



듯이 도연명 家門의 위세는 당당하였으나, 그의 父親代에 이르러는 몰락되어 가난으로 인한 궁핍에 시달려야 했다. 이에 그는 29세 되던 해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벼슬길을 찾으라는 숙부의 권유를 받아들여 江州 祭酒를 시작으로 13년 동안 本性에 맞지 않는 宦路의 길에서 다섯 차례의 出仕<sup>9)</sup>와 隱退를 반복하였다.

도연명이 살았던 시기는 東晉과 劉宋의 교체기로 분열과 혼란이 극심하여 밖으로는 北中國을 점령한 五胡와 대립해 있었고, 안으로는 농민의 봉기와 군벌들의 내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막강한 군벌을 거느린 劉裕가 군사를 일으켜 수도 建康을 점령하고 실권을 장악한 후 哀帝를 시해하고, 東晉의 마지막 황제 恭帝를 유폐시켜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나라를 빼앗아 宋을 세웠다. 이에 晉代의 충신 집안에서 성장해 온 도연명은 그의 작품에 쓰오던 晉代年號를 甲子題詩하고<sup>10)</sup>, 사회의 질서와 명분이 사라진 풍토에서는 관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마지막 벼슬인 彭澤令을 사직한 후 田園으로 歸去來하여 조정에서 불러도 다시는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sup>11)</sup> 자연을 벗 삼아 農事와 詩酒로써 田園閑居하다가 63세<sup>12)</sup>의 일기로 그의 여생을 마쳤다. 그가 남긴 126

9) 첫 번째 出仕는 29세 때 江州祭酒, 두 번째는 35세 때 劉牢之의 參軍, 세 번째 출사는 37세 때 桓玄의 幕下가 되었고, 네 번째는 40세 때 劉敬宣의 參軍, 다섯 번째는 41세 때 彭澤令이 되었다.

10) 陶潛 撰, 陶澍 注, 《靖節先生集》卷三(臺北:華正書局, 1975), 1쪽.  
“考淵明詩有題甲子者, 始庚子距丙辰, 凡十七年間, 只九首耳, 皆晉安帝時所作也. 中有〈乙巳年三月爲建威參軍使都經錢溪作〉, 此年秋乃爲彭澤令, 在官八十餘日, 卽解印綬, 賦〈歸去來辭〉. 後十六年庚申, 晉禪宋, 恭帝元熙二年也. 豈容晉未禪宋前二十年, 輒恥事二姓, 所作詩但題甲子, 以自取異者? 矧詩中又無標晉年號者, 其所題甲子, 蓋偶記一時之事耳.”

11) 陶淵明 著, 張基權 譯, 《新譯 陶淵明》(서울: 명문당, 2002), 30쪽.  
“도연명은 55세 때 조정으로부터 著作郎이란 벼슬에 초청된 일이 있었고, 62세 때 江州刺史 檀道濟로부터 출사를 요청 받은 일이 있으나 그는 깨끗이 거절하고 보내온 예물을 말끔히 돌려주었다. 다시는 벼슬에 흔들리지 않고 ‘固窮節’을 잘 지켰다.”

12) 도연명의 나이에 대하여는 顏延之의 〈陶徵士誄〉, 《宋書隱逸傳》, 蕭統의 〈陶淵明傳〉, 《晉書隱逸傳》을 보면 모두 63세로 기록되어 있고, 《南史隱逸傳》에도 도연명은 元嘉四年(西紀 427年)에 죽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를 근거하면 도연명은 晉哀帝興寧三年(西紀 365年)에 태어났다. 朱子の 《通鑑綱目》에도 도연명의 출생연대를 元嘉四年이라고 특별히 써서 ‘晉徵士陶潛卒’이라 하여 63세로 확정했다. 그런데도 宋代 張綬는 그의 〈陶靖節

수<sup>13)</sup>의 시는 중국 유명 시인들에 비해 많지는 않으나, 그의 시는 후대 문인들로부터 중국 전원시의 龜鑑이 되어 “전원시의 으뜸이다.”<sup>14)</sup>와 전원시의 개척자로서 칭송을 받아왔다.

本稿에서 논하고자 하는 陶淵明과 松江 鄭澈이 살았던 시대배경을 살펴보면, 漢이라는 고대 대통일 제국이 붕괴되고 모든 가치관(經學)이 흔들리며, 불교·도교 등이 발흥하면서 문벌귀족이 탄생하게 된 魏·晉시대, 즉 중앙집권화된 권력이 존재하지 않고 세습 문벌귀족들의 권력이 강했던 분열의 시대에 살았던 陶淵明과 유교적 가치관이 확고하고 명목상이라도 중앙집권화가 되어 있던 조선시대에 살았던 松江 鄭澈과는 그 사회적 형태가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당송 변혁기를 거치며 세습 문벌귀족이 소멸되고 유교적 과거시험을 통과한 신진사대부가 집권층이 되기 시작한 北宋 이후의 중국의 모습이 오히려 松江 鄭澈이 활동 하였던 조선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兩人是 국가와 정치·사회의 배경이 다른 시대에 살면서 내면의 동질관념은 相似點으로 볼 수 있으나, 兩人的 外면에 나타난 出處觀은 자연 다른 양상일 것으로 짐작이 된다. 本稿는 이 점에 중점을 두어 探討하고자 한다.

도연명의 出處觀은 그의 본성인 自然愛好 관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의 〈田園閑居其一〉 시에서 “어려서부터 세속에 어울리지 못하고, 성품이 본시 산을 사랑했거늘(少無適俗韻, 性本愛邱山.)” 이라고 읊은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세속적인 기풍에 어울리지 않고, 자연산천을 좋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의 시에는 “雲, 鳥, 靑松, 草木, 蔬菜, 鷄

年譜辨正〉에서 76세라 했고, 清代 吳汝綸은 그의 《古詩鈔注》에서 51세라고 했으며, 梁啓超는 그의 〈陶淵明年譜〉에서 56세, 古直은 그의 〈陶靖節年譜〉에서 52세, 遂欽立은 그의 〈陶淵明年譜稟〉에서 52세라고 했으나 나중에 그의 《遂欽立校注陶淵明集附錄》에서 63세로 고쳐 정하였다. 또 郭銀田은 그의 《田園詩人與陶潛》에서 61세라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도연명의 나이에 대하여 학자들의 異說이 紛紜하나, 本稿에서는 舊說인 63세에 따랐다.

13) 方祖燾, 《陶潛詩箋註校證論評》(臺北: 蘭臺書局, 1977), 21쪽.

“陶潛的詩舊說有一百五十首左右, 蓋後代俗本每將陶詩首卷的四言詩一首分作數首, 如將命子詩分作十首, 歸鳥詩分作四首, 這種分法是不大妥當的. 現在依據丁福保陶詩箋注所收的, 計算它的篇目, 除去幾首是他人的作品摻入之外, 還有一百二十六首. 其中除九首是四言詩外, 其餘均爲五言.”

14) 鍾嶸, 《詩品》: “古今隱逸詩人之宗也.”

狗, 鋤, 無絃琴, 敝廬, 漉酒巾, 柳, 酒, 桃花”와 같은 자연 소재를 대상으로 삼아 그의 自然愛好의 정취를 더욱 고취시켰다.

한편 도연명의 인품과 생활에 영향을 받은 松江 鄭澈은 조정에서 당쟁의 피곤함을 느낄 때나 東人의 모함을 받아 謫所生活을 할 때에 도연명을 흠모하며 그가 처한 답답한 현실 사회를 이겨 나가고자 도연명의 歸去來 의식과 자연애호 관념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그의 시에 반영하였다.

아래에서 도연명의 出處觀에 영향을 받은 송강의 시를 살펴보면,

江湖에 病이 깊어 竹林의 누엇더니  
關東 八百里에 方面을 맞디시니  
어와 聖恩이야 가디록 罔極하다.<sup>15)</sup>

위의 가사는 松江이 東人의 모함을 받아 관직에서 파직되었다가 宣祖의 부름으로 다시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였을 때 임금으로부터 벼슬을 부여 받은 데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뜻으로 지은 것이다. 이 가사에서 송강은 도연명이 혼란시대에 처해 “전원에 들어가 자연에 묻혀 살리라(守拙歸園田)”<sup>16)</sup>라고 隱逸하고픈 생각을 피력하였지만, 송강은 벼슬에서 물러나 전원에서 貶謫생활을 할 때에 임금 곁에서 정치에 참여하고픈 생각을 표명하였다. 이것은 도연명이 당시 君臣關係를 저버린 신하가 不義한 방법으로 왕위를 찬탈하여 劉宋을 세우자 도연명이 벼슬을 그만 두고 歸去來했던 정황과는 다르다. 그래서 송강은 朝鮮 왕조에서 당시 士大夫들이 현실 긍정과 정치 참여로 爲國忠誠하고자 하는 관념에 따라 政事에 참여하고픈 심정을 표명한 것으로 도연명의 出處觀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 것이다.<sup>17)</sup> 이에 金碩會는 송강이 살았던 당시 16세기

15) 鄭澈, 〈關東別曲〉, 신호열, 정운한 역, 《國譯 松江集》下 (서울: 太學社, 1992) 부록 27쪽. ('신호열, 정운한 역, 《國譯 松江集》'을 이후로는 '《國譯 松江集》'으로 표기한다.)

16) 陶潛 撰, 陶澍 注, 〈歸園田居其一〉, 《靖節先生集》卷二.

17) 도연명의 出處는 《論語·泰伯篇》의 “천하에 도가 있으면 벼슬하고, 도가 없으면 물러나 숨는다.(天下有道則見, 無道則隱.)”와 《孟子·盡心 上篇》의 “달통하면 나서서 천하를 구제하고, 막히면 할 수 없이 물러나 자신을 착하게 한다.(達則兼善天下, 窮則獨善其身.)”에 기준을 두었지만, 송강은 맹자가

### 조선 士大夫들의 정치 參與觀에 대해

송강은 물론 당시의 士林들에게 있어 왕도실현의 열망과 정치적 의지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으며, 그들의 생애와 학문과 문학의 어디에서나 가장 주된 관심이었음을 알 수 있으니, 정치적 의지와 열망, 관심과 참여태도 등은 정당하게 고찰되고 이해되어야만 한다고 본다.<sup>18)</sup>

라고 말하여 송강은 16세기 조선 문인들이 임금에 충성하고 經世濟民하고자 하는 뜻에 出處觀을 함께 하였음을 이해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도연명은 자연에 歸隱하면서 勝景이나 즐기고 한가롭게 悠悠自適한 隱士만은 아니었다. 그는 신하가 불의한 방법으로 왕위를 찬탈한 것에 대한 내면적인 저항의 표시로 그의 詩題로 써오던 晉代年號를 甲子題詩하고<sup>19)</sup> 혼탁한 벼슬길에서 이루지 못한 사회정화를 농촌에 들어가 자연을 벗 삼아 躬耕생활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송강의 시에는 도연명의 영향을 받아 田園의 憧憬과 勝景을 즐기며 한가롭게 悠悠自適한 심정을 읊은 시들이 있지만 실제로 도연명처럼 호미와 쟁이를 들고 躬耕한 시는 한 수도 발견할 수가 없다. 이것은 조선 사대부들이 전원에서 난초에 물을 주고, 매화와 국화를 가꾸며 선비로서의 고상한 풍채를 지니는 시는 읊었어도 躬耕은 하층계급이 하는 일로 여겨 손과 옷에 흙과 물을 묻히지 않으려는 봉건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다.

새는 ‘자유 · 평화 · 행복’을 상징한다. 도연명이 새에 대하여 읊은 시로는 “산새들 무리 지어 돌아오니(飛鳥相與還)” 〈飲酒其五〉, “날기에

말한 “삶도 내가 원하는 바요, 義도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얻을 수 없을 진댄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하겠다.(生, 亦我所欲也. 義, 亦我所欲也. 二者不可得兼. 舍生而取義者也.)” 《孟子·告子 上篇》에 出處觀을 두었다.

18) 金碩會, 《鄭澈文學研究》(서울 : 서울대 석사논문, 1981), 6-7쪽.

19) 沈約, 《宋書·隱逸傳》(九思叢書編輯部 編, 《陶淵明研究》(臺北: 九思出版社, 1977), 3쪽.

“自以曾祖晉世宰輔, 恥復屈身後代, 自高祖王業漸降, 不復肯仕. 所著文章, 皆題其年月, 義熙以前, 則書晉氏年號, 自永初以來唯云甲子而已.”

지친 새들은 저녁에 제집으로 돌아올 줄을 안다.(鳥倦飛而知還)〈歸去來辭〉, “떠돌이새는 옛 숲을 그리워하고(羈鳥戀舊林)”〈歸園田居其一〉, “훨훨 날아 돌아온 새(翼翼歸鳥)”〈歸鳥〉라고 읊은 시들이 있다.

송강도

잘 새는 느라들고 새들은 도다온다.  
외나모 드리에 혼자 가는 더 둥아  
네 덜이 언머나 흥관디 먼 북소리 들리느니<sup>20)</sup>

라는 시를 읊어 복잡한 정치현실에서 탈피하고 싶을 때나 謫所에서 은거하여 외로움을 느낄 때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무심히 저녁에 잠자리를 찾아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새에서 위안을 삼고자 하였다.

向夕前林鳥赴群 새들은 떼를 지어 저물녘에 숲을 찾고  
路迷天寒講停雲 희미한 길 차가운 날 停雲이 몽계몽계<sup>21)</sup>

송강의 이 詩는 새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지의 걱정스런 심정을 읊었다. 그러나 도연명이 읊은 “해는 지고 만물이 쉼 무렵에, 숲을 향해 울며 돌아오는 새.(日入羣動息, 歸鳥趨林鳴.)”<sup>22)</sup>와 “저물 녘 되어 강한 바람 일고, 차가운 구름은 서산을 덮었네.(向夕長風起, 寒雲沒西山.)”<sup>23)</sup> 및 “어둑어둑 멈추어 선 구름(講講停雲)”<sup>24)</sup>이라고 읊은 시구들은 그의 천성과 맞지 않는 벼슬에 얽매인 처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정을 자유로이 창공을 나는 새에 비유하여 읊었다. 여기서 송강과 도연명이 새를 비유하여 읊은 시를 통해 兩人的 出處觀을 음미할 수 있다.

兩人的 出處觀을 정리하면, 도연명은 晉代 충신 嵇安의 후손으로서 나라가 劉宋으로 바뀌자 甲子題詩하고 “천하에 도가 있으면 벼슬하고,

20) 鄭澈, 短歌, 《國譯 松江集》下, 부록 67쪽.

21) 鄭澈, 〈村居漫興〉, 《國譯 松江集》上, 357쪽.

22) 陶潛 撰, 陶澍 注, 〈飲酒其七〉, 《靖節先生集》卷三.

23) 陶潛 撰, 陶澍 注, 〈歲暮和張常侍〉, 《靖節先生集》卷二.

24) 陶潛 撰, 陶澍 注, 〈停雲〉, 《靖節先生集》卷一.

도가 없으면 물러나 숨는다.(天下有道則見, 無道則隱.)” 25) “달통하면 나서서 천하를 구제하고, 막히면 할 수 없이 물러나 자신을 착하게 한다. (達則兼善天下, 窮則獨善其身.)” 26)에 따라 自意로 출처를 정하고, 송강은 맹자가 말한 “삶도 내가 원하는 바요, 義도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얻을 수 없을 진댄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하겠다.(生, 亦我所欲也. 義, 亦我所欲也. 二者不可得兼. 舍生而取義者也.)” 27)라는 의지로 出處觀을 가지다가 他意에 의해 출처를 정했다는 점에서 도연명과 송강의 출처관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으나, 兩人的 出處觀은 儒家的 가치관에 의해 出處를 정했다는 점이 일치한다.

### 3. 松江의 漢詩에 나타난 陶淵明

아래에서는 도연명의 생활과 취향 및 관념 방면에서 송강은 어떻게 도연명을 수용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3.1. 歸去來兮

도연명은 당시 정치·사회의 부패가 만연하고, 신하가 임금을 죽이는 君臣關係의 政治道義가 상실된 상황에서 벼슬에 뜻을 둔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마지막 벼슬인 彭澤丞을 사직하고 전원으로 귀거래하여 〈歸去來辭〉를 지었다.

도연명의 〈歸去來辭〉<sup>28)</sup>는 不正과 腐敗, 爭鬪와 非理로 얼룩진 晉·宋

25) 《論語·泰伯篇》

26) 《孟子·盡心上篇》

27) 《孟子·告子上篇》

28) 陶潛 撰, 陶澍 注, 〈歸去來辭〉, 《靖節先生集》卷五.

“歸去來兮! 田園將蕪胡不歸? 既自以心爲形役, 奚惆悵而獨悲. 悟已往之不諫, 知來者之可追. 實迷途其未遠, 覺今是而昨非. 舟搖搖以輕颺, 風飄飄而吹衣. 問征夫以前路, 恨晨光之熹微. 乃瞻衡宇, 載欣載奔. 僮僕歡迎, 稚子候門. 三徑就荒, 松菊猶存, 携幼入室, 有酒盈樽. 引壺觴以自酌, 眄庭柯以怡顏. 倚南牕以寄傲, 審容膝之易安. 園日涉以成趣, 門雖說而常關. 策扶老以流徬, 時矯首而遐觀. 雲

年間に 도연명 자신의 田園에 대한 憧憬과 자기 본연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歐陽修가 “胥에는 문장이 없고, 오직 도연명의 〈歸去來辭〉 한 편이 있을 뿐이다.(晉無文章, 惟陶淵明歸去來兮辭一篇而已.)”<sup>29)</sup>라고 極讚한 것처럼 〈歸去來辭〉는 도연명의 위대한 작품으로서 人口에 膾炙되어 왔다. 이 작품은 漢代에 성행했던 賦라는 형식을 빌어 지은 작품인데, 漢代의 賦는 대체로 호화롭고 거창한 사물들을 아름다운 형식으로 멋지게 표현하는 데에만 힘써서, 결국 생명력이 없는 貴族文學으로 변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도연명의 〈歸去來辭〉는 漢代에 형식과 기교로써 唯美主義로 흐른 賦와는 달리, 언어가 平易하고 꾸밈이나 다듬은 흔적이 없으며, 가슴속의 奧妙한 意趣를 표현하였기에 누구나 친근감을 주는 작품으로 인간의 ‘참성정’, ‘참생명’을 반영한 작품이다.

도연명이 이 작품을 짓게 된 動機에 대하여 《宋書·陶潛傳》에

군에서 監査관을 현에 파견하자, 현리들이 아뢰기를, 마땅히 의관을 정제하고 벼어야 한다 하니, 도잠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나는 쌀 다섯 말에 향리의 소인배에게 허리를 구부릴 수 없다.”하고는 그 날로 관인과 끈을 풀어놓고는 관직을 떠났으며, ‘귀거래’라는 글을 지었다.(郡遣督郵至, 縣吏白應束帶見之. 潛歎曰, 我不能爲五斗米折腰向鄉里小人. 即日解印綬去職, 賦歸去來.)

라는 기록이 전하고, 陶淵明 자신이 쓴 〈歸去來辭序〉에는

벼슬한 지 며칠이 못되어 즉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 나의 본성과 성품이 무위자연을 닮게 태어났으며, 억지로 교정하거나 독려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無心以出岫, 鳥倦飛而知還. 景翳翳以將入, 撫孤松而盤桓. 歸去來兮! 請息交以絕遊! 世與我而相違, 復駕言兮焉求? 悅親戚之情話, 樂琴書以消憂. 農人告余以春及, 將有事於西疇. 或命巾車, 或棹孤舟. 既窈窕以尋壑, 亦崎嶇而經丘. 木欣欣以向榮, 泉涓涓而始流. 美萬物之得時, 感吾生之行休. 已矣乎! 寓形宇內復幾時? 曷不委心任去留? 胡爲遑遑欲何之? 富貴非吾願, 帝鄉不可期. 懷良辰以孤往, 或植杖而耘耔. 登東臯以舒嘯, 臨清流而賦詩. 聊乘化以歸盡, 樂夫天命復奚疑?”

29) 臺灣中華書局 編, 〈李公煥箋註陶淵明集引〉, 《陶淵明詩文集評》(臺北: 臺灣中華書局, 1974), 326쪽.

러므로 비록 굶주림과 추위에 절박하게 몰렸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어기고 벼슬살이를 하기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전에도 남의 밑에서 벼슬살이를 했거늘, 그 모두가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내 몸을 학대했던 것이다. 새삼 실망과 서글픔과 悲憤慷慨하는 마음과 더불어 깊이 내 자신이 평소에 지녔던 뜻 앞에 창피함을 금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역시 그 해의 추수나 끝나기를 기다려 옷을 챙기어 벼슬에서 물러날까 망설이던 차에 마침 정씨에게 출가했던 누이가 武昌에서 죽으니, 나의 마음은 오직 장례식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뿐, 결국 스스로 벼슬을 버리고 말았다. 음력 8월에서 겨울까지 벼슬에 있던 지 80여 일이었다. 뜻밖의 일로 해서 나의 본심을 좇아 결국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이다. 한 편의 글을 지어 <귀거래혜>라 이름 지었다. 을사년 11월.(及少日, 眷然有歸與之情. 何則? 質性自然, 非矯厲所得; 飢凍雖切, 違已交病. 嘗從人事, 皆口腹自役: 於是悵然慷慨, 深媿平生之志. 猶望一稔, 當歛裳宵逝, 尋程氏妹喪於武昌, 情在駿奔, 自免去職. 仲秋至冬, 在官八十餘日. 因事順心, 命篇曰歸去來兮: 乙巳歲十一月也.)

라고 하여 도연명이 자연을 좋아하는 본성과 程氏에게 출가한 그의 누이가 죽어 장례식에 참가해야겠다는 뜻에서 歸去來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두 기록을 보면, 도연명의 귀거래 동기가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도연명의 귀거래는 그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순수한 자기 意志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松江은 도연명의 <歸去來辭>에 영향을 받아 ‘歸去來’를 하나의 抒情의 대상으로 삼아 아래와 같은 시를 지었다.

歸來不必世相違	세상과 등지자고 돌아온 게 아니라
偶似陶公悟昨非	우연히 도연명처럼 어제 잘못 깨달았네.
采采黃花聊取醉	국화꽃 술을 빚어 취토록 마시어서
倒巾高詠鴈南歸	남으로 온 기러기를 소리 높여 읊노라. <sup>30)</sup>

이 詩 제목을 <歸來>라고 한 것을 보면, 도연명의 <歸去來辭>를 본받아 지은 시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첫 句에서 “세상과 등지자고 돌아온 게 아니라 (歸來不必世相違)”라고 읊은 시구는 도연명의 <歸去來辭>에 나오는 “돌아왔노라! 이제부터는 세속적인 교제를 그만두고

30) 鄭澈, <歸來>, 《國譯 松江集》上, 352쪽.



속세와 단절된 생활을 하리!(歸去來兮! 請息交以絕遊, 世與我而相違.)”라고 읊은 표현과 모순된 듯하지만, 둘째 句에서 “우연히 도연명처럼 어제 잘못 깨달았네.(偶似陶公悟昨非)”라고 읊은 시구는 歸去來의 동기가 도연명의 뜻과 같음을 표명하였다. 셋째 句에서 “국화꽃 술을 빚어 취토록 마시어서(采采黃花聊取醉)”라고 읊은 시구는 도연명이 名利를 떠나 “동쪽 울타리에서 국화꽃을 따드니, 멀리 남산이 눈에 들어오네.(采菊東籬下, 悠然見南山.)”<sup>31)</sup>라고 읊은 시구의 영상을 수용하여 무심히 한가한 마음으로 음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넷째 句에서 “남으로 온 기러기를 소리 높여 읊노라.(倒市高詠鴈南歸)”라고 읊은 시구는 도연명이 술을 좋아하여 頭巾으로 술을 걸렀다는 “葛巾漉酒”의 故事<sup>32)</sup>와 “술이나 통쾌하게 마시지 않는다면, 머리 위의 망건을 저버리게 될 것이다.(若復不快飲, 空負頭上市.)”<sup>33)</sup>라고 읊은 시구의 意趣를 취하여 송강 자신의 귀거래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歸去來兮胡不歸	돌아가자! 어찌 아니 돌아가리
荆楚江山佳可遊	형초강산 아름다워 노닐만하거든.
山中秋光桂自霏	산중이라 가을빛에 계화 절로 떨어지니
日夕江湖歸思悠	강호로 돌아갈 생각 아침저녁 유유하네. <sup>34)</sup>

이 詩는 松江이 黨爭의 소용돌이에서 피곤함을 느끼자 전원의 향수를 그리며 읊었다. 첫 句의 “돌아가자! 어찌 아니 돌아가리.(歸去來兮! 胡不歸.)”는 도연명 〈歸去來辭〉의 첫 句인 “돌아가자! 전원이 황폐하고 있거늘, 어찌 돌아가지 않을 것이냐?(歸去來兮! 田園將蕪, 胡不歸?)”를 그대로 援用하여 도연명의 귀거래 의식에 완전 동화하였음을 느끼게 한다.

高嘯何人返舊廬    누가 목소리 높여 옛집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31) 陶潛 撰, 陶澍 注, 〈飲酒其五〉, 《靖節先生集》卷三.

32) 沈約, 《宋書隱逸傳》, 九思叢書編輯部 編, 《陶淵明研究》(臺北: 九思出版社, 1977), 3쪽. “郡將候潛, 值其酒熟, 取頭上葛巾漉酒, 畢, 還復著之.”

33) 陶潛 撰, 陶澍 注, 〈飲酒其二十〉, 《靖節先生集》卷三.

34) 鄭澈, 〈布帆無恙掛秋風〉, 《國譯 松江集》上, 561쪽.



다섯 말의 쌀 때문에 촌뜨기 아이놈에게 허리를 굽힐 수 있겠느냐!(我豈能爲五斗米折腰向鄉里小兒)”<sup>39)</sup>라는 말을 남기며 彭澤을 사직한 후 전원으로 돌아간 도연명의 모습을 생각하며 송강은 백발이 만연한 나이에 黨派의 다툼 속에서 벼슬길에 오래 남아 있는 심정을 머리에 꽂혀있는 비녀에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君家有酒酸且醎	자네 집에 술이 있어 시고 또 짠데
酸味還同鄭季涵	신맛일랑 鄭季涵과 흡사하구려.
於國於家俱不用	나라에나 집에나 쓸모없으니
不如歸去臥江南	강남으로 돌아가 누워야겠네. <sup>40)</sup>

이 시에서 송강은 조선의 正統王朝에 충성하고자 하는 자의적 의지로 서 조정에서 쓸모없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나 전원으로 돌아가겠다는 심정을 밝혔으므로 도연명이 불의에 의해 다른 왕조가 들어서자 政治道義가 소멸된 세상에서 벼슬을 버리고 歸去來를 선언한 것과 비교하면, 兩人은 자기 의지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동질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3.2. 田園閑居

田園은 생명의 근원이 샘솟는 곳이고, 자연의 숨결과 생동감이 있으며, 순박하고 다정다감한 정서가 깃들어 있는 곳이다. 또한 우리 인간들에게 근면과 휴식을 주는 최후의 안식처이기도하다.

송강은 도연명이 政治道義가 무너진 세상에서 벼슬을 사직하고 귀거래하여 자연을 벗 삼아 田園閑居하는 생활을 흠모하며 아래의 시를 지었다.

東方有一士	동방에 한 선비 있어
面赤心亦赤	얼굴이 붉고 마음도 또한 붉더라.
愛酒不愛錢	술을 사랑하되 돈을 사랑하지 않고

39) 沈約, 《宋書·隱逸傳》(九思叢書編輯部 編, 《陶淵明研究》(臺北: 九思出版社, 1977), 3쪽.

40) 鄭澈, 〈安參議家對酒戲吟〉, 《國譯 松江集》上, 350쪽.

好詩又好客	시를 좋아하며 또 손님을 좋아하네.
棲于京城西	서울의 서쪽에 집을 두고서
十年把一冊	십 년을 한 권 책 손에 들었소.
.....	
鱸也再拜言	붉은 코 두 번 절하며 하는 말이
信美非吾適	좋기는 좋지만 내게는 맞지 않소.
終當守吾拙	끝끝내 나의拙을 지킬 터이다. <sup>41)</sup>

이 詩는 도연명처럼 名利를 떠나 전원애 은거하여 詩酒로써 자연을 벗 삼아 도연명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의 친구인 李廷冕의 선비다운 자세를 송강이 칭송하여 읊었다. 첫 句인 “동방에 한 선비 있으니(東方有一士)”는 도연명의 〈擬古其五〉 시에 나오는 “동방에 한 선비 있어(東方有一士)”를 그대로 차용하였고, “십 년을 한 권 책 손에 들었소.(十年把一冊)”는 역시 도연명의 〈擬古其五〉 시에 나오는 “십 년 동안 갖 하나라네(十年著一冠)”의 시구를 變容하여 표현하였다. 그리고 “나의拙을 지킬 터이다(守吾拙)”는 도연명의 〈歸園田居其一〉 시에 나오는 “전원에 돌아가 자연에 묻혀 살리라.(守拙歸園田)”의 시구를 원용하여 선비인 李廷冕의 인품과 생활을 도연명에 비유하여 읊었다.

도연명은 그의 은거생활을

結廬在人境	사람들 틈에 농막을 짓고 사니
而無車馬喧	수레 시끄럽게 찾는 자 없노라.
問君何能爾	어찌 그럴 수 있는가 생각하니
心遠地自偏	마음이 머니 땅 스스로 외지구나.
採菊東籬下	동쪽 울타리에 국화꽃 따들고
悠然見南山	유연히 남산을 바라보노라.
山氣日夕佳	가을 산 기운 저녁에 더욱 좋고
飛鳥相與還	날새들 짝지어 집으로 돌아오니.
此中有眞意	이러한 경지가 바로 참맛이려니
欲辨已忘言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어라! <sup>42)</sup>

41) 鄭澈, 〈李生廷冕工詩嗜酒薄於世味病酒而鱸因自號爲鱸戲題古詩三十韻投贈求和〉, 《國譯 松江集》上, 366쪽.

42) 陶潛 撰, 陶澍 注, 〈飲酒其五〉, 《靖節先生集》卷三.

라는 시를 지어 표현하였다. 송강은 이에 相應하는 시로

耿介高蹤客	개결하고 고상한 한 인물이
山中獨掩扉	산중에 홀로 문닫고 사네
水因青嶂合	물은 청산을 따라 어울리고
籬以紫藤圍	울은 붉은 등녕쿨로 에워구려.
非是隱淪志	숨어살자는 뜻이 본래 아닌 데
自然車馬稀	자연이 차마 소리 드물게 들린다네.
此間有眞樂	이러한 가운데 참다운 낙이 있으니
幽事未全微	유사라서 아주 적은 건 아니오. <sup>43)</sup>

라고 읊었다. 위에 나타난 兩人的 시를 비교하면, 도연명은 울타리 밑에 黃菊을 심었는데, 송강은 붉은 등녕쿨을 심었다 하였고, 도연명은 마음이 속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人境에 살고 있다고 하였으나, 송강은 숨어 살고자 하는 뜻은 없지만 人家가 먼 산중에 거처하였다고 하였다. 여기서 兩詩의 의미 표현은 서로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그러나 송강의 마지막 結句에서 “이러한 가운데 참다운 낙이 있으니, 幽事라서 아주 적은 건 아니오.(此間有眞樂, 幽事未全微.)” 라고 읊은 시구는 도연명이 “이러한 경지가 바로 참맛이려니,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어라!(此中有眞意, 欲辨已忘言)” 라고 읊은 시구와 짝을 이루어 결국 兩人은 田園閑居하며 참삶을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시의 정취가 일치함을 느낄 수 있다.

曆日僧何識	중이라 曆日을 어찌 알리오
山花記四時	산꽃을 보아 네 철을 기억하지.
時於碧雲裏	이따금 푸른 구름 속에 앉아서
桐葉坐題詩	오동나무 앞에다 시를 쓰기도 하지. <sup>44)</sup>

이 詩에서 “중이라 曆日을 어찌 알리오, 산꽃을 보아 네 철을 기억하지.(曆日僧何識, 山花記四時)”의 시구는 도연명의 〈桃花源詩〉에 나오는 “풀 자라니 온화한 봄철인 줄 알겠고, 나무 시들자 바람이 찬 겨울임을

43) 鄭澈, 〈次瀟灑園韻〉, 《國譯 松江集》上, 359쪽.

44) 鄭澈, 〈題山僧軸〉, 《國譯 松江集》上, 127쪽.

알겠노라.(草榮識節和, 木衰知風厲. 雖無紀曆誌, 四時自成歲.)”의 의취를 援用한 것으로 無爲自然 속에서 曆日은 없어도 하늘의 질서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표명하였다.

一聲長笑倚東臯	휘마람 길게 불며 동쪽 언덕에 의지하자니
萬事如今入二毛	만사는 이처럼 늙고 말았네.
偶抱一病人謂馬	덧없이 남들은 소갈병 앓은 司馬相이라 하고
適成三徑或云陶	삼경이 나게 되니 도잠이라 이르기도 하네. <sup>45)</sup>

이 詩는 송강이 47세가 되던 때에 全羅道 觀察使로 부임하여 지은 것이다. 起句인 “휘마람 불며 동쪽 언덕에 의지하자니(一聲長嘯倚東臯)”의 시구는 도연명의 〈歸去來辭〉에 나오는 “동쪽 언덕에 올라가 조용히 읊조리고, 맑은 시냇가에서 시를 짓는다.(登東臯以舒嘯, 臨清流而賦詩.)”의 시구를 援用하였다. 結句인 “삼경이 나게 되니 도잠이라 이르기도 하네.(適成三徑或云陶)”의 시구는 도연명의 집 뜰 앞에 나 있는 “三徑”을 인용하여 도연명처럼 은일자의 자태로 생활하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牆根樹密身逃暑	담 밑의 뻗뻗한 숲 그늘에 더위 식히고
石竇泉寒齒挾霜	돌 틈의 웅달샘 이가 시리다.
時把桑麻話田父	때때로 농사짓는 애기에 팔려
不知西嶺已顏光	서산에 해가 지는 줄을 모르네 <sup>46)</sup>

이 시는 송강이 그의 친구인 權擘에게 高陽에 있는 新院의 山舍에서 田園閑居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지었다. 承句에 나오는 “때때로 농사짓는 애기에 팔려(時把桑麻話田父)”라는 시구는 도연명의 〈歸園田居其二〉시에 나오는 “이따금 조용하고 한가로운 마을로 발길 옮겨, 풀을 헤치며 사람들과 내왕을 하지만, 서로 만나도 잡스런 말 없고, 오직 농사일 잘 되는가 물을 뿐일세.(時復墟曲中, 披草共來往. 相見無雜言, 但道桑麻長.)”라는 시구에서 援用한 것이다.

45) 鄭澈, 〈自高陽向漢陽路中其三〉, 《國譯 松江集》上, 356쪽.

46) 鄭澈, 〈新院山居寄示習齊〉, 《國譯 松江集》上, 361쪽.

山中一酌已陶然    산중에서 한 잔을 들이키니 이미 거나해지고  
萬事都忘白髮前    만사가 다 흰 머리카락 앞에서 잊어지누나. 47)

이 시의 “산중에서 한 잔을 들이키니 이미 거나해지고(山中一酌已陶然)”라는 시구는 도연명의 〈時運〉 시에 나오는 “이 한 잔 술 들이켜니 거나해져 절로 즐거워라.(揮妓一觴, 陶然自樂.)”라는 시구를 원용하여 술을 마시면 만사의 근심이 잊어진다고 읊었다.

客愁秋恨立江邊    나그네는 가을의 한스러움이 서글퍼 강변에 서 있고  
山日依依下遠天    산에 비친 해는 아쉬운 듯 먼 하늘로 내려간다.  
手折黃花誰共插    손으로 노란 국화송이를 꺾어 누구와 함께 꽂을고  
濁醪今夕且陶然    탁주로 오늘밤에도 거나하게 취하리.48)

이 시는 송강이 절친하게 지냈던 辛君望과 강가에서 헤어지면서 아쉬운 정을 읊은 것이다. 위 시에서 “탁주로 오늘밤에도 거나하게 취하리.(濁醪今夕且陶然.)”라고 읊은 시구는 도연명의 〈己酉歲九月九日〉 시에 나오는 “내 감정을 무엇으로 달래랴, 탁주라도 손수 들어 취하고저.(何以稱我情, 濁酒且自陶.)”라는 시구를 원용하여 송강은 辛君望과의 아쉬운 이별을 술로서 달랜다고 하였다.

投金江上結精廬    투금강 위에 지블 정하게 지었으니  
內相何年別玉除    내상이 어느 해에 대궐을 떠났더뇨.  
萬軸詩書橫卷秩    만軸의 詩書는 卷帙을 가로 놓이고  
一村桑柘繞扶疏    한 마을 뽕나무로 울을 둘러 무성하다.49)

이 시에 나오는 “한 마을 뽕나무로 울을 둘러 무성하다.(一村桑柘繞扶疏)”라는 시구는 도연명의 〈讀山海經〉의 시에 나오는 “집 둘레의 수목이 무성하여라.(繞屋樹扶疏)”라는 시구를 원용하여 한가한 전원의 정경을 묘사하였다.

47) 鄭澈, 〈題智谷蔡家壁〉, 《國譯 松江集》上, 348쪽.

48) 鄭澈, 〈別辛君望獨立芳草洲上不堪惘然題一絕寫懷〉, 《國譯 松江集》上, 140쪽.

49) 鄭澈, 〈失題〉, 《國譯 松江集》上, 365쪽.

衡茅晝掩誰相問	대낮에 사립문 닫았는데 누가 오겠는가?
篇翰時成獨自吟	이따금 시 지으면 혼자서 읊어보네.
憔悴一春經歲病	해묵은 병 봄에 들어 더욱더 초췌하니
漆江煙雨若爲尋	漆江의 烟雨를 어떻게 찾아가지. <sup>50)</sup>

이 시는 송강이 昌平에 거주할 때 金彦踞가 전원으로 돌아가 은거하는 모습을 보고 지어준 시다. “대낮에 사립문 닫았는데 누가 오겠는가?(衡茅晝掩誰相問)”라는 시구는 도연명의 〈癸卯歲十二月中作與從弟敬遠〉시에 나오는 “초라한 집에 몸을 숨기고, 속세와 멀리 떨어졌노라. 둘러봐도 알 사람 없고, 사립문 낮에도 노상 닫혔네.(寢跡衡門下, 邈與世相違. 顧眄莫誰知, 荊扉晝常閉.)”의 시적 분위기를 수용하였다.

### 3.3. 飲酒忘憂

梁의 昭明太子 蕭統은 도연명의 시에는 “篇篇有酒”<sup>51)</sup>라고 말하면서 “내가 보기에 그 뜻이 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술에 의탁하여 자취로 삼는다.(吾觀其意不在酒, 亦寄酒爲跡焉.)”라고 말한 것을 보면, 도연명이 술을 좋아한 것은 당시 사회와의 부조화와 人生無常에서 오는 근심을 잊고자 함이었다. 도연명 자신은 술을 즐겨 마신 것에 대해 그의 〈雜詩其八〉시에서 “남들은 적절히 잘들 살아가거늘, 옹졸한 나는 살 방도를 잃었노라. 허나 그것도 내게 주어진 도리겠거늘, 별 수 있으랴 술 한 잔에 도취하고자.(人皆盡獲宜, 拙生失其方, 理也可奈何, 且爲陶一觴.)”라고 읊어 자신이 옹졸하여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임을 개탄하며 사회와의 부조화로 인해 술을 마신다고 토로하였다. 그의 〈飲酒其七〉시에서는 “수심 잊은 술에 띄워 마시니, 속세 버린 심정 더욱 깊어라.(汎此忘憂物, 遠我遺世情.)”라고 읊어 술로 세속의 번뇌를 잊고자 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의 〈時運〉시에서는 “이 한 잔 들이키니, 거나해져 절로 즐거워라.(揮茲一觴, 陶然自樂.)”라고 읊어 마치 술 한 잔에 정

50) 鄭澈, 〈贈漆江翁〉, 《國譯 松江集》上, 143쪽.

51) 蕭統, 《陶淵明集·序》(九思叢書編輯部 編, 《陶淵明研究》(臺北: 九思出版社, 1977), 8쪽.



신이 해방된 듯함을 표현하였고, 〈挽歌詩其一〉 시에서는 “오직 살아서 생전의 한은, 마냥 술 마시지 못한 것일 뿐일세.(但恨在世時, 飲酒不得足.)”라고 읊어 가난하여 술을 마냥 마시지 못한 것이 죽어서도 유감이 될 것이라며 인간적인 미련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도연명과 관련된 음주에 대하여는 여러 逸話들이 전한다. 그 중 “我醉欲眠, 卿可去.”<sup>52)</sup>, “葛巾漉酒”<sup>53)</sup>, “陶令攢眉”<sup>54)</sup>, “白衣人送酒”<sup>55)</sup>, “秫稻”<sup>56)</sup> 등은 도연명의 음주와 관련되는 典故가 되어 후대 문인들은 도연명의 飲酒文化를 애송하였다.

松江도 도연명처럼 술을 좋아하여 그의 741수의 漢詩에서 술을 소재로 삼아 읊은 시가 3분의 1을 차지한다.<sup>57)</sup> 송강이 술을 마시는 이유에 대해 “내가 술을 즐기는 것은 4가지 이유가 있으니, 불평이 생기는 것이 하나이고, 흥이 일어나는 것이 둘이고,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셋이며, 남이 권하는 것을 거절하기가 어려운 것이 넷이다.(某之嗜酒有四, 不平一也. 遇興二也. 待客三也. 難拒人勸四也.)”<sup>58)</sup>라고 말하였다.

禁掖何年捧玉音      대궐 안 어느 해에 玉音を 받들었더뇨  
白頭三宿小臣心      늙은 몸 사슬을 묶은 소신의 마음.

52) 蕭統, 〈陶淵明傳〉(九思叢書編輯部 編, 《陶淵明研究》(臺北: 九思出版社, 1977), 6쪽.

“淵明不解音律, 而蓄無絃琴一張, 每酒適, 輒撫弄以寄其意, 貴賤造之者, 有酒輒設, 淵明若先醉, 便語客 ‘我醉欲眠, 卿可去.’, 其真率如此.”

53) 앞의 주32)

54) 〈盧阜雜記〉: “遠師結白蓮社, 以書招淵明. 陶曰: ‘弟子嗜酒, 若許飲, 卽往矣.’ 遠許之, 遂造焉, 因勉令入社. 陶攢眉而去.”

55) 檀道鸞, 〈續晉陽秋〉: “陶潛九日無酒, 出籬邊, 悵望久之, 見白衣人至, 王弘送酒使也; 卽使就酌, 醉而後歸.”

56) 蕭統, 〈陶淵明傳〉, 九思叢書編輯部 編, 《陶淵明研究》(臺北: 九思出版社, 1977), 6쪽.

“公田悉令吏種秫曰: ‘吾常得醉于酒, 足矣.’, 妻子固請種稻, 乃使二頃五十畝種秫, 五十畝種稻.”

57) 董達, 《朝鮮詩歌에 나타난 中國詩文學의 受容樣相 研究》(대전: 韓南大 博士論文, 1994), 30쪽.

“송강의 741수의 漢詩에 술에 관한 詩題는 46수, 술에 관한 詩語를 사용한 시는 도합 251수(335군데), 全詩의 1/3을 넘는 숫자였다.”

58) 鄭澈, 〈戒酒文〉, 《國譯 松江集》上, 193쪽.

平生欲止陶公酒    평생을 끊고 싶은 도연명의 술이지만  
每到愁時淺淺斟    수심이 올 적에는 조금조금 마시네.<sup>59)</sup>

송강이 지은 위의 詩는 도연명의 〈止酒〉 시에 나오는 “평생 술을 들고 즐겼으니, 술이 없으면 기쁨도 없다.(平生不止酒, 止酒情無喜.)” 라는 시구를 援用하여 그의 飲酒도 근본적으로는 도연명처럼 수심을 잊고 자 하는데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도연명이 그의 〈連雨獨飲〉 시에서

故老贈余酒	다정한 노인장이 내게 술을 권하여
乃言飲得仙	마시면 신선이 될 수 있다 하기에.
試酌百情遠	한 잔 드니 온갖 걱정 사라지고
重觴忽忘天	두 잔 술에 홀연 하늘도 잊었노라.
天豈去此哉	하늘도 이 경지와 다르지 않으리라
任眞無所先	천지자연에 몸 맡기고 일체가 되니.
雲鶴有奇翼	신기한 날개 달고 구름 탄 학같이
八表須臾還	삼시간에 우주 팔방 돌고 온 느낌.

이라고 읊어 친하게 모시는 노인들이 술을 따라 주면서 마시면 바로 신선이 될 수 있다고 하기에 한 잔을 마시니 속세의 번거로움이 다 사라지는 것 같고, 다시 한 잔 더 마시니 하늘의 존재마저 잊어져서 삼시간에 우주 팔방을 돌고 돌아온 느낌이라고 읊었다. 송강은 이에 상응하는 시로

一酌延豐酒	연풍술 한 잔을 마시자마자
令人萬慮空	갖가지 시름이 다 없어지누나.
何須吸沆瀣	맑은 이슬 마셔서 무엇하리오.
直欲御冷風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가려네. <sup>60)</sup>

라고 읊어 송강 자신도 술에 취해 온갖 속세의 추잡한 생각을 말끔히 잊고 천지자연과 홀연히 일체가 된 경지를 느낀다고 읊어 도연명이 술

59) 鄭澈, 〈寄示牛溪〉, 《國譯 松江集》上, 135쪽.

60) 鄭澈, 〈君會送酒色味俱佳詩以謝之〉, 《國譯 松江集》上, 130쪽.

마신 후에 느끼는 意趣와 같음을 표현하였다.

壽逾知命位三公	壽는 오십을 넘고 지위는 정승이라
雖死猶勝八十翁	이제 죽어도 오히려 팔십 늙은이보다 낫네.
唯有人間未盡酒	다만 인간에 못 다 마신 술이 있으니
數年加我願天同	두어 해만 더 둔다면 소원을 이루겠구만. <sup>61)</sup>

이 시에서 송강은 나이가 50을 넘고 지위는 정승의 반열에 올랐으니, 이제 못 다 마신 술을 몇 년 더 마시다가 죽으면 한이 없겠다고 읊었다. 여기서 “다만 인간에 못 다 마신 술이 있으니, 두어 해만 더 둔다면 소원을 이루겠구만(唯有人間未盡酒, 數年加我願天同.)” 이라고 읊은 시구는 도연명이 “오직 생전의 한은 마냥 술 마시지 못한 것일 뿐일세.(但恨在世時, 飲酒不得足.)”<sup>62)</sup>라고 읊은 시구에서 영향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那堪綠鬢化	저기 감히 녹색 머리카락이 변화되었는데
苦待白衣來	고달프게 흰옷 입은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누나.
秋至倚三徑	가을이 되어 삼경에 의지하니
時危賦入哀	때가 급하여 읊으니 슬픔이 생기네. <sup>63)</sup>

송강의 위 시에 나오는 “고달프게 흰옷 입은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누나(苦待白衣來)” 라고 읊은 시구는 도연명이 重陽節이 되어 술을 마시고 싶었지만 술이 없어 집 주변의 국화를 따며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당시의 江州刺史 王弘이 흰옷 입은 사람을 통해 술을 보내왔다는 逸話<sup>64)</sup>를 연상하며 도연명이 중앙절이 되어 술 없는 처지를 송강 자신의 처지에 비유하여 읊었다. 그리고 도연명의 집 앞에 나있는 “三徑”을 원용하여 그 자신이 隱逸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愛酒不能謀秣米	술을 좋아하는데 차좁쌀로도 술을 빚을 수 없고
---------	---------------------------

61) 鄭澈, 〈病中偶吟〉, 《國譯 松江集》上, 352쪽.

62) 陶潛 撰, 陶澍 注, 〈挽歌詩其一〉, 《靖節先生集》卷四.

63) 鄭澈, 〈次老杜韻〉, 《國譯 松江集》上, 139쪽.

64) 앞의 주55)

做官猶未學低昂    벼슬을 하여도 굽히고 우리름을 배우지 못했노라.  
 靑氈自有書千卷    푸른색 모전에는 자신의 책 천 권이 있어  
 絶勝黃金儲滿箱    보배로운 황금처럼 만 상자에 차여 있네.<sup>65)</sup>

이 시는 송강과 같은 나이인 朴文龍이 술을 좋아하지만 가난으로 인해 술을 빚는 데 필요한 차좁쌀까지도 구하지 못하는 처지임을 알고 그에게 지어준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술을 좋아하는데 차좁쌀로도 술을 빚을 수 없고(愛酒不能謀秣米)”의 시구는 도연명이 彭澤令에 부임할 때 술을 좋아하여 公田 300畝를 모두 차좁쌀을 심으라고 명하였으나, 아내의 반대로 50묘의 메벼와 250묘의 차좁쌀을 심게 했다는 故事<sup>66)</sup>를 援用한 것이다.

### 3.4. 愛菊吟詠

국화는 봄꽃처럼 요염을 다투지 아니하고, 가을 찬 서리를 견디며 피어난다. 그리고 시들 때까지도 그윽한 향기를 풍기기에 시인과 묵객들은 곳곳이 절개를 지키는 선비의 氣稟에 비유하여 ‘四君子’의 하나로 일컫는다. 이에 周濂溪는 그의 〈愛蓮說〉에서 “국화는 꽃의 은일자다.(菊, 花之隱逸者也.)”라고 말하여 俗世를 떠나 은일하는 은일자의 상징으로 표현하였고, “晉의 도연명은 유독 국화를 사랑하였다.(晉陶淵明獨愛菊)”라고 말하여 도연명의 국화사랑을 특별히 부각시켰다. 또한 도연명은 음력 9월 9일 重陽節에 집에 담아 놓은 술이 없자 집 앞뜰에서 국화를 따다가 江州刺史 王弘이 白衣人을 통해 보내온 술을 받고 급히 마셨다는 故事<sup>67)</sup>가 있다.

도연명은 “가을 국화가 아름다운 색깔 지녀서, 이슬에 젖으면서 그 꽃을 따다. 이 근심 잊어버리게 하는 물건에 띄우고 나의 세상 버린 정을 더 멀리 한다.(秋菊有佳色, 裛露掇其英, 汎此忘憂物, 遠我遺世情)<sup>68)</sup>라

65) 鄭澈, 〈贈朴君見同年〉

66) 앞의 주56)

67) 蕭統, 〈陶淵明傳〉: “嘗九月九日出宅邊菊叢中坐久之滿手把菊, 忽值弘送酒至, 即便就酌, 醉而歸.”

68) 陶潛 撰, 陶澍 注, 〈飲酒其七〉, 《靖節先生集》卷三.

는 시구를 통해 그윽한 향기를 풍겨주는 국화잎을 술에 띄워 마심으로 그의 고독한 심정을 달래었고, “술은 온갖 근심 없애고, 국화는 늙어가는 나이를 막을 수 있는데(酒能祛百慮, 菊解制頹齡.)”<sup>69)</sup>라고 읊어 국화는 선비의 節操를 상징하는 것 이외에도 인생의 수명을 연장하게 한다는 故事<sup>70)</sup>를 곁들여 읊었다. 한편 도연명은 번뇌와 시름을 잊고자 술 가운데서도 특별히 국화주를 좋아하여 마셨다. 그리고 “향기로운 국화가 피어나자 숲에 생기가 돌고, 돌산 마루 푸른 술 줄지어 섰네. 술같이 곧게 뻗은 절개 그대 모습 그리며, 서리에도 피어나는 국화인양 굳은 기개 장하도다.(芳菊開林耀, 青松冠巖列. 懷此貞秀姿, 卓爲霜下傑.)”<sup>71)</sup>라고 읊어 도연명은 그윽한 향기를 풍기고 찬 서리에도 곳곳이 견디며 선비의 기상을 상징하는 국화와 사시사철 푸름으로 변치 않는 節概의 상징인 푸른 소나무를 소재로 삼아 高潔하게 은일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견주어 읊었다. 특히 그가 읊은 “동쪽 울타리 밑에서 국화꽃 따드니, 멀리 남산이 눈에 들어오네.(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sup>72)</sup>라고 읊은 시구는 인간 속세의 야심이나 욕심이 없는 도연명의 의식 세계를 仙家的인 입장으로 표현하여 ‘情’과 ‘境’이 융합된 無我之境의 경지를 묘사하였다. 이외에 도연명은 “정원은 황폐했으나, 소나무와 국화는 아직도 있고.(三逕就荒, 松菊猶存.)”<sup>73)</sup>라고 읊어 자기 집 앞 정원의 좁은 세 갈래 길에는 잡초로 뒤덮여 황폐하게 보이나, 선비의 변치 않는 절개를 상징하는 소나무와 군자의 자태를 보여주는 그윽한 국화향기로 가득 차 있다고 하였다. 도연명의 작품에서 국화에 대한 언급은 비록 위의 다섯 편 시에서 짧은 시구로 표현되어 있지만, 후세 문인들은 ‘菊花’ 하면 도연명이 동쪽 울타리 밑에 심었던 ‘黃菊’을 연상하였고, 名利에서 탈속한 생활로 隱逸人的 참신한 자태를 보여준 도연명을 국화사랑의 대표 인물로 생각하였다.

69) 陶潛 撰, 陶澍 注, 〈九日閒居〉, 《靖節先生集》卷二.

70) 《抱朴子》: “南陽鄴影山中, 有甘谷, 水所以甘者, 谷上下左右, 皆生甘菊, 菊花墮其中, 故水味爲變, 谷中居民, 飲甘谷水者, 無不長壽, 此菊力也.”

71) 陶潛 撰, 陶澍 注, 〈和郭主簿二〉, 《靖節先生集》卷二.

72) 陶潛 撰, 陶澍 注, 〈飲酒其五〉, 《靖節先生集》卷三.

73) 陶潛 撰, 陶澍 注, 〈歸去來辭〉, 《靖節先生集》卷五.

君恩未報鬢先秋	님의 은혜 다 보답하지도 못하고 이미 늙어버렸으니
壯志如今已謬悠	웅장한 뜻이 이제 와서 다 소용이 없네.
松菊每懷陶令徑	소나무와 국화를 보면서 늘 도연명의 삼경이 그리워라
蓴鱸欲問季鷹舟	순채국과 농어회 먹으려니 張翰을 따라 배타고 고향을 가고파. <sup>74)</sup>

이 시에 나오는 “소나무와 국화를 보면서 늘 도연명의 三徑이 그리워라.(松菊每懷陶令徑.)”라고 읊은 시구는 도연명의 〈歸去來辭〉에 나오는 “뜰 안의 세 갈래 작은 길은 온통 잡초에 덮이어 황폐했으나, 아직도 소나무와 국화는 시들지 않고 남아 있다.(三徑就荒, 松菊猶存.)”를 援用하여 송강은 도연명의 은일생활을 동경하며 이 시를 읊었다.

孺晦籬邊菊	유회의 집 울타리 가에 국화야말로
涵翁盞底香	계함옹(송강)의 술잔 밑에 향기로구려.
那知竹窗雪	어찌 알리오 눈 내리는 죽창 앞에
別有一重陽	하나의 중양이 따로 있을 줄. <sup>75)</sup>

이 시에 나오는 “유회의 집 울타리 가에 국화야말로(孺晦籬邊菊)”라고 읊은 시구는 도연명의 “동쪽 울타리에서 국화를 따드니, 멀리 남산이 눈에 들어오네.(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sup>76)</sup>라고 읊은 시구에서 원용하였고, “계함옹(송강)의 술잔 밑에 향기로구려.(涵翁盞底香)”라는 시구는 도연명의 “이슬에 젖으면서 그 꽃을 탄다. 이 근심 잊어버리게 하는 물건에 띄워(裛露掇其英, 汎此忘憂物.)”<sup>77)</sup>라고 읊은 시구에서 원용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중양이 따로 있을 줄(別有一重陽)”이라고 읊은 시구는 도연명의 “나는 한가로이 지내며, ‘重九’라는 이름을 좋아한다.(余閑居, 愛重九之名)”<sup>78)</sup>라고 읊은 시구에서 원용하여 孺晦의 집 울타리에

74) 鄭澈, 〈西湖病中憶栗谷〉, 《國譯 松江集》上, 361쪽.  
 75) 鄭澈, 〈金孺晦家對盆菊〉, 《國譯 松江集》上, 345쪽.  
 76) 陶潛 撰, 陶澍 注, 〈飲酒其五〉, 《靖節先生集》卷三.  
 77) 陶潛 撰, 陶澍 注, 〈飲酒其七〉, 《靖節先生集》卷三.  
 78) 陶潛 撰, 陶澍 注, 〈九日閑居序〉, 《靖節先生集》卷二.

핀 국화를 보고 있으니 송강 자신의 술잔에서 국화의 향기가 풍긴다고 하였다.

### 3.5. 桃源世界

陶淵明이 만년에 쓴 〈桃花源詩并記〉는 晉·宋年間에 민중들이 포악한 정치의 재화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이상사회를 추구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잘 나타난 작품으로 널리 애송되어 왔다. 이 작품은 간결한 언어와 뛰어난 造語力으로 순박하고 화목한 농촌사회를 이상세계로 삼아 老子的 ‘小國寡民’ 이나 儒家의 ‘大同世界’ 이념을 잘 형상화하여 혼란시대에 처한 인간들의 간절한 희망을 반영시켰다.

일 천여 년 동안 도연명이 묘사한 〈桃花源詩并記〉에 나오는 ‘桃源世界’의 創作背景에 대해 ‘실제 있었던 일의 재조명인가? 아니면 神仙世界의 반영인가?’라는 문제로 과거 학자들의 많은 논란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桃花源詩并記〉는 허구성이 배제된 인간의 참삶을 반영한 도연명의 위대한 문학작품이며, 도연명이 그린 ‘桃花源’의 세계는 도연명 자신이 일시적으로 우연에서 촉발된 작가의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오랜 사회의 병폐에서 야기된 이상세계의 출현이자 도연명의 문학사상과 전원생활의 체험을 형상화한 논픽션이라는 점에서 주시된다.<sup>79)</sup>

山僧導我白巖山	스님의 안내로 백암산엘 오르니
谷裏飛流瀟瀟寒	골짜기의 폭포소리 시원도 하여라.
洗耳自今雲裏住	이제부터 귀 씻고 구름 속에 살리라
桃花莫漫送人間	도화를 부질없이 세간에 띄워 내지 말라. <sup>80)</sup>

송강은 위의 시에서 인간의 간교한 꾀나 다툼이 없는 오직 자연과 더불어 살고 순박한 인정 속에서 서로가 기쁜 마음으로 安樂을 누리는 도연명의 이상향인 桃源世界를 스님의 인도로 백암산에 오르는 길에서 발

79) 拙稿, 〈‘桃花源詩并記’創作背景의 研究〉, 《中國語文學》39(2002), 156-157쪽.

80) 鄭澈, 〈遊白巖山〉, 《國譯 松江集》上, 133쪽.

견하였다고 했다. 그래서 송강은 세상 사람들이 이 천연의 자연 정경에 몰려와 시끄러움을 피울까봐 桃花 한 잎이라도 흘러 내보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燃霞深鎖岳陽天	넋 속에 깊이 잠긴 악양의 하늘
正似鴻濛未判前	마치 우주가 미분화한 때와 같구나.
分明方丈神仙子	틀림없이 방장산 신선님께서서
隔斷漁樵晉客船	진나라 어부의 뱃길을 끊으렵인가? <sup>81)</sup>

송강은 全南 光陽에 있는 水月亭의 경치가 연기와 노을로 신묘하게 산수의 아름다움을 드러낸 모습을 중국 동정호에 있는 악양루의 경치에 비유하여 읊었다. “晉나라 어부의 뱃길을 끊으렵인가?(隔斷漁樵晉客船)”의 표현은 <桃花源記>에 나온 晉의 武陵人이 다시 桃花源을 찾으러 갔지만, “결국 길을 잃고 桃花源으로 통하는 길을 찾지 못했다(遂迷不復得路)”라는 글에서 원용하였다.

이외에 송강은 “언제 성천수를 마르게 하리오, 삼협의 복숭아꽃은 옛 근원을 묻는다.(何時洗劫成川水, 三峽桃花問舊源.)”<sup>82)</sup>와 “金波가 안식되면 밝은 달을 쫓아오고, 錦浪이 고요하면 복사꽃을 따라가네. 몸 에 딸린 거문고 술 조각배에 함께 싣고, 物밖 에 노닐며, 魚鰕만을 짝하 노라.(金波安處趁明月, 錦浪靜時隨桃花. 隨身琴酒共一蓬, 物外伴侶惟魚鰕.)”<sup>83)</sup>라고 읊은 시구도 도연명이 그린 桃源世界를 구현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지은 시로 보인다.

始信人間仙境在	인간에도 선경이 있다는 것을 믿었으니
海中蓬島不須尋	바다 속의 봉래산을 찾아서 무엇하리. <sup>84)</sup>

이 시구는 도연명이 그의 <桃花源記>에서 복숭아꽃이 만발한 가운데 넓은 토지가 평평하게 펼쳐있고, 집들이 정연하게 서 있으며, 기름진 논

81) 鄭澈, <次水月亭韻>, 《國譯 松江集》上, 560쪽.  
 82) 鄭澈, <次車天輅韻>, 《國譯 松江集》上, 134쪽.  
 83) 鄭澈, <少風波處便爲家>, 《國譯 松江集》上, 562쪽.  
 84) 鄭澈, <贈漆江翁其二>, 《國譯 松江集》上, 143쪽.



밭과 아름다운 연못, 뽕나무와 대나무 숲이 우거져 있고, 닭과 개 우는 소리가 들리고, 농사짓는 남녀와 노인과 어린아이가 즐겁고 안락하게 사는 儒家的 삶을 사는 인간세계를 그의 이상세계로 생각한 것처럼 송강도 道家에서 말하는 神仙世界가 아닌 닭을 잡아 이웃을 대접하고 불 피워 밥해 먹는 인간세상에서 그의 이상세계를 구현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도연명이 儒家의 관념에서 桃源世界를 갈망한 것과 일치한다.

### 3.6. 人生無常

인간은 누구나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존재이다. 죽음을 눈앞에 둔 도연명은 죽음에서 해탈하고자 道家나 佛家를 기웃하기도 했지만, 여기서도 숙명적인 죽음이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은 그는 어려서부터 익혀온 儒家의 自然觀에 의탁하여 영원한 자연에 歸依하고자 하였다.

羈魂散鴨水	나그네의 마음이 압록강에 흩어져 있고
放櫂發天涯	관구가 먼 곳으로 떠나고 있네.
去去坡山臥	가리라 산기슭에 가서 눕는 것이
何如此百羅	세상의 갖가지 근심보다는 나으리 <sup>85)</sup>

이 시는 송강의 친구인 李澄源이 죽자 그의 혼을 위로하기 위해 지은 輓歌의 節錄이다. 이 詩에 나오는 “가리라 산기슭에 가서 눕는 것(去去坡山臥)”의 시구는 도연명의 〈雜詩其七〉의 시에 나오는 “길 떠나 가되 어디로 갈 것인가? 남산 기슭 옛집인 무덤이니라.(去去欲何之, 南山有舊宅)”라고 읊은 시구를 원용하여 인생무상을 서글피 하였다.

十年如逝水	십년 세월이 물같이 가버리니
逝水不重來	간물은 다시 오질 못하느니라. <sup>86)</sup>

송강이 金君瑛에게 지어 준 위 詩에 나오는 “不重來”는 도연명의 〈雜詩其一〉 시에 나오는 “젊은 시절 거듭 오지 않으며, 하루에 두

85) 鄭澈, 〈輓李義牧〉, 《國譯 松江集》上, 340쪽.

86) 鄭澈, 〈贈金君瑛〉, 《國譯 松江集》上, 39쪽.

번 맞지 못하노라. 때를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라, 세월은 사람 안 기다리고 지나노라.(盛年不重來, 一日難再晨. 及時當勉勵, 歲月不待人.)” 라는 시구에서 원용한 것이다. 이것은 道家의 不老長生을 믿지 않고<sup>87)</sup>, 佛家의 극락세계에 가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sup>88)</sup>라고 말한 도연명이 그의 운명을 儒家的 自然歸依觀에 맡긴 것처럼 송강도 이에 의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 4. 結語

松江이 활동하던 시대는 倭의 침입으로 임진왜란의 난리가 있었고, 조정에서는 黨爭으로 인한 정치적 다툼으로 인해 정치·사회적으로 혼란이 극심한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西人의 우두머리로서 정치에 몸담았던 송강은 黨派로 인한 답답한 심정과 謫所生活에서 겪는 고민을 해소하고자 도연명이 자연을 벗 삼아 참신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던 田園閑居 생활을 흠모하고, 그의 영향을 받아 自然憧憬의 시를 읊었다.

송강은 도연명처럼 자의적으로 歸去來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타의에 의한 謫所生活에서 出仕에 대한 의욕을 잃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임금의 은혜로 謫所에서 풀려나 정계에 복귀되어 좌의정이라는 높은 벼슬에까지 오른 것은 도연명이 자의적으로 전원에 歸去來한 후 다시는 조정에서 불려도 정치에 뜻을 두지 않은 出處觀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이것은 임금에 충성하고 經世濟民에 뜻을 두었던 16세기 조선 士林들의 出處觀과 송강도 같이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87) 도연명이 道家의 神仙世界를 부정한 것은 여기서 뿐만 아니라, 그의 〈神釋〉 시에서 “불로장생을 자랑하던 팽조도, 결국 죽어 살아남지 못했노라.(彭祖愛永年, 欲留不得住).”의 시구와 그의 〈連雨獨飲〉 시에서 “적송자와 왕자교가 신선되었다고 전하나, 지금 그들의 소식 듣지 못하노라.(世間有松喬, 於今定何聞.)”라고 읊은 시구에서도 나타나 있다.

88) 도연명은 그의 〈歸去來辭〉에서 “죽은 후에 천제가 사는 천국에 가서 살 것이라 기대도 하지 않는다.(帝鄉不可期)”라고 하여 佛家에서 말하는 극락세계를 부정하였고, 慧遠法師가 도연명을 白蓮結社를 하기 위해 東林寺로 불렀을 때 술은 내놓지 않은데다가 법당의 종소리가 울리는 것을 듣고는 눈살을 찌푸리며 돌아갔다는 故事를 보면 도연명은 佛家에도 심취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도연명은 政治道義가 상실되어 不義한 방법으로 신하에 의해 왕위가 찬탈되어 쫓겨서 宋으로 나라가 바뀌자 “천하에 도가 있으면 벼슬하고, 도가 없으면 물러나 숨는다.(天下有道則見, 無道則隱.)” 89)와 “달통하면 나서서 천하를 구제하고, 막히면 할 수 없이 물러나 자신을 착하게 한다.(達則兼善天下, 窮則獨善其身.) 90)라는 儒家의 관념에 出處觀을 두었고, 송강은 맹자가 말한 “삶도 내가 원하는 바요, 義도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얻을 수 없을 진댄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하겠다.(生, 亦我所欲也. 義, 亦我所欲也. 二者不可得兼. 舍生而取義者也.)” 91)에 出處觀을 두어 經世濟民하고자 끝까지 벼슬에 대한 집착을 하였다. 이를 보면 兩人의 出處는 儒家의 가치관에 의해 정했다는 것이 相似點으로 나타났다.

松江은 당시 黨爭으로 인한 정치 현실에서 고뇌를 해소하고, 謫所생활에서의 위안을 얻는 데는 술만큼 좋은 媒介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도연명이 憂愁를 잊기 위해 술을 마셨다는 점과 일치한다.

도연명은 비록 다섯 편의 시<sup>92)</sup>에서 짧은 시구로 국화사랑의 시를 표현하였으나, 周濂溪가 그의 〈愛蓮說〉에서 “국화는 꽃의 은일자다.(菊, 花之隱逸者也.)” 라 말하고, “썸의 도연명은 유독 국화를 사랑하였다.(晉陶淵明獨愛菊)” 라고 말하여 도연명의 국화사랑을 특별히 부각시킨 이후 송강도 ‘菊花’ 하면 도연명이 동쪽 울타리 밑에 심었던 ‘黃菊’을 연상하였고, 국화를 통해 名利로부터 탈속하여 선비로서의 고결한 자태를 보여준 도연명을 국화사랑의 대표자로 생각하며 존경과 흠모하는 시를 읊었다.

田園은 생명의 근원이 샘솟고, 자연의 숨결과 생동감이 넘치는 곳이며, 순박하고 다정다감한 정서가 깃들어 있는 곳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勤勉과 休息을 주는 최후의 安息處이기도 하다. 도연명은 일반 전원시인들과는 달리 그의 시에서 田園에 대한 讚美와 함께 몸소 전원에서 躬耕한 체험을 바탕으로 田園의 생명력이 솟구치는 활기찬 정경을

89) 앞의 주25)

90) 앞의 주26)

91) 앞의 주27)

92) 〈歸去來辭〉, 〈飲酒其五〉, 〈飲酒其七〉, 〈九日閒居〉, 〈和郭主簿其二〉

옴어 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에 松江도 도연명이 옴은 시구와 典故를 援用하여 도연명의 田園閑居에 대한 동경의 시를 지었다.

陶淵明이 만년에 쓴 〈桃花源詩并記〉는 晉·宋年間에 민중들이 정치의 災禍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이상사회를 추구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잘 나타난 작품으로 人口에 膾炙되어 왔다. 이 작품은 간결한 언어와 뛰어난 造語力으로 순박하고 화목한 농촌사회를 이상세계로 삼아 老子的 ‘小國寡民’ 이나 儒家의 ‘大同世界’ 이념을 잘 형상화하여 혼란시대에 처한 인간들의 간절한 희망을 반영시켰다. 도연명의 이상향인 桃源世界는 신선이 사는 세계가 아니라 포악한 秦의 난리를 피해 漢나라가 있었다는 것은 물론 그 뒤로 魏나라 晉나라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면서 조상에 제사지내고, 손님에게 닭을 잡아 술을 대접하는 다정다감한 情感과 불 때서 밥해 먹는 인간사회의 정황을 묘사하였기에 松江도 도연명이 묘사한 儒家的 觀念의 桃源世界를 갈망하였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운명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존재이다. 죽음을 눈앞에 둔 도연명은 죽음으로부터 해탈하고자 不老長生을 추구하는 道家나 靈魂不滅의 佛家에도 관심을 가져 보았다. 그러나 여기서도 宿命의인 죽음을 해결할 방도가 없음을 깨달은 그는 儒家的인 自然歸依觀에 최후의 몸을 맡겼듯이 송강도 도연명처럼 儒家的 삶 의 방식을 추구하다가 그의 생을 마쳤다.

결국 兩人은 1200년 가까운 시대적 차이와 각기 다른 국가에서 다른 정치·사회의 풍파를 겪으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갔지만, 兩人의 자연사랑과 은일관념은 儒家的 觀念으로 불후의 전원시가 문학을 창작한 것이 일치하며, 兩人의 문학세계는 후대 시가 문학발전에 큰 공헌을 한 인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九思叢書編輯部 編, 《陶淵明研究》(臺北: 九思出版社, 1977)  
 臺灣中華書局 編, 〈李公煥箋註陶淵明集引〉, 《陶淵明詩文彙評》(臺北:

臺灣中華書局, 1974)

方祖燊,《陶潛詩箋註校證論評》(臺北: 蘭臺書局, 1977)

成百曉 譯,《論語集註》(서울: 전통문화연구회, 1993)

\_\_\_\_\_ 譯,《孟子集註》(서울: 전통문화연구회, 1993)

신호열, 정운한 譯,《國譯 松江集》(上·下)(서울: 太學社, 1992)

陶淵明 著, 張基權 譯,《新譯 陶淵明》(서울: 明文堂, 2002)

陶淵明 著, 車柱環 譯,《韓譯 陶淵明全集》(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陶潛 撰 陶澍 注,《靖節先生集》(臺北: 華正書局, 1975)

金相助,《松江 鄭澈研究》(서울: 高麗大 碩士論文, 1981)

金碩會,《鄭澈文學研究》(서울: 서울대 碩士論文, 1981)

董 達,《朝鮮詩歌에 나타난 中國詩文學의 受容樣相 研究》(대전: 韓南大 博士論文, 1994)

朴承在,《松江 文學 研究》(서울: 成均館大 碩士論文, 1986)

李亨大,《朝鮮朝 國文詩歌의 陶淵明 受容樣相과 그 歷史的 性格》(서울: 高麗大 碩士論文, 1991)

河祥奎,《韓國 自然詩歌에 끼친 陶淵明의 影響》(부산: 東亞大 博士論文, 1996)

拙 稿,〈‘桃花源詩并記’創作背景의 研究〉,《中國語文學》39(2002)

### 〈中文提要〉

松江對於仕途有着強烈的執着，他六次出仕，又六次被罷免。然而六次的辭官并非都是他的本意，而是跟其它客觀因素帶來的驅逐流放有關聯。松江的終極目標并非在自然和隱居生活上，而是通過自己的直接參與來實現“經世濟民”的理想上。因此逃避複雜的現實，而選擇自然方面和陶淵明是相同的。然而松江的隱退并非是他自願的。松江生活的十六世紀的朝鮮，士林們所追求的是“經世濟民”的理想。江湖自然和政治現實相互排斥的當時，松江在隱居生活中只能等待着重新復出的機會。因此松江再次復出時能够官至左議政，而相比之下，陶淵明在歸隱之後，即使朝廷再次召喚他，他也沒有回

應。在這一點上，兩人形成了鮮明的對照。

松江和陶淵明一樣，對酒情有獨鐘。在他的741首漢詩中，描寫酒的詩歌就占三分之一。對於喜好酒的原因，松江說：“某之嗜酒有四，不平一也；遇興二也；待客三也；難拒人勸四也。”但是最重要的原因是，由於松江生活的時代“土禍”和黨派爭鬪不斷，所以對於受牽連而被流放的他來說，酒是傾訴自己的苦衷和排解憂愁的最好的工具。

雖然陶淵明描寫菊花的作品只有五篇，但是在他短短的詩句中，足以看出他對菊花的喜愛之情。因此後世文人一說菊花，就自然會聯想到陶淵明的“採菊東籬下”的名句。作為熱愛菊花代表人物，陶淵明不沈迷于功名利祿，他以超凡脫俗的清新姿態而受到人們的尊敬和愛慕。松江也跟着陶淵明把超凡脫俗·清新自然的菊花作為自己的創作素材，以此來表明了文人高潔的姿態。

田園是生命的源泉，他擁有自然的氣息和生動感，是孕育淳樸和豐富情感的地方。田園為我們人類提供了勞動和休息的場所，以及生命的安息處。在陶淵明的詩歌中包含了對田園的讚美和對田園閑居生活的熱愛。因此，松江也引用陶淵明的詩句，道出了對田園生活的無限憧憬。

名作《桃花源詩并書》是陶淵明晚年創作的作品。它反映了民衆徹底擺脫晉宋時期的暗黑的政治，追求理想社會的共同心願，因此在民間廣為傳誦。詩歌以簡潔的語言和出衆的造句能力，描繪了樸素、和睦的鄉村生活。作為作者認同的理想世界。他用生動的筆調形象地展現了老子所說的“小國寡民”和儒家所提倡的“大同世界”，這也是戰亂時代民衆的懇切希望。陶淵明描述的桃源世界和儒家在現實中所追求的生活模式一樣，松江也極力想展現有人間煙火的理想世界，而并非道家所謂的神仙世界。在這一點上，兩人的思想觀點是一致的。

人類的死亡是一種必然。面對死亡，陶淵明起初是想依靠道家和佛家來擺脫它的，但是無法解決死亡宿命論，促使他來選擇儒家的自然觀，永遠地歸依自然。松江也和陶淵明一樣選擇了歸依自然的儒家方式。

**關鍵詞：**經世濟民，嗜酒，菊花，採菊東籬下，田園閑居，理想社會

274 · 中國學 第32輯(2009.4)

투 고 일 : 2009.2.18

심 사 일 : 2009.3.10-3.30

게재확정일 : 2009.4.25

## 李金髮 詩의 象徵主義的인 특징\*

김용운\*\*

### 〈목 차〉

1. 머리말
2. 神聖과 慾望
3. 욕망과 슬픔
4. 시간이 매개하는 生死
5. 삶에 깃든 죽음
6. 맺음말

### 1. 머리말

20세기 중국문학사에서 東西 섭합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詩의 본질에 관한 내용·형식으로 체험한 시인이 있다면, 그것은 李金髮이다. 5·4 문학혁명을 겪지 않은 그의 독특한 전통 관계, 서정의 서구적인 방법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인 구원이 아닌 허무의 수용으로 나아가는 양면성. 확실히 李金髮의 詩는 中國詩歌史의 별종이자 상징주의 세계성의 異端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중국 측의 비평은 서정의 본질에 대한 고찰을 비켜감으로써 민족전통의 이탈, 어설픈 상징주의의 퇴폐적 수용 이상의 평가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의 詩가 갖고 있는 兩價性의 구조와 그것의 모순진행 과정에 주목하지 않고 있는 여태의 李金髮論은 주로 상징주의의 본질영역, 다시 말해서 기독교적인 구원의 함의와 그의 詩 간의 거리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말미암은 결과들이다.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 2. 神聖과 慾望

李金髮가 유학하였던 시대는 프랑스 詩의 세기말적인 고조가 지난 뒤였다. 神聖과 人性을 매개함으로써 삶을 변화시키고 人間을 변화시켜야 하는 보들레르·말라르메·랭보 등 詩의 차원이 후기 상징파 시인들에 의하여 생각과 현실 사이의 兩項關係를 알레고리나 표징으로 드러내는 상징으로 환원되고 난 뒤였다.<sup>1)</sup> 그러면서도 자연과 인간의 관계로부터 비롯된 과학의 진보는 詩의 종교적인 매개성을 더욱 일반화시켜가고 있었다. 이 시기의 李金髮가 기독교 신자였는지 여부는 아직까지도 분명하지 않지만 李金髮의 서정적 본질에 기독교적인 요소가 깃들어 있다는 것은 작품집 여기저기서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다. 李金髮의 하느님은 가슴으로 “소리 없는 지시를” 우리에게 내리시는 중이다.

하느님은 가슴 속에서/ 사방의 검은 그림자처럼/ 소리 없는 지시를/  
우리 무릎에 굽어 내리신다.<sup>2)</sup>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는 내리는 지시를 여기 있으면서 듣는 지극히 기독교인 전통 위에 놓여져 있다. “텅 빈 계곡아래에서 무수한 사람들의 메아리가 귓전에 들리듯” 하느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그 기억에 나는 “우울한 탄식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 미소와 天才의 신비로 배부른 사람들은 끝없이 역사를 증명해 보이지만, 이 역사는 또한 인간가치를 부르짖는 부단한 자기주장의 과정이기도 하다. 길거리에서 외쳐졌던 역사와 詩의 주체는 자유이다. 그 옛날의 말씀으로부터 지금의 상징주의와 리얼리즘에 이르기까지, 걸어 다니는 시간인 ‘구두’ 앞에서 사상은 변화해 간다. 그리고 시간과 함께 말씀의 본령을 알게 된 나는, 죽을 때까지 저들 “손과 발의 피곤함을 동정해야 한다.”

1) 마르셀 레몽 著, 金華榮 譯, 《프랑스 現代詩史》(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3), 65쪽.

2) 李金髮, 〈하느님 上帝〉, 《가랑비 微雨》(上海: 北新書局, 1925), 127쪽.

깊은 꿈속에서는 모두가 알 수 없는 것들/ 마치 텅 빈 계곡 아래, 수많은 사람들의 메아리/ 귓전에 들리듯, 하느님께서는 使命을 암송하시고,/ 오래고 오랜 기억이 우울한 탄식을 자아낸다.// 검고 흰 그림자 밑을 오개는 사람들,/ 미소와 天才의 신비로 잔뜩 배부른 채로/ 햇빛 속을 맴돌며/ 선조들의 공명한 역사를 증명하고 창조한다.// 고귀한 세월 속의 “統治”가/ 큰 길에서 소리친다./ 사랑과 증오와 기대여, 평민을 해방시키라!/ 심볼리스트여! 아니 리얼리스트?/ 사상은 구두 앞에서 변해버렸다./ 나는 손과 발의 피곤함을 영원토록 동정하리라.<sup>3)</sup>

역사와 지금 이 순간, 현실과 자아의 兩價性을 하나로 엮어내는 李金髮의 독특한 기제는 자신의 性的인 욕구를 거론하는 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李金髮은 이 문제를 神聖과 욕망의 兩價性으로 파악한 후 욕망을 거론함으로써 그것을 긍정하고 마는 정향을 보여주게 된다.

강경한 마음을 가진 위대한 神이/ 내 젊음을 단속하고,/ 내 번민과 공포와 슬픔을 바라본다./ 나는 이기고 싶었지만/ 발을 내디딜 때마다 주위엔 원수./ 내가 약간의 전쟁을 끝내놓고/ 계승즈레한 눈을 가진 부인에게로 도망가/ 고독의 위대함을 건립하였음을/ 지금 “육체”는 陰謀 중임을 너는 안다./ 얼마나 명백하고 또한 당연한가!/ 바다 위의 수증기처럼 흩어져버릴./ 생명은 그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는 듯!/ 그는 나의 王座를 점거한 채/ 떨어졌다 가까워지며/ 마음 속 회미한 생각을 믿을 수 없이 미쳐 날뛰게 했다./ 그는 하늘의 별빛처럼/ 모든 것을 끝없이 비추며/ 적어도 삶의 근심과 창조를 관할하려 했으며,/ 탐조등의 불빛처럼/ 어둠속에서 모든 것을 살펴보려 했다./ 원대한 시선으로/ 찾아낸 죄악의 贓物은/ 영원의 질투가 되었지만/ 끝내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그는 내 영혼에/ 한낮의 슬픔처럼, 한밤의 사랑처럼/ 날 흥분케 하는 열병을 남기고/ 그리고는 거기서 잠이 들었다--/ 작은 별들이 깔깔대는 하늘,/ 나폴대는 옷을 입은 여인의 나즈막한 노래./ 실망한 젊은 여인은/ 자신의 고향과도 같은/ 바다의 파도를 보며 통곡한다--/ 그는 분명 점거하려 하였지만/ 결국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sup>4)</sup>

3) <작가 作家>, 《가랑비 微雨》, 66쪽.

4) <하느님--육체 上帝--肉體>, 《행복을 위한 노래 爲幸福而歌》(上海: 商務印書館, 1926), 161쪽.

내 속의 神聖은 “내 젊음의 욕정을 단속하고는” “번민과 공포와 슬픔으로” 가득한 나의 내면을 바라보고 있다. 나는 이런 욕정을 이기고 싶었지만,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은 내 욕망을 자극하는 “원수들이다.” “약간의 전쟁을 끝내놓고” 욕망에 패배한 나는 “계슴츠레한 눈을 가진 부인에게로 가버린다.” 지금까지 고통을 지켜온 내 神聖의 위대함은 욕신 속의 욕망으로 들끓고 있다. 욕정의 구체성과 불가피함 때문에 신성의 생명은 이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 같다.” 신성은 내 속의 “왕좌를 차지하여” 때때로 시작되는 욕망의 희미한 단초는 “믿을 수 없이 미쳐 날뛰게 한다”. 그는 끝없는 별빛이 되거나 근심과 창조에 대한 관할을 원했다. 그래서 신성은 죄악의 장물을 찾아 “영원의 질투가 되었지만” 아무 소득이 없는 상태다.” 게다가 우리 모두는 신성을 추구해봤자 영원히 살 수는 없는 존재이다. 욕망이 내 속에다 열병을 주입해 버리면 나는 “계슴츠레한 눈을 가진 부인” 집에서 잠들면서 꿈꾸게 된다. 내가 사랑하던 여인은 “자신의 고향 같은 파도를 바라보며 통곡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아무 것도 얻지 못한 채다.

반면에 불교에 대한 李金髮의 기억은 매우 단선적이다. 李金髮에게 木魚를 치는 소리는 “저승사자의 외침 같은 시끄러운 소리”이며 “머리카락이 쭈뼛거리며 이불을 끌어안고 귀를 막으며 도망쳐야 하는” 대상이다. “마귀의 신음 같은 讀經 소리”는 “상처 입은 내 마음을 두근거리게 할” 정도이다. 저들은 “이 세상의 짓곳은 장난꾼”으로서 “행복을 내다버린 산 영혼”이며 “피와 살을 희생하는 신도들이다.” 그들이 “중얼거리는 말”들은 “끝없이 되풀이되고 또 무미건조해서” 내게는 “개 짖는 소리만도 못한 것”이다. 兩價性의 기제는 어떤 의미에서 中國人인 그가 직면하고 있는 유럽이라는 상황의 이중구조로 말미암고 있는 셈이다.

아, 그대 毒을 품은 불교 신도여!/ 하느님의 사명을 그대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매번 나른하고 곤한 꿈속에서,/ 그대 침묵과 神秘가 되었으나,/ 저승사자의 외침 같은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깨어나면,/ 얼마간 머리카락이 쭈뼛거리며,/ 이불을 끌어안고 귀를 막으며 도망쳤다./ 하지만 마귀의 신음 같은 그대 독경 소리는,/ 이미 상처 입은 내 마음을 두근거리게 해,/ 고요한 방안에서 도움을 청하게 한다!/ 그대는 이 세상의 짓곳은 장난꾼,/ 행복을 내다버린 산 영혼,/ 피와 살을 희생한

신도./ 욕망 가득한 생물은, 벌써 이 간단한 악기를 싫어해!/ 그대가  
중얼거리는 말들은,/ 끝없이 되풀이되고 무미건조해서,/ 잠 못 이루는  
이를 다시 꿈속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을 뿐./ 그건 밤을 지키는 개  
짖는 소리만도 못해서,/ 사람을 예민하게 만들고 흥분하게 해.<sup>5)</sup>

반면에 李金髮이 기독교적인 감수체계 안에서 거론하고 있는 욕망의  
실재들은 상징주의의 兩價性이 李金髮의 개체형식으로 구현된 전형들이  
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의 피비린내가/ 美人의 옷자락 밑으로 흩어진  
다./ 교만 없이 칭찬도 휴식도 없이/ 파리는 수 백리 먼 곳으로 떠난  
다.// 마침내 날아오르며 노래한다./ “거지는 진흙 속에 꼬꾸라졌네./  
아,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여! 하느님은 영원히 아시겠지만/ 악마가 모  
든 것을 미혹시킨다네.”// 손가락뼈는 피부 아래로 연결되어/ 우리의  
생명이 영원토록 더듬어야 하리니./ 탄식할 때에 “絶對”는 눈까풀 밑  
에서 소멸해버린다./ 나는, 모로코 행상들의/ 갖가지 물건 속으로 숨  
어들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엿보고 싶다.<sup>6)</sup>

神聖의 상징인 골고다의 피가 미인의 옷자락 밑으로 흩어진다. 신성  
과 욕망이 양가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것이다. 그곳에는 교만도 칭찬도  
휴식도 없다. 신성이 “세상 끝 날까지”라면 욕망은 삶이 끝날 때까지다.  
李金髮은 파리가 되어 신성과 욕망의 양가성이 실현되고 있는 유럽을  
여행하게 된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죽음을 매개로 한 “하느님과 이 모  
든 것을 미혹케 하는 악마”에 관한 것이다. 젊음 때문이었을까? 마지막  
연의 李金髮은 욕망에 지는 모습이다. 뼈가 피부 속으로 연결되어 “생  
명을 더듬는” 욕망을 실현해 간다. 그 순간 신성의 절대는 탄식과 함께  
“눈까풀 아래에서 소멸해 버리고”. 욕망에 진 시인은 “갖가지 물건 속  
에 스며들어 모든 사람의 모습을 엿보고 싶어 한다.” 李金髮의 양가성  
은 절대를 향해 나아가는 정향이라기보다는 욕망으로 편향하는 신성의  
대립축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들레르가 고민했던 것이 초월의 역동적인

5) 李金髮, 〈木魚 치는 사람 敲木魚者〉, 周良沛主編, 《中國新詩庫》3(武漢: 長江文藝出版社, 2000), 598쪽.

6) 〈추행 醜行〉, 《가랑비 微雨》, 56쪽.

실체였다면, 李金髮의 그것은 보들레르의 열기가 인간의 내면으로 되돌아온 욕망이었다.

### 3. 욕망과 슬픔

중요한 것은 李金髮의 내면세계가 욕망과 슬픔을 일체양면으로 하는 감성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인은 어린 시절의 환상과 설렘을 피리로 불어보지만, 슬픔이 아닌 다른 소리는 지어낼 수 없는 상황이다. 유년의 아름답던 꿈까지도 슬픔이 된 것이다. 이런 李金髮의 슬픔은 데카당스한 시간인식과 결합함으로써 더욱 허무한 것이 되어버린다. 시간의 귀결인 운명은 시인이 그토록 못견뎠던 평범한 삶이 권태로 끝날 것임을 예고한다. 시인의 슬픔은 그 누구도 시간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떠돌이가 만든 통소 하나를 사서/ 내 어린 시절의 환상과 설렘을 불  
었더니/ 슬픔의 대표음 솔(sol)이 대신해/ 더 이상 낮을 수 없는 음을  
연주한다. // (중략)// 누가 네 천 마디 탄식의 대가를 치루어 줄까./  
운명은 담장 밑바닥에서/ 간사하게 웃어대는데./ 누가 네 천 마디 탄  
식의 대가를 치루어 줄까./ 空想은 자연의 무조건적인 굴복을 결정했  
는데.<sup>7)</sup>

이리하여 李金髮은 비극을 향해 나아간다. 인간과 운명에 대한 시간의 결정성 이외에도 오랜 동안의 異國 생활로 인한 고독과 적막, 유럽인들로부터의 멸시, 사랑에서의 일시적 고난과 좌절, 상징과 시로부터 받은 감상적 정서의 온양과 훈도, 병으로 인한 몽환과 망연자실 등이 원인이기도 했다. 어쨌건 그는 감상과 예감이 지나친 ‘선병질적인 文人’이 되어, ‘한들거리는 들꽃, 살 같은 세월. 모든 것들이 한없는 감흥을 불러일으켜, 마침내 슬피 울어’버리게 된다.<sup>8)</sup>

우리는 영혼의 꽃을 꺾은 탓에/ 어두운 방 안에서 통곡하였다./ 재 너

7) <단속적인 영감 斷續的인 靈感>, 《中國新詩庫》3, 576쪽.

8) 李金髮 譯, <《교감 諧和》의 小序>, 《美育雜誌》第3期(1929.10), 73쪽.

머 햇빛은 우리의 눈물을/ 말려주지 못하고, 이른 아침 얽은 안개를/  
 불어 흩뜨릴 뿐, 나는 부끄러워 머뭇거리고, 밤비둘기가 거기서 노래  
 한다./ 나는 네 거문고로 모든 불행을 그에게 알려/ 그가 떠돌아다니  
 며 사방에 선포케 하리라.<sup>9)</sup>

이렇듯 李金髮은 먼저 절망한다. 그 보다는 먼저 고립된다. 그리고 난  
 뒤에 우는 것이기에 그의 눈물은 고립과 절망의 결과이다. 갈 곳 없는  
 그를 채우는 것은 감상뿐이기 때문에, 그 끝에 맞게 되는 신세벽의 절  
 망과 소망이 바로 “모든 불행을 그에게 알려 그가 떠돌아다닐 때, 사방  
 에 선포케 하라”는 외침이다. 이런 그의 비극은 어느 정도 삶의 근본문  
 제를 신고 있다. 적어도 그는 고독과 권태, 그리고 소망의 끝이 무엇인  
 지 알고 있는 사람이다. 배고픔과 목마름, 죄악과 참회, 나아가 소외와  
 허무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끝도 없이 깊은 동굴이./ 내 작은 사진과/ 心靈의 魂을 찍는다.// 영원  
 한 것은 육체와 술./ 황금, 흰 작약./ 바위 앞에 늘어선 버들.// 환상은  
 필요 없다./ 바람은 끝내 낙오한 병사처럼/ 영원히 도망쳐버릴 터이  
 니.// 배고픔과 목마름이/ 죄악의 참회를 기다리며/ 처음과 끝에서 통  
 곡한다.// “人道” “惡魔”/ 새로운 소년이/ 짧은 촛대 밑에서 탄식한  
 다.// 멈출 수 있으리라! 술, 육체, 황금, 흰 작약./ 뿔, 꿩, 알베르,  
 레옹.// 사람들은 애써/ 詩 속에 산문을 쓰려는 것일까?/ 시간이 질주  
 한다.// 한 시대의 작가는/ 野人처럼 꾸민 채로/ 군중 속에서 소리 지  
 르거나,// 축축한/ 벗짚 위에서/ 춤을 춘다.// “해버려. 해치워버려.”/  
 공간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에게 “해치우는” 것을 보이리니.// 맹목의  
 다정함은/ 한 병사에게 다가서도/ 역시 거칠고 아름다웠다.// 호머는  
 늙어버렸는데/ G와 M은 어디에 있는가?/ 어찌하여 실마리들은 이리  
 도 많은 것인가!// 그들의 높은 노랫소리와,/ 빼어난 소리를 마다한 것  
 은,/ 누구였나? 그래야만 했나?<sup>10)</sup>

삶이 끝없이 깊은 동굴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빛나는 것은 언제나 순  
 간이다. 작약이 피어나고 바위 앞에 늘어선 버들이 출렁이는 바로 그  
 순간들이다. 따라서 환상도 바람도 소용없다. 언제나 그것들은 도망쳐

9) <불행 不幸>, 《가랑비 微雨》, 173쪽.

10) <끝도 없이 깊은 동굴 無底底深穴>, 《가랑비 微雨》, 59쪽.

다니기 바쁜 탓이다. 결국 시인의 삶은 배고픔과 목마름의 구체성에 대한 죄악과 참회의 추상성이 교직하는 가치의 兩價가 되고, 人道와 악마의 兩價性 위에 사춘기에 이른 새로운 소년들이 탄식한다. 순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작약이나 버들, 시 속에 일상적인 내용을 기입하고자 하는 뿔 튀레 알베르 레옹 등으로 불리는 평범한 사람들은, 그러나 영원하다. 그래서 한 시대의 작가는 야인처럼 자신을 꾸민 채 대중 속에서 악을 쓰고 또 벗짚 위에서 춤을 추는 중이다. 이 모든 것은 그러나 시간에 의하여 결판이 나게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행위는 계속되고 호머는 늙어버릴 것이며, 시인의 삶 속에 그토록 많은 실마리를 제공하던 G나 M도 잊혀지고 말 것이다. 그들의 사랑과 탄식을 거절한 것이 하필이면 시인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되고 있을 뿐이다. 이렇듯 李金髮은 보들레르 말라르메 랭보 등의 초월에 대한 욕망 편향에 감상과 비극이라는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다. 프랑스 상징주의에 대한 오랜 공감과 감상, 그리고 쇼펜하우어 정향이랄 수 있는<sup>11)</sup> 李金髮의 비극적인 분위기는 오시는 비에도 깊이 울고 있을 정도다.

가볍고 친근한 떨림은/ 낙엽을 두드리는 빗방울./ 넌 하늘 끝에서 이  
곳으로 도망 와/ 음악으로 내 귀를 두드리는구나.// 끊이지 않는 신  
음./ 내 마음에 내려앉은 흐느낌./ 이 끊이지 않는 신음 속에서 죽어/  
내 다시는 詩의 펜으로 신비를 노래하지 않으리라.<sup>12)</sup>

#### 4. 시간이 매개하는 生死

욕망에 대한 일체양면으로서의 애수란 삶에 대한 허무감의 결과이다. 욕망이 삶에 대한 친착이라면 애수와 感傷은 피할 수 없는 삶의 귀결, 즉 죽음을 만난 욕망의 변화이다. 李金髮이 그의 첫 시집 《가랑비 微

11) 李金髮은 또한 쇼펜하우어 철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귀국 이후에 쓴 〈中年自述〉에서 그는 “불행히도 쇼펜하우어로부터 압시를 받아 비관적인 인생관을 이식하게 되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李金發, 〈中年自述〉, 《文艺》2:1

12) 〈비 雨〉, 《행복을 위한 노래 爲幸福而歌》, 168쪽.

雨》의 머리말(導言)에서 언급한 것처럼 “생명에 대한 嘲笑가 지니는 신비와 비애의 아름다움”이란 것도 시간이 끌고 가는 현재의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과정 때문이다. 삶 속에 묻어있는 허무의 다른 이름인 슬픔과 죽음의 냄새를 느끼는 탓에 시인은 잠 못 이루며 자신의 정감을 오물 속에 뒹굴게 한다. 그래서 〈밤의 노래 夜之歌〉는 “모든 생물들의 땀 냄새가 싫사오니” 내 삶의 “땀을 올려 달라”고 불평한다.

우리가 메마른 풀밭을 거닐 때/ 설움과 울분이 무릎을 휘감았다// 분홍빛 기억은/ 길에서 썩고 있는 짐승처럼 악취를 풍기며// 작은 도시에 퍼지더니/ 무수한 단잠들을 어지럽히고 깨우고// 부서진 내 마음의 바퀴는/ 오물 밑에서 영원히 구르리// (중략)// 神이여! 그대 땀을 올리시라/ 저는 모든 생물들의 땀 냄새가 싫사오니<sup>13)</sup>

시간이 삶과 죽음을 매개하는 한, 삶 속에 죽음이 스미는 것은 숙명이다. 그 누구의 삶도 죽음과 독립적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낙엽이 시간 속을 걷고 있는 우리들 발등의 붉은 점으로 떨어져버리듯 삶은 또한 죽음의 미소이다. 술 마시고 노래함으로써 살아있음을 절실하게 확인하는 그 순간에도 죽음은 달빛처럼 스며들어 있는 탓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러 가야 한다. 삶에 대한 욕망이 슬픔으로 바뀌는 바로 이런 순간에 남녀 간의 부끄러움이나 머뭇거림은 정말 무의미하다.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을 껴안음으로써 그런 인간의 형식들로 하여금 내가 깨닫게 된 길의 해묵은 먼지를 덮어씌워야 한다.

남은 잎이/ 우리 발 위에/ 피를 뿌리듯// 생명은/ 죽음의 신이 입가에 띠니/ 웃음// 반쯤 죽어버린 달 아래/ 마시고 노래하다/ 찢어지는 목소리// 북풍 따라 흩어진다/ 아!/ 네 사랑을 위로하러 떠나라// 너의 창문을 열면/ 부끄러워 머뭇거리는/ 여행길의 먼지가/ 그 사랑스런 눈을 가리고// 이것은 생명의/ 부끄러움과/ 분노인가?// 남은 잎이/ 우리 발 위에/ 피를 뿌리듯// 생명은/ 죽음의 신이 입가에 띠니/ 웃음<sup>14)</sup>

현실이 이 깨달음을 수용하지 못할 때 죽음은 보편적인 것이 되어간

13) 〈밤의 노래 夜之歌〉, 《가랑비 微雨》, 31쪽.

14) 〈유감 有感〉, 《행복을 위한 노래 爲幸福而歌》, 107쪽.



다. 깨달음은 “바람이나 비”처럼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한 채, “바다 속에 깃들고”, 뛰어 놀던 “사슴은 내 마음 속에서 죽고 만다.” “포기하려는 욕망을 찾아 헤매면서도” 그녀의 입술은 이미 예전 같지가 않아 가슴이 아프다. 시간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가을의 꿈이” 끝나자 허망함이 영혼을 메우게 된다. 장래를 꿈꾸는 우리들의 가슴은 짐승이 깃뚫고 간 눈바닥처럼 어지럽기만 하다. 바로 우리 가슴에 새겨진 시간의 돌이킬 수 없는 족적들이다.

(1) 바람과 비는 바다 속에 있고/ 들사슴은 내 마음속에서 죽었다./ 보라, 가을의 꿈은 날개를 펼쳐 떠나버리고/ 이 나약한 영혼만 하릴없이 남았다.// (2) 나는 포기하려는 욕망을 찾아 헤맸고,/ 변해버린 앵두빛 입술에 가슴 아팠다./ 아, 어두운 풀밭에서/ 밝은 달이 우리의 깊은 침묵을 거두어들린다.// (6) 너는 눈[雪] 옆에서 봄을 생각하고/ 나는 메마른 풀숲에서 매미소리를 듣는다./ 우리의 생명은 짐승이 밟고 지나간 눈처럼/ 너무나 시들었다.// (9) 우리의 기억들이/ 거친 들판에서 돌아갈 길을 찾는다.<sup>15)</sup>

중국의 어느 연구자는 “작가는 時空 觀念의 각도에서, 사라진 내면의 청춘과 메마르고 훼손당한 생명을 탄식한다. 그가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와 비유는 새롭고 특이하다. ‘사슴은 내 마음 속에서 죽었다.’ ‘짐승이 밟고 지나간 눈처럼’과 같은 이미지나 비유는 특이하지만 기괴하고, 새롭긴 하지만 아름답지 않다. 상징과의 일련의 시들은 이미지가 지나치게 회합하여 독자들이 거리를 느끼게 한다. 李金髮이 ‘詩怪’로 불리운 것도 이 같은 원인이 주요하게 작용한 때문이다.”면서 “심미효과에 대한 추구가 일정한 한도를 넘어서게 될 때 예술은 그것과는 상반된 측면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어떤 유포도 이 같은 변증적 원칙의 제약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이 작품의 심미적인 좌절을 거론한다.<sup>16)</sup> 하지만 李金髮의 이 작품은 결코 난해한 것도 심미적으로 실패한 것도 아니다. 시인은 삶 속에 죽음이 스며있는 시간의 현재를 적시하고 있을 뿐이다.

15) 〈시간의 표현 時之表現〉, 《식객과 흉년 食客與凶年》(上海: 北新書局, 1927), 205쪽.

16) 李雙, 〈新文學象徵主義詩論探微〉,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第2期(1990), 124-137쪽.

그런 의미에서 “李金髮 시의 최고 범주는 生과 死다. 시간의 긴 江 속에 출현하는 생명은 두렵고 혼란스러워, 인간은 생명으로부터의 도피를 꿈꾸게 된다. 李金髮은 늘 어둡고 비극적이며 생명이 없는 사물에 주목한다.”<sup>17)</sup>고 한 체첸카스키의 주장은 어느 정도 핵심에 근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李金髮은 늘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노라고 고백한다.

나는 생명의 한 면과 만나는 걸 좋아하지만/ 시간이 지연되는 까닭에/  
일의 시작과 끝을/ 보기 좋아할 뿐이다/ 시간이 지연되는 까닭에<sup>18)</sup>

생명의 다른 한 면은 죽음이다. 하지만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임으로 일의 시작과 끝을 바라보는 것으로써 자신의 마지막을 떠올리곤 한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그가 죽음에 매달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미 서술한 것처럼 욕망이 맹목을 낳고, 맹목이 슬픔을 낳으며, 슬픔은 허무에 가 닿고, 허무가 죽음에 연결됨으로써 삶 속에 죽음이 깃든다는 것이 李金髮의 생각이었다.

머리를 감싸쥐고 사랑했으니, 그녀는 본디 先代의 女神/ 맹목을 버리라고? 우리의 유일한 숭배자께서/ 날카로운 눈초리로, 모든 적막과/ 용솨음, 황폐한 덩불이 숨어 있는 곳을 살피시니.// 그대 높은 언덕에 자리 잡은 무덤들이 보이지 않는가?/ 무수한 땅강아지와 개미들의 궁전 있으나/ 그대 킷전에선/ 모래도 끝내 닳아버리는 것을.<sup>19)</sup>

先代의 女神 같은 그녀를 사랑하는 시인은 맹목적이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대자성이 일반화 된 그에게는 이 맹목 속에 존재하는 적막과 비약, 황폐한 덩불이 들여다보인다. 그리고는 시간을 의식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맹목은 무덤이 되고 땅강아지와 개미들의 집이 된다. 시간의 킷전에서는 모래도 닳아 없어져버릴 만큼 명징한 인식을 놓치지 않는 시인에게 죽음이란 삶만큼이나 잘 알려진 바니, 시간이야 말로 삶과 죽

17) [蘇]JIE·契爾卡斯其 著, 理然 譯, 〈論中國象徵派〉,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第2期(1983), 360-366쪽.

18) 〈X〉, 《식객과 흉년 食客與凶年》, 163쪽.

19) 〈삶 生活〉, 《가랑비 微雨》, 79쪽.

음을 매개하는 유일한 고리이다.

나는 죽음을 안다./ 누군가의 시체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東京의 물속에서 부어오르며/ 우주의 한 모퉁이를/ 장식하고 있었다.// 죽음! 맑은 봄날처럼 아름답고, 계절의 도래처럼 충실하니,/ 네게 방법 있으면 도망쳐보라.// 아아, 두려워하거나 통곡하지 않아도 되나니,/ 그가 마침내 우리를 따스하게 감싸주리라.// “그들이 가서 그 친밀함을 찾는다 해도/ 마지막엔 결국 실망하게 될테니/ -- 生計를 억누르는 문체에 --/ 오 어머니!/ 모두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죽음을 안다./ 누군가의 시체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sup>20)</sup>

이렇듯 죽음은 삶과 별개가 아니다. 그것은 東京의 물속에서 퐁퐁 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를 우리와 함께 장식한다. 따라서 봄날 같은 생명의 계절에도 피어나는 아름다움 속에도 언제나 그것은 깃들게 된다. 보편적 필연성인 그것과 친밀해진 자는 누구나 한 번 실망하게 되어 있다. 예외 없이 누구나, 죽어야 하니까.

흥미로운 점은 李金髮이 영원과 절대를 향한 보들레르의 초월과는 달리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李金髮은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향한 끊임없는 순례와 그것 없는 죽음의 수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보들레르 시의 목적은 무묘하고 저속하며 권태로운 현실로부터의 초월이다. 이때의 초월은 작가내적인 양가성의 모순구조를 내적근거로 하고 작가와 객체의 관계를 계기로 한다. 바로 이 계기가 제공하는 내적인 감응이 바로 교감이다.<sup>21)</sup> 다시 말해서 작가는 외적 대상과의 교감을 계기로 내면의 양가성을 영원과 절대에 동일시켜버린다. 이 초월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일 수는 없다. 그리스도의 役事가 아닌 탓에 보들레르적인 초월은 절대자에게 가 닿는 한 순간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그리스도의 구원과 동질적이라는 데에 상징주의의 숙명이 존재한다. 보들레르나 말라르메, 그리고 랭보가 보여주는 끊임없는 갈증은

20) 〈죽음 死〉, 《행복을 위한 노래 爲幸福而歌》, 147쪽.

21) 交感은 대상에 대한 시인의 감응이다. 그것도 영원과 무한에 가 닿은 정신과 감각의 환회를 매개하는 작가내적인 정신활동이다. 민희식, 이재호 역편, 《프랑스 名詩集》(서울: 종로서적, 1985), 80쪽.

주로 이 때문이다. 순간에 불과하지만 구원과 동질적인 이 순간을 위해 시인들은 살아있는 교감을 찾기 위한 순례를 떠나야 한다. 따라서 구원이라는 핵심범주를 갖추지 않고 있는 李金髮의 교감은 고해성사 식의 초월이 아니라 ‘삶 속에 깃든 죽음의 의식’이라는 통찰력으로 전환해버리게 된다.

孫玉石은 李金髮의 교감을 상징과 전반에 대한 通感으로 칭하면서 공감각의 의미로 파악한다. “상징과 시인은 진부한 표현방법을 피하기 위하여 이미지 구성의 新奇性을 추구하고, 詩語의 암시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굴하여 서로 다른 관념의 언어들을 연결시키는 데 고심하면서, 비정상적인 질서로 그것들을 배합함으로써 특수한 예술적 효과를 창출해낸다.”<sup>22)</sup>는 것이다. 孫玉石이 거론하고 있는 교감의 사례도 대부분이 공감각들이다. 그는 〈겨울밤의 환각 寒夜之幻覺〉의 “창 밖 밤의 빛깔은, 고독한 나그네의 마음을 푸르게 물들인다.”를 “시각적인 언어로써 내면적 심리 상태의 감각을 형용하고 있는데, 겨울밤이 엄습하는 시간에 느끼게 될 시인의 감각에 대한 독자의 상상을 유발시킨다.”고 말한다. 또한 〈버림받은 여인 棄婦〉의 “시름은 동작 위에 누적되고”는 “누적’과 ‘동작’이라는 서로 관련 없는 관념을 연결시킴으로써 버림받은 여인의 ‘시름’이 무거운 발걸음임을 설명하고, 신기함 속에서 독자들의 상상의 추적을 유발시킨다.”고 한다. “석양의 불꽃은 번민을 재로 만들지 못해”를 설명할 때는, “‘번민’과 ‘재’라는 전혀 상관없는 관념이 시인에 의해 결합됨으로써 ‘황혼도 그녀의 마음의 번민을 제거할 길 없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각별한 시적 묘미와 참신함을 느끼게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처럼 감각이 교착되는 수사방법에 의해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해내는 것은 상징과 시인들이 늘 시험하고 운용하던 방법이였다.”면서, 穆木天의 〈낙화 落花〉에 나오는 “떨어지는 꽃잎이 적막한 집 안으로 깊고 하얀 꿈을 데려온다.”는 구절과 馮乃超의 시 〈홍사등 紅紗燈〉의 “길푸른 憂愁는 불꽃같은 적막을 토한다.”는 구절, 그리고

22) 孫玉石, 〈象徵派詩〉, 賈植芳主編, 《中國現代文學社團流派·下》(江蘇: 江蘇教育出版社, 1989), 808-809쪽 참조. 孫玉石은 이 논문에서 “이 같은 수법의 장점은, 신기한 이미지 구성으로 독자들에게 신선한 詩意와 감각을 준다는 점과, 독자를 위해 비교적 넓은 심미적 상상의 공간을 남겨 둔다는 점이다”고 주장한다.

蓬子が 쓴 〈내 담담한 눈빛 我枯澁的眼光〉의 “그대 노래 소리 분명 꽃잎처럼 어지러이 나부끼리라.”는 대목을 李金髮에 대한 동일성으로 거론하기도 한다.<sup>23)</sup>

孫玉石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穆木天이나 馮乃超, 나아가 蓬子和도 다른 李金髮의 양가성에 입각된 죽음에의 응시이다. 죽음은 허무를 낳고, 허무는 슬픔을 낳으며, 슬픔은 뜻밖에도 욕정에 이어지는 양가성의 李金髮詩 단초들이다. 이미 거론한 바 있듯이 그의 교감은 공감각의 기초를 넘어서 양가성에 입각된 순간의 미학을 드러내는 중이다. 李金髮 스스로는 이런 것들을 “내 마음의 거문고”라면서, 스스로가 그것을 울려도 “떨려서 소리가 되지 못한다.”고 고백하면서 “내 모든 우울/ 끝없는 공포를/ 그녀들은 이해하지 못하리라/ 내가 만약 들판으로 나가게 된다면/ 거문고 소리 분명 멋으리라, 혹은 가녀린 소리로 계속되리라”<sup>24)</sup>라고 읊고 있다. 들판은 현실이다. 그 들판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달이 얼굴을 다듬고/ 오동잎은 서러운 빛을 띤다./ 귀를 열고 자세히 들어보니/ 가을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간의 흐름은 이렇듯 법칙이다. 그래서 이 시의 제목도 〈법칙 律〉<sup>25)</sup>이다. 가을은 죽음을 향하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고요 沈寂〉가 보여주는 겨울 풍경은 세상이 향하고 있는 죽음이다. 그 과정에서 “마른 가지들은 흥이 가신 듯 서로를 껴안고”, “대지는 분노와 원망으로 손을 뻗어 장난감속 만물들의 죽음을 빚는 것 만 같다.”<sup>26)</sup> 그래서 시인은 죽음을 즐겨 바라본다. 확실히 “생명은 죽음의 신이 입가에 띤 미소에 불과하다.”<sup>27)</sup> 게다가 “한 낮의 허무는 들판을 불사르는 불길과도 같아서”<sup>28)</sup> 世紀의 병이 시인을 사로잡는다. “세기의 병은 이 금발의 머리를 공격하는데,”<sup>29)</sup> “죽음은 맑은 봄날처럼 아름답고 계절의 도래처럼 충실하다.”<sup>30)</sup>

23) 孫玉石의 위의 논문 참조.

24) 〈거문고의 비애 琴的哀〉, 《가랑비 微雨》, 6쪽.

25) 《가랑비 微雨》, 130쪽.

26) 《가랑비 微雨》, 121쪽.

27) 〈유감 有感〉, 《행복을 위한 노래 爲幸福而歌》, 107쪽.

28) 〈허무 Néant〉, 《식객과 흉년 食客與凶年》, 87쪽.

29) 〈인상 印象〉, 《식객과 흉년 食客與凶年》, 186쪽.

30) 〈죽음 死〉, 《행복을 위한 노래 爲幸福而歌》, 147쪽.

그리하여 피리 같은 “평범한 도구 속에도 생명의 불가사의한 그림자인” 죽음이 비치고 삶과 죽음은 우리들의 생활 속에 “두 개의 명료한 도장을 찍어버린다.”<sup>31)</sup> 죽음이 삶 속에 깃든 것이다. 그럼으로써 삶에는 죽음의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우리가 마른 풀 위를 거닐면, 무릎 밑에선 悲憤이 치근거리고/ 분홍빛 기억은/ 길가의 썩은 짐승 시체처럼/ 악취를 풍긴다.”<sup>32)</sup> 이 때문에 시인은 “사라거리는 백양나무 은 빛 그림자 속. 주위는 옅고 몽롱한 달빛으로 뒤덮여 있는데.” “똑 똑 그대 장밋빛 뺨에 떨어지는” “네 진주 같은 눈물을 듣는다.”<sup>33)</sup> 오직 이 눈물만이, 그러니까 죽음과 허무와 슬픔과 욕망을 신고 있는 이 눈물만이 “파란 잔디에 떨어져 세상이 다시 아름다워지기”<sup>34)</sup>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세상은 복잡하지만 나눌 수 없는 整體라 하신 날로부터 사물은 상호간의 연계를 통하여 서로를 표현하게 되었다. 시 또한 명백한 해석이나 묘사, 나아가 어떤 정감의 직접적인 표현이 될 수 없다. 시는 암시이며 계시가 풍부한 巫術이어야 했던 것이다.

바로 이곳에, 독자들에게 남겨진 예술세계나 암시와 계시에 깃든 東西의 모든 것이 존재한다.<sup>35)</sup> 작가와 작품과 독자 사이에 객관화된 예술

31) <단속적인 영감 斷續的靈感>, 《中國新詩庫3集》, 576쪽.

32) <밤의 노래 夜之歌>, 《가랑비 微雨》, 31쪽.

33) 吳歡章主編, <눈물 淚滴>, 《中國現代十大流派詩選》(上海: 上海文藝出版社出版, 1989), 222쪽.

34) <버림 받은 여인 棄婦>, 《가랑비 微雨》, 2쪽.

35) 예를 들어 헤겔은 상징에다 민족 보편의 개념성을 주입한다. 따라서 그의 《미학》은 “표달하려는 사상을 외적 형상에 의해 암시할 수 있는 부호이다. 동시에 상징은 사람들에게 의식시키려는 그 무엇이다. 그러나 그것 자체는 구체적인 개별 사물이 아니라 그것이 암시하는 보편적 의미이다.” 상징은 아주 드물게 사람들에게 그 자체를 보여주지만, 더 많은 경우 본래는 외재적이거나 그 자체에 깃들어 있는 내용을 상기시킨다. 때때로 그것은 有形으로써 無形을, 有限으로써 無限을, 暫나으로써 영원을 표현한다. 그것이 형체를 부여하고 숨겨놓은 것은 확연한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풍부하고 복잡하며 심오하고 진실된 영혼의 경지이다. 그래서 말라르메는, (물질적) 대상의 도움으로 심경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에 중국의 전통시학에 의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함축의 심미적 범주를 거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文心雕龍》은 그것을 ‘隱’으로 개괄하고 있는데, “比가 드러나면 興은 숨게 된다. 比顯而興隱”고 인식하였다. 《隱秀篇》은 “隱이라는 것은 글 밖에 존재하는 중요한 취지이다 隱也者, 文外之重旨者也” “隱이 體가 된다면 의미는 주로 글 밖에 존재한다. 신비한 소리는 가까이 들리고, 엿드려서 따고, (내면으로) 스며들어

정향이 제공됨으로써 독자들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그 무엇이 누구나의 형식으로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 5. 삶에 깃든 죽음

말라르메는 詩로 존재하는 언어의 절대성을 추구한다. 말라르메가 詩에 의한 절대적 몰상대치에 충실하다면, 보들레르는 神聖과 인성의 통일을 구원의 계기로 고백하고자 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보들레르의 교감은 계시의 원인이다. 구원을 향한 지상의 양가성이 교감을 계기로 하늘을 향해 오르면서 독자들에게 남기게 된 결과물이 바로 詩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인간적이며 또 불교적인 것은 랭보다. 그는 구원의 문제를 현실에 대한 인간의 해탈 문제로 끌고 내려와 공적인 것에 반항하는 거역할 수 없는 충동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범우주적인 것으로 환원시키려 한다.

하지만 독자들에게 건네줄 수 있는 李金髮의 성과는 허무뿐이다. 이는 사회 역사적 현실에 대한 개체의 허무이며 삶과 죽음이 서로 결합된 결과이다. 객관화된 그의 의미영역이 퇴폐의 형태를 띠는 것이나 그의 상징·암시·비약·생략 등이 허무에 의해 매개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許振敏은 “李金髮로 대표되는 초기 상징파시의 가장 큰 가치는 그것의 사상적 내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새롭게 전율’케 하는 그것의 예술적 자각에 있다.”<sup>36)</sup>고 지적한 바 있다. 바로 이 예술적 자각으로 나

피어 난다…… 깊이 있는 글은 은밀하고 가려져서 여운이 곡절적인 빛을 띠게 된다.”고 하고, 《歲寒堂詩話》는 《隱秀篇》 闕文을 인용하여 “정감이 언어 밖에 존재하는 것을 隱이라한다 情在詞外曰隱”고 하였다.

36) 許振敏은 孫玉石과 마찬가지로 기법을 추구해 가는 매개고리 파악이 아니라 기법의 미적인 성과를 성패로 이분하여 거론하고 있을 뿐이다. 許振敏의 〈象徵派詩:在今天和昨天 - 評孫玉石《中國初期象徵派詩歌研究》〉,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第4期(1986)가 “초기 상징파 시에는 몽롱한 아름다움과 아름답지 않은 몽롱함이라는 두 가지 현상이 공존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孫玉石의 〈象徵派詩〉(賈植芳主編, 《中國現代文學社團流派·下》(江蘇: 江蘇教育出版社, 1989), 807쪽)도 “시 쓰기에 있어서의 怪誕·晦澁과 이론에 있어서의 한계의 초월 등은 객관적으로 상징파 시에 두 가지의 상반된 예술적 결과를 포함시키게 하였다. 즉, 몽롱의 미와 미적이지 않은 몽롱이다. 어떤 시

가는 매개고리가 바로 허무에 대한 수용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李金髮의 상징·암시·비약·생략 등은 독자의 자의성에 맡겨진 李金髮의 허무정향이다.

내 눈앞엔 풀어헤친 긴 머리칼,/ 결국에는 악을 부끄러워하는 병든 시  
선, 선혈의 급류, 마른 뼈의 깊은 잠, 모두를 단절시켜버린다./ 까만  
밤이 개미와 발맞춰 살금살금 다가와,/ 이 나지막한 담 모퉁이를 넘으  
면/ 내 하얀 귀 뒤편에는 미친 듯한 아우성/ 수많은 유목민을 떨게  
하는,/ 황야의 성난 광풍 같은// 폴포기에 기대어, 하느님의 靈과 함  
께 텅 빈 골짜기를 오가는,/ 내 슬픔은 오직 수필의 머리 속 깊이 새  
겨지거나,/ 산 속 샘을 따라 벼랑에서 쏟아져 내려,/ 단풍 따라 가버리  
거나./ 버림받은 여인의 남모를 근심은 움직임을 따라 쫓여가고,/ 석  
양의 불꽃은 시간의 번민을/ 재로 만들지 못한 채, 굴뚝으로부터 날아  
올라,/ 떠도는 까마귀 깃털을 오래 물들인다./ 파도 우는 바위에 머물  
며,/ 뱃사공 노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늙은 치맛자락에선 서러운 호  
느낌 배어난다./ 무덤가를 거닐어도,/ 방울방울 풀밭을 적셔/ 세상을  
장식할/ 뜨거운 눈물 끝내 없으니.<sup>37)</sup>

무엇보다도 이 작품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蘇雪林이 이야기 했  
듯이 “문법의 원칙을 고집하지 않고” “구법을 뛰어 넘는” “상징과 시의  
비밀”이<sup>38)</sup> 시작된 것이다. 李金髮은 “버림받은 여인”이라는 주어를 생  
략함으로써 독자들을 자신의 암시에 집중하도록 한다. 그리고는 자신의  
시적인 구조를 펼치기 시작한다. “풀어헤친 긴 머리칼”이 가로막는 것  
은 “내 눈앞”이 아니다. 그녀의 머리칼이 가리고 있는 것은 그녀의 눈  
이기 때문이다. 李金髮은 “내 눈을 가로 막는다”고 표현함으로써 그녀  
와 나의 교감을 드러낸다. 그리고는 그녀의 현 상태에 대한 나의 상징  
을 끌어내기 시작한다. 그녀와 나는 격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  
다도 부끄러운 욕망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하며, 자기내면의 걱정 -

들은 답을 추측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예술의 수수께끼’가 되고 만다. 그  
결과 독자들과의 감상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고, 작품의 예술적 가치 자체마저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공과 실패의 시금석이 무엇인지를 밝히  
지 않고 있기는 모두 마찬가지다.

37) 〈버림받은 여인 棄婦〉, 《가랑비 微雨》, 2쪽.

38) 蘇雪林, 〈論李金髮의詩〉, 《現代》3:3(1933)



“선혈의 급류” - 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마른 뼈의 깊은 잠”과도 단절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그녀는 슬픈 상태다. 버림받은 그녀는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허망함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흐느낌은 관심 탓에 담장을 넘어가는 내 맘에 와 닿고 “무수한 사람들을 떨게 한다.” 하지만 운다는 것은 아직도 삶에 가깝다는 것이며 허무 보다는 욕망에 더 가까운 모습이기도 하다.

여인과의 교감 때문에 “내 눈 앞이 가로막힌” 탓에 나와 그녀의 구별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연은 李金髮가 생각하는 삶의 전형, 다시 말해서 일반형의 제시라 할 수 있다. 풀한 포기 만 한 희망과 하느님의 영험함에 의지해서 허무를 오고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럼에도 시간에 따라 그녀에게 더해지는 것은 슬픔뿐이다. 분주하게 나다니는 별의 날개소리처럼 슬픔은 별이 아니라 내 머리 속에서 들끓는다. 그러다가 허무의 계곡을 흐르는 시간의 물처럼 급진적하 하여 빨간 낙엽의 가을과 죽음의 겨울을 향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흐름이 거역할 수 없는 과정이라는 사실이다. 언어가 비약해 버린 곳곳에 독자에게 맡겨진 詩의 공간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朱自淸이 말했듯이 비약의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맥락을 형성하는 말들을 생략하고, 맥락 자체를 독자들의 상상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훈련되지 않은 독자에게는 손 안의 모래알이지만 훈련된 작가에게는 유기체인 것”<sup>39)</sup>이 바로 둘째 연이다.

여인의 시름이 쌓이면서 허무와 죽음을 향한 진행이 계속된다. “동작”은 삶의 모습임으로 시름이 쌓여가는 그녀의 삶은 확실히 죽음을 향하고 있다. 생명과 욕망의 마지막인 아름다운 저녁놀이 그 증거다. 하지만 시들어가는 그녀의 생명이 시간을 이룰 수는 없다. 생명에의 욕망과 시간과의 대립이 번민을 굴뚝 속의 어둠으로 몰아가면서 허무가 일반화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까마귀 깃털의 검정색이기도, 해 있는 동안의 바다가 흐느끼는 갯바위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간이 어둠으로 기울면 모든 것이 사라져야 하니. 생명과 욕망으로부터 허무와 죽음을 짓는 사공

39) 朱自淸, 〈新詩的進步〉, 《朱自淸全集》(南京: 江蘇教育出版社, 1996), 319-320 쪽.

의 노래를 들어야 할 때가 되어버린다. 낡은 치맛자락에 輓歌를 묻히게 된 이 여인은 이제 “무덤가를 서성인다.” 삶과 욕망 쪽으로 떨어져서 생명의 “세상을 장식할 뜨거운 눈물은 없기” 때문이다.

이 시의 내재적인 의미는 단순하고 線條的인 진행을 보이지만, 연과 연 사이의 비약을 독자들의 詩的인 대응으로 채우게 하기 때문에 무수한 독법이 가능해지고 만다. 朱自淸이 말했듯이 “그의 시에는 평범한 章法이 존재하지 않아서, 부분 부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합쳐 놓으면 모든 의미가 사라지고 만다. 그가 표현하려고 한 것은 의미가 아니라 감각과 정감이다. 마치 크고 작은 빨강고 파란 구슬 꾸러미 같지만, 그는 구슬을 꿰고 있는 실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독자가 스스로 꿰뚫어 보아야만 한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의 시가 몽롱하다는 평가를 받았을 것이다. “문자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문자의 의미를 몽롱하게 만들고, 암시를 사용하여 정서를 표현”한<sup>40)</sup> 탓이다.

## 6. 결 론

李金髮의 詩는 兩價性 - 神聖과 慾望, 慾望과 슬픔, 그리고 삶과 죽음 - 이 매개하는 교감이 욕망과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들이다. 그것이 욕망과 죽음을 뛰어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의 자아가 수용하고 있는 虛無 때문이다. 이상과 현실, 현실과 자아, 그리고 미래와 지금 이 순간을 이어주고 있는 機制가 허무의 수용이라는 사실은 그의 상징체계의 모든 이끌림을 서양의 그것과 다르게 하는 원인이다. 李金髮의 서정형식은 기독교적인 관념에 의존해 있으면서도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허무를 수용하는 특수성, 다시 말해서 보들레르 말라르메 랭보와의 차이를 빚고 있는 것이다. 문화심리의 민족형식이라 할 수 있는 그의 이런 성격 때문에 보들레르의 교감이나, 말라르메의 절대언어, 그리고 랭보의 끝없는 반향과 다른 상징미학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삶에 깃든 죽음의 수용과 이것을 통한 초월 지향은 구원이라기보다는 禪趣에 근접해 가고자 하는 상징의 특수성이다. 따라서 독자

40) 朱自淸의 위의 글.

의 자의적인 감수체계를 파고드는 그의 은유 암시 비약 생략 등은 상징주의가 아니라 허무/상징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편들일 것이다.

### [참고문헌]

- 李金髮, 《微雨》(上海: 北新書局, 1925)  
李金髮, 《爲幸福而歌》(上海: 商務印書館, 1926)  
李金髮, 《食客與凶年》(上海: 北新書局, 1927)  
李金发, 〈中年自述〉, 《文艺》2:1  
《美育雜誌》第3期(1929.10)  
蘇雪林, 〈論李金髮的詩〉, 《現代》3:3(1933)  
朱自清, 〈新詩的進步〉, 《朱自清全集》(南京: 江蘇教育出版社, 1996)  
[蘇]J.E.契爾卡斯其 著, 理然 譯, 〈論中國象徵派〉,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第2期(1983)  
許振敏, 〈象徵派詩:在今天和昨天-評孫玉石《中國初期象徵派詩歌研究》〉,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第4期(1986)  
李雙, 〈新文學象徵主義試論探微〉,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第2期(1990)  
賈植芳主編, 《中國現代文學社團流派·下》(江蘇: 江蘇教育出版社, 1989)  
吳歡章主編, 《中國現代十大流派詩選》(上海: 上海文藝出版社出版, 1989)  
周良沛主編, 《中國新詩庫》3(武漢: 長江文藝出版社, 2000)  
마르셀 레몽 著, 金華榮 譯, 《프랑스 現代詩史》(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3)  
민희식, 이재호 역편, 《프랑스 名詩集》(서울: 종로서적, 1985)

### 〈中文提要〉

在二十世纪中国文学史中, 如果说曾经有一个人试图以最接近诗歌本质的内容和形式, 来验证东西兼容的可能性, 那么这个人就是李金发。他不曾受五四革命文学的洗礼, 因此得以保留独特的传统风格。他的抒情颇具两面性, 娴熟地运用了西方技巧, 但又非关基督教式的拯救, 而是一种逐渐走向

虚无的收容。李金发的确称得上是中国诗歌史上的怪杰，象征主义世界的异端。尽管如此，中国文学界对李金发的评价却并不高，认为他只学到了象征主义的皮毛，作品失之颓废晦涩，而且回避了对抒情主题的考察，背离了民族传统。迄今为止对李金发的解读，之所以都忽略了他作品中的两价性结构及其矛盾进程，主要是因为没能抓住象征主义的本质，换句话说，是因为没有充分认识到基督教拯救的含义与李金发诗歌之间的距离。李金发的作品，描述的是以两价性-神圣与欲望，欲望与悲伤，以及生存与死亡-为媒介的交感，迈向欲望和死亡的过程。但因为自我已经被虚无所充斥，看起来却似乎是对欲望和死亡的超越。连接理想与现实，现实与自我，未来与现在的机制源于虚无，这也使得他的象征体系具有完全不同于西方的独特吸引力。就李金发的作品而言，其抒情的本质极为特殊，依存于基督教理念，却又不接受拯救，而是指向虚无。正是上述特质使得李金发有别于波德莱尔，马拉梅，兰波。李金发的这一性格可谓是文化心理的民族形式，由于这种性格，他的诗歌不同于波德莱尔的交感，或是马拉梅扑朔迷离的语言，或是兰波永无止境的反抗，而是呈现出一种独特的象征美学。死亡栖息于生命之中，接受死亡并借此实现超脱正是象征的特性，与其说它是一种拯救，倒不如说更接近于禅趣。因此，那些触动读者心弦的隐喻，暗示，跳跃，省略等等，并不是什么象征主义，只是为了迈向虚无 / 象征而采取的权宜之计。

**關鍵詞:** 兩價性, 契合, 拯救, 象徵主義, 虛無

투 고 일 : 2009.2.26

심 사 일 : 2009.3.10-3.30

게재확정일 : 2009.4.25



## 試論張載哲學思想對韓國儒學的影響

黃卓明\*

### 〈目 次〉

1. 引論
2. 張載生平及主要思想和影響
3. 韓國儒學的發展歷史及其主要特徵
4. 張載哲學思想對韓國儒家思想的影響
5. 結語

### 1. 引論

張載，是中國古代一位著名的哲學家和教育家，是宋明理學的重要奠基人，他的學說長期以來不僅影響著中國哲學和儒學的發展，而且在海外也有著廣泛的影響。

眾所周知，韓國是目前世界上儒家傳統思想文化保留得最多、最好的國家。那麼這位對東亞乃至世界文化產生過極大影響的哲學家，對韓國儒學的發生、發展有過哪些影響？韓國又是如何接受張載的哲學思想並將其發揚光大的？歷來先賢學者們大多對張載的哲學思想進行了不少研究<sup>1)</sup>，但卻很少有人將兩者聯繫起來予以關注。本文試根據部分史料和相關資料對其進行一些梳理、分析和總結，以就教于各位專家同仁。

### 2. 張載生平及主要思想和影響

張載，字子厚，原籍大樑（今河南開封），宋真宗天禧四年（西元1020年）生於長安（今陝西西安）。因為他後來定居於陝西眉縣橫渠鎮，並曾在橫渠

---

\* 中國鄭州大學國際教育學院 教授。

1) 見參考文獻 7-16。

本文修正中，得到韓國大邱教育大學教授、博士張閏洙先生的熱心賜教，在此致謝。

鎮講學，所以人們又稱他為橫渠先生。他年少時熱衷於研究兵法，20歲時曾撰寫過《邊議九條》，提出了自己的軍事主張，陳述了為國家建功立業的理想和抱負。受到當時陝西經略安撫副使，西北防務大臣范仲淹的賞識，張載聽從了他棄武從文的勸告，刻苦攻讀儒家經典，歷時十多年，不僅熟讀了儒家經典，還博覽群書，對佛學、道家也進行了批判研究，最終悟出儒、佛、道互為補充，互相聯繫的道理，逐漸建立起了自己的學說體系。

在兩宋理學唯心主義形成和發展的同時，出現了以張載為代表的樸素唯物主義哲學思想。他是理學的創始人之一，但他的哲學思想和後來成為理學正宗的程朱學派有根本的不同。張載特別強調“氣”，認為氣是萬物的本源，一切存在都是由物質性的氣構成的。

張載第一次從思維與存在的關係這一根本問題上，批判了佛教的唯心主義。他的“氣一元論”、“一物兩體”、“天地之性”、“氣質之性”、“心統性情”、“民胞物與”等學說，在中國古代思想發展史上產生了深刻影響。明代王廷相推崇張載的“太虛即氣”，認為它“闡造化之秘，明人性之源，開示後學之功大矣”。清代王夫之（船山）在學術上繼承、發展和完善了張載的唯物主義哲學思想，還注釋了《張子正蒙》等著作，使張載的學說得到了發揚光大。作為中國理學集大成的朱熹在《伊洛淵源錄》中也把張載和周敦頤、程顥、程頤、邵雍並列為理學的創始人。張載的“為天地立心，為生民立命，為往聖繼絕學，為萬世開太平”的名言，不僅成為他講學的橫渠書院的校訓，也成了關學的宗旨，更成為世界儒家學者一致的追求和目標。

張載的哲學思想，主要體現在他的《橫渠易說》和《正蒙》兩部著作中。張載，是中國哲學史上第一個較詳細、較系統地提出“氣”理論，建立了較完整的“氣一元論”哲學體系的。他的著作，在明初永樂年間被編入《性理大全》，一直被明清兩代政府視為哲學的代表，並作為科舉考試的必讀之書。張載作為關學學派的創始人和領袖，他的思想不僅當時在關中地區影響很大，而且後來對元、明、清幾代的哲學思想都產生了重大影響。

### 3. 韓國儒學的發展歷史及其主要特徵

儒學最早發源于中國，創始人是孔子。漢武帝時，儒學取得正統地位，成為中國兩千多年封建社會思想文化的集中代表，深刻地影響了整個中國歷

史、文化的發展。

韩国的儒学来源于中国，至于传入时间，一般韩国学者都认为是卫满朝鲜时期(前195年-前108年， 위만조선)，即中国汉朝初年。中國學者也大多同意此說<sup>2)</sup>。到三國時代，已受到儒學思想和中國典章制度較大、較明顯的影響。當時的高句麗、百濟、新羅相繼設立了太學<sup>3)</sup> 教授儒學經典。當時的儒學是以漢代經學為中心的。到高麗王朝建立，那五百年期間，因受唐朝的影響，帶有儒、佛、道混為一體的文學性儒教色彩。太學課程仍以儒家經典為主，並定期舉行祭孔活動，仿效中國唐朝也實行科舉取士，由儒生任文官。但那之後，早期的儒學逐漸衰敗，以後受到宋明理學的影響，開始排斥道、佛，而最終出現了“排佛崇儒”的社會風氣。

最早將宋代儒學引入高麗的，是元朝時的安珣(號晦軒，1243-1306)，時間為1289年。安珣曾兩度出使元朝，他十分敬仰朱熹，因朱熹號晦庵，他自號“晦軒”。在燕京，安珣看到了朱熹的著作，就親自抄寫，帶回國內。一生為普及和傳播宋明理學竭盡了全力，作為韓國最早的學者，給後人留下了深遠的影響。他認為：“聖人之道，不過日用倫理，為子當孝，為臣當忠；禮以齊家，信以交朋；修己必敬，立事必誠而已。”這可以從張載的“倫理思想”及宣傳兼愛的學說中直接找到這一思想的源頭。現位於廣尚北道榮州久負盛名的紹修書院，也是韓國最早的書院，就是為了紀念安珣而修建的，書院內的講堂中掛著西元1550年明宗親筆手書的“紹修書院”匾額，裡

2) 中韓性理學之互動——兩教授對話錄中，中國人民大學教授張立文先生答韓國中央大學梁承武教授：儒教何時東傳韓國？有各種主張：有主箕子東來說，有倡秦漢東傳說，有主衛滿朝鮮說，或主小獸林王二年說。對此金忠烈教授在其大著《高麗儒學思想史》(臺北，東大圖書公司1992年版)中有精到的分梳。筆者同意衛滿朝鮮說，其根據是：(1) 箕子東傳說，只是傳說，且作為儒學的創始人——孔子，沒有出生；(2) 春秋戰國東傳說，現無足證之資料；(3) 高句麗小獸林王二年，建立太學，儒家思想傳入應早於此時；(4) 衛滿朝鮮，漢時屬樂浪郡，隨漢建制，導入漢代典章制度和思想文化，漢代尊崇儒術，儒家思想在漢管轄之郡得以傳授，當無問題。

3) 考史籍，百濟雖無建立儒教大學的記載，但其受儒教“五經”思想的影響也是很早的，而且十分深刻。百濟很早就有“博士”的稱謂，他們主要是精通德教“五經”的“博士”。據日本《古事記》等史書記載，日本最早接觸中國文化是通過百濟的王仁博士。相傳，王仁在日本應神天皇(西元270—313年)時，把《論語》、《千字文》等儒教經典傳入日本。由此亦可見“五經”儒學在百濟時代興盛情況的一斑。-----樓宇烈《儒學在現代韓國》《傳統文化與現代化》1998年第1期。



面供奉著安珣的肖像。

安珣歷來被認為是高麗最早的理學學者。之外，高麗後期的理學者和理學的早期傳播者，還有白頤正（彝齋，1260-1340）是當時第一個留在元都學習和研究理學的人，權溥（菊齋，1262-1346）、禹倬（易東，1263-1342）、李齊賢（益齋，1287-1367）等等。經過他們的積極傳播，又經過高麗末朝鮮初的理學者李穡（牧隱，1328-1396）、鄭夢周（圃隱，1337-1392）、李崇仁（陶隱，1347-1392）、鄭道傳（三峰，1342-1398）、權近（陽村，1352-1409）、吉再（治隱，1353-1419）等人的進一步深入傳播，終於迎來了朝鮮儒學生機勃勃的全盛期。

韓國儒學從學理上可分四大類，即“主理”學派；“主氣”學派，實學派和陽明學派。而實學派和陽明學派都深受以李栗谷為首的“主氣”學派的影響<sup>4)</sup>。從高麗末至整個朝鮮朝，儒學大家輩出，學派林立，他們의思想和學說為韓國的儒學傳統奠定了堅實的理論基礎。

#### 4. 張載哲學思想對韓國儒家思想的影響

我們知道，每一個學術流派的思想總是通過一個個具體人的思想和學說體現出來的。在儒學作為主導地位被確立的過程中，在把儒學作為立國理念方面，朝鮮時期的儒學家們起到了重大作用。張載哲學思想對韓國儒學思想的影響，正是通過韓國儒學大家們對其思想學說的吸收以及傳播而得以實現。

張載哲學思想的核心是以“氣”為核心的宇宙結構說。他認為世界是由兩部分構成的，一部分是看得見的萬物，一部分是看不見的，而兩部分都是由“氣”組成的。他還認為一切具體的事物，都是太虛之氣凝聚而成，萬物消亡又復歸於太虛。太虛、氣、萬物，是同一實體的不同形態，在他看來，世界統一於氣，氣有聚散而無生滅，氣聚則有形可見，氣散則無形，不可見，太虛無形無狀，並不是虛無。將這一思想完全吸收和繼承的是朝鮮前期儒學大家徐敬德。雖然他在年代上比橫渠先生晚了近500年，但在思想上可以說是一脈相承的。他在韓國儒學史上的地位和張載在中國儒學史上的地位也極為相似。正如同張載的很多思想和學說成為集大成者南宋朱熹思想的先驅一

---

4) 參看：李蘇平，韓國儒學的特性及其歷史作用

樣，徐敬德的思想 and 學說也成了當時朝鮮時代顯赫一時的“退溪學”和“栗谷學”的先聲。

韓國哲學基本上強調的是“理”，可是“氣”也是重要的要素。而主氣論中最早的也是最具有代表性的人物就是徐敬德。徐敬德（1489-1546），字可久，自稱號復齋，因他受學和隱居的地名是花潭，後人稱他為花潭先生。徐敬德以山林居士而隱居，精研孔孟和橫渠氣哲學，完全吸收和繼承了張橫渠“太虛即氣”的氣論學說。但又有所發展和創新，形成了具有韓民族思維特色的韓國氣哲學，為朝鮮後期興起的實學奠定了理論基礎。

徐敬德的思想收在《徐花潭集》裡，被收錄在清朝乾隆時期《四庫全書》中。這是唯一以單行本介紹韓國學者的。其在韓國儒學史上的影響之大可見一斑。正因為他在韓國儒學史上的地位非同一般，他對張載學說的繼承和發揚，其意義和影響也就格外巨大。

和徐敬德幾乎同時代的李滉（1501-1570），字景浩，號退溪，朝鮮時期廣尚北道安東郡人，後人稱其為退溪先生。他是韓國兩大學術流派之一的“退溪學”的代表人物。雖然他的學術主張是以「理」作為最高範疇。但他同時又提出“四端理髮而氣隨之，七情氣發而理乘之”的思想，這一“理”與“氣”緊密結合在一起，“理外無氣，氣外無理，固不可須臾離也”的思想，正是在承認以理為主的大前提下，對張載“氣一元論”和徐敬德“氣化”思想的吸取而形成的。因此，即使是“主理學派”的退溪學派，在其學術思想中也蘊含著張載哲學思想的影響。同時張橫渠《西銘》中的“民胞物與”思想也受到退溪先生的極力推崇，他的集大成之作《聖學十圖》中的第二圖就是參考張載的《西銘》而製成的。

李滉繼承和發展了中國儒學思想，創立了令人矚目的“退溪學”，是朝鮮時代的儒學泰斗。他是“主理論”的嶺南學派的首領，被稱為“東方夫子”。韓國歷代稱他是程朱之後儒宗，為了紀念他，韓幣1000元面值上的頭像就是李退溪先生，紙幣背面的陶山書院，是嶺南地區儒林的精神象徵，直至今日，仍是儒林學者的彙集之地。

被認為和李滉是朝鮮儒家雙璧的李珥（1536-1587），字叔獻，號栗谷。因講學于坡洲江陵栗谷，後人稱他為栗谷先生。是朝鮮時代中期著名的哲學家、思想家，又是政治家、教育家、“實學”的創始人，學術界對他的評價是他的思想直通儒學。

李珥的思想除繼承程朱理學思想外，還有所發展，提出理和氣相存互發，為“理氣一元論”者。在治國方面，他繼承了張載的經世致用和務實思想，使宋代理學本土化、實學化。提倡實理、實心、實意、實功、實事，反對假儒的“空言無實”，強調直踐力行的實證、實用為特徵的實事求是。栗谷先生因此而被認為是朝鮮實學理論的奠基人。而他的這些思想完全來自于橫渠先生所宣導的“躬行”和反對“空談”。韓國人說他是首屈一指的實學家是很公正的。今天韓國人為了紀念他，在五千元韓幣上印的就是李珥的頭像。

曹南冥（1501-1572），姓曹名植，號南冥。他是韓國16世紀與李退溪，李栗谷齊名的碩儒。他為推進韓國儒學的本土化，實學化，復興韓國儒學的“經世致用”傳統，改變社會風氣起了巨大作用。他的思想也是深受橫渠先生的影響，他特別繼承與發揚了張載提出的“心統性情”理論，他在研究和吸取張載思想的基礎上，結合朝鮮本土文化，建構了“主敬致用”之學，致力於培養人的理想人格，重視躬體力行，反對空談心性。他一生隱居不仕，刻苦治學，研究性理學說，弘揚儒家人文道德精神。教授弟子專學“敬義”二字，並將敬義二字書於窗前。

還有權認（號炭翁，1604-1672），他是朝鮮中期著名哲學家、思想家。北學派（實學派）的繼承者和實踐者。他繼承並發展了張載“西銘”中萬物一體和事親事天思想。還有張載、李珥的王道經世致用思想，並將其吸收弘揚發展成了自己的思想。使儒家思想在韓國本土化，具體化。他的著作全部被整理在《炭翁集》中出版。

同時受到橫渠先生經世致用的實學思想影響較大的，還有實學派先驅者李睟光（號芝峰，1563-1628），他的“實心、實政、實功”及“民者君之天”思想；柳馨遠（號磻溪，1622-1673）反對“空理空談”，認為“凡物之理，體用相因，方圓相函”的思想，認為必須經過“學、問、思、辨”四者，才能達到“窮理”；李瀾（號星湖，1681-1763），他的以“氣”為“宇宙”的起源，認為“凡盈天地間者，莫非氣也，然其融結為物即氣之精英”思想，張載的《正蒙》在他的《過危橋》裡進行了編輯和注釋；朝鮮時代後期實學派的繼承者安鼎福（號順庵，1712-1791），他繼承並發展了重視日常實踐的思想，強調了實證性，和文獻考證的周密性，張載的《東銘》收錄在他的《順菴集》裡；洪大容（號湛軒，1731-1785）的“正心誠意”；朴趾源（號燕岩，1737-1805），反對“空理空談”和“浮文虛禮”，強調實用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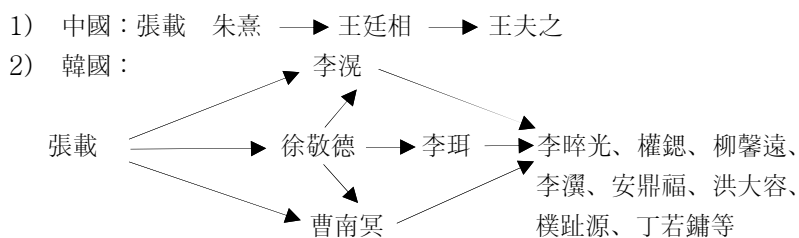
學，指出“萬物之生，何莫非氣也”的思想；實學派思想的集大成者丁若鏞（號茶山，1762-1836），他認為君子之學，半為修身，半為牧民。他主張，性理之學應為踐形之學，應重視國計民生、禮樂刑政<sup>5)</sup>等思想，在當時都形成了一定的影響。

## 5. 結語

從以上的分析、總結，我們發現張載的哲學思想，對朝鮮時代儒學大家的影響是深遠而廣泛的，只是或多或少、或深或淺、或直接或間接的差異而已。

張載哲學思想的影響，使韓國儒學與中國儒學在本質上具有一致性，其發展脈絡及派別的分化，應該是中國儒學在域外的一種表現形式。

張載思想對後世和韓國儒學的影響簡圖：



與此同時，韓國的儒學大家們在積極主動接受、吸收以張載為代表的“唯氣論”哲學的過程中，在繼承宋明理學的基礎上，都努力做到了將中國儒學的本土化、具體化。因此，韓國的儒學，並非只是中國儒學的簡單再現，而是形成了不同於中國的，具有韓國自己本土特色的韓國儒學。

當然，每位儒學思想家的思想和學說，都不是簡單和單一的，在他們의思想和學說中往往蘊含著豐富多彩、博大精深的思想理論。本文只是從張載哲學思想，特別是以其“氣本論”哲學思想為中心，將其對韓國儒學的影響進行

5) 蔡茂松：《韓國近世思想文化史》，東大圖書公司，臺北，1995年7月初版，第480-486頁

了分析整理。對韓國儒學全面、深入地探討，還有待於今後的繼續研究。

### [參考文獻]

- 張岱年,《張載——十一世紀中國唯物主義哲學家》(湖北:湖北人民出版社,1956)
- 柳承國,傅濟功譯,《韓國儒學史》(臺灣:臺灣商務印書館,1989)
- 陳來,〈簡論東亞各國儒學的歷史文化特色〉,《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1期(1999)
- 琴章泰,〈韓國儒學史研究的里程碑——〈韓國儒學思想史〉〉,《當代韓國》第3期(1997)
- 張閏洙,〈近百年來韓國儒學研究的特徵〉,《新華文摘》第22期(2005)
- 潘暢和,〈儒學與當代韓國〉,《當代韓國》第4期(1996)
- 管春花,〈張載"太虛即氣"哲學思想研究〉,《柳州職業技術學院學報》第2期(2006)
- 白欲曉,〈從〈橫渠易說〉到〈正蒙〉——張載哲學本體理論的建構與發展〉,《陝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4期(2004)
- 丁為祥,〈張載虛氣觀解讀〉,《中國哲學史》第2期(2001)
- 劉晨,周桂英,〈太虛與氣——張載太虛本體論思想管窺〉,《寶雞文理學院學報·社會科學版》第5期(2006)
- 曾振宇,〈張載氣論哲學論綱〉,《山東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 朱承,〈中國哲學學科化以來張載研究述評〉,《許昌學院學報》第1期(2005)
- 丁為祥,《虛氣相即——張載哲學體系及其定位》(北京:人民出版社,2000)
- 張閏洙,《張載哲學性論的結構和特徵》《張載關學與實學》西安地圖出版社
- 張閏洙,《張載的易哲學》《關學、南冥學與東亞文明》中韓文化交流叢書之二
- 張閏洙,潘暢和,〈張載氣哲學的現象學解讀〉,《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3期(2007)

- 李蘇平,〈中韓氣哲學比較研究-以張載和花潭為代表〉,《當代韓國》第4期(2002)
- 金哲洙,〈張載與徐敬德氣論哲學之比較〉,《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5期(2007)
- 魯學海,〈朝鮮傑出的唯物主義哲學家—徐敬德〉,《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1期(1982)
- 金哲洙,孫永建,〈簡論徐敬德的理氣觀〉,《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2期(2006)
- 崔鳳翼,〈十六世紀朝鮮卓越的唯物主義者徐敬德的哲學思想〉,《哲學研究》第1期(1957)
- 張立文,《宋明理學研究》(北京:中國人民大學出版社,1985)
- 張閏洙,〈退溪的“敬”論與朱熹的主敬思想〉,《中國哲學史》(1998.1)
- 劉長林,張閏洙,〈中國哲學“氣”範疇的現代認識〉,《太原師範學院·社會科學版》第1期(2005)
- 張世敏,〈從《橫渠易說》看張載思想體系的形成〉  
<http://www.confucius2000.com/zhangzaici/chqyskzxsxtxdc.htm>
- 張世敏,〈張載經世致用的實學思想特徵〉  
<http://www.confucius2000.com/zhangzaici/zjszydsxsxtz.htm>
- 《虛氣相即——張載哲學體系及其定位》序  
<http://www.confucius2000.com/scholar/xqxjxu.htm>

### 〈Abstract〉

Zhangzai's philosophy is a precious property of civilization of China and the world. His theory affected not only the development of Chinese Confucianism, but also the development of Korean Confucianism through generations of Korean Confucianism scholars' absorption and transfer.

In accepting and absorbing Zhangzai's philosophy being represented of 'Wei Qi lun', or the energy about origin of nature,

Korean Confucianists tried to form Chinese Confucianism in the concrete, properly to Korea. So Korean Confucianism is not a reappearance of Chinese Confucianism, is peculiar to Korea.

Naturally, each Confucianist 's idea and theory is not always simple, containing rich and deep contents.

So I tried to analysis Korean Confucianism entirely to study about the influence of Zhangzai's ideology on Korean Confucianism.

**Key Words:** Zhangzai, “Qi philosophy”, Chinese Confucianism, Korean Confucianism, Influence

투 고 일 : 2009.2.19

심 사 일 : 2009.3.10-3.30

게재확정일 : 2009.4.25

## 豐子愷 그림 속의 생명관\*

장성욱\*\*

### 〈목 차〉

- |               |                |
|---------------|----------------|
| 1. 서론         | 5. 생명의 집요함과 순환 |
| 2. 생명 경시      | 6. 방법론         |
| 3. 생명 존중      | 7. 결론          |
| 4. 동물들의 생명 존중 |                |

### I. 서론

豐子愷는 청나라 말기의 부정부패, 신해혁명, 일본 침략 등의 전란과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관조와 여유를 견지하며 살았다. 자연, 아동, 일상, 전쟁, 사회 문제 등 다방면에 관한 글을 쓰고 또 그림<sup>6)</sup>을 그렸다. 작가이면서 음악, 미술<sup>7)</sup>, 번역, 예술 비평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은유적, 선의적 유머와 해학을 지니고 반드시 밝은 날이 올 것이라는 신념을 놓치지 않았다. 보통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그림으로 세상사, 인간사를 풍자, 묘사했다.<sup>8)</sup> 평화시에도 모든 것에 애정을 품고 관찰하던 풍자개는 전란을 겪으며 더욱 더 생명에 대한 관심과 관찰을 고조시켰다. 그의 우주만물에 대한 사랑과

\* 이 논문은 2008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과제번호 2008AA017)

\*\* 동의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6) 풍자개는 傳統文人畫의 思議精神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藝術精神과 審美思想을 漫畫를 통하여 구현하였다. 조정래, 〈풍자개(豐子愷)의 예술창작과 그 미학사상 연구〉, 《문화사학》 23권(2005), 177쪽.

7) 1921년 전후 밀레에 관한 서적이 일본에 범람했는데, 풍자개는 일본 유학 후 1924년 1월 [동방잡지]에 “화가 밀레의 인격과 그 예술”을 발표했다.

8) 문인화의 고아한 전통과 소재는 대중적으로 다가가기에 한계가 있었기에 만화, 조소, 도안 등이 필요한 시기였다. 양소군 지음, 김상철 역, 《중국 근현대 미술》(서울: 시공아트, 2006), 25쪽.



생명관은 보편적인 상상을 초월한다.<sup>9)</sup> 그는 인간의 잔학성과 무한한 욕심에 의해 고통받으면서도 시적 정취와 서정성으로 끈질기게 내실있는 작품들을 제작했다.<sup>10)</sup>

본 고에서는 풍자개 그림들 중 생명에 관련된 그림들을 수집 연구하여 그 중 가장 특징적인 작품들을 골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작업으로 생명체와 생명에 관한 그의 관점, 그림의 조형적 기법, 글과 그림의 사용 전략 등을 밝히고자 한다.

## 2. 생명 경시

풍자개가 살았던 시대는 결코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었다. 일본의 중국 침략이라는 전화는 물론, 20세기 현대라는 시점의 조국에서 단지 지식인, 예술가라는 이유로 정신적, 육체적 고초를 겪기도 했다.<sup>11)</sup> 그것이 문화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외국에 알려지며 상당 기간 동안 그 실체와는 관계없이 미화되고 오도되기도 했지만 노년의 학자에게는 크나큰 고통이었다. 그 통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가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래전부터 내부에 존재하고 있던 사랑과 박애정신 때문이었다.

그의 유우머와 위트를 보여주는 그림 하나만 관찰 해보자. 이 그림에서 강아지 때문에 여자가 목욕을 못하고 있다. 강아지는 창가에 앞발을 걸치고 고개를 내밀고 있다. 강아지는 옷 벗은 여자의 몸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쳐다볼 뿐인데, 여자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간단하지만 여자의 당혹스러운 모습, 강아지의 귀여운 모양이 잘 표현되어 있고 그 느낌이 생생하게 전해진다. 이 그림에 만일 큰 개가 등장한다면 희극적 요소는 거의 다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아주 작고 귀여운 그러면서도 당돌한 강아지가 등장함으로써 유우머와 위트가 넘치게 된다. 이 그림에서도 여자의 심리와 한계성, 상황에 따른



9)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 논문을 통해 밝힐 것이다.

10) 홍승직, <풍자개(豐子愷)의 산문세계>, 《중국어문논총》 34(2007), 47쪽.

11) 徐敬東, 徐欣諱 著, 張俊哲譯, 《중국대륙을 품어 화폭에 담다》(서울: 고래실 2002), 278쪽.

인간의 가변적인 행동 논리 등이 내재되어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우머를 잃지 않고 여유있는 작품을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이 풍자개의 뛰어난 점이다.

풍자개는 1928년 불교에 귀의하는 의식을 통하여 스승 泓一法師에게서 영행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불교 승려가 된 이후에는 더욱 더 불교 철학에 따라 인생을 살았고 생명 존중은 그 근본 뿌리였다<sup>12)</sup>. 여기부터 인간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살생이나 만행에 대한 그림을 살펴보자. 이 그림에는 제목 대신에 느낌표 3개만이 있다. 한 남자의 구두 밑에 거미 한 마리가 있다. 그 구두발로 땅을 밟으면 거미 한 마리가 죽는다. 우리가 무심코 걸어가는 행위에도 벌레들에게는 생사의 문제가 걸려있다.<sup>13)</sup>



이 그림에는 한 여인이 손수건을 펼치고 있는데, “한장의 비단 손수건을 위해 얼마나 많은 뾰족이가 필요한가?”라는 글이 적혀있다. 인간들이 손수건을 사용할 때는 그 효용가치만을 따질 뿐 그 이면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는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한 남자가 침상에 누워있고 옆에는 촛불이 켜져있다. 어디서 닭 우는 소리를 듣고는 즉각 김이 모락모락나는 통닭 요리를 연상한다. 배가 무척 고프는 모양이다. 배가 불렀다면 그냥 닭 우는 소리로 들렸을 것이다. 사람의 사정에 따라 통상적인 닭 울음이 닭 요리로 바뀌는 것이다.

‘肉의香氣’에서는 개 앞에 맛있는 고기를 달아놓고 놀리는 광경이다. 개는 침을 질질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고 사람들은 박장대소하고 있다. 그러나 웃는 사람들의 얼굴에 눈이 없다<sup>14)</sup>. ‘獲笑’에서는 새들이 좋아하

12) 풍자개는 홍일법사(泓一法師)의 호생자비심을 종지로 받들어, 홍일법사 50세(1929)부터 1집을 시작하여 46년간에 걸쳐 도합 450편의 호생도를 남겼다.

13) 특정 종교 신도나 도인 스님들은 맨발로 조심조심 걸어다닌다. 특히 자이나교 신도들은 벌레를 삼키지 않으려고 마스크를 쓰고, 벌레나 곤충을 죽일까 봐 농사를 짓지도 않고 살생과 상관없는 금융업에 주로 종사한다.

14) 풍자개는 竹久夢二 그림의 기법을 모방했고, 竹久夢二는 네덜란드 화가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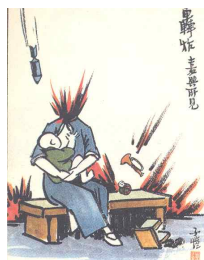
는 먹이를 뿌려놓고 짜릿한 희열과 전율을 느끼며 포획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듯 인간들은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지 유희나 오락거리를 위해서도 생물들을 괴롭히고 살생을 하기도 한다.



다음 그림에서는 두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다. 그런데 걸상에 앉아 있는 사람은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다. 스님인 것이다. 중국, 한국 등 북방불교에서는 육식 자체를 금하기도 한다. 그런데 스님이 다른 대안이 없어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단지 유희를 위해서 낚시를 하는 것을 보고 풍자개는 대단한 비애를 느낀다.



인간들은 다른 생물들을 살생할뿐만 아니라 인간끼리 살육 행위를 벌이기도 한다. 전쟁 속에서는 부모, 형제, 친구라는 개념도 말살시키고 살기위한 투쟁과 이권 탈취 행위만이 범람하기도 한다.



전쟁의 와중에 흔히 인간들이 동물과 구분짓는 고귀한 이념이나, 정신적인 가치는 커녕 그 어떤 동물보다도 잔인하고 포악한 행동을 하는 것도 인간들이다. 다른 동물들의 소유욕은 한계가 있는데,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은 한도가 없다. 사나운 맹수도 배가 부르고 나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들은 아무리 배가 불러도 끝없이 탐욕을 부린다. 또 본질적으로 보면 아무런 의미나 가치가 없는 이유 때문에 한없는 증오와 분노를 노출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풍자개는 “인간의 미움과 증오는 거미줄 같다.”라는 내용의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풍자개는 평온할 때는 물론, 전쟁을 겪으며 여러 가지 고난에 직면

등겐의 창작기법을 모방했다. 죽구멍이의 인물들은 다수가 눈이 없는데, 풍자개도 가끔씩 상황에 따라 이목구비를 그리지 않았다.

해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인간의 위대한 정신과 사랑을 믿으려고 애썼다. 다음 그림들에서 인간 속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마음과 보편적인 사랑을 나타냈다.

### 3. 생명 존중



이 그림은 살생을 방지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그린 것이다. 주인이 손님 접대를 위해 닭을 잡으려하니 손님들이 살생을 만류한다. “客人忙攔阻”(손님들이 급히 화를 내고 막으며) “我今天吃素!” (“나는 오늘 간소하게 먹겠어요!”)라고 한다. 혼한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닌 것이다

다음 그림에서 주인이 소를 잡으려하니 소가 눈물을 흘리며 목숨을 구걸하고 있다. 주인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상념에 잠겨있다. 한 아이가



어른이 닭을 잡으려는 것을 말리고 있다. 아마도 부자지간인 것 같다. 이렇듯 인간들의 습관화된 행위도 때로는 재고되어야 하고, 그 필요성의 정도도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

한 여인이 새장의 새를 날려 보내고 있다. 또 한 남자가 새끼 새들이 떨어진 것을 본래의 등지에 올려주고 있다. 한 노인이 물고기를 방생하고 있다.



아래의 두 그림 모두 나비의 무덤을 만들어주는 광경이다. 두 아이가 곡괭이를 동원하여 무덤 주위에 나무를 심어주고 묘비까지 세웠다. 나비 무덤 만드는 광경만을 여러 번 그리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니다<sup>15)</sup>.



오른 쪽에는 기러기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양 옆에는 나무를 심어 원형으로 조경을 했다. 기러기 무덤 위에는 화분이 놓여있다. 인간의 무덤에도 이 정도 정성을 들이는 것이 흔하지 않다.



아래 왼쪽 그림에서는 어른과 남자 아이 한 명, 여자 아이 한 명이 걸상을 나르고 있다. 밑에는 개미들이 떼를 지어 행진하고 있다. 장마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개미들이 비를 안 맞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아래 오른쪽 그림에서는 곡식을 말리고 있는데 새들이 곡식을 쪼아 먹어도 그대로 보고있다. “흉년이건 풍년이건 새와 쥐가 오는 것을 막지마라는 글”이 적혀있다.

15) 나비 무덤 그림만 3 번 이상 발견된다.



이 그림에는 “원앙을 위해 연꽃 두 개를 남겨둠”이라는 글이 적혀있다. 연꽃도 함부로 해하지 않는 것은 물론 다른 새의 보금자리로 남겨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원앙새는 암수 간에 사이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앙새 한 쌍의 행복과 안녕도 인간들이 신경을 써야 하고 고려를 해야한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걸어가면서 자기 앞에 늘어진 나뭇가지들을 예사로 자르고 찍어 버린다. 그러나 그 가지 하나하나들도 귀중한 생명이다. 아래 그림들에서는 “대나무도 함부로 자르면 안 된다.”, “나뭇가지도 마음대로 잘라서는 안 된다.”고 적혀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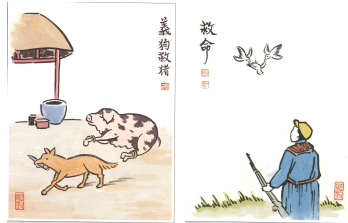


#### 4. 동물들의 생명 존중

동물들이 인간이나 다른 동물의 보살핌을 받거나 은혜를 입는 등 신세만 지거나 받기만 하는 게 아니다. 동물들도 자신들의 몸을 던져서 다른 생물들을 구하거나 돕기도 한다.

돼지를 죽이려고 발을 묶어놓고 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개가 칼을 물고 숨기기 위해 가고 있다. 두 마리의 새가 총에 맞아 떨어지는 새 한 마리를 양쪽에서 물어 구하고 있다. 총을 든 사냥꾼은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인간들은 동물들을 무지막지한 개체로만 여기고 하찮게 보기 일쑤지만 동물들에게도 인간들이 모르는 여러 가지 능력과 재주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돌고래 무리들이 죽어가는 돌고래 주위에 모여 살리려고 애쓴다든지<sup>16)</sup>, 사자에게 습격받는 어린 사슴을 하마가 구하고 끌어올려서 살리려고 애쓰는 광경, 어린 코끼리를 여러 코끼리가 구출하는 광경<sup>17)</sup>, 사자에게 습격받은 물소를 코끼리가 구한다든지 등의 모습이 인터넷이나 사진으로 소개되고 있다.<sup>18)</sup> 아래 왼 쪽 그림은 나귀가 주인을 위해 죽는 그림이다. 어떤 이유때문인지는 적혀있지 않다. 아래 오른 쪽은 원앙이 이미 죽은 짝을 따라 스스로 요리 냄비로 돌진한다는 내용이다.



주인이 죽고 난 뒤 개가 따라서 죽거나, 전장에서 용사가 죽자 그 말이 따라서 죽는 이야기도 적지 않게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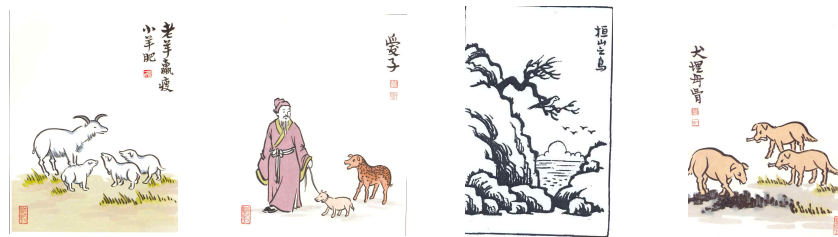
첫 번째 그림에서 먹을 것이 부족할 때 부모양들이 새끼들만 먹이니, 늙은 양은 마르고 어린 양은 살찌었다. 두 번째 그림에서 짐승이 새끼

16) yahoo 2008.1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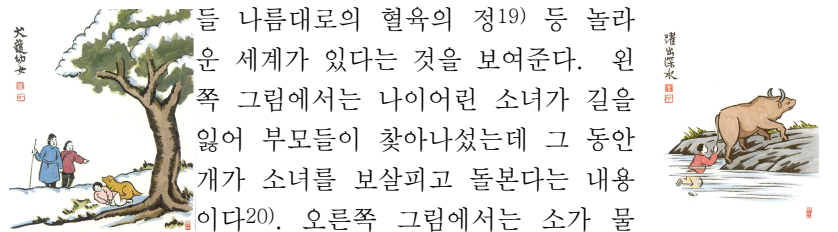
17) naver 2009.1.30.

18) daum 2008.7.28.

를 떠나보내며 마음 아파하고 있다. 세 번째 그림에서 새끼들을 떠나보낸 어미 새가 슬퍼하고 있다. 네 번째 그림에는 새끼 개들이 죽은 어미 개의 뼈를 모아서 묻고 있다.



이 그림들 모두 인간들이 동물을 예사로 생각하는데 비하여, 동물들에게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묘한 점이 있고, 그



들 나름대로의 혈육의 정<sup>19)</sup> 등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왼쪽 그림에서는 나이 어린 소녀가 길을 잃어 부모들이 찾아나섰는데 그 동안 개가 소녀를 보살피고 돌본다는 내용이다<sup>20)</sup>. 오른쪽 그림에서는 소가 물 속에서 사람을 끌어 올리고 있다. 사람은 소 꼬리를 잡고 목숨을 구한다. 소도 물의 위험을 알고 죽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이 그림들에서는 동물들이 사람을 구하고 보살피는 것을 내용을 담았다. 인간의 동물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처럼 동물들도 인간들을 사랑하고 구출하기도 한다.

19) 송아지를 팔려고 하면 어미 소는 미리 알고 눈물짓고, 송아지가 팔려간 뒤에도 어미 소는 한동안 괴로움 속에 지낸다고 한다.

20) naver, 2009.3.1. 러시아에서 알콜 중독에 빠진 어머니 대신 개들이 3살 짜리리 소녀를 3년간이나 보살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인간 사회가 혼탁해지고 인간들이 존엄성을 잃어가는 시점에 동물들이 오히려 고귀한 면을 보인다.



## 5. 생명의 집요함과 순환

### 5.1. 인간 : 식물, 나무 : 국가



동물을 인간과 같은 선상에서 본 풍자개는 식물은 어떻게 보았을까? 1938년 풍자개가 무한에 머무를 당시 武昌의 전원을 산책하다 반쯤 잘려나간 큰 고목 위에 새로운 가지들이 왕성하게 뻗어 있고 그 중 한 가지가 유독 크게 자라는 광경을 보았다. 풍자개에게는 다시 자라는 가지들이 마치 잘려나간 가지들의 복수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풍자개는 이 가지를 중국의 상징<sup>21)</sup>이라 보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림을 그리고 다음 시를 지었다.

“큰 나무는 비록 잘려나갔지만 생기는 잃지 않았다. 봄이 오자 다른 가지도 싹을 피웠는데 그 기상 얼마나 대단한가?” 나무도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는 생명체로 의인화했다.

### 5.2. 식물 : 인간



왼쪽의 ‘생기’라는 그림이다. 아무 영양분도 없는 척박하기 그지없는 벽돌 사이에서 솟아난 잎을 보고 생명의 위대함, 끈질김, 대자연의 불가사의한 섭리 등을 느낄 수 있다. 풍자개는 이 잎을 중화민족의 혼으로 보았다.



오른쪽의 한국 화가 김원숙이 1997년에 그린 ‘기다림’에도 유사한 의미와 이미지들이 존재한다. 황량한 땅 위에 한 줄기 가냘픈 식물이 올라오고 인간이 바라보고 있다. 쪼그리고 앉아 식물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인간, 척박한 땅 위로 가냘픈 잎사귀를

21) 1937년 풍자개는 “중국은 한 그루의 나무와 같다.(中國 就像一棵大樹)”라는 에세이를 발표했다.

내민 식물! 이 그림에서도 식물은 연약하면서도 끈질긴 인간의 상징인 것 같다.

### 5.3. 생명의 순환



아이와 어머니가 등장하는 이 그림에서는 생명의 순환성, 연기의 고리, 자연의 법칙 등을 표현했다. “꽃이 지는 것은 무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봄날의 흙이 되어 꽃을 더욱 지키기 위함이라(落紅不是無情物, 化作春泥更護花)”. 이것은 원래 청나라 시인인 공자진의 시이다. 풍자개는 같은 제목 하에서 자기만의 독특한 기법으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썼다. 싱그러운 파란 잎이 부서부서한 낙엽으로 변하거나 아름다운 꽃잎이 시들어버리는 것을 보고도 비애를

느끼거나 애석해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그러면 일생동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태연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풍자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연의 순환과정을 보며 스스로 용기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자위하기도 했다.

### 5.4. 풍자개의 소망 : 만물 공존



한 남자가 부채를 들고 침대에 누워 있고 나뭇잎이 드리워진 창가에는 새 한 마리가 있다. 나뭇잎은 생생하게 빛나고 사람과 새도 편안하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차 주전자와 찻잔 놓여있다. 사람이 새를 보고 “나는 침상 위에서 시원하고, 너는 창가에서 시원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글이 적혀져 있다. 차 한 잔의 여유로움, 새와 사람의 공존, 한가로이 흔들리고 있는 나뭇

잎! 식물, 동물, 인간 모든 것이 평화롭고 조화를 이루는 이것이 풍자개가 꿈꾸는 이상세계이다.

## 6. 방법론

풍자개는 자신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구사했다. 간단한 그림에서도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 힘든, 또 발견하기 힘든 방법 또는 기법들을 사용하여 심층적이고 철학적인 사상을 표현했다. 그 방법론은 크게 의인화, 사고방식과 관점의 전환, 언어적 조형적 기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풍자개의 생명관에 관련된 그림들의 의미 전달 방법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 6.1. 의인화

#### 6.1.1. 동물의 의인화



사람에게 “한 번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한다”라는 사고방식이 있듯이 새들도 “한 번 쪼아먹기 전에 3번 생각한다”라고 쓰여져 있다. 사람들은 흔히 새들을 미천한 생물로 경시하기 일췌이다. 그러나 수많은 새들이 대열을 지어 날아가는 모습, 새끼를 키우는 모습, 유희하는 광경, 수십 마리가 복잡하게 선회하는 것 등을 보면 고도의 통제력과 지혜를 겸비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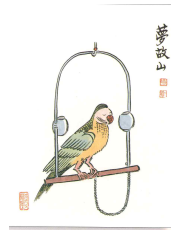
따라서 새가 한 번 쪼아먹기 전에 세 번 생각한다는 것이 허황된 사고만은 아니다.

먹이 사슬 속에서 사슴들은 거의 항상 먹히는 자의 입장이다.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다가 갑자기 나타난 악어에게 물 속으로 끌려 들어가거나, 풀을 뜯다가 맹수에게 공격당한다던지, 혹은 사람이 쏜 화살이나 총알에 목숨을 잃는다<sup>22)</sup>. 따라서 사슴들은 한 순간도 마



22) yahoo,2009.2.8. 사슴이 총을 든 사냥꾼을 징벌하듯이 공격하는 동영상도 있다. 말 못하는 짐승도 사건을 이해하고 감지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음놓고 생활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항상 공포 속에서 살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림 속의 사슴들이 서로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화살을 보아도 겁내지 말고 먹을 게 있으면 갈라 먹어야 한다.”라고 다짐한다. 동물들에게도 자존심이 있고 자의식이 있다.



앵무새가 다리에 줄이 묶여있다. 인간들은 앵무새의 아름다운 자태, 말 흥내내기, 다양한 동작 등으로 즐거움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앵무새는 인간들과 같이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다. 그것은 자유의 구속이고 괴로움이다. 夢故山이라는 글처럼 앵무새는 고향, 자신의 예전의 상태를 그리워한다.

### 6.1.2. 식물의 의인화



다음 그림에서는 한 사람이 가위를 들고 식물들을 키에 맞추어 전지를 하고 있고 그 위에는 사람들을 똑같은 크기로 정렬시키기 위하여 목을 자르려는 그림이 있다. 사람들은 벽이나 담장 대신에 울타리로 삼기 위해 나무나 꽃을 심어놓고 같은 키로 절단을 한다. 그 식물들을 자르면서 사람들은 그것들을 얼마나 규칙적으로 규격에 맞게 잘라서 예쁘게 보이느냐에 신경을 쓸 뿐이다. 그 식물들도 생명이 있고 아파할 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염두에 없다<sup>23)</sup>. 그러나 그것은

식물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목을 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사람 목이 잘려져 있으면 “엽기적”, “희대의 살인사건” 등의 용어를 쓰며 경악한다. 그러나 소머리, 돼지머리가 잘려있는 것은 예사로 본다. 심지어 돼지 머리들 중에 웃고 있는 듯 한 것을 골라서 돼지 주둥이에 천원이나 만 원짜리를 물려놓고 고사를 지낸다. 그 돼지가 실제로 웃고 있을까? 순전히 인간 마음대로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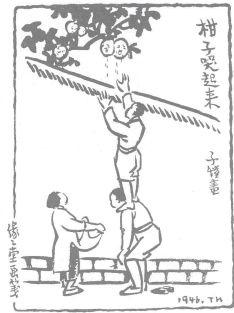
23) 실험에 의하면 식물들의 가지나 줄기를 자른 사람이 가까이 오면 식물내부에서 격렬한 반응이 일어난다고 한다.

다. 동물들의 입장에서는 동물들의 잘린 머리들이 줄줄이 걸려있거나, 그 주둥이에 돈이 물려있거나 등의 광경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것이겠는가?



이 그림은 나무와 사람에 관한 것이다. 사람이 나무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사람에게 톱질을 하고 있다. 생명체로서의 나무를 수없이 벌목한데 대한 나무의 징벌이라고 할 수 있다.<sup>24)</sup> 인간들이 무심코 하는 일들 속에 숨어있는 무서운 사실과 예사로 간과하고 지나가는 위험성에 대한 풍자이다. 인간 주위의 자연을 손상시키면 인간도 그 대가를 치러야한다. 나무를 남벌했을 때의 홍수, 기근, 사막화 등의 결과는 인간이 받게 마련이다.

살아서 움직이는 동물의 생명을 존중해야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안다. 그러나 과일에 까지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두 남자와 여자가 등장한다. 여자는 바구니를 들고 있고 한 남자는 다른 남자를 자기 어깨 위에 올려서 담 위의 과일을 따려하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려는 것을 알고 과일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옆의 다른 과일에도 표정이 다양하게 그려져 있다. 과일도 생명이 있고 희노애락이 있는 개체로 표현된 것이다.<sup>25)</sup>



### 6.1.3. 무생물의 의인화

‘有情世界’라는 제목의 그림이다. 부채, 시계, 꽃병, 꽃, 달력, 문방구, 붓, 물병 등이 있다. 풍자개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알면 꽃이 웃음짓고 과일에 표정이 있고 등등이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무생물에게 까지 감정을 이입시키는 예술가는 흔하지 않다. 꽃병이 웃고, 필통이 흡족한 표정을 짓고, 부채가 아주 크게 웃고, 시계가 못마땅한 표정

24) 1851년 뮌헨의 한 신문에 실린 ‘뒤집어진 세상’이라는 그림이다.

25) yahoo, 2009.2.9. 쓰다듬으면 마치 수줍어하듯이 오그라드는 식물도 있다.



을 짓는 것 같고 달력이 쩡그리고 있다. 꽃병 속의 꽃도 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 가장 오른 쪽의 꽃은 표정이 별로 좋지 않다.

책상 위의 문방구도 소중히 다루고, 주위의 작은 사물 하나하나도 결코 함부로 다루지 않는 세밀한 배려! 즉 이 우주 속 모든 것이 귀중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라는 사상이 담겨있다. 특히 문방구가 귀하고 비싸던 시절에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들이다. 또 우리가 쓰는 연필, 종이, 부채 등 도구 자체는 이미 물건이지만, 그것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나무나 식물 등 생물이었던 것들도 많다. 따라서 물건을 아껴 쓰는 것도 결국 살생을 줄이고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다.

## 6.2. 사고 방식과 관점의 전환


### 6.2.1. 下獄 : 소유 → 감옥

색깔이 고운 보기좋은 새가 새장 안에 있다. 인간들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새를 잡아 새장에 가두고, 가까이서 보기를 좋아한다. 단지 인간들이 하루에 몇 번 보는 즐거움을 위해 새는 죽을 때까지 감금되어 있어야한다. 새에게는 그것이 下獄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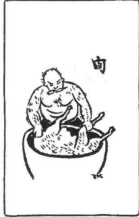


### 5.2.2. 沈溺 : 用具 → 죽음의 장소


나비가 접시 물에 빠져죽어 있다. 먹을 갈기위해 부어놓은 물이나, 그


 릇에 담긴 물에 벌레가 빠졌을 경우 인간들은 대수롭지 않게 본다. 즉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일이 주된 요소이고 물에 벌레가 빠져있는 것은 흔하고 하찮은 일이다. 그러나 그 주변적인 일이 벌레들에게는 죽음, 생명의 끝인 것이다. 벌레들은 익사한 것이다.


6.2.3. 肉 : 같은 고기


 ‘肉’이라는 제목 하에 옷통을 벗은 사나이가 고기를 통째 솥에 담고 있다. 짐승의 피부와 사나이의 피부에 털이 나 있고 거의 같은 무늬와 모양으로 그려져 있다. 짐승 고기도 고기이고, 사람고기도 고기이다라는 뜻이다. 즉 인간도 고기이면서, 고기가 고기를 먹는다는 뜻이다. 제목과 그림이 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다의적인 의미구조를 조성한다.

6.2.4. 蠶의形具 : 道具 → 形具


 한 연인이 커다란 솥에 무엇인가를 끓이고 있다. 불을 잘 피게 하는 선풍기와 각종도구가 있다. 누에고치의 실을 빼기 위해서 물을 가열하고 있다. 인간에게는 이것이 생산활동이지만 누에고치에게는 죽음이다. 蠶의刑具! 즉 누에고치의 형틀이라는 말이다. 인간에게 유익한 도구가 누에고치에게는 사형집행도구인 것이다.

6.2.5. 我的腿 : 음식 → 내 다리


 사람다리를 하나 잘라서 들고 간다면 엄청나게 쇼킹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돼지 다리 들고 가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다. 그것은 단지 먹거리이고 식량일 뿐이다. 그러나 그것이 돼지에게는 얼마나 충

격적인 일이겠는가? 돼지가 그것을 보고 “내 다리”라 생각하고 있다.

#### 6.2.6. 開棺 : 음식 → 시체



통조림이 생겨나고 맛있는 먹거리들을 오래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채소는 물론 육류도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해졌다. 통조림을 따는 것은 향긋한 냄새, 구수한 맛, 야전에서 먹을 수 있는 편리함 등으로 하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의 내용물이 아직 살아있을 때의 입장에서는 開棺이다. 즉 시체가 든 관 뚜껑이 열렸다는 뜻이다. 맛있는 통조림을 여는 행위가 동물의 입장에서 보면 開棺이다.

#### 6.2.7. 喜慶的代價 : 잔치 → 죽음



인간 즐거움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먹는 것이다. 축제, 파티, 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기 요리가 필요하다. 인간의 몸이 유지되기 위해서 흔히 다른 동물들의 고기가 소비된다. 어떤 때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각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동물이 도축되고 요리되기도 한다. 춤추고 노래하고 환담하며 치룬 잔치의 뒷 편에는 수많은 짐승들의 죽음이 있다. 그 광경을 喜慶的代價라는 제목 하에 그림으로 그렸다.

### 6.3. 언어적 조형적 기법

‘肉’, ‘喜慶的代價’, ‘開棺’, ‘下獄’, ‘蠶的形具’, ‘我的腿’ 등의 제목은 사 고방식, 입장, 관점 등의 측면에서 다의적인 의도를 지니고 있다. 풍자 개가 선택한 어휘들은 인간의 입장이 아니라 다중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다.

‘肉’그림에서 인간의 피부와 동물의 피부, 인간의 털과 동물의 털이



유사하게 그려져 있고(denotation 표층의미), 인간 몸과 동물의 몸이 동일 특성으로 그려져 있어, 유사한 고기라는 (connotation 함축의미)를 나타낸다. 고기로 된 사람이 고기로 된 동물을 솥에 넣고 조리한다. 이러한 조형적 특성에 ‘肉’이라는 언어 제목은 작가의 의도를 한층 더 긴밀하고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肉’이라는 단 하나의 단어, 간단한 그림 한 컷으로 풍자개는 함축적이고 다중적인 메시지를 발산한다. 따라서 언어적, 조형적 기법이 어우러져 풍자개의 단순한 그림 한 컷은 산뜻하고도 풍성한 의미를 지닌 작품이 되는 것이다.

인간들의 경사나 잔치가, 그것을 위해 도축된 짐승들의 입장에서는 비극이고 죽음이다. 색깔이 아름다운 새를 곁에 두고 바라보기 위해 만든 새장이 새에게는 감옥이다. 인간이 먹기 위해 조리한 돼지 족발이 돼지에게 ‘내 다리’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좋이라고 하는 행동도 우주적인 관점에서는 과연 좋은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초가집을 없애고 산과 들을 불도저로 밀고 시멘트로 된 서양식 건물을 짓고 그 안에서 화학 비료를 주고 키운 음식들을 먹는 것이 과연 진보이고 발전일까? 어쨌든 우리는 인간입장에서의 세계관만으로 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풍자개는 단순하면서도 교묘한 언어기법, 기발한 조형적 배합을 통하여 현대인들에게 여러 종류의 강렬한 충격을 준다.

‘獲笑’에서는 새를 잡으며 웃고 있고, ‘肉的香氣’에서는 개 앞에 맛있는 고기를 달아놓고 놀리는 광경이다. 그 광경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의 얼굴에 눈이 없다. 개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웃고 있는데 어떻게 눈이 없는가?

이 경우는 진정한 인식이 없다는 뜻이다. 이 그림의 눈은 그냥 보는 눈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다른 동물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며 즐거워하는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이다. 그것도 자신들이 미리 방도를 마련해놓고 괴롭히는 것이니 더욱 그러하다.

이 그림에서 풍자개가 눈을 안 그린 것도 고도의 전략에 의한 것이다. 눈에 보인다고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며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닌 것이다. 풍자개의 간단한 그림도 상식과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충격과 신선한 도발을 내포하고 있다.

## 7. 결 론

생명 존중, 인도주의, 박애 정신 등의 용어들은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듣는 단어들이다. 풍자개의 그림이 놀라운 것은 이런 주제를 그림에 나타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사나 흔히 보이는 주위의 사물을 통하여 보통사람은 생각지도 못하는 놀랍고 새로운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무심코하는 일상 행동에 살생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간들은 잘 모른다. 무생물들의 표정, 나비 무덤이나 기러기 무덤을 만드는 행위, 벌레 한 마리가 구두 밑에서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는 순간, 사람이 따려는 순간 눈물을 흘리는 과일, 똑같은 높이로 나뭇가지를 치는 행위 등등... 풍자개의 그림을 보면 동물은 물론 식물의 생명도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살생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스님들처럼 채식을 한다하더라도 식물도 생명체다. 그렇다면 풍자개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가 주장하는 것은 다른 생물의 희생을 최소화시키고, 쓸데없는 과일 살생은 막자는 것이다. 인간의 유희를 위해, 미식을 위해, 탐욕을 위한 살생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인간중심의 세계관 속에서 다른 생물에 대한 배려가 거의 전무하다면 이 지구의 생태계자체도 파괴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인간 자신에게 거대한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다. 풍자개의 그림은 불살생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현재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환경파괴, 생태계의 위기와의 관련이 있는 것이다.

풍자개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언어의 교묘한 사용, 그림의 다양한 내용과 다중적인 기법, 단순하고 신선한 충격, 글과 그림의 절묘한 조합 등을 사용한다. 풍자개는 언어를 구사하는 시인과 색채를 사용하는 화가의 재능과 자질로 시대를 뛰어넘는 작품들을 남겼다.

### [참고문헌]

- 낭소군, 김상철 역, 《중국 근현대 미술》(서울: 시공아트, 2006)  
徐敬東, 徐欣諱 著, 張俊 哲譯, 《중대륙을 품어 화폭에 담다》(서울: 고래실, 2002)  
除星編著, 《豐子愷漫畫研究》(北京: 西泠印社出版社, 2004)  
除星編著, 《芝術人生-走近大師》(北京: 西泠印社出版社, 2004)  
豐子愷, 《除星編著》(湖北: 湖北美術出版社, 2002)  
豐子愷, 《古詩新畫》(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豐子愷, 《豐子愷兒童畫集》(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3)  
豐子愷, 《護生書畫 二集》(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3)  
豐子愷, 《豐子愷美術夜潭》(上海: 上海人民美術出版社, 2004)  
조정래, 〈풍자개(豐子愷)의 예술창작과 그 미학사상 연구〉, 《문화사학》 23권(2005.1)  
니시마키 이사무(西槿偉), 〈풍자개(豐子愷)(1898-1975)의 서양미술 수용 및 중국 전통미술 재발견과 혁신에 대해〉, 《美術史論壇》 20(2005), 박소현역, 한국미술연구소 발행.  
홍승직, 〈풍자개(豐子愷)의 산문세계〉, 《중국어문논총》 34(2007)

### <中文提要>

豐子愷是著名的文學家，也是在現代中國畫壇裏評價為最先進的畫家。特別是他發表的很多漫畫作品，很受人們的歡迎。批評家們也重視他的美術作品裏發現的現代精神。這篇文章試圖分析豐子愷的漫畫世界。

我們在豐子愷的漫畫作品裏隨處發現生命尊重精神。他在平凡的事物與事件裏以奇特的想法展示出新穎的世界。人們一般不知道在日常生活裏經常發生殺生行爲。豐子愷的漫畫就讓我們知道這日常生活的殺生行爲。比如胡蝶的墳墓，或者鳥群的墳墓，樹果的眼淚，被剪斷成整齊的圍牆的樹枝，豐子愷通過這些漫畫主張我們應該尊重一切動物和植物的生命。

但是爲了生存，殺生是不可避免的。假如像和尚菜食，植物也是一種生命

體. 那麼我們怎麼了解豐子愷的不殺生主義. 再說爲了人間要生存, 必須要吃飲食. 可是人間要吃生存必需的飲食, 但是他主張了不要過度的動植物殺生. 特別爲人間的遊戲和美食, 不要吃過度的飲食. 人間中心的世界觀中, 他主張人間必須考慮別的動植物的生存. 豐子愷兒童畫裏面有着不殺生的短信, 而且含蓄着深刻的現實環境破壞和生態系危機等. 豐子愷以言語驅使的詩人和色彩利用的畫家的身分, 留下來跨時代的好多作品.

**關鍵詞:** 豐子愷的漫畫, 豐子愷的漫畫分析, 生命尊重精神, 人間中心的世界觀, 生態系危機, 跨時代的作品

투 고 일 : 2009.2.9

심 사 일 : 2009.3.10-3.30

게재확정일 : 2009.4.25



##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방안

-북 핵문제가 대두된 상황을 중심으로-

정차근\*\*·김정계\*\*\*

### 〈목 차〉

1. 서 론
2. 중국의 한반도 이해관계
3. 한·중 이해의 상충
4. 한국의 동반자 외교정책 강화방안
5. 결 론

## 1. 서 론

한국은 핵이 없는 한반도를 원한다. 그리고 무력분쟁 없는 현상유지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주변 4강대국들과의 이해와도 일치한다.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역행하고, 동북아 국제관계에 심각한 지각변동을 초래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한 세기 이전 동북아 주변정세가 격변한 것은 청국의 국력쇠잔, 일본의 부국강병화, 조선의 무지몽매 등에서 비롯되었고, 오늘날의 지각변동은 미국의 국력쇠퇴, 중국의 부국강병화, 북한 핵무기개발 등에서 그 맥이 연결 된다.<sup>1)</sup>

그간 6자회담을 통해 논의된 북한 핵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기본입

\* 논문 심사를 맡아 자세히 도움말을 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위원께 깊이 감사 드린다. 이 논문은 2008년도 창원대학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정차근, 창원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 김정계,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 Selig S. Harrison, Korean Endgame: the Strategy of Reunification and U.S. Disengagement(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Constantin C. Menges, China: The Gathering Threat (N.Y.: Nelson Current, 2005) 참조.

장은 북한의 비핵화, 현상유지, 핵 포기에 따른 지원과 관계정상화 등이다. 한국이 주변 강대국들을 상대로 하는 4강 외교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이들 과제가 반드시 4강과의 합의와 공동실천 보장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탈냉전기에 들어서서 기존 동맹관계의 변화와 북한 핵으로 인하여 전에 없는 안전보장상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의 생존을 확보하고, 분단 현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장기적인 평화통일의 길로 이끌어 나가는데 효율적인 외교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중국의 한반도 특히 북한 핵 관련한 이슈는 군사안보상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한국의 대중정책 역시 북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현실적 요소를 외면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강력한 군사력 증강 그리고 국제적 위상 제고를 통하여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현상타파 지향적이다. 신현실주의 이론이 유용성을 갖는 이유는 중국의 최근 외교적 행태에서 엿보이는 세력균형상의 역할 변화나 그에 따른 안보정책과 외교정책상의 변화 흐름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명박 신정부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새로운 외교(Global Korea Diplomacy)를 지향하고 있다. 신정부의 대북정책의 핵심인 '비핵, 개방, 3000 구상'을 포함한 한·미 전략동맹, 글로벌 에너지외교 등의 신정부 실용외교<sup>2)</sup>는 새로운 한국 외교의 패턴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제와 구상이 실천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추진되려면 4강 관계의 원만한 운영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북한 핵을 고려할 때, 특히 중국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여하는 신정부의 외교역량이 평가받는 시험대가 될지도 모른다.

한국과 중국은 한반도에서 대단히 중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경제발전은 공동의 핵심적 관심사이다. 북한 핵 폐기와 비핵화, 이에 따른 보상 및 관계정상화는 이런 의미에서 일차적 아젠다가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입장에서도 북한 핵문제는 중국의 협력과 배려가 절대적

2) 2008년 2월 6일 외신기자클럽 초청간담회에서 이명박 당선자의 “한국외교의 창조적 재건과 비전(A New Horizon and the Creative Reconstruction of Korean Foreign Policy)” 자료 참조.

인 외교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요청에 따라 한·중 양국은 이전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한 단계 격상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sup>3)</sup> 최근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내용은 전략적 동반자로서 기존의 경제협력분야는 물론이고, 외교와 안보에 이르는 전방위 파트너로서의 관계 확대를 상호 공식화 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sup>4)</sup>

한국은 상대적으로 약소국이다. 한국의 외교는 같은 지역내의 강대국이 무엇을 지향하며,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외교적 대응은 강대국의 의도에 어떻게 반응하며, 어떤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요청된다.

최근 한·중 간의 교류협력은 보다 많은 기대를 갖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의 강대국화와 관련, 중국의 의도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중국의 발전 속도를 제어할 수도 없는 처지이다. 그렇다면 발전에 대한 열망을 감안하여 규범적이고 평화적인 협력 자세를 적극 보임으로써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한국의 외교적 대응에 연계시켜 나가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이 글의 목적은 한·중 사이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방안을 찾고자 하는 데 있다. 향후 한·중 양국은 동반자 지위를 지속적으로 견지하며,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합의사항에 더욱 충실해야 하며, 보다 더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강화·모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효과적 분석을 위해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대중국정책을 강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먼저 중국이 한반도와 한국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그간 취해

3) 조영남, 《후진타오시대의 중국정치》(서울: 나남, 2006), 234쪽에는 중국이 타국과 결성한 각종의 동반자관계 양상이 소개되고 있다.

4) 2008년 5월 27-28 양일 간 정상회담에서는 4가지 합의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①양국관계 발전-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 외교당국 간고위급 전략대화 정례화 ②경제통상 협력 확대-FTA 적극검토, 투자보장 협정개정, 원전 및 신재생 에너지 협력 ③인적 및 문화 교류강화-청소년과 대학생 교류 확대, 사증(비자)편리화 ④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북한 핵 해결에 건설적 노력, 한중일 3국정상회의 개최, 유엔 등 범세계적 문제협력.



은 외교정책은 어떠한 것이었던가를 논의하려고 한다.

제3장에서는 양국이 국교수립 이래 경제부문을 중심으로 교류·협력해 왔으며, 여타 분야에서의 실적도 많은 편이다. 그러나 한·중관계가 진척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도 상당하다. 그리하여 한·중 양국의 이해가 상충된 부문을 분석함으로써 협력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미래 양국의 발전을 도모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전략적 협력에 관한 정책대강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중국의 한반도 이해관계

중국은 강대국을 지향하고 있다. 강대국으로서의 중국 부상이 이미 현실화되었으며, 특히 동아시아지역에서는 분명한 사실이자 정치적 이슈로 표면화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탈냉전시기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강력한 후보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sup>5)</sup>

중국이 국제문제에 대한 강대국적 관심을 본격적으로 표방한 사례로는 최근까지 논의되고 있는 중국의 신안보관이다. 이는 1999년 3월 26일 스위스에서 개최된 군축협상회의에서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피력하면서 공식화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상호신뢰, 상호이익, 평등, 협력이다. 그에 의하면 상호신뢰는 신안보관의 기초이며, 상호이익은 신안보관의 목적이고, 평등은 신안보관의 보장이며, 협력은 신안보관의 방식을 의미한다.<sup>6)</sup> 이와 같은 안보정세관은 중국이 국제문제에 대하여 자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한편, 강대국으로서의 염원은 중국의

5) 서진영, 《21세기 중국외교정책: '부강한 중국'과 한반도》(서울: 폴리테이아, 2006); 정재호(편), 《중국의 강대국화》(서울: 길, 2006) 참조.

6) 鍾之成, 《爲了世界更美好: 江澤民出訪紀實》(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6), 337-343쪽. 李靑, “關於東亞安全合作的構想,” 閻學通·金德湘(編), 《東亞和平與安全》(北京: 時事出版社, 2005), 422쪽. 閻學通, 《美國霸權與中國安全》(天津: 天津人民出版社, 2000), 100-106쪽.

개혁·개방정책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면서부터였다.

중국은 덩샤오핑(鄧小平)이 집권한 이래 도광양晦(韜光養晦), 유소작위(有所作爲), 부책임적대국(負責任的大國), 화평굴기(和平崛起), 화평발전(和平發展), 화해세계(和諧世界)를 표방해 왔다.<sup>7)</sup>이 가운데 평화적 부상(和平崛起)이 제기된 이유는 중국의 강대국 부상이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잠재력을 가졌다는 서구의 비우호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였다.<sup>8)</sup> 1990년대 초부터 구미 일각과 일본 우익진영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제기된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중국 정부는 자국의 부상이 평화적일 수밖에 없다는 정당성을 합리화하는 내용 수정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이다.

평화적 부상론이 제시하고 있는 주변국가에 대한 정책은, 주변국가와 동반자 관계를 정립하고,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안린(安隣)·부린(富隣)·목린(睦隣)의 방침에 따라 중국의 전통적 주변국정책을 다양하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적과 의도를 담고 있다.<sup>9)</sup> 중국은 평화적 부상론을 통해 공동발전과 상호관계 증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며, 이를 견지하고 발전시킬 경우 주변 국가들에게 오히려 ‘중국기회론’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희망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평화발전론은 중국 국무원이 2005년 12월 출간한 <中國의和平發展道路:중국 평화발전의 길> 백서에 의하면, 중국의 평화발전은 중국의 현대화를 위한 불가피한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의 성장을 통해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고, 다른 국가와 상호이익과 공동발전을 추구하며, 지속적인 평화와 공동번영으로 어우러진 조화로운 세계(和諧世界)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7) 中國國際問題研究所, 《國際形勢和中國外交藍皮書 2006/2007》(北京: 當代世界出版社, 2007), 제12장 및 19장 참조. 이 가운데 ‘韜光養晦’와 ‘有所作爲’에 관해서는 僉健民·陳子舜, 《中國國際戰略》(北京: 人民出版社, 2003), 431-489쪽 참조.

8) 徐堅, 〈和平崛起是中國的戰略抉擇〉, 《國際問題研究》第2期(2004), 1-8쪽.

9) 《國際形勢和中國外交藍皮書》, 185-191쪽. 顏聲毅, 《當代中國外交》(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4), 317-323쪽.

## 2.1. 중국의 기본적 대한반도정책

중국은 경제발전을 국가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의 하나로 대외환경 조성 차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바라고 있다. 한반도를 포함한 중국의 주변 지역에서의 안정과 평화 상태가 보장 유지되어야만 중국이 절실하게 바라는 경제발전에 진력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한반도에서의 현상유지를 희망하고 있다.<sup>10)</sup>

후진타오(胡錦濤) 체제가 등장한 이후 중국은 동북아와 한반도에 대하여 조화(和譜)를 강조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비핵화와 안정유지를 정책기조로 삼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동북아는 세계적 세력균형의 앞마당이다. 따라서 중국은 역내에서의 교역 확대, 에너지 확보, 군비 축소문제, 북한 핵 해결, 영토분쟁 등과 관련하여 가능하면 미국의 규제를 받지 않고 배타적으로 국익을 추구하려는 적극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sup>11)</sup> 그리고 중국이 강조하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적 차원의 조화(和譜) 속에는 반드시 북한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배경 아래에서 후진타오 지도부는 중국의 대한반도 기본정책을 크게 3가지로 조정했다. 즉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남·북 양측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자주적인 평화통일 추진,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다. 일부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이 외에도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기본정책과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응당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북한체제의 유지와 그에 필요한 개혁·개방 유도 둘째,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추진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저지 셋째, 북한 상황에 적합한 발전 모델의 모색과 북한의 연착륙 유도 넷째, 남·북 양측에 대한 중국의 지배적인 영향력 확보 다섯째, 남·북한 양측과의 포괄적이며 우호적인 협력관계 유지 여섯째, 한반도의 자주적인 평화적 통일 지지 일곱째, 한반도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 지원 등이다.<sup>12)</sup>

10) 《鄧小平文選》(一九七五—一九八三)(北京: 人民出版社, 1983), 204-205쪽.

11) 박종철·이상현·박영준·백승주(외), 《2020 선진한국의 국가전략(I): 안보전략》(통일연구원, 2007), 160-166쪽 참조.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과 정책을 이해하는데 있어 이러한 주장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핵개발과 보유문제도 중국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우선적 전략적 목표가 아니라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어찌면 당분간은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한반도의 통일보다 전통적 우방인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존속과 개혁·개방을 중요한 전략적 목표로 간주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세계적 차원에서 중국의 이해는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이를 바탕으로 한 세계강대국 건설임을 주지해야 한다. 중국의 한반도 이해관계는 이처럼 복잡적이며, 북한체제의 안정적 유지가 중국의 국익에 부합된다는 것과 아울러서 한국에 대한 특별한 관심에서 한반도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 2.2. 중국 안보의 특수지역

중국의 대한반도, 특히 대북한 이해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가늠해 볼 수 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리적 인접성에서 깊은 연유를 찾아 볼 수 있고,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는 전통적이고 숙명적이며 시대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해 왔다. 현시점에 있어서 중국이 특히 북한에 대해서 가지는 이해관계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관련하여 가늠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수호가 중국으로서 절대 절명의 과제가 된다는 점이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자신의 사회주의 체제를 위협하거나 위협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적대세력이나 신체제가 수립되는 것을 인내하기 어렵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지역에서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 오래 동안 공산혁명과 이념적 연대 속에서 특수 관계를 유지해 온 북한에 대해서 중국은 체제동반

12) 이태환, <21세기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하영선(편),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그물망국가 건설》(서울: EAI, 2006), 164-165쪽. 戚保良,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 이태환(편), 《강대국 관계와 한반도 평화구축》, 제10차 세종연구소-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학술회의 보고서(2004년 8월 27일), 39-40쪽.

에 관한 한 지정학적으로 상호 연대적 이해관계를 공유해 왔다. 중국은 현재도 북한이 체제동반자로서 바로 이 같은 지정학적 완충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중국의 깊은 관심은 1989년부터 연이어 발생한 동유럽 사회주의권과 구소련의 와해로 더욱 절실해 졌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중국 정부는 북한이 체제 개혁 없이 기존체제를 그대로 유지해 간다면 체제붕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우려하여 북한 체제의 개혁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sup>13)</sup>

중국에 있어서 북한은 두말 할 것 없이 체제의 동반자요, 체제수호의 완충지임에 틀림없다. 때문에 북한에서의 심각한 사태야기, 예컨대 한국 주도의 통일 또는 북한의 민주화 추세 등으로 인한 도미노 현상이 중국에까지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을 중국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체제수호에 관한 한 중국은 어떤 조건이나 변수와도 교환할 수 없는 우선적 가치로 확신하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은 한반도에서 다른 패권주의 세력이 출현하는 것을 거부하는 현실주의적 세력균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을 겨냥하여 그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전체가 다른 외세에 의해 점령되거나 독점적 영향력에 편입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같은 정향은 과거 임진왜란(1592-1598), 청일전쟁(1894-1895), 한국전쟁(1950-1953) 등의 사례에서도 분명히 입증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패권주의 및 그 영향이 북한지역을 넘어 자신의 앞마당인 압록강, 두만강에 까지 불어 닥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국으로서 는 한반도, 특히 위기에 놓여 있는 북한의 체제안전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연유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일종의 후견자로 자처하고 있으며, 경제적 애로를 타개해 주기 위해 에너

13) 박두복,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신 추세와 한중관계의 발전 방향>, 외교안보연구원 《정책연구》 시리즈(2001). 14-16쪽; 최근 필자가 중국에서 체류하는 동안(2008년 9월-2009년 1월) 가졌던 중국인 전문가들과의 대담에서 상대방이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 연료, 식량 등의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6자회담에서도 중국은 미국의 과도한 대북 제재 압력을 차단하는데 앞장서 왔다.

### 2.3. 북·중 국익의 상충

북·중 양국이 이념적 유대를 유지하는 데 있어 일정한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효용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양국 간의 이념적 유대에는 어느 정도 단절성의 요인들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4)</sup>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과의 이념적 유대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중국과 여타 국가들과의 탄력적인 관계설정에 장애가 된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북한 핵문제를 비롯하여 미국이 2008년 10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설정에 걸림돌이 되는 사실에서 확인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전시대 주장했던 ‘양대진영론’이나 ‘제3세계론’에서 탈피하여 국제정치체제에 통합되어 가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북한은 제국주의자와의 타협이 지닌 위험성을 감안하여 개혁·개방에 저항적이며, 나아가 북한 체제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단계라고 선전하는 등 중국과는 현저한 이념 및 노선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과거 중국과 더불어 반제반미(反帝反美)노선을 공유해 왔다. 그러나 탈냉전기에 와서는 핵보유와 테러지원 등을 중심으로 국가의 사활이 걸린 중대 사안에 관하여 다소간의 이견을 노정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중국과의 이념적 유대 지속에 있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에 비할 수 없이 국력이 미약하고, 무엇보다 당면한 경제난으로 인하여 중국과의 이념적 유대에 상대적으로 더욱 집착해야만 할 실정이다. 우선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의 협상에 있어서도 일정 수준 중국의 후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한 현 북한 정권의 유지에 불가결한 원유 및 식량 원조를 중국으로부터 받을 수

14) 채규철, <북·중간 갈등실태와 관계재정립 가능성>, 《국제문제연구》 8:1(2008); 최춘흠, 《중국의 대북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통일연구원, 2007) 참조.

밖에 없는 절박한 경제난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 핵은 중국에게 보다 실용적 대응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sup>15)</sup> 북한의 핵개발 의혹과 그에 따른 북·미 회담이 전개되는 가운데 경수로 제공 등 북·미 대화 및 협의의 범위와 정도가 긴밀해짐에 따라 중국의 우려는 점차 확산되어 갔다. 특히 북핵 문제는 미국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과 미사일방위구상(NMD: National Missile Defense) 계획에 명분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 팽창을 야기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그리고 대만의 핵보유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1992년 1월 남·북한이 합의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후 중국은 지속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인하여 중국은 6자회담과 같은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다자간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북한 핵으로 인한 동북아에서의 미국 세력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적 접근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중국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북한을 견제하고 있다.

첫째, 북·미 접근으로 인해 북한이 보다 많은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하여 중국보다 미국에게 우호적 파트너로서 접근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중국의 대북정책과 충돌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북한의 대외지향이 중국의 이해와 배치될 경우, 중국의 견제를 유발하는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있다.

북·미관계가 진전된다면 미국은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의 진출에 대해 우호적 입장을 취할 것이고, 미국의 적극적 대북 진출은 자연히 중·미 양국의 경쟁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북한을 사이에 두고 중·미가 충돌하게 된다면 미국은 주도권 장악을 위한 쟁탈에서 당연히 중국을 제지하려 할 것이다. 이는 결국 중국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오게 될 것이므로 중국은 북·중관계의 파탄

15) 최춘흠, 위의 자료 제4장; 김재관, <미중 양국의 패권경쟁심화와 상호대응 전략의 비교>, 《국제정치논총》 46:3(2006); 박홍서, <북핵위기사 중국의 대북 동맹안보딜레마 관리 연구>, 《국제정치논총》 46:1(2006); 한석희,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대한 한국의 새로운 시각>, 《한국정치학회보》 37:3(2003) 참조.

및 중·미관계의 극단적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

둘째, 핵 및 미사일 개발을 둘러싼 입장 대립도 있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발사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을 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반대하지만, 강압적인 수단을 통해 북한을 저지하는 데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북한의 미사일문제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입장이 최초로 외부에 밝혀진 것은 1998년 9월 장만니엔(張萬年)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의 미국 방문 때였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중국도 위협을 느낀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sup>16)</sup> 리펑(李鵬)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1999년 오부치 일본총리의 중국 방문시 “북한의 미사일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장쩌민 주석도 뉴질랜드에서 개최된 APEC 지도자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에 불리한 일이라면 저지 하겠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바로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는 역할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시사한 것이다.<sup>17)</sup>

그러나 북한은 중국의 이러한 기대와 달리 2006년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핵실험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동북아 정세안정을 저해하고 중국의 경제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북핵의 방치는 이로 인해 한·미·일의 강경책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동북아정세에 심각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경제발전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더욱이 북한의 미사일발사는 미·일에게 군사력 증강의 구실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중국은 이러한 사태 진전을 결코 바라지 않았던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효과적으로 통제 못하는 다른 이유의 하나는 한·중 수교와 김일성 사망 이후 중국과 북한 지도부 간에 긴밀한 의사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데 있다. 양국은 실제로 한동안 당 대 당(黨對黨)의 관계에서 벗어나 정부 대 정부의 차원에서 상대하기도 했다. 중국과 북한 지도부는 상대방을 점차 신뢰하기 어려운 상대로 보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북

16) 《文匯報》, 1998.9.17.

17) 《朝鮮日報》, 1999.7.19; 《東亞日報》, 1999.9.12.



한이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방관하고 좌시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 3. 한·중 이해의 상층

#### 3.1. 북한 선군정치에 대한 입장

북한의 선군정치세력은 21세기 강성대국 건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수령옹호체제건지<sup>18)</sup>로 인하여 이외의 다른 대안을 일체 거부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사활이 걸려 있는 핵 신고 단계에 직면하여 미국이 요구하는 핵시설, 물질, 농축우라늄, 핵무기 등의 내용을 분리 신고하되 마지막은〈양과까지〉전술을 최대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선군정치 방식은 군사선행 원칙에 따라 혁명과 건설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삼아 사회주의 위업전반을 추진하는 영도방식이다<sup>19)</sup>. 그리고 선군정치의 핵심내용은 ①김정일의 통치원칙이고, ②국정운영에 있어 군사적 측면을 우선 고려하며, ③당 우선에서 군의 역할을 중시하고, ④강력한 군사건설보다 강성대국 건설에 중점을 두는 통치이념이다.

북한의 대남정책이 실질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김정일의 정세관이 바뀔 수 있는 외부 상황이 작용되어야 한다. 어떠한 권력주체도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택하지는 않게 마련이다. 김정일은 자신의 권력을 포기하면서 개혁·개방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대외정책에 있어서의 변화가 기득권 유지에 도움이 되고 체제 유지에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합리적 정책선택 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을 것이다<sup>20)</sup>. 김정일의 변화는 이러한 측면에서 그 가능성을 엿보이게 한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흐름이 김정일체

18) 수령옹호체제에 대해서는 신성호, 〈북한체제 위기와 한국의 대북정책〉, 하영선(편), 앞의 책, 273-275쪽 참조.

19) 박종천·이상현·박영준·백승주(외), 앞의 책, 256쪽에서 재인용.

20) 위의 책, 275-276쪽 참조.

제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북한의 대남정책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핵 선군정치세력이 수령체제의 최후 보루인 핵무기를 포기했다는 결정을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그 구체적 검증은 북한의 완벽하고 정확한 핵 신고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전략적 결단을 확신하는 참여정부의 지나친 낙관론에서 한발 물러서서 핵 신고를 예의주시하면서 사태악화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반면에 중국은 북한의 핵 선군정치에 대한 중국 측의 비판적 언급을 내정간섭 차원에서 경계하는 탓으로 그 호전성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서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관계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게 된다. 즉 북한의 생존문제, 체제의 안정적 유지에 외부 적대세력에 대한 적개심과 적대감을 줄여나가는 소극적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외부에 개방하면서 우호선린정책을 표방하는 방법이 있다.

### 3.2. 중국의 이중적 모호성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위해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 스스로가 세계평화와 지역안정을 보호하는 강력한 주춧돌이라고 자평하는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한반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와 정도는 남·북한 모두가 중국의 의지에 관심을 집중해 왔던 데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을 상대로 하는 한국 외교는 애로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다.

한국은 중국과 정치·외교 측면에서 밀접한 상호관계를 유지하려 했으나, 중국의 이중적 태도는 자주 한국 측의 기대를 무산시켜 왔다. 북·미 핵협상 과정에서나 6자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에는 찬성하나, 대북 제재에는 반대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왔던 것이 저간의 사정이다.<sup>21)</sup>

21) 중국측의 반응과 입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남찬순, 《북미 핵협상과 동북아질서》(서울: 나남, 2007) 참조.

실제로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발사 저지와 관련, 한·미·일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정치·군사적 압력과 제재를 가하려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였다. 1998년 8월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여 국제사회를 긴장시켰을 때에도 중국은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이었다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또한 중국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던 것은 북한의 내정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미·일 내부에서 제기되었던 대북 제재논의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후진타오와 원자바오(溫家寶)가 집권하면서도 북한 핵에 대해서는 이중적 대응을 일관해 왔다. 중국은 대북 지원을 대미 및 대한 정책과 연계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 수준이든 민간 형식이든 관계없이 확대일로에 있다. 중국 자본이 대거 북한으로 진출하면서 거론되기 시작한 ‘동북4성론’ 역시 이런 맥락에서 논쟁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 저변에는 대북 경제협력의 규모가 중국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의 20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관련되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북한의 충성심을 고취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따른 이해와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2003년 2차 북한 핵 위기가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도부는 방북 과정에서 관민 차원의 다양한 원조 제공과 경제협력 분야에서의 양국 간의 우호를 과시하였다. 이와 같은 중국의 이중 행태는 2006년 핵 및 미사일 실험발사를 둘러싼 논쟁과정에서, 중국정부가 표현했던 ‘황당하고 패색만’ 불쾌감 표출이 일시나마 관심을 끌기도 했으나 변함없이 견지되었다.<sup>22)</sup>

### 3.3. 중국위협론과 중·미 갈등

한국 입장에서 미국은 맹방이다. 안보와 경제측면에서 미국이 한국에

22)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문제를 강압적인 수단보다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일이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구실로 전역미사일방어체계(Theater Missile Defense: TMD)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군사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미·일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문제를 과대 포장하여 군사력 증강의 구실로 삼으려 한다고 의심하는데 기인한다.

게 주는 합의는 실로 막대하다. 그러나 중국도 한국으로서는 중요한 외교 대상이다. 향후 한국의 안보와 교역에 있어 중국의 위상은 재언할 필요가 없다.

중·미 양국은 여전히 유동적 정세 속에서 공유할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좁히지 않고 있다. 미국 내의 일각에서는 중국에 대한 봉쇄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상존하고 있고,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는 세력이 상당 수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나름대로의 이유와 명분으로 미국에 반발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점차 미국에게 'NO'라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sup>23)</sup>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1990년대 들어서서 아·태지역에서 명실상부한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여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자세를 보여 왔다. 중국은 아·태지역내에서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주변의 많은 국가들과 접경하고 있고, 다양한 긴장유발 요소와 관계되어 있어 중국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지대하지 않을 수 없다.<sup>24)</sup> 중국의 이해관계는 이처럼 국제정치체제의 변화, 국제환경의 요소, 중국의 대외적 힘의 투사 등과 상관성을 띠고 있으며, 다극적 국제질서의 확산과 그에 따른 민족주의적 경향과 불가분하게 얽혀 있다. 그리고 중국이 아·태지역과 세계에서 접하는 지정학적 중요성과 세력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적극 담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강대국으로서의 잠재력에 대한 신뢰감을 더해 주고 있다.<sup>25)</sup> 중국은 독립자주외교를 표방하면서 미국 위주의 신국제질서를 강력하게 부정하고 나섰으며, 이러한 중국의 강성적 이미지 부각과 이를 둘러싼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 움직임은 중국으로 하여금 보다 강도 높은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sup>26)</sup>

23) 박병광, <부시 2기 행정부 등장과 중·미관계 전망>, 《국제문제연구》 5:1(2005); 황병덕,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통일연구원, 2005) 참조.

24) David Shambaugh, "Growing Strong: China's Challenge to Asian Security," *Survival*, Vol. 36, No. 2(Summer 1994), p.43.

25) 時殷弘, 《戰略問題三十篇:中國對外戰略思考》(北京:人民大學出版社, 2008); 上海社會科學院世界經濟與政治研究院, 《中國與世界》(北京:時事出版社, 2007) 참조.

26) Joseph S. Nye, "China's Re-emergence and the Future of the Asia-Pacific," *Survival*, Vol. 39, No. 4(Winter 1997-1998), pp.65-66.

특히 중국의 민족주의 확산과 관련하여 미국 일각에서는 탈냉전시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우려해 왔으며, 黃禍(yellow peril)에 바탕 한 ‘중국위협론’을 거론해 왔다.<sup>27)</sup> 예를 들면, ① 중국의 계속되는 방위비 증액 ② 중국 경제의 신속한 성장 ③ 러시아로부터 각종의 첨단무기 구매 ④ 남지나해에서의 영유권 주장과 그에 따른 분쟁 발생 ⑤ 중국의 영토, 인구, 핵보유 등을 이유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공세적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sup>28)</sup> 한편 이와 달리 중국은 외부에 드러낸 실상과 달리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방측 견해도 다수 있다.<sup>29)</sup>

반면 중국은 ‘중국위협론’이 미국 및 일본 등지에서 자국의 이익에 비추어 대단히 과장되어 있다는 입장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기존의 주도권과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에 기인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sup>30)</sup> 문제는 중국과 미국의 태도가 여전하게 불확실하게 작용하고 있

27) 이인호, <미국의 대중 위협인식과 한반도>, 《국제문제연구》 7:1(2007); 김성환, <미국의 동태전략: 변화와 지속성>, 하영선(편), 앞의 책, 102-107쪽. 이태환, <21세기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위의 책, 153-162쪽. 소치형, 《중국의외교정책론》(서울: 골드, 2004), 221-238쪽.

28)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중국을 비판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자료들로서는 Barber B. Conable, Jr. and David Lampton, “China: The Coming Power,” *Foreign Affairs*, Vol.71, No.5(Winter 1992/93), pp.148-149; Nicholas D. Kristof, “The Rise of China,” *Foreign Affairs*, Vol.72, No.5(November-December 1993), pp.59-74. Vol.74, No.6(November-December 1995), p.36; Richard Bernstein and Ross H. Munro, *The Coming Conflict with China*(New York: Alfred A. Knopf, 1997) 등을 참조.

29) Ross Munro, “Eavesdropping on the Chinese Military,” *Orbis*, Vol.38, No.3(Summer 1994), pp.361-366; Michael G. Gallagher, “China’s Illusory Threat to the South China Sea,” *International Security*, Vol. XIX, No. 1(Summer, 1994), pp.169-194; Denny Roy, “‘The China Threat’ Issues,” *Asian Survey*, No. 8(August 1996), pp.759-765 등을 참조.

30) 崔志鷹, <中美兩國在朝鮮半島問題上的合作構想>, 陳佩燒·夏立平(編), 《國際戰略縱橫 第一輯》(北京:時事出版社, 2005), 310-315쪽. 顏聲毅, 앞의 책, 73-79쪽. 胡才, <消除‘中國威脅論’的影響發展中國與東南亞的關係>, 《亞太研究》第6期(1993), 42-46쪽. 董立文, <中共的全球戰略與‘中國威脅論’>, 《中

다는 데 있다. 아마도 중국의 대북한 군사개입을 억지할 수 있는 실체는 미국이라는 점에 별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냉전체제 종식 이후 유일 초강대국으로 남은 미국이야말로 그 같은 억지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반면 중국도 지난 30년에 가까운 개혁·개방정책의 성공을 통해 국제 정치 무대에서도 급속도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다는 인식과 더불어 중국은 그러한 자신감과 강대국 지위에 대한 열망을 바탕으로 미래에는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국력에 맞는 대접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더 넓은 지평을 확보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다. 중국이 미래에 그리려는 강대국 지위에 대한 열망과 관련하여 엔쉬에통(閻學通)은“중국이 강대국이 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얻어야 할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며, 특권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up>31)</sup>

다만 중국은 미래의 강대국을 꿈꾸면서도 그 과정에서 미국의 견제와 불필요한 대립을 피하려고 하며, 이 때문에 ‘중국위협론’과 같은 외부세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진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머지않은 장래에 지역 강국을 뛰어넘어 세계 강국으로 우뚝 서는 자국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최근 들어 중국내 연구자들 사이에서 대외전략을 논하면서 대전략(Grand Strategy)이라는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기 시작한 것도 결국은 세계 강국을 지향하는 중국의 자신감과 야망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미래 국제질서와 관련하여 과거의‘도광양회’로 대변되던 수세적 대외전략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유소작위’와 ‘화평굴기’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대외지향이 현 단계에서 미국의 국익과 조화보다는 상충될 소지가 있다. 한국은 이러한 갈등소지를 활용해야 한다. 어느 한 쪽을 기대고 편들기보다는 사안에 따라 혹은 한

國大陸研究,》 39:9(1996.9), 27-46쪽.

31) Yan Xuetong, "The Rise of China in Chinese Eye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10, No.26 (2001), p.34; 예쓰청(이우재역), 《중국의 세계전략》(서울: 21세기북스, 2005); 산시우파.왕샤오웨이(손상하 옮김), 《등소평과 21세기 중국의 전략》(서울: 유스북, 2005) 등은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국의 국익을 감안하는 현명한 선택이 요청된다. 때문에 양자를 아우르는 소위 양방정책(hedging)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 3.4. 동북공정과 한·중 현안

동북공정(東北工程) 문제는 중국의 강대국 지향과 관련되고 있다. 근년에 들어와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부 정책 또는 사업이 한반도 장래문제와 관련하여 깊은 연계를 가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그 중 하나가 일명 동북공정사업이다. 이 사업의 공식명은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의 줄임말이다. 중국국무원 산하 중국사회과학원에 소속된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의 연구팀에서 중국 각지에서 제출된 197개 연구과제 중 65개를 승인하여 2002년 2월부터 5개년 계획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이다. 이 동북공정의 직접적 추진주체인 「동북공작참」(東北工作站)은 역사학 교수 이외에 동북 3성의 부성장 및 부서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연구 사업을 위해 중국 정부에서 1,000만 위안,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125만 위안, 동북 3성에서 375만 위안 등 한화로 약 22억5천만 원에 이르는 재원이 투입되는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고구려사에 대한 전통적 시각은 중국의 각종 교과서 등에 고구려는 한반도의 고대국가 중의 하나로 기술되어 있듯이 한국사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왔는데,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이후 고구려는 중국사의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0년대부터는 일사양용(一史兩用)이라는 깃발 아래 만주지역에 도움이 있었던 시기의 고구려는 중국사로,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의 고구려는 한국사로 보는 양면적 인식이 대두했고,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統一的多民族國家論)을 이념화하여 고구려사를 전면적으로 중국사의 일부로 보려는 학자들의 견해가 나타났으며<sup>32)</sup>, 200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동북공정이라는 프로젝트 명으로 중국 정부차원에서 고구려사의 중국사 귀속시도를 하고 있다는 의혹

을 받고 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는 2004년 한·중 간에 실질적인 긴장과 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하였으나, 양국이 5개항의 구두양해각서<sup>33)</sup>에 합의함으로써 일단 갈등이 봉합된 잠복상태다. 앞으로 동북공정을 통해 산출될 중국의 고구려사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고구려사에 대한 객관적, 학술적 역사연구라기보다는 고구려사를 자국에 귀속시키기 위한 의도된 연구라는 것이 한국 역사학계의 일반적 평가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2004년 3월 1일에 고구려 연구재단을 설립하여 민간차원에서 동북공정에 대한 대항논리와 관련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고구려사의 중국사 귀속 시도는 이전과 같이 단순한 학계차원이 아닌 중국 정부차원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도를 다각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중 하나는 2002년부터 북한이 고구려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시도에 자극되어 중국이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sup>34)</sup> 중국이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귀속시킬 경우에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현재의 북한 지역에 대한 소위 ‘역사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32) 楊昭全, 韓俊光, 《中國關係簡史》(遼寧: 遼寧民族出版社, 1992)에서는 고구려가 당에 조공을 바쳤다고 기술하면서도 고구려를 당과는 별개의 독립국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1993년 발간된 楊昭全, 孫玉梅, 《中朝邊界史》(吉林: 吉林文化出版社, 1993)에서는 고구려가 당에 조공을 바쳤으므로 당의 지방정권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으며, 동시에 이 저서는 국가과학기금으로 출판되었음을 밝히고 있어 중국 정부차원의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33) 고구려사 왜곡문제와 관련된 한·중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 8월 24일 양측 외교부 간에 5개항의 구두양해각서가 채택되었는데, 그 중 제4항에서 “중국 측은 중앙 및 지방정부차원에서의 고구려사 관련 기술에 대한 한국 측의 관심에 이해를 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 한다”고 함으로써 문제를 일시 봉합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한 사실이 있다.

34) 2002년 1월 북한은 북한지역 내에 있는 고구려 고분군 등 고구려 유적을 유네스코(UNESCO)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것을 신청했으나, 2003년 세계유산위원회(WHC) 제27차 총회에서 등재가 보류되었다. 당초 중국은 북한에게 공동신청을 제의했으나 북한이 거절, 이에 중국 정부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2003년 고구려의 도움지였던 요녕성과 길림성 집안(集安)일대의 고구려 유적에 대해 대대적인 복원작업을 벌인바 있다. 그 후 2004년 중국 소주(蘇州)에서 개최된 제2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북한과 중국의 고구려 유적에 대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관리하도록 결정하였다.



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4. 한국의 동반자 외교정책 강화방안

##### 4.1. 한·중 공동 이해의 도모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었다. 그리고 2010년 상하이(上海) 엑스포를 치르고 나면 명실 공히 강대국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국내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중국은 현재로서 미국과는 불필요한 갈등 대신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과도 최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전략적 호혜관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에게도 중국의 중요성은 크게 다가서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제1교역 대상국으로서 한·중 교역액이 예상을 앞질러 조만간에 2,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은 북핵 문제, 평화체제 구축 같은 한반도의 핵심문제에서도 미국과 함께 중심축에 있다.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대중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전략적 관점에서 한·중 관계를 단순한 양자 차원이 아니라 한·미 관계와 연계해 재정립하는 것이다. 한·미 동맹 강화가 한·중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거나 한·중 관계 강화가 한·미 관계를 약화시키면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최근 무르익어 왔던 한·미·일 공조 강화는 중국의 불필요한 의혹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하여 중국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해서 북핵 문제에 대해 한국이 취할 자세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북한에서의 돌발 사태에 대처하고 갈등을 예방 관리할 수 있는 기제(機制)를 중국과 공동으로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sup>35)</sup>

한·중 양국이 수교 15주년을 넘기면서 쌓아온 실적과 성과는 참으로 획기적인 것이었다. 수교 이래 한국 측의 역대 대통령들과 중국 측의 최고 지도자들 간의 정상회담은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왔고, 인적 교

---

35) 《朝鮮日報》, 2008.1.3.

류 역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종의 문화교류 또한 풍부한 성과를 일구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국의 북방외교와 중국의 선린우호외교가 조화롭게 접목될 수 있었던 데 기인한다. 또한 중국이 대남 경제우선 및 대북 정치우선(南經北政)이라는 정경분리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남북한 균형외교를 선택한데 따른 변화이기도 하다.

양국이 수교한 이후 상호 호혜적인 측면이 점진적으로 극대화된 양상을 보여 주는 것은 ‘협력적 동반자관계’에서 ‘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그리고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의 발전적 변화를 경험했다는 데서 입증되고 있다. 중국은 주변 정세의 장기적 안정과 경제협력의 다변적 확대라는 당면 과제를 실현하는데 한국의 협력이 필요했다면, 한국은 북한의 호전성과 근래의 핵보유 등의 부정적 이미지의 북한 요인을 불식하는데 중국의 협조가 불가피했던 것이다. 그리고 북한 체제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중국은 한국의 햇볕정책을 환영해 왔고, 한국은 중국의 대북 지원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한다는 입장에서 동조 지지해 왔던 데서 양국의 이해가 함께 모색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4.2. 새로운 전략적 협력외교

한국이 전략적 협력외교를 절실히 요구하는 이유는 북한 요인에 기인한다. 즉 북한의 오판에 따른 무력충돌이라는 위기 재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북한이 개혁·개방을 선택하여 한반도에서 통일 이전 단계로서의 평화공존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강대국들, 특히 중국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강대국 외교의 일환으로 협력외교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이다.<sup>36)</sup> 특히 북한 요인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므로 책임 당사국으로서의 한국은 당면과제 달성을 위해 4강은 물론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북한 핵은 6자회담에서 정책조율이 이루어지겠지만, 북한의 개혁·개방은 내정문제이므로 신중해 지지 않을 수 없다. 북한 핵 해결은 중대

36) 소치형, <한국 신정부의 대중국 외교정책 방향>, 《국제문제연구》 8:1(2008), 60-66쪽 참조.

한 과제이다. 하지만 한국이 독자적으로 배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 핵에 걸쳐 그에만 치중해 왔던 그간의 자세를 극복하여 핵을 넘어서는 포괄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국가이익과 이해관계를 지향해야 한다. 여기에 전향적·진취적으로 중국을 상대로 전략적 협력 외교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 냉전구조는 아직 해체되지 않고 있다. 핵문제와 정전체제 존속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이다. 중국의 협력유도와 긍정적 반응을 불러오기 위한 한국의 전략적 협력외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중국의 건설적 중재역할을 계속해서 기대해야 한다. 한·중 수교 이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다소 약화된 것은 사실이나,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유무형의 지원이 북한체제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중국은 아직도 북한의 정책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위치에 있다. 중국이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입장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중국의 노력이 의미심장한 것이 되도록 중국의 중재와 협력의 필요성을 관민차원의 채널을 통해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북·미 및 북·일 관계개선 과정에서도 유용하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나간다. 중국은 조화(和諧)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동북아와 한반도에서의 조화세계 건설은 4강관계의 원만한 유지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으로 달성가능하다. 한국이 중국에게 지속적으로 조화세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 책무를 촉구하는 외교상의 적극성을 보일 때, 중국의 우호적 반응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중국의 일부 전략가들은 북·미, 북·일 관계가 너무 급진적으로 발전되는 데 대하여 일찍부터 우려를 보이고 있는 점<sup>37)</sup>도 감안해서 큰 마찰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의 개혁개방과 정책변화 유도를 위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

37) 安洪泉, 〈調整中的美國對朝鮮政策〉, 《現代國際關係》第7期(1999.7), 24쪽.

를 지속적으로 촉구한다. 한국의 대북정책 기조는 무력 충돌 없고, 핵 없는 한반도 평화건설이다. 중국이 이를 존중하여 북한을 설득하고, 나아가 북한이 개혁개방을 선택하게 된다면, 북한 지역과 중국의 동북3성에 대한 한국의 투자규모가 대폭 확대되어 한·중 경제교류협력 만이 아니라 북한의 동반성장에도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키는 외교노력을 발휘해야 한다.

## 5. 결 론

한국은 냉전기에는 친미일변도 원칙아래 미국을 주요대상으로 외교정책을 수립 추진하였다. 최근에 와서 한국은 탈냉전시대의 분위기에 젖어 한반도의 안보현안을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자신의 독자외교보다는 중국에 편승하는 형식에 기대감을 보여 왔다.

강대국을 상대하는 입장에서 약소국의 선택은 자국의 의지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한국은 약소국으로서 그간 나름대로의 교훈을 얻었다. 그것은 독자적 안보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외부의 협조 없이는 안보유지가 불가하다는 현실주의 생존논리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분단 현실을 인정하고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추구하려 노력해 왔으나, 독자적으로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질서를 실현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절대 절명의 외교과제인 만큼 4강 외교 강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었다.

한국은 지정학적 측면에서, 어느 한 국가와만 결정적인 동맹을 맺거나 그에 안주하는 외교행태는 지양해야만 한다. 한국이 특정 국가와만 영원한 동맹관계에 의존한다는 것은 매우 비자주적 선택이다. 한국의 안보외교와 경제발전은 다자주의적 차원에서 그리고 전방위 각도에서 모색하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자에 와서 한·미관계의 전면적 재검토를 둘러싼 논쟁과 한·중관계의 재정립을 주장했던 것 등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다.

중국의 강대국화 여정은 당분간 제어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열망은 다분히 팽창적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이 우려해야 할 상황은 강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이 점차 배타적 민족주의와 신중화사

상에 천착하는 현실이다. 많은 국가들이 2008년 북경올림픽 성화 봉송에서 나타난 민족주의 선동에 대하여 우려를 보였던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중국의 강한 민족주의 감정 표출을 경계해야 할 이유는 북한과도 관계가 있다. 만일 중국이 강대국화에 집착하여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유혹에 끊임없이 빠져든다면 이는 필연코 북한을 자극할 소지가 매우 크다. 이는 북한의 핵 위주의 선군정치세력을 고무해 주는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사태로의 진전은 한국 안보에 중요한 위기 국면을 조성하게 된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의 중국이 기존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자로서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국제질서의 옹호자로서의 변모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전략적 협력외교가 작동되어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가 그 만큼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현재 완전한 현상유지국도 아니고, 현상타파세력도 아니다. 한국은 외교적 대응에 있어 중국이 기본적으로 적대적이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일종의 유화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 외교적 지향이 다소 불확실성을 띠고 있으므로 명분과 실리가 없는 견제보다는 편승과 유화가 양국 관계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북 간의 이해상충을 예의주시하고 활용해야 한다.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 핵 위기를 극복하여 안보를 확립하고, 중국과 동반 번영하는 기회를 공유하는데 필요한 ‘중국기회론’에 편승하여 경제실리를 도모해 나가는 양방정책도 재고해야 한다. 대중우호협력관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 전략적 협력관계의 확대와 외교현안의 성실한 추진은 한반도의 미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남북한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의 초석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데 있어 필히 요청되는 외교과제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김재관, 〈미중 양국의 패권경쟁심화와 상호대응전략의 비교〉, 《국제정치논총》 46:3(2006)
- 남찬순, 《북미 핵협상과 동북아질서》(서울: 나남, 2007)
- 박두복,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신 추세와 한중관계의 발전 방향〉, 《정책연구》(2001)
- 박병광, 〈부시 2기 행정부 등장과 중·미관계 전망〉, 《국제문제연구》 5:1(2005)
- 박종철·이상현·박영준·백승주(외), 《2020 선진한국의 국가전략( I ): 안보전략》(통일연구원, 2007)
- 박홍서, 〈북핵위기사 중국의 대북 동맹안보딜레마 관리 연구〉, 《국제정치논총》 46:1(2006)
- \_\_\_\_\_, 〈신현실주의 이론을 통한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40:1(2005)
- 브레진스키.Z 지음, 김명섭 옮김, 《거대한 체스판: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과 유라시아》(서울: 삼인, 2000)
- 산시우파/왕샤오웨이, 손상하 옮김, 《등소평과 21세기 중국의 전략》(서울: 유스북, 2005)
- 서진영, 《21세기 중국외교정책: '부강한 중국'과 한반도》(서울: 폴리데이아, 2006)
- 소치형, 《중국외교정책론》(서울: 골드, 2004)
- \_\_\_\_\_, 〈한국 신정부의 대중국 외교정책 방향〉, 《국제문제연구》 8:1(2008)
- 스티븐 모셔, 심재훈 옮김, 《혜계문》(서울: 모티브, 2003)
- 윤덕민, 〈북한 급변사태 시 우리의 대외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1999)
- 윤희탁, 《신중화주의》(서울: 푸른역사, 2006)
- 예쓰청, 이우재 역, 《중국의 세계전략》(서울: 21세기북스, 2005)
- 이인호, 〈미국의 대중 위협인식과 한반도〉, 《국제문제연구》 7:1(2007)
- 이태환(편), 《강대국관계와 한반도 평화구축》, 제10차 세종연구소-중국

- 현대국제관계연구원 학술회의 보고서(2004년 8월 27일)  
\_\_\_\_\_, 〈21세기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하영선(편),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그물망국가 건설》(서울: EAI, 2006)  
정재호(편), 《중국의 강대국화》(서울: 길, 2006)  
조영남, 《후진타오시대의 중국정치》(서울: 나남, 2006)  
채규철, 〈북·중간 갈등실태와 관계재정립 가능성〉, 《국제문제연구》  
8:1(2008)  
최춘흠, 《중국의 대북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통일연구원, 2007)  
한석희,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대한 한국의 새로운 시각〉, 《한국정치학  
회보》 37:3(2003)  
황병덕,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통일연구원, 2005)  
董立文, 〈中共의全球戰略與「中國威脅論」〉, 《中國大陸研究》 39:9(1996.9)  
《鄧小平文選》(一九七五-一九八三)(北京: 人民出版社, 1983)  
上海社會科學院世界經濟與政治研究院, 《中國與世界》(北京: 時事出版社,  
2007)  
徐 堅, 〈和平崛起是中國的戰略抉擇〉, 《國際問題研究》 第2期(2004)  
時殷弘, 《戰略問題三十篇:中國對外戰略思考》(北京: 人民大學出版社, 2008)  
倪健民·陳子舜, 《中國國際戰略》(北京: 人民出版社, 2003)  
安洪泉, 〈調整中的美國對朝鮮政策〉, 《現代國際關係》 第7期(1999.7)  
顏聲毅, 《當代中國外交》(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4)  
楊 凡, 《中國外交方略》(武漢: 湖北人民出版社, 2006)  
楊昭全, 孫玉梅, 《中朝邊界史》(吉林: 吉林文化出版社, 1993)  
楊昭全, 韓俊光, 《中國關係簡史》(遼寧: 遼寧民族出版社, 1992)  
閻學通, 《美國霸權與中國安全》(天津: 天津人民出版社, 2000)  
李 青, 〈關於東亞安全合作的構想〉, 閻學通·金德湘(編)《東亞和平與安  
全》(北京: 時事出版社, 2005)  
中國國際問題研究所, 《國際形勢和中國外交藍皮書2006-2007》(北京: 當  
代世界出版社, 2007)  
鍾之成, 《爲了世界更美好:江澤民出訪紀實》(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6)  
崔志鷹, 〈中美兩國在朝鮮半島問題上的合作構想〉, 夏立平(編)《國際戰略  
縱橫 第一輯》(北京: 時事出版社, 2005)

- 胡 才, 〈消除‘中國威脅論’的影響發展中國與東南亞的關係〉, 《亞太研究》第6期(1993)
- Bernstein, Richard and Ross H. Munro, *The Coming Conflict with China*(New York: Alfred A. Knopf, 1997).
- Conable, Barber B. and David Lampton, "China: The Coming Power," *Foreign Affairs*, Vol. 71, No.5(Winter 1992/93).
- Gallagher, Michael G. "China's Illusory Threat to the South China Sea," *International Security*, Vol. 14, No. 1(1994)
- Harrison, Selig S. *Korean Endgame: the Strategy of Reunification and U.S. Disengagement*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 Kristof, Nicholas D. "The Rise of China," *Foreign Affairs*, Vol. 72, No. 5(November-December 1993).
- Lieberthal, Kenneth, "A New China Strategy," *Foreign Affairs*, Vol. 74, No. 6(November-December 1995).
- Menges, Constantin C. *China: The Gathering Threat*(N.Y.: Nelson Current, 2005).
- Mosher. Steven W. *Hegemon: China's Plan To Dominate Asia and The World*(Sanfrancisco: Encounter Books, 2000).
- Munro, Ross, "Eavesdropping on the Chinese Military," *Orbis*, Vol. 38, No. 3(Summer 1994).
- Nye, Joseph S. "China's Re-emergence and the Future of the Asia-Pacific," *Survival*, Vol. 39, No. 4(Winter 1997-1998).
- Roy, Denny, "'The China Threat' Issues," *Asian Survey*, No.8(August 1996).
- Segal, Gerald, "Does China Matter?", *Foreign Affairs*, Vol. 78, No.5(September/October 1999).
- Shambaugh,, David, "Growing Strong: China's Challenge to Asian Security," *Survival*, Vol. 36, No. 2(Summer 1994).
- Yan Xuotong, "The Rise China in Chinese Eye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10, No. 26(2001).



### 〈中文提要〉

本篇论文的目的在于找出强化韩、中战略关系的方案。即为确保韩国的生存，对国土分断的现象进行稳定的管理，为未来韩半岛的和平统一，找出长期有效率的外交方案。

中国把可持续性发展作为国家建设的基本政策，并一贯坚持和平的对外策略，因此，中国希望韩半岛的和平与安定。

在韩国的立场上看，韩国为了韩半岛的安定、北韓的和平和无核化，需要中国的协助也是理所当然的。虽然到现在韩国与中国在政治、外交方面互相有了密切的关系，但中国的双重性态度和立场屡次破灭了韩国的期待。

韩国要消除北韓的好战性、有核化等否定印象，需要中国的协助。还有，在北韩体制维持的观点上，中国欢迎韩国的阳光政策。韩国充分理解中国在解决北韩问题中的影响力，在缓解韩半岛的紧张和安定和平上中国的贡献是不可缺的，从这种立场出发韩国重视与中国战略性的协力伙伴关系。所以韩国应从战略上推行更强烈的鼓励中国当建设性仲裁者的外交政策。而期待北韓的改革开放影响韩半岛的肯定性的效果，同时要推进帮助中国对北韩影响力行使起着较大的作用。

因此，韩国为消除北韓的核危机确保韩半岛安定，以及在和中国共同繁荣的过程中共享发展机会，为自己打造南北和平统一的基础，需要对美、对中的战略协作关系进行行之有效的改善和强化。

**關鍵詞：**北核，和平崛起，中国威胁论，先军政治，韩半岛和平

투 고 일 : 2009.2.13

심 사 일 : 2009.3.10-3.30

게재확정일 : 2009.4.25

## 《中國學》 발행 규정

### 제1조 (명칭)

본 학회지의 영문 명칭은 “Chinese Studies”, 한글 명칭은 “중국학”, 한자 명칭은 “中國學”으로 한다.

### 제2조 (발행처)

학술지의 발행처는 대한중국학회이며, 출판인쇄는 본 학회와 계약한 출판사로 한다.

### 제3조 (발행회수)

본 학회지의 발행회수는 년 3회로 한다.

### 제4조 (발행일정)

본 학회지의 발행은 년 3회 발행하되 다음과 같은 일정에 의해 발행한다.

1) 학술지 발행 시기: 학술지는 매년 4월 30일, 8월 31일과 12월 31일, 3회 발간한다.

2) 원고 마감 시기: 4월 30일 발행분은 2월 28일, 8월 31일 발행분은 6월 30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0월 30일을 원고 마감일로 한다. 단 우송된 원고는 우송일자 소인을 기준으로 위의 기준을 적용한다. 학술지의 발행과 관련한 구체적 일정은 다음 표와 같다.

#### ※ 심사 절차 및 일정표

발행월	4월	8월	12월
원고마감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0일
편집위원회 개최 심사위원 선정 논문 및 심사표 발송 평가 의뢰	3월 10일	7월 10일	11월 10일

논문심사	3월 20일	7월 20일	11월 20일
논문심사 결과 취합 및 게재 여부 결정	3월 31일	7월 31일	11월 30일
결과 통보(게재여부 및 수정지시 통보)	4월 10일	8월 10일	12월 10일
원고 수정 및 반송	4월 17일	8월 17일	12월 17일
수정 원고 재심사	4월 20일	8월 20일	12월 20일
《중국학》 편집 및 인쇄	4월 27일	8월 27일	12월 27일
《중국학》 발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 제5조 (논문의 투고, 심사, 게재 확정일의 표기)

소정의 심사절차에 의해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개별논문에 대해 심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해 논문의 투고일, 심사개시일, 1차 수정일, 2차 수정일, 게재확정일 등 심사단계를 표기한다.

### 제6조 (원고 수집, 검토 및 채택)

1. 원고 수집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2. 원고 검토 및 심사, 게재 여부는 학회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3. 인쇄 전 기타 제반업무는 본 학회의 사무국에서 논의하여 시행한다.

### 제7조 (심사료 및 게재료)

1. 논문 투고시 6만원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2. 논문의 게재 확정시 저자는 게재료 10만원(연구비 수혜논문은 2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 학회는 출판 후 논문 1권과 별쇄본 20부를 저자에게 우편 발송한다. 단, 별쇄본의 추가인쇄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3. 기타 발행비용 및 수입에 관련된 사항은 학회 사무국에서 논의하고 학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 大韓中國學會 會則

### 第1章 總 則

#### 第1條

本會는 大韓中國學會라 稱한다. 以下 本會라 稱함.

#### 第2條

本會의 本部는 會長所屬校內에 둔다.

#### 第3條

本會는 中國學 관련 분야를 研究함으로써 韓國의 學術문화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4條

本會는 第3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活動을 한다.

- 1) 國內·國際學術會議 및 學術講演會 開催
- 2) 會誌 및 其他 出版物 發刊
- 3) 國內外 學術團體와의 學術 및 文化交流
- 4) 其他 必要한 事業

### 第2章 會 員

#### 第5條

本會의 會員은 正會員·準會員·名譽會員·團體會員으로 한다.

#### 第6條

本會의 會員은 다음과 같은 資格을 가지고 本會의 趣旨에 贊同

하는 자로서 正會員 2명 以上の 推薦으로 任員會의 承認을 얻어 정한다.

1) 正會員 : 大學 및 이와 同等한 教育機關에서 中國學 관련 講議를 맡고 있는 講師 以上の 사람, 또는 이와 同等한 資格을 갖춘 사람.

2) 準會員 : 大學院에서 中國學 관련 분야를 專攻하는 사람.

3) 名譽會員 : 本會의 目的에 贊同하고 本會의 發展에 功勞가 顯著한 사람.

4) 團體會員 : 本會의 趣旨에 贊同하는 단체.

### 第7條

本會의 會員은 다음과 같은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1) 正會員은 總會에서의 議決權과 任員의 選舉權 및 被選舉權을 가지며 本會의 活動을 위한 會費納付 및 會則을 遵守할 義務를 가진다.

2) 準會員·名譽會員·團體會員은 本會가 主催하는 各種 行事に 參與할 수 있으며 準會員은 總會의 議決에 따른 所定の 會費納付 義務를 가진다.

### 第8條

本會에 加入한 會員은 本人의 事情에 따라 任意로 脫退할 수 있다.

## 第3章 任員

### 第9條

本會는 會長·副會長·運營委員·理事·監事 등의 任員을 두고, 顧問·名譽會長을 둘 수 있다.

**第10條**

任員의 任期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단, 顧問과 名譽會長의 임기는 예외로 한다.

**第11條**

會長 1명·副會長 약간 명·運營委員 약간 명·監事 2인은 總會에서 選出하며 理事 약간 명은 任員會의 認准을 얻어 會長이 任命한다. 顧問·名譽會長의 경우는 會長이 추천하고 總會에서 추대한다.

**第12條**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本會의 諸般業務를 統轄하고 總會 및 任員會의 議長이 된다.

**第13條**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時에 首席 副會長이 이를 代理한다.

**第14條**

運營委員은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이나 其他 重要な 會務를 協議하고 處理한다.

**第15條**

幹事는 會長을 補佐하며 總務·學術·編輯·出版·研究·涉外·企劃 등 本會의 會務를 分擔하여 擔當한다.

**第16條**

監事는 本會의 會計를 監査한다.

## 第4章 會議

### 第17條

本會의 會議는 定期總會·臨時總會·任員會·編輯委員會·研究倫理委員會로 하고 構成會員 1/3 以上の 出席으로 成立된다.

### 第18條

本會의 會議는 다음과 같은 경우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 1) 定期總會: 每年 8월중
- 2) 臨時總會: 會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正會員 3분의 1 이상이나 任員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 3) 任員會: 會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任員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단 任員會 任員은 會長·副會長·運營委員·幹事に 한 하며 顧問·名譽會長 및 監事는 除外된다.

### 第19條

本會의 議決은 出席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한다.

### 第20條

總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 1) 會長·副會長·運營委員·監事の 選出 및 顧問·名譽會長 추대
- 2) 豫算 및 決算
- 3) 會則改正
- 4) 事業計劃의 議決
- 5) 其他 必要한 事項

### 第21條

任員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 1) 總會에서 委任받은 本會의 運營 및 事業의 執行에 관한 事項

- 2) 會則改正案
- 3) 事業計劃案과 豫算決算案
- 4) 新入會員 審査 및 幹事の 認准
- 5) 其他 必要한 事項

### 第22條

編輯委員會는 本會의 論文集 및 기타 刊行物의 編輯을 주관하고 論文審査委員會를 委囑한다.

- 1) 編輯委員會는 會長이 任命한 中國學 關聯分野의 專門家 10명 전후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 2) 編輯委員長은 編輯委員會에서 선임하고 委員會의 當務를 主宰한다.
- 3) 編輯委員會에서 委囑하는 論文審査委員會의 構成과 論文審査에 관한 細則은 別途로 定한다.

### 第23條

研究倫理委員會는 本會의 論文集 및 기타 刊行物의 연구윤리 관련 사항을 주관하고 필요시 調査委員會를 구성한다.

- 1) 研究倫理委員會는 編輯委員長, 學術理事를 포함, 5인 이상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 2) 委員長은 會長이 임명하며, 幹事는 委員會에서 호선한다.
- 3) 委員은 會長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4) 기타 자세한 事項은 별도로 定된 研究倫理 규정에 따른다.

## 第5章 財 政

### 第24條

本會의 經費는 入會金·會費·贊助金 및 其他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단, 入會金과 會費는 定期總會에서 決定한다.

**第25條**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9월 1일부터 翌年 8월말일까지로 한다.

**第6章 附 則**

**第26條**

本會則의 改正은 總會에서 正會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會員 3분의 2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27條**

本會則의 施行上 必要한 細則은 總會와 任員會에서 別途로 定한다.

**第28條**

本會는 本會則 第4條의 事業을 위하여 必要에 따라서 약간의 分科를 둘 수 있다.

**第29條**

本會則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一般慣例에 따른다.

**第30條**

本會則은 通過日로부터 그 效力을 發生한다.

제정 1984년 10월 23일

개정 2000년 2월 26일

개정 2001년 8월 20일

개정 2007년 11월 24일

## 편집위원회 규정

### 1) 편집위원회의 구성

회칙 제4장 제22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 2) 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회지인 《中國學》의 편집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3) 위원의 선정 기준

가. 전국 각 대학 전임강사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중국학 전공자  
나. 연구 활동이 왕성하고 학문적 성취가 탁월한 자

### 4) 위원의 선정 절차

가. 편집위원은 임원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선정한다.  
나. 전공,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하여 20명 이상의 인원을 추천받아 최종 10명 전후의 인원을 선정 위촉한다.  
다. 최종 선정 위촉된 편집위원 중에서 1인을 이사로 선임한다.

### 5) 위원의 임기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 6) 위원회의 개최

가.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주재한다. 단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학술이사와 협조하여 당무를 주재한다.  
나. 매호의 학회지 발간을 위한 제1차 편집위원회는 4월 30일 발행분은 3월 10일, 8월 31일 발행분은 7월 10일에, 12월 31일 발행분은 11월 10일에 개최한다.  
다. 이후의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발행 준비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횟수로 소집 개최한다.

## 논문심사 규정

### 1) 심사의 취지

학회지에 게재될 논문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내외의 중국학 학술발전을 촉진한다.

### 2) 심사 시기

매년 4월 30일 발행분은 3월 10일 편집회의를 거쳐 심사를 의뢰하여 3월 31일 심사를 마감하고, 8월 31일 발행분은 7월 10일 심사를 의뢰하여 7월 31일 심사 마감, 12월 31일 발행분은 11월 10일 심사를 의뢰하여 11월 30일에 심사를 마감한다.

### 3) 심사위원의 자격

- 가. 전국 각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중국학 전공자
- 나. 투고된 원고와 같은 분야에 관한 저서나 논문을 발표한 자가 있는 자

### 4) 심사위원의 선정 및 위촉

- 가. 선정 시기: 심사위원은 매호 학회지 발간을 위한 제1차 편집위원회에서 위 3)의 '심사위원 자격'에 의거 선정한다.
- 나. 심사위원의 수: 투고된 논문의 1편 당 심사위원 수는 3명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심사위원의 위촉: 선정된 심사위원에 대해서 편집위원장은 지체없이 일정한 양식의 심사의뢰서와 심사서 양식 및 해당 논문의 사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 5)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편집위원장은 심사논문 발송 전 당해 논문의 저자를 인지할 수 있는

각 항목, 예컨대 필자 성명, 소속, 그리고 각주 및 참고문헌 중 ‘줄고’ 등으로 표기된 부분을 제거하여 필자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 6) 심사의 항목 및 배점

가. 심사항목은 ‘체제의 적합성’, ‘논리전개의 명확성’, ‘연구내용의 독창성’, ‘논문제목의 적합성과 논문의 완성도’, ‘학문적 기여도’의 5항목으로 한다.

나. 항목 당 배점은 20점으로 한다.

다. 심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심사항목을 변경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라. 심사항목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 7) 심사결과의 처리

가. 심사위원 3인의 평가결과가 평균 80점 이상을 득한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다.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문서를 통해 투고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라. 심사결과 심사위원의 의견제시와 편집위원의 판단에 의해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마. 수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바. 투고자가 수정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개진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재심을 할 수 있다.

#### 8) 표절 및 중복게재 금지

가. 심사과정, 혹은 게재이후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혐의가 있는 논문은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나. 심사위원회는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통보된 논문의 혐의점을 심사하여야 한다.
- 다. 표절이나 중복게재가 확인되면 학회에서는 본인의 소명절차를 거쳐 게재불가 혹은 게재취소의 판정을 내린 뒤 최소 3년 이상 논문발표 및 게재를 금지한다.
- 라. 본 학회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 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된 <대한중국학회 연구윤리규정>을 따른다.

#### 9) 심사의 면제

학회에서 초청한 국내외 저명 학자의 원고 및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외국인 초청학자의 논문은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10) 심사일정 명시

게재가 확정된 개별논문에 대해 심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해 논문의 투고일, 심사개시일, 1차 수정일, 2차 수정일, 게재확정일 등 심사단계를 기재한다.

#### 11)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된 <대한중국학회 논문심사세칙>에 따른다.

## 논문심사세칙

대한중국학회 학술지 《中國學》의 논문심사 규정 및 편집위원의 선정기준과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중국학 전반과 관련된 각 분야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 2)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에 따라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1) 체재의 적합성(20%)
  - (2) 논리 전개의 명확성(20%)
  - (3) 내용의 독창성(20%)
  - (4) 논문제목의 적합성과 논문의 완성도(20%)
  - (5) 연구 결과의 학문적 기여도(20%)
- 3) 심사 결과는 (1) 게재 적합 (2) 수정 후 게재 (3)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 부적합 등으로 나눈다.
- 4) 상기 3)항의 (2)에 해당되는 논문은 심사평가서에 의거, 투고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3)에 해당되는 논문은 차기 논문집의 심사 대상에 우선 포함한다.
- 5) 편집위원회는 학계의 분야별·전공별로 학술 업적이 뛰어난 자를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 6)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 7) 편집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의 논문심사위원회를 둔다.

- 8) 논문심사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두되, 3인 이상의 홀수 인원으로 구성한다.
- 9) 논문심사위원회는 심사 대상자가 근무하는 대학의 교수는 반드시 피하여 구성하도록 하며, 각 분야의 권위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 10) 논문심사위원회에는 외국의 학자도 참여할 수 있다.
- 11)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회의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12)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13)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원고를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14) 편집위원회 혹은 논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투고된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15) 본 학회에서 개최한 각종 학술대회에서 발표되고 공개토론을 거친 완성된 논문은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16) 원고 작성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심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필자에게 반송할 수 있다.
- 17) 원고 작성 요령은 별도의 투고규정을 참조한다.
- 18)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 19) 이상의 심사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 논문투고규정

### 1) 원고의 내용

중국학 전반에 관한 연구논문과 번역, 서평 및 학술활동 보고서, 그리고 연구 자료를 게재한다. 이 중 논문은 학술적 가치를 갖는 내용과 학술논문의 체계를 갖춘 것을 대상으로 하고, 번역은 중국학에 대한 고전적 저술 중 학술적 역주를 갖춘 글을 그 대상으로 한다.

### 2) 사용언어

우리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편집회의의 의결을 거쳐 기타의 외국어로 된 원고도 게재할 수 있다.

### 3) 인용문

원전을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어의 인용문은 우리말 번역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인용문에도 주석을 가한다.

### 4) 분량

논문은 당 학회의 원고작성요령을 준수하여 편집 기준 20쪽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초과할 시 초과분에 대한 별도의 조판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 5) 게재료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학회에서는 해당 학회지 약간 부와 추인본 약간 부를 증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6) 사이버 논문 공개

본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원고는 학회에서 개설한 홈페이지 혹은 관련 사이버 공간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7) 초록

논문은 중국어 또는 영어 초록(반쪽 분량)과 주제어(4개~10개)를 첨부하여야 한다.

## 8) 심사절차 및 일정

가. 원고마감: 4월 30일 발행분은 2월 28일, 8월 31일 발행분은 6월 30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0월 30일로 한다.

나. 심사의뢰: 4월 30일 발행분은 3월 10일, 8월 31일 발행분은 7월 10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1월 10일 이전에 완료한다.

다. 심사기간: 4월 30일 발행분은 3월 20일, 8월 31일 발행분은 7월 20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1월 20일 이전에 완료한다.

라. 게재결정: 4월 30일 발행분은 3월 31일, 8월 31일 발행분은 7월 31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1월 30일로 한다.

마. 결과통보(수정지시): 4월 30일 발행분은 4월 10일, 8월 31일 발행분은 8월 10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2월 10일로 한다.

바. 수정원고마감: 4월 30일 발행분은 3월 17일, 8월 31일 발행분은 8월 17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2월 17일로 한다.

사. 게재최종결정: 4월 30일 발행분은 4월 20일, 8월 31일 발행분은 8월 20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2월 20일로 한다.

아. 편집·인쇄: 4월 30일 발행분은 4월 27일, 8월 31일 발행분은 8월 27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2월 27일 이전에 완료한다.

자. 발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3회 발간한다.

## 9) 기타

저자명과 논문 제목은 영문을 병기하여야 한다. 기타 원고 작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원고작성요령'에 따른다.

## 원고작성 요령

학회지의 원활한 편집과 출판을 위해서 투고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꼭 규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글 워드는 한글 프로그램(2005 이상 권장)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중문 워드나 낮은 버전의 한글을 사용한 파일은 편집자 임의로 코드를 변환합니다. 이에 따르는 출력사고는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2. 중문으로 작성한 원고의 경우 번체자 또는 간체자 출력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요구가 없을 시에는 일률적으로 간체자 출력을 합니다.
3. 논문의 작성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여백(F7)

위쪽 60		머리말 10	
왼쪽 50			오른쪽 50
제본 0			
아래쪽 60		꼬리말 0	

스타일(F6)

		본문	인용문	각주
문단 Alt+T	왼쪽여백	0	0	0
	오른쪽여백	0	2	0
	들여쓰기	10pt(韓) 20pt(中)	27pt	18pt
	출간격	150	140	120
글자 Alt+L	대표한자	바탕	바탕	바탕
	장평	95	95	95
	자간	-1	-1	-1
	글자크기	10	9	9

4. 전체제목, 장 제목, 절 제목, 이름 및 참고문헌 등 3번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의 양식은 편집부에서 일괄 조정합니다.
5. 논문 제출 시 논문의 영문제목과 본인의 영문이름,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한글에서 지원하지 않는 벽자나 기호, 사진 등은 본인이 직접 스캔하여 파일 안에 첨부하여 주시고 출력본 1부에 해당 부분을 붉은색 펜으로 표시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7. 각주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단행본의 배열순서: 저자 및 역자명, 《서명》(출판지, 출판사, 출판연월), 인용 쪽수. 예) 胡雲翼 著, 장기근 역, 《중국문학사》(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74), 5쪽.
  - ② 논문의 배열순서: 논자명, 〈논문명〉, 《논문집명》 권수: 호수(출판연월), 인용쪽수. (예) 楊尙梅, 〈節操意識〉, 《三峽大學學報》 23:4(2001.7), 44쪽.
8. 참고문헌의 처리는 각주와 동일하게 처리하되 쪽수는 표기하지 않으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단행본: 胡雲翼 著, 장기근 역, 《중국문학사》(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74)
  - ② 논문: 楊尙梅, 〈節操意識〉, 《三峽大學學報》 23:4(2001.7)
9. 초록은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한글원고는 중국어 또는 영어로, 중국어원고는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10. 논문 제출자는 논문 제출과 동시에 심사료 3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교내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일 경우에는 조판비 15만원, 그 외에는 7만원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11. 논문 등재자가 받을 수 있는 별쇄본은 10부이며, 추가로 필요시 별도의 인쇄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12. 서명은 《 》(HNC 문자표 전각기호 일반: 3416, 3417), 논제, 작품명 및 편명은 〈 〉(HNC 문자표 전각기호 일반: 3414, 3415), 중간점은 ·(HNC 문자표 전각기호 일반: 3404)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부 ▷

## 대한중국어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7. 09. 01

대한중국어학회의 회원은 일체의 학술연구활동에 있어서 다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조 (표절의 금지)

1.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독창적인 연구 결과나 의견을 자신의 것인 듯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자가 타인의 연구 결과나 의견을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부호나 인용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출처를 명시하거나 자신만의 표현으로 바꾸어 기술해야 한다.
3. 연속된 20음절 이상의 내용을 인용 표현 없이 사용할 경우 표절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표절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한다.

### 제2조 (자기 복제의 금지)

1. 자기 복제라 함은 연구자가 기존에 출판했던 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내용을 다시 출판, 혹은 투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연구자는 자신이 출판했던 연구 결과와 완전히 또는 상당한 정도로 일치하는 연구 결과를 다시 출판, 혹은 투고해서는 아니 된다.
3. 연구자가 자신의 학위논문을 축약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논문을 투고할 경우,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논문은 자기 복제로 규정한다.
4. 연구 결과를 표시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자신의 기존 연구 결과를 기술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연구자는 주석 등을 통해 그 내용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5. 연구자가 전문 학술지에 게재한 연구 논문을 다시 자신의 단행본에 수록할 경우는 자기 복제로 보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에도 해당 연구 결과가 이미 연구 논문으로 출판된 적이 있음을 밝힐 것을 권장한다.

6. 연구자가 국문으로 작성한 연구 결과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해외에서 출판하는 경우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널리 소개하고 학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자기 복제로 보지 아니한다.

7. 연구자가 외국어로 작성한 연구 결과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국내에서 출판, 혹은 투고하는 경우, 해당 연구 결과의 번역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8. 연구자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기 위해 프로시딩에 게재하였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초고 형태로 발표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는 자기 복제로 보지 아니한다.

### 제3조 (연구 자료의 변형, 조작 등 금지)

1. 연구자는 자신이 입수한 객관적 형태의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 조작하거나 가공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부득이 연구 자료를 변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4조 (공동 연구자의 표기)

1. 연구자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연구 수행에 참여하고 연구 결과의 도출에 기여한 경우 해당 연구 결과에 자신의 성명을 표기할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2. 연구자는 연구 결과의 도출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구 결과에 자신의 성명을 임의로 표기하거나 다른 연구자에게 이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3. 연구 결과에 공동 연구자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구 수행 및 결과 도출에 있어 기여가 클수록 해당 연구자의 성명을 앞에 배열한다. 기여의 정도가 동일할 경우에는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배열하되 가운데 점(·)으로 각 연구자를 구별한다.

4. 공동 연구자의 성명을 표기함에 있어 책임연구자는 해당 연구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

#### 제5조(연구윤리 위원회)

연구윤리 위원회는 본 대한중국어학회의 학회지 《中國學》에 투고된 논문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편집이사, 학술이사를 포함, 5인 이상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연구부정행위 조사)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되되 전체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제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한다.

②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한다.

③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예비조사를 통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되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50% 이상 포함시켜야 하며, 조사위원회의 20% 이상을 본 학회 외부의 인원으로 위촉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제10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제11조(기피 · 제척 · 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시 기피신청된 위원은 배제된다.

2.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 · 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2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13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학회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2. 조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라고 판정한 경우,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에 대한 처리를 의결한다.

3.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4.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윤리위원회는 징계와 관련된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반드시 해당 대상자의 소명 내용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청취하여야 한다. 3회 이상의 소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상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위원회는 대상 논문의 학술지 수록·출판을 막론하고, 그 사실이 밝혀진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7. 조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①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학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②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의 학회지 논문투고를 최소 3년 이상 금지한다.

#### 제14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 제15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의 보호를 위해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자의 소속기관과 함께 제보의 접수와 검증에 관계된 연구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4. 위원, 조사위원, 혹은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중 혹은 조사 후,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연구윤리확약서)

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따라서 투고자는 학회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연구윤리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 부칙

1. 본 연구윤리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半年刊 **中國學** 第 32 輯

---

2009년 4월 24일 인쇄  
2009년 4월 30일 발행

編輯人：大韓中國學會  
會 長：金 泰 寬  
發行處：釜山市 釜山鎮區 伽倻洞 (☎ 614-714)  
東義大學校 人文大學 中語中文學科內  
TEL : (051) 890-1252  
H.P. : 016-644-4815  
E-mail : kkkang@deu.ac.kr

印刷處：中文出版社 (053) 424-9977

---